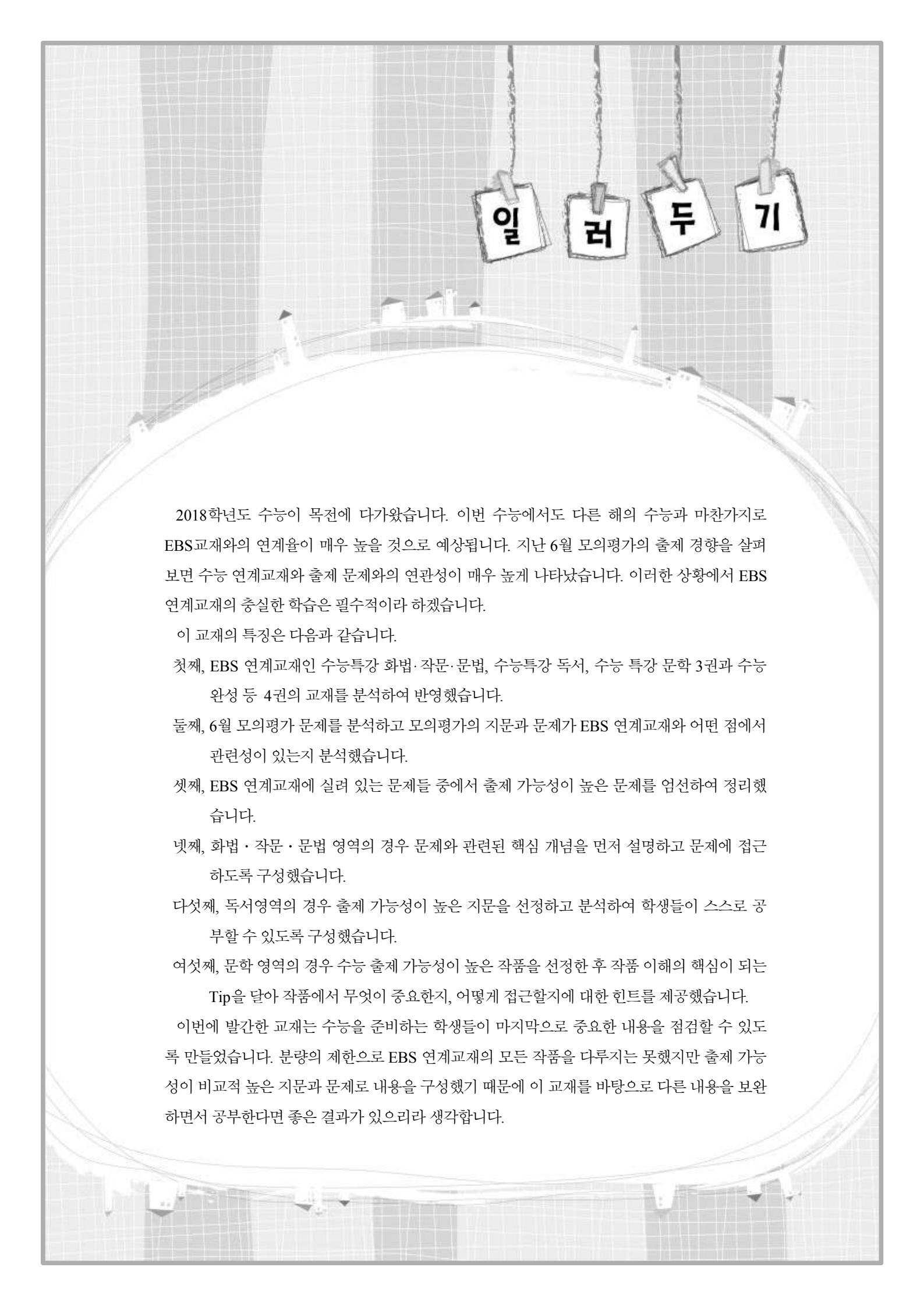


2018 수능 대비 EBS 연계 장학자료

국 어



부산광역시교육청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일러두기

2018학년도 수능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다른 해의 수능과 마찬가지로 EBS교재와의 연계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을 살펴 보면 수능 연계교재와 출제 문제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BS 연계교재의 충실한 학습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EBS 연계교재인 수능특강 화법·작문·문법, 수능특강 독서, 수능 특강 문학 3권과 수능 완성 등 4권의 교재를 분석하여 반영했습니다.

둘째, 6월 모의평가 문제를 분석하고 모의평가의 지문과 문제가 EBS 연계교재와 어떤 점에서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셋째, EBS 연계교재에 실려 있는 문제들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엄선하여 정리했습니다.

넷째, 화법·작문·문법 영역의 경우 문제와 관련된 핵심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문제에 접근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섯째, 독서영역의 경우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을 선정하고 분석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여섯째, 문학 영역의 경우 수능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선정한 후 작품 이해의 핵심이 되는 Tip을 달아 작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교재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분량의 제한으로 EBS 연계교재의 모든 작품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출제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지문과 문제로 내용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 교재를 바탕으로 다른 내용을 보완하면서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C/O/N/T/E/N/T/S

>>> 화법

1. 모의평가 기출 화법 살펴보기	001
2. EBS 교재와의 연계성 파악하기	001
3. 기출 문제 다시 보기	002
4. EBS 교재 핵심 문제 다시 보기	012
5. 연습 문제로 화법 정복하기	025

>>> 작문

1. 모의평가 기출 작문 살펴보기	033
2. EBS 교재와의 연계성 파악하기	033
3. 기출 문제 다시 보기	034
4. EBS 교재 핵심 문제 다시 보기	047
5. 연습 문제로 작문 정복하기	058

>>> 문법

1. 모의평가 기출 문법 살펴보기	067
2. EBS 교재와의 연계성 파악하기	067
3. 핵심 개념 정리하기	069
4. 유형별 핵심 문제 다시 보기	081
5. 연습 문제로 문법 정복하기	096

>>> 독서

1. EBS 교재에 수록된 독서 지문 한눈에 보기	105
2. 모의평가 기출 독서 살펴보기	108
3. EBS 교재와의 연계성 파악하기	108
4. EBS 교재에 실린 독서 지문 살펴보기	109

>>> 현대시

1. EBS 교재에 수록된 현대시 한눈에 보기	207
2. 모의평가 기출 현대시 살펴보기	208
3. EBS 교재와의 연계성 파악하기	208
4. EBS 교재에 실린 현대시 살펴보기	209

C/O/N/T/E/N/T/S

>>> 고전시가

1. EBS 교재에 수록된 고전시가 한눈에 보기	233
2. 모의 평가 기출 고전시가 한눈에 보기	234
3. EBS 교재와의 연계성 파악하기	234
4. EBS 교재에 실린 고전시가 살펴보기	235

>>> 현대소설

1. EBS 교재에 수록된 현대소설 한눈에 보기	258
2. 모의평가 기출 현대소설 살펴보기	259
3. EBS 교재와의 연계성 파악하기	259
4. EBS 교재에 실린 현대소설 살펴보기	260

>>> 고전소설

1. EBS 교재에 수록된 고전소설 한눈에 보기	290
2. 모의평가 기출 고전소설 살펴보기	291
3. EBS 교재와의 연계성 파악하기	291
4. EBS 교재에 실린 고전소설 살펴보기	292

>>> 수필·극문학

1. EBS 교재에 수록된 수필 한눈에 보기	323
2. EBS 교재에 수록된 극문학 한눈에 보기	323
3. 모의평가 기출 수필·극문학 살펴보기	324
4. EBS 교재와의 연계성 파악하기	324
5. EBS 교재에 실린 수필 살펴보기	325
6. EBS 교재에 실린 극문학 살펴보기	330

>>> 부록(정답 및 해설)	338
-----------------------	-----



화법

1 모의평가 기출 화법 살펴보기

<6월 모의평가>

[1~3]	발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의 복원에 대한 발표	EBS 연계교재의 문항 아이디어 활용
[4]	인터뷰	발명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EBS 연계교재의 문항 아이디어 활용

2 EBS 교재와의 연계성 파악하기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의 화법 문제는 발표와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의 특징 파악하기, 발표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청중의 질문 내용 추론하기,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비교해 볼 때, 지문의 구성 방식이나 문항 수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화법에서 지문 2개에 5문항이 출제됐다. 하지만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화법의 경우 화법 단독 지문 1개에 3문항이 출제되었고, 화법과 작문 통합형 지문에서 화법 1문항이 출제되었다. 화법과 작문을 통합하여 출제한 4~7번 문항이 지난해와 가장 크게 달라진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수능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6월 모의평가에서 화법은 수능연계 교재인 EBS 수능특강 「화법 · 작문 · 문법」 교재에서 다룬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화법의 개념 및 원리, 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요구되는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 등을 측정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수능에서도 이러한 출제 경향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수험생들은 EBS 연계 교재와 6월과 9월의 모의평가 문항을 복습하면서 마무리 학습을 해주길 바란다.

3

기출 문제 다시 보기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2018학년도 6월 모평)

안녕하세요? 지난 주 진로 시간에 우리 학급은 ‘디지털 기술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들었는데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쉽게 이해하고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강연을 들어 잘 알고 있듯이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라는 개념이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요,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문화유산을 디지털 자료로 변환하여 보존하거나 그것을 가상의 공간에 복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을 활용하면, 파손 정도가 심해서 사라질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을 디지털 자료의 형태로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훼손이 심각하여 현실의 공간에 복원이 불가능한 문화유산을 가상의 공간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화유산을 직접 접하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서 그러지 못한 적이 있지요?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을 활용하면,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여 간접적이지만 문화유산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상 체험 기술과 결합하여 문화유산을 가상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석굴암을 가상 체험 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문화유산을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만드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관심이 많은데,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에도 관심을 가져 본다면 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술은 문화유산 복원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에서 더 나아가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도 관심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요? 마침 학교와 가까운 ○○ 박물관에서 ‘디지털로 복원한 조선 시대 한양 도성 체험전’이 다음 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 한양 도성을 저와 함께 걸어 보지 않겠어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며 문화유산 복원에 디지털 기술이 유용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 성공한 요인을 제시하며 다양한 학술 분야 간의 연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복원의 장점을 소개하며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권유하고 있다.
- ④ 문화유산과 관련된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기술의 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문화유산 훼손의 근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문화유산 복원에 학생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문제 해결 전략

발표에 드러난 말하기의 특징을 파악한다.

확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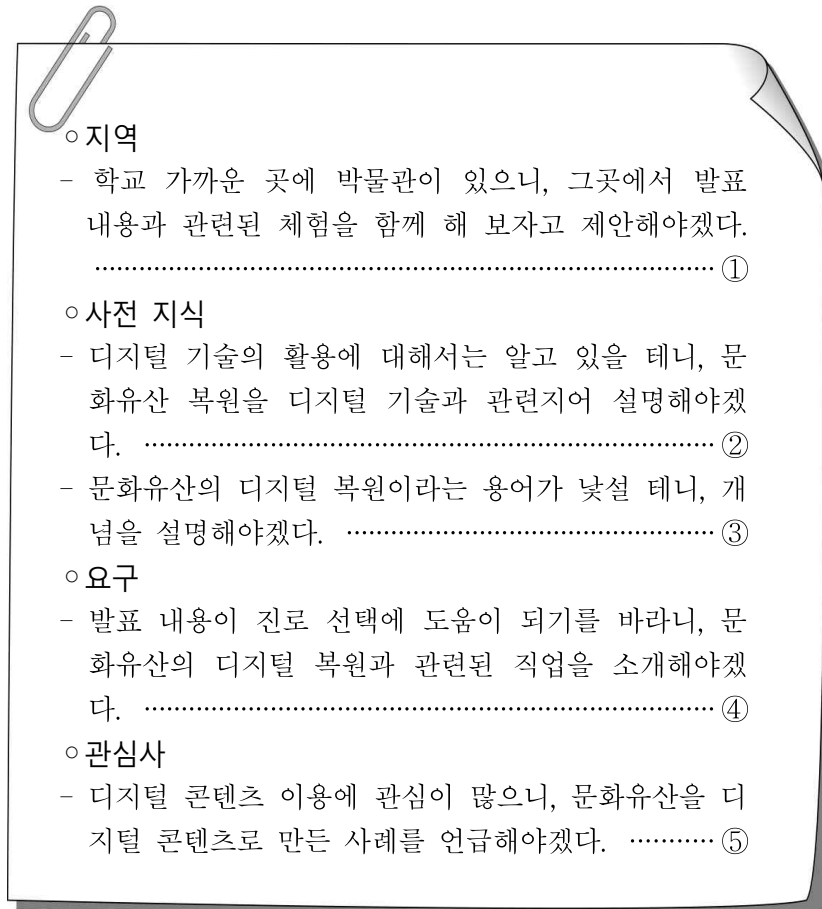
발표자는 3, 4문단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복원의 장점을 소개하였고, 5문단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에서 더 나아가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도 관심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요?’라는 말을 통해 청중에게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권유하고 있다.

[정답 ③]

확인2

① 문화유산 복원에 디지털 기술이 유용함을 소개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제시한 부분은 없다. ②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 성공한 요인을 제시한 부분은 없으며, 다양한 학술 분야 간의 연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진술도 찾을 수 없다. ④ 문화유산과 관련된 산업의 발전 가능성, 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부분은 없다. ⑤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문화유산 훼손의 근원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2.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해 사전에 청중을 분석하여 세운 발표 계획이다. 발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지역
 - 학교 가까운 곳에 박물관이 있으니, 그곳에서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체험을 함께 해 보자고 제안해야겠다. ①
- 사전 지식
 -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테니, 문화유산 복원을 디지털 기술과 관련지어 설명해야겠다. ②
 -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라는 용어가 낯설 테니, 개념을 설명해야겠다. ③
- 요구
 - 발표 내용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니,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과 관련된 직업을 소개해야겠다. ④
- 관심사
 -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관심이 많으니,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만든 사례를 언급해야겠다. ⑤

■ 문제 해결 전략

발표 계획이 적절한지를 파악한다.

확인1

청중 분석을 통해 청중이 ‘발표 내용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요구할 것이라 생각하고 ‘디지털 복원과 관련된 직업을 소개’하는 발표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발표에서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 관련된 직업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정답 ④]

확인2

① 5문단에서 학교 가까운 곳의 박물관에서 디지털로 복원한 한양 도성 체험전을 함께 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지난번 강연으로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테니 이번 발표에서는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 대해 말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청중이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청중이 평소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석굴암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3. 다음은 위 발표를 들으며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자에게 질문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라 디지털 복원의 가능 여부가 다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 같아.

- ① 발표 내용이 유형 문화유산에만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한옥을 짓는 기술과 같은 무형 문화유산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복원할 수 있는 건가요?
- ② 얼마나 훼손되어야 현실 공간에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게 불가능 한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복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문화유산을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어떤 원리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 ④ 문화유산의 복원을 과학 기술의 차원에서만 다룬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제도적 차원에서 문화유산의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개인이 소장한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다면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 문제 해결 전략

발표자에게 질문한 내용이 적절한지를 파악한다.

확인1

발표를 들은 학생은 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라 디지털 복원의 가능 여부가 다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발표자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 ①은 발표에서 언급하고 있는 석굴암의 사례가 유형 문화유산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밝히며, 무형 문화유산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복원할 수 있는지 묻고 있으므로 발표자에게 질문할 내용으로 적절하다. [정답 ①]

확인2

② 문화유산의 훼손 정도에 따른 문화유산 복원 가능 여부를 묻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 ③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디지털 기술의 원리를 묻는 질문으로 학생이 떠올린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 ④ 과학기술 외의 제도적 차원에서 필요한 문화유산의 복원 노력을 묻는 질문으로 학생이 떠올린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 ⑤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했을 때의 소유권 문제는 학생이 떠올린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

[4~6]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7학년도 대수능)

사회자 : 우리 학교 동아리 축제에서 동아리 홍보관은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효과가 높기 때문에 동아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홍보관 설치를 위한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는 학생회가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공모하여 심사한 후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방식인 ㉠ 심사 방식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 추첨 방식을 요구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어, 이번 시간에는 ‘동아리 축제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할 때 추첨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1 : 동아리 축제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할 때 추첨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심사 방식의 평가 기준이 타당하지 않고, 평가자 주관에 개입될 수 있어 평가의 신뢰성이 낮아 학생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추첨 방식은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견해가 반영될 수 없습니다. 또한 추첨 방식으로 한다면 홍보관 운영 동아리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동아리에 균등하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들이 시간과 노력을 불필요하게 들이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반대 2 : 추첨 방식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 동아리 홍보관 운영을 더 잘 계획하고 준비한 동아리가 탈락할 수도 있죠. 준비가 덜 된 동아리가 선정된다면 동아리 홍보관 운영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요? [A]

찬성 1 :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된 동아리들은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므로, 홍보관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 홍보관 운영 동아리 선정을 추첨 방식으로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기존의 심사 방식은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을 줄일 수 있고, 평가 기준 역시 매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왔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방식은 모든 동아리가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구성원들이 동아리 축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고민하게 되므로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찬성 1 :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작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 기준 중의 일부가 특정 동아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평가 기준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B]

반대 1 : 그 문제는 평가 기준의 일부를 개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위 토론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찬성 1’은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 ② ‘찬성 1’은 기존 방식이 유지될 때 발생하는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 ③ ‘반대 1’은 논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반대 1’은 기존 방식의 긍정적 측면을 근거로 삼아 새로운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 ⑤ ‘반대 1’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 문제 해결 전략

입론의 내용 및 전략을 평가한다.

확인1

‘반대 1’은 입론에서 기존의 심사 방식이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므로 기존의 심사 방식을 유지하고 새로운 추천 방식으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대 1’은 기존 심사 방식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 기준의 타당성이 높다는 점, 계획 제출 기회가 공평하다는 점, 준비 과정을 통해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정답 ④]

확인2

① ‘찬성 1’의 입론에서 용어의 개념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찬성 1’은 입론에서 해당 동아리를 선정하는 방식이 심사 방식에서 추천 방식으로 바뀔 때 발생하는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주장하였으며, 기존의 심사 방식이 유지될 때 발생하는 기대 효과는 주장하지 않았다. ③ ‘반대 1’은 입론에서 기존 방식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논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⑤ ‘반대 1’은 입론에서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반대하여 기존 방식의 긍정적 측면을 열거하였으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5.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측이 제시한 사례가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적합한 사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② [A]는 상대측이 앞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고,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경우 생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 ③ [B]는 상대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믿을 만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출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④ [B]는 상대측이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평가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상대측이 인용한 전문가의 설명이 적합한지 따지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 문제 해결 전략

반대 신문의 말하기 전략을 추론한다.

확인1

[A]는 찬성 측 입론에 대한 반대 측의 반대 신문이며, 찬성 측 주장대로 추천 방식을 도입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더 잘 계획하고 준비한 동아리의 탈락 가능성, 동아리 홍보관 운영의

부실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B]는 반대 측 입론에 대한 찬성 측의 반대 신문이며, 작년 설문 조사 결과 자료를 근거로 기존의 심사 방식을 유지하자는 반대 측 발언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B]에서 찬성 측은 ‘평가하는 기준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와 같이 상대측이 앞서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였고, 평가 기준의 일부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평가 기준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정답 ④]

확인2

① [A]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에 따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찬성 측이 제시한 사례 대신 다른 적합한 사례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② [A]에서 반대 측은 ‘추첨 방식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와 같이 상대측이 앞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였고, 추첨으로 방식을 바꾸었을 경우 생길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기존 방식(심사 방식)을 고수할 경우 생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B]에서 찬성 측은 상대측이 말한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근거를 들었으나, 상대측이 사용한 근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근거의 출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⑤ [A]와 [B]에서 양측은 상대측의 주장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인용한 전문가의 설명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따지거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또한 반대신문 [A], [B] 이전의 논의에서 양측은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하지 않았다.

6. ㉠과 ㉡에 관한 토론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찬성 측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적합한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군.
- ② 찬성 측은 시간과 노력이 불필요하게 드는 ㉠의 문제점을 ㉡이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군.
- ③ 반대 측은 홍보관 운영을 더 잘 계획하고 준비한 동아리가 ㉡으로 인해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을 옹호하고 있군.
- ④ 반대 측은 동아리가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을 지지하고 있군.
- ⑤ 반대 측은 ㉡을 도입하면 모든 동아리에게 선정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된다는 점을 들어 ㉡이 ㉠보다 더 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군.

■ 문제 해결 전략

토론 내용을 분석한다.

확인1

반대 측은 추첨 방식을 반대하고 기존의 심사 방식을 옹호하는 토론자이다. ㉡의 추첨 방식을 도입하면 모든 동아리에게 선정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므로 ㉡의 추첨 방식이 ㉠의 심사 방식보다 더 공평하다는 주장은 반대 측의 주장이 아니라 찬성 측의 주장이다. [정답 ⑤]

[7~9] 다음은 학생들의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사회자: 이번 교내 학생 연설의 주제는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합시다’이고, 오늘 ㉠우리가 할 토의 주제는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교내 학생 연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야. 지금부터 ㉡우리가 할 연설에 대해 토의해 보는데 먼저 연설을 시작할 때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학생 1: 우선 연설을 할 장소와 연설을 들을 친구들의 특성을 감안해야 해. 연설 장소가 넓은 강당이고, 주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제각각인 친구들이 대상이니 인기 가요를 틀어 친구들의 주의를 끄는 게 어떨까?

학생 2: 글썄, 그 방법은 이미 다른 친구들이 여러 번 쓴 방법이라 더 이상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어려워.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건 어때?

학생 3: 연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연설 주제를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아.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이면 좋겠어. 그래서 말인데, 연설을 시작할 때 연설 주제에 적합한 시를 낭송한 후 사이버 언어폭력의 개념과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의 시급성을 언급하자.

학생 1: 응. 시 낭송은 참신한 방식이니 친구들의 주의를 끄는 데 도움이 되겠네. 주제와도 관련이 있으니 연설 내용 이해에도 도움이 될 거고.

학생 2: 그래. 생각해 보니 그 방법이 좋겠다.

사회자: 그럼, 이제는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자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에 적절한 근거와 그 제시 순서에 대해 논의해 보자. [A]

학생 1: 사이버 언어폭력 문제의 핵심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므로 이 점을 첫째 근거로 제시하자. 순식간에 확산되는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핵심 근거로 들어야 해. 피해 사례를 다룬 언론 보도 자료를 보여 주면 친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될 거야.

학생 2: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핵심 근거로 보는 네 의견에는 동의해. 그런데 친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첫째 근거로 제시하면 어떨까? 가해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르지만 사이버 언어폭력은 처벌받게 되는 범죄 행위라는 점을 첫째 근거로 들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 관련 법 조항을 자료로 제시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야.

학생 3: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 좋은 근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먼저 친구들이 이 문제에 공감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누구나 사이버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첫째 근거로 제시하면 친구들이 이 문제에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거야.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인용하면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호소하는 거지.

학생 1: 지금까지 제안된 근거와 자료는 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니 모두 채택하자. 단, 순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근거, 문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의 순으로 제시하면 좋겠어.

학생 2: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연설 마지막엔 친구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자.

학생 3: 좋아. 나도 동의해.

사회자: 그럼, 지금까지 ㉠ 합의된 토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설 계획을 정리해 볼게. 이제, 토의를 마치자.

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을 들을 청중의 특성이 고려되고 있다.
- ② ㉠에서는 ㉡이 행해지는 공간적 상황이 고려되고 있다.
- ③ ㉠에서는 ㉡에서 다룰 근거의 제시 순서가 논의되고 있다.
- ④ ㉠에서는 ㉡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 ⑤ ㉠에서는 ㉡의 마무리 부분에서 활용할 비언어적 표현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 문제 해결 전략

토의 내용을 통해 정보를 파악한다.

확인1

연설 마무리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연설 마지막엔 친구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한 학생 2의 네 번째 발언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무리 부분에서 활용할 비언어적 표현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확인2

① 학생 1의 첫 번째 발언에서 ‘친구들의 특성을 감안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학생 1의 첫 번째 발언에서 ‘연설 장소가 넓은 강당’이라는 점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근거와 그 제시 순서에 대해 논의해 보자.’라는 사회자의 두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제시된 토의 내용 대부분이 연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 모색과 관련되어 있다. 즉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 찾기와 제시 순서 정하기,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보도 자료, 법 조항, 통계 자료 등)에 대한 언급 등이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8. [A]에 나타난 참여자들의 발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학생 1은 청중의 주의 집중 효과 측면에서 ㉠에 대한 학생 3의 제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② 학생 2는 청중의 주의 집중 효과 측면에서 ㉠에 대한 학생 1의 제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③ 학생 3은 연설 주제와의 부합 여부 측면에서 ㉠에 대한 학생 2의 제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④ 학생 2는 핵심 근거로서의 적합성 측면에서 ㉠에 대한 학생 1의 제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⑤ 학생 3은 청중의 경각심을 유발하는 측면에서 ㉠에 대한 학생 2의 제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문제 해결 전략

참여자들의 발화 내용을 파악한다.

확인1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대해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 좋은 근거라고 생각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3이 학생 2의 발언에 대해 경각심 유발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확인2

① 학생 1은 ‘연설 주제에 적합한 시를 낭송’하여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시키자는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도움이 되겠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② 학생 2는 학생 1이 제안한 ‘인기 가요를 틀어 친구들의 주의를 끄는’ 방식에 대해 다른 친구들이 여러 번 쓴 방법이어서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③ 학생 3은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자는 학생 2의 제안에 대해 연설 주제를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④ 학생 2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자.’는 학생 1의 발언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9. 사회자가 ㉠에 따라 연설 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이버 언어폭력 행위는 처벌 대상임을 관련 법 조항을 들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②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연설을 시작할 때 주제와 관련된 시 작품을 활용해야겠어.
- ③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언론 보도 사례를 활용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④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자가 늘어날수록 가해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른다는 것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⑤ 누구나 사이버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자 관련 통계 자료를 인용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문제 해결 전략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운 연설 계획이 적절한지 파악한다.

확인1

학생들의 발언 중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자가 늘어날수록 가해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른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이를 합의된 토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확인2

① 학생 2의 세 번째 발언 내용으로 학생 1, 학생 3 모두 동의하고 있다. ② 학생 3의 첫 번째 발언 내용으로 학생 1, 학생 2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③ 학생 1의 세 번째 발언 내용으로 학생 2, 학생 3 모두 동의하고 있다. ⑤ 학생 3의 두 번째 발언 내용으로 학생 1, 학생 2 모두 동의하고 있다.

4 EBS 교재의 핵심 문제 다시 보기

[1~2]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수능특강 65~67쪽)

사회자: 오늘은 ‘학교 운동장을 인조 잔디 운동장으로 교체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인조 잔디 운동장은 여기 그림과 같이 (모니터 화면을 제시하며) 인조 잔디 파일, 충전재, 인조 잔디의 하부 구조인 탄성 포장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인조 잔디 운동장은 교육부와 문화 체육 관광부가 공동으로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에 힘입어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의 총 1,870개교 이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조 잔디 운동장을 설치하는 학교가 많은 이유는 무엇보다 사용상의 편리성이나 관리상의 비용 때문입니다.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일 년 내내 사용할 수 있고, 설치된 후에는 유지와 관리에 대한 비용이 들지 않아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사 운동장은 주기적으로 토사를 매립하고 지면을 고르게 펴 주는 작업을 해야 하는 등 관리 비용도 꾸준히 들어갑니다.

반대 1: 그러나 인조 잔디 운동장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운동장에 선을 그리면서 하는 체육 활동이 많은데 이런 활동에 제약이 있으며, 초기 설치에 드는 비용이 막대합니다. 과연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유지와 관리에 드는 비용이 적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인조 잔디는 수명이 다하면 전면 교체를 해야 하므로 비용이 토사 운동장에 비해 많이 듭니다.

찬성 2: 인조 잔디로 교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사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을 하면 토사가 일으키는 먼지로 인해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체육 활동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찰과상의 위험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토사는 주로 물빠짐이 용이한 자갈과 모래로 되어 있는데 이는 운동을 할 때 마찰력이 적고 완충 작용을 하지 못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넘어지는 경우에는 피부에 출혈을 동반한 깊은 상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 2: 지금 건강한 체육 활동을 찬성의 근거로 제시하셨는데, 오히려 인조 잔디 운동장 자체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국민 체육 진흥 공단이 2014년에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인조 잔디 운동장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전체의 16.7%에 달하는 173개 운동장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중금속의 일종인 납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학교가 133개교, 크로뮴은 15개교, 카드뮴은 2개교였습니다.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인조 잔디 운동장의 유해 물질을 관리하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라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성인보다 면역 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인조 잔디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해롭습니다.

찬성 1: 인조 잔디의 유해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2010년도에 이와 관련하여 한국 산업 표준으로 ‘학교 체육 시설 -인조 잔디 KSM 3888-1’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한국 산업 표준, 즉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기준은 학교의 생활 체육 시설에 사용되는 인조 잔디의 품질 기준과 시험방법을 정의하고, 여기에 사용되는 충전재, 원사, 파일, 충격

흡수 패드의 품질 기준과 시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무분별하게 조성된 일부 인조 잔디 운동장의 문제점을 가지고 전체 문제로 일반화하거나, 모든 인조 잔디 운동장을 유해한 공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 근거에 의거한 기준에 따라 안전한 소재를 이용하여 잘 구축한다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사 운동장에서도 납과 같은 중금속이 검출된 사례가 있고 관련 안전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 역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므로, 인조 잔디 운동장만 안전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반대 2: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설치 기준 규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A]

얼마 전 뉴스에서 한여름 뜨거운 태양열을 받으면 인조 잔디에서 유해 물질이 더 심하게 방출된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설치 당시에만 품질 기준을 통과한 인조 잔디에서 사용 기간이 지날수록 유해 물질이 방출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1. 위 토론의 내용을 쟁점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토론 주제	학교 운동장을 인조 잔디 운동장으로 교체해야 한다.	
쟁점1: 편리성	찬성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일 년 내내 사용할 수 있다.
	반대	선을 그리며 하는 체육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불편하다.①
쟁점2: 비용	찬성	인조 잔디 운동장은 설치된 후에는 유지와 관리에 대한 비용이 들지 않지만 토사 운동장은 주기적으로 관리비가 든다.②
	반대	초기 설치 비용이 막대하고 인조 잔디 수명이 다하면 교체해야 한다. 결국 토사 운동장 관리비보다 더 많이 든다.③
쟁점3: 학생 건강	찬성	토사 운동장에는 토사 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 있으며 학생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 인조 잔디 운동장은 품질 기준에 따라 안전한 소재를 사용하면 유해하지 않다.④
	반대	체육 활동을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에는 피부에 출혈을 동반한 깊은 상처가 날 수 있으며, 인조 잔디 운동장을 만드는 소재 자체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⑤

2. 위 토론의 맥락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규제 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소재를 생산해 내는 업체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 ② 설치한 이후에 인조 잔디 운동장의 유해 물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 ③ 토사 운동장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극히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한 오류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 ④ KS 기준은 학교의 생활 체육 시설에 알맞은 기준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산업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 ⑤ 품질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에 적합한 소재인지 판단하는 시험 방법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3~4]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수능특강 98~100쪽)

사회자: 요즘 대학 입시에서 봉사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에서는 학급별로 봉사 활동의 날을 정해 집중적으로 봉사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우리 학교 신문은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급별 봉사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76%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결과를 보도하였습니다. 오늘은 토의를 통해 학급별 봉사 활동의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확인하고 향후 봉사 활동의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 학우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 ○○: 만족도가 낮은 원인은 할 일에 비해 인원이 너무 많아 일부 학생만이 봉사에 참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빈둥거리게 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급 전체가 한 장소에 몰려가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 저는 시간만 채우려고 주로 관공서 청소나 공원 환경 정화 등 손쉬운 봉사 활동만 찾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봉사 활동을 하다 보니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낮은 만족도로 연결된 것이라 봅니다.

사회자: 김 ○○ 학우는 학급 전체가 한곳에 가는 것을, 이 △△ 학우는 학생들에게 보람을 주지 못하는 활동 내용을 문제점의 원인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생각하시는 대책은 무엇인가요?

김 ○○: 30명이 넘는 인원이 동시에 봉사 활동을 하려다 보니 봉사할 곳을 찾기 힘들고, 그러다 찾게 된 것이 비교적 섭외하기 쉬운 관공서입니다. 만약 학급 단위로 가서 함께 땀 흘리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봉사 활동이 가능하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으므로 개인별, 모둠별 봉사 활동으로 전체의 틀을 바꾸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 김 ○○학우가 말한 것에 동의하지만, 개인별, 모둠별로 실시하려다 보면 봉사할 곳을 찾지 못해 그나마 봉사의 기회마저 갖지 못하는 학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학급 단위로 진행하되 농촌 봉사 활동처럼 참신하고 보람 있는 봉사 활동을 구상해 보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사회자: 김 ○○ 학우는 학급 단위로 진행되는 봉사 활동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별, 모둠별 봉사 활동을 제안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김 ○○ 학우는 이 △△ 학우가 대안으로 제시하신 농촌 봉사 활동에 동의하시는지요?

김 ○○: 농촌 봉사 활동은 학급 전체가 가도 할 일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참신하고 보람 있을 것 같아 이 △△학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대안으로 제출된 농촌 봉사 활동의 실행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김 ○○ 학우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 ○○: 이 △△ 학우께서 제안하신 농촌 봉사 활동을 실행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장소를 어떻게 섭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 급우들 중 농촌에 사시는 친척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다면 그분들을 통해 장소를 섭외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선생님들께 부탁드려 학교 차원에서 특정 지역과 결연을 맺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김 ○○: 그렇군요. 그렇게 한다면 섭외의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농사일을 과연 우리들이 잘 해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더욱이 농기구를 한 번도 안 다루어 본 학우들이 대부분이니 말입니다. 오히려

봉사가 아니라 폐만 끼치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 △△: 그래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봉사지에 사시는 분께 우리가 봉사해야 할 일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여쭙어 보고,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인터넷 등을 검색하여 숙지해야겠지요. 그리고 이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농촌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께 부탁드려 방과 후에 농기구를 다루는 실습을 한다면 그런 염려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 ○○: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부모님 중에도 농촌 경험이 많으신 분이 계시다면 모셔서 도움을 얻어도 좋을 것 같네요. 더구나 농촌에 계신 분들이 우리에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일을 맡기시지는 않으실 테니 이런 정도로 준비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김 ○○ 이 △△ 두 학우의 토의를 듣고 농촌 봉사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나 이 과정에서 일어날 것 같은 문제점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의 절차를 바탕으로 위 토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절차	내용	
문제점 확인	● 학급별로 봉사 활동의 날을 정해 집중적으로 봉사 활동을 시행함.	㉠
문제점의 원인 분석	● 할 일에 비해 인원이 너무 많은 것 ● 학생들에게 보람을 주지 못하는 시간 때우기식 활동	㉡
대안 탐색	● 개인별, 모둠별로 나누어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현재처럼 학급 단위로 진행하되 참신하고 보람 있는 봉사 활동을 구상하여야 함.	㉢
대안 도출	● 농촌 봉사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행 방안 모색	● 봉사 활동 장소는 친척이나 학교 선생님을 통해 섭외할 수 있음. ● 실시 전에 해야 할 일을 학습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함.	㉤

4. ㉠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애인 봉사나 독거노인 돕기 봉사 등 의미 있는 봉사 활동이 많은데 굳이 농촌 봉사 활동을 제안하신 이유가 있나요?
- ② 봉사 활동을 학급 단위로 계획하다 보면 봉사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문제가 대두될 텐데요, 이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 ③ 봉사지에 사시는 분께 우리가 봉사해야 할 일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여쭙어 본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여쭙어 보아야 할까요?
- ④ 농촌 봉사 활동을 위해 급우들 중 농촌에 사시는 친척을 통하거나 선생님들의 도움을 얻어도 장소를 못 정하게 될 때를 대비한 해결책이 있나요?
- ⑤ 실제로 농촌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 의외로 빨리 끝나거나 몇몇 학생들에게 일이 편중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할 대책은 무엇인가요?

[5~6] 다음은 대학생 대표와 카페 대표 간의 협상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능완성 유형 122~124쪽)

대학생 대표: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회관 안에는 △△카페가 입점해 있는데요, 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 가격이 다소 비싸서 학생회 건의함에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커피 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을 제안합니다.

카페 대표: 네. 저도 학생들이 카페에 와서 커피 가격이 비싸다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들어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이 많아 카페 이용객들도 줄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협상을 통해서 학생들의 불만이 줄어들 수 있고, 카페 이용객이 늘어나면 저희 카페에도 좋은 일이니 어렵겠지만 협상을 시작해 봅시다.

대학생 대표: 현재 △△카페에서 판매되는 커피 가격을 1,000원 정도 인하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난달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커피 가격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1,000원 인하를 원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카페 대표: 그런데 커피 가격을 1,000원이나 인하해 달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커피 재료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현재 가격을 유지해도 크게 이익이 없습니다.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원래 가격 자체가 시중 카페에 비해서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300원 정도 인하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대학생 대표: 양측의 협상 목표를 확인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양측의 협상 내용을 조정하는 단계로 들어가 봅시다. 학생회관에 입점해 있는 △△카페는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로, 일부 교직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손님이 학생들인데 저희의 인하 요구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카페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게 될 것이고 학생들이 점점 카페를 이용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1,000원 인하가 어렵다면 500원 정도는 인하를 해 주십시오.

카페 대표: 500원 인하도 저희 카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독점이라고 하셨지만, 주말이나 방학 때는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 상황도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대학생 대표: 그럼 이 협상의 해결을 위해서 카페에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는 학생들에게는 500원을 할인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카페 입장에서도 종이컵 사용을 줄일 수 있고, 학생 입장에서도 좀 번거롭지만 텀블러를 가져가서 음료 할인을 받으면 서로 좋지 않을까요? 텀블러 할인 제도를 적용하면 △△카페의 친환경적 이미지가 부각되어 장기적으로 카페의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페 대표: 저희 입장에서도 종이컵 사용을 줄이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약이 되어 좋습니다. 그럼 개인 텀블러를 가져온 경우만 500원을 할인해 주는 학생회 측의 협상안을 받아들일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대표: 네. 그럼 학생들에게 협상 내용을 전달하고 텀블러 할인 제도에 대해서 학생회에서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 위 협상의 각 단계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협상 단계	각 단계의 진행 양상	평가		
		예	아니요	
시작 단계	양측은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가?	✓		…①
	양측은 협상의 목표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가?	✓		…②
조정 단계	양측은 안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가?		✓	…③
	양측은 각각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	…④
해결 단계	양측은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는가?	✓		…⑤

6. 다음 자료를 위 협상에서 활용한다고 할 때, 그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1] 15일 국제커피기구에 따르면 아라비카 원두 가격이 7일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34.7%나 올랐다. 원두 가격이 오른 가장 큰 요인은 최근 엘니뇨의 영향으로 주요 산지인 브라질, 베트남 등에서 가뭄을 겪으면서 작황이 나빠지게 된 것이다. 작황이 나빠져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두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 ○○ 신문, 2016년 11월 23일

[자료 2] 포장 판매 카페 등이 성행하는 우리나라의 한 해 종이컵 소비량은 120억 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오직 종이컵 생산만을 위해 한 해 8만 t의 천연 펄프가 수입되는데, 이는 50cm 이상 자란 나무 1,500만 그루의 목숨값이다. 일회용 종이컵은 ‘펄프 → 종이 → 컵’의 공정을 거쳐 배달되고 사용된 뒤, 태워지거나 묻힌다. 각 과정에는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화학 약품이 사용된다. 종이컵의 전 생애에 걸쳐 소요되는 에너지와 배출 오염 물질 데이터를 총괄해 ‘전 과정 평가’를 해 보면 5g의 무게가 나가는 종이컵 1개당 11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쓴다면 ‘지구를 구하자’라는 구호를 수십 번 외치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완벽하게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된다.
- ○○ 신문, 2016년 6월 23일

- ① [자료 1]에서 원두 가격이 상승했다는 내용은 가격 인하가 어렵다는 ‘카페 대표’의 협상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② [자료 1]에서 원두 수요가 증가했다는 내용은 ‘대학생 대표’가 협상에서 커피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협상 근거에 활용할 수 있겠군.
- ③ [자료 1]에서 엘니뇨의 영향으로 원두 작황이 나빠졌다는 내용은 ‘카페 대표’가 협상에서 가격 인하 폭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겠군.
- ④ [자료 2]에서 종이컵 생산만을 위해 한 해 8만 t의 천연 펄프가 수입된다는 내용은 ‘대학생 대표’의 타협점 모색에 활용할 수 있겠군.
- ⑤ [자료 2]에서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쓰는 것이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양측이 최종적인 타협점을 도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겠군.

[7~8]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수능완성 실전 134~135쪽)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나트륨 과다 섭취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입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교양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국인들이 나트륨을 권장량보다 많이 먹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고, 이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트륨 섭취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인식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서 제가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나트륨 일일 권장량을 알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10%도 채 안 되었고, 대체적으로 음식을 짜게 먹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학생의 비율이 6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음식의 간을 어느 정도로 조절하고 있나요? 혹시 짜거나 자극적인 맛을 더 좋아하지는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된장, 고추장, 간장과 같은 장류나 젓갈류는 소금을 이용하여 만들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도 감칠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많이 첨가한다고 합니다. ○○대 △△△ 교수 팀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짠 음식을 섭취하면 미주 신경과 척수 신경이 이를 뇌에 전달하고 뇌에서 쾌락 반응이 유발되어 짠 음식에 대한 기호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찾는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짠 음식은 위벽을 헐게 하고 위축시켜 위에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관 내에 염분이 증가하면서 원래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의 물을 혈액 안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이때 평소보다 많은 혈액이 지나가면서 혈관이 팽창해 고혈압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섭취된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도 같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 나트륨을 기준보다 많이 섭취하면 비만이나 만성 신장 질환 같은 질병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나트륨의 과다 섭취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국물 요리는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을 남기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 성분 표시를 체크해 가급적 나트륨 함량이 적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칼륨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감자, 고구마, 버섯, 토마토, 키위 등의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은 후에는 이런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소금 간은 음식 조리가 끝날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 중에 조금씩 소금을 넣으면서 간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소금을 많이 넣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올해부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는 식품의 제품 포장지에 알아보기 쉬운 색상 또는 모양으로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고 비슷한 다른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해야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여러분도 식품을 구매할 때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한 사전 계획이다. 발표 계획 중에서 발표 내용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 발표 목적: 나트륨 과다 섭취의 문제점을 알리고 나트륨 과다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청중 분석: 같은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며, 나트륨의 영향과 나트륨의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
- 발표 전략
 -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자.①
 -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자.②
 -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에 포함시키자.③
 -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된 연구 결과를 인용하자.④
 - 끝부분에는 청중이 발표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나트륨 과다 섭취 자제를 위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마무리하자.⑤

8.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이 한 생각이다. <보기>에 나타난 학생의 듣기 전략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나도 한국인의 나트륨 과다 섭취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었지. 발표자가 설문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시기나 대상,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알려 주면 발표 내용에 더 믿음이 갈 거야. 그리고 나트륨 과다 섭취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영상이나 그림 자료와 함께 제시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나트륨 함량 표시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다른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꼼꼼히 비교해 봐야겠어.

- ① 발표자가 언급한 경험에 공감하면서 듣고 있다.
- ② 발표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떠올리며 듣고 있다.
- ③ 발표 내용에 포함된 자료 조사 방법의 신뢰도를 평가하며 듣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떠올리며 듣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체 자료의 필요성을 떠올리며 듣고 있다.

[9~10] 다음은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수능완성 실전 159~160쪽)

학생회장: 우리 학교 학생회에서는 올해 3월부터 우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많은 우산이 고장 나거나 회수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내문을 작성하여 각 반에 게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1학년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학년 대표: 우선 저는 학생들이 빌려 간 물건에 대해 주인 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우산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품인데도 자기 물건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거나 아무 데나 두었다가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회장: 이번에는 학생회 홍보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부장: 1학년 대표의 말씀처럼 학생들의 주인 의식 결여 문제도 문제이지만 대여 서비스를 주관하고 있는 우리 학생회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장: 학생회의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부장: 지난 월요일 오후에 갑자기 비가 내려서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많은 학생이 학생회에 찾아와 우산을 빌려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학생들 중 상당수가 우산을 젖은 상태로 반납했고, 그 우산들이 학생회실 구석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건조하여 보관하지 않고 이렇게 우산들을 방치하면 이후에 녹이 슬고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학생회장: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빌려 간 물건에 대해 학생들의 주인 의식도 부족하고, 대여 물품에 대한 학생회의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회의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회 대표로서 사과드립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대여 서비스 운영을 위한 방안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학년 대표: 저는 이번 기회에 학생회의 대여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대여하는 품목을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산의 경우 부피도 크고 관리도 어려워 효과적인 대여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장: 지금 우리는 현재 시행 중인 우산 대여 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3학년 대표의 의견은 토의 주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1학년 대표: 저는 학생회가 우산을 대여해 줄 때 학생증을 받아두고 고장이 나거나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당한 금액을 학생들에게 청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돈은 모아 두었다가 우산을 수리하거나 노후된 우산을 교체할 때 드는 비용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2학년 대표: 학생증을 받아 두는 것은 찬성이지만 벌금을 걷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과태료처럼 돈을 받는 것보다 그 학생들에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산을 정리하는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산을 잘 펴서 햇빛에 말리고 깨끗하게 접어서 보관하는 일들을 했으면 합니다.

1학년 대표: 2학년 대표의 의견에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받아 둔 학생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학생증 관리와 봉사 활동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생회 차원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3학년 대표: 네. 저도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보다는 봉사 활동을 하는 방안이 더 좋다고 생각

합니다.

학생회장: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의를 마치고 지금까지 ㉠논의된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반에 게시할 대여 서비스 안내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9. 토의 참여자들의 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3학년 대표는 토의 주제에 부합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② 2학년 대표는 다른 학교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홍보부장은 1학년 대표와는 다른 측면에서 문제 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다.
- ④ 1학년 대표는 2학년 대표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우려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⑤ 2학년 대표는 1학년 대표가 제시한 해결 방안 중의 일부는 수용하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0. 학생회장이 ㉠에 따라 안내문 작성 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젖은 우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회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야겠어.
- ② 앞으로는 우산을 빌려 갈 때 학생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해야겠어.
- ③ 빌려 간 물품에 대해 주인 의식을 가져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야겠어.
- ④ 빌려 간 물품을 고장 내거나 반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함을 안내해야겠어.
- ⑤ 기한 내에 빌려 간 물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우산 정리 봉사 활동을 해야 함을 안내해야겠어.

[11~13]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수능완성 실전 212~213쪽)

사회자: 최근 우리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는 우리 학교 급식에 푸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푸드 마일리지란 식품이 생산·운송·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과정에서 소요된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을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 급식에 푸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찬성 측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 1: 학교 누리집에 있는 설문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다수의 구성원이 푸드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 급식에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데, 푸드 마일리지 제도는 이를 보완하여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접하게 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산이라고 해도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어 얼마만큼의 이동을 하느냐에 따라 먹거리의 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이동 거리인 킬로미터에 식품 수송량인 톤을 곱하여 계산하는 푸드 마일리지 제도를 우리 학교 급식에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잘 들었습니다. 먹거리의 질 강화 측면에서 푸드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 1: 푸드 마일리지 제도가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먹거리의 질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제도나 조리 실명제 등으로도 이는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음식에 일일이 푸드 마일리지를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거리를 마련하는 데에 오히려 더 많은 제약이 따라 양질의 급식을 먹는 데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재료를 섭취한다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자꾸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제재를 강화하는 것보다 현재의 제도를 잘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푸드 마일리지 제도가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들어, 푸드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두 입장이 팽팽하군요. 이제 반론을 들겠습니다.

찬성 2: 푸드 마일리지 제도는…….

사회자: 잠시만요, 토론의 순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반대 측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 2: 푸드 마일리지 제도가 절대적으로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있는 원산지 표시 제도와 차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에 얽매어 버린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입니다. 먼 곳에서 온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찬성 2: 푸드 마일리지 제도를 단순히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는 목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이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푸드 마일리지의 수치가 커질수록 식품의 신선도는 떨어지고 식품의 이동 거리만큼 운송 수단에 의한 탄소 배출량도 많아져 지구 온난화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지금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으로 조리하는 것을 유도하게 되어 학생들이 신선한 식품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찬반 양측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상대측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11. 위 토론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 ② 토론 참여자의 의견을 요약하며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③ 토론의 절차를 환기하며 토론의 순서를 지정하고 있다.
- ④ 토론 참여자의 발언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⑤ 논제와 관련된 핵심 개념을 소개한 후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고 있다.

12. <보기>는 ‘찬성 측’이 위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찬성 측’이 이를 토론에 활용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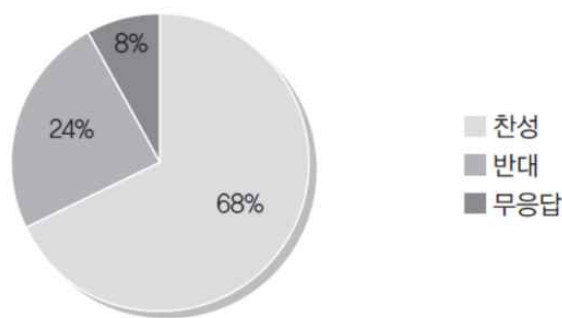
‘음식의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푸드 마일리지의 수치가 클수록 해당 식료품이 원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운송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2]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푸드 마일리지는 2003년 3,456 t·km에서, 2010년에는 두 배인 7,085 t·km까지 치솟았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식료품 수입이 많은 일본의 푸드 마일리지는 2003년 기준 우리나라보다 높은 5,671 t·km이었지만, 2010년에는 우리나라보다 낮아졌다.

[자료 3]

- 설문 대상: 우리 학교 학생 및 선생님들
- 질문: 우리 학교 급식에 푸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자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 찬성의 이유: 신선한 식품 섭취, 탄소 배출량 감소 등
- 반대의 이유: 식생활의 다양성 저해, 경제적 부담 등

- ① [자료 1]은 푸드 마일리지의 수치가 크면 클수록 양질의 음식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 ② [자료 2]는 우리나라의 푸드 마일리지가 높다는 것은 식료품 수입 비율이 높다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 ③ [자료 3]은 푸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고려할 점이 많으니 해당 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 ④ [자료 1]과 [자료 3]은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과 환경 보호 두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 ⑤ [자료 2]와 [자료 3]은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이 다양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13.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보기>를 참조하여 ㉠을 준비하였을 때, 양측이 구상한 토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상대측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할 때에는 핵심 쟁점에 대해 자신이 제시한 주장의 장점과 상대측 주장의 단점을 비교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해야 한다. 이때 앞서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 이에 대해 양측이 면밀히 논의할 시간이 없고 최초의 논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① 찬성 측: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강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하자는 것인데, 왜 반대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 ② 찬성 측: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강화 장치로 푸드 마일리지뿐만 아니라 복수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먹거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산지 표시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만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 ③ 찬성 측: 우리 같은 학생들이 지금보다 안전한 먹거리로 구성된 급식을 먹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농가를 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소규모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수입 식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푸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지역의 농가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 ④ 반대 측: 기존의 원산지 표시 제도를 잘 운용하는 것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 방법입니다. 푸드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다양한 먹거리를 섭취하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푸드 마일리지의 수치만으로 따지게 되면 안전한 수입 식품도 먹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결국 이는 우리 학교 급식의 전체적인 질 개선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 ⑤ 반대 측: 기존의 제도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제도를 무조건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현재 제도로도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국만 표시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를 생산 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하고 생산자의 이름을 의무적으로 제시하게 하여 먹거리 생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5

연습 문제로 화법 정복하기

[1~2]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생 에너지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폐수 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미생물의 모습을 촬영해서 확대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예쁜 미생물들이 더러운 폐수 속에 살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은가요? 바로 오늘 발표할 내용이 이 폐수 속의 미생물들을 이용한 ‘미생물 연료 전지’에 대한 것입니다. 미생물 연료 전지는 전기도 생산하면서 폐수도 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 연료 전지는 대부분 유기성 폐수를 이용합니다. 환경 공학 용어 사전에 보니까 ‘유기성 폐수’란 다양한 미생물이 많이 함유된 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미생물들은 유기물을 흡수하고 분해할 때 전자가 방출되기 때문에 유기성 폐수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유기성 폐수 속 미생물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에너지 양이 그 폐수를 처리하는데 드는 것보다 약 9배나 많을 수 있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럼 미생물 연료 전지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 통의 가운데에는 이온 투과가 가능한 막이 있고, 왼쪽에는 산화 전극, 오른쪽에는 환원 전극이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화 전극 쪽에 폐수를 넣으면 폐수 속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흡수, 분해하면서 전자와 수소 이온이 생성됩니다. 이로 인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미생물 연료 전지를 연구해 온 ○○○ 교수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폐수를 이용한 미생물 연료 전지는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로 상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생물 연료 전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이 발표 내용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보여 주며 발표를 시작해야지.
- ② 청중이 발표 내용과 관련된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사전 자료를 제시해야지.
- ③ 대상을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된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논문 자료를 제시해야지.
- ④ 대상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구조가 드러난 시각 자료를 제시해야지.
- ⑤ 대상에 대한 연구 현황과 전망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하며 발표를 마무리해야지.

2.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다. 학생의 듣기 활동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발표를 듣기 전에 가졌던 의문
 - 가까운 시기에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 발표를 들으며 정리한 내용
 - 미생물 연료 전지의 전기 생성 방법: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흡수, 분해하는 과정에서 방출된 전자로 인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짐.㉠
 - 미생물 연료 전지의 상용화 전망 : 조만간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중 하나임.㉡
- 발표를 들은 후에 든 생각
 - 발표에 활용된 자료가 믿을 만한 정보인지 확인하기 위해 출처를 찾아보아야겠다.㉢
 - ‘미생물 연료 전지 실험’을 주제로 삼아 과학 실험 동아리의 보고서 과제를 작성해야겠다.㉣
 - 축산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하여 난방 연료를 추출한다는 것을 글을 읽어 알고 있는데, 미생물 연료 전지와 유사점이 있는 것 같다.㉤

- ① ㉠으로 보아, 발표자가 활용한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으면서 정리했음을 알 수 있군.
- ② ㉡으로 보아, 발표를 듣기 전에 가졌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으로 보아,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며 발표를 들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로 보아, 들은 내용과 관련된 것을 자신의 과제 해결에 활용하려 하고 있군.
- ⑤ ㉤으로 보아, 들은 내용을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군.

[3~5]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지금까지 ○○동 마을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서관 이용자가 대부분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김 교수: 마을 도서관 이용자가 다양하지 않은 이유는 마을 도서관의 기능이 장서 열람과 개인 학습 공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운영 시간도 짧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운영 시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A]

사회자: ㉡도서관의 기능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김 교수: □□ 마을 도서관은 다양한 교양 강좌 프로그램 등 평생 학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마을 도서관에서는 지역의 생활 정보가 모이고 교류되는 장으로 도서관을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B]

사회자: ㉢제가 아는 어느 마을 도서관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만든 미술 작품을 도서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럼 도서관장님의 말씀도 들어 보겠습니다.

도서관장: 저도 김 교수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도서관의 기능을 다양화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서관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서관 운영 시간이 오후 6시까지인데, 운영 시간을 10시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도서관 운영 시간을 연장하면 늦게 퇴근하는 주민들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

사회자: ㉣도서관장님께서 김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더 있는 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부터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청중의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청중: 김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어린이나 노인들처럼 특정 연령층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들도 있나요? [D]

김 교수: △△ 마을 도서관에서는 노인들이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노인 전용 사랑방과 미취학 어린이들이 어머니들과 함께 놀이를 즐기면서 책을 볼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열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E]

사회자: ㉤여건이 된다면 우리 ○○동 마을 도서관에서도 추진해 볼 만한 사례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서관장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도서관 직원을 대표해서 나와 주신 분 말씀해 주시죠.

직원 대표: 저는 ○○동 마을 도서관의 직원 대표입니다. 도서관 운영 시간을 연장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대로 4시간이나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직원들의 피로감을 고려했을 때 무리가 있습니다. 또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도서관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요?

도서관장: 연장해야 할 근무 시간을 확정해 놓은 것이 아니므로 근무 시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전제로, 연장 근무를 하는 방식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략)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과 관련해 논의해야 할 사안을 안내하고 있다.
- ② ㉡: 토의 참여자의 발화 내용 중 일부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③ ㉢: 토의 참여자의 발화 내용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례를 덧붙이고 있다.
- ④ ㉣: 토의 참여자가 발화한 내용을 질문의 형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 ⑤ ㉤: 토의 참여자가 제시한 방안을 실천하는 데 우려되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4.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해결 방안에 해당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③ [C]: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김 교수’가 제시한 방안 중 일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④ [D]: ‘김 교수’의 발언을 듣고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사례의 제시를 요청하고 있다.
- ⑤ [E]: 사례를 든 후, 청중이 제기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선생님이 제시한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동 마을 도서관’의 운영 시간 연장을 쟁점으로 ‘도서관장’과 ‘도서관 직원 대표’가 협상을 진행한다고 할 때, 양측 대표가 제시할 내용을 구상해 보세요. 협상 참여자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상 참여자	협상에서 제시할 내용
도서관장	근무 시간을 2시간만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연장 근무를 격일제로 돌아가며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퇴근 시 교통의 편의를 위한 교통 수단 지급 방안을 제시한다.㉢
직원 대표	연장 근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도서 대출 기간의 축소를 요구한다.㉣
	늘어난 운영 시간에는 주민 자원 봉사자의 협조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6~8]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이번 축제 때 여러 동아리에서 수익 사업을 위한 부스를 설치하려 하고 있지만, 학생회에서는 부스 설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축제 때 동아리가 수익 사업을 위한 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학생회 대표와 동아리 대표의 토론을 진행하려 합니다. 먼저 부스 설치에 찬성하는 동아리 대표가 입론해 주시죠.

동아리 대표 1 : 축제 때 수익 사업을 위한 부스 설치하는 많은 동아리들이 지금까지 지켜 온 전통입니다. 우리는 이런 동아리의 전통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생회 대표 1 : 축제 때 설치되는 수익 사업 부스는 건전한 축제 분위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생회 임원들이 직접 축제 현장을 돌아봤는데 여러 동아리에서 유치한 게임이나 사행성 게임을 실시하였고, 과도할 정도로 손님 끌기 경쟁에 치중하여 축제에 온 학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회에서는 동아리의 수익 사업 부스 설치에 반대합니다.

동아리 대표 2 : 동아리가 부스에서 벌어들인 돈은 각 동아리가 활동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우리 마술 동아리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공연을 하는데, 축제 때 번 돈으로 공연에 드는 경비 대부분을 충당합니다.

학생회 대표 2 : 지나치게 수익만 생각하다 보니 대부분의 동아리 부스에서는 손쉽게 구입하거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즉석 음식이나 분식 등의 음식만 팔고 있습니다. 학생회에서 조사한 결과 작년 축제 때 수익 사업의 85%가 음식 판매였습니다. 이렇게 부스 운영이 음식 팔기에만 치우친다면 축제의 품위가 떨어집니다.

사회자 : 동아리 측에서는 동아리 전통의 계승과 동아리 활동비 충당의 필요성을, 학생회 측에서는 부스의 업종과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을 근거로 각각 부스 설치의 찬성과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 측이 먼저 반론해 주십시오.

학생회 대표 1 : 동아리 대표님이 축제 때 얻은 수익금으로 동아리 활동비를 충당한다고 하셨는데, 수익금이 바람직하지 않게 쓰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심지어 유흥비로 쓰인다고도 합니다.

동아리 대표 1 :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겁니까? 당장 데려와 보세요.

사회자 : 잠깐만요. 학생회 측은 충분한 증거만 가지고 말씀하시고, 동아리 측은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래서는 원만한 토론이 어렵지 않습니까? 반대 측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학생회 대표 1 :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반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작년 축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습니다. 2, 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동아리의 수익 사업 부스를 설치하지 말자는 학생들이 설치하자는 학생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수익 사업 부스 설치하는 바람직한 전통이 아니라 버려야 할 악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악습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대표 1 : 먼저 동아리의 축제 때 얻은 수익금은 대부분 동아리의 행사 진행비로 쓰이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 동아리들은 몇 년 전부터 축제가 끝난 후 부장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때 각 동아리의 수익 사업 내용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흥비로 쓰이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또 축제 전에 열리는 총회에서는 동아리의 부스 종류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손님 끌기 경쟁도 자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A]	학생회 대표 2 : 동아리의 노력은 알고 있지만, 문제는 여러 동아리들이 동아리 정기 총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회에서도 학교에서 주는 동아리의 운영 지원비가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회에서는 학교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이번 축제 때에는 수익 사업 부스를 설치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B]	동아리 대표 2 : 동아리 운영 지원비가 지금보다 많아진다면 굳이 수익 사업을 위한 부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학생회 측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른 시기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번 축제 때에는 부스를 설치하겠습니다. 다만 부스의 종류나 지나친 손님 끌기 경쟁에 대해서는 동아리 부장들이 모여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6. 위 토론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론을 하게 된 이유와 논제를 소개하고 있다.
- ② 토론자의 발언을 요약하여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 ③ 토론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있다.
- ④ 토론에서 언급된 논의를 바탕으로 타협안을 유도하고 있다.
- ⑤ 토론 참여자가 감정적으로 토론을 하지 않도록 토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7. 다음은 위 토론의 준비를 위해 동아리 측과 학생회 측이 각각 회의한 내용이다. 토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동아리 측>	<학생회 측>
대표 1: 입론에서는 축제 때 수익 사업을 위한 부스 설치가 동아리의 전통임을 밝히자. 대표 2: 좋아.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수익이 동아리 활동에 유용하게 쓰인다는 점을 우리 마술 동아리 사례를 들어 밝히자.㉠ 대표 1: 상대가 반론을 할 때 수익 사업 부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므로 우리가 축제 전후에 총회를 개최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도록 하자.㉡	대표 1: 입론에서는 축제 때 동아리의 수익사업 부스가 건전한 축제 분위기를 망친다는 점을 우리가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제시하자.㉢ 대표 2: 지나치게 수익 사업만 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근의 다른 학교의 상황과 비교하여 지적하도록 하자.㉣ 대표 1: 상대가 반론으로 수익 사업을 위한 부스 설치의 정당성을 밝힐 것이므로, 우리는 설문 조사 내용을 근거로 그에 대해 반박하도록 하자.㉤

① ㉠

② ㉡

③ ㉢

④ ㉣

⑤ ㉤

8. [A]와 [B]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자기주장의 당위성을 자세히 밝히면서 감정에 호소하여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 ② [B]와 달리 [A]는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후, 상대방도 자신의 제안을 수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③ [B]와 달리 [A]는 갈등 상황의 원인이 양측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서로 양보해야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④ [A]와 [B] 모두 상대방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입론 과정에 밝혔던 주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해 상대방이 추진하려는 방안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9~10] 다음은 협상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교 축제 동아리 마당을 준비하기 위한 모임에서 동아리 대표들이 협상을 하고 있다.)

정치 경제반 : 저희는 정치 현상이나 경제 현상과 관련된 스피드 퀴즈 게임을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는 반별 2인 1조로 참가하고 참가 팀이 미리 섭외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응원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대강당에서 오전 시간에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입장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대강당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홍보 장소는 정문 진입로를 원합니다.

패션 사랑반 : 저희는 가장행렬을 하고 학교를 누빌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행사 공간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가장행렬을 위해서는 분장할 장소와 옷을 갈아입을 장소가 필요합니다. 소강당이면 충분합니다.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침부터 분장을 하는 것이 좋고 분장도 조금씩 수정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사용하고 싶습니다. 다른 동아리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도 홍보 자리는 정문 진입로로 하고 싶습니다.

음식 조리반 : ㉢패션 사랑반이 하는 가장행렬 연출은 개인적으로 작년에도 참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패션 사랑반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소강당이 필요합니다. 저희 동아리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판매할 예정이므로 대강당보다는 소강당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패션 사랑반이 분장을 마친 후에는 학교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것이라고 하셨으므로 오후에는 저희가 사용했으면 합니다.

패션 사랑반 : ㉣저희 동아리는 축제 내내 활동해야 되므로 오후에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오후 시간에는 저희 동아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소강당 한구석을 내주세요. 분장이 지워질 수도 있어서 계속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전 시간이 끝나기 한 시간 전에 음식 조리반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소강당을 내드리겠습니다.

음식 조리반 : 알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먼저 들어가서 준비하고 패션 사랑반이 활동할 수 있게 오후에는 한쪽 공간을 비워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보 자리는 수돗가 근처로

해 주세요. 음식 재료를 씻으려면 그곳이 편리합니다.

연극 천하반 : 저희는 대강당에서 오전에 연극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반이 오전 시간을 원하고 있으니 장소가 서로 겹치겠네요. (잠시 생각한 후) 저희가 과감하게 시간대를 오후로 옮기죠. 대신 되도록 많은 관객을 모을 수 있도록 홍보에 가장 유리한 정문 진입로에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동아리가 장소와 시간을 먼저 선택했으니 홍보 자리는 저희에게 우선권을 주세요. 홍보 장소가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 경제반 : ㉡그렇다면 저희 동아리와 패션 사랑반이 홍보 자리를 다른 곳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군요. 많은 관객에게 연극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원하는 심정 이해합니다. 저희가 시간대와 장소를 선점했으니 홍보 자리는 양보하겠습니다.

패션 사랑반 : 좋습니다. 정문 진입로는 저희도 양보하여 학교 쉼터 근처에서 홍보하겠습니다.

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상대방에게 정보를 공개하여, ㉡은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자신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발화이다.
- ② ㉠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여, ㉡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겸손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 자신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발화이다.
- ③ ㉠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해시켜, ㉡은 자신이 상대방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해하여 상대방과 원만한 타협을 보려는 발화이다.
- ④ ㉠은 상대방이 나보다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가졌는지 확인하여, ㉡은 상대방과 공유하는 이익을 제시하여 상대방과 원만한 타협을 보려는 발화이다.
- ⑤ ㉠은 상대방에게 협상이 실패했을 때의 손해를 언급하여, ㉡은 상대방에게 협상이 성공했을 때의 이익을 언급하여 상대방과 원만한 타협을 보려는 발화이다.

10. ㉠~㉡ 중, <보기>의 전략을 사용한 것은?

— < 보 기 > —

이 전략은 쟁점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언급하여 일시적으로 갈등을 지연시킨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작문

1 모의평가 기출 작문 살펴보기

<6월 모의평가>

[5~7]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발명 동아리 소식지에 글쓰기	▸ 대화 내용을 고려하여 글쓰기 전략 추리하기 ▸ 조건에 맞게 설명문의 끝부분 완성하기 ▸ 고쳐 쓴 내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EBS 교재의 문제 유형 연계
[8~10]	여름방학 단축과 관련하여 학교 신문에 기고한 글	▸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EBS 교재의 문제 유형 연계

2 EBS 교재와의 연계성 파악하기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의 작문 문제는 작문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문항이 고르게 출제되었다. 작문 과정의 주요 개념을 활용하여 ‘생략된 내용 추론하는 문제, 조언을 고려하여 추가할 내용 파악하는 문제, 고쳐 쓰기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를 파악하는 문제, 글쓰기 전략을 파악하는 문제, 자료 활용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비교해 볼 때, 문항 수와 지문 구성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작문에서 지문 2개에 5문항을 출제했다. 하지만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화법과 작문 통합형 지문 1개와 작문 지문 1개를 활용하여 6문항을 출제하였다. 수능에서도 화법과 통합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문에서는 복합 지문 형식의 새로운 통합형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제재만 통합되었을 뿐 문제 유형에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수험생들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3년 간 출제된 수능 문제와 모의 평가 문제, 그리고 EBS 연계 교재를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복습하는 것이 작문 문제를 정복하는 지름길이다.

3

기출 문제 다시 보기

[1~3] (가)는 학생들이 발명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이고, (나)는 이를 참고하여 ‘학생 1’이 ‘학습 활동’ 과정에서 작성한 설명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가)

학생 1 : 안녕하세요? 학생 발명가이신 선배님께 궁금한 게 많습니다. 먼저 발명이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발명가 : 네. 발명은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롭게 생각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학생 2 : 새롭게 생각하여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만든 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선배님의 발명품이 궁금해요.

발명가 : (발명품을 꺼내며) 네, 이걸 보여 드리죠. 설탕, 소금과 같은 양념을 담는 통들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 곤란한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통의 뚜껑과 본체를 여러 개로 나누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습니다. 통 하나에 여러 가지 양념을 담을 수 있게 말이죠.

학생 2 : 간단하면서도 유용하네요. 저도 발명을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힘들어요.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알려 주세요.

발명가 :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것은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체험 단계에서는 발명의 주제가 되는 물건을 탐색하며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 보고, 인지 단계에서는 그 물건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학습합니다. 이 두 단계를 통해 주제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발명 단계에서는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건을 개선할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 이때 도움을 얻기 위해 기존의 다른 발명품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생 1 :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발명가 : 좋습니다. (가방에서 필통을 꺼내며) 필기구로 말씀 드리죠. 여기 연필, 볼펜, 자가 있지요? 필기구를 발명 주제로 정했다면, 체험 단계에서는 필기구만 골라 만지고 분해하며 호기심을 가져 봅니다.

학생 2 : 그럼 다음 단계에선 과학적 원리를 공부하겠군요.

발명가 : 네, 인지 단계에서는 필기구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공부하지요. 다음으로 발명 단계에서는 필기구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 아까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한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자가 발전 기능이 있는 손전등에 전자기 유도 법칙이 이용됐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내용을 통해 빛을 내는 볼펜이라는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지요.

학생 1 : 그렇군요. 끝으로 미래의 발명가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발명가 :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선 방법을 찾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학생 1, 2 : 네, 감사합니다.

[학습 활동]

1.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발명 동아리 소식지에 글쓰기
2. 상호 평가를 통한 고쳐 쓰기

(나)

학생들은 발명을 어려워한다. 그 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다. 이것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쉽게 발명에 다가설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질까?

먼저 체험 단계에서는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라는 발명 주제가 제시되면 자전거를 눈으로 살피고 손으로 만진다. 그리고 직접 자전거를 타 보이기도 하고, 자전거를 분해해 보이기도 하면서 탐색된다.

그 후 인지 단계에서는 자전거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학습 한다. 커브를 도는 쪽으로 자전거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원심력 때문이고, 울퉁불퉁한 길을 부드럽게 달릴 수 있는 것은 타이어의 탄성력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서 발명 주제인 자전거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때 자전거를 탔던 즐거운 추억을 떠올려 감상문을 써 보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발명 단계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의 개선 방안을 생각한다. 즉 자전거가 아닌, 자동으로 공기가 채워지는 튜브를 참고해 물에 뜨는 자전거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개선 방안을 생각할 때는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할 수 있다.

1. 다음은 (가)에 참여한 ‘학생 1’이 (나)를 쓰기 위해 ‘학생 2’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가)와 (나)를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학생 2 : 선배님의 말씀을 활용해서 글을 쓴다고 했잖아. 어떤 내용을 글에 포함할 거니?

학생 1 : 선배님은 ㉠ _____

- ① 발명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셨지. 나도 발명 도중에 겪었던 어려움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②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개선점을 찾아보라고 하셨지. 나는 개선이 필요한 주변 사물의 문제점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③ 모형의 각 단계를 양념 담는 통으로 설명하셨지. 나는 다른 물건을 이용해 모형을 설명하는 내용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④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하셨지. 나도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내용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⑤ 발명은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지. 나도 창출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물건을 제작, 완성하는 과정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문제 해결 전략

대화에서 생략된 곳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확인1

(가)에서 발명가의 세 번째 말을 보면, 발명 단계에서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네 번째 문단을 보면 ‘자동으로 공기가 채워지는 튜브를 참고해 물에 뜨는 자전거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진술되어 있으므로 ④번이 ㉠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다.

확인2

① (가)에서 발명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진술을 찾을 수 없으며, (나)에서 자신이 발명 도중에 겪었던 어려움을 찾을 수 없다. ② (가)의 발명가의 마지막 발언에서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개선할 점을 찾아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나)에는 개선이 필요한 주변 사물의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가)에서는 모형의 각 단계를 양념 통이 아닌 필기구로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 다른 물건을 이용해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가)에서 발명가의 첫 번째 발언을 보면 ‘발명이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에는 ‘물에 뜨는 자전거’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지, 창출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물건을 제작, 완성하는 과정은 서술하지 않고 있다.

2. 다음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나)에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 설명문의 끝부분을 쓸 때에는 먼저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요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심 내용이 지닌 의의를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 ①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발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안내가 될 수 있다. 또한 주위 사물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길러 준다.
- ②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체험, 인지, 발명 단계로 이루어진다. 발명 단계 이후에는 체험 단계 이전에 학습한 발명 기법을 떠올리며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 ③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주변의 사물들 중에서 발명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면 손쉽게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체험 단계, 인지 단계, 발명 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이 모형의 단계를 따라 하면 쉽게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 ⑤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떠올리는 체험 단계,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인지 단계, 발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발명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이디어를 구현한 제품을 만드는 적용 단계가 있다.

■ 문제 해결 전략

조언 내용을 고려하여 (나)에 추가할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확인1

선생님은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내용이 지닌 의의를 덧붙일 것을 조언하고 있다. (나)의 중심 내용은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단계이므로,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단계를 요약하고 ‘쉽게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고’, ‘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의의를 제시한 ④번이 가장 적절하다.

확인2

① 아이디어 창출 모형에 대한 의의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선생님의 조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② 중심 내용에 대한 요약만 언급하고 있어 선생님의 조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③ 아이디어 창출 모형에 대한 의의가 뒷부분에 언급되어 있으나,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핵심 내용인 단계에 대한 설명이 없고, ‘주변의 사물들 중에 발명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라는 말로 중심 내용을 잘못 요약하고 있으므로 선생님의 조언을 반영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다. ⑤ 중심 내용에 대한 요약만 언급되고 있으므로 선생님의 조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3. (나)에 대한 ‘학생 2’의 상호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2’의 평가 내용	
잘한 점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여 중심 화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①
수정할 점	글의 흐름이 잘 드러나도록 문단의 앞부분에 순서를 알려주는 표지를 사용한 점②
	2문단에서 표현이 어색한 문장을 사용한 점③
	3문단에서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떨어뜨린 점④
	4문단에서 앞뒤 문장의 위치를 잘못 배열하여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점⑤

■ 문제 해결 전략

상호 평가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확인1

(나)의 중심 화제는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다. (나)는 ‘자전거’를 예로 들어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때 비교의 방법을 활용한 설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①]

확인2

② ‘먼저’, ‘그 후’, ‘마지막으로’라는 표지를 통해 글의 순서를 알려주고 있다. ③ 2문단에서는 주체가 직접 자전거를 타 보고, 자전거를 분해해 보면서 탐색하는 것이므로 ‘자전거를 타 보이기도 하고, 자전거를 분해해 보이기도 하면서 탐색된다.’라는 문장을 수정해야 한다. ‘보이기는’ ‘보기’로, ‘탐색된다’는 ‘탐색한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이때 자전거를 탔던 즐거운 추억을 떠올려 감상문을 써 보는 것이 좋다.’는 문장은 글의 주제와 관련성이 적어 통일성을 떨어뜨린다. ⑤ 4문단의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 두 번째 문장이 개선 방안을 생각할 때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한 구체적 예이므로 세 번째 문장의 앞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4~6] (가)는 학교 신문에 기고한 학생의 글이고, (나)는 (가)를 읽은 후 다른 학생이 같은 신문에 기고한 반박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가)

우리 학교는 내년도 학사 일정을 수립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과정에서 여름방학 기간을 현행 4주에서 2주로 단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하자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여름방학의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여름방학은 1학기가 끝나고 휴식을 취하면서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아 2학기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여름방학 기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여유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다. 우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여름방학 기간에 외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외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여름방학 기간이 단축되면 개학 이후에 시작되는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셋째, 학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학교 시설을 보수하거나 설치하는 일이 2주 이상 걸리는 경우 방학을 활용한다. 그런데 여름방학 기간이 단축되면 학교 시설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2학기를 시작하게 되므로 생활이 불편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학교는 학생들이 여유를 갖고 자율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여름방학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나)

학교 신문에 여름방학 기간 단축을 반대하는 글이 실린 후 학생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그 글에서 제시한 근거들을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여름방학 기간을 유지한다고 해서 여름방학의 의미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오히려 학기 중보다 학습 부담이 커져서 여름방학 기간에 여유를 갖고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2주로 줄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해도 학생들은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개인 체험 학습을 신청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오랜 시일이 필요한 공사는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하고 시급한 공사의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된다. 불가피하게 학기 중에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불편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지난 학기 중 특별실 보수 공사를 하였지만 불편 없이 진행되었다.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업 공백이 줄어들어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어서 학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겨울방학 시작을 앞당길 수 있어 학년 말의 비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피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인근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학교가 학생들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학교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은 수업의 연속성 확보와 학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려면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4. <보기>는 (가)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이다. (가)에 반영된 생각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 —

- ㄱ. 여름방학 기간에 학교 측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ㄴ.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 일까?
 ㄷ.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ㄹ. 여름방학 기간을 유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떤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까?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문제 해결 전략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를 판단한다.

확인1

(가)의 4문단에는 ‘여름방학 기간에 학교 측에서 학교 시설 공사를 한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ㄱ’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문단, 3문단, 4문단에서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ㄷ’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ㄱ’과 ‘ㄷ’은 (가)에 반영되어 있다. [정답 ②]

확인2

① ‘ㄴ’의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ㄹ’의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고려한 부분은 (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나)에 사용된 쓰기 전략이 아닌 것은?

- ① 여름방학 기간 단축에 대하여 (가)로 인해 촉발된 반응을 제시하고 글을 쓰는 목적을 밝힌다.
 ② 여름방학의 의미가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가)의 주장을 비판한다.
 ③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가)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④ 학기 중 공사가 불편을 초래한다는 (가)의 주장을 비판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⑤ 학생들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여 절충안을 제시한다.

■ 문제 해결 전략

(나)에 사용된 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확인1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가)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학교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가)의 주장을 결국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추가한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확인2

① 1문단에서 여름방학 기간 단축을 반대하는 글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음을 제시하고 ‘(가) 글에서 제시한 근거들을 반박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② 2문단에서 (가)에서 제시한 여름방학의 의미가 현실과 차이가 있다고 밝히며 (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가)의 주장을 반박하며 ‘2학기가 시작한 후에도 개인 체험 학습을 신청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라는 진술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학기 중 공사가 불편을 초래한다는 (가)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학교에서 지난학기에 보수 공사를 한 사례’를 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6. (가)를 쓴 학생이 (나)를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A]를 비판하기 위한 자료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학교 시설 공사로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학생의 인터뷰를, 학기 중 공사가 불편 없이 진행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②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체험 학습 일수를 제한하고 있는 학교 규정을, 학기 중에도 체험 학습 참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③ 학기 중보다 여름방학 기간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한다는 신문 기사를, 여름방학 기간을 유지할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④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했지만 학년 말 학사 운영이 비효율적이었던 다른 학교 사례를, 여름방학 기간 단축이 학사 운영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⑤ 여름방학 기간이 2주, 4주인 두 학교 학생들이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기억하는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여름방학 기간과 학습 연속성이 관련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문제 해결 전략

자료 활용 방안이 적절한지 파악한다.

확인1

[A]의 핵심 내용은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하면 ‘수업 공백이 줄어들어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어서 학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과 ‘학년 말의 비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여름방학 기간이 서로 다른 두 학교 학생들이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기억하는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는 ‘여름방학 기간’과 ‘학습의 연속성’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어서 학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자료로 적절하다. [정답 ⑤]

확인2

① (나)의 4문단을 비판하기 위한 자료로 적절하다. ② (나)의 3문단을 비판하기 위한 자료로 적절하다. ③ ‘학기 중보다 여름방학 기간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한다는 신문 기사’의 내용은 (나)의 2문단을 비판하기 위한 자료로 적절하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을 유지할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주장은 [A]와 무관한 자료 활용 방안이다. ④ [A]는 여름방학 기간 단축이 학사 운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했지만 학년 말 학사 운영이 비효율적이었던 다른 학교 사례’는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학년 말의 비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반박하는 사례이지 ‘학사 운영과 무관하다’는 주장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7~8] (가)는 동생이 작성한 메모이고, (나)는 동생이 누나와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가) 자기소개서 작성 계획을 구상한 메모

- 작문 상황 : ○○ 향토 문화원 학생 해설 도우미에 지원
- 목적 : 선발 담당자에게 나를 알림.(a)
- 예상 독자 분석 : 학생 해설 도우미 선발 담당자는 나의 학교생활이 궁금할 것임.(b)
- 내용 생성
 -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활동 경험(c)
 - 나의 성장 배경(d)
- 조직 방법 : 경험의 목록을 나열하여 제시함.(e)

(나) 자기소개서 작성 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대화

동생 : ○○ 향토 문화원에서 우리 지역의 향토 문화를 설명해 줄 학생 해설 도우미를 모집한다. 관심 있는 분야라 지원하고 싶어서 자기소개서 작성 계획을 구상해 보았는데 잘 안 돼. 이 메모를 좀 봐 줘.

누나 : (메모를 확인한 후) 음, 단순히 자기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목적으로서 좀 부족한 것 같아. 네가 해설 도우미 선발 담당자라면 어떤 점이 궁금할 것 같아? 단순히 학교생활을 궁금해 할까?

동생 : 해설 도우미를 선발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아, 내가 해설 도우미로 적합한지가 궁금하겠지.

누나 : 그럼 해설 도우미로 적합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공고문의 내용을 잘 고려해 봐.

동생 : 공고문에 따르면 고등학생을 해설 도우미로 선발해서 초등학생에게 지역의 향토 문화를 설명해 주는 활동을 하게 한 대.

누나 : 향토 문화를 해설하려면 향토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 정도, 설명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설 대상인 초등학생과의 친화력도 중요할 거야. 이런 점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동생 : 음, 그러면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활동, 보고서 발표 대회 참가 경험,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 학생회 봉사 부장 활동, 나의 성장 배경을 쓰면 좋겠는데.

누나 : 그것들을 모두 쓰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활용하면 좋을 거야.

동생 :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고 지역의 문화재를 탐방했던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청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보고서 발표 대회, 초등학생을 돌보았던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을 쓰면 되겠네. 그럼, 선택한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면 좋을까?

누나 : 단순히 너의 경험들을 나열하기보다는 경험의 의의를 경험 내용과 연관 지어 조직하면 글의 의도가 잘 전달될 거야. 그리고 글 전체를 처음, 중간, 끝 부분으로 나누고 중간 부분에서 경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쓰면 좋겠어.

동생 : 고마워 누나. 이제 잘 써 볼게.

7. (나)를 고려할 때, (가)의 ㉠~㉣에 대한 조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선발 담당자에게 자신이 학생 해설 도우미로 적합함을 보이는 것으로 목적을 구체화한다.
- ② ㉡ : 공고문을 토대로 예상 독자의 주된 관심사를 학생 해설 도우미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로 재설정한다.
- ③ ㉢ : ‘의미 있는 활동’ 중 학생 해설 도우미로서의 자질을 보여 줄 수 있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 ④ ㉣ : 자신의 친화력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로 성장 배경 대신 학급 내의 교우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 ⑤ ㉤ : 선별된 각 경험의 내용과 그 의의를 함께 제시한다.

■ 문제 해결 전략

글쓰기 계획의 조정이 적절한지 파악한다.

확인1

동생은 누나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동생의 다섯 번째 대화에서 ‘초등학생을 돌보았던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을 쓰면 되겠네.’라고 한 부분을 통해 자신의 친화력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로 성장 배경 대신 학급 내의 교우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해설 도우미의 대상이 되는 초등학생과의 친화력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정답 ④]

확인2

① 동생의 두 번째 대화에서 ‘내가 해설 도우미로 적합한지가 궁금하겠지.’라고 한 부분을 통해, 선발 담당자에게 자신이 학생 해설 도우미로 적합함을 보이는 것으로 목적을 구체화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② 동생의 세 번째 대화에서 ‘공고문에 따르면 고등학생을 해설 도우미로 선발해서 초등학생에게 지역의 향토 문화를 설명해 주는 활동을 하게 한대.’라고 한 부분과 누나의 세 번째 대화에서 ‘향토 문화를 해설하려면 향토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 정도, 설명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설 대상인 초등학생과의 친화력도 중요할 거야.’라고 한 부분을 통해 예상 독자의 주된 관심사를 학생 해설 도우미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로 재설정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③ 누나의 세 번째 대화에서 ‘그것들을 모두 쓰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활용하면 좋을 거야.’라는 조언을 듣고 동생은 동생의 다섯 번째 대화에서 학생회 봉사부장 활동과 나의 성장 배경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학생 해설 도우미로서의 자질을 보여 줄 수 있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⑤ 누나의 다섯 번째 대화에서 ‘단순히 너의 경험들을 나열하기보다는 경험의 의의를 경험 내용과 연관 지어 조직하면 글의 의도가 잘 전달될 거야.’라고 한 조언을 통해 계획 내용을 조정하게 될 것이므로 선별된 각 경험의 내용과 그 의의를 함께 제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8. (나)를 고려하여 중간 부분을 작성하려 할 때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경험		내용 구체화 방안
①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활동	⇒ 동아리 활동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음을 서술한다.
②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활동	⇒ 동아리에서 지역 문화재를 탐방하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의 향토 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서술한다.
③	보고서 발표 대회 참가	⇒ 보고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기른 설명 능력이 우리 지역의 문화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질 것임을 서술한다.
④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	⇒ 복지 센터 보조 교사로서 초등학생을 돌보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초등학생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음을 서술한다.
⑤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	⇒ 보조 교사 활동을 학업과 병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호소함으로써 문화 해설 도우미 활동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을 서술한다.

■ 문제 해결 전략

내용 구체화 방안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확인1

(나)에서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은 초등학생과의 친화력을 드러내기 위한 활동이므로 보조 교사 활동을 학업과 병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문화 해설 도우미 활동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보조 교사 활동을 통해 드러내려는 의의와도 연결되지 않는다. [정답 ⑤]

확인2

①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활동’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다고 구체화함으로써 경험과 의의를 적절하게 연결하였다. ②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활동’ 경험을 통해 우리 지역의 향토 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구체화함으로써 경험과 의의를 적절하게 연결하였다. ③ ‘보고서 발표 대회 참가’ 경험을 통해 향상된 설명 능력이 우리 지역의 문화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구체화함으로써 경험과 의의를 적절하게 연결하였다. ④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 경험을 통해 초등학생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점을 구체화함으로써 경험과 의의를 적절하게 연결하였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교지 편집부의 요청 내용>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에 대해 글을 써 주세요.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 예상되는 미래 농업의 모습을 제시해야겠어.(a)
-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글을 시작해야겠어.(b)
- 농업에 도입될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해 언급해야겠어.(c)
- 농업 발전을 위한 정보 통신 기술 관련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설명해야겠어.(d)
-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해결할 수 있는 현재 농업의 문제 상황을 제시해야겠어.(e)

<초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이자 인류의 운명과 함께할 산업은 무엇일까? 신석기 시대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농업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다. 이제 농업은 정보 통신 기술 기반의 빅데이터 활용 기술과 환경 제어 기술의 발달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A] 기상과 병충해 같은 농업 관련 정보를 수집, 처리,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용 기술이 농업에 도입되면 농산물의 생산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져 농가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농산물을 기를 때 기상 상태나 병충해와 같은 외부 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생산량을 예측하고 조절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업과 관련된 빅데이터가 더 많이 축적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계획적인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실제로 농업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농사를 지은 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된 사례도 있다.

[B] 재배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하여 최적화된 정보에 따라 재배 환경을 조절하고 자동 재배 시설을 제어하는 기술이 도입되면 실내에서의 대규모 농업도 가능해진다.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빛의 양 등 농작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시설이 완비된 식물 공장이 확산되면 농업은 이전과 달리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식물 공장을 고층 건물 형태로 지으면 공간이 한정된 도시에서도 좋은 품질의 농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도심 곳곳의 고층 건물에서 층마다 농산물을 재배하는 모습을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보게 될 것이다.

발달된 정보 통신 기술이 농업에 도입되면 농가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도시의 고층 건물에서도 대규모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어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농업과 유사한 발전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농업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9. (a)~(e)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 문제 해결 전략

작문 계획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확인1

<초고>는 <교지 편집부의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 발전을 위한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정책이나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답 ④]

확인2

① 3문단 마지막 문장의 ‘도심 곳곳의 고층 건물에서 층마다 농산물을 재배하는 모습을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에 해당한다. ② 1문단 둘째 문장의 ‘농업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라는 내용은 ㉡에 해당한다. ③ 2문단과 3문단은 각각 농업에 도입될 ‘빅데이터 활용 기술’과 ‘환경 제어 기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에 해당한다. ⑤ 2문단의 둘째 문장과 셋째 문장, 3문단의 둘째 문장에서 현재 농업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2문단의 넷째 문장, 3문단의 둘째, 셋째 문장에서 그 문제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해결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에 해당한다.

10.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다. ㉠~㉣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과수원 농사를 짓는 ㉠○○ 농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생산량은 25% 이상 향상되었고, 운영비는 10% 이상 줄어들었다. ... (중략) ... 기상 관련 정보가 축적될수록 ㉡가뭄 피해, 수해, 냉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농업신문」 -

- 도시에서 농작물을 인공적으로 생산하는 식물 공장이 ㉢미래 식량 위기의 대안으로 급부상되고 있다. 식물 공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된 공간에서의 토지 이용 효율이 높다. 둘째, 환경 조절 장치를 통해 ㉤농작물이 자라는 데 필수적인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한다.

- 과학 잡지 「△△△」 -

- ① ㉠의 정보를 이용하여 [A]에서 정보 통신 기술 도입의 긍정적 사례로 제시하였다.
- ② ㉡의 현상을 포괄하여 [A]에서 생산량의 예측과 조절이 어려웠던 원인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 ③ ㉢의 규모를 예측하여 [B]에서 식물 공장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 ④ ㉣의 실현 가능한 모습을 구체화하여 [B]에서 식물 공장의 형태에 대한 정보로 제시하였다.
- ⑤ ㉤의 요소들을 찾아 [B]에서 식물 공장의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 문제 해결 전략

자료의 활용 방안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확인1



<초고>에는 미래 식량 위기 예측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또한 [B]에서 식물 공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장소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간이 한정된 도시에서도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진술되어 있을 뿐, 식물 공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③]

확인2

① [A]의 마지막 문장은 ㉠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며, 정보 통신 기술 도입의 긍정적 사례에 해당한다. ② ㉡의 현상은 모두 기상 상태와 관련된 피해들인데, [A]의 둘째 문장에 ‘기상 상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생산량 예측과 조절을 어렵게 하는 원인임이 언급되어 있다. ④ [B]의 셋째 문장에서 언급한 ‘고층 건물 형태’는 ㉢의 실현 가능한 모습에 해당하는 식물 공장 형태이다. ⑤ [B]의 둘째 문장 중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빛의 양’은 ㉣의 요소에 해당하며, 이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시설’에 대해 언급하여 ㉣을 식물 공장의 시설에 대한 정보 제시에 활용하고 있다.

4

EBS 교재의 핵심 문제 다시 보기

[1~2] (가)는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작문 계획]이고, (나)는 [작문 계획]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 학생이 교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능특강 128~130쪽)

(가)

[작문 계획]

- 작문 상황: ○○구청에서 운영하는 상담 센터의 또래 상담 요원에 지원하기 위해, 선발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를 써야 함. 단, 1,500자 이내로 써야 함.
- 예상 독자: 상담 센터의 또래 상담 요원 선발자
- 서술 내용:
 - 나의 성장 과정
 - 나의 학교생활 중 의미 있는 활동 경험
 - 상담 요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
- 표현 전략: 나를 선발해 달라는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 문학적 표현 사용

(나)

학생: 선생님, 우리 구청의 상담 센터에서 또래 상담 요원을 선발한다는 공고문을 보고 지원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해요. 작문 계획을 세우기는 했는데,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교사: ([작문 계획]을 보고) 이런 글을 쓸 때에는 먼저 공고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공고문의 핵심 내용이 뭐지?

학생: 공고문의 핵심 내용은 또래 상담 요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는 거예요.

교사: 그렇다면 또래 상담 요원의 자질이란 무엇일까?

학생: 상담 요청자의 말을 잘 듣고 상담 요청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게 도움이 될 말을 해 주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는 활동이니까 봉사심도 있어야 하고, 상담 활동에 빠지지 않고 참여 하는 성실성도 있어야 해요.

교사: 잘 알고 있네. 그렇다면 네가 쓰려는 글에 그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야 하지 않을까?

학생: 저에게 ㉠상담 요원으로서 갖춰야 할 여러 자질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밝히려는 말씀이지요? 선생님, 그런데 성장 과정에 대해 쓰는 것이 선발에 도움이 될까요?

교사: 자기소개서에 상담 요원의 자질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담을 필요는 없어. 무조건 많이 쓰기보다는 성장 과정에 대한 내용 중 상담 요원의 자질과 관련된 부분만 간추려서 쓰면 돼.

학생: 그래야겠어요. 학교생활 중 했던 다양한 활동이나 경험을 적으려 하는데, 이건 괜찮겠지요?

교사: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학교생활 중 상담 요원 활동과 관련 있는 유의미한 활동이나 경험을 간추려서 적어 봐.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준 영향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좋아.

학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사: 그런데, 너는 이미 다른 봉사 활동도 하고 있는데, 왜 이 활동까지 하려는 거니?

학생: 실은 중학교 때 친구 문제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학교의 또래 상담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교사: 그런 내용도 글에 넣으면 또래 상담 요원이 되고 싶다는 너의 진정성이 잘 드러날 거야.

학생: 제가 또래 상담 요원으로 지원하게 된 동기도 적으라는 말씀이로군요. 이제 내용 선정은 다 된 것 같아요. 제 문학적 쓰기 능력을 발휘해 독자의 마음을 흔드는 글을 써야겠어요. 길고 화려한 표현과 다양한 수식의 문장을 쓰는 데는 자신 있거든요.

교사: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독자에게 너를 정확히 알리는 글이야. 지나치게 화려한 느낌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다양한 수식을 사용해 길게 쓰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아.

학생: 네, 알겠습니다.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나)의 대화를 바탕으로 (가)를 수정하거나 구체화할 계획을 세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자 수의 제한을 고려할 때, 선발 목적과 관련 있는 유의미한 활동만 선별하여 적는다.
- ② 글의 설득력을 고려할 때, 서술 내용에 또래 상담 요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첨가한다.
- ③ 글을 쓰는 목적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을 시간 순으로 되도록 자세하게 나열한다.
- ④ 자기소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화려한 표현이나 장황한 문장은 피하도록 한다.
- ⑤ 선발 공고문의 핵심 내용을 고려할 때, 또래 상담 요원으로서의 자질이 있음을 중점적으로 언급한다.

2. ㉠ 중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 ㉡을 반영하여 글을 써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저는 1학년 때만 해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지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2학년 때에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 학교생활에 적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친구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 ② 저는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공부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된 후 저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공부 방법을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저만의 공부 방법을 만들어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성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 ③ 저는 평소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 주는 편이고, 친구들도 저와 말을 하면 모든 고민이 다 풀린다고 합니다. 이런 제 능력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제가 투정을 부리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빙그레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께 이야기하면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 ④ 저는 학교에서 1학년 후배의 생활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후배의 고민을 들어주고 저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꾸준히 멘토 활동을 하면서 후배가 저와의 대화를 통해 고민을 해결했다고 고마워하는 것을 보면 뿌듯했고,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 ⑤ 얼마 전, 한 친구가 오른쪽 아랫배를 잡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점심에 많이 먹더니 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저는 오른쪽 아랫배가 갑자기 아프면 맹장염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건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친구를 즉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친구는 예상대로 급성 맹장염이었고, 다행히 수술을 잘 마쳐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3~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능특강 153~154쪽)

(가) 작문 상황

- 글의 목적: 학교 축제 운영 방식의 변화 건의
- 글의 독자: 학생회 임원들

(나) 학생이 쓴 건의문 초고

학생회 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1반 ○○○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학교 축제를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어 달라고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학교 축제는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기껏해야 몇몇 동아리들의 발표회, 예술 관련 특별 활동의 결과물 전시, 먹거리 판매 위주의 학급별 부스 운영 정도가 고작인 상황이 매년 반복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학교 축제는 훨씬 재미있고 다채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축제가 지금처럼 따분한 행사가 되어 버린 것은 축제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오류 때문이라는 사실부터 학생회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학교 축제의 주인은 학생들 모두가 되어야 함에도, 전체 학우를 대표해야 할 학생회가 축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그저 관행에 따라 선생님들이나 학생회 선배들, 그리고 주요 동아리 회장들의 의견만 청취해 온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축제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싶다면 학생회는 ‘학교 축제 아이디어 공모함’ 같은 것을 설치하여 최대한 많은 학우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자신의 아이디어가 축제에서 실제로 구현될 때 학생들은 자부심과 주인 의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발표회 무대에 서게 될 팀을 선정하는 방식도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댄스 동아리, 록 밴드부처럼 유서 깊은 몇몇 동아리에만 발표 기회가 주어졌지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완성도 높은 공연을 ‘관람하는 축제’는 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보다 많은 사람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뽐낼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다면 우리 학교 구성원 전체의 진정한 화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명 나는 축제를 만드는 일이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축제의 의미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꾸는 일입니다. 기획 단계부터 학우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일, 세세한 준비 과정을 소식지로 전교생에게 알리는 일 등을 우선 시작해야 합니다. 나아가 축제와 관련된 학교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축제 전 2개월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 전체를 축제 준비 활동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학우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는 학생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다음은 학생이 (나)를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학생이 떠올린 생각]

- ㄱ. 예년의 학교 축제가 재미없게 느껴졌던 이유에 대한 생각을 밝혀야겠어.
- ㄴ. 학교 축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제시해야겠어.
- ㄷ. 현재 학교 축제 프로그램 중 발표회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해야겠어.
- ㄹ. 이웃 학교의 성공적 사례를 소개하여 건의하려는 내용을 환기해야겠어.
- ㅁ. 축제 운영 방식의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언급해야겠어.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4. (가)를 고려할 때, (나)의 [A]를 수정할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학교 예산 집행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②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학교 축제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한다.
- ③ 글의 독자를 고려하여, 학생회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삭제한다.
- ④ 글의 독자를 고려하여, 학생회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학교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한다.
- ⑤ 글의 독자를 고려하여, 학생회 임원들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들 중, 학교 축제 이외의 것들에 관해서도 자세히 언급한다.

[5~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능특강 158~160쪽)

(가) 작문 과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화제를 찾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문에 투고할 논설문을 써 보자.

(나) 논설문의 초고

2016년 4월, 일본 구마모토에서 며칠 사이에 규모 6.5와 7.3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여 약 9천 동의 가옥이 붕괴되고 산사태까지 ①잇다랐다. 같은 달, 남미의 에콰도르에서도 규모 7.8과 6.1의 강진이 며칠 사이에 연달아 발생했고 400여 차례 여진까지 이어졌다. 뒤이어 필리핀, 대만, 남태평양의 바누아투 등지에서도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모두 전 세계 지진의 80~90%가 발생하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진 발생 통계를 근거로 일부 지질학자들은 향후 이 지역에서 초강력 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아 지진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②확충되고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위험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③아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심상찮은 징후를 보이고 있는 ‘불의 고리’에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기상청의 집계 결과를 보면 규모 3.0 이상의 지진 발생 횟수도 1980년대 16회, 1990년대 26회, 2000년대 44회로 점차 늘었으며, 2010년대에 들어서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보아 우리나라도 건축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해 왔으며, 2016년 9월 경주 인근에서 규모 5.8의 강진과 수백 차례의 여진이 발생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④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진 대비 체계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은 듯하다. 전국의 건축물 698만 동 가운데 내진 시공된 건물은 6.8%인 47만 동에 불과하다는 2016년 9월의 언론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우선 내진 설계가 된 시설물의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 국민 안전처의 조사 결과, 현재 공공 시설물 중 애초에 내진 시공이 됐거나 내진 보강을 마친 곳은 약 42%에 불과하고, 학교를 비롯한 교육 시설은 그 비율이 20%를 조금 넘는 실정이라고 하니 상황이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다. 2017년 1월부터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서는 2층 이상 또는 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규모 7의 지진에 대비하는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기준 자체의 적절성은 물론, 단층 구조물 혹은 법령 마련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매우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⑤정부는 건축물의 내진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과 구호 대책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도 높아져야 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를 통해 지속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벌여 나가야 하고, 각급 교육 기관은 지진 대피 요령을 안전 교육 내용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큰 효과를 거두려면 국민 각자가 관련 교육이나 훈련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함은 물론이다. ⑥국정 운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게 한 원동력임을 망각하면 안 된다.

널리 알려진 동화에서, 아기 돼지 삼 형제 중 벽돌로 집을 지은 셋째 돼지만이 늑대의 습격에도 안전했던 것을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건물의 내진 설계 강화, 지진에 대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등은 결정적인 위험이 닥치게 될 경우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의 피해를 막아 줄 벽돌집을 짓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5. (나)에 사용된 쓰기 전략이 아닌 것은?

- ① 문제 제기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열거한다.
- ② 현 상황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문제점을 부각한다.
- ③ 주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결책이 지닌 장단점을 비교한다.
- ④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독자에게 친숙한 이야기에 빗대어 진술한다.
- ⑤ 내용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조사한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한다.

6. ㉠~㉥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잇따랐다’로 수정한다.
- ② ㉡: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확산되고’로 교체한다.
- ③ ㉢: 문장 성분의 호응을 고려하여 ‘아니라고 할 수 있다’로 고친다.
- ④ ㉣: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그렇다면’으로 바꾼다.
- ⑤ ㉥: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7. <보기>의 [A]와 [B]를 함께 활용하여 ㉦을 보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A] “오래된 공공 건축물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의 민간 소유 건축물은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지진의 위험에 더 취약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진 보강 공사를 하는 건물 소유주에게 세금 혜택 등을 제공하는 유인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 ○○연구소 △△△ 박사

[B]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 자체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일본 구마모토 지진의 사례를 보면, 단층 건물에서의 인명 피해가 매우 컸으며, 규모 6~7 사이의 지진이 1회 발생했을 때만 건물이 건널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 여러 차례 발생한 강진에 대처할 수 없었다.

- □□신문

- ① 민간이 주도하는 지진 대비책 마련으로 정부 중심의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② 기존의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해 소유주가 내진 보강 공사를 결정하면 공사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 ③ 정부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해 건물 소유주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단층 건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④ 관계 부처는 법령 정비를 통해 2층 이하의 신축 건물까지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2회 이상 발생하더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 ⑤ 정부는 법령 마련 이전에 지어진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 시 건물 소유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내진 설계의 기준을 강화하여 건물의 층수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이 연속적인 강진에도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9] 다음 작문 계획에 따라 신문 독자 투고란에 글을 쓰려고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수능완성 유형 92~93쪽)

[작문 계획]

- 글의 목적: 설득
- 주제문: 미래의 식량 대체 자원으로 곤충을 이용하자.
- 작문 전략 및 내용 조직
 - 1단계: 세계 인구의 증가로 인해 식량 부족이 예상된다는 내용으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 2단계: 식량 부족 문제와 독자를 연관시킨다.
 - 3단계: 미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으로 곤충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 4단계: 식용 곤충 소비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제시한다.
 - 5단계: 식용 곤충과 관련된 독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1단계	유엔(UN)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96억 명을 넘어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식량이 필요하지만, 곡물 생산과 가축 사육에는 한계가 있어 식량 부족이 예상된다.
-----	--



2단계	(가)
-----	-----



3단계	그동안 우리는 곤충을 기피 대상으로 여겨 왔지만 식용 곤충은 인간의 생명 활동에 필수 요소인 단백질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서 새로운 식량 공급원로서의 효용 가치가 높다.
-----	--



4단계	식용 곤충은 인간의 삶에 매우 유용하다. 특히 단백질 함유량이 높고 비타민과 무기물 등이 풍부해 식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	--



5단계	(나)
-----	-----

8. ‘작문 전략 및 내용 조직’을 고려할 때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나)
①	육류를 통해서만 단백질을 공급받는 것은 부족하다.	곤충을 가까이하고 식용 곤충이 첨가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②	2050년이 되면 우리도 식량 부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세계 각국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곤충은 식품이나 약용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③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곤충이지만 일상에서는 그리 달가운 존재가 아니다.
④	식량 부족 문제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	식용 곤충이 혐오 식품이 아닌 소중한 먹거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실제적인 소비 증진에 동참해야 한다.
⑤	많은 사람이 곤충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곤충을 자주 접해 곤충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야 한다.	식용 곤충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식용 곤충을 직접 관찰하고 만져 보며 친근한 먹거리로 인식해야 한다.

9. <보기>를 활용하여 ‘4단계’의 일부를 작성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A.	1kg의 소고기를 생산하는 데 15,415ℓ의 물이 소비되는 반면, 식용 곤충 밀웜 1kg을 생산하는 데에는 2,338ℓ 정도의 물이 소비된다. 또한 곤충은 소나 돼지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B.	같은 양의 단백질을 얻고자 할 때 소고기는 식용 곤충인 갈색거저리의 10배, 돼지고기는 2~3.5배 정도의 땅이 필요하다. 또한 동남 아시아인들이 많이 먹는 귀뚜라미의 경우 소가 먹는 양의 1/12, 돼지가 먹는 양의 1/2만으로도 개체 내에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
C.	아프리카 큰 메뚜기는 성충 한 마리가 한 번에 약 1,000개의 알을 낳고, 번데기의 전 단계인 누에는 태어난 지 20일 만에 몸무게가 1,000배나 늘어난다.

㉠육류 소비가 증가하며 인류는 육류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물과 사료를 소비해 왔다. ㉡곤충을 사육하면 소를 사육할 때보다 물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곤충은 육류에 비해 크기가 작아 먹이를 단백질로 전환하는 효율이 다소 낮지만, 좁은 공간에서 키울 수 있다. 또한 ㉣곤충은 번식력이 좋고 성장도 빠르다. 따라서 ㉤환경 문제와 경제적인 면을 고려할 때 곤충은 미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0~12] 다음은 작문 상황과 그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수능완성 실전 241~242쪽)

[작문 상황]

- 글의 목적: 윤리적 소비를 촉구하는 글을 쓰고자 함.
- 예상 독자: 윤리적 소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학급 친구들

[학생의 초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닭이 낳은 달걀을 먹는 것과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생산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언뜻 보면 다른 모습이지만 이들 장면은 모두 ‘윤리적 소비’라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윤리적 소비’란 ‘윤리’와 ‘소비’의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한 개념이다.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가 환경이나 인권, 정당한 이윤의 분배와 같은 공동체적 책임을 의식하여 구매하는 것을 일컫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된다. 윤리적 소비를 경제적 가치 외에 제품이 지닌 환경적, 윤리적 가치를 고려하여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하는 학자도 있고, 개별적이고 도덕적인 신념에 따른 의식적인 소비 선택으로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영국의 대학 연구소에서는 이를 동물 복지, 환경, 인권·노동 조건, 공정 무역의 네 가지 분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모두 어떤 물건을 살 때에 경제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까지를 포함하여 생각한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 윤리적 소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이에 대한 실천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념은 인증 제도로 정책화되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달걀과 육류 일부에 수여하는 동물 복지 축산 농장 인증, 지역 사회에 기여한 기업 및 그 제품에 수여하는 사회적 기업 인증,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인증과 유기농 인증은 윤리적 소비를 제도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에서도 독자적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만으로 윤리적 소비의 확산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윤리적 소비의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와 같은 청소년에게 윤리적 소비는 아직 낯선 개념일지 모른다. 게다가 비슷한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을 때에 윤리적 소비를 또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제품 하나를 선택하는 복잡한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당장의 편안함만을 추구하여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윤리적 소비는 미래를 살아갈 나 자신이 나의 미래를 보다 긍정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부터라도 생활 속에서 윤리적 소비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나의 작은 노력이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 세계의 소비문화를 건전하게 형성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에, 이 노력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10. 다음은 글을 쓰기 전 독자를 분석하여 쓰기 계획을 세운 것이다. 실제 학생의 초고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석 항목	분석 결과	쓰기 계획
독자의 관심	독자는 필자가 주제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주제에 대해 알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윤리적 소비를 실천했던 개인적 경험을 제시한다.㉠
	독자는 필자가 어떤 주장을 펼칠 것인지 궁금할 것이다.	윤리적 소비의 확산을 위해 청소년 소비자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독자의 요구	독자는 필자가 주제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드러내기를 바랄 것이다.	윤리적 소비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명확히 제시한다.㉢
독자의 배경 지식	독자는 주제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윤리적 소비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독자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어떤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윤리적 소비의 실천이 긍정적인 미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함을 제시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윗글의 필자가 ㉠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정 무역 인증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용어조차 들어 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18.1%였고,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6.4%에 불과했다. 이는 공정 무역에 대한 인식이 미흡함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② ‘30 : 3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다. 윤리적 소비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약 30%에 이르지만 실제로 윤리적 소비를 한 사람들은 3% 미만이라는 연구 결과이다. 이는 높은 관심을 가졌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 ③ 윤리적 소비의 개념은 지속 가능한 소비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소비 개념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후세대의 수요를 해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하는 소비를 의미한다. 자신의 소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④ 윤리적 소비의 영역은 다양하다.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의 윤리, 바람직한 제품을 구매하는 적극적인 구매, 비윤리적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불매, 윤리적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 소비나 지역 소비, 공정 무역, 일상에서 실천하는 절제와 간소한 삶 등은 모두 윤리적 소비의 세부 형태이다.
- ⑤ 60개 국가 소비자 3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 이상이 윤리적 소비를 한 적이 있으며,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자도 55%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는 이전 조사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응답 비율로 보고되고 있다.

12. <조건>에 맞게 작성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조 건 > —

- ㉠과 관련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
- 적절한 속담을 활용할 것.

- ①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일회적인 호기심이 아닌 청소년들의 꾸준한 관심만이 윤리적 소비의 확산을 이끌 수 있습니다.
- ② 우리 청소년들이 윤리적 소비 제도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윤리적 소비가 올바른 소비의 출발점임을 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 ③ 호박이 넝쿨째로 굴러 떨어졌다는 말처럼, 청소년들이 윤리적 소비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④ 우리 청소년들이 윤리적 소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먹거리를 살 때에 친환경 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과 같이 작은 일부부터라도 지금 시작합시다.
- ⑤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듯, 청소년들의 작은 힘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 소비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와는 차별되는 한국만의 윤리적 소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해야 할 노력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5

연습 문제로 작문 정복하기

[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간의 대화

A: 얼마 전 뉴스에서 우리나라의 반려 동물 학대와 유기 문제에 대해 보도했는데, 혹시 봤니?

B: 응, 나도 봤어.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더라.

A: 맞아. 심각하지.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반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어 가고 있어. 하지만 이러한 장치들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점검하고, 반려 동물 보호를 위한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글을 써서 신문에 투고하려고 해.

B: 좋은 생각이야.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줘.

(나) 초고

반려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반려 동물도 많아졌다. 반려 동물의 학대와 유기 문제는 이제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어 가고 있지만, 이들이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동물 등록제는 반려 동물의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 동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반려 동물을 공공기관에 등록하게 만든 제도로, 2014년부터 그 대상 동물을 반려견으로 한정하여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반려견을 제외한 다른 반려 동물들은 등록 대상이 아니며, 아직까지 반려견의 등록률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

동물 보호 센터는 유기된 반려 동물을 보호하고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될 수 있게 해 주는 기관이다. 동물 보호 센터가 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경우, 유기된 반려 동물이 좋은 주인을 만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동물 보호 센터는 운영 여건이 열악하여 반려 동물의 유기나 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여 반려 동물에 대한 학대와 유기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 등록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률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 보호 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려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려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보호 활동에의 참여를 촉구하는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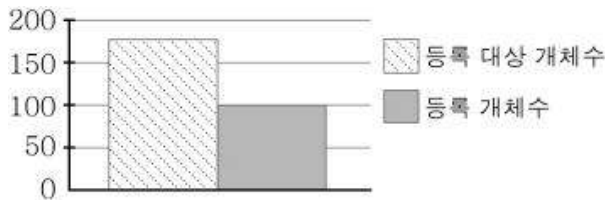
- ① 독자와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서 표현 행위이다.
- ② 독자의 반응을 토대로 내용을 조정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다.
- ③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표현 행위이다.
- ④ 독자와 필자의 공통된 경험을 환기하여 공동체의 정신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행위이다.
- ⑤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토대로 사회의 공통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정립하는 과정이다.

2. <보기>의 자료를 활용해 (나)를 수정 ·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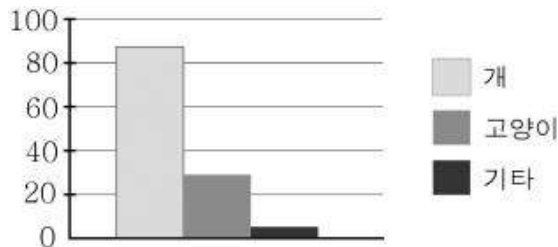
Ⅰ. 통계 자료

1. 반려견 등록 현황(2015년)



(단위: 만 마리)

2. 반려 동물 사육 가구의 동물종별 사육 현황(2015년)



(복수 응답 포함 / 단위: %)

Ⅱ. 신문 기사

동물 보호 센터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30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90% 이상이 민간 위탁 시설이다. 이들 대부분은 재정, 시설, 인력 등이 부족해 자원봉사자들의 열의에 기대어 겨우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Ⅲ. 전문가 인터뷰

“미국의 경우 동물 유기나 학대에 대해 최고 10년의 징역형이나 1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처벌 수위도 낮습니다.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이 고작이며, 실제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 정도가 매우 미미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반려 동물을 사람에 종속된 소유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반려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① I -1과 II를 활용하여, 1문단에서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의 근거로 삼는다.
- ② I -1, I -2를 활용하여, 2문단에서 등록 대상이 되는 반려 동물의 범위와 반려견 등록 현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근거로 삼는다.
- ③ II를 활용하여, 3문단에서 열악한 운영 여건으로 인해 동물 보호 센터가 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한다.
- ④ III을 활용하여, 4문단에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처벌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는다.
- ⑤ III을 활용하여, 5문단에서 반려 동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3. ㉠을 위한 문구를 <조건>에 맞게 썼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1. 반려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보호 활동에의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
2. 대구를 활용할 것.

- ① 당신의 마음이 열려야, 당신의 손길이 닿아야
반려 동물 유기와 학대를 끝낼 수 있습니다.
- ② 반려 동물 복지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초록 불을 켤 때입니다.
- ③ 좋을 때만 반려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당신의 반려 동물과 눈을 맞춰 주세요.
- ④ 우리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 반려 동물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는 반려 동물
- ⑤ 동물 학대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반려 동물 학대를 감시하는 보안관이 되어 주세요.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 교지에 글을 쓰기 위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정보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글을 써 보자.
- 예상 독자 : 교지를 읽는 학생들
- 글 쓰는 목적 :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정보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림.
- 자료 수집 방법 : 우리 학교 학생 대상의 설문 조사

(나) 글의 초고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현대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이용에 적극적이다. 인터넷은 무한한 정보의 바다이므로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는다. 그런데 인터넷 정보들 중에는 부정확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인식하에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려고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항목으로는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 평가 여부, 인터넷 정보의 이용 방식 등 네 가지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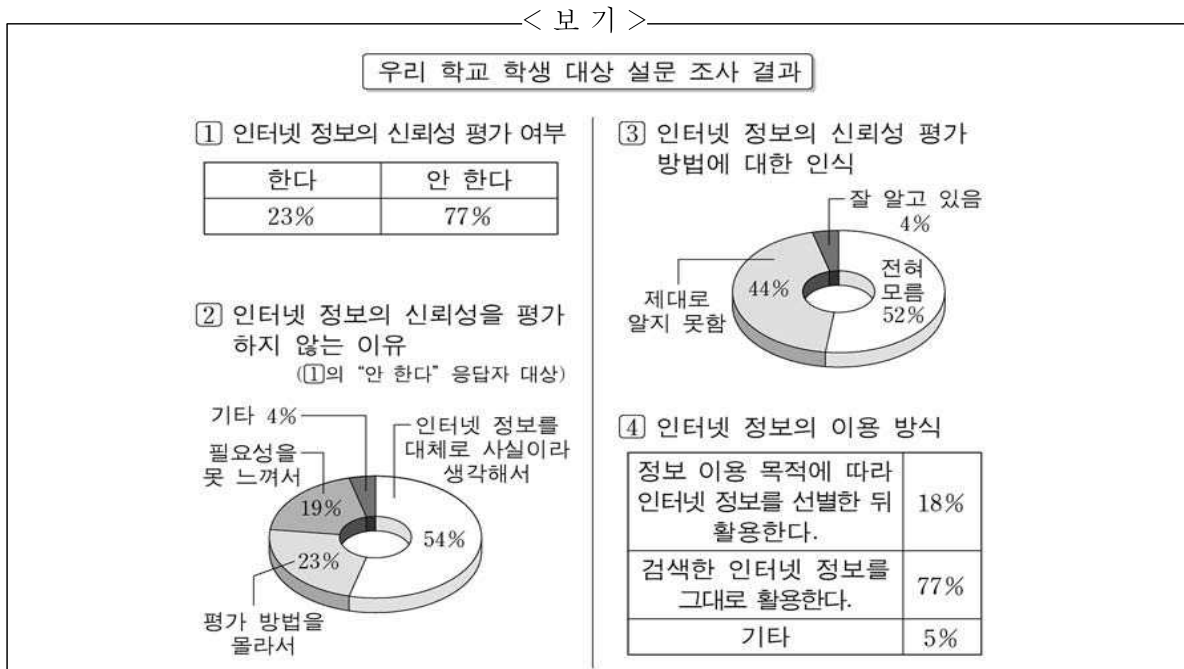
첫째 문항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은 대다수가 ㉠ 인터넷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를 묻는 둘째 문항에 대해서는 ㉡ ‘인터넷 정보를 대체로 사실이라 생각’하거나 ‘평가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73%에 달하였다. 이처럼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 매우 높은 것은 우려할 만하다. 다음으로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 평가 방법에 대한 인식을 묻는 셋째 문항에 대해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학생이 ㉣ 드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시사한다. 특히,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지 않는 학생들은 신뢰성 평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 ‘평가 방법을 몰라서’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학생의 인터넷 정보 이용 방식을 묻는 넷째 문항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 중의 18%만이 ‘정보 이용 목적에 따라 인터넷 정보를 선별한 뒤 활용한다’고 응답하였고, ㉦ 나머지는 ‘그대로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앞서 제시한 바처럼, 우리 학교 학생 대다수가 인터넷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이용하는 양상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인터넷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이용 목적에 따라 그것을 선별하여 활용하는 태도 형성을 위한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4. (가)에 따라 글쓴이가 (나)를 썼다고 할 때, (나)에 반영된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교지의 주요 독자층인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 정보 기술에 관련된 어려운 용어들을 정의해 주었다.
- ②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정보 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한 설문 조사 항목을 글의 첫째 단락에서 언급하였다.
- ③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정보 이용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나열하였다.
- ④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정보 이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글의 둘째 단락에서 설문 조사 결과와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였다.
- ⑤ 우리 학교 학생들의 무비판적 인터넷 정보 이용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지막 단락에서 대조와 가정의 방식으로 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5. <보기>는 (나)를 작성할 때 활용한 자료이다. <보기>에 맞추어 [A]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①의 내용과 어긋나므로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지 않는다'로 수정한다.
- ② ㉡은 ②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정확한 합산 결과를 제시한 것이므로 '73%'를 '77%'로 수정한다.
- ③ ㉢와 ㉣는 ①과 ③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므로 ㉢는 '7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는 '4%에 불과할 정도로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로 수정한다.
- ④ ㉤는 ②의 내용과 어긋나므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로 수정한다.
- ⑤ ㉥는 ④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항목과 그에 맞는 수치를 제시하는 진술로 수정한다.

[6~7] 다음은 작문 과제에 따라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생활 속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글을 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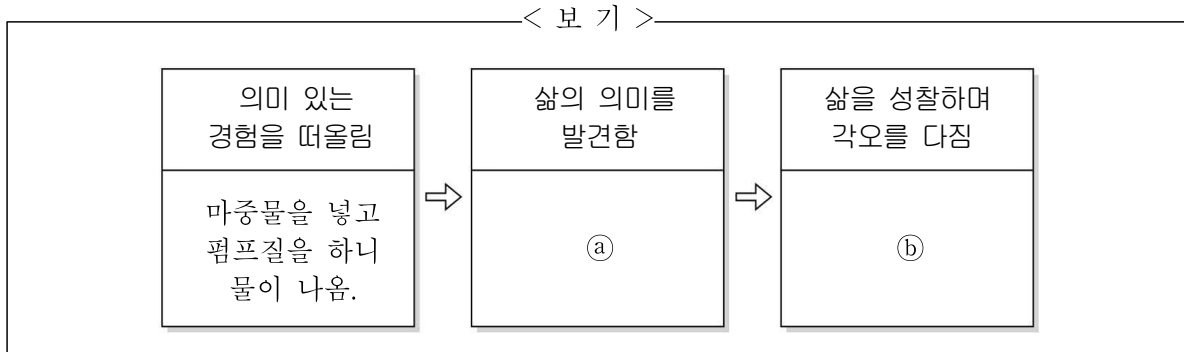
학생의 초고

지난여름, 친구의 할머니 댁에 간 적이 있었다. 그 곳에는 ㉠ 눈에 익지 않은 낯선 물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당 한 쪽에 있는 오래된 펌프였다. 나는 호기심에 펌프질을 해 보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빠걱거리는 소리만 날 뿐 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시던 할머니께서는, 물이 나오게 하려면 먼저 약간의 물을 펌프에 ㉡ 넣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물 한 바가지를 담아 오셨고,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셨다. 할머니 말씀대로 그 물을 펌프에 붓고 다시 펌프질을 하자 잠시 후 물이 콧콧 쏟아져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 펌프가 ㉢ 쏟아내기 위해 마중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꿈을 이루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그 마중물이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우리가 준비의 시간 없이 미래를 맞이한다면 마중물 없는 펌프와 무엇이 다를까? 더 의미 있는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마중. 바로 그런 준비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때로는 공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곤 했다. ㉣ 아버지께서는 꿈을 잃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이 늘 후회스러웠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을 내 인생의 마중물로 여겨야겠다. 당장 목이 ㉤ 말르다고 마중물을 마셔버리면 더 많은 물을 끌어올릴 수 없듯이, 순간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지금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다면 내가 원하는 멋진 미래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중물과 같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금의 생활에 더욱 충실해야겠다.

6. ‘작문 과제’를 <보기>와 같은 사고 과정에 따라 수행했다고 할 때, ‘학생의 초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우리에게도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함.
 ㉡: 의미 없이 보냈던 시간을 돌아보며 현재에 충실하고자 함.
- ② ㉠: 마중물을 마셔버리면 물을 끌어올릴 수 없음.
 ㉡: 펌프질을 하며 지금이 내 인생의 마중물임을 깨달음.
- ③ ㉠: 준비 없이 미래를 맞이하는 것은 어려움.
 ㉡: 반복되는 일상을 떠올리며 인생의 마중물을 찾기로 함.
- ④ ㉠: 순간의 편안함만을 추구한 나를 돌아봄.
 ㉡: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꿈을 정하지 못한 자신을 반성함.
- ⑤ ㉠: 펌프질을 할 때는 마중물이 필요함.
 ㉡: 나태했던 생활을 후회하며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짐.
7. ㉠~㉡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낯선’을 삭제해야겠어.
- ② ㉠: 높임의 대상을 고려하여 ‘넣어 주셔야 한다고 하며’로 고쳐야겠어.
- ③ ㉡: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목적어 ‘물을’을 추가해야겠어.
- ④ ㉡: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해야겠어.
- ⑤ ㉡: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마르다고’로 고쳐야겠어.

[8~10] (가)는 일기이고, (나)는 학교 신문의 ‘독자 의견란’에 실기 위해 쓴 글의 초고이다. 물
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 우리 지역의 ○○마을 「향토 음식 요리 교실」에 처음으로 다녀왔다. 사실 나는 향토 음식이 뭔지도 잘 몰랐는데, 오늘 배운 밀국수를 통해 향토 음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겉보기엔 한 그릇의 소박한 음식이지만, 그 속에 담긴 꾸밈없는 맛과 정성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향토 음식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하신 할머니의 말씀에, 지금껏 향토 음식에 무관심했던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나)

흔히들 ‘향토 음식’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 음식을 떠올릴 것이다. ㉡ 그러나 향토 음식은 전통 음식보다 좁은 개념으로, 각 지역의 특산물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그 지방 고유의 음식을 말한다.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로 만들 뿐만 아니라 조리 방법에 있어서도 그 지역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향토 음식은 그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은 이런 향토 음식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며 이에 관심을 가질 생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우리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향토 음식 선호도 설문 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지역 향토 음식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 지역 향토 음식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이다. 나는 이 결과를 접하고서 이제라도 향토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주말에 ○○마을에서 열리는 「향토 음식 요리 교실」에 다니고 있다. ㉣ 주말에 함께 시간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주말에는 밀국수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할머니들로부터 이 지역 밀국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마을은 지역 특성상 논농사가 어려워 쌀 대신 밀을 많이 먹었고, 이웃과 함께 국수를 만들어 먹으며 정을 나누었다. 또, 양념을 많이 쓰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담백한 맛은 우리 지역 사람들의 ㉤ 활기찬 마음과 닮아 있다고 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향토 음식을 배우는 것은 그 지역의 요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어져 온 문화와 정신을 배우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 향토 음식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라져 가는 우리의 식문화를 지킴으로써 전통을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향토 음식에 대한 관심은 지역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어 내는 데에도 ㉦ 참여할 것이다.

[A]

8. (가)와 (나)에 나타난 글쓰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대상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자신의 체험이 지닌 한계에 대해 비판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문제 상황에 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을 대비함으로써 자기주장의 타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현상을 분석한 설문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9. (나)의 [A]에 들어갈 글을 작성하고자 할 때,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조 건 > —

- (가)의 ㉠과 관련하여 향토 음식의 가치를 제시할 것.
- 속담을 적절히 활용하여 (나)의 ㉡를 유도할 것.

- ① 향토 음식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음식으로서 현재의 식문화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다. 따라서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향토 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 ② 향토 음식은 청소년의 관심이 없다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똑배기보다 장맛이라는 말이 있듯이 향토 음식은 우리 전통 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③ 향토 음식은 우리 전통을 이어 갈 소중한 유산 중 하나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 향토 음식에 대한 청소년의 작은 관심들이 모인다면 향토 음식은 우리의 자랑으로 자랄 것이다.
- ④ 향토 음식에 대한 현재의 관심은 우리 식문화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향토 음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만 하는 데에 급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 ⑤ 향토 음식의 전통에 의문을 갖고 소홀히 여기는 것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다. 우리 향토 음식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의 훌륭한 식문화와 융합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바로 뒤의 문장과 순서를 교체한다.
- ② ㉡ : 접속어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그런데’로 수정한다.
- ③ ㉢ :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 : 의미상 어울리지 않으므로 ‘소박한’으로 고친다.
- ⑤ ㉤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기여’로 바꾼다.



문법

1 모의평가 기출 문법 살펴보기

<6월 모의평가>

[11]	의미	어휘의 의미 탐구	수능특강 207쪽
[12]	의미	의미 관계 파악	수능특강 207쪽
[13]	음운	음운 변동의 이해	수능특강 200쪽
[14]	문장	문장의 짜임새 파악	수능특강 211~214쪽 / 258쪽 3번
[15]	국어사	중세 국어 문법의 이해	수능특강 223쪽 / 227쪽 1번

2 EBS 교재와의 연계성 파악하기

6월 모의평가에서 문법은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소재로 한 세트 문항(11번~12번), ‘음운 변동’을 소재로 한 문항(13번), ‘문장의 짜임새 파악’을 소재로 한 문항(14번), ‘중세 국어 문법’을 소재로 한 문항(15번) 등이 출제되었으며 5개 문항 모두 EBS 수능특강의 이론이나 문항과 연계되었다.

이번 6월 모의평가 문법 영역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고전 문법 문항이 출제되었다. 이는 문법 교육을 강조하는 2009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변화로, 2014년 6월 모의평가부터 지금까지 모든 수능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고전 문법이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그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도 고전 문법이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



우 높다. 둘째, 문법 문제가 지문 형태의 세트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2016학년도 수능 시험까지는 지문 형태로 문법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작년 6월 모의평가부터 세트형 문항(중세국어 문법)이 등장하였고, 지금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어휘의 의미 탐구’와 ‘의미 관계 파악’을 묻는 ‘의미론’ 문항이 세트 형태로 출제되었다.

수능에서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영역 중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은 영역이 문법이다. 따라서 올해 수능에서도 문법 문항으로 인해 상·하위권이 변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금까지 수능 모의평가와 수능의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세트형 구성에서 난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능특강 등을 활용하여 문법 이론에 대한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능이나 모의평가나 교육청 학력평가 문제들을 꾸준히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틀린 문제들은 오답 노트에 따로 모아 두었다가 다시 풀어보고 내용 이해를 하는 식으로 마무리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3

핵심 개념 정리하기

1. 음운

1. 음운의 이해

(1) 개념: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예 물/불, 강/공, 말[馬]/말:[言]

2. 음운의 종류

분절 음운	개념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면서 홀로 실현되는 음운
	자음	공기가 방해를 받아서 나오며 홀로 쓰이지 못하는 소리 예 ㄱ ㅋ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ㅆ ㅇ ㅈ ㅊ ㅌ ㅋ ㅍ ㅎ
	모음	공기가 방해를 받지 않으며 홀로 발음되는 소리 예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ㅢ ㅝ ㅞ ㅟ ㅠ ㅡ ㅣ ㅤ
비분절 음운	개념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지만 홀로 실현되지 못하고 분절 음운에 실려서 실현되는 음운
	장단 (길이)	소리의 길이로 단어의 뜻을 분별 예 [눈:] - snow / [눈] - eye
	높낮이 (억양)	소리의 높낮이로 단어의 뜻을 분별 예 밥 먹어(평서문), 밥 먹어↗(의문문)

3. 음운의 체계

(1) 자음: 발음기관에 의해 공기가 입안에서 장애를 받으며 나는 소리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입술소리 (순음)	잇몸소리 (치조음)	센입천장소리 (경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연구개음)	목청소리 (후음)
파열음	예사소리	ㅍ	ㅌ		ㄱ	
	된소리	ㅂ	ㄷ		ㅋ	
	거센소리	ㅊ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ㅊ		
	거센소리			ㅌ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2) 단모음: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지 않는 모음

혀의 위치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입술 모양 혀의 높이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ㅍ	ㅡ	ㅜ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ㅑ	

(3) 이중모음: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는 모음

예) ㅟ, ㅞ, ㅢ,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ㅽ, ㅿ, ㅾ, ㅿ, ㅿ

2. 음운의 변동

1.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의 자음만이 발음되고, 이외의 자음은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밖[박], 바깥[바깼]
된소리되기	두 개의 안울림소리가 서로 만나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예) 국밥[국뽵], 젓소[전쏘]
비음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ㄴ, ㅁ, ㅇ)의 영향으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예) 밥물[밤물], 종로[종노]
유음화	‘ㄴ’이 유음 ‘ㄹ’의 앞뒤에서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	예) 신라[실라], 권력[퀀력]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구개음 ‘ㅈ, ㅊ’이 되는 현상	예) 굳이[구지], 밭이[바치]

※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가 일어나면 그 결과 인접한 음운의 성격과 비슷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동화’라고 한다.

2. 축약: 인접한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자음축약 (거센소리되기)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으로 변하는 현상	예) 밖[박], 바깥[바깼]
모음축약 (이중모음화)	모음의 두 형태소가 서로 만나 때에 앞뒤 형태소의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들며, 두 모음 중 하나는 반모음이 되는 현상	예) 국밥[국뽵], 젓소[전쏘]

3. 탈락: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자음군단순화	자음이 두 개 연결된 자음군이 음절 끝에 놓일 때, 둘 중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예) 뉘[늑], 흙[흑]
ㄹ탈락	과생어와 합성어에서 형태소의 ㄹ이 ㄴ, ㄷ, ㅂ, ㅈ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딸+님 → 따님, 열+단이 → 여단이
ㅎ탈락	어간 끝의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좋은[조은], 넣어[너어]

4. 첨가 : 없던 음운이 새롭게 덧붙는 현상

ㄴ 첨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ㅣ’나 반모음 ‘j’로 시작할 때 ‘ㄴ’이 그 사이에 덧붙는 현상	예) 맨입[맨닙], 담요[담뇨]
반모음 첨가	반모음 ‘j’가 덧붙는 현상	예) 피어[피어/피여],

3. 형태소

1. 형태소의 개념 :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예) ‘하늘이 매우 맑다.’라는 문장에서 형태소는 ‘하늘, 이, 매우, 맑-, -다’로 4개이다.
2. 형태소의 종류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형태소	개념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종류	명사(의존명사 포함),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의존형태소	개념	홀로 쓰일 수 없으며,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형태소
		종류	조사, 용언(동사 · 형용사)의 어간, 선어말 어미, 어말어미, 접사
실질적인 의미의 유무에 따라	실질형태소	개념	구체적인 대상 · 상태 · 동작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
		종류	명사(의존명사 포함),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용언(동사 · 형용사)의 어간, 보조 용언의 어간
	형식형태소	개념	실질형태소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나 형식적 의미를 더해 주는 형태소
		종류	조사,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접사

4. 단어

1. 단어의 개념 :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어근	개념 : 단어를 형성할 때, 그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예) 밤고구마 → 밤(어근) + 고구마(어근), 햇고구마 → 햇(접두사) + 고구마(어근)	
접사	접두사	개념 : 어근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 예) 날-, 되-, 치-, 쫓-
	접미사	개념 : 어근의 뒤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 예) -껏, -이, -쟁이, -질

2. 단어의 분류 : 단어의 구성 요소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구분

단일어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어 예) 물, 하늘, 먹다, 도시락
복합어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거나 어근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단어 예) 놀이(파생어), 덧버선(파생어), 봄비(합성어), 살펴보다(합성어)



3. 단어의 형성

(1) 파생어의 형성 :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새말을 만드는 방식

접두 파생어	접두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 예) 헛고생, 덧버선, 짓밟다
접미 파생어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 예) 구경꾼, 믿음, 먹이

(2) 합성어의 형성 : 둘 이상의 어근으로 새말을 만드는 방식

의미 관계에 따른 분류	대등 합성어	어근과 어근이 대등한 의미 관계로 결합한 합성어 예) 논밭, 남녀
	종속 합성어	한쪽의 어근이 다른 한쪽의 어근에 의미적으로 매여서 결합된 합성어 예) 꽃밭, 뛰어가다
	융합 합성어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합성어 예) 밤낮(늘), 돌아가시다(죽다)
단어 배열법에 따른 분류	통사적 합성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어순이나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는 합성어 예) 밤낮, 된서리, 살펴보다, 본받다, 그만두다
	비통사적 합성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서 벗어난 합성어 예) 껌쇠, 늦더위, 높푸르다, 검붉다, 부슬비, 척척박사

5. 품사

1. 품사의 개념 : 단어를 문법적·의미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몇 갈래로 분류한 것

2. 품사 분류의 기준 : 형태(불변어-가변어), 기능(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의미(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의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함.

3. 품사의 종류

(1) 체언 : 문장에서 주로 주체의 기능을 하는 단어

명사	① 구체적인 대상이나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예) 사람, 한라산, 학교, 사랑, 아파트, 그루 등 ② 자립성에 따라 ‘자립명사, 의존명사’, 사용 범위에 따라 ‘고유명사, 보통명사’, 대상의 구체성 정도에 따라 ‘구체명사, 추상명사’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기도 함.
대명사	① 어떤 대상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 ② 사람을 표시하는 인칭 대명사와 사물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 대명사가 있음. 예) 인칭 대명사: 나, 그녀, 우리 등 지시 대명사: 이것, 저기, 그곳 등
수사	①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 ② 대상이나 수량을 세는 양수사와 순서를 가리키는 서수사가 있음. 예) 양수사: 하나, 둘, 일, 이 서수사: 첫째, 둘째, 제일, 제이

(2) 용언 :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을 나타내는 단어

동사	① 사물이나 사람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 ② 동작이나 작용이 그 주어와만 관련되는 자동사, 움직임이 주어 이외에 목적어와도 관련되는 타동사가 있음. 예 자동사 : 솟다, 일어나다 / 타동사 : 보다, 찾다, 먹다
형용사	① 사물이나 사람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②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형용사, 성상 형용사의 의미를 대신 가리키는 지시 형용사가 있음. 예 성상 형용사 : 아름답다, 붉다, 크다 / 지시 형용사 : 이러하다, 그러하다 등

(3) 수식언 :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

관형사	① 체언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 ② 체언의 성질이나 상태를 제한하는 성상 관형사,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표시하는 수 관형사가 있음. 예 성상 관형사 : 새, 흰, 옛, 맨 지시 관형사 : 이, 그, 저, 요, 고, 이런, 그런, 저런, ... 수 관형사 : 한, 두, 세/서/석, 여러, 모든...
부사	①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 예 너무, 활짝, 매우 ② 관형사나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 드물게 명사를 꾸미기도 함. 예 너무 흰 옷, 아주 높이, 바로 뒤 ③ 비교적 어순이 자유로움. 예 어서 학교에 가라 / 학교에 어서 가라 ④ 특정 문장 성분을 꾸미는 성분 부사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부사가 있음. 예 성분 부사 :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로 빨리 뛰어갔다. 문장 부사 : 과연 그게 사실일까? / 제발 비가 왔으면 좋겠다.

(4) 관계언 : 다른 단어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단어

조사	① 자립성이 없으므로 자립성이 있는 말 뒤에 붙어서 나타남. ② 조사는 쓰임에 따라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음. ㉠ 격조사 :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하는 조사로, 주격/서술격/목적격/보격/관형격/부사격/호격 조사가 있음. 예 이/가, 께서, 이다, 을/를, 의, 예, 에서, (으)로, 아/야 ㉡ 보조사 :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로, 격조사와 달리 생략되지 않으며 다양한 문장 성분과 결합할 수 있음. 예 은/는(대조), 만(단독), 도(포함) 등 ㉢ 접속조사 :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 예 와/과, 하고 등
----	--

(5) 독립언 : 다른 문장 성분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성을 가지는 단어

감탄사	① 놀람,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말로 다른 말과 떨어져 홀로 쓰일 수 있음. 예 앓, 와, 얼씨구, 오호, 야, 네, ... ② 문장의 다른 요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는 독립적인 요소를 나타내기 위해 감탄사 뒤에는 흔히 반점(,)이나 느낌표(!)를 찍음.
-----	--

6. 문장의 짜임

- ① **홀문장**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번만 나타나는 문장으로, 관형사나 부사가 아무리 많아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번밖에 없다면 홀문장임.
 예 주어 + 서술어
- ② **겹문장**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으로, 겹문장에서 주어가 같거나 서술어가 같으면 동일한 주어나 서술어는 생략될 수 있음.
 예 (주어 + 서술어) + (주어 + 서술어) → 이어진문장
 [주어 + (주어 + 서술어) + 서술어] → 안은 문장

1. 안은 문장

명사절을 안은 문장	①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절을 안은 문장. ② 명사절이 될 절의 서술어에 명사형 어미 ‘-(으)ㄴ’이나 ‘-기’가 결합되어 이루어짐. 예 그가 <u>범인임</u> 이 밝혀졌다. / 농부들이 <u>비가 오기</u> 를 기다린다.
관형절을 안은 문장	① 관형어의 기능을 하여 체언을 수식하는 절을 안은 문장 ②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이 결합하여 이루어짐. 예 학교에 <u>가는 철수</u> 를 보았다. / 이 책은 <u>내가 읽던</u> 책이다.
부사절을 안은 문장	① 부사어의 기능을 하여 서술어를 수식하는 절을 안은 문장 ② 부사절이 될 절의 서술어에 부사형 어미 ‘-이, -게, -도록, -듯(이)’가 결합되어 이루어짐. 예 눈이 <u>소리도 없이</u> 내린다. / 바람이 <u>들어오게</u> 문을 열자.
서술절을 안은 문장	①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안은 문장 ② 절을 표시해 주는 표지가 따로 없음. 예 이 책은 <u>표지가 두껍다</u> . / 저 사람은 <u>동생이 가수</u> 이다.
인용절을 안은 문장	①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인용한 것을 절의 형식으로 안은 문장 ② 인용절이 될 절에 인용 조사 ‘(이)라고, 고’가 결합하여 이루어짐. 예 철수가 “ <u>선생님, 어디 가세요?</u> ”라고 물었다. (직접 인용) 우리는 <u>가족이 소중한</u> 다고 믿는다. (간접 인용)

2. 이어진 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①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문장 ② 두 절이 대등적 연결 어미 ‘-고, -(으)며, (으)나, -지만, -거나, -든지’ 등으로 이어진 문장 예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① 앞 절이 뒤 절의 의미에 종속되어 있는 문장 ② 두 절이 종속적 연결 어미 ‘-어서, -(으)니, -(으)니까, -거든, -(으)면, -(으)려고, -고자, -(으)수록’ 등으로 이어진 문장 예 이 모자가 좋으면 내가 가져라. / 봄이 오면 꽃이 핀다.

7. 문장의 표현

1. 종결 표현

(1) 개념 : 화자가 청자에게 문장 종결 어미에 기대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한 것

(2) 종류

평서문	화자가 청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평범하게 진술하는 문장 예 철수는 어제 할머니 댁에 다녀왔다.
의문문	①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② 판정 의문문 :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으로 의문사가 없음. 예 이것이 영희의 책이니? ③ 설명 의문문 : 어떤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으로 의문사가 있음. 예 철수는 언제 학교에서 돌아옵니까? ④ 수사 의문문 :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의문문 예 누가 그 일을 할 수 없겠어? (→ 누구나 그 일을 할 수 있다.) 방 안의 공기가 좀 탁하지 않니? (→ 창문을 열어라.)
명령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문장 예 방은 깨끗이 치워라.
청유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하도록 요청하는 문장 예 출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빨리 가자.
감탄문	화자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예 이 꽃은 참 아름답구나!

2. 높임 표현

(1) 개념 : 화자가 청자나 화제의 인물을 두고 높낮이 관계, 친하거나 먼 관계의 정도에 따라 상황에 알맞은 말씨를 골라 써서 표현하는 것

(2) 종류

상대 높임법	①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					
	② 격식체 : 격식체는 격식을 차려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내는 표현					
	구분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하십시오체	합니다	합니까?	하십시오	—	—
	하오체	하오	하(시)오?	하(시)오	합시다	하는구려
	하계체	하네	하는가?	하계	하세	하는구먼
	해라체	한다	하니?	해라	하자	하는구나
	③ 비격식체 : 비격식체는 정감 있고 격식을 덜 차리는 표현					
	구분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해요체	해요	해요?	해요	해요	해요
	해체(반말)	해	해?	해	해	해

주체 높임법	① 화자가 문장의 주체(주어)를 높이는 방법 ② 직접 높임: 서술의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높임의 선어말 어미 ‘-(으)시-’를 붙이거나 특수 어휘를 사용한다. 예 선생님, 교장선생님 <u>께서</u> 오셨어요. ③ 간접 높임: 서술의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개인적 소유물, 관련된 일이나 사물 등과 관련된 서술어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으)시-’를 붙인다. 예 할머니는 귀가 <u>어두우셔</u> .
객체 높임법	① 화자가 문장의 객체, 즉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표현 방법 ② 객체는 화자나 청자보다 상위자여야 한다. 예 철수가 선생님을 <u>모시고</u> 왔다. ③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한다. ④ ‘드리다, 모시다, 여쭙다/여쭙다, 뵈다/뵈다’ 등의 특수 어휘를 사용한다. 예 선생님, 그동안의 안부를 <u>여쭙고자</u> 왔습니다.

3. 시간 표현

(1) 개념: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

(2) 종류

과거 시제	①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선행하는 시간 표현 ② 주로 선어말 어미 ‘-었-/았-’에 의해 실현됨. ③ ‘-았었-/있었-’은 발화시보다 훨씬 오래전 일, 현재와는 강하게 단절된 사건을 표현할 때 쓰임. ④ ‘-더-’는 과거 어느 때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할 때 쓰임. ⑤ 관형절로 안길 때에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 ‘-던’이,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 ‘이다’에는 ‘-던’이 쓰임.
현재 시제	①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 ② 동사는 선어말 어미 ‘-는-/ㄴ-’와 결합한 채 실현되고, 형용사나 ‘이다’는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지 않은 채 실현됨. ③ 관형절로 안길 때에는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는’,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 ‘이다’에는 ‘-(으)ㄴ’이 쓰임.
미래 시제	①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인 시간 표현 ② 선어말 어미 ‘-겠-’에 의해 실현되거나,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가 합쳐진 ‘-(으)ㄹ 것’으로 실현되기도 함. ③ 관형절로 안길 때에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쓰임.

(3) 동작상: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

진행상	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 ② ‘-고 있다, -아(어) 가다, -(으)면서’ 등으로 실현됨. 예 그는 라면을 먹고 있다. / 감기가 다 나아 간다.
완료상	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표현하는 것 ② ‘-아(어) 있다, -아(어) 버리다, -고서’ 등으로 실현됨. 예 꽃이 피어 있다. / 그는 집으로 가 버렸다.

4.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구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의미	주어가 남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단형 표현 (형태적)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결합됨. 예) 사슴이 사냥꾼에게 잡힌다.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결합됨. 예)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장형 표현 (통사적)	‘-어지다’나 ‘-게 되다’가 결합됨. 예)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 친구 소개로 그를 알게 되었다.	‘-게 하다’가 결합됨. 예) 민수가 은영이를 웃게 한다.

※ 피동은 접미사 ‘-되다’로도 실현되고, 사동은 접미사 ‘-시키다’로도 실현됨.

5. 부정 표현

구분	‘안’ 부정문(단순 부정, 의지 부정)	‘못’ 부정문(능력 부정)
의미	어떤 상태가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거나 동작을 행하는 주어의 의지에 의해 어떤 동작이 일어나지 않음을 나타냄.	주어의 의지가 아닌 그의 능력이나 그 밖의 다른 상황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냄.
짧은 부정	부정하는 말 앞에 ‘안/아니’를 사용함. 예) 영수는 귀찮아서 숙제를 안 했다.	부정하는 말 앞에 ‘못’을 사용함. 예) 영수는 몸이 아파서 숙제를 못했다.
긴 부정	부정하는 말 뒤에 ‘-지 아니하다/않다’를 사용함. 예) 영수는 귀찮아서 숙제를 하지 않았다.	부정하는 말 뒤에 ‘-지 못하다’를 사용함. 예) 영수는 몸이 아파서 숙제를 하지 못했다.

※ 어휘적 부정 표현 : ‘모르다, 없다’ 등 어휘 요소에 의한 부정 표현

예) 나는 그를 잘 모른다. / 영숙이는 동생이 없다.

※ ‘않다’가 쓰인 부정문을 명령문이나 청유문으로 바꿀 때에는 ‘않다’ 대신 ‘말다’가 쓰임.

8. 단어의 의미

1. 단어의 의미

(1)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중심적 의미	하나의 단어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 예) 들다: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
주변적 의미	하나의 단어에서 중심적 의미가 확장된 의미 예) 의식이 회복되거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다. → 정신이 들다 어떤 처지에 놓이다. → 시험에 들다 어떤 조직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되다. → 동아리에 들다 어떤 일이나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 → 풍년이 들다 어떤 범위나 기준 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속하거나 포함되다. → 3등 안에 들다 물건이나 사람이 좋게 받아들여지다. → 마음에 들다



2. 단어 간의 의미 관계

(1) 관계의 종류

유의관계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비슷한 단어 간의 관계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유의어’라고 한다. 예) 잡다 ↔ 쥐다
반의관계	① 둘 이상의 단어에서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관계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반의어’라고 한다. 예) 남성 ↔ 여성 ② 유형 · 등급적 반의관계(등급): 두 단어 사이에 등급이 있어서 중간항이 존재한다. 예) 길다 ↔ 짧다 · 상보적 반의관계(모순): 개념적 영역을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양분한다. 예) 살다 ↔ 죽다 · 방향적 반의관계(방향): 맞선 방향으로 이동을 나타내는 의미 관계 예) 앞 ↔ 뒤
상하관계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로, 다른 쪽을 포함하는 단어를 ‘상의어’, 다른 쪽에 포함되는 단어를 ‘하의어’라고 한다. 예) 음식 - 한식 - 비빔밥

(2)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동음이의어	소리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맺는 관계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동음이의어’라고 한다. 예) 배(stomach), 배(pear), 배(ship), 배(double)
다의어	한 단어가 둘 이상의 관련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를 ‘다의어’라고 한다. 예) 다리: 사람의 다리(중심적 의미) / 책상 다리(주변적 의미)

9. 옛 국어

1. 문자의 변화

중세 국어(고려 시대 ~ 16세기 말)	근대 국어(17세기 초 ~ 19세기 말)
① ‘ㅇ(옛이응), ㆁ(여린히응), △(반치음), ·(아래아)’나 글자를 위아래로 이어 쓴 ‘봉(순경음비읍)’ 등과 같은 글자가 존재함. ②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쓴 각자 병서자와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쓴 합용 병서자가 있었음. 예) ㄱ, ㄸ, ㅍ(각자 병서자) ㅂ, ㅅ, ㅈ(합용 병서자)	① ‘△’이 소실되었고, ‘ㅇ’의 글꼴은 ‘ㅇ’으로 변함 예) 처썸 > 처엄 ② ‘·’는 음가(音價)가 소실됨. ㉠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후기 중세 국어 시기에 소실되기 시작함(· > ㅡ). 예) 기르마 > 기르마 ㉡ 첫째 음절에서는 근대 국어 시기에 소실됨(· > ㅏ). 예) ㄹ르치다 > ㄹ르치다 > 가르치다

4. 표기의 변화

중세 국어(고려 시대 ~ 16세기 말)	근대 국어(17세기 초 ~ 19세기 말)
① 이어 적기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됨 예 말쑤미(말씀+이), 기쁘니(기쁘+으니) ② 받침 표기에 8종성가죽용법(중성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글자가 쓰임)을 적용함. 예 사뭇디	① 이어 적기에서 끊어 적기 방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거듭 적기 방식이 나타남. 예 님물(님+을) ② 받침 표기에 ㄷ과 ㅅ이 혼용되다가 점차 7종성 체계로 변하여, 7종성법으로 표기함. 예 온 > 옷

4

유형별 핵심 문제 다시 보기

■ 음운론

1.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3 4월 학력평가)

— < 보 기 1 > —

[구개음화]

교체 현상의 하나로, 받침이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각각 구개음 [ㅈ], [ㅊ]이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ㅊ]이 되는 현상

— < 보 기 2 > —

- 나는 벽에 ㉠ 불인 게시물을 떼었다.
- 교수는 문제의 원인을 ㉡ 날날이 밝혔다.
- 그녀는 평생 ㉢ 발이랑을 일구며 살았다.
- 그의 말소리는 소음에 ㉣ 묻히고 말았다.
- 그는 겨울에도 방에서 ㉤ 홀이불을 덮고 잤다

- ① ㉠의 ‘불-’은 접미사의 모음 ‘ㅣ’와 만나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의 ‘-이’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날’의 받침 ‘ㅌ’은 [ㅊ]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 ③ ㉢의 ‘이랑’은 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발’의 ‘ㅌ’은 [ㅊ]으로 발음된다.
- ④ ㉣의 ‘묻-’은 접미사 ‘-히-’와 만나므로 ‘ㄷ’이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은 [ㅊ]으로 발음된다.
- ⑤ ㉤의 ‘홀-’과 결합한 ‘이불’은 모음 ‘ㅣ’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홀-’의 받침 ‘ㅌ’은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 문제 해결 전략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한다.

확인1

㉣ ‘묻히고’에서 ‘묻-’은 받침이 ‘ㄷ’인 형태소이고, ‘-히-’는 접미사이므로 형식 형태소이다. <보기 1>에 근거할 때, ‘묻-’의 ‘ㄷ’이 ‘-히-’의 ‘ㅎ’과 결합하여 [ㅌ]이 된 후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ㅊ]으로 교체되어 [무치고]로 발음되므로 적절하다. 정답 ④

확인2

① ㉠은 ‘불-’에 형식 형태소인 접미사 ‘-이-’와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단어이다. 따라서 ‘불-’은 접미사의 모음 ‘ㅣ’와 만나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의 ‘-이’는 형식 형태소이고, ‘날’의 받침 ‘ㄷ’은 [ㄷ]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에서 ‘이랑’은 모음 ‘ㅣ’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에서 ‘이불’은 실질 형태소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6월 모의평가)

< 보 기 >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집일[집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닭만[당만]’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뜻하다[뜨타다]’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말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 ① ‘흙하고[흐카고]’는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었군.
- ② ‘저녁연기[저녕년기]’는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늘었군.
- ③ ‘부엌문[부영문]’과 ‘볶는[봉는]’은 교체가 한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군.
- ④ ‘엷지[언찌]’와 ‘뭉고[물꼬]’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한 개 줄었군.
- ⑤ ‘넙네[널레]’와 ‘밝는[방는]’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두 개 줄었군.

■ 문제 해결 전략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한다.

확인1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음운 개수의 변화 양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문항이다. 음운의 개수는 교체가 일어나면 변하지 않고, 탈락이나 축약이 일어나면 각각 한 개가 줄어든다. 반면 첨가가 일어나면 한 개가 늘어난다. ‘흙하고’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ㄱ’이 탈락하여 [흑하고]로 바뀐 후 다시 자음 축약에 의해 ‘ㄱ’과 ‘ㅎ’이 축약되어 [흐카고]가 된다. 탈락과 축약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어들었다. 정답 ①

확인2

- ② ‘저녁연기’는 ㄴ첨가에 의해 ‘ㄴ’이 첨가되어 [저녕년기]로 바뀐 후 다시 비음화에 의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저녕년기]가 된다. 첨가 및 교체가 한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는 한 개 늘어났다.
- ③ ‘부엌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ㄱ’이 ‘ㄱ’으로 교체되어 [부영문]으로 바뀐 후 다시 비음화에 의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부영문]이 된다. ‘볶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봉는]으로 바뀐 후 다시 비음화에 의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봉는]이 된다. ‘부엌문’, ‘볶는’은 각각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는 모두 변하지 않았다.
- ④ ‘엷지’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ㄷ’이 탈락하여 [언지]로 바뀐 후 다시 경음화에 의해 ‘ㄷ’이 ‘ㅈ’으로 교체되어 [언찌]가 된다. ‘뭉고’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ㄱ’이 탈락하여 [물고]로 바뀐 후 다시 경음화에 의해 ‘ㄱ’이 ‘ㄱ’으로 교체되어 [물꼬]가 된다. ‘엷지’와 ‘뭉고’는 각각 탈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음운의 개수는 모두 한 개씩 줄어들었다.
- ⑤ ‘넙네’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ㄴ’이 탈락하여 [널네]로 바뀐 후 유음화에 의해 ‘ㄴ’이 ‘ㄴ’로 교체되어 [널레]가 된다. ‘밝는’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ㄱ’이 탈락하여 [박는]으로 바뀐 후 비음화에 의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방는]이 된다. ‘넙네’와 ‘밝는’은 각각 탈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음운의 개수는 모두 한 개씩 줄어들었다.

■ 단어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통된 성질을 가진 단어들을 모아 갈래 지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한다. 국어의 품사는 단어의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첫째, 단어는 형태 변화의 여부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인 불변어와, 활용하여 형태가 변하는 말인 가변어로 나뉜다. 둘째, 단어는 문장 속에서 해당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문장에서 주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용언,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수식언,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언, 다른 성분에 얹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으로 나뉜다. 셋째, 단어는 개별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그것을 가리키는 대명사,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주로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 주로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 주는 부사, 앞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하는 조사, 말하는 이의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감탄사로 나뉜다.

단어는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그는 모든 원인을 자기의 잘못으로 돌렸다.’의 ‘잘못’은 조사와 결합하는 명사이지만, ‘그는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헤맸다.’의 ‘잘못’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잘못’이 ㉠ 명사와 부사로 쓰인 것이다. 또한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다.’의 ‘만큼’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이지만,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의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만큼’이 ㉡ 명사와 조사로 쓰인 것이다. 이 밖에도 국어에는 부사와 조사로 쓰이는 경우, 수사와 관형사로 쓰이는 경우와 같이 두 개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들이 존재한다.

1. [A]를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고3 7월 학력평가)

< 보 기 >

- ㉠ 아직까지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 할머니께서 온갖 재료로 만두를 곱게 빚으셨다.
 ㉢ (대화 중) “들어가도 됩니까?” / “네, 어서 오십시오.”

- ① ㉠에서 ‘아무’는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이다.
 ② ㉡에서 ‘온갖’은 문장에서 다른 말을 수식하는 수식언이다.
 ③ ㉢에서 ‘네’는 말하는 이의 응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④ ㉠과 ㉡에서 조사는 각각 3개씩이다.
 ⑤ ㉠과 ㉡에서 가변어는 각각 2개씩이다.

■ 문제 해결 전략

품사의 분류를 파악한다..

확인1

㉠에 조사는 ‘까지’, ‘는’, ‘을’, ‘도’가 있으며, ㉡에는 ‘께서’, ‘로’, ‘를’이 있다. 따라서 조사는 ㉠에 4개, ㉡에는 3개가 있다. 정답 ④

확인2

② ‘온갖’은 뒤에 오는 체언인 ‘재료’를 수식하는 수식언(관형사)이다.

⑤ 가변어는 ㉠에 2개(‘모르고’, ‘있다’), ㉡에도 2개(‘곱게’, ‘빚으셨다’)가 있다. ‘곱게’는 용언(형용사)인 ‘곱다’가 ‘고와’, ‘고우니’처럼 활용되는 형태이므로 가변어이다.

2.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고3 7월 학력평가)

- ① ㉠ [들에 다섯을 더하면 일곱이다.
여기에 사과 일곱 개가 있다.
- ② ㉠ [너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가구가 커서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 ③ ㉠ [식구 모두가 여행을 떠난다.
그릇에 담긴 소금을 모두 쏟았다.
- ④ ㉡ [나를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 ⑤ ㉡ [모두 같이 학교에 갑시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이 생각난다.

■ 문제 해결 전략

품사의 통용을 파악한다.

확인1

‘식구 모두가 여행을 떠났다.’의 ‘모두’는 조사 ‘가’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명사)이고, ‘그릇에 담긴 소금을 모두 쏟았다.’의 ‘모두’는 용언 ‘쏟았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정답 ③

확인2

- ① 수사와 관형사(수관형사)이다.
- ② 동사와 형용사이다.
- ④ 모두 조사이다.
- ⑤ 부사와 조사이다.

■ 문장론

1.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6월 모의평가)

- ㉠ 그녀는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 내가 만난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 피곤해하던 동생이 엄마가 모르게 잔다.
 ㉣ 그가 시장에서 산 배추는 값이 비싸다.

- ① ㉠과 ㉡은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② ㉢과 ㉣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③ ㉠은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고, ㉡은 서술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④ ㉠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⑤ ㉢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문제 해결 전략

문장의 짜임새를 파악한다.

확인1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해 주어진 예문을 탐구하는 문항이다. ㉢에는 ‘피곤해하던’이라는 관형절과 ‘엄마가 모르게’라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또한 ㉣에는 ‘그가 시장에서 산’이라는 관형절과 ‘값이 비싸다’라는 서술절이 안겨 있다. ㉢에는 ㉣과 달리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인 서술절이 안겨 있지 않다.

정답 ②

확인2

- ①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은 관형절을 의미한다. ㉠에는 ‘따뜻한’이라는 관형절이, ㉡에는 ‘내가 만난’이라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③ ㉠에는 명사절 ‘봄이 빨리 오기’ 속에 부사어 ‘빨리’가 포함되어 있고, ㉡에는 서술절 ‘마음이 정말 착하다’ 속에 부사어 ‘정말’이 포함되어 있다.
 ④ ㉠에 안겨 있는 문장인 ‘따뜻한’에는 ‘봄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에 안겨 있는 문장인 ‘그가 시장에서 산’에는 ‘배추를’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⑤ ㉢에서 부사절 ‘엄마가 모르게’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고, ㉣에서 관형절 ‘그가 시장에서 산’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다.



2.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고3 7월 학력평가)

< 보 기 >

선생님: 두 개의 홑문장을 하나의 겹문장으로 만들 때, 두 홑문장 중 한 문장에서 특정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홑문장 ㉠, ㉡을 하나의 겹문장 ㉢으로 만든 예인데요, ㉢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 철수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였다.

+

㉡ 공원은 학교 뒤에 있다.

↓

㉢ 철수가 산책을 한 공원은 학교 뒤에 있다.

학 생 : _____ [A] _____

- ① ㉠이 ㉡에 관형절로 안기면서 ㉠의 목적어가 생략되었습니다.
- ② ㉠이 ㉡에 관형절로 안기면서 ㉠의 부사어가 생략되었습니다.
- ③ ㉠이 ㉡에 부사절로 안기면서 ㉠의 부사어가 생략되었습니다.
- ④ ㉠이 ㉡에 부사절로 안기면서 ㉡의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 ⑤ ㉠이 ㉡에 명사절로 안기면서 ㉡의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 문제 해결 전략

겹문장의 특징을 파악한다.

확인

홑문장 ㉠이 관형절인 ‘철수가 산책을 한’의 형태가 되어 ㉡에 안기는 과정에서 ㉠의 부사어 ‘공원에서’가 생략되었다

정답 ②

■ 의미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의 의미 관계 중 상하 관계는 의미상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관계를 말한다. 이때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의어라 하고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단어를 하의어라 하는데, 상의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하의어일수록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상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상의어와 하의어가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이를테면 ‘구기’는 ‘스포츠’와의 관계 속에서 하의어가 되지만, ‘축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상의어가 된다. 그런데 ‘구기’의 하의어에는 ‘축구’ 외에 ‘야구’, ‘농구’ 등이 더 있다. 이때 상의어인 ‘구기’에 대해 하의어 ‘축구’, ‘야구’, ‘농구’ 등은 같은 계층에 있어 이들을 상의어 ‘구기’의 공하의어라 하며, 이들 공하의어 사이에는 ㉠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 곧 어떤 구기가 ‘축구’이면서 동시에 ‘야구’나 ‘농구’일 수는 없다.

한편 상하 관계에서는 하의어들이 상의어의 의미를 이어받아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 일례로 어떤 새가 ‘장끼’이면 그 ‘장끼’는 상의어 ‘뿔’의 의미를 이어받으므로 ‘뿔’을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새가 ‘뿔’이라 해서 그것이 꼭 ‘장끼’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의어는 하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지 못한다. 이를 []로 표현하는 의미 자질로 설명하면, 하의어 ‘장끼’는 상의어 ‘뿔’의 의미 자질들을 가지면서 [수컷]이라는 의미 자질을 더 가져, 결국 하의어 ‘장끼’는 상의어 ‘뿔’보다 의미 자질 개수가 많다. 곧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이 많은 하의어는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구기’의 공하의어가 여러 개인 것과 달리, ‘뿔’의 공하의어는 성별로 구분했을 때 ‘장끼’와 ‘까투리’ 둘뿐이다. ‘구기’의 공하의어인 ‘축구’, ‘야구’ 등과 마찬가지로 ‘장끼’, ‘까투리’는 ‘뿔’의 공하의어로서 비양립 관계에 있다. 그러나 ‘장끼’와 ‘까투리’의 경우, ‘장끼’가 아닌 것은 곧 ‘까투리’이고 그 역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한 상의어가 같은 계층의 두 단어만을 공하의어로 포함하면, 그 공하의어들은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자료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월 모의평가)

악기(樂器)[-끼] 명

[음악] 음악을 연주하는 데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연주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눈다.

타-악기(打樂器)[타:-끼] 명

[음악]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팀파니, 실로폰, 북이나 심벌즈 따위이다.

- ① ‘타악기’는 ‘실로폰’의 상의어로서 ‘실로폰’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겠군.
- ② ‘북’은 ‘타악기’의 하의어이므로 [두드림]을 의미 자질 중 하나로 갖겠군.
- ③ ‘기구’는 ‘악기’를 의미적으로 함의하고 ‘악기’는 ‘북’을 의미적으로 함의하겠군.
- ④ ‘타악기’와 ‘심벌즈’는 모두 ‘기구’의 하의어이지만, ‘기구’의 공하의어는 아니겠군.
- ⑤ ‘현악기’와 ‘관악기’는 ‘악기’의 공하의어이므로 모두 ‘악기’의 상의어 ‘기구’보다 의미 자질의 개수가 많겠군.

■ 문제 해결 전략

어휘의 의미를 파악한다.

확인1

상하 관계에서는 하의어들이 상의어의 의미를 이어받아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 즉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이 많은 하의어가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는 것이다. 제시된 사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구’는 ‘악기’의 상의어이고, ‘악기’는 ‘북’의 상의어이다. 그러므로 ‘악기’는 ‘기구’를 의미적으로 함의하고 ‘북’은 ‘악기’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확인2

- ① 상의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하의어일수록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타악기’는 ‘실로폰’의 상의어로서 ‘실로폰’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② ‘타악기’가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북’은 ‘타악기’의 하의어에 해당하므로 [두드림]이라는 의미 자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④ 공하의어는 상의어인 어떤 단어에 대해 같은 계층에 있는 하의어를 일컫는 말이다. 제시된 사전의 내용을 통해 볼 때 ‘기구-악기-타악기-심벌즈’라는 상하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타악기’와 ‘심벌즈’는 모두 ‘기구’의 하의어에 해당하지만 ‘기구’의 공하의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⑤ 하의어는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을 더 가져 의미 자질 개수가 더 많다. ‘악기’의 사전 풀이에 비추어 볼 때 ‘현악기’와 ‘관악기’는 ‘악기’의 공하의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현악기’와 ‘관악기’가 ‘악기’의 상의어인 ‘기구’보다 의미 자질의 개수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2.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을 모두 만족시키는 단어 쌍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6월 모의평가)

— < 보 기 > —

㉠ 여름에 고향을 출발한 그가 마침내 ㉡ 북극에 도달했다는 소식에 나는 다급해졌다. 지구의 양극 중 ㉢ 남극에는 내가 먼저 가야 했다. 남극 대륙은 ㉣ 계절이 여름이어도 내 고향의 ㉤ 겨울만큼 바람이 차다. 남극 대륙에서 나를 위로해 준 것은 설매를 끄는 ㉦ 개들과 귀여운 몸짓을 하는 ㉧ 펭귄들, 그리고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는 ㉨ 갈매기들뿐이었다

- ①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

■ 문제 해결 전략

의미 관계를 파악한다.

확인1

비양립 관계와 상보적 반의 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단어 쌍을 찾는 문항이다. 비양립 관계와 상보적 반의 관계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상의어가 같은 계층의 두 단어만을 공하의어로 포함하면서 그 두 단어들이 양립하지 않으며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야 한다. <보기>의 문맥에서 ‘지구의 양극’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북극’과 ‘남극’은 ‘극’이라는 상의어에 대해 공하의어이다. 그리고 ‘북극’이면서 동시에 ‘남극’인 경우는 없어 비양립 관계가 성립하고, ‘극’이 ‘북극’과 ‘남극’만을 공하의어로 포함하면서 ‘북극’과 ‘남극’이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보적 반의 관계도 성립하고 있으므로 ㉠과 ㉡을 모두 만족시키는 단어 쌍에 해당한다. 정답 ①

확인2

- ② 상의어를 ‘계절’로 본다면 ‘여름’과 ‘겨울’은 공하의어이고, ‘여름’이면서 동시에 ‘겨울’일 수는 없어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계절’에는 ‘봄’, ‘가을’이라는 하의어도 있어 상보적 반의 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상의어를 ‘조류’로 본다면 ‘펭귄’과 ‘갈매기’는 공하의어이고, ‘펭귄’이면서 동시에 ‘갈매기’일 수는 없어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조류’에는 ‘닭’, ‘오리’ 등과 같은 하의어도 있어 상보적 반의 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여름’과 ‘계절’은 공하의어에 해당하지 않아 비양립 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상보적 반의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상의어를 ‘동물’로 본다면 ‘개’와 ‘갈매기’는 공하의어이고 ‘개’이면서 동시에 ‘갈매기’일 수는 없어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동물’에는 ‘펭귄’, ‘닭’, ‘오리’ 등과 같은 하의어도 있어 상보적 반의 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옛 국어

1.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3 3월 학력평가)

<보 기>

(가)

겨스레 소음 둔 오술 닙디 아니 호고 녀르메 서늘흔 더 가디 아니 하며 호르
발 두 호브로뻔 죽을 밍골오 소곰과 느물홀 먹디 아니 호더라

- 「내훈」(1447년)에서 -

[현대어 풀이]

겨울에 솜 든 옷을 입지 아니하고 여름에 서늘한 데 가지 아니하며 하루 쌀 두
홑으로써 죽을 만들고 소금과 나물을 먹지 아니하더라.

(나)

타락과 초와 장과 소금과 계조 그와 파과 마늘과 부치와 기름과 땃무우과 외
와 가지 등 여러가지 느물과 둥기 알과

- 「박통사언해」(1677년)에서 -

[현대어 풀이]

타락과 식초와 장과 소금과 겨자 가루와 파와 마늘과 부추와 기름과 당근과 오
이와 가지 등 여러 가지 나물과 닭의 알과

- ① 15세기에는 한 단어 내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가)의 ‘겨슬’과 ‘호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군.
- ② 15세기에는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가)의 ‘오술’과 ‘죽을’
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③ 용언 어간에 ‘-더-’가 결합할 때에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가)의 ‘호더라’를 통
해 확인할 수 있군.
- ④ 17세기에는 모음 조화의 약화에 따라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음을 (나)의 ‘초와’와 ‘파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⑤ 둘째 음절의 ‘·’가 ‘ㅡ’로 변하였음을 (가)의 ‘느물’과 (나)의 ‘느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문제 해결 전략

중세 국어의 모음 조화를 이해한다.

확인1

주어진 글에서 조사 ‘와’와 ‘과’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와’와 ‘과’의 모
음은 ‘ㅏ’로 동일하므로 모음 조화가 적용되는 이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17세기에 모음 조화의 약
화에 따라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음을 ‘초와’와 ‘파과’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확인2

- ① ‘겨슬’의 ‘ㄱ’과 ‘ㅡ’는 음성 모음에 해당하고, ‘헉’의 ‘·’는 양성 모음이다. 따라서 한 단어 내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오슬’은 체언 ‘옷’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것이고, ‘죽을’은 체언 ‘죽’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것이다. ‘오슬’은 양성 모음끼리 결합한 것이고, ‘죽을’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한 것이므로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헉더라’에서 ‘-더-’가 양성 모음을 지닌 ‘헉-’ 뒤에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용언 어간에 ‘-더-’가 결합할 때에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늑’과 ‘늑’의 차이는 둘째 음절의 ‘·’가 ‘ㅡ’로 변한 것이다.

2.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6월 모의평가)

— < 보 기 1 > —

일반적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서술격 조사가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먼저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이’가 나타났다.

○ 상네 쓰는 햇 일후미라(일훔+이라) (보통 쓰는 해의 이름이다)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이거나 반모음 ‘ㅣ’일 때는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 牛頭는 쇠 머리라(머리+라) (우두는 소의 머리이다)

그리고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도, 반모음 ‘ㅣ’도 아닌 모음일 때는 ‘ㅣ’가 나타났다.

○ 生佛은 사라 겨신 부테시니라(부터+ㅣ시니라) (생불은 살아계신 부처이시다)

— < 보 기 2 > —

○ 齒는 ㉠ (치는 이이다)

○ 所는 ㉡ (소는 바이다)

○ 樓는 ㉢ (누는 다락이다)

	㉠	㉡	㉢
①	니이라	바이라	다락라
②	니라	배라	다락ㅣ라
③	니이라	바라	다락ㅣ라
④	니라	배라	다라기라
⑤	니ㅣ라	바이라	다라기라

■ 문제 해결 전략

중세 국어 문법을 이해한다.

확인

중세 국어에 나타나는 서술격 조사의 실현 양상을 탐구하는 문항이다. <보기 1>의 설명에 따를 때, 중세 국어에서는 서술격 조사가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었다. 즉 (1)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는 ‘이’, (2)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이거나 반모음 ‘ㅣ’일 때는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영형태(Ø)’, (3)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도, 반모음 ‘ㅣ’도 아닌

정답 ④

5

연습 문제로 문법 정복하기

1.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능특강)

< 보 기 >

선생님: 이번 시간에 배운 음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음운은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
- 각 언어의 음운 체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
- 한 언어에서도 음운 체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
- 음운에는 비분절적인 말소리 요소도 포함된다. ㉣
- 음성은 구체적인 소리지만 음운은 추상적인 소리이다. ㉤

- ① ㉠: ‘김’과 ‘감’은 ‘ㅣ’와 ‘ㅏ’에 의해 그 뜻이 구별되므로 ‘ㅣ’와 ‘ㅏ’는 우리말의 음운이다.
 ② ㉡: 한국어에서는 영어 ‘right[rait]’와 ‘light[lait]’에서의 [r]과 [l]을 다른 음운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③ ㉢: ‘나’는 처음과 나중의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를 서로 다르게 하여 소리를 낸다.
 ④ ㉣: [눈]과 [눈:]은 소리의 길고 짧음을 통해 그 의미가 구별된다.
 ⑤ ㉤: 두 사람이 각각 ‘이’를 소리 낼 때 물리적인 소리는 서로 다르지만 듣는 사람은 같은 소리로 인식한다.

2. <보기>의 ㉠~㉣에 따라 음운 변동 과정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수능특강)

< 보 기 >

우리말의 음운 변동은 크게 다음과 같이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것
- ㉡ 첨가: 없던 음운이 덧붙는 것
- ㉢ 탈락: 한 음운이 없어지는 것
-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것

① 걸모습	㉠ →	건모습	㉡ →	[건모습]
② 탓하다	㉢ →	탈하다	㉣ →	[타타다]
③ 색연필	㉡ →	색년필	㉢ →	[생년필]
④ 흙냄새	㉣ →	흑냄새	㉠ →	[홍냄새]
⑤ 값하다	㉣ →	갑하다	㉣ →	[가파다]

3. (가)를 참고하여 (나)의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능완성)

(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범하는 표기의 오류 중에는 음운 변동과 관련을 맺는 경우가 많다. 음운 변동이 적용된 대로 표기하여 틀리는 경우도 있고,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고 착각하여 잘못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잘할는지 모르겠다’를 ‘잘할른지 모르겠다’로 잘못 쓰는 것은 어떻게 적어도 발음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어의 자음 동화라는 음운 변동이 관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음운 변동을 잘 알고 있으면 표기의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 ㉠~㉤에 제시된 음운 변동과 관련된 표기 오류가 나타나는 문장을 찾아보자.

- ㉠ 음절 종성에서 겹자음은 하나의 자음만 발음된다.
- ㉡ ‘ㄷ, ㅌ’ 뒤에 모음 ‘이’가 결합하면 ‘스, ㅌ’으로 발음된다.
- ㉢ ‘스, ㅌ, ㅍ’ 뒤의 ‘ㅏ, ㅑ, ㅓ, ㅕ’는 ‘ㅏ, ㅑ, ㅓ, ㅕ’로 발음된다.
- ㉣ 음절 종성에서 홀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 발음된다.
- ㉤ ‘ㅎ’과 예사소리 ‘ㄱ, ㄷ, ㅂ, ㅅ’이 결합하면 ‘ㅋ, ㅌ, ㅍ, ㅈ’으로 축약된다.

- ① ㉠: 밥을 얇 먹는 게 아니고 못 먹고 있다.
- ② ㉡: 그리운 친구에게 손 편지를 써서 붙인다.
- ③ ㉢: 맑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 ④ ㉣: 오늘이 몇일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
- ⑤ ㉤: 아뭏든 이번만큼은 기필코 뜻한 바를 이루겠다.

4. <보기>를 참고하여 단어를 분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능특강)

< 보 기 >

어간은 용언의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근은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그런데 동일한 요소가 어간으로도 쓰이고 어근으로도 쓰인다. 예를 들어 ‘놀-’은 ‘놀다’의 어간이기도 하면서 파생어인 ‘놀리다’의 어근이기도 하다. 이때 ‘놀리다’의 어간은 ‘놀리-’이다. 또한 합성어인 ‘뛰놀다’의 어근은 ‘뛰-’, ‘놀-’이지만 어간은 ‘뛰놀-’이 된다.

- ① ‘깨우다’의 어근은 ‘깨-’이고 어간은 ‘깨우-’이다.
- ② ‘되찾다’의 어근은 ‘되-’이고 어간은 ‘되찾-’이다.
- ③ ‘붙잡다’의 어근은 ‘붙-’, ‘잡-’이고 어간은 ‘붙잡-’이다.
- ④ ‘떡-’은 ‘떡다’의 어간이기도 하면서 파생어인 ‘떡이다’의 어근이기도 하다.
- ⑤ ‘끓이다’의 어근은 ‘끓-’, 어간은 ‘끓이-’이고, ‘애끓다’의 어근은 ‘애’, ‘끓-’, 어간은 ‘애끓-’이다.

5. <보기>의 (가)에 들어갈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능특강)

— < 보 기 > —

국어의 문장에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에 따라 어근을 결합한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 그렇지 않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쌀밥’, 동사의 관형사형과 명사가 결합한 ‘굳은살’, 동사의 연결형과 동사의 어간이 결합한 ‘갈아입다’ 등은 국어 문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배열법으로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반면에 형용사의 어간과 명사가 결합한 ‘검버섯’, 동사의 어간과 동사의 어간이 결합한 ‘끓주리다’ 등은 국어의 문장 구성에는 없는 단어 배열법으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다른 예를 들어 살펴보자면, (가)

- ① ‘논밭’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의 예이다.
- ② ‘덮밥’은 동사의 어간과 명사가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이다.
- ③ ‘젊은이’는 형용사의 관형사형과 명사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의 예이다.
- ④ ‘파고들다’는 동사의 연결형과 동사의 어간이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의 예이다.
- ⑤ ‘들어가다’는 동사의 어간과 동사의 어간이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이다.

6. <보기>의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능특강)

— < 보 기 > —

의미를 지니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말의 단위가 형태소이다.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와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형식 형태소로 분류할 수도 있다. 단일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과 단일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 등이 실질 형태소에 속하고 조사, 어미, 접사 등은 형식 형태소이다. 자립 형태소는 대체로 실질 형태소와 일치하고 의존 형태소는 대체로 형식 형태소와 일치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에 속한다.

예문 : ㉠ 첫눈이 내리자 사람들은 한낮에 산으로 갔다.

- ① 자립 형태소는 ‘첫눈’, ‘사람’, ‘낮’, ‘산’ 4개이다.
- ②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는 ‘내리-’, ‘가-’이다.
- ③ 의존 형태소인 접사는 ‘-들’, ‘-한-’ 2개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 ④ 의존 형태소인 어미는 ‘-자’, ‘-았-’, ‘-다’ 3개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 ⑤ 형식 형태소인 조사는 ‘이’, ‘은’, ‘에’, ‘으로’ 총 4개로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다.

7. <보기>의 ㉠~㉣ 중 두 가지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닌 것은? (수능완성)

— < 보 기 > —

국어의 보조사는 체언의 문장 성분을 직접적으로 알려 주는 격 조사와는 다르다. 보조사는 앞 말이 어떤 문장 성분인지를 알려 주는 기능은 없고 단지 특수한 의미만 덧붙이는 기능을 한다. 보조사가 출현하는 양상은 다음 네 가지 경우로 요약할 수 있다.

- ㉠ 보조사의 앞뒤로 격 조사가 붙지 않은 경우
- ㉡ 보조사의 앞에 격 조사가 붙은 경우
- ㉢ 보조사의 뒤에 격 조사가 붙은 경우
- ㉣ 보조사가 체언 이외에 부사, 어미 등에 붙은 경우

- ① 너까지 우리를 믿지 못하다니 무척이나 실망이다.
- ② 선생님께서 나에게는 그 일을 맡기지도 않으셨어.
- ③ 엄마는 막내마저 시집을 가고 나니 눈물이 나왔다.
- ④ 너만을 예외로 해 달라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다.
- ⑤ 이번에는 진주도 수학 경시 대회에 나간다고 한다.

8. <보기>를 바탕으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능특강)

— < 보 기 > —

ㄱ. 아이의 눈이 별처럼 빛난다.
 ㄴ. 영우는 어제 친구를 만났다.
 ㄷ.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ㄹ. 농부는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었다.
 ㅁ.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 ① ㄱ에 쓰인 문장 성분 중 필수적인 것은 두 개구나.
- ② ㄴ에 쓰인 부사어는 필수적인 성분은 아니구나.
- ③ ㄷ에서 ‘사라진 것은’은 필수 성분이구나.
- ④ ㄹ에서 필수적인 것은 ‘농부는’, ‘황무지를’, ‘바꾸었다’이구나.
- ⑤ ㅁ에서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모두 필수 성분이구나.

9.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능특강)

— < 보 기 > —

다른 문장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절을 안긴문장이라고 하며, 이 절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안긴문장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뉜다.

■ [그는 [[내가 쓴] 보고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
㉡

㉢
㉣

■ [선생님은 [우리가 [학생들의 의사를 잘 대변하는] 대표를 선출하기]를 바라신다.]

㉤
㉥

㉦
㉧

- ① ㉠이 수식하는 명사는 주격 조사와 결합하였고, ㉡이 수식하는 명사는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였다.
- ② ㉠과 ㉡의 주어는 동일하지 않지만, ㉤과 ㉥의 주어는 동일하다.
- ③ ㉠과 ㉡이 생략되어도 ㉢과 ㉣은 문장으로 성립할 수 있다.
- ④ ㉡은 명사형 어미 ‘- 음’과, ㉥은 ‘-기’와 결합하여 명사절이 되었다.
- ⑤ ㉡과 ㉥은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여 각각 ㉢과 ㉣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10.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문장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수능특강)

— < 보 기 > —

주어가 제힘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행동을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별이 나를 쏘았다.’는 능동문이고, ‘내가 별에게 쏘였다.’는 이에 대응하는 피동문이다. 그런데 피동문 중에는 ㉠ 대응하는 능동문이 존재하지 않는 피동문이 있고, 능동문 중에도 ㉡ 대응하는 피동문을 만들기 어려운 능동문이 있다.

	㉠	㉡
①	더위가 한풀 꺾였다.	희태가 잠자리를 잡았다.
②	자물쇠가 누군가에게 뜯겼다.	그는 그쪽 지리를 잘 알았다.
③	온 세상이 눈에 덮였다.	호랑이가 닭을 잡아먹었다.
④	내가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나는 할아버지에게서 바둑을 배웠다.
⑤	아이가 모기에게 잔뜩 물렸다.	건우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11. 밑줄 친 말의 시간 표현에 주목하여 <보기>의 문장을 탐구한 결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수능완성)

< 보 기 >
㉠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운동을 <u>한다</u>. ㉡ 그분은 내년에 유학을 <u>떠난다고</u> 한다. ㉢ 누나는 어제 사 온 원피스를 <u>입고 있다</u>. ㉣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u>하고 있다</u>. ㉤ 커피를 석 잔이나 <u>마셨으니</u> 이제 잠은 다 <u> 잤다</u>. ㉥ 아까 친구가 <u>왔었다</u>. 지금 친구는 돌아가고 없다. ㉦ 연휴여서 그런지 서울역에 사람들이 정말 <u>많더라</u>.

- ① ㉠과 ㉡을 보니, ‘-ㄴ-’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지만 미래의 사건을 나타낼 때도 쓰이는군.
 ② ㉢과 ㉣을 보니, ‘-고 있다’가 쓰인 문장은 중의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군.
 ③ ㉤을 보니, ‘마셨다’와 ‘잤다’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임을 나타내기 위해 같은 형태소 ‘-았/었-’을 썼군.
 ④ ㉥을 보니, 현재의 상황이 과거와 달라져 단절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왔었다’에 ‘-았었-’을 썼군.
 ⑤ ㉦을 보니, 말하는 이가 과거에 직접 목격한 바를 나타내기 위해 ‘많더라’에 ‘-더-’를 썼군.

12.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인 것은? (고3 3월 학력평가)

< 보 기 >
채 「의존 명사」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체 「의존 명사」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 -째 「접사」 ‘그대로’, 또는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① 사과를 껍질째로 먹었다.
 ② 나는 앓은 체로 잠이 들었다.
 ③ 그녀는 혼자 똑똑한 채를 한다.
 ④ 사나운 멧돼지를 산 째로 잡았다.
 ⑤ 곰이 다가오자 그는 죽은 채를 했다.

13. <보기>의 예가 될 수 있는 문장의 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능완성)

< 보 기 >

다의어가 서술어로 쓰일 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나 종류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교실이 밝다.”에서는 주어 ‘교실이’만이 필수 성분이지만 “그는 물리학에 밝다.”에서는 주어 ‘그는’과 부사어 ‘물리학에’가 필수 성분이다. 이때 두 ‘밝다’의 의미는 다르다.

- ① ☐ 줄음이 오면 나가서 운동을 해.
☐ 동수가 집에 오면 늘 텔레비전만 봐요.
- ② ☐ 버스에 사람이 꽉 찬 탈 수가 없었다.
☐ 그는 복무 기한이 꽉 찬 곧 제대한다.
- ③ ☐ 선회는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이라고 한다.
☐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간다.
- ④ ☐ 우리는 그 거래에서 손해를 보았다.
☐ 그분은 나를 생명의 은인으로 보았다.
- ⑤ ☐ 형님은 장례를 치르면서 많이 울었다.
☐ 소희는 점원에게 그 옷의 값을 치렀다.

14. <보기>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능특강)

< 보 기 >

㉠ 스물히어든 가관(加冠)히야 비르소 례(禮)물비호며 가(可)히 ㉡ 빠 갓옷과 기블 니브며 대하(大夏)로 춤츠며 ㉢ 효도함과 ㉣ 공순호물 도타이 형(行)히며 너비 비호고 ㉤ ㄴ르치디 아니히며 소개 두고 내디 아니홀디니라

- 『소학언해(小學諺解)』 권 1, 선조 20년(1587)

[현대어 풀이]

스물이거든 관례를 치르고 갓을 써 비로소 례를 배우며 가히 가죽옷과 비단을 입으며 대하(大夏)를 추고 효도함과 공손함을 도타이 행하며 널리 배우고 가르치지 아니하며 속에 두고 내지 아니할지니라.

- ① ㉠을 통해 ㅎ 중성 체언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을 통해 어두에 합용 병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을 통해 명사형 어미 ‘-음’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을 통해 끊어 적기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을 통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표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의 객체 높임은 문장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는 것을 가리킨다. 현대 국어에서의 객체 높임은 주로 ‘모시다, 뵙다, 여쭙다, 드리다’와 같은 특수 어휘에 의해 실현된다. 그런데 15세기 국어에서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식은 현대 국어의 방식과는 달랐다. 15세기 국어에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존재하였다.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는 ‘-습-’인데 어간의 끝소리와 어미의 종류에 따라 ‘-습-, -줍-, -숴-, -숴-, -줍-’으로 실현되었다. ‘-습-, -습-, -줍-’은 모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것인데 어간의 끝소리의 종류에 따라 구별되었다. ‘-습-’은 어간의 끝소리 ‘ㄱ, ㄷ, ㄱ, ㅎ’ 뒤에서 사용되었다. ‘-줍-’은 어간의 끝소리가 ‘ㄷ, ㅌ, ㄷ, ㅌ’일 때 사용되었고, ‘-숴-’은 어간의 끝소리가 모음이나 유성 자음 ‘ㄴ, ㄹ, ㄹ’일 때 사용되었다.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습-, -습-, -줍-’이 각각 ‘-숴-, -숴-, -줍-’으로 실현되었다.

(가) 내 딸 勝鬘(승만)이 聰明(충명)하니 부터옷 보스븄면 당다이得道(득도)를 썰리 흐리니
내 딸 승만이 충명하니 부처를 뵈면 분명히 득도를 빨리 하리니

(나) 내 아래브터 부터기 이런 마를몬 듣즈븄며
내가 예전부터 부처께 이런 말을 못 들었으며

(다) 無量壽佛(무량수불) 보스븄사르몬
무량수불을 뵈 사람은

(가)에서는 ‘보스븄면’에는 용언의 어간 ‘보-’와 연결 어미 ‘-으면’ 사이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 말의 화자에 해당하는 인물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터’가 자기 딸 ‘승만’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터’를 높인 것이다. 그리고 (나)에서는 화자인 ‘나’가 부사어에 해당하는 ‘부터’가 나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즈븄며’에 ‘-줍-’이 나타났다.

객체 높임법은 관형사형에서도 실현되었는데 (다)에서 관형사형 ‘보스븄’은 바로 뒤의 명사인 ‘사람’보다 목적어 ‘무량수불’이 높기 때문에 ‘-습-’을 사용한 것이다.

15. 이 자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능특강)

- ①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객체 높임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인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 ② 현대 국어의 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 ③ (가)의 ‘보스븄면’과 (다)의 ‘보스븄’은 현대 국어의 특수한 객체 높임 표현으로 바꿀 수 있지만 (나)의 ‘듣즈븄며’는 현대 국어의 특수한 객체 높임 표현으로 바꿀 수 없다.
- ④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용언의 관형사형 이외의 활용형에서도 실현되었다.
- ⑤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은 결합하는 어간의 끝소리가 달라지면 ‘-습-’으로 실현되기도 하였다.

16.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단어의 형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능특강)

	중세 국어	현대어 풀이
①	듣줍고(듣- + -줍- + -고)	듣고
②	츠습고(츠- + -습- + -고)	차고
③	언즈바](언- + -줄- + -아)	언어
④	돕스븍]니(돕- + -습- + -으니)	도우니
⑤	막습거늘(막- + -습- + -거늘)	막거늘



독서

1

EBS 교재에 수록된 독서 지문 한눈에 보기

교재	지문	쪽
수능특강 [개념학습]	퍼지 논리와 퍼지 기술 [인문+기술]	08
	DDoS 공격	13
	자동차의 동력	15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18
	산의 인문학	22
	개인 정보	26
	조선 시대 회화	29
	구조주의 문학 비평과 탈구조주의 문학 비평	34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예술]	36
	공공 외교	41
수능특강 [적용학습] -인문-	역사의 시대 구분: 3분법과 유럽의 근대 역사학	52
	현대 윤리학에서의 직관 논쟁	55
	퍼스, 믿음의 상태에 이르는 방법	58
	해석 수준 이론	61
	민족지학과 민족지고고학	64
	가치를 평가하는 두 가지 입장,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67
	엘리아데의 신화론	70
	율곡 이이의 수양론	73
	개념사	76
	조선 후기 민간의 이야기 속 이상향	79
	위진 시대의 유무론	82
	태도 변용	86
	동증서의 사상	88
	종교 인류학에서의 의례 연구	91
수능특강 [적용학습] -사회-	세력 균형 이론	102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메시지 해석 수준	104
	거미집 이론	106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 관세 조치와 비관세 조치	109
	어린이 소비자의 특성과 키즈 마케팅 전략	112



교재	지문	쪽
수능특강 [적용학습] -사회-	종합적 시스템으로서의 지리 정보 시스템	115
	퍼스널리티	118
	부정 경쟁 방지법	121
	퍼블리시티권	124
	특허권	127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130
	정책 평가	133
	소비자 심리 분석을 통한 마케팅	136
	국제기구의 의사 결정 방식	139
수능특강 [적용학습] -과학-	체렌코프 복사	149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	152
	전기유변성 유체의 특징과 전기유변성의 원리	155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 - 뢰머와 브래들리를 중심으로	159
	동물의 세력권과 행동권	162
	뼈의 재형성과 성장	164
	프랙탈의 원리	167
	리스테리아	170
	소리의 전달 과정과 전달 속도	173
	중력과	176
	신체의 염증 반응	180
	대양저와 해저 지형	183
	부드럽고 고소한 지방의 두 얼굴	186
	생물 계통수	189
수능특강 [적용학습] -기술-	겔 전기영동법	200
	OLED의 기본 구조와 특징	202
	비행기의 양력과 비행기 날개의 설계 원리	204
	유기 랭킨 발전 시스템	206
	바이오 디젤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미세 조류 배양 기술	209
	홍채 인식 기술	212
	결로 현상 방지법	215
	광집계	218
	전통 현의 제조 기술	221
	아쿠아포닉스	224
	인터넷 주소의 사용	226
	음향 현상	229
수능특강 [적용학습] -예술-	씻김굿	240
	비디오 아트와 백남준의 예술 세계	243
	데페이즈망의 원리와 표현 효과	246
	황종울관과 열두 음률	249

교재	지문	쪽
수능특강 [적용학습] -예술-	앙드레 바쟁의 영화 이론	252
	보링거의 추상과 감정 이입	256
	일상생활과 예술의 이분법 넘어서기	258
	18세기 오페라 부파의 특징과 기능	261
	해체 타이포그래피	264
	조지 시걸의 하이퍼 리얼리즘 조각	267
	현대 건축의 전이 공간	270
	예술 작품으로서의 『삼강행실도』	273
수능특강 [실전학습] -1회-	결정론과 자유 의지	278
	게임 이론의 수학적 고찰	281
	방진 기술	286
	디지털 미디어 예술의 몰입과 상호 작용	289
수능특강 [실전학습] -2회-	정약용의 인성론과 음악관	291
	민법의 3대 원칙	296
	지구는 원소를 저장하는 창고다	299
	드론의 종류와 비행 원리	302
수능완성 [유형편]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42
	문화 전파의 역할을 한 화가 젠틸레 벨리니	51
	카페인인의 생리학적 부작용과 카페인 산업	55
수능완성 [실전편] -1회-	허프만 부호화	141
	영화의 편집과 인간의 시각계	143
	외환 시장 개입	146
수능완성 [실전편] -2회-	용수철 종파의 파동 함수	166
	사진에서의 시간성	168
	형벌의 정당성	170
수능완성 [실전편] -3회-	3D 프린팅 기술과 저작권 문제	194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리하는 에피쿠로스의 지혜	197
	빛 정보의 저장과 재생	200
수능완성 [실전편] -4회-	조선 시대 전세(田稅) 제도	220
	음극선관과 미디어 아트	222
	통계의 함정	225
수능완성 [실전편] -5회-	사물 인터넷과 인간 인터넷	246
	수성론과 화성론	249
	문화 인류학적 시각으로 본 인간 진화	251

2

모의평가 기출 독서 살펴보기

<6월 모의평가>

인문 [16~21]	율곡의 법제 개혁론	[수능특강] 독서 73~75쪽	교재의 지문에서 다룬 내용을 재구성하여 지문 구성
사회 [22~25]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비연계	연계되지 않음.
기술 [20~34]	DNS 스푸핑	[수능특강] 독서 226~228쪽	교재 지문의 핵심 제재(DNS)를 반영하여 확장함

3

EBS 교재와의 연계성 파악하기

6월 모의평가의 독서 문항 체제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인문(6문항), 사회(4문항), 기술(5문항)의 세 세트로 출제되었다.

독서 영역은 총 15개 문항(16~25번, 30~34번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인문(6문항), 사회(4문항), 기술(5문항) 등 총 4개 분야의 글이 지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사회 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문들은 모두 EBS 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지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문 지문은 ‘율곡의 사상’을 소재로 한 글(16~21번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EBS 교재 지문의 핵심 제재인 ‘율곡의 법제 개혁론’을 활용하여 지문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기술 지문은 ‘DNS’라는 핵심 제재를 활용하여(30~34번 문항) 지문을 구성하는 형태를 보였다. 독서 영역에서 유일하게 EBS 교재를 연계하지 않은 사회 지문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소재로 한 글(22~25번 문항)이 출제되었다.

6월 모의평가의 독서 영역은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생각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지문의 수는 3개로 적었고, EBS 교재와 연계되었기는 하지만 모든 지문이 이전보다 길었기 때문이다. 6월 모의평가에서 독서 영역은 EBS 연계교재의 연계가 2지문이었던 것으로 보아, 11월 수능에서도 최소 1~2지문이 연계되어 출제될 것으로 보이며, 지문의 분량이나 지문마다의 문항 수는 2017학년도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6월에 연계되었던 EBS 교재는 수능특강 위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2018 대수능에서는 모의평가에서 연계되지 않은 수능완성 실전편에서 최소 1지 이상 연계되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1학기에 공부한 수능특강을 복습하는 한편 수능완성 실전편을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9월 모의평가를 치른 후 출제된 문항 중에서 새로운 유형이나 변형된 유형이 있는지를 살피고, EBS 교재와의 연계 정도도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4

EBS 교재에 실린 독서 지문 살펴보기

■ [인문1]

■ 현대 윤리학에서의 직관 논쟁 - (수능특강 55~57쪽)

우리는 어떤 도덕적 질문을 받을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우리 사회에 널리 수용되고 있는 확고한 도덕적 견해, 즉 우리가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도덕적 직관에 호소해서 답을 찾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직관주의 윤리학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덕적 신념과 정합적이라는 점에서, 또 상식의 도덕에 나름의 이론적 근거와 체계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설득력과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반면에 노예 제도나 여성 차별이 한때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식에 속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직관주의 윤리학은 우리의 도덕적 편견을 고착화하고 정당화할 위험을 안고 있으며, 전통적인 도덕적 질서를 옹호하는 도덕적 보수주의를 대변할 위험도 있다. 더욱이 직관주의 윤리학은 도덕적 직관들이 시대와 장소, 계층과 사람에 따라 다양하고 서로 갈등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다양한 직관들의 충돌로 인해 갈등을 겪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직관에 호소한다면 순환 논증의 오류를 범하게 되고, 반대로 직관에 기초하지 않는 윤리 이론에 호소한다면 직관의 우위와 자명성을 스스로 부인하게 된다.

이에 반해서 반직관주의 윤리학은 도덕적 직관의 자명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반직관주의 윤리학에 따르면 우리의 도덕적 직관들 중 많은 것들이 우리의 도덕적 전통이나 편견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며, 우리의 직관적 반응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관성도 없고, 신뢰성도 부족하다. 따라서 반직관주의 윤리학은 도덕적 직관이 윤리적 판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력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철학자 헤어에 따르면 반직관주의 윤리학에서는 직관주의 윤리학과 달리 논리를 따르는 도덕적 추리를 중시한다. 그런데 이러한 반직관주의 윤리학은 우리의 일상적 도덕 신념과 정합적이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직관을 거부하고 도덕적 직관에 반하는 결론을 지지한다는 점에 대해 해명할 책임이 있다. 헤어를 비롯한 많은 윤리학자들은 이러한 반직관성이 반직관주의 윤리학의 가장 큰 문제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헤어는 반직관주의의 이론적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직관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반직관성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그는 ‘도덕적 사유의 두 수준 모델’을 제시하였다. 헤어에 의하면 도덕적 사유는 직관적 사유와 비판적 사유의 두 수준으로 구성된다. 헤어는, 직관적 사유를 이끄는 도덕 원리는, 그것을 위반했을 때 죄의식이나 회한과 같은 강력한 도덕적 감정을 수반하며, 또 간단하고 일반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도덕적 사유에서 활용하기에 용이하다고 보았다. 헤어에 의하면 우리가 직면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직관적 사유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옳은 행위를 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하지만 직관적 사유는 직관에 대한 정당화가 요구되거나 직관들이 갈등하는 경우, 또는 직관들이 적용되기 어려운 새로운 경우나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직관적 사유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유가 요구되는데, 이를 통해서 직관을 정당화하고,

직관의 갈등을 해결하며, 직관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윤리적 문제에 지침을 제공한다.

‘도덕적 사유의 두 수준 모델’에서 비판적 사유와 직관적 사유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구조를 이룬다. 비판적 사유는 일상적인 현실에서 사용될 때 직관을 선정하는 데 관여하며, 나아가 직관적 사유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예외적 경우나 도덕적 직관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된다. 반면에 직관적 사유는 비판적 사유에 의해 선정된 직관을 개별적인 경우에 적용하고 준수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을 비판적 사유에 근접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핵심 정리

- 주제: 헤어의 ‘도덕적 사유의 두 수준 모델’이 지닌 특징
- 구성
 - 1문단: 직관주의 윤리학의 특징
 - 2문단: 반직관주의 윤리학의 특징
 - 3~6문단: 헤어의 ‘도덕적 사유의 두 수준 모델’의 특징
- 해제: 이 글은 직관주의 윤리학과 반직관주의 윤리학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 다음, 반직관주의의 이론적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직관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반직관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 영국의 철학자 헤어의 ‘도덕적 사유의 두 수준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헤어는 도덕적 사유가 직관적 사유와 비판적 사유의 두 수준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는데, 직관에 대한 정당화가 요구되거나 직관들이 갈등하는 경우, 또는 직관들이 적용되기 어려운 새로운 경우나 비정상적인 경우에 관적 사유의 한계가 드러나며 이때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판적 사유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이 모델에서는 비판적 사유와 직관적 사유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구조를 이룬다고 보았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헤어’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만약 아버지가 양을 훔치면 아들 A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딜레마 상황과 관련하여 『논어(論語)』에는 섭공(葉公)과 공자의 상반된 주장이 제시되어 있다. 『논어(論語)』에서 섭공은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이 정직이다.”라고 말한 반면, 공자는 “아버지를 위해 숨겨 주는 것이 정직이다.”라고 말하였다.

- ① A가 자신이 선택한 태도를 정당화하려면 비판적 사유보다는 직관적 사유를 따르는 게 유리하겠군.
- ② A가 자신의 딜레마를 해결할 때 직관적 사유와 비판적 사유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군.
- ③ A가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아버지를 위해 숨겨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직관적 사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A가 ‘아버지를 고발할까?’ 아니면 ‘아버지를 위해 숨겨 줄까?’를 놓고 갈등 중이라면 비판적 사유에 의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군.
- ⑤ 만일 A가 아버지를 고발한 후 그렇게 한 것에 대해 후회하며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그러한 행동이 직관적 사유를 이끄는 도덕 원리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군.

■ 수능 Tip

1. ‘헤어’의 관점과 관련된 정보를 지문(5문단)을 통해 확인한다.
 2. ‘헤어’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를 고려하며 선지를 판단한다.
2. 윗글에 드러난 ‘헤어’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상적 상황에서는 도덕적 직관에 기초하여 사유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도덕적 사유가 직관적 사유와 비판적 사유의 두 수준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 ③ 직관에 대한 수용을 배제함으로써 반직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반직관주의 윤리학에서는 직관주의 윤리학과 달리 논리를 따르는 도덕적 추리를 중시한다고 보았다.
 - ⑤ 직관적 사유를 이끄는 도덕 원리가 간단하고 일반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도덕적 사유에서 활용하기에 용이하다고 보았다.

■ 수능 Tip

1. ‘헤어’의 ‘도덕적 사유의 두 수준 모델’과 관련된 정보를 지문(4문단)을 통해 확인한다.
2. ‘헤어’의 관점을 고려하며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 [인문2]

▪ 퍼스, 믿음의 상태에 이르는 방법 - (수능특강 58~60쪽)

미국의 철학자 퍼스는 사람들이 의심의 상태에서 벗어나 믿음의 상태에 이르는 방법을 ‘고집의 방법’, ‘권위의 방법’, ‘선험적 방법’, ‘과학적 방법’으로 구분하고, 참된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퍼스가 말한 방법들을 구별하기 위해 ‘나’가 ‘우리 집 강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인식한 상황을 떠올려 보자. 강아지의 이상한 행동에 의심을 품은 ‘나’는 일반적으로 퍼스가 말한 방법 중 하나를 따른다.

먼저 ‘고집의 방법’이란 확실한 근거 없이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버리는 것이다. 강아지의 이상한 행동을 무시하고 ‘강아지는 정상이다.’라는 근거 없는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고집하는 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면 강아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식구들이 계속 강아지가 이상하다고 말하면 그 판단을 지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집을 통해 얻은 믿음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는 믿음이 단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인정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임을 드러내 준다.

‘권위의 방법’은 특정한 권위를 활용해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강제로 의심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가부장적 질서를 중시하는 집안에서 아버지가 ‘강아지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니 딴 생각은 하지 말라.’라고 가족들에게 엄포한 뒤, 가족들도 그 말을 따르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람들의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의심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결국 강요된 생각을 믿어 버리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 없다.

‘선험적 방법’이란 철학자들이 주로 쓰는 방법인데, 경험적 사실을 무시하고 ‘이성(理性)’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성적 판단이나 선험적 사고를 중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기반을 둔 기존의 철학이나 사상의 독단에 빠져 객관적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경험적 사실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결론이 타당한 것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위의 상황에서 선험적 방법으로 ‘강아지가 아프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참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퍼스는 참된 믿음에 도달하려면 ‘과학적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과학적 방법’이란 의심스러운 상황과 관련된 모든 가능성을 떠올리면서 그것이 참된 관념인지 거짓된 관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강아지가 이상한 행동을 계속할 때 ‘강아지는 괜찮아 보인다.’라는 판단은 머지않아 거짓된 관념임이 드러난다. 거짓된 관념은 우리가 믿을 만한 실제적인 결과에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퍼스는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확인하는 과정, 거짓된 관념을 지워 나가면서 실제적 결과에 다가가는 과정을 통해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또한 퍼스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공동체 내에서 믿음이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었다. 그는 과학적 탐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되다 보면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고, 그러한 결론은 객관적 실재에 가까운 것이라 주장했다.

이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퍼스가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근거를 객관적 사실, 즉 실재하는 사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한다고 생각했다. 객관적 사실

이 실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은 과학적 탐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잘못이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스는 과학적 탐구를 통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대상의 의미를 파악한 결과가 대상 자체의 완벽한 실재, 즉 ‘진리’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가 볼 때 진리란 그것을 인식하는 인간의 생각이나 신념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이상적이며 절대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과학적 탐구는 연구자의 감각과 주관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과학적 탐구를 통해 실재의 일부분이 드러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임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퍼스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 자체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를 향해 나아가는 참된 믿음을 얻는 일, 즉 과학적 탐구를 통해 실제적 결과를 드러내는 유용한 믿음을 찾아 나가는 일이다.

■ 핵심 정리

- 주제: 참된 믿음에 이르기 위한 과학적 탐구의 의미
- 구성

1문단: 퍼스가 주장한, 믿음의 상태에 이르는 네 가지 방법

2문단: 확실한 근거 없이 자신의 판단을 고집하는 ‘고집의 방법’

3문단: 특정한 권위를 활용해 의심을 제거하는 ‘권위의 방법’

4문단: 이성적 판단이나 선험적 사고를 중시하는 ‘선험적 방법’

5문단: 객관적 사실로부터 참된 관념과 거짓된 관념을 구별해내는 ‘과학적 방법’

6문단: 과학적 탐구를 통해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근거

7문단: 퍼스의 관점에서 본 ‘진리’의 개념과 과학적 탐구의 의미

- 해제: 이 글은 미국의 철학자 퍼스의 관점에서 과학적 탐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퍼스는 사람들이 의심에서 벗어나 믿음의 상태에 도달하는 방법을 ‘고집의 방법’, ‘권위의 방법’, ‘선험적 방법’, ‘과학적 방법’으로 나눈 뒤,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과학적 방법을 내세운다. 거짓된 관념은 실제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검토해 나가면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퍼스는 과학적 탐구를 통해 얻은 참된 믿음이 실재하는 대상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서 공동체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퍼스는 절대적이며 이상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재, 즉 ‘진리’에 다다르지 못할지라도 참된 믿음을 얻기 위한 과학적 탐구가 유용한 것임을 강조한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보기>의 ‘영수’에게 ‘퍼스’가 할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A


B


C


영수는 지구에 떨어진 운석에서 물질 A, B, C를 얻었다. 영수는 먼저 실험을 해 본 연구실의 동료로부터 “세 가지 물질 중 물질 B가 가장 단단하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의심을 하게 되었다.

- ① 참된 믿음에 도달하려면 객관적 사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② 물질 A와 B, B와 C, C와 A를 부딪쳐 강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모두 실시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③ 물질 A, B, C를 가지고 동료가 했던 실험 방법을 확인한 후, 실험 방법을 그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④ 할 수 있는 실험을 모두 해 본 후에 그 결과가 동일하다면, 그 결과는 객관적 실재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⑤ 다수의 연구자들이 물질 A, B, C를 비교해 보는 실험을 진행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면 그 결과는 유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수능 Tip

1. 지문을 통해 과학적 탐구에 관한 ‘퍼스’의 관점을 확인한다.
2. ‘퍼스’의 관점을 바탕으로 <보기>의 영수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2.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1610년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이용한 자신의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지동설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존의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 신학자들은 갈릴레이의 견해가 ‘철학적으로 매우 우매하고 신학적으로 이단적’이라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 벨라르미노 추기경은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계속 주장할 경우 교황청의 이름으로 처벌하겠다는 경고를 했다. 결국 갈릴레이는 1616년 2월 더 이상 지동설을 논하거나 옹호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다. 1623년 갈릴레이는 『프톨레마이오스-코페르니쿠스 두 개의 주요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책을 통해 지동설이 옳다는 자신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주장하였다.

- ① ㉠은 ㉡와 달리 권위의 방법에 따라 믿음의 상태에 도달하려 하였군.
- ② ㉡은 ㉠과 달리 과학적 방법에 따라 믿음의 상태에 도달하려 하였군.
- ③ ㉠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은 선험적 방법을 통해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려 하였군.
- ④ ㉠은 고집의 방법을 통해, ㉡은 선험적 방법을 통해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려 하였군.
- ⑤ ㉠은 선험적 방법을 통해, ㉡은 권위의 방법을 통해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려 하였군.

■ 수능 Tip

1. 지문을 통해 ‘퍼스’가 제시한 믿음에 도달하는 네 방법을 확인한다.
2. <보기>의 ㉠, ㉡가 네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 [인문3]

■ 해석 수준 이론 - (수능특강 61~63쪽)

사람들은 동일한 현상을 보더라도 개인마다 그것을 다 다르게 식별한다. 예를 들어, 똑같이 먹는 것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단순히 씹고 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영양분 섭취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즉 전자는 구체적인 행위나 표면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추상적인 의미나 핵심적인 목표로 그 현상을 식별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러한 다른 식별 수준을 해석 수준이라 하는데, 각자가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거리감에 따라 이러한 해석 수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행동 반응과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규명하는 이론을 해석 수준 이론이라 한다.

앞의 예에서 추상적인 의미 내지 속성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위 수준의 해석에 해당하는 반면, 구체적인 행위 내지 속성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위 수준의 해석에 해당한다. 상위 수준의 해석은 본질적이고 핵심적일 뿐 아니라 일관적인 반면, 하위 수준의 해석은 부차적이고 표면적이며 일관적이지 않다.

상위 수준의 해석과 하위 수준의 해석의 특성을 구별하는 판단 기준은 중심성과 종속성이다. 중심성은 어떠한 사건이나 대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속성이 어떤 것인가가 주된 기준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상위 수준의 특성이 된다. 예컨대, 핵융합에 대해 알고 싶어서 강의를 듣고자 할 때, 언제 어디서 그 강의를 듣느냐 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강의가 다루는 주제이고, 강의 장소나 시간은 부수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강의 주제는 상대적으로 상위 수준의 속성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종속성은 하위 수준의 특성에 해당하는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특성은 보다 중요한 특성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덜 중요한 특성이 이슈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보다 중요한 특성이 전제될 때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강의 장소가 변경되는 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강의 주제가 동일하다’는 상황의 전제가 필요하다. 즉 강의 장소는 강의 주제라는 특성에 의미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하위 수준의 속성에 해당한다.

또한 상위 수준의 해석은 행위의 근원적 목적, 즉 ‘왜’와 관련된 표상을 중요시하는 반면, 하위 수준의 해석은 구체적인 방법, 즉 ‘어떻게’와 관련된 표상에 비중을 둔다. 예를 들어, ‘손을 흔든다.’는 행동의 경우 상위 수준의 해석은 ‘친절한 행동’과 같이 그 의미와 목적으로 해석하는 반면, 하위 수준의 해석은 ‘손을 좌우로 움직인다.’와 같이 그 방법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위 수준의 해석과 하위 수준의 해석은 서로 다른 표상과 속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같은 자극과 현상에 대해서도 대립되는 평가를 하고, 상이한 판단과 의사 결정을 이끈다.

해석 수준 이론에서는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시간적 거리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동일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바람직함과 중심적·핵심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하고, 시간적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실행 가능성과 주변적·비본질적 속성에 더욱 가중치를 두고 선택한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적 거리가 멀수록 상위 수준 해석에 근접하게 되고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하위 수준 해석에 근접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최근의 해석 수준 이론에서는 시간이라는 요소만이 아닌 공간적, 사회적, 그리고 발생 확률적 거리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심리적 거리에 의해 해석 수준과 그에 따른 행위와 선택이 달라지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교육적, 인지적, 심리적 영향에 대한 논의로 그 영역이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다.

■ 핵심 정리

- 주제: 해석 수준 이론의 개념과 특징
- 구성
 - 1문단: 해석 수준 이론의 개념
 - 2문단: 상위 수준의 해석과 하위 수준의 해석의 차이점 ①
 - 3문단: 상위 수준 해석의 특성으로서의 중심성
 - 4문단: 하위 수준 해석의 특성으로서의 종속성
 - 5문단: 상위 수준의 해석과 하위 수준의 해석의 차이점 ②
 - 6문단: 해석 수준 이론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시간적 거리’
 - 7문단: 해석 수준 이론의 최근 동향
- 해제: 이 글은 해석 수준 이론이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거리감에 따라 해석 수준(식별 수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행동 반응과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규명하는 이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추상적 의미(속성) 중심의 해석은 상위 수준의 해석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행위(속성) 중심의 해석은 하위 수준의 해석에 해당한다. 그리고 중심성은 상위 수준의 특성에 해당하고, 종속성은 하위 수준의 특성에 해당한다. 또한 상위 수준의 해석은 행위의 근원적 목적, 즉 ‘왜’와 관련된 표상을 중시하는 반면, 하위 수준의 해석은 구체적인 방법, 즉 ‘어떻게’와 관련된 표상에 비중을 둔다. 해석 수준 이론에서는 시간적 거리도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시간적 거리가 멀수록 상위 수준 해석에 가깝고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하위 수준 해석에 근접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마지막 문단에서 해석 수준 이론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해석 수준 이론’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한 연구 조사 결과 사람들은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가까운 미래, 예컨대 내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본질적 기능보다는 당장 쓸 수 있는 할인권이 함께 제공되는 제품을 선호한다. 하지만 먼 미래, 예컨대 6개월이 지나서 구매할 것을 지금 살펴보고자 할 때에는 본질적인 기능이 강화된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 ① ‘할인권’은 상대적으로 ‘하위 수준’의 가치에 해당하는군.
- ② ‘시간적 거리’가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드러난 것이로군.
- ③ ‘제품의 본질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할인권’에 종속되는 속성을 갖는군.
- ④ ‘제품의 본질적 기능’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위 수준 해석에 따른 판단을 따르는군.
- ⑤ ‘제품의 본질적 기능’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은 제품 구매의 근원적 목적을 중심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군.

■ 수능 Tip

1. 지문을 통해 ‘해석 수준 이론’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한다.
2. ‘해석 수준 이론’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분석하며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2. <보기 1>의 ㉠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1 >—

영호는 수철과 함께 현대 무용 공연을 보러 갔다. 그 공연에서 무희는 바닥에 앉아서 ㉠ 하늘을 향해 팔을 뻗는 동작을 계속하면서 공연을 이어 갔다.

—< 보 기 2 >—

- ㄱ. 하위 해석 수준에서는 무희가 왜 ㉠과 같은 행동을 했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 ㄴ. 하위 해석 수준에서는 ㉠과 같은 행동에 담긴 상징적 의미보다는 ㉠이 팔을 위로 향하는 동작이라는 점 자체에 주목할 것이다.
- ㄷ. 상위 해석 수준에서는 ㉠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중심정보다는 종속성을 중시할 것이다.
- ㄹ. ㉠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식별 수준이 곧 해석 수준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수능 Tip

1. 지문(1, 2문단)을 바탕으로 <보기1>의 ㉠을 분석한다.
2. 지문의 정보와 관련지어 <보기2>의 ㄱ~ㄹ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 [인문4]

■ 가치를 평가하는 두 가지 입장,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 (수능특강 67~69쪽)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사실 판단이 대상의 관찰 가능한 측면을 기술하여 열거한다면, 가치 판단은 사실이나 사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드러낸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대상은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자체로 항상 가치 있는 것일까? 이 물음은 가치의 성격에 대해 대립적인 두 견해를 불러온다. 가치는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인가,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인가?

가치론이 형성되던 19세기 이전부터 가치가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라는 생각은 일상에 만연했다.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부터 근대의 흄스나 흄, 스피노자 등도 넓게 보면 가치의 주관주의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의 취향은 논의될 수 없다.’라는 라틴어 격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에 들어 가치의 주관주의를 가장 정교하게 주장한 사람은 미국의 철학자 페리이다. 페리는 『가치의 일반 이론』에서 가치를 ‘관심’의 관점에서 정의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부여된다.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 관심이 주어지면 가치를 획득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으로부터 욕구가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욕구로부터 선이 생겨난다.’라고 강조하면서, 대상이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기 전에는 대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주관주의자들에게 있어 ‘x가 가치가 있다.’라는 말은 ‘x는 누구누구에게 가치를 갖는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진다. 주관주의자들은 가치를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관심 실현과 욕구 충족 과정에서 느끼는 사물의 특성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주관주의의 주장은 현실에서 사람들이 겪는 경험을 통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가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입장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체계, 중세의 신학적 사고, 브렌타노, 하르트만 등에서 드러난다. 객관주의자들은 가치의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가치에 대한 인간의 평가’와 ‘가치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평가’라는 인간의 심리적 경험과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상황의 가치’를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인간의 지각이 대상을 파악하는 작용일 뿐 대상 자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인간의 주관적 평가도 가치를 파악하는 과정일 뿐 가치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유명한 객관주의자 중 하나인 셸러는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가치가, 가치를 담고 있는 대상은 물론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빨간 풍선의 빨간색이 풍선의 표면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특성인 빨간색 자체인 것처럼, 가치도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림, 동상, 음식과 같은 담지자*와는 상관없이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성질이라 여긴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셸러는 가치 자체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평가만이 상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치가 이성에 의해 파악되기 힘들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주관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가치를 통찰하고 서열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치 그 자체가 객관적이므로 인간이 그 자체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가치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美)나 선(善) 같은

가치가 어느 사회에서든 보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 여긴다. 이들은 가치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생리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 또는 과거의 개인적 경험이나 삶의 조건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므로 무엇이 가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담지자: 철학 용어로서, 흔히 어떠한 특성이나 내용을 지니고 있는 사물이나 대상을 뜻함.

* 즉자: 헤겔의 변증법에 사용된 말로, 그 자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이룸.

■ 핵심 정리

- 주제: 가치를 평가하는 두 가지 입장,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 구성
 - 1문단: 평가적 성질을 지닌 가치에 대한 두 가지 입장
 - 2문단: 가치의 주관성을 강조하던 철학자들과 그 대표적 학자인 페리의 주장
 - 3문단: 주관주의자들의 주장과 판단 근거
 - 4문단: 가치의 객관성을 강조하던 철학자들과 그들의 주장
 - 5문단: 인간의 평가와 별개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본 셸러의 주장
 - 6문단: 객관주의자들의 주장과 판단 근거
- 해제: 이 글은 대상에 담긴 가치가 인간의 평가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인지, 즉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 가치론이 형성되던 19세기 이전부터 가치가 주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는 주관주의의 입장은 일상에 만연했다. 이러한 주장은 페리와 같은 현대의 철학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현실에서 사람들이 겪는 경험을 통해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하는 철학적 입장도 그 역사가 길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많은 철학자들은 가치의 객관적 성격을 입증하기 위해 논의를 펼쳐 왔다. 셸러의 경우 가치가 가치를 담고 있는 대상은 물론 그것들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가치의 객관주의자들은 가치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교육을 통해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 주장한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〇〇호
〇〇신문
20〇〇년 △월 □일

<얼굴 없는 천사 16년째 선행, 총 4억 원 기부>
- 〇〇동 주민 자치 센터 인근에 5천만 원이 든 종이봉투 놓고 사라져

〇〇동 동장 A씨에 따르면 ‘얼굴 없는 천사’로 알려진 익명의 기부자가 전화를 걸어, “인근에 성금을 놓아 두었으니 소년 소녀 가정을 위해서 써 달라.”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이 기부자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4억여 원에 이르는 성금을 소년 소녀 가정을 위해서 기탁하였다. A씨는 기부자의 선행을 고귀한 행동이라 평가하면서, 가진 것을 나누는 마음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 ① ‘얼굴 없는 천사’의 행위가 실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 판단이라면, ‘얼굴 없는 천사’의 행위를 고귀하다고 평가한 것은 가치 판단이겠군.
- ② 주관주의자의 입장을 따르면 ‘얼굴 없는 천사’가 소아암 환자가 아닌 ‘소년 소녀 가정’을 위해 기부를 한 것은 자신의 가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겠군.
- ③ 객관주의자의 입장을 따르면 ‘얼굴 없는 천사’의 행위에 대한 ‘A씨’의 평가는 주관적이지만, ‘선행’ 그 자체에 대한 보편적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겠군.
- ④ 페리의 관점에 의하면 이 신문을 읽은 사람들이 ‘얼굴 없는 천사’의 행위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의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셀러의 관점에 의하면 ‘얼굴 없는 천사’가 한 ‘선행’의 가치는 ‘얼굴 없는 천사’라는 담지자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가치라 할 수 있겠군.

■ 수능 Tip

1. 지문에서 두 가지의 가치론의 핵심을 확인한다.
2. 두 가치론의 관점에서 <보기>의 기부자와 그 행위에 대해 평가한다.
3. 지문의 정보와 관련지어 선지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 [인문5]

▪ 태도 변용 - (수능특강 85~87쪽)

설득 커뮤니케이션은 발화자가 메시지를 통하여 어떤 주제 또는 사물에 대한 수용자들의 태도를 자신이 의도한 어떤 특정의 방향으로 변용시키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수용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태도를 변용하게 되는지를 핵심 과제로 삼는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나, 또는 그 효과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수용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해서 변용되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이드와 페스팅거는 수용자의 태도 변용을 인간의 인지와 관련해서 설명한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전자는 외부 대상에 대한 지각이나 태도들 간의 불균형 상태에 의하여 야기되는 개인의 심리적 긴장감이나 그로 인한 압력이 태도 변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았고, 후자는 개인의 심리에 내재된 인지 요소들 간의 부조화 상태가 태도 변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하이드는 개인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인지 구조 속에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어떻게 태도를 구성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하이드는 개인의 심리적 불균형 상태가 긴장을 만들며 인지적 균형을 회복하려는 힘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태도, 태도와 태도 간에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심리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가지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들 간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에 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의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한 개인이 어떤 대상(A)과 부정적 관계인데, 또 다른 대상(B)과는 긍정적 관계라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A와 B 사이의 관계 역시 긍정적 관계라면 개인은 A와의 부정적 관계를 긍정적 관계로 변화시켜 모든 관계를 긍정적 관계로 만들어서 심리적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A와의 부정적 관계의 정도가 B와의 긍정적 관계의 정도보다 훨씬 강하다면, B와의 긍정적 관계를 부정적 관계로 변화시켜 심리적 편안함을 유지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페스팅거는 개인의 심리에 내재된 인지 요소들에 주목하고, 이들 간의 부조화를 통해 태도 변용을 설명하려 하였다. 이솝 우화에서 포도 덩굴에 매달린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보고 따 먹으려 한 여우가 어떤 방법을 써도 도저히 손이 닿지 않자 ‘포도가 실 것이다.’라는 새로운 인지를 추가하여 태도를 바꾸는 것처럼, 한 개인의 인지 체계 속에서 하나의 인지 요소가 다른 인지 요소와 맞지 않는 경우, 혹은 하나의 인지 요소가 다른 반대적인 인지 요소를 내포하게 되는 경우 등이 태도 변용의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페스팅거는 인간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인지 요소들 간의 조화 상태를 항상 유지하려는 성향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화 상태가 깨지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인간이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면, 부조화를 일으킨 인지 요소 중에서 특정 인지 요소의 중요성을 변화시키거나 부조화를 줄일 수 있는 인지 요소를 추가하는 등 인지 요소에 변화를 주어 인지적 균형을 회복하려 하기 때문에 태도 변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하이드나 페스팅거의 이론은 인간의 태도 변용을 인간의 cognitions와 관련지어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판단 주체로서의 인간의 지위를 부각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태도 변용 동기를 합리적으로 밝히려는 이러한 연구들은 이후 사회 심리학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핵심 정리

- 주제 : 하이더와 페스팅거의 태도 변용 이론
- 구성

1문단: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및 태도 변용에 대한 하이더와 페스팅거의 견해

2문단: 하이더의 태도 변용 이론

3문단: 페스팅거의 태도 변용 이론

4문단: 하이더와 페스팅거 이론의 의의

- 해제 : 이 글은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을 제시하고, 수용자의 태도 변용 원리를 인간의 인지와 관련하여 설명한 하이더와 페스팅거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각각의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외부 대상에 대한 지각이나 태도들 간의 불균형 상태에 의하여 야기되는 개인의 심리적 긴장감이나 그로 인한 압력이 태도 변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한 하이더의 견해를 소개하였으며, 이어서 개인의 심리에 내재된 인지 요소들 간의 부조화 상태가 태도 변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 페스팅거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가)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혜진은 주변 사람들에게 A 회사의 화장품을 추천해 왔다. 하지만 혜진은 A 회사가 화장품 개발을 위해 동물 실험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 이후, 앞으로는 A 회사의 화장품을 추천하지 않기로 하였다.
- (나) 단 음식을 좋아하는 종호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건강에 해가 될 정도로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당을 섭취하고 있음을 새롭게 알게 되어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단 음식을 원하는 만큼 먹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단 음식을 원하는 만큼 먹으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단 음식 섭취를 줄이지 않기로 했다.

- ① 하이더의 관점에 따르면 동물 실험에 대한 혜진의 부정적인 태도가 A 회사 화장품을 대한 혜진의 태도를 바꾸게 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 ② 하이더의 관점에 따르면 혜진은 A 회사의 화장품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심리적 균형 상태를 회복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페스팅거의 관점에 따르면 종호는 자신의 당 섭취량과 관련한 인지 요소가 추가되어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페스팅거의 관점에 따르면 종호는 자신의 인지 요소에 변화를 주어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려는 방법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페스팅거의 관점에 따르면 종호는 추가된 인지 요소를 제거하여 당 섭취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다고 볼 수 있다.

■ 수능 Tip

1. 지문에서 하이더와 페스팅거의 태도 변용에 관한 입장을 확인한다.
2. <보기>의 두 사례에서 인지 부조화를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분석한다.
3. 지문을 바탕으로 선지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 [인문6]

▪ 사물 인터넷과 인간 인터넷 - (수능완성 246~248쪽)

(가)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이동 통신망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사물 간의 지능 통신을 이른다. 여기서 사물이란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서비스 등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사물 인터넷은 사물이 단순히 연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사물들이 인간에게 지식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간의 명시적 개입이 없어도 정보를 생성, 수집, 공유,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기술은 크게 센서, 네트워크, 장치, 플랫폼*, 보안으로 구분되고 활용 분야도 거의 전 산업 분야를 망라한다. 사물 인터넷은 센서 중심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용되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Ubiquitous Sensor Network)나 통신 장비와 사람과의 통신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물 통신(M2M, Machine to Machine)보다 진화한 단계로, 서로 다른 영역의 사물 간에 협업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플랫폼에 연결되는 등 개방형으로 운용된다. 또한 사물 인터넷은 작동기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포함하며 처리 기능이 보강된 지능형 마이크로 컴퓨팅 기기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개방형 사물 인터넷 플랫폼 개발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은 완성되지 않고 있고, 사물 인터넷을 통해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도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다양한 센서 등으로 생성되고 다수의 분산된 서버에 저장·관리되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응용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획득하고 공유할 수 있을지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이다.

한편, 사물 인터넷은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트워크, 단말 및 센서, 플랫폼과 서비스 등 사물 인터넷 구성 요소에 대한 해킹 및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 사용자의 특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때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PC나 모바일, 네트워크 상의 보안은 보안 전문 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그리고 이용자, 이 셋만 보안을 확실히 하면 된다. 하지만 사물 인터넷은 이외에도 기기 제조사나 플랫폼 및 서비스 제공자 등 보안을 책임질 주체가 너무 많다. 커넥티드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발전된 커넥티드 자동차는 사고 다발 지역이나 급회전이 필요한 구간을 지나갈 때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받아 스스로 속도를 줄이게 설정돼 있다. 그런데 누군가 차에 전달되는 정보를 조작해 사고 다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속도를 줄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 정보가 빠져나간 경로가 자동차인지 아니면 네트워크인지, 플랫폼인지, 서비스인지 알 수가 없다. 그만큼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지만 기기 제조업체들이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고 사용자 간의 서비스 활용이 용이하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것.

* 커넥티드 자동차: 자동차와 IT 기술을 융합하여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동차.

(나) 인터넷은 인류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지식의 형태, 지식의 습득 방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계, 안경 등의 사물들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이 되어 이제 모든 것이 인터넷이라고 할 만큼 삶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인터넷이 인간의 뇌와 연결되는 ‘인간 인터넷’의 세계를 향해 가고 있다. 초소형 스마트폰이 사람의 뇌와 직접 연결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자. 눈 한 번 깜빡이는 걸로 사진을 찍고 생각만으로 어떤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 인터넷’, ‘뉴로 미디어’의 세계이다. 하지만 뉴로 미디어 기능을 하던 전자 통신망이 파괴된다면 우리는 지식에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자동적으로 정보를 얻는 데 익숙해지면,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삶의 방식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지식 습득 능력을 확대하지만 사실은 더 복잡한 방식의 지식 습득 능력을 방해한다. 인터넷을 통한 지식 습득은 단지 정보의 유통일 뿐인데도 우리는 마치 지각 작용처럼 의심 없이 그 지식을 그대로 믿는다. 이것은 자신의 믿음에 책임을 지고 정보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사유하고 창조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지식의 습득을 방해한다. 즉 지식의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이해가 확장되고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물들과 인지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지식의 생산 과정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은 네트워크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만약 우리가 뉴로 미디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이해 행위 역시 더 네트워크화될 것이다. 즉 자신의 지식과 타인의 지식에 차이가 없어지고 우리의 인지 과정은 다른 사람들의 인지 과정과 점점 더 얹히게 될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쌓아 온 지식의 형태, 지식의 습득 방식, 더 나아가 인간의 정체성 까지도 바꿔 놓은 디지털 기술, 이러한 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면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지식은 정보들의 관련성을 창조적으로 파악하고 소유하는 행위를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해를 위한 기초가 된다. 이해가 개인의 인지 통합의 과정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지만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네트워크화된 지금은 남들과 함께 이해에 이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약 각 개인의 지식에 대한 믿음들 사이에 추론적 연결과 설명적 연결이 일어난다면 이해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기술을 합리적 근거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서로 완성시켜 줄 것이며, 이해에 이르는 일을 남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인터넷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이며, 우리는 더 강력한 인식 주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은 상대방에게 합리적 근거를 요구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공통 플랫폼이 되도록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하며 우리 또한 이해하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핵심 정리

- 주제
 - (가) 사물 인터넷의 특징과 문제
 - (나) 인간 인터넷 시대의 인식 주체로서의 인간
- 구성
 - (가)
 - 1문단: 사물 인터넷의 개념
 - 2문단: 사물 인터넷의 특징과 과제
 - 3문단: 사물 인터넷이 지닌 보안 문제
 - (나)
 - 1문단: 인터넷의 변화와 인간 인터넷 시대의 전망
 - 2문단: 인터넷을 통한 지식 습득의 문제와 지식의 네트워크화

3문단: 인터넷의 활용과 인식 주체로서의 인간

- 해제: 이 글은 (가) 사물 인터넷의 개념과 기술을 소개하는 글과 (나) 사물 인터넷을 넘어 ‘인간 인터넷’ 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되 인간이 인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묶은 복합 지문으로, 사물 인터넷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보여 주고 있다. 인간의 명시적인 개입 없이도 인간에게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물 인터넷은 공통 플랫폼 개발과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보안 측면에서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한편, 인터넷은 지식 습득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이 되면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이제 인터넷이 인간의 뇌와 연결되는 인간 인터넷의 세계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한 지식의 습득이 인간의 창조적 사고와 사유 능력을 방해하고 사물 인터넷에 의해 지식이 네트워크화된 상황에서 뉴로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해에는 이르지 못하고 인지 과정은 다른 사람들과 점점 더 얽히게 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이러한 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면 인터넷을 상대방에게 합리적 근거를 요구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공통 플랫폼으로 새롭게 디자인함으로써 인간 인터넷에서 인간이 강력한 인식 주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A]를 바탕으로 ‘인간 인터넷’에 대한 (나) 글쓴이의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터넷은 인간이 창조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 ② 인터넷을 개인 지식들의 설명적·추론적 연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합리적 근거를 교환함으로써 이해에 이를 수 있다.
 - ④ 인간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시대에 인간은 더 강력한 인식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디지털 기술에 의해 이해가 개인의 인지 통합 과정이 아니라 사물 간 협력 활동으로 개념이 변화된다.

■ 수능 Tip

1. 지문에서 인간 인터넷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한다.
2. 지문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2-3] 다음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소개한 스토리텔링 사례이다. 2번과 3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A 씨는 추석을 맞아 다음 날 성묘를 다녀올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성묘길 정체가 심하다는 뉴스가 떴다. 소식을 접한 스마트폰이 알아서 30분 더 일찍 알람을 울리고, A 씨를 깨우기 위해 집 안 전등을 일제히 켜다. A 씨는 준비를 위해 거울 앞에 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모자.”라고 말했다. 거울이 여러 가지 스타일의 모자들을 거울 한 귀퉁이에 비춰 주자, A 씨는 중절모를 가리킨다. 그러자 거울은 중절모를 쓴 A 씨의 모습을 보여 주었고 A 씨는 이를 선택한다. 준비를 마친 A 씨가 집을 나서자, 집 안의 모든 전기 기기가 스스로 꺼지고 가스도 안전하게 차단된다. 밤새 무선으로 충전된 커넥티드 자동차를 타고 “인천항 여객 터미널.”이라고 말하

자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고 지능형 내비게이션이 무인 주행 모드로 출발하기 시작했다. 커넥티드 자동차는 차선 감지 장치와 충돌 방지 장치를 작동시켜 전후좌우에서 달리고 있는 다른 차들과의 거리를 유지한다. A 씨는 차창을 통해 길가에 늘어선 코스모스를 바라본다. 코스모스 풍경이 보이는 창문 위에 손가락으로 일정한 크기를 지정한 다음 꺾 누른다. 그러자 차에 장착된 카메라가 촬영한 코스모스 사진이 유리 창문에 나타났다. A 씨는 창문에 나타난 메뉴 버튼을 선택한 다음, 사진의 일부분을 잘라 내고 사진 위에 글씨를 쓴다. 편집을 끝낸 사진은 자신이 가입한 개방형 SNS에 올린다. 잠시 후 유리창에는 지도와 운행 정보가 나타나고 인천항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된다. A 씨는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다. 나지막이 “어머니.”라고 부르자 슬라이드로 편집된 어머니의 사진과 동영상이 나타난다. A 씨는 인천항까지 가는 동안 살아생전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을 적신다.

2. (가)를 바탕으로 ‘사물 인터넷’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씨가 증절모를 선택한 것은 거울과 A 씨의 협업을 통한 것이라 볼 수 있겠어.
- ② 성묘길 정체가 심하다는 정보를 수집한 스마트폰이 A 씨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했군.
- ③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요소를 고려할 때, 커넥티드 자동차에 전달되는 정보가 조작되어 차선 감지 장치나 충돌 방지 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군.
- ④ 어머니에 대한 A 씨의 생각이 아니라, 명시적인 말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획득하게 하기 위해서야.
- ⑤ 유리 창문을 통해 편집한 사진을 SNS에 올리고 지도와 운행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의 사물들이 다양한 플랫폼에 연결되어 개방형으로 운용되기 때문이군.

■ 수능 Tip

1. 지문 (가)를 바탕으로 주어진 사례를 분석한다.
2. 지문 (가)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례에 대해 분석한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3. ‘디지털 기술’과 관련하여, (나)의 글쓴이가 ‘A 씨’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의 삶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깊어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 ②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주지만 우리의 사고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③ 우리를 둘러싼 사물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뉴로 미디어’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 ④ 사물 인터넷을 넘어 인간 인터넷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안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 ⑤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필요합니다.

■ 수능 Tip

1.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나) 글쓴이의 입장을 확인한다.
2. (나)의 글쓴이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A 씨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추론한다.

■ [사회1]

■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메시지 해석 수준 - (수능특강 104~105쪽)

현대 사회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미디어 사용자가 그 위협의 심각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개인은 평소 위협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위협에 대해 적절한 대응 행동을 잘 수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이러한 성향을 위협에 대한 ‘낙관적 편견’이라고 하는데, 이는 개인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위협이 더욱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낙관적 편견을 미디어 이용의 결과로 보는 이른바 ‘비개인적 효과 가설’에서는 낙관적 편견의 형성 과정을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비개인적 효과 가설에 따르면 개인의 위협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의 두 차원으로 나뉘는데, 대중 매체를 통한 위협 정보는 개인의 위협에 대한 인식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사회적 수준의 위협, 즉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대중 매체를 통해 제시된, 위협에 대한 정보는 대개 추상적이며,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비개인적 정보이기 때문이다.

[A] 비개인적 효과 가설에 따르면 개인 수준의 위협 인식은 사회 수준의 위협 인식과 달리 주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대중 매체와 달리 위협에 대한 상세하고 깊이 있는 생생한 정보들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위협 정보는 주로 개인 스스로에 대한 위협 인식을 높이게 된다. 이에 따라 대중 매체를 통한 위협 정보 노출 빈도에 비해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많지 않은 경우 개인은 낙관적 편견을 보이게 된다. 비개인적 효과 가설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위협 정보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 수준의 위협 인식과 개인 수준의 위협 인식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하게 된다고 본다. 가령 대중 매체의 위협 정보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낙관적 편견이, 혹은 그 반대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위협 정보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더욱 위험하다고 느끼는 ‘비관적 편견’이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비개인적 효과 가설은 개인이 낙관적 편견을 갖게 되는 원인을 정보 습득 채널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비개인적 효과 가설이 갖는 정치적인 의미는 주로 집합적인 차원의 위기와 위협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잠재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정치적인 결과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비개인적 효과 가설이 제안하는 것과 같이 사회 현실에 대한 수용자의 지각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사회적 수준에 국한된다면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력은 정치적으로 볼 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정치 권력자들이 위협과 위기 상황을 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뜨림으로써 개인적인 관심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쉽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위협과 위기를 알리는 미디어 메시지는 이를 방지하려는 사회 캠페인을 통해 전달될 수도 있는데, 만약 미디어의 영향력이 개인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면 사회 전반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 AIDS 예방, 환경 보존 등을 위한 미디어 캠페인이, 그 캠페인에서 다루는 문제가 사회 문제라고 인식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개인의 문제라고 인식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면 개인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 핵심 정리

- 주제: ‘비개인적 효과 가설’의 특징
- 구성

1문단: ‘비개인적 효과 가설’에서 설명하는 ‘낙관적 편견’의 의미

2문단: ‘비개인적 효과 가설’에서 설명하는 ‘낙관적 편견’의 형성 과정

3문단: ‘비개인적 효과 가설’에서 설명하는 ‘낙관적 편견’과 ‘비관적 편견’의 원인

4문단: ‘비개인적 효과 가설’이 갖는 정치적 의미

- 해제: 이 글은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를 접하는 개인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험이 더욱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 즉 ‘낙관적 편견’이 있음에 주목하여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비개인적 효과 가설’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위험에 대한 판단이 개인의 위험 인식보다는 사회적 수준의 위험 인식에 대해서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며, 개인 수준의 위험 인식은 사회적 수준의 위험 인식과는 달리 주로 미디어가 아닌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비개인적 효과 가설에 따르면, 미디어의 위험 정보에 대한 노출이 많으면 ‘낙관적 편견’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위험 정보에 대한 노출이 많으면 ‘비관적 편견’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비개인적 효과 가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디어의 영향력이 사회적 수준에 국한된다면 정치 권력자들이 미디어를 통해 개인의 관심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미디어 캠페인이 개인에게 별다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전달되는 위험 정보는 주로 개인 수준에서 위험 인식을 고양시키는 효과가 있다.
- ② 위험에 대한 ‘낙관적 편견’은 개인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 ③ 비개인적 효과 가설에서는 개인이 ‘낙관적 편견’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개인의 선천적인 성격에 기인한다고 본다.
- ④ 비개인적 효과 가설에 따르면 미디어의 영향력은 정치적으로 볼 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비개인적 효과 가설에서는 사회 현실에 대한 수용자의 지각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사회적 차원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 수능 Tip

1. 지문을 전체적으로 읽고 핵심 정보를 먼저 이해한다.
2. 선지 내용의 적절성을 지문을 근거로 판단한다.

2. 윗글의 [A]에서 설명한 ‘비개인적 효과 가설’과 <보기>의 ‘제3자 효과 가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컬럼비아 대학의 데이비슨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매스 미디어의 메시지가 자신에게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각하지만 제3자인 타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3자 효과 가설’을 제기하였다.

- ① 기존의 미디어와 새로운 대중 매체의 정보 전달력을 비교하였다.
- ② 대중 매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 ③ 대중 매체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개인의 편향된 인식을 다루었다.
- ④ 대중 매체가 개인에게 미치는 계도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 ⑤ 대중 매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공통점을 분석하였다.

■ 수능 Tip

- 1. 지문을 읽으며 ‘비개인적 효과 가설’의 특성을 파악한다.
- 2. <보기>에서 ‘제3자 효과 가설’의 특성을 파악한다.
- 3. 두 이론의 공통점을 추론한다.

3. ‘비개인적 효과 가설’에 근거하여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이 미디어를 통해 위험에 대한 추상적 정보를 갖게 됨을 보여 준다.
- ② 미디어가 개인으로 하여금 비관적 편견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③ 미디어를 다루는 능력이 숙련될수록 위험에 대한 인식이 둔감해짐을 보여 준다.
- ④ 미디어가 진화할수록 위험에 대한 개인의 적절한 대응을 이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⑤ 사회적 위험의 증가에 따라 사회 수준의 위험 인식과 개인 수준의 위험 인식이 균형을 이룸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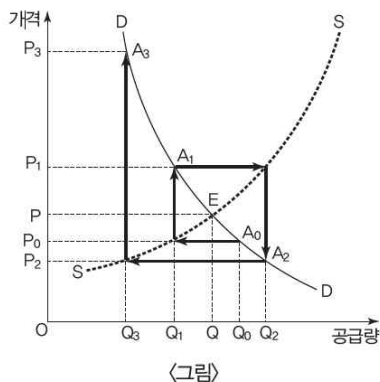
■ 수능 Tip

- 1. ‘비개인적 효과 가설’의 의미를 이해한다.
- 2. ‘비개인적 효과 가설’을 바탕으로 ㉠의 사례가 전하는 의미를 파악한다.
- 3. 미디어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특성을 판단한다.

■ [사회2]

■ 거미집 이론 - (수능특강 106~108쪽)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장의 안정이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즉각적 반응을 통해 균형 가격을 형성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즉 수요는 가격 변화에 의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특정 재화에 있어 공급은 그렇지 못하고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재화가 농산물이다. 농산물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지체되는 이유는 농산물의 성장 기간으로 인해 투입과 산출 사이의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차 때문에 농산물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가격의 폭등이 나타나고, 또 시간이 지나 농산물이 대량으로 공급될 때는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해 가격 폭락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재작년에 배추 가격이 폭락하여 한 포기 500원에도 못 미치더니 작년에는 그 가격이 폭등하여 3,000원으로 오르고, 올해는 또 다시 150원으로 급락하는 식이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하나의 간단한 모델을 ‘거미집 모형’이라 한다.



기본적으로 ㉠ ‘거미집 모형’은 생산자가 수확 시의 가격이 재배를 시작하는 시점의 가격과 동일하다고 예상하고 재배를 결정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림>은 어떤 농산물의 수요 공급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 농산물의 첫 수확 시점인 점 A_0 에 해당하는 가격은 P_0 이다. 그 가격에 공급은 Q_0 이기 때문에 생산자는 장래의 가격도 P_0 이라고 생각해서, 그것과 공급 곡선 SS로부터 다음 해의 공급량을 Q_1 로 결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수확이 이뤄져서 계획대로 Q_1 이 공급된다면, 그것을 다 파는 가격은 수요 곡선 DD 상의 점 A_1 에 대응하는 P_1 이 되어 버린다. 가격이 P_1 로 상승되면, 생산자는 다시 그 가격이 장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서 공급 곡선상의 가격 P_1 에 대응하는 Q_2 만큼 재배하게 된다. 그러나 수확 시기가 돼서 Q_2 가 시장에 공급되게 되면, 가격은 수요 곡선 상의 점 A_2 에 대응하는 P_2 로 되어 버린다.

<그림>에서 생산과 수요가 일치하는 수급 균형점은 점 E이며, 균형 가격은 P, 균형 공급량은 Q이다. 그러나 처음에 점 E가 아니라 거기서 조금 떨어진 점 A_0 에서 출발하면, 가격도 수량도 점점 균형점과 떨어져서 $A_0 \rightarrow A_1 \rightarrow A_2 \rightarrow A_3$ 으로, 마치 거미집과 같은 궤적을 그리면서 변동을 계속하게 된다. 이와 같이 균형가격에서 점차 멀어지는 경우를 발산적 변동이라고 한다. 반면 ‘거미집 모형’에는 <그림>과는 반대로 생산과 수요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가격이 가격과 수량의 균형점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수렴적 변동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훨씬 크면 가격은 한 지점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처럼 바깥으로 발산한다.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더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반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으면, 다시 말해 가격이 변할 때 공급이 변하는 것보다 수요가 변하는 폭이 훨씬 크면 가격이 균형 가격으로 수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거미집 모형’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이나 부동산 시장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체되는 재화의 시장에 자주 나타난다. 하지만 거미집 모형의 가정은 실제 현실과 맞지 않

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거미집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대로 공급자가 오로지 현재의 가격만 보고 다음 해의 생산 계획을 세우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물에 대한 대체재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은 완화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이런 파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여전히 거미집 모형과 같은 사이클이 적용되는 이유는 기상 조건과 같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미래의 공급량이나 가격의 예측이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에 인간이 항상 완벽하게 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가격 탄력성: 가격에 따라 수요, 혹은 공급이 변하는 정도.

■ 핵심 정리

- 주제: 거미집 모형이 나타나는 이유와 양상

- 구성

1문단: 수요에 비해 공급의 지체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미집 모형

2문단: 농산물 시장에서 거미집 모형이 형성되는 과정

3문단: 발산적 변동과 수렴적 변동

4문단: 거미집 모형이 실제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

- 해제: 이 글은 특정한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로서 ‘거미집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거미집 모형’은 농축산물이나 부동산과 같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체되는 재화의 시장에서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거미집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생산자가 수확 시의 가격을 재배를 시작하는 시점의 가격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는 가정에 따르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관계에 따라 발산적 변동과 수렴적 변동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모형은 실제 현실에서는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대체재의 유무나 기상 조건과 같은 복합적 요인이 가격 형성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제적 현상의 문제를 제시하고 이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② 특정한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모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동일한 경제 문제가 나라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소개하고 있다.
- ④ 하나의 경제적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현재의 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 수능 Tip

1. 지문을 읽으며 글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2. 선지의 내용이 지문의 서술상 특징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며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산자는 투입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 시의 가격을 책정한다고 가정한다.
- ②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 ③ 시장에 대한 수요의 반응에 대해 공급이 지체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 ④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을 바탕으로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 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아야 가격이 수급 균형점으로 수렴된다.

■ 수능 Tip

1. 지문을 통해 ㉠의 특징을 파악한다.
2. 선지의 내용이 ‘거미집 모형’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며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 ㉡ 배추를 많이 심는 A 지역은 몇 년 동안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배추 파동’으로 인해 농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파동이 일어날 때마다 가격의 등락 폭이 점점 커져서 농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 ㉢ B 도시는 10년 전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였다. 이에 시 정부는 즉시 아파트를 대거 지었으나 2년 후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면서 가격이 폭락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몇 번 거친 후 아파트 가격은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 ㉣ 축산 농가가 많은 C 지역에서 지난해 원인을 알 수 없이 돼지의 집단 폐사가 나타나자 돼지고기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으나 사람들이 돼지고기 소비를 줄이고 소고기나 닭고기 소비를 늘리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금세 안정되었다.

- ① ㉡, ㉢, ㉣ 모두 형성된 가격의 변동 추이가 수요 공급 곡선 상에서 거미집 모양으로 나타나겠군.
- ② ㉡와 ㉢의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게 나타나겠군.
- ③ ㉡와 달리 ㉣는 점차 가격이 수요 공급 곡선 상에서 균형 가격으로 수렴되는 거미집 모형으로 나타나겠군.
- ④ ㉢와 달리 ㉡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비해 크게 나타나겠군.
- ⑤ ㉣와 달리 ㉢는 가격의 변동 추이가 수요 공급 곡선 상에서 균형 가격에서 발산되는 궤적을 그리며 나타나겠군.

■ 수능 Tip

1. 먼저 <보기>의 사례를 읽고 각각의 특징을 이해한다.
2.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각 사례를 해석한다.
3. 선지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 [사회3]

▪ 퍼블리시티권 - (수능특강 124~126쪽)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과 동일시될 수 있는 성명, 초상과 같은 것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현상과 관련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분쟁들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여 사람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것들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재산적 이익을 처음으로 보호하기 시작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원칙적으로 개인의 성명, 초상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 초상과 같은 인격적 요소를 보여 줄 수 있는 것들과 관련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는 프라이버시권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개인의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정하는 것은 보통 다음의 4가지 경우이다. 첫째는 신체적·장소적 사적 영역에 대한 침입, 둘째는 사생활의 공개, 셋째는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는 행위, 넷째는 성명, 초상 등에 대한 침해이다. 여기에 따르면 타인의 인격적 요소, 예를 들면 성명, 초상 등을 허락받지 않고 상품의 선전, 영업, 기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네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유형의 침해에 대한 법적인 구제 수단은 프라이버시권의 일반적 목적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의 인정일 것이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기 전에 미국의 법원에서는 유명인이 스스로 대중에게 다가가고 자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근거로 묵시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유명인이 프라이버시 침해의 네 번째 경우에 대해 정신적 피해 또는 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가령, 모 회사에서 유명인 △ 씨의 성명, 초상을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하자. 이에 △ 씨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정신적 피해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로 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프라이버시권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권리라는 이유로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유명인은 프라이버시권을 통해서 자신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한 정신적 피해나 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퍼블리시티권으로, 이 권리는 유명인의 대중성 및 이와 관련된 상업적 가치의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의 침해는 퍼블리시티권으로, 정신적 피해는 프라이버시권으로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의 등장 배경을 통해서 볼 때, 이 권리의 주체는 어느 정도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인이었다. 하지만 대중 매체의 발달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도 오늘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 등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부는 단지 유명인에게 한하여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다수는 대중에게 알려진 정도와 관계없이, 즉 유명인인지 혹은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 주체의 범위를 일반인까지 확장해서 보면, 유명한 정도는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알려진 정도에 따라 시장 가치가 확정된다는 점에서 단지

손해 배상액 산정의 중요 요소에 불과하다.

초창기의 퍼블리시티권은 전적으로 개인의 성명, 초상의 공개 가치 남용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점차 개인의 공개 가치를 나타내고 광고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면서 인격적 요소를 보여 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목소리, 극중 역할, 분장 모습 혹은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에까지 그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은 개인을 표상하고, 개인의 동일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 핵심 정리

- 주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등장 배경, 퍼블리시티권의 권리 주체와 보호 범위의 변화
- 구성
 - 1문단: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 2문단: 프라이버시권의 목적과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
 - 3문단: 프라이버시권의 한계와 이로 인한 퍼블리시티권의 등장
 - 4문단: 퍼블리시티권의 권리 주체 확대
 - 5문단: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하는 범위의 확대
- 해제: 이 글은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등장 배경에 대해 설명한 후에, 퍼블리시티권의 권리 주체와 보호 범위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 초상과 같이 개인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이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프라이버시권이 가지는 법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권리이다. 초창기의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에게 한정되었지만 대중 매체가 발달하면서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도 개인을 표상하고 개인과 동일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모두를 포함하게 되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프라이버시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 ② 자신의 성명, 초상과 같은 것이 시장 가치가 될 수 있음을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 ③ 자신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상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에
- ④ 프라이버시권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높았기 때문에
- ⑤ 프라이버시권이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 수능 Tip

1. 지문(3문단)에서 ㉠의 이유를 추론한다.
2. 선지 내용의 적절성을 지문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2.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국가의 사례]

A 회사는 유명한 축구 선수 B 씨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있는, B 씨의 팬사인회 사진을 축구 경기 일정이 담긴 달력에 인쇄해 이것을 판매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자신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또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A 회사에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의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B 씨가 대중에게 스타 선수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초상에 대해 경제적 이익의 침해만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프라이버시권은 경제적 이익 보호와는 관련이 없는 권리라고 하면서 B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B 씨는 더 이상 법적 구제 수단이 없어서 항소를 포기했다.

[‘나’ 국가의 사례]

C 씨는 ‘인간 포탄’ 공연으로 유명해진 예능인이다. C 씨는 00박람회에서 ‘인간 포탄’ 공연을 했는데, 00박람회에 참가한 D 회사에서 C 씨의 공연 일부를 녹화하여 C 씨의 허락 없이 그 영상을 광고에 활용했다. 이를 알게 된 C 씨는 D 회사에 경제적 이익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C 씨의 ‘인간 포탄’은 보호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이익 침해가 C 씨에게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C 씨는 경제적 이익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만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은 그의 인기도를 기준으로 손해 배상액을 결정하고 D 회사에 C 씨에게 손해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 ① [‘가’ 국가의 사례]에서 법원은 스타 선수 B 씨가 자신을 알리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초상권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볼 수 있다.
- ② [‘가’ 국가의 사례]에서 법원이 B 씨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 중 하나는 프라이버시권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권리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 ③ [‘나’ 국가의 사례]의 법원이라면, C 씨가 대중에게 알려진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것이다.
- ④ [‘나’ 국가의 사례]에서 법원은 C 씨의 ‘인간 포탄’ 공연을 C 씨와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서 C 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나’ 국가의 사례]에서 D 회사가 C 씨의 ‘인간 포탄’ 공연 영상을 광고에 이용한 것은 C 씨의 프라이버시는 침해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수능 Tip

1. <보기>의 두 사례가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2. 지문을 바탕으로 두 국가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3. 선지 내용의 적절성을 하나씩 확인하며 해결한다.

■ [사회4]

■ 소비자 심리 분석을 통한 마케팅 - (수능특강 136~138쪽)

기업이나 소매점은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고자 한다. 기업이나 소매점의 마케팅 방법이 매출액 증가라는 마케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마케팅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가치를 부여하여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야 하며, 이것이 실제 제품 구매로 이어져야 한다. 이에 최근에는 심리학적 연구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케팅에 활용되는 심리학적 연구 중 하나가 조절 초점 이론이다. 심리학자 히긴스는 인간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규제하는 동기 체계로서 ‘조절 초점’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향상 초점’과 ‘방어 초점’으로 구분하였다. 조절 초점 이론에 따르면, 향상 초점은 이상, 동경, 희망 등의 욕구와 관련되고, 방어 초점은 당위, 의무, 책임 등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서로 구분되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향상 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진보나 성취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며, 특히 이득과 기회 등의 긍정적인 결과에 민감한 성향을 보인다. 반면, 방어 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수와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며, 부정적인 결과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

조절 초점 이론에 따라 기업이나 소매점은 소비자의 구매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이나 소매점이 가격 할인 광고를 하려고 한다면, 소비자의 조절 초점을 분석하여 광고를 전략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들이 할인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했을 때, 목표가 실현되었을 때의 만족이라는 ‘달성 결과’와 목표가 실현되지 못했을 때의 손실이라는 ‘달성 위협’의 두 가지를 고려하고 제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향상 초점을 가진 성취 지향의 소비자들은 달성 결과에 집중하고 방어 초점을 가진 안정 지향의 소비자들은 달성 위협에 집중한다. 그러므로 향상 초점의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상품의 경우, 할인의 상한점을 제시하는 광고인 ‘최대 가격 할인 광고’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 반면, 방어 초점의 소비자들을 공략할 때는 그와 반대로 할인의 하한점을 제시하는 광고인 ‘최소 가격 할인 광고’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

조절 초점 이론과 함께 월슨의 준거 설정 이론 역시 마케팅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월슨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수행할 때에 소비의 준거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과거 구매 경험에 따라 내적 준거 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기업이나 소매점이 제시하는 외적 준거 가격을 바탕으로 소비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소매점은 외적 준거 가격으로 경쟁사의 제품 가격과 동일 제품의 과거 가격을 제시하는데, 이때 소비자가 어떠한 준거를 선택하느냐를 분석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가 경쟁사의 제품 가격이라는 외적 준거를 활용하려는 경우, 경쟁사보다 가격 할인을 많이 해 준다는 광고는 소비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일 제품의 과거 가격을 제시하는 광고는 소비 유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소비자의 심리 분석을 통한 이러한 마케팅 방법은 기업이나 소매점 등의 판매 전략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기업이나 소매점은 광고를 할 때, 소비자의 조절 초점을 고려하기도 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는 준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 핵심 정리

- 주제: 소비자의 심리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 구성

1문단: 심리학적 연구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

2문단: 조절 초점 이론의 내용

3문단: 조절 초점 이론에 따른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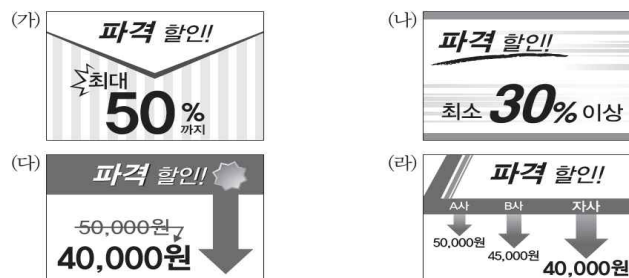
4문단: 월슨의 준거 설정 이론의 내용과 이에 따른 마케팅 효과

5문단: 소비자의 심리 분석을 통한 마케팅의 보편화

- 해제: 이 글은 심리학적 연구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히긴스의 조절 초점 이론에 따라 기업이나 소매점은 소비자가 향상 초점을 가지고 있는지, 방어 초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가격 할인 광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월슨의 준거 설정 이론에 따라 기업이나 소매점은 소비자가 어떠한 준거를 선택하느냐를 분석하여 소비자의 구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심리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의 (가)~(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광고는 방어 초점을 가진 소비자들보다 향상 초점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일 것이다.
- ② (가)의 광고보다 (나)의 광고에 관심을 보인 소비자는 달성 결과보다는 달성 위험에 집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과거 구매 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다)의 광고를 접하고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외적 준거 가격을 바탕으로 소비를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④ 경쟁사의 제품 가격을 외적 준거로 활용하려는 소비자에게는 (라)의 광고보다 (다)의 광고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가)~(라)의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가)~(라)의 광고는 마케팅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수능 Tip

1. 지문을 바탕으로 (가)~(라)의 광고 사례가 지닌 특성을 파악한다.
2. 각각의 광고가 지닌 특성을 고려하며 선지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파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매출이 줄어든 A 업체는 설문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높은 가격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30%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이를 안내하는 광고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그 결과 매출이 2배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A 업체는 매출액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이전과 같이 광고지를 제작하여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런데 A 업체의 매출은 점점 줄어들어 이번 달 매출은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 이전과 같은 수준에 불과하게 되었다. A 업체는 ㉠ 마케팅 전략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구매를 지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 ① 소비자가 마케팅 내용을 인지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 ② 광고 매체를 바꾸었을 때의 결과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③ 매출액 증가라는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광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 ④ 소비자들이 가격 할인이라는 마케팅 내용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⑤ 제품의 과거 가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내적 준거 가격을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수능 Tip

1. 우선 <보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2.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의 ㉠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한다.

■ [사회5]

■ 외환 시장 개입 - (수능완성 146~147쪽)

우리나라는 무역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금융 시장이 사실상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환율은 수입재 가격의 변동을 통하여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교역을 하는 재화와 교역을 하지 않는 재화의 상대 가격 변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환율은 수출입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외자의 유·출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율이 외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허용하는 자율 변동 환율 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외부 충격 등에 따른 시장 불안으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시장 개입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시장 개입이란 중앙은행에서 자국 통화와 맞교환하면서 외화 자산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 것이다. 시장 개입을 위한 원화 재원으로는 본원 통화*나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 자금*이 있으며, 외화 재원은 중앙은행이 보유·운용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과 외국환 평형기금*이 있다. 예를 들어 단기간에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중앙은행에서는 외환 시장에서 원화를 팔면서 대표적 기축 통화인 미 달러화를 매입한다. 그렇게 해서 미 달러화의 초과공급을 흡수하면 환율의 급격한 하락, 즉 원화가 급격하게 절상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미 달러화를 매각하여 원화를 받는다.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은 외환의 매매로 인해 국내 원화 통화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환을 국내로 가져와 대량으로 내놓거나, 외국 자본의 유입이 증가하면 환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이 때 중앙은행에서는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해 외환을 매입하게 된다. 그런데 외환을 매입하기 위해 원화를 대량으로 시장에 방출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는 채권이나 어음을 발행하여 증가한 통화를 사들인다. 이처럼 외환 시장 개입에 수반되는 통화량 변동을 조절하는 경우를 불태화 시장 개입이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를 태화 시장 개입이라고 한다.

태화 시장 개입의 경우 물가 변동의 우려는 있지만 통화량 변화에 따른 효과가 환율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앙은행에서 환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미 달러화를 매입하는 경우, 통화량이 증가하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 반면 불태화 시장 개입은 통화량의 증감은 없지만 채권 발행의 증가는 채권 공급을 증가시켜 채권 가격을 하락시킨다.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채권 금리의 상승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돈을 빌려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 형식의 자본 유입이 증가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불태화 시장 개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다.

불태화 시장 개입의 효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신호 효과 등에 의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신호 효과**란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상황에서 정보량이 풍부한 쪽이 정보량이 부족한 쪽에 자신을 확신시킬 수 있는 신호를 보내는 행위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이다. 즉 정보량이 풍부한 중앙은행이 정보량이 부족한 시장 참가자들에게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관한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은 시장 참가자들에게는 향후 외환 정책에 대한 중대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에서 시장 개입한다는 것은 현재의 환율이 중앙은행에서 생각하는 적정 환율에서 비교적 크게 벗어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래의 환율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이 변하게 되는데, 예상 환율의 변화는 현재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신호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향후 환율 정책이 일관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중앙은행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어야 한다.

- * 본원 통화: 실물로 발행된 지폐와 동전으로, 크게 화폐 발행액과 일반 은행의 중앙은행에 대한 지급 준비 예(치)금으로 구성됨.
- * 외환 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 자금: 외환 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한 원화.
- * 외국환 평형 기금: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하고자 정부가 원화 표시 또는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원화 및 달러화로 구성된 기금.

■ 핵심 정리

- 주제: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중앙은행의 외환 시장 개입의 효과
- 구성
 - 1문단: 환율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2문단: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 3문단: 외환 시장 개입과 통화량의 관계
 - 4문단: 태화 시장 개입과 불태화 시장 개입
 - 5문단: 신호 효과에 따른 환율 변동
- 해제: 이 글은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중앙은행에서 시장에 개입할 때 나타나는 거시 경제 및 환율에 대한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환율은 수출 경쟁력이나 국내 물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환율이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시적인 불안정으로 급격하게 변할 때에는 중앙은행에서 외환을 매입하거나 매각하여 조절을 한다. 중앙은행에서 시장 개입을 할 때 국내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통화량의 변동이 있는 태화시장 개입과 달리 채권을 발행하여 늘어난 국내 통화량을 중화시키는 것을 불태화 시장 개입이라고 한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윗글에 근거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 < 보 기 > —

외환 시장에 불안 심리가 작용하여 환율이 단기간에 (㉠)할 때, 중앙은행에서 미 달러화를 (㉡)하면 (㉢)이/가 늘어나게 되므로 원화 가치의 급격한 (㉣)을/를 막을 수 있다.

	가	나	다	라
①	급등	매각	원화에 대한 수요	정상
②	급등	매입	미 달러화의 공급	절하
③	급등	매각	미 달러화의 공급	절하
④	급락	매각	원화의 공급	절상
⑤	급락	매입	원화의 공급	절하

■ 수능 Tip

1. 지문을 바탕으로 환율 변동과 미 달러화 매입/매각의 상관성을 파악한다.
2. 환율이 급등할 경우와 급락할 경우 각각에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을 추론한다.
3. 두 경우에 결과적으로 원화 가치가 절상 또는 절하되는지를 판단한다.

2. **신호 효과**가 나타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애사심을 고취하기 위해 유니폼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A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디자인의 유니폼을 선정했다.
- ② B 영화사는 영화를 제작할 때마다 평론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B 영화사는 평론가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어 흥행에 성공했다.
- ③ C 그룹에서는 정확한 신입 사원 선발 기준은 말하지 않았지만, 면접에서 매년 인문학적 지식에 대한 질문을 하나 이상했다. C 그룹 입사 지원자들은 입사 준비를 위해 인문학 관련 서적들을 읽었다.
- ④ D 시에서는 도시 재개발 계획이 표류하고 있는데, 시장에 출마한 사람들은 모두 계획 추진을 자신하고 있다. D 시의 시민들은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행적을 보았을 때, 추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 ⑤ E 경찰서에서는 교통 신호 위반이 많은 구역에 대해 조사를 해 보았더니 교통량과 신호 주기가 맞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E 경찰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신호 주기를 조정하였다.

■ 수능 Tip

1. 먼저 지문을 통해 신호 효과의 개념을 파악한다.
2. 선지의 각 사례가 신호 효과의 사례로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 [사회6]

■ 통계의 함정 - (수능완성 225~226쪽)

통계학은 불확실성이 내포된 자료의 선택, 관찰, 분석 및 추정을 통하여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과 처리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보를 획득하여, 불확실성 아래에서 의사 결정을 도우며, 얻어진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는 사고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보를 얻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칫 범하기 쉬운 몇 가지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통계를 보는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함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계 결과를 비교할 때, 흔히 부분의 값들이 크면 그 값들이 합쳐진 전체의 값 또한 크다고 생각하기 쉽다. 가령 항암제 생존율을 비교한 다음과 같은 임상 실험 결과가 있다고 하자.

항암제	생존(명)	사망(명)	합계(명)	생존율(%)
A약	50	50	100	50
B약	30	70	100	30
합계	80	120	200	

<표 1>

항암제	생존(명)		사망(명)		합계(명)		생존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A약	48	2	32	18	80	20	60	10
B약	14	16	6	64	20	80	70	20
합계	62	18	38	82	100	100		

<표 2>

<표 1>만 본다면 A약이 B약보다 생존율이 높게 보인다. 하지만 환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조사한 <표 2>를 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남녀 모두 B약이 생존율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 실험 대상이 되었던 남녀의 수가 항암제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일한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비교상의 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동일하지 않은 가중치를 적용함에 따라 부분에 대한 분석 결과와 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계학적으로 정리한 학자가 심슨인데, 그의 이름을 붙여 이러한 현상을 ‘심슨의 역설’이라고 한다.

심슨의 역설은 비율에 관한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성의 역설 역시 비율 사용상의 함정에 빠진 경우이다. 어떤 사람이 (가) 회사와 (나) 회사가 사원 채용 시 지역을 차별했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다음 자료를 제시했다고 하자.

지역	지원율(%)		입사자 비율(%)	
	(가)	(나)	(가)	(나)
A	70	10	50	3.8
B	20	20	28.6	15.4
C	10	70	21.4	80.8
합계	100	100	100	100

<표 3>

이 사람은 (가) 회사는 B 지역 지원자를 우대하였고, (나) 회사는 B 지역 지원자를 차별하였

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원자 수와 합격률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지원자가 각각 1,000명씩이었다고 하고, 입사자 수는 (가) 회사가 140명, (나) 회사가 260명이라고 하자. 몇 가지 계산을 거쳐 합격률을 역으로 조사해 보면, 두 회사 모두 A지역 10%, B 지역 20%, C 지역 30%에 해당한다. 따라서 합격률에는 두 회사 모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러한 현상은 각 지역의 지원자 수가 상이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지원자 수와 입사자 수의 비율만을 가지고 지역 차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 외에도 상관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오류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가령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이 감소할수록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연도별 통계가 있다고 하자. 얼핏 생각하기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출 총액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수출이 범죄 발생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여러 변수를 무시한 채, 두 변수 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 핵심 정리

- 주제: 통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피해야 하는 통계의 오류들
- 구성
 - 1문단: 통계학의 의미
 - 2문단: 심슨의 역설 사례
 - 3문단: 심슨의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
 - 4문단: 대표성의 역설 사례
 - 5문단: 대표성의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
 - 6문단: 상관관계의 오류
- 해제: 이 글은 통계의 함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통계를 해석할 때 몇 가지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흔히 부분의 값들이 크면 그 값들이 합쳐진 값 또한 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으면 비교상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심슨의 역설이라고 한다. 대표성의 역설 역시 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오류에 빠지는 경우이다. 특정 비율만을 고려하면 통계의 의미를 잘못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관관계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 변수를 무시한 채 특정 변수만을 가지고 상관관계를 추론하면 성급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된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구분	7월			8월		
	생산량	불량품 수	불량률	생산량	불량품 수	불량률
A 제품	500	20	4%	1,500	90	6%
B 제품	1,500	135	9%	500	55	11%
전체	2,000	155	7.75%	2,000	145	7.25%



- ① 전체 불량률 값의 추이와 각 제품의 불량률 값의 추이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심슨의 역설’의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어.
- ② 7, 8월이라는 시기만을 변수로 삼아 자료를 분석하기보다는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자료를 분석해야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해.
- ③ 7월에 비해 8월에 전체 제품의 불량률이 감소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A 제품과 B 제품의 7, 8월 생산량 변화를 변수로 고려해야 해.
- ④ 품질 담당 사원이 전체 제품의 불량률이 7월에 비해 8월에 개선되었다고 말하면 그것은 통계 자료를 이용한 사실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어.
- ⑤ A, B 제품으로 세분화해 각 제품의 불량률을 별도로 관리하기보다는 두 제품의 불량률을 통합해 하나로 관리하는 것이 불량률을 감소시키는 데에 효율적일 거야.

■ 수능 Tip

1. <보기>의 통계에서 불량률의 감소와 증가 정도를 부분과 전체로 나누어 파악한다.
2. 각각의 선지를 <보기>의 통계가 나타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미국의 어느 대학원 신입생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던 어떤 사람이 남자와 여자 신입생의 합격률이 각각 52%와 39%로 13%의 차이가 난 것을 들어 신입생 선발 과정에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남자는 지원자 2,691명 중 합격자가 1,400명으로 합격 비율이 52%였으며, 여자는 지원자 1,835명 중 합격자가 722명으로 합격 비율이 39%였다. 이 자료를 얼핏 보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남녀 차별이 있었다는 그의 주장이 꽤 설득력 있는 것처럼 판단된다.

- ① 미미: 남녀 간의 학과별 지원자 수에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어.
- ② 중식: 학과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남녀 신입생을 선발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겠어.
- ③ 서울: 대학원의 입학 전형 기준이 여자보다 남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었는가를 검증해야겠어.
- ④ 동건: 대학원 전체 지원자 중 여자 대비 남자 비율이 어느 정도 높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입수해야겠어.
- ⑤ 원빈: 여성의 합격률이 높은 과의 정원이 그렇지 않은 과보다 많았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어.

■ 수능 Tip

1. 지문을 통해 ‘대표성 역설’에 대하여 이해한다.
2. <보기>의 사례를 ‘대표성 역설’에 따라 분석한다.
3. 선지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 [과학1]

■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 - (수능특강 153~155쪽)

혼합물의 시료*에서 매질 내의 이동 정도의 차이를 이용해 그 성분을 분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용어는 ‘색’을 뜻하는 그리스 어 ‘크로마’로부터 나왔는데, 이는 초기의 크로마토그래피가 색깔을 띤 물질의 분리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색깔뿐만 아니라 유기 반응 생성물 등 광범위한 혼합물을 분리하는 데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는 두 상, 즉 고정상과 이동상을 통과하는 용질의 친화성의 차이를 활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때 고정상이란 크로마토그래피 장치에 고정되어 혼합 용질이나 그것이 함유된 이동상을 통과시키는 물질로, 이동상과의 반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로 다공질*의 물질을 사용한다. 또 이동상은 혼합 용질이 함유된 액체나 기체로, 고정상과 접촉하는 물질을 말한다. 이동상과 고정상이 접촉하는 면이 넓을수록 두 상 간의 반응이 원활해져 혼합 용질의 분리가 더욱 촉진된다. 한편 크로마토그래피 장치의 분리관에서 어느 한 순간, 한 지점에서 고정상과 이동상 사이에 특정 용질이 머무르는 시간의 비율을 분배 계수(K)라고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K = \frac{\text{용질이 고정상에 머무르는 시간}}{\text{용질이 이동상에 머무르는 시간}}$$

혼합 용질을 함유한 이동상은 고정상과 접촉하게 되는데, 이때 혼합 용질에 있는 각각의 용질은 고정상을 통과하며 서로 다른 분배 계수를 갖게 된다. 특정 용질이 고정상의 물질과 친화력이 큰 경우 그 용질이 고정상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 분배 계수가 크며, 상대적으로 고정상과 친화력이 약한 용질은 유체인 이동상에 함유된 채 흘러가므로 분배 계수가 작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각각의 용질이 지닌 상이한 분배 계수를 통해 어떤 특정한 용질이 분리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고정상과 이동상으로 사용되는 물질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관 크로마토그래피와 기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이다. 관 크로마토그래피는 고정상으로 물이 흡착된 다공성 물질을 활용한다. 그리고 고정상이 채워져 있는 관을 수직으로 세운 후 관의 꼭대기에 분리하고자 하는 혼합 용질을 넣고 용매를 붓는다. 그러면 혼합 용질을 함유한 용매는 이동상이 되어 관을 따라 내려가는데, 이때 고정상을 지나면서 혼합 용질에 있는 각각의 용질들은 고정상과의 친화력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하게 된다. 그 결과 고정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짧은 용질부터 관의 아래쪽까지 이동하며 각각의 용질은 분리되어 띠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관의 하단에는 이동상의 흐름을 조절하는 콕이 있어 각각의 띠로 나뉜 용질들을 분리하게 된다. 관 크로마토그래피는 그 규모를 확장하기 쉽기 때문에 공업 분야에서 대규모의 혼합 물질을 분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한편 기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고정상으로는 액체가 흡착된 다공성 고체를 활용하지만 이동상으로는 기체를 활용한다. 혼합 용질은 헬륨이나 질소와 같이 활성이 낮은 기체를 이용하여 이동상을 형성하고 이것이 고정상이 있는 관을 통과하게 된다. 이때 혼합 용질에 있는 각각의 용질들은 분배 계수에 따라 관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결정되며, 관 끝

[A]

을 통과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혼합 용질의 효율적인 분리가 이루어진다. 각각의 용질들이 분리되어 관 끝을 통과하면 검출기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데, 이때 용질이 검출될 때까지의 시간을 x축, 물질의 농도를 나타내는 전압(電壓)을 y축으로 하는 그래프인 기체 크로마토그램을 얻을 수 있다. 기체 크로마토그램에는 각각의 용질이 시간 차를 두고 농도 피크를 나타내며, 그래프 상에서 각각의 용질이 나타내는 곡선의 내부 면적을 비교하여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용질 간의 질량비를 분석할 수 있다. 즉 혼합 용질 속에 있는 특정 물질이 나타내는 곡선의 내부 면적이 넓을수록 혼합 용질에서 그 물질이 차지하는 질량의 비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주로 유기 반응의 생성물을 분리하는 데 널리 사용되며, 미량의 용질도 확인할 수 있어 환경 오염 물질의 검출이나 범죄 수사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시료: 시험, 검사, 분석 따위에 쓰는 물질이나 생물.

*다공질: 작은 구멍이 많이 있는 물질.

■ 핵심 정리

- 주제: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와 유형

- 구성

1문단: 크로마토그래피의 개념과 어원

2문단: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 ① - 고정상과 이동상

3문단: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 ② - 분배 계수의 차이를 이용하는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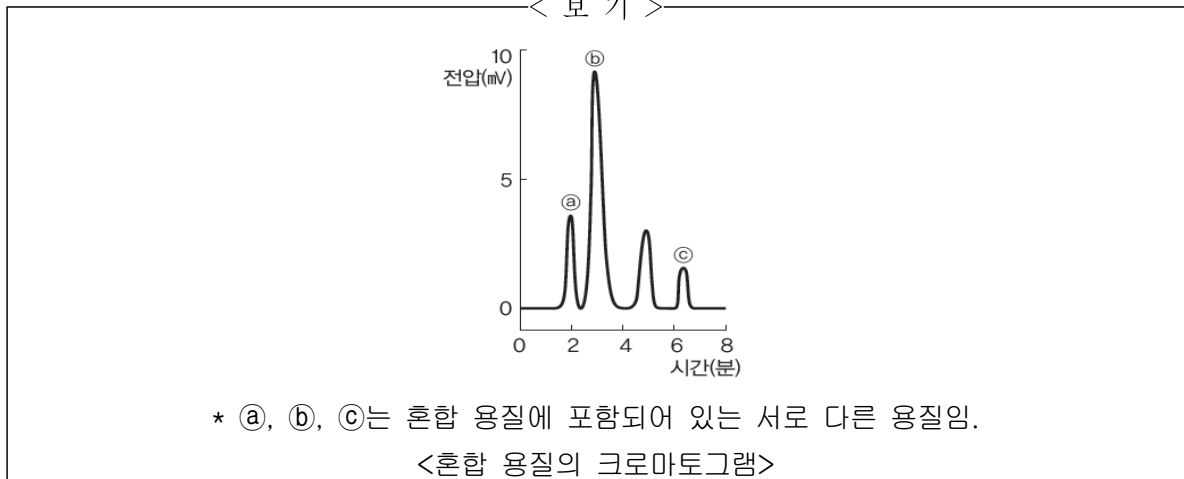
4문단: 크로마토그래피의 유형 ① - 관 크로마토그래피

5문단: 크로마토그래피의 유형 ② - 기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

- 해제: 이 글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인 혼합물을 분리하는 효과적인 기술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두 개의 상, 즉 고정상과 이동상을 활용하여 혼합 용질에 포함된 각각의 용질을 분리한다. 즉 이동상에 포함된 각각의 용질이 고정상과 친화성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혼합 용질에 포함된 각각의 용질을 분리하는 것이다. 한편, 크로마토그래피는 고정상과 이동상으로 사용되는 물질에 따라 그 유형이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 크로마토그래피와, 기체 -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이다. 관 크로마토그래피는 고정상으로 물이 흡착된 다공성 물질을 사용하고 이동상은 액체를 활용하며, 확장이 용이하여 대규모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공업적 용도로 사용된다. 또 기체 -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상으로 활성이 낮은 기체를 사용하며 아주 미량의 용질도 분리하여 검출할 수 있어, 환경오염 물질 검출이나 범죄 수사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A]를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에 비해 특정 혼합 용질 내의 농도가 낮은 용질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는 ㉢에 비해 고정상과의 친화력이 낮은 용질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는 ㉠에 비해 분배 계수가 작은 용질로 볼 수 있다.
- ④ 혼합 용질을 구성하는 ㉡의 질량이 ㉠, ㉢ 각각의 질량보다 많다고 볼 수 있다.
- ⑤ 혼합 용질은 ㉠, ㉡, ㉢를 포함하여 최소 네 가지 용질로 이루어진 혼합물로 볼 수 있다.

■ 수능 Tip

- 1. 지문의 [A]를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크로마토그램의 의미를 해석한다.
- 3. [A]와 <보기>를 대응시키면서 선지가 적절한지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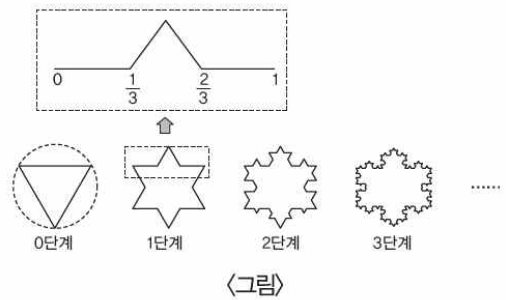
■ [과학2]

■ 프랙털의 원리 - (수능특강 167~169쪽)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스펀지가 폭신폭신했면서도 물을 잘 흡수하는 성질을 지닌 것은, 내부에 미세한 크기의 구멍이 유사한 모양으로 포진해 있고 이 구멍 때문에 같은 부피의 다른 물질에 비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펀지의 구조를 살펴보면 프랙털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프랙털은 부분의 모양이 전체의 모양을 닮는 자기 유사성을 가지면서 동일한 모양이 한없이 반복되는 순환성을 지닌 도형을 말한다. 즉 ‘자기 유사성의 반복’을 핵심 원리로 하는 도형인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코흐 곡선’을 들 수 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각 변을 3등분하고 $\frac{1}{3}$ 과 $\frac{2}{3}$ 지점이 꼭짓점이 되도록 한 변의 길이가 $\frac{1}{3}$ 인 정삼각형을 만든 후 밑변을 잘라 낸다. 새로 만들어진 각각의 선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면 ‘코흐 곡선’이 된다. 처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하면 0단계에서 코흐 곡선의 둘레의 길이는 3이다. 1단계에서는 각 변마다 길이가 $\frac{1}{3}$ 인 선분이 4개가 되며, 그런 변이 모



두 3개이므로 그 둘레의 길이는 $(\frac{4}{3}) \times 3$ 이 된다. 2단계에서는 각 변마다 길이가 $(\frac{1}{3})^2$ 인 선분이 4²개가 되며, 그런 변이 모두 3개이므로 그 둘레의 길이는 $(\frac{4}{3})^2 \times 3$ 이 된다. 이를 일반화하면 n단계에서의 둘레의 길이는 $(\frac{4}{3})^n \times 3$ 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그 극한값을 구하면 코흐 곡선의 둘레의 길이는 무한이 된다. 반면, n단계의 넓이의 극한값은 유한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코흐 곡선을 무한히 반복하더라도 0단계의 정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을 벗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코흐 곡선은 극한값을 구했을 때, ㉠ 넓이는 유한하지만 둘레의 길이는 무한이 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시어핀스키 카펫’에서도 프랙털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시어핀스키 카펫은 정사각형을 동일한 크기의 작은 정사각형 9개로 분할하고 가운데 정사각형을 지우는 과정을 반복하여 만들어진다. 시어핀스키 카펫의 0단계는 정사각형 1개로 시작하는데,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지워진 사각형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전 단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frac{1}{3}$ 이고 넓이는 $\frac{1}{9}$ 이 된다. 0단계 정사각형의 넓이를 1이라고 할 때, 1단계 시어핀스키 카펫의 넓이는 $\frac{8}{9}$ 이 되고 n단계의 넓이는 $(\frac{8}{9})^n$ 이 된다. 이 넓이의 극한값을 구하면 0이 되는데, 무한히 많은 정사각형들이 있음에도 넓이의 극한값이 0이 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 시어핀스키 카펫을 3차원으로 확장한 것이 ‘멩거 스펀지’이다. 멩거 스펀지는 정육면체를 동일한 부피의 작은 정육면체 27개로 분할하고 각 면의 가운데 작은 정육면체 6개와 중앙의 작은 정육면체 1개를 지우는 과정을 반복하여 구성한다. 그 결과, 0단계 정육면체의 부피를 1이라고 할 때 1단계 멩거 스펀지의 부피는 $\frac{20}{27}$ 이 되고 이 과정을 반복한 n단계의 부피는 $(\frac{20}{27})^n$ 이 되며, 그 극한값은 0이 된다. 무한히 많은 정육면체들로 이루어졌음에도 부피의 극한값은 0이 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프랙털은 제한된 공간에서 무한한 확장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인체나 자연물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예를 들어, 인체의 기관인 허파 파리가 정해진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유도 자기 유사성의 반복이라는 프랙털의 원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최근 현대 의학에서는 환자의 데이터에서 프랙털의 패턴을 찾아냄으로써 질병을 찾아내고 치료하는 데 이용하는 등 프랙털의 원리는 실생활에서도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활용되고 있다.

■ 핵심 정리

- 주제: 프랙털의 원리와 의의

- 구성

1문단: 일상생활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프랙털의 원리

2문단: 프랙털의 핵심 원리와 코흐 곡선

3문단: 시어핀스키 카펫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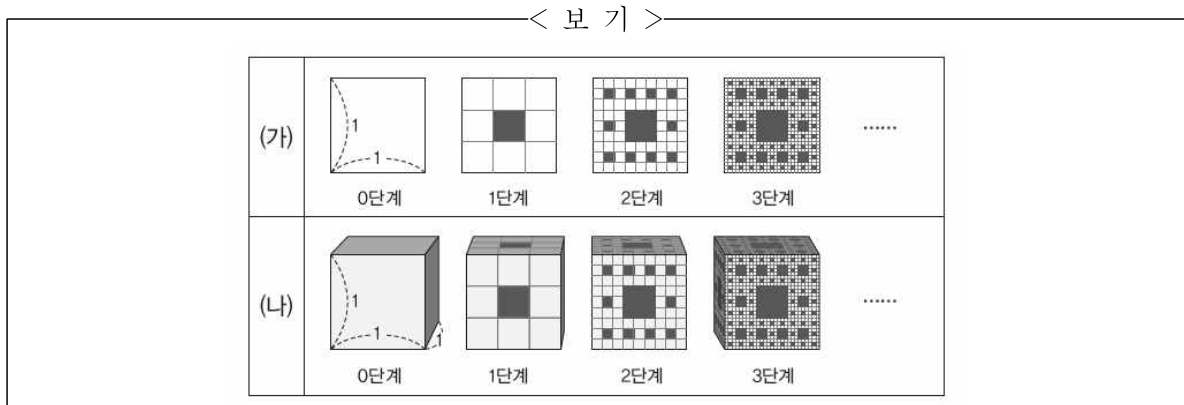
4문단: 멍거 스펀지의 원리

5문단: 프랙털의 의의

- 해제: 이 글은 부분의 모양이 전체의 모양을 닮는 자기 유사성을 가지면서 동일한 모양이 한 없이 반복되는 순환성을 지닌 프랙털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코흐 곡선’과 ‘시어핀스키 카펫’, ‘멍거 스펀지’라는 세 도형을 통해 자기 유사성의 반복을 핵심으로 하는 프랙털의 원리와 수학적 사고 과정에서 탄생한 ‘유한 속의 무한’이라는 역설적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보기>의 (가)는 ‘시어핀스키 카펫’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는 ‘멍거 스펀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자기 유사성의 반복에 따른 것이다.
- ② (가)의 n단계의 넓이와 (나)의 n단계의 부피의 극한값은 무한이 된다.
- ③ 단계가 거듭될수록 (가)에서는 정사각형의 수가, (나)에서는 정육면체의 수가 많아진다.
- ④ (가)의 3단계의 넓이는 0단계의 넓이보다 작고, (나)의 3단계의 부피는 0단계의 부피보다 작다.
- ⑤ (나)의 1단계는 0단계 정육면체를 27개의 정육면체로 나눈 뒤 가운데 부분에 있는 7개의 작은 정육면체를 제거한 것이다.

■ 수능 Tip

1. 지문을 통해 (가)와 (나)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한다.
2. 지문을 바탕으로 선지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2. <보기>는 ㉠에 대한 견해이다. <보기>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 보 기 > —

코흐 곡선의 둘레의 길이가 무한이 되려면 0단계 도형의 한 변의 길이가 점으로 될 때까지 계속 분할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무한한 점들로 분할된 변은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학적이고 관념적인 점이 아닌, 최소 단위의 크기를 가진 점이라야 측정 가능한 선분을 만들 수 있다. 삼각형의 선분을 재는 단위를 μm *로 생각하더라도 이는 측정 가능한 단위이며, 유한한 넓이 안에 들어가는 μm 의 수는 유한하다. 수학적 사유는 관념적인 무한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게 해 주지만, 이러한 상상 속의 무한의 세계를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역설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수학의 세계와 현실을 혼동하는 데서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μm (마이크로미터): 1미터의 1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의 단위.

- ① ㉠은 수학적 사유에 의한 결과이다.
- ② 한 변의 길이가 이전 단계의 1/3로 줄어든 도형은 현실에서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관념적인 무한의 세계를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려 했기 때문에 ㉠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
- ④ 최소 단위의 크기를 가진 점으로 선분이 분할된다면 코흐 곡선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 ⑤ ㉠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분할되는 과정이 무한히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다.

■ 수능 Tip

1. 지문을 통해 ㉠이 의미하는 바를 확인한다.
2. ㉠에 대한 <보기>의 입장을 확인한다.
3. 선지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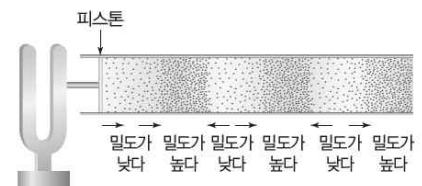
■ [과학3]

▪ 소리의 전달 과정과 전달 속도 - (수능특강 173~175쪽)

일반적으로 ‘소리를 낸다’는 것은 ‘음원의 주변 공기에 압력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음원으로부터의 진동은 대체로 공기라는 매체를 통해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데, 인간의 청각 기관에 이러한 진동이 닿아 지각 과정을 거치면 하나의 ‘소리’로 인식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리는 음원으로부터 청각 기관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이며, 소리의 전달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의 특성에는 무엇이 있을까?

소리의 전달 과정은 공기 입자 자체가 인간의 청각 기관까지 이동하는 현상이 아니라, 음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위에 있는 공기 입자를 차례차례 진동시켜 - 파동의 형태로-인간의 청각 기관까지 진동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소리가 전달될 때 공기 입자가 보여 주는 운동, 즉 진동을 ‘진동 모드에서 진동하는 휴대 전화’의 모습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러한 입자의 진동이 주변으로 전달되는 과정, 즉 파동은 ‘연속된 진자들이 진동을 전달하는 과정’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음원 주위에 있는 공기의 압력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은 <그림>을 가정하면 이해하기 쉽다. 관 안에 찍혀 있는 검은 점들은 공기 입자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소리굽쇠가 가만히 있을 때 공기 입자는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을 것이다. <그림>에서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소리굽쇠가 울려 소리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움직인 순간, 피스톤에 밀려서 공기가 모인 지점은 일시적으로 공기의 밀도가 높아진다. 다만 소리가 전달될 때 공기 입자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기 입자는 옆에 있는 입자를 밀고 원위치를 지나 왼쪽까지 왔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운동, 즉 진동을 반복하게 된다. 이 과정이 오른쪽으로 전달되면서 밀도가 높은 부분도 점차 오른쪽으로 옮겨 갈 것이다. 즉 공기 입자가 좌우로 진동하며 오른쪽의 공기 입자로 힘을 전달하면서 파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림> 소리가 전달될 때 공기 입자의 모습

음원으로부터 발생한 진동이 매체의 특성에 따라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기라는 매체가 지닌 특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기도 용수철처럼 압력에 따라 압축되었다가 복원되는 탄성을 지니고 있다. 대체로 매체의 탄성이 강하여 복원력이 클수록 소리의 전달 속도는 빨라진다. 예를 들어 기체보다 탄성이 강한 액체나 고체의 경우 입자의 복원력이 크기 때문에 소리의 전달 속도도 기체보다 매우 빠르다.

기체의 경우, 질량이 작고 밀도가 낮을수록 입자의 진동이 빨라지고 따라서 소리의 전달 속도도 빨라진다. 예를 들어 밀도가 매우 낮은 수소의 경우 대기에서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소리를 전달한다. 공기의 밀도는 입자들에 가해진 압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동일한 기체의 양에서는 압력이 약할수록 부피가 커지며 부피가 클수록 입자들이 떨어져서 존재한다. 공기 입자들이 서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으면 공기 입자의 진동이 빨라지므로 소리의 전달도 빨라진다. 온도가 높으면 소리의 전달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커지고 압력은 약해지므로 공기 입자의 왕복 운동이 빨라져 분자들 간의 충돌이 빈번해진다. 따라서 소리의 전달 속도도 빨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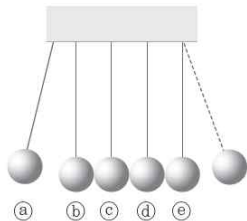
흔히 소리의 전달 속도와 관련하여 저주파인 저음은 느리고, 고주파인 고음은 빠르다는 오해를 한다. 음속을 흔히 주파수와 파장의 곱으로 산출하는데, 일반적으로 주파수와 파장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주파수와 파장 자체가 소리의 전달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야외 연주회장에서 음악을 들을 때 가까운 자리나 먼 자리나 곡이 동일하게 들리는 것은 저음과 고음의 속력이 같기 때문이다.

■ 핵심 정리

- 주제: 소리를 전달하는 공기 입자의 파동과 소리의 전달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매체의 특성
- 구성
 - 1문단: 소리의 전달 과정과 전달 속도에 대한 문제 제기
 - 2문단: 소리가 전달될 때 발생하는 공기 입자의 진동과 파동
 - 3문단: 파동의 방식으로 소리를 전달할 때 생기는 공기의 압력 변화 과정
 - 4문단: 소리의 전달 속도에 영향을 주는 전달 매체의 탄성
 - 5문단: 소리의 전달 속도에 영향을 주는 기체의 질량, 밀도, 온도
 - 6문단: 소리의 전달 속도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진실
- 해제: 이 글은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을 공기 입자의 진동과 파동으로 설명한 후, 소리의 전달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매체의 특성을 서술한 글이다. 파동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소리굽쇠와 피스톤으로 연결된 관’과 관 속에 들어 있는 공기 입자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리가 전달될 때의 공기 입자의 압력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파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또한 소리를 전달하는 매체의 특성으로 탄성, 질량, 밀도, 온도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 소리의 전달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소리의 전달 속도와 관련하여 저음은 느리고, 고음은 빠르다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며 글을 맺고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			(나)
			
	약한 진동 모드의 휴대 전화에 전화가 오면 휴대 전화가 진동하지만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놓여 있다.		연속된 진자들에서 첫 번째 진자를 왼쪽으로 당겼다 놓으면 마지막 진자까지 힘이 전달되어 마지막 진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이 힘은 반대 반향으로도 적용되어 첫 번째 진자와 마지막 진자가 좌우로 왕복 운동을 한다.

- ① (가)의 휴대 전화가 진동하는 모습은, 소리가 발생했을 때 공기 입자 하나가 진동하는 모습과 대응될 수 있겠군.
- ② (가)의 휴대 전화가 진동이 끝나고 원래 자리에 놓여 있는 모습은, 소리가 전달될 때 공기 입자 자체가 옆으로 이동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나)의 ㉠가 처음 움직여 ㉢를 때리는 순간은, 음원으로부터 압력의 변화가 생겨 소리가 발생하는 순간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가 힘을 전달하고도 제자리에 있는 모습은, 공기 입자가 옆에 있는 입자를 밀고 원위치로 돌아와 있는 상황과 대응될 수 있겠군.
- ⑤ (나)의 ㉠와 ㉢가 좌우로 왕복 운동을 하는 모습은, 소리가 음원 주변에 있는 물체에 부딪쳐 반사되면서 전달되는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겠군.

■ 수능 Tip

1. 지문에서 소리의 전달 과정을 파악한다.
2. <보기>의 (가)와 (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한다.
3. (가)와 (나)를 소리의 전달 과정과 관련지어 선지를 분석한다.

■ [과학4]

- 게임 이론의 수학적 고찰 - (수능특강 282~285쪽)

게임 이론이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행동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행동하는 것을 수리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으로, 정치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을 할 때 활용된다. 게임 이론에서는 게임 참가자 모두가 상대방 전략에 대해서 최적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전략으로 바꿀 필요가 없는 상태를 내시 균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에 이르면 참여자들이 더 이상 선택을 바꾸지 않게 된다.

게임 이론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 보수 행렬이다. 보수 행렬은 특정 상황에서 각자가 얻게 되는 이익이나 보상 등의 보수를 수치화하여 열거한 행렬이다. 보수 행렬은 행렬을 구성하는 성분 (a, b)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a+b=0$), 한쪽의 이익과 상대방의 손실의 합이 0이 될 때를 제로섬 게임,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제로섬 게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게임 이론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먼저 제로섬 게임에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자. A와 B, 두 명이 게임을 할 때, A는 전략 A1, A2 중에서 선택하고, B는 전략 B1, B2에서 선택한다. 제로섬 게임에서는 A의 이익이 2일 때 B의 손실이 2 혹은 이익이 -2이므로 한 명의 보수만 적으면 되는데, 다음 표에 적힌 값은 A에 대한 보수이다. A는 자신의 각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최악의 경우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한다. 제로섬 게임에서 상대방이 내가 선택한 전략을 알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은 나에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상황을 예상한다면

A \ B	B1	B2
A1	3	2
A2	4	-1

나는 최악의 경우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는 각 전략에 따른 최소 중에서 최대를 선택해야 하며, 이를 최대최소 전략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전략 A1을 선택했을 때 B의 전략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보수는 3, 2이며, 이 중에서 최소는 2이다. 전략 A2를 선택했을 때의 최소는 -1이다. 이 중에서 최대최소항은 2이고, 전략 A1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에는 B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B 역시 자신의 각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최악의 경우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위 표의 보수 행렬은 A의 보수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A의 최선의 경우 중 최악의 것을 선택해야 한다. 즉 A의 각 전략에 따른 최대 중에서 최소를 선택해야 하며, 이를 최소최대 전략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전략 B1을 선택했을 때 A의 전략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보수는 3, 4이며 이 중에서 최대는 4이다. 전략 B2를 선택했을 때의 최대는 2이다. 이 중에서 최소최대항은 2이고, B는 전략 B2를 선택해야 한다. 종합하면 A의 최대최소항과 B의 최소최대항은 전략 A1, B2가 짝을 이룬 2로 일치하며 이 지점에서 내시 균형에 이르게 된다.

A \ B	B1(β)	B2($1-\beta$)
A1(α)	3	-2
A2($1-\alpha$)	-1	0

그런데 최대최소항과 최소최대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왼쪽 표의 경우 A의 최대최소항은 -1이지만, B의 최소최대항은 0이다. 한편, A와 B가 동시에 선택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선택한다면 상대의 전략에 따라 각자의 선택이 달라진다. A가 최대최소항인 전략 A2를 선택했을 때의 보수는 -1 혹은 0인데, 이는 A를 기준으로 작성된 보수이므로 B의 입장에서는 A의 이익이 적은 -1을 선택하는 것이 B의 이익을 높이는 방안이다. 따라서 B는 전략 B1을 선택한다. 이제 전략 B1 하에서 A에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보수가 3인 전

략 A1이다. 이제 전략 A1이 선택된 상태에서 B는 동일한 논리에 의해 전략 B2를 선택한다.

이런 경우 A와 B는 확률을 이용한 전략으로 귀결된다. A가 전략 A1을 선택하는 비율을 α 라고 하면, 전략 A2를 선택하는 비율은 $1-\alpha$ 가 된다. 또한 B가 전략 B1을 선택하는 비율을 β 라고 하면, 전략 B2를 선택하는 비율은 $1-\beta$ 가 된다. B가 전략 B1을 선택했을 때의 보수인 $V1$ 은 B1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항목을 합한 값인데, 이를 계산하면 $4\alpha-1$ 이 되고, 전략 B2를 선택했을 때의 보수인 $V2$ 는 -2α 가 된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V1=4\alpha-1$ 인 직선과 $V2=-2\alpha$ 인 직선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때 두 직선 $V1, V2$ 는 그래프의 좌표 $(1/6, -1/3)$ 에서 만나게 된다. B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α 가 $1/6$ 보다 적을 때에는 전략 B1을, α 가 $1/6$ 보다 클 때에는 전략 B2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아래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중 최대는 $\alpha=1/6$ 이므로 최대최소 전략은 유효하다. 반면, A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하므로 β 가 $1/3$ 보다 적을 때에는 전략 A2를, β 가 $1/3$ 보다 클 때에는 전략 A1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위쪽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중 최소는 $\beta=1/3$ 이므로 최소최대 전략은 유효하다.

그렇다면 비제로섬 게임에서는 최소최대 혹은 최대최소 전략이 유효할까? 비제로섬 게임은 한쪽의 이익과 상대방의 손실의 합이 0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A와 B가 경찰에 붙잡혀 서로 떼어져 심문을 받는데, 이들에게는 자백하거나 부인하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두 사람이 모두 자백하면 각각 2년형을 받게 된다. 둘 중의 한 사람만 자백을 하면 자백한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지만 자백을 하지 않은 사람은 3년형을 받는다. 또 A와 B가 모두 부인하면 증거가 불충분하여 각각 1년형을 받게 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경우 A와 B 모두 최악의 상황인 3년형을 피하기 위해 최대최소 전략을 사용하면

A \ B	자백	부인
자백	(-2, -2)	(0, -3)
부인	(-3, 0)	(-1, -1)

두 사람 모두 자백을 선택하고 2년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A와 B가 협력을 하게 되면 둘 다 부인을 하고 1년형을 받게 된다. 따라서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협력을 할 경우 참가자 모두에게 최선의 상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핵심 정리

- 주제: 게임 이론과 내시 균형이 이루어지는 과정
- 구성
 - 1문단: 게임 이론과 내시 균형의 개념
 - 2문단: 보수 행렬에 따른 제로섬 게임과 비제로섬 게임
 - 3문단: 제로섬 게임에서 최대최소 전략과 최소최대 전략을 통해 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
 - 4문단: 제로섬 게임에서 최대최소항과 최소최대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5문단: 확률을 이용한 전략에서 최대최소 전략과 최소최대 전략의 유효성
 - 6문단: 비제로섬 게임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방안
- 해제: 이 글은 게임 이론과 내시 균형을 설명하고 있다. 게임 이론이라는 경제 이론에 담긴 수학적 원리를 고찰한다는 점에서 사회와 과학을 통합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게임은 보수 행렬의 성격에 따라 제로섬 게임과 비제로섬 게임으로 나뉜다. 제로섬 게임에서는 최대최소 전략과 최소최대 전략에 의해 내시 균형에 도달한다. 한편, 보수 행렬에서 최대최소항과 최소

최대항이 일치하지 않는 게임에서는 확률을 이용한 전략을 사용하며 이때에도 최대최소 전략과 최소최대 전략은 유효하다. 또한 비제로섬 게임에서는 최대최소 전략과 최소최대 전략을 사용하는 것보다 게임의 참가자들이 합의하여 선택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이 된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보기>에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제2차 세계 대전 중 A국과 B국은 어느 섬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A국은 북쪽 항로나 남쪽 항로를 선택하여 물자나 병력을 수송하려고 하였고, B국은 이동 중인 A국을 폭격하기 위하여 북쪽 항로나 남쪽 항로를 선택해야 했다. B국과 A국이 모두 북쪽 항로를 선택했을 경우 B국은 2일을 폭격할 수 있으며, B국과 A국이 모두 남쪽 항로를 선택했을 경우 B국은 3일을 폭격할 수 있다. 또한 B국이 남쪽 항로, A국이 북쪽 항로를 선택했을 경우 B국은 1일을 폭격할 수 있으며, B국이 북쪽 항로, A국이 남쪽 항로를 선택했을 경우 B국은 2일을 폭격할 수 있다. A국이 B국과 만날 때의 손실만큼 B국은 이익을 얻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 ① A국은 북쪽 항로를 선택하든 남쪽 항로를 선택하든 2일간 폭격을 받을 수 있겠군.
- ② A국은 B국의 선택하에서 최악의 경우 중 최선의 것을 택하기 위해 남쪽 항로를 선택하겠군.
- ③ B국은 항로 선택에 따른 최대최소 전략에 따라 최소 폭격 일수가 많은 북쪽 항로를 선택하겠군.
- ④ B국이 북쪽 항로를 선택했을 때 A국이 선택한 전략에 상관없이 얻을 수 있는 보수는 2일이로군.
- ⑤ B국과 A국 모두 각각의 선택에 따른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 손실의 합이 0이므로 제로섬 게임에 해당하는군.

■ 수능 Tip

1. 지문을 통해 제로섬 게임에서 내시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파악한다.
2. A국과 B국이 최악의 경우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파악한다.
3. A국과 B국의 선택 상황을 토대로 선지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A와 B 모두 선행 학습을 할 때, 이를 위해 사교육을 받는 비용이나 심리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1, -1)이라고 놓자. 한 사람이 선행 학습을 하고 다른 사람이 선행 학습을 하지 않을 때 선행 학습을 한 사람은 비교 우위를 차지하므로 1의 보수를, 선행 학습을 하지 않은 사람은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므로 -2의 보수를 받는다고 설정하자. 반대의 경우는 (-2, 1)이다. 마지막으로 A와 B 모두 선행 학습을 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유불리가 없으므로 보수는 (0, 0)이 된다.

- ① 행렬을 구성하는 성분값의 합이 0이 되지 않으므로 비제로섬 게임에 해당하겠군.
- ② A가 선행 학습을 하고 B가 선행 학습을 하지 않으면 A는 1의 보수를 얻게 되겠군.
- ③ B가 선행 학습을 하고 A가 선행 학습을 하지 않으면 A는 -2의 보수를 얻게 되겠군.
- ④ A와 B가 서로 협력하여 둘 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 되겠군.
- ⑤ A가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B가 최고의 이익을 얻는 전략을 선택하면 B는 0의 보수를 얻게 되겠군.

■ 수능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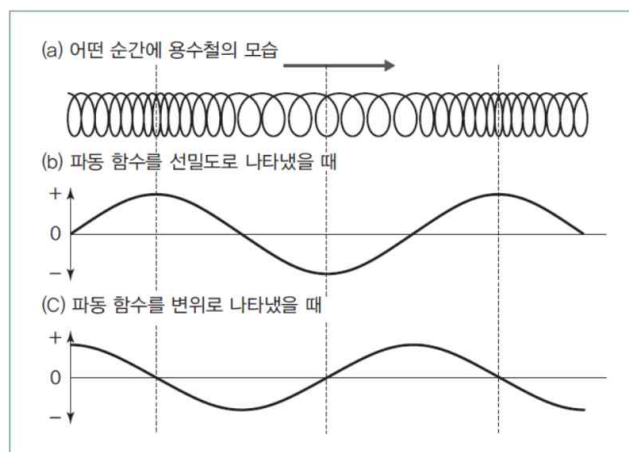
- 1. 지문을 통해 비제로섬 게임에서 내시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파악한다.
- 2. A가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전략과 B가 최고의 이익을 얻는 전략을 파악한다.
- 3. A와 B가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선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 [과학5]

▪ 용수철 종파의 파동 함수 - (수능완성 166~168쪽)

진동은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가 기준 위치에 대해 반복 운동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시계의 추가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경우 이를 진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동이 공간을 따라 전달되어 나가는 것을 파동이라 한다. 즉 파동은 진동자*들이 연속으로 연결되어 배열된 상태에서 한 지점에 있는 진동자에게 어떤 에너지가 투입되면 이 진동자가 진동하게 되고, 진동이 옆의 진동자에게 차례로 전달되어 에너지가 공간적으로 퍼져 가는 것을 말한다. 파동이 전파될 때 진동자는 제자리에서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할 뿐, 파동과 함께 이동하지 않는다. 파동에는 횡파와 종파가 있는데, 횡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자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이다. 줄을 벽에 고정시키고, 한쪽 끝을 잡고 위아래로 흔들 때 생기는 줄의 파동이나 수면에 생성된 수면파가 전형적인 횡파이다. 빛이나 전자기파처럼 매질이 없는 파동도 횡파에 속한다.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자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파동으로, 음파나 좌우로 흔들린 용수철 파동 등이 이에 속한다.

파동의 상태는 파동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파동 함수란 쉽게 말해 파동의 물리량을 나타내는 함수이다. 줄에서 형성된 파동을 함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도 기술할 수 있다. 즉 x 지점에 있는 줄 입자가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정도를 함숫값으로 하여 나타내면 $f(x)$ 로 충분하다. 마찬가지로 용수철에 형성된 종파를 파동 함수로 나타내면 줄의 파동 함수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변수만 있어도 표현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a)는 용수철을 좌우로 흔들었을 때의 어떤 순간을 나타낸 모습이다. 그림 (a)의 용수철 모습을 파동 함수로 나타내고자 할 때, 어떤 물리량을 함숫값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그래프를 달리 그릴 수 있다. 단위 길이당 용수철이 감긴 수를 선밀도라 할 때, x 지점에 있는 용수철의 선밀도가 평형 상태에서 벗어난 정도를 함숫값으로 한다면 그래프의 모양은 그림 (b)처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정도인 ‘변위’를 함숫값으로 한다면 그래프의 모양은 그림 (c)처럼 된다.



〈그림〉 용수철에서의 종파

그림 (b)의 수직 축의 값은 선밀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양의 값은 선밀도가 평형 상태보다 커졌음을 의미하고, 음의 값은 선밀도가 평형 상태보다 작아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 (b)의 수직 축은 어떤 공간상의 위치 차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림 (c)의 수직 축은 변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양의 값과 음의 값은 좌우로 벗어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아래로 벗어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림 (c)에서 ㉠ 함숫값이 0인 지점을 보자. 함숫값이 0인 곳은 그 순간에 용수철이 이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그림 (b)에서 살펴보면 선밀도가 가장 큰 곳과 가장 작은 곳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밀도가 가장 큰 곳을 기준으로 삼아 그림 (c)를 보면 왼쪽 부분의 함숫값은 양이고 오른쪽 부분에서는 음이다. 즉 왼쪽 부분의 용수철은 평형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 부분의 용수철은 평형 위치에서 왼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한편 선밀도가 가장 작은 부분을 보면, 이 지점을 중심으로 왼쪽 부분의 용수철이 왼쪽으로 이동했음을 함숫값이 음수인 것을 보고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른쪽 부분은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을 함숫값이 양인 것을 통하여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은 파동을 나타낸 그래프가 일종의 사인 함수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어떤 입자가 위아래로 진동하는 모습을 흔히 상상한다. 가령 종파에 속하는 음파를 공기 입자의 밀도(또는 압력)나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정도를 파동 함수로 나타낼 때, 일부 사람들은 음파의 파동 함수를 보면서 공기 입자가 곡선을 따라서 위아래로 진동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용수철에서의 종파와 마찬가지로 음파의 세로축은 공간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파동을 이해할 때는 어떤 물리량이 진동하는가를 아는 것과 함께 수직 축이 공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진동자: 아주 작은 진동체.

■ 핵심 정리

- 주제: 파동의 물리량을 나타내는 파동 함수에 대한 이해
- 구성
 - 1문단: 파동에 대한 정의와 종파, 횡파를 나누는 기준
 - 2문단: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도 기술할 수 있는 줄 파동과 용수철 파동에서의 파동 함수
 - 3문단: 선밀도와 변위를 각각의 함숫값으로 하는 용수철 종파의 파동 함수
 - 4문단: 파동 함수를 나타낸 그래프를 이해할 때 유의해야 할 점
- 해제: 이 글은 파동이 진동과 다른 점을 언급하면서 파동이 무엇인지와, 파동의 상태를 표현하는 파동 함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파동은 진동이 공간을 따라 퍼져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자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횡파와 서로 나란한 종파로 나눌 수 있다. 파동의 물리량을 나타내는 파동 함수는 함숫값에 따라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 가령 용수철 종파를 나타낼 경우 함숫값이 선밀도인 경우와 변위인 경우 파동 함수를 나타낸 그래프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함숫값이 0인 지점은 함숫값이 무엇이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그래프를 해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흔히 음파를 나타낸 파동이 사인 함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므로 공기 입자가 곡선을 따라 위아래로 진동하는 모습을 상상하지만 음파의 세로축은 공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파동을 이해할 때는 어떤 물리량이 진동하는가와 수직 축의 값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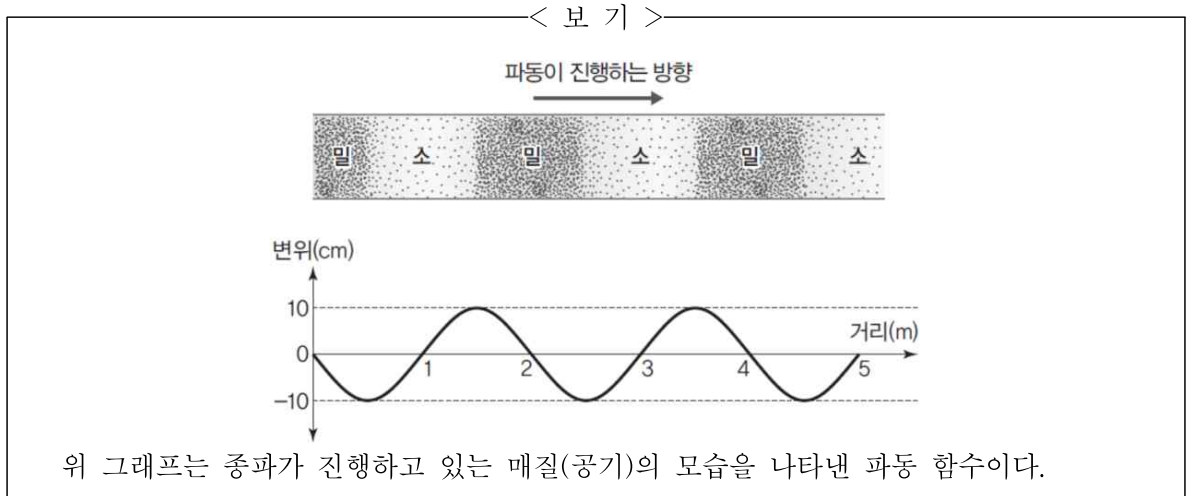
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용수철의 진동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 진동이 멈춰진 지점이다.
- ② 선밀도가 가장 크기 위해서 용수철이 원래 위치로 되돌아와야 하는 지점이다.
- ③ 용수철의 평형이 깨어져 용수철이 평형 위치에서 가장 크게 벗어난 지점이다.
- ④ 선밀도가 양의 값을 가진 지점에서 음의 값을 가지는 지점으로 바뀌는 곳이다.
- ⑤ 선밀도가 가장 큰 부분과 가장 작은 부분에 있는 용수철 입자가 움직이지 않은 곳이다.

■ 수능 Tip

- 1. ㉠을 그림 (b)와 관련지어 이해한다.
- 2. 지문을 바탕으로 ㉠의 의미를 판단한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기>의 파동 함수의 세로축은 공기 입자들이 위아래로 이동한 거리이다.
- ② <보기>의 파동 함수로 볼 때 ‘소’한 곳에서 ‘밀’한 곳으로 바뀌는 지점에서 변위가 가장 작다.
- ③ <보기>의 파동은 ‘밀’한 곳을 중심으로 하여 앞뒤로 공기 입자들이 떨어져 가는 모양을 하고 있다.
- ④ <보기>의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볼 때, 이 파동은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과 서로 수직인 파동에 해당한다.
- ⑤ <보기>의 파동을 세로축을 압력으로 바꾸어 파동 함수로 표현하면 함숫값이 0인 곳은 0.5m 인 지점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 수능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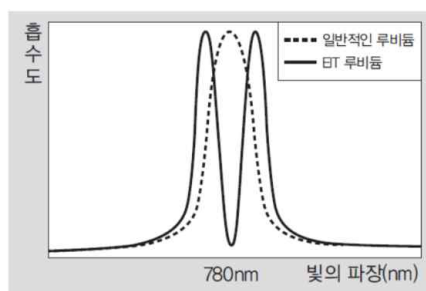
- 1. <보기>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지문에서 확인한다.
- 2. 지문에서 파동의 변위와 밀도의 상관성을 파악한다.
- 3. 선밀도의 파동 함수의 값이 0인 지점을 찾는다.

■ [과학6]

▪ 빛 정보의 저장과 재생 - (수능완성 200~202쪽)

빛은 진공에서 초속 30만 km의 일정한 속도를 갖는다. 하지만 진공이 아닌 다른 매질, 광자의 전진을 방해하는 어떤 물질 속으로 들어가면 속도가 느려지는데,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매질 중 굴절률이 가장 큰 반도체에서 속도는 1/3배 정도로 느려진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느린 빛도 초속 10만 km 정도로 매우 빠르다. 이렇게 빠른 빛의 속도는 빛을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는 ‘양자 메모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큰 골칫거리이다. 전통적인 정보처리는 디지털 방식의 0과 1을 만족하는 신호의 세기, 극성 등을 기준으로 삼지만, 양자 메모리는 연속적인 빛을 시간대별로 짧게 토막을 내어 불연속적인 파동의 모임인 ‘펄스’라는 디지털 정보를 만든다. 그런데 저장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가 문제다. 그래서 양자 메모리 과학자들은 인위적으로 ㉠ 빛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1999년에 연구진은 파장이 780nm인 근적외선 레이저를 매질에 통과시켜 빛의 속도를 초속 17m까지 늦추는 데 성공했다. 빛을 느리게 하는 데 사용한 매질은 루비덤 냉각 원자였고, 이 빛을 ‘느린 빛’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일반적인 루비덤 원자에 빛을 쏘면 원래 광속에 가까운데, 어떻게 빛을 느리게 만들 수 있었을까?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굴절률부터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굴절률(n)은 광속(c)을 특정 매질 안에서의 빛의 속도(v)로 나눈 값이라고 설명한다. 굴절은 빛이 방향을 꺾는 것인데, 이것은 매질에 따른 빛의 속도 차이 때문에 생긴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사실 다른 파장을 갖는 수많은 전자기파의 집합이고, 파장이 다른 전자기파는 매질에서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광속(c)을 단순히 매질에서의 속도로 나누기보다는 매질에서 수많은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라 달라지는 속도의 함수, 즉 군속도(V_g)로 나누어 굴절률을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이때의 굴절률을 집단 굴절률(n_g)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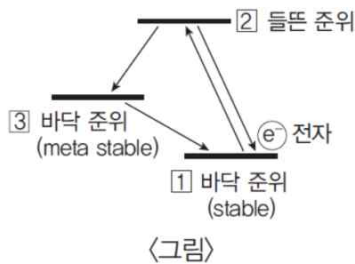


〈그래프〉

이제 빛을 느리게 하는 데 사용한 매질인 루비덤을 살펴보자. 파장에 따른 루비덤의 빛 흡수 그래프를 보면, 루비덤은 다른 파장의 빛을 거의 흡수하지 않고 780nm 주위에서만 빛을 흡수한다. 그런데 원래 빛(조사 빛)에 또 다른 강한 빛(제어 빛)을 추가하면 반대로 780nm만 흡수하지 않는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난다. 이것은 루비덤과 제어 빛이 상쇄 간섭 효과를 일으켜 780nm 파장의 조사 빛이 루비덤을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파장에 따른 빛의 흡수율 그래프가 두 개의 날카로운 봉우리 모양으로 바뀌면, 그래프의 선폴이 좁아지고 군속도가 매우 느려진다. 그 결과 집단 굴절률이 매우 커진다. 이 현상을 ‘전자기 유도 투과(EIT, Electromagnetically Induced Transparency)’라고 부르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이용해 빛의 속도를 늦추는 데 성공했다.

한편, 빛 정보는 결국 펄스라는 불연속적인 파동의 모임이다. 알파벳에 비유하면 C, A, T에 해당하는 전자기파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띄엄띄엄 전달되는 것이 펄스이다. 차량의 길이를 무시한다고 가정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을 생각해 보자. 시속 100km로 100m 간격을 두고 달리는 11대의 차량 행렬은 공간적으로 1km이다. 그런데 톨게이트 부근에서 선두 차량의 속도가 느려져 뒤의 차들도 서행을 한다면 간격이 좁아서 전체 행렬이 10m 이내로 줄어들 수 있

다. 마찬가지로 원래 수 km에 달하던 펄스가 빛의 속도가 느려지면 수 mm가 될 수 있다. 정보가 압축되는 것이다. 그런데 ‘느린 빛’으로 변했다고 해서 정보를 저장했다고 할 수는 없다. C-A-T를 아무리 줄여 봤자 시간이 지나면 C-A-T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를 저장했다면 저장한 정보를 원할 때 그대로 꺼낼 수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예 빛을 멈추어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기 위해 EIT의 원리를 한 번 더 응용한다.



EIT에 사용되는 루비듐은 에너지 준위가 세 개인 3준위 원자계 물질이다. 일반적인 루비듐은 780nm 파장의 빛을 구성하는 광자를 흡수하고, 이 때 얻은 에너지로 전자가 <그림>과 같이 1번 준위에서 2번 준위로 이동한 뒤 다시 1번 준위로 바로 되돌아오거나, 2번에서 3번을 거쳐 1번으로 되돌아온다. 그런데 루비듐에 조사 빛보다 강한 제어 빛을 쏘아 ‘느린 빛’을 만든 뒤에 제어 빛을 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어 빛이 사라지면, 속도가 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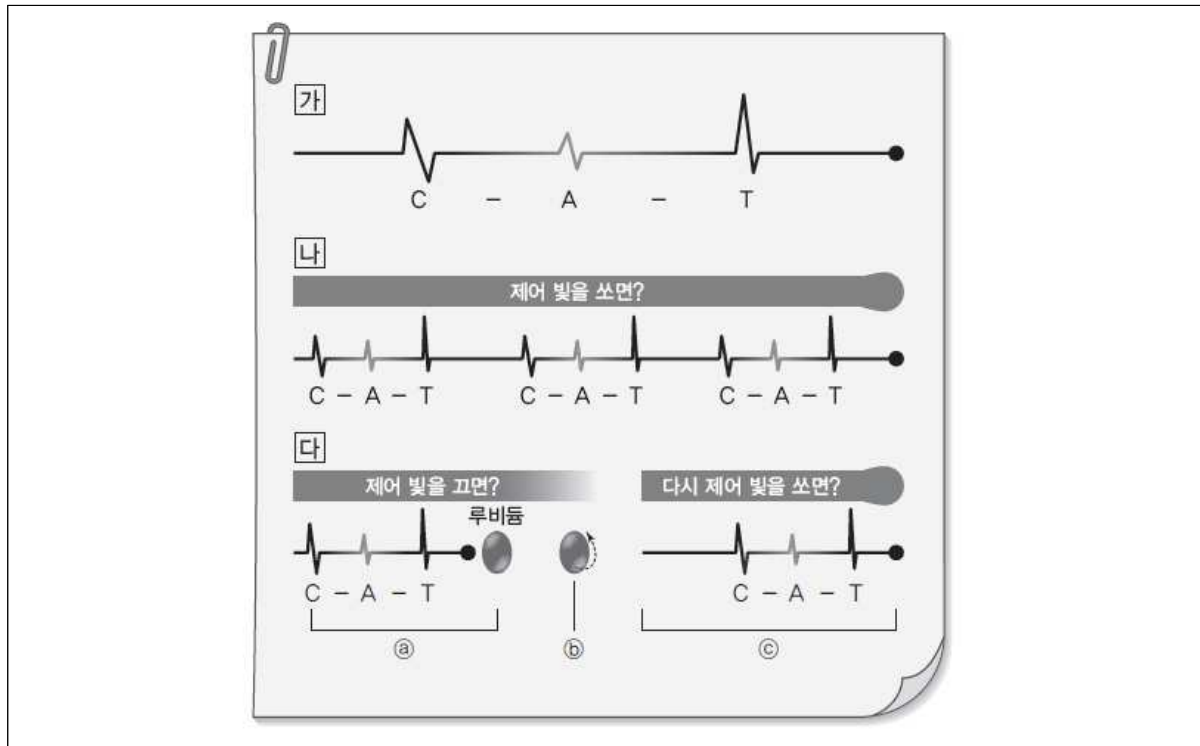
려져 압축된 조사 빛이 뒤늦게 루비듐 전자에 흡수된다. 이 경우, 전자의 에너지 흡수 경로는 1번에서 2번을 거쳐 3번에 안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1번과 3번 사이에 새로운 굴절률이 생기고 이것이 전자에 스핀을 만들게 된다. 쉽게 말하면 C-A-T 모양의 펄스가 사라지고 전자의 스핀으로 정보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다. 흡수된 상태의 이 빛을 ㉠ ‘멈춘 빛’이라고 부른다. 이 상태에서 다시 제어 빛을 쏘아 주면 전자의 스핀에 저장돼 있던 C-A-T 펄스가 튀어나오는데, 이는 3번에 있던 전자가 2번을 거쳐 1번으로 돌아오는 가역적인 결과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펄스에서 전자 스핀으로, 전자의 스핀에서 펄스로 다시 돌아온 빛의 정보 재현율은 10% 내외로 턱없이 낮다.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저장 시간이다. 팽이를 아무리 정확하게 굴려도 이내 불규칙하게 돌거나 쓰러져 버리는 것과 같이 전자 스핀의 보존 시간에도 물리적 한계가 있다.

■ 핵심 정리

- 주제: 빛을 이용한 정보의 저장과 재생, 그 한계
- 구성
 - 1문단: 빛의 빠른 속도와 양자 메모리 과학자들의 시도
 - 2문단: ‘느린 빛’을 이해하기 위한 집단 굴절률
 - 3문단: ‘느린 빛’을 만드는 매질과 EIT
 - 4문단: 빛의 멈춤을 통한 정보 저장과 재생의 필요성
 - 5문단: ‘멈춘 빛’을 만드는 과정과 재생의 한계
- 해제: 이 글은 빛을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양자 메모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이 관건인데 먼저 빛 정보를 불연속적인 파동의 모임인 펄스라는 디지털 정보로 만든다. 루비듐에서 EIT로 ‘느린 빛’을 만들면 펄스가 좁아져 정보가 압축되지만 정보를 저장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빛을 멈추고 필요할 때 꺼내기 위해 EIT의 원리를 한 번 더 응용한다. ‘느린 빛’의 상태에서 제어 빛을 끄면 조사 빛이 루비듐 전자에 흡수되어 펄스에서 스핀으로 정보의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 이를 ‘멈춘 빛’이라고 한다. 이 상태에서 다시 제어 빛을 쏘아 주면 스핀에서 펄스로 돌아오면서 정보가 재생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스핀의 보존 시간과 정보 재현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 다음은 윗글을 바탕으로 루비덤에 쏜 빛을 나타낸 학생의 메모이다. 1번과 2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1.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다른 파장의 빛은 거의 흡수하지 않고 780nm 주위에서만 빛을 흡수하는 일반적인 루비덤에서 나타난다.
- ② 나에서는 가에 비해 파동의 간격이 좁아져 정보가 압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나에는 가에 다른 강한 빛을 쏘아 원래 빛과 루비덤의 상쇄 간섭 효과를 통해 빛의 속도가 느려진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 ④ 가와 달리 나에는 780nm만 흡수하지 않고 투과되는 상태로, ‘느린 빛’을 나타낸 것이다.
- ⑤ 나와 달리 가에는 ‘전자기 유도 투과’ 현상을 이용하지 않은 루비덤 원자에서의 빛의 파동을 나타낸 것이다.

■ 수능 Tip

1. 지문(3문단)에서 빛이 느려지는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2. 지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선지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2. **[다]**를 바탕으로 ‘빛의 정보 저장과 재생’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빛을 멈추기 위해서 제어 빛을 끄고 ‘느린 빛’ 펄스가 루비돔에 흡수되는 것을 보여 준다.
- ② ㉡는 루비돔 전자의 에너지 흡수 경로가 달라져서 전자에 새로운 스핀이 만들어진 것이다.
- ③ ㉢는 EIT의 원리를 한 번 더 응용하여 ㉡에 저장된 정보가 재생되는 것을 보여 준다.
- ④ ㉡의 형태에 물리적 한계가 있어 저장 시간은 짧지만 ㉠에 저장된 정보가 ㉢에서 재생되는 비율은 높다.
- ⑤ ㉠~㉡의 과정에서 정보의 형태가 펄스에서 스핀으로 바뀌어 ‘멈춘 빛’이 되고 ㉢에서 다시 펄스로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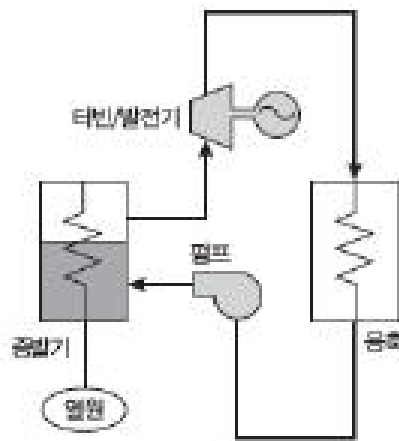
■ 수능 Tip

- 1. 지문(5문단)을 바탕으로 [다]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한다.
- 2. [다]의 ㉠, ㉡, ㉢가 각각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한다.
- 3. 선지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 [기술1]

· 유기 랭킨 발전 시스템 - (수능특강 206~208쪽)

화석 연료의 고갈에 따라 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얻기 위한 연구들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재생 에너지, 특히 저온 열원을 통해 전기를 얻기 위한 시스템인 ㉔유기 랭킨 사이클(Organic Rankine Cycle)은 대체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림) 랭킨 사이클

랭킨 사이클이란 증기 기관의 일종으로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구조를 말하며, 화력 발전을 비롯한 발전 시스템에 많이 쓰인다. 일반적인 랭킨 사이클은 펌프, 증발기, 터빈 그리고 응축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클의 각 과정은 펌프에서의 압축 과정, 증발기에서의 흡열 과정, 터빈에서의 팽창 과정, 응축기에서의 방열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때 작동 유체(working fluid)로는 물을 사용한다. 펌프에서 압축된 물은 열원과 증발기 사이의 열 교환을 통해 기체 상태로 상변화*를 한다. 증발기 출구에서의 증기가 터빈에서 팽창됨으로써 발생되는 팽창 일(expansion work)은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되며, 터빈과 연결된 발전기에 의해 전력이 생산된다. 터빈 출구에서 과열 상태의 증기는 응축기에서 응축되어 액체 상태로 바뀐 후 펌프에 의해 압축되어 다시 증발기로 유입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랭킨 사이클은 작동 유체로 물을 사용한다. 하지만 물은 고온의 열원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지만, 열원 온도가 중저온($70\sim 400^{\circ}\text{C}$)일 경우에는 시스템의 효율 저하로 인해 실용성이 떨어진다. 유기 랭킨 사이클은 이와 같은 중저온 열원의 적용 시에 발생하는 기존 랭킨 사이클의 효율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된다.

유기 랭킨 사이클은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 일반적인 랭킨 사이클과 동일하지만 작동 유체로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 혼합물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때 작동 유체로 사용되는 유기 혼합물은 낮은 에너지 열원에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끓는점이 낮고, 증기압이 높아야 하며, 터빈 입구의 질량 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잠열이 작고 밀도가 큰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유기 혼합물은 끓는점이 낮아 저온에서도 기화되기 때문에 태양열, 지열 등을 이용하여 랭킨 사이클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저온 사이클로서의 유기 랭킨 사이클은 신재생 에너지원의 이용, 폐열 회수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온 열사이클과의 병합 운전을 통해 기존 시스템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폐열을 단순히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존의 폐열 회수 방법과 달리 유기 랭킨 사이클은 고급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한 효과적인 폐열 회수 시스템이며, 작동 유체의 적절한 선정을 통해 넓은 범위에서의 열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저온 열원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스 터빈과 같이 고온의 열원을 사용하는 시스템보다 안전성이 높으며, 유지 관리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유기 랭킨 시스템에 관한 기본 설비 능력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기랭킨 사이클 시스템의 실용화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최적화 설계 기술의 개발과 함께 팽창기, 펌프 및 열 교환기와 같은 요소 부품의 국산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형 시스템의 개발보다는 중소형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필요하다.

*상변화: 물질이 온도, 압력, 외부 자기 마당 따위의 일정한 외적 조건에 따라 기체, 액체, 고체의 한 상(相)에서 다른 상으로 바뀌는 현상.

*질량 유량: 단위 시간당 흐르는 물체의 질량.

■ 핵심 정리

- 주제: 대체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유기 랭킨 사이클
- 구성
 - 1문단: 대체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유기 랭킨 사이클
 - 2문단: 랭킨 사이클의 구조와 원리
 - 3문단: 중저온 열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 랭킨 사이클
 - 4문단: 유기 랭킨 사이클에서 사용하는 작동 유체의 조건
 - 5문단: 유기 랭킨 사이클의 장점
 - 6문단: 유기 랭킨 사이클 상용화를 위한 과제
- 해제: 이 글은 대체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유기 랭킨 사이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랭킨 사이클은 펌프, 증발기, 터빈, 응축기를 통한 압축, 흡열, 팽창, 방열의 과정을 통해 전력을 생산한다. 유기 랭킨 사이클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랭킨 사이클과 같지만 작동 유체가 물이 아닌 저온열원에서 작동할 수 있는 유기 혼합물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유기 랭킨 사이클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화석 연료 절감에 기여할 수 있고, 안전성이 높으며 유지 관리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그 기본 설비 능력이 부족하여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윗글을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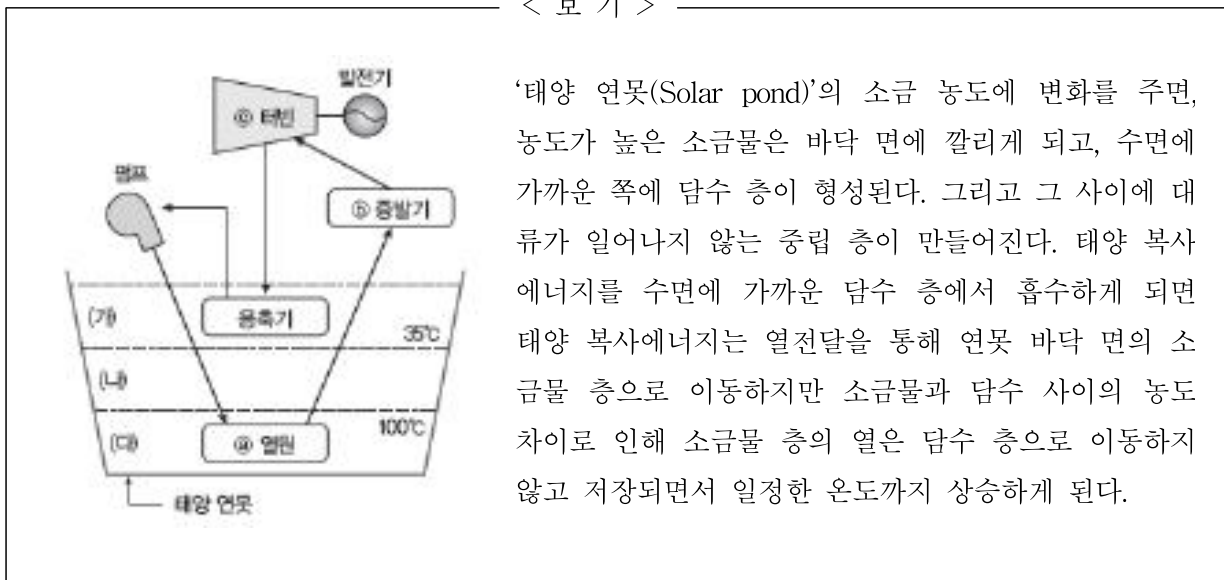
- ① 고온의 열 사이클에 비해 화석 연료 사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작동 유체는 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기체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 ③ 사이클의 순환이 반복될수록 작동 유체의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 ④ 고온의 열 사이클과의 병합 사용은 시스템의 변환 효율을 증대할 수 있다.
- ⑤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일반적인 랭킨 사이클에 비해 저렴하다.

■ 수능 Tip

1. 2문단의 내용을 통해 랭킨 사이클의 구조와 원리를 파악한다.
2. 3문단을 통해 유기 랭킨 사이클도 작동 유체만 다를 뿐 랭킨 사이클과 같은 원리로 작동함을 안다.
3. 선지를 읽으면서 본문 내용을 적용시켜 본다.

2. <보기>는 ‘태양 연못(Solar pond)’ 발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① (가)는 과열된 작동 유체의 온도를 낮춰 주는 기능을 하겠군.
- ② (나)는 작동 유체의 대류를 억제하여 (다)의 온도 상승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겠군.
- ③ (다)의 온도를 보니 태양 연못 발전 시스템은 유기 랭킨 사이클로 작동되겠군.
- ④ ④와 ⑤ 사이의 작동 유체와 ⑤와 ③ 사이의 작동 유체의 상(相)이 일치하지는 않겠군.
- ⑤ ⑤의 과정에서 시스템을 순환하는 작동 유체는 에너지 변환을 일으키게 되겠군.

■ 수능 Tip

1. 랭킨 사이클의 작동 방식을 파악한다.
2. 랭킨 사이클과 유기 랭킨 사이클의 작동 유체의 기능에 대해 파악한다.
3. 선지를 읽으며 지문의 정보와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 [기술2]

· 홍채 인식 기술 - (수능특강 212~214쪽)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홍채 인식은 사람의 눈의 홍채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식별하는 기술이다. 홍채는 생후 1~2년간 동공 방향의 빗살무늬 형태로 변화하여 특정한 패턴을 이루며, 그 이후에는 패턴이 변화하지 않는다. 또 홍채의 패턴은 유전적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마다 고유한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도 홍채 패턴이 다르며, 동일인의 왼쪽과 오른쪽 눈의 홍채 패턴도 완전히 다르다. 그 결과 홍채 인식 기술은 지금까지 개발된 생체 인식 기술 중 개인 식별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채 인식 과정은 일반적으로 영상 취득, 홍채 영역 검출, 눈꺼풀 및 속눈썹 검출과 배제, 홍채 패턴 및 코드 추출, 홍채 코드 매칭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홍채의 영상은 근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하여 얻는다. 근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시광선을 이용해 촬영할 경우 홍채가 가시광선에 반응해 움직이거나, 주변의 다른 빛에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홍채 영상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근적외선 카메라는 눈에 자극을 주지 않아 동공의 크기와 홍채의 형태가 변화하지 않으며, 홍채 영역을 256단계의 다양한 흑백 명암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 특성을 드러내는 데 적합하다.

다음으로 근적외선으로 촬영된 영상에서 홍채 영역만을 검출한다. 홍채 영역을 검출하려면 동공과 홍채, 홍채와 공막* 사이의 경계면을 모두 구분하여, 동공과 홍채 사이의 내부 원, 홍채와 공막 사이의 외부 원을 검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검출된 홍채 영역은 눈꺼풀과 속눈썹에 의해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고, 동일한 홍채를 촬영하여 검출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려진 홍채 영역이 매번 달라진다. 즉 눈꺼풀과 속눈썹은 홍채 인식의 정확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촬영된 영상에서 흑백 명암이 크게 변화되는 지점을 찾고 이를 활용하여 눈꺼풀과 속눈썹을 검출하여 배제한다. 일반적으로 눈꺼풀은 공막이나 홍채와 흑백명암의 차이가 크고, 속눈썹은 흑백 명암이 어두운 편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배제한다.

다음으로 눈꺼풀과 속눈썹이 배제된 홍채 영상을 바탕으로 고유한 홍채 패턴을 추출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홍채 영역을 극좌표계로 표시한다. 이때 극좌표계로 표시한다는 것은 홍채 패턴 정보를 가지고 있는 특정 홍채 영역을 홍채 중심과의 거리와 각도로 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체 홍채 영역은 홍채 중심과의 거리에 따라 8개의 트랙으로 구분되고, 홍채 중심과 이루는 각도에 따라 256개의 픽셀로 나뉘어, 결국 모든 홍채 영역은 2,048개의 표준화된 홍채 영역으로 구획된다. 그리고 각각의 구획은 그 구획에서 확인된 흑백 명암의 단계가 사전에 설정한 임계치*를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진수인 0과 1로 변환되어 홍채 코드로 추출된다. 따라서 홍채 영역은 최대 2,048개의 이진수 코드로 변환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홍채 코드 매칭 과정에서는 추출된 홍채 코드가 이미 등록된 홍채 코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밍 거리를 측정하여 판단하는데, 해밍 거리란 같은 개수의 이진수 사이에 대응되는 이진수의 값이 일치하지 않는 개수를 의미한다. 즉 해밍 거리가 크다는 것은 곧 등록된 홍채 코드와 추출된 홍채 코드 간의 차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밍 거리가 정해진 기준보다 작으면 홍채 코드가 일치된 것

으로 간주하고, 정해진 기준보다 클 경우에는 홍채 코드가 다른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공막: 안구의 대부분을 싸고 있는 흰색의 막으로, 눈의 흰자위에 해당하는 부분.

*임계치: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대상이 분간되는 한계 수치.

■ 핵심 정리

• 주제: 홍채 인식 기술의 원리와 과정

• 구성

1문단: 홍채 인식 기술의 개념과 특성

2문단: 홍채 인식 과정 ① - 영상 취득

3문단: 홍채 인식 과정 ② - 홍채 영역 검출, 눈꺼풀 및 속눈썹 검출과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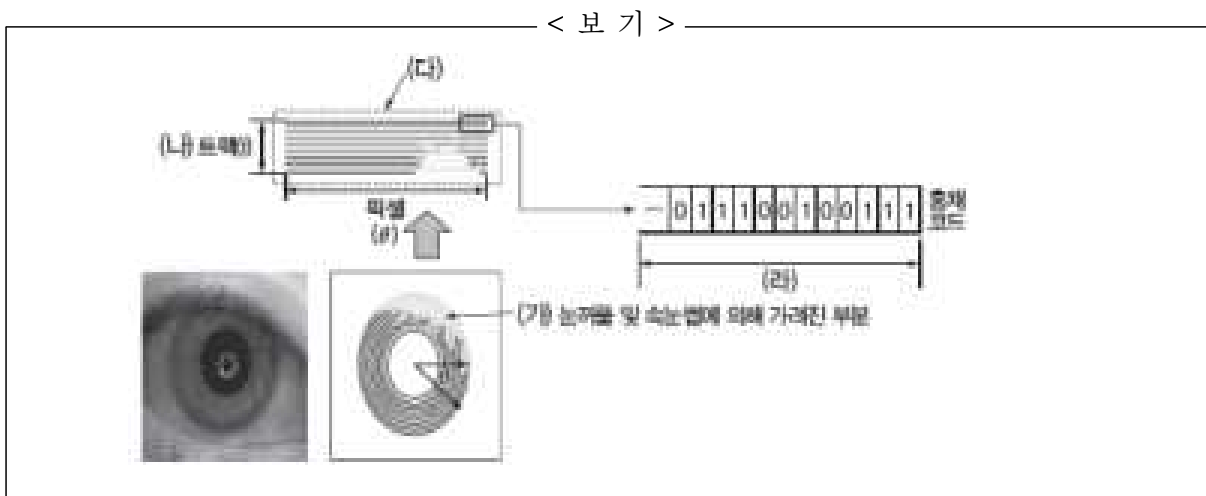
4문단: 홍채 인식 과정 ③ - 홍채 패턴 및 코드 추출

5문단: 홍채 인식 과정 ④ - 홍채 코드 매칭

• 해제: 이 글은 최근 들어 생체 인식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홍채 인식 기술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홍채 인식 기술은 개인의 고유한 생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복제가 어렵고 개인 식별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채 인식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영상 취득, 홍채 영역 검출, 눈꺼풀 및 속눈썹 검출과 배제, 홍채 패턴 및 코드 추출, 홍채 코드 매칭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홍채 영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눈에 자극을 주지 않는 근적외선을 활용하며, 근적외선을 활용해 취득한 영상에서 홍채 영역만을 검출한다. 그리고 눈꺼풀과 속눈썹 등을 검출해 홍채 영상에서 배제한다. 그리고 홍채 영역만을 극좌표계로 표시한 후 각각의 구획에 있는 홍채 패턴을 추출하여 이진수의 코드로 변환한다. 그리고 이렇게 변환된 코드를 등록된 홍채 코드와 매칭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라)와 같은 홍채 코드를 추출할 수 없다.
- ② (나)는 특정 홍채 영역과 홍채 중심과의 거리를 나타낸다.
- ③ 해밍 거리가 작을수록 추출된 홍채 코드의 (나)가 작아진다.
- ④ (다)에는 표준화된 홍채 영역의 구획이 최대 2,048개 존재할 수 있다.
- ⑤ 흑백 명암 단계의 임계치 설정이 바뀌면 (라)의 이진수가 변화할 수 있다.

■ 수능 Tip

- 1. 문제가 4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 2. 4문단의 내용을 통해 극좌표계의 트랙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한다.
- 3. 선지를 읽으며 4문단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홍채 패턴의 차이를 흑백 명암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 ② 홍채 패턴의 미세한 차이를 정밀하게 보정하기 위해서
- ③ 홍채 영역을 침범한 눈꺼풀과 속눈썹을 제거하기 위해서
- ④ 홍채 영역을 표준화하여 홍채 코드 매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 ⑤ 홍채 영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홍채 코드 매칭의 성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 수능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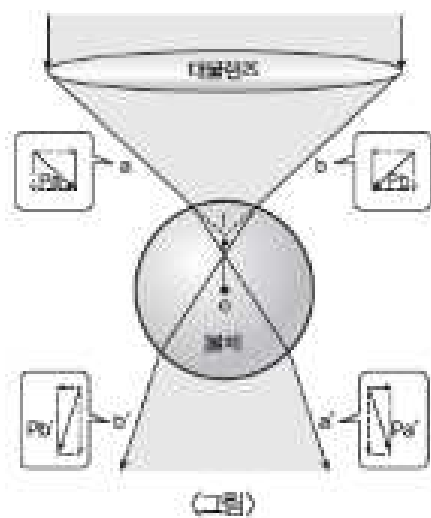
- 1.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 밑줄 친 부분의 뒤에 있음을 상기한다.
- 2. 홍채 영역을 극좌표계로 표시하면 표준화된 구획으로 설정될 수 있음을 파악한다.
- 3. 4, 5문단을 읽으면서 정답을 확인한다.

■ [기술3]

■ 광집계 - (수능특강 218~220쪽)

1969년 벨 연구소 연구원 아시킨(Ashikin)은 강한 레이저 빛을 이용하여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폴리스틸렌 입자를 포획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 발견으로 마이크로미터 수준 또는 그 이하의 미세 대상물을 포획하여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광집계이다. 최근에는 광집계로 세포 내 기관, DNA 등의 미세한 생물학적 대상들을 포획하고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 기술은 생명 과학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광집계가 물체를 포획하는 원리의 이해를 위해 <그림>과 같이 대물렌즈를 통해 물체에 조사*되는 레이저를 a와 b로, 물체를 통과한 레이저를 a'와 b'로 나타냈다. f는 물체가 없을 경우 대물렌즈에 의해 레이저가 모이는 초점이다. 물체를 향해 레이저를 조사하면, a, b는 매질*에서 물체에 입사할 때와 물체에서 매질로 나올 때 굴절된다. 이때 a, b, a', b'의 운동량은 <그림>에 서와 같이 수평 방향의 성분과 수직 방향의 성분이 합한 것으로 P_a , P_b , $P_{a'}$, $P_{b'}$ 로 나타낼 수 있다. P_a 와 $P_{a'}$ 의 운동량, P_b 와 $P_{b'}$ 의 운동량을 비교해 보면, 수평 방향의 성분은 ' P_a , P_b ', ' $P_{a'}$, $P_{b'}$ '가 서로 반대 방향이므로 두 성분이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P_{a'}$ 와 $P_{b'}$ 는 각각 P_a , P_b 보다 수직 방향의 성분이 증가한 것이다.



여기서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수직 방향의 성분이 증가한 만큼 반대 방향, 즉 f 방향으로 운동량이 발생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물체는 힘을 받아 f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물체가 이동하여 물체의 중심이 f의 위치에 이르게 되면 레이저가 물체에 입사하더라도 굴절되지 않으므로 물체는 힘을 받지 않아 이동이 멈추게 되는 상태, 다시 말하면 포획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한편, 광집계로 물건을 포획하려면 몇 가지 특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잡으려는 물체 내부로 빛이 투과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빛이 투과되지 않으면 물체 내부에 초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빛이 투과되는 물체라도 그 모양이 중요한데, 물체가 구의 형태에 가까울수록 광집계로 더 잘 포획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평면의 형태보다 초점이 잘 형성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조건은 포획하려는 물체의 굴절률이 매질의 굴절률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후자가 전자보다 크면 포획될 때 f 방향으로 생기는 운동량과는 반대 방향, 즉 f의 반대 방향으로 운동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체를 포획할 수 없게 된다. 유전체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장 잘 만족하기 때문에 광집계는 유전체 연구에서 유용한 기술이 되고 있다.

유전체 연구에서 ⑦최근 활용된 광집계 기술로 광집계를 이용하여 유전자를 세포 안으로 전달하는 것이 있다. 유전자를 세포 안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전자를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에 썬우고 이것을 광집계를 이용하여 포획한다. 한편, 유전자를 주입할 세포는

슬라이드에 붙이는데, 슬라이드에 붙은 세포가 평평할 것 같지만 실제로 세포 표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프로브*를 사용하여 레이저를 쏘 부분의 세포 높이를 정확히 탐지해야 한다. 높이가 탐지되었으면 세포벽에 아주 빠르게 감싸이는 극초단파 레이저인 펄스 레이저를 조준하여 쏜다. 이때 펄스 레이저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레이저가 짧은 시간 동안 세포에 에너지를 전달해 열로 인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작은 구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펄스 레이저로 세포 표면에 구멍을 만들면, 광집계를 이용해 세포 내부에 마이크로 입자를 주입한다.

기존의 유전자 주입 방식은 원하는 유전자를 입힌 입자를 총을 쏘듯이 임의의 세포에 고속으로 충돌시키거나 전기 쇼크를 주는 방식이어서 유전자 전달의 성공 여부가 일정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세포가 손상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개발한 유전자 주입 방법은 단일 세포의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고, 전달할 유전 물질의 양과 전달 시간 및 주입 위치를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사: 광선이나 방사선 따위를 쬔.

*매질: 힘과 같은 물리적 작용을 전달하는 매개물. 예를 들어 소리는 공기, 물 등을 매개로 전파됨.

*운동량 보존 법칙: 외부의 힘을 받지 않는 고립된 물체 또는 계에서 전체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는 법칙.

*프로브: 대상물의 계측 내지 탐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늘고 뾰족한 소도구 또는 장치.

■ 핵심 정리

- 주제: 광집계 기술의 원리와 최근의 활용
- 구성
 - 1문단: 광집계 기술의 개념과 응용 분야
 - 2문단: 광집계 기술의 원리
 - 3문단: 광집계로 물건을 포획하기 위한 조건
 - 4문단: 유전자 주입 광집계 기술로 유전자를 주입하는 과정
 - 5문단: 유전자 주입 광집계 기술의 장점
- 해제: 이 글은 광집계의 원리를 설명하고 최근에 개발된 광집계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광집계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마이크로미터 수준이나 그 이하의 물체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다. 광집계는 레이저가 물체를 투과하면서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물체를 포획할 수 있는 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응용한 기술이다. 광집계로 물체를 포획하려면 레이저가 투과될 수 있어야 하며, 물체의 굴절률이 매질의 굴절률보다 커야 한다. 광집계는 세포 내 기관, DNA 등의 미세한 생물학적 대상들을 잡는 데 활용되는데, 최근에는 유전자를 광집계로 주입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A~C를 광집계로 잡는 실습을 했다고 할 때, 실습한 학생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형태	굴절률
A		2.0
B		빛을 모두 반사하여 굴절률 없음.
C		1.0

- * A~C를 광집계로 포획하려는 데 있어서 매질의 굴절률은 1.5이다.
- * 위에서 아래로 각 물체의 수직 방향으로 레이저가 조사된다.
- * 물체의 포획이 가능한 에너지를 가진 레이저가 조사된다.
- * A, B, C에서 ‘●’는 레이저를 조사해서 물체 내부에 레이저가 모이게 하려는 위치다

<학생의 말>

- ㄱ. A가 광집계에 포획되자 A에 입사하는 레이저의 진행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
- ㄴ. B를 포획하려면 매질의 굴절률을 1.0보다 작게 만들어야 했어.
- ㄷ. C의 중심은 수직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았어.
- ㄹ. C의 뾰족한 부분을 위로 가게 했으면 C를 포획할 수 있었겠어.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 수능 Tip

1. 지문을 통해 실습 상황에서의 A, B, C의 형태와 굴절률의 관계를 파악한다.
2. 지문을 읽으면서 실습 상황을 바탕으로 <학생의 말>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펄토초 레이저 광으로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에 유전자를 넣는다.
- ② ㉠에서는 펄토초 레이저를 사용하여 레이저로 인한 세포의 열 손상을 최소화한다.
- ③ ㉠은 기존의 유전자 주입 방식과 같이 유전자를 썩은 입자를 세포 안에 주입한다.
- ④ ㉠에서 프로브를 사용하는 이유는 슬라이드에 있는 세포의 표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이다.
- ⑤ ㉠은 기존의 유전자 주입 방식에 비해 유전자를 원하는 위치에 정밀하게 주입할 수 있다.

■ 수능 Tip

1. 4문단을 통해 ㉠의 내용을 확인한다.
2. 지문을 읽으면서 펄토초 레이저를 사용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3. 나머지 선택지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 비슷한 제재 다른 지문 맛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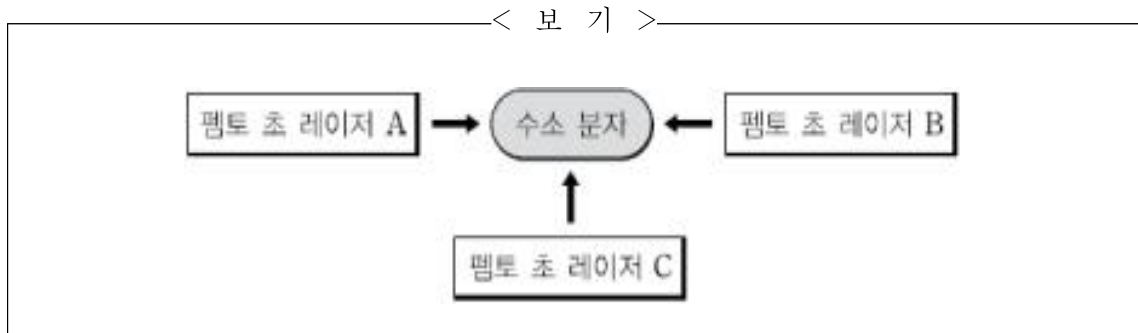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은 날아오는 총알을 자유자재로 피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크기가 작은 총알의 속도가 너무 빨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작은 나노미터 수준의 크기를 갖는 분자들의 움직임은 상상하기 어려운 극한의 시간, 즉 ‘펨토(femto) 초’ 단위 내에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보기 어렵다. 펨토는 10⁻¹⁵을 나타내는 단위로 15를 의미하는 덴마크어 ‘femten’에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여기서 1펨토 초는 1000 조분의 1초를 말한다. 화학이나 생물학 반응에 수반되는 전자의 이동, 생체 내 효소에 분자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일, 광합성이 일어 날 때 엽록소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 등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기본 단위인 분자들의 움직임들이 바로 펨토 초 단위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펨토 초 레이저 기술이다.

펨토 초 레이저는 대략 수십 펨토 초 동안만 켜졌다 꺼지는 레이저 펄스를 사용한다. 레이저 펄스를 관찰하려는 분자에 쬔면, 레이저 펄스는 펨토 초 시간 동안만 켜져서 분자를 볼 수 있게 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한다. 아주 어두운 실험실 안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10초 간격으로 0.1초씩만 플래시를 터뜨려서 사진을 한 컷씩 찍는다고 생각해 보자. 플래시가 켜진 아주 짧은 순간에만 촬영된 이 사진들을 순서대로 모으면 10초 간격으로 물체가 변화한 모습과 그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플래시 역할을 하는 레이저 펄스를 연사하면서 얻은 자료들을 연결하면 마치 영화 필름의 프레임처럼 고속으로 움직이는 분자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

펨토 초 레이저 기술을 이용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분자의 구조를 파악할 수도 있다. 아주 작은 분자의 구조를 현미경으로 보듯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자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분자 구조를 추측해야만 한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분자 구조를 알기 위해 ‘다차원 분광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다차원 분광법은 적어도 3면 이상의 방향에서 펨토 초 레이저를 분자에 쬔 후 빛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모양을 측정하여 분자의 구조를 추리하는 방법이다. 이때 펨토 초 레이저의 수를 늘려 보다 많은 방향에서 레이저 펄스를 쬔수록 보다 정확한 분자의 구조를 추리할 수 있다. 빛은 물체에 닿으면 반사되고, 좁은 틈을 지나면 회절 현상을 일으켜서 산란된다. 그런데 빛이 반사, 산란되는 모양은 빛이 닿는 물체의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빛을 한 방향에서만 비추면 그 그림자로는 한쪽에서 바라본 모양에 대한 정보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비춘 빛들이 만들어 낸 그림자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물체의 입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레이저 펄스를 통해 얻은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자라도 그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⑦펨토 초 레이저 기술은 화학, 생물학 등에 나타나는 과학적 현상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대단히 크다. 특히 의료 기술이나 신약 개발과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3. <보기>는 펨토 초 레이저를 활용한 ‘다차원 분광법’을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접한 후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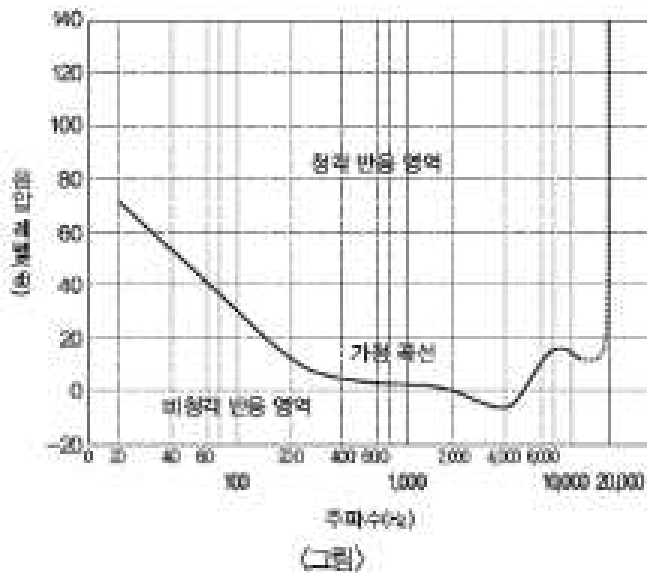
- ① 펨토 초 레이저 A, B, C는 플래시 역할을 하는 레이저 펄스를 수소 분자에 쬔다 주겠군.
 - ② 수소 분자보다 크기가 큰 분자의 구조는 펨토 초 레이저 A와 B만 을 활용해도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겠군.
 - ③ 펨토 초 레이저 A, B, C가 각각 다른 방향에서 쬔다 주었기 때문에 수소 분자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겠군.
 - ④ 펨토 초 레이저를 통해 얻은 영상은 레이저 펄스가 수소 분자를 쬔다 과정에서 빛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모양을 측정하여 얻은 것이겠군.
 - ⑤ 펨토 초 레이저 A, B, C 외에 다른 방향에 펨토 초 레이저를 추가로 설치하여 수소 분자에 쬔다 주면 이전보다 정확한 수소 분자의 구조를 알 수 있겠군.
4. ㉠의 이유를 추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제적 부가 가치가 높은 과학적 물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 ②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분자의 구성 요소를 성분별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 ③ 빛의 반사와 산란 현상을 활용하지 않고도 과학적 현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 ④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단위인 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 ⑤ 화학, 생물학 등을 비롯한 과학적 현상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 [기술4]

■ 음향 현상- (수능특강 229~231쪽)

소리를 물리적으로는 시간에 대해 공기의 밀도가 변하는 파동으로 보지만, 심리 음향학적으로는 사람의 청각 기관을 통한 감각을 일으키는 자극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청각에서 소리의 주파수는 소리의 음높이로 지각되며, 공기의 압력 변화의 진폭은 소리의 크기로 지각된다. 즉 소리의 주파수가 높으면 높은 음으로, 진폭이 크면 큰 소리로 들린다. 주파수가 다르더라도 진폭이 같으면 소리의 절대적 에너지의 크기가 같은데, 압력의 변화량을 음압이라 부르며 그 단위는 파스칼(Pa)이다. 음압 레벨이란 음압과 기준 음압과의 비율을 로그 규모로 표현한 것을 말하며 단위는 데시벨(dB)이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은 주파수가 20~20,000Hz에 해당하는 소리를 지각할 수 있으며, 음압이 120dB보다 큰 소리에 대해서는 고통을 느끼며 그 크기를 구별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간은 대체로 20~20,000Hz 주파수대역의 120dB 이하의 소리만을 지각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가청 한계’라고 한다.

하지만 사람은 가청 한계 내의 소리에 대해 소리의 음압이 같더라도 주파수에 따라 소리의 크기가 다르다고 지각한다. 예를 들어 일정한 진폭을 가지는 1,000Hz의 소리와 그와 동일한 진폭의 100Hz의 소리가 있다면, 사람에게서는 100Hz의 소리가 훨씬 작은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다. 이처럼 소리의 에너지를 심리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라우드니스(loudness)’라고 하여, 소리의 물리적 세기를 표시하는 음압과 구별한다. 즉 음압이 물리적인 측면에서 소리의 세기 정도를 표시하는 척도라면, 라우드니스는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소리의 세기를 표시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플레처와 먼슨의 실험에서 확인되었다. 그들은 1,000Hz의 주파수인 파동만으로 이루어진 소리, 즉 1,000Hz의 순음*에 대해 인간의 청각에서 겨우 지각될 수 있는 음압을 측정하고 이것을 라우드니스 0폰(phon)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순음의 주파수를 바꾸어 가면서 0폰의 소리 크기로 느껴지는 음압을 각 주파수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0폰에 해당하는 음압이 주파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주파수별로 0폰을 일으

키는 1,000Hz의순음과의 음압 차이를 ‘음압 레벨’로 표시하고, 인간이 0폰으로 지각할 수 있는 소리를 <그림>에서의 곡선과 같이 나타내었다. 이 곡선을 가청 곡선(Audibility Curve)이라 부른다. 이 실험에 따르면 주파수가 20Hz인 순음의 경우 인간의 귀에 겨우 들리기 시작하는 0폰의 지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소리의 음압은 1,000Hz의 순음에 비해 73dB 정도 더 큰음압 레벨이어야 하며, 주파수가 높아지면 0폰 정도

[A]

의 지각을 일으키기 위한 소리의 음압 레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4,000Hz에서는 1,000Hz에 비해 오히려 가청 음압 레벨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결국 순음을 지각하려면 주파수에 따른 음압 레벨이 최소한 가청 곡선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청 곡선 이상의 음압 레벨을 갖는 영역을 청각 반응 영역, 가청 곡선 이하의 음압 레벨을 갖는 영역을 비청각 반응 영역이라고 한다.

청각 반응 영역 내에서라도 그 소리의 음압에 따라 동일한 크기로 지각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소리의 음압 레벨과 라우드니스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등가청 곡선(Equal Loudness Curve)이라고 부르는데, 이 곡선의 전반적인 형태는 가청 곡선과 비슷하지만 기준 음압에 따라 그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1,000Hz에서 0폰일 때보다 10배 크기로 느끼는 정도를 10폰이라고 하면 이때 필요한 음압 레벨은 10dB 정도이다. 하지만 20Hz인 소리에서 10폰의 크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약 76dB 정도의 음압 레벨이 필요하며, 4,000Hz에서는 약 3dB의 음압 레벨이 필요하다. 등가청 곡선은 라우드니스 정도에 따라 그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나, 폰의 크기가 커질수록 같은 소리 크기로 지각되기 위한 최소 음압 레벨과 최대 음압 레벨의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순음: 단일한 주파수를 갖는 음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음의 대부분은 각종 주파수를 갖는 순음을 조합한 복합음임.

■ 핵심 정리

- 주제: 라우드니스의 이해
- 구성
 - 1문단: 물리적 소리와 인간이 지각하는 소리의 차이
 - 2문단: 라우드니스의 개념
 - 3문단: 인간의 청각 반응 영역과 가청 곡선의 이해
 - 4문단: 등가청 곡선의 이해
- 해제: 이 글은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소리가 인간이 지각하는 소리와 같지 않음을 밝히고, 후자를 라우드니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플레처와 먼슨의 연구를 통해 라우드니스는 주파수별로 소리의 음압 레벨에 따라 달라짐을 설명하고, 이러한 원리에 따라 주파수별로 음압 레벨에 따라 달라지는 라우드니스를 표시한 곡선과 소리의 음압 레벨과 라우드니스의 관계를 나타내는 등가청 곡선을 소개하고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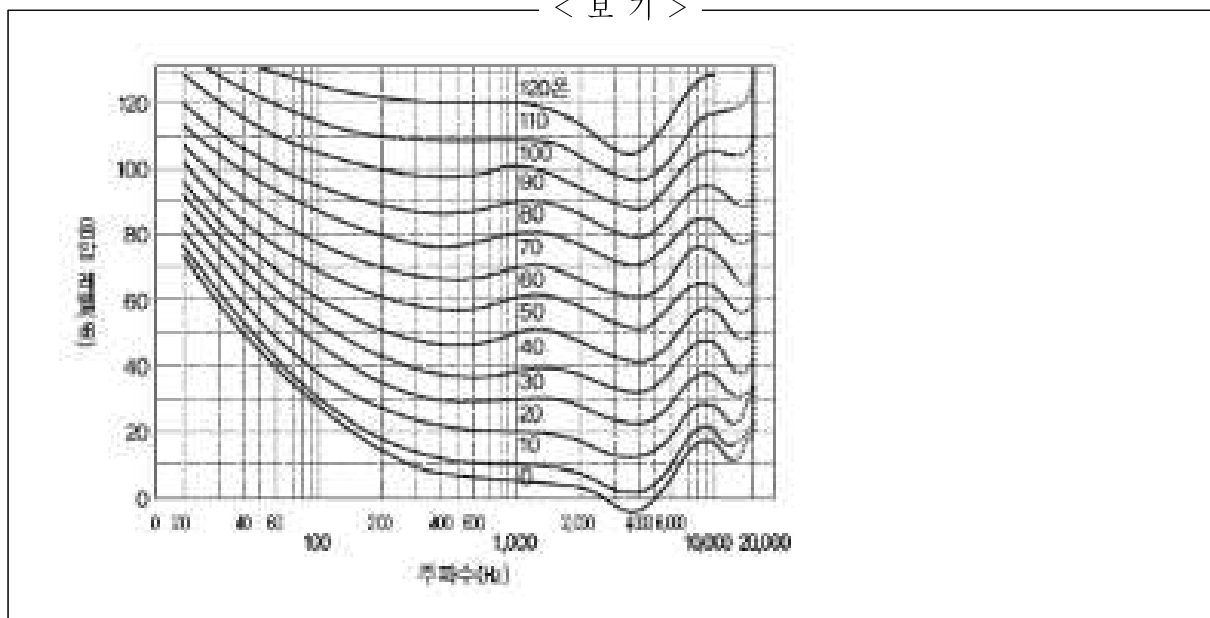
1.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0폰에 해당하는 음압 레벨은 1,000Hz일 때 가장 낮을 것이다.
- ② 인간은 음압 레벨과 무관하게 지각할 수 없는 순음이 있을 것이다.
- ③ 음압 레벨이 20dB인 100Hz 이하의 순음은 인간에게 지각되지 않을 것이다.
- ④ 음압 레벨이 73dB 이상일 때 인간은 가청 한계 내에서 모든 순음을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가청 한계 내에서 어떤 순음의 주파수가 달라지면 그 소리에 대한 인간의 지각은 달라질 것이다.

■ 수능 Tip

1. 지문에서 [A]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한다.
2. [A]의 내용을 각 선지에 대응시켜 적절성을 판단한다.

2. <보기>는 가청 한계 내의 ㉠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70폰일 경우 10,000Hz의 소리보다 1,000Hz의 소리의 음압 레벨이 낮겠군.
- ② 주파수가 높은 소리일수록 음압 레벨과 관계없이 모든 음에 대한 지각 정도가 높아지겠군.
- ③ 라우드니스의 크기가 같을 경우 100Hz 이하의 소리는 주파수가 낮을수록 음압 레벨이 더 높겠군.
- ④ 가청 한계 이내에서 음압 레벨이 동일하다면 인간에게 4,000Hz 내외의 순음이 가장 크게 지각되겠군.
- ⑤ 가청 한계 이내에서 동일한 정도의 음압 변화가 일어난다면 20Hz 소리의 음압 변화가 200Hz소리의 음압 변화보다 더 크게 지각되겠군.

■ 수능 Tip

1. 가청 한계 및 등가청 곡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다.
2. <보기>에 제시된 내용을 지문의 내용과 관련지으며 이해한다.
3. 각각의 선지를 지문에 근거하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 [기술5]

■ 허프만 부호화 - (수능완성 141~143쪽)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만 이해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문자와 같은 기호들을 컴퓨터에서 사용하려면 이진수 형태의 부호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이진수로 부호를 할당하는 방법에는 고정 길이 부호화와 가변 길이 부호화가 있다. 고정 길이 부호는 기호들을 일정한 길이의 비트*로 나타낸 것으로, 일정한 길이마다 끊어 읽기 때문에 n 개의 비트로 최대 $2n$ 개의 기호들을 나타낼 수 있다. 미국의 표준 부호인 아스키 부호(ASCII)는 7비트의 조합으로 27인 128개의 영문자, 숫자, 특수 문자를 나타낸 것이다.

가변 길이 부호는 기호에 따라 부호의 길이를 다르게 한 것이다. 가변 길이 부호는 길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호가 연속될 때 끊어 읽어야 하는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같은 수의 기호를 부호화하려면 고정 길이 부호보다 더 긴 길이의 부호도 발생하며 복호화* 과정도 더 복잡하다. 그렇지만 특정 기호의 빈도가 높은 경우, 빈도가 높은 기호에 더 짧은 부호를 할당하면 부호화에 필요한 평균 비트 수를 줄일 수 있다. 이것은 19세기 중엽 미국의 모스가 전신을 개발할 때 사용했던 아이디어와 유사하다. 모스는 알파벳 중에서 E와 A가 다른 글자보다 더 자주 사용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E와 A에는 짧은 길이의 부호를 할당하고, 아주 가끔씩 사용되는 Q나 Z에는 상대적으로 긴 길이의 부호를 할당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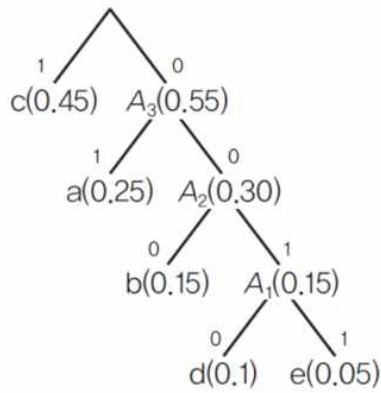
전신으로 문자를 전송할 때처럼 특정 값의 빈도가 높은 것을 통계적 중복성이라고 한다. 통계적 중복성이 있는 경우 기호를 부호화할 때 가변 길이 부호를 할당하면 데이터의 손실 없이도 압축이 가능하다. 허프만 부호화는 통계적 중복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허프만 부호화를 위해서는 먼저 각 기호의 빈도를 구하고, 기호를 확률순으로 정렬한다. 그런 다음 가장 확률이 낮은 두 개를 하나로 묶고, 부호의 마지막 비트는 각각 0과 1 값을 주어 구분을 한다. 이렇게 확률이 낮은 두 기호를 묶고, 마지막 비트로 구분해 주는 과정을 계속하면 발생 확률이 높을수록 짧은 부호가 할당된다.

예를 들어 기호 a, b, c, d, e의 발생 확률이 각각 0.25, 0.15, 0.45, 0.1, 0.05라고 할 때 이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기호	확률
c	0.45
a	0.25
b	0.15
d	0.1
e	0.05

여기에서 확률이 낮은 것 두 개를 묶어 $A_1, A_2, A_3, \dots$ 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계속하면 <그림>과 같은 트리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진다.

두 개로 묶었을 때 마지막 비트에는 0과 1 어느 것을 할당해도 무방하지만 확률이 높은 쪽에 0, 확률이 같을 때는 처음 정렬할 때의 순서가 앞선 것에 0을 할당한다와 같은 규칙을 정하면 위의 <그림>과 같이 0과 1이 할당된다. 그러면 e의 부호는 A_1 의 부호에 1이 연결된 것



※ 괄호 안은 확률을 나타냄.

〈그림〉

고정 길이 방식보다 평균 비트가 적다. 부호의 평균 길이의 이론적 최소치를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엔트로피를 통해 허프만 부호화의 효율을 검사할 수 있다. 부호의 평균 길이에서 엔트로피를 뺀 값을 잔여 성분이라고 하는데, 잔여 성분 값이 작다는 것은 허프만 부호화의 압축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비트: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법의 최소 단위.

* 복호화: 부호화된 데이터를 원래의 기호로 변환하는 것.

(편의상 $A_1 - 1$ 로 표기)이 되는데, A_1 의 부호는 $A_2 - 1$, A_2 의 부호는 $A_3 - 0$ 이 된다. 최종적으로 A_3 이 0이기 때문에 e의 부호는 0011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부호를 할당하면 d에는 0010, b에는 000, a에는 01, c에는 1이 할당된다.

허프만 부호화를 했을 때 부호의 평균 길이는 부호의 길이와 그 확률의 곱을 모두 더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위의 예에서는 $0.45 \times 1 + 0.25 \times 2 + 0.15 \times 3 + 0.1 \times 4 + 0.05 \times 4 = 2$ 로 3개의 비트를 사용해야 하는

■ 핵심 정리

• 주제: 허프만 부호화

• 구성

1문단: 고정 길이 부호로 이진 부호를 할당하는 방법

2문단: 가변 길이 부호의 특징과 모스 부호

3문단: 허프만 부호화의 개념과 방법

4문단: 허프만 부호화의 예시

5문단: 허프만 부호화의 예시

6문단: 허프만 부호화의 예시

7문단: 허프만 부호화의 효율 검사

• 해제: 이 글은 가변 길이 부호를 통해서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 중 하나인 허프만 부호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컴퓨터가 부호를 할당할 때 특정 기호가 나타나는 빈도가 통계적으로 높을 수 있는데, 이를 통계적 중복성이라고 한다. 통계적 중복성이 있을 때, 출현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짧은 길이의 부호를,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긴 길이의 부호를 할당하면 부호에 필요한 비트 수를 줄일 수 있다. 허프만 부호화를 했을 때, 부호의 평균 길이에서 이론적 최소치인 엔트로피를 뺀 값을 통해 압축의 효율을 검사할 수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 <보기>는 특수 기호를 허프만 부호화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1번과 2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 < 보 기 > —

특수 기호를 이진 부호로 바꾸기 위해 기호 a, b, c, d의 발생 확률을 조사해 보니 각각 0.5, 0.3, 0.1, 0.1로 나타났다. a, b, c, d의 순서로 정렬하여 허프만 부호화를 통해 각 기호에 부호를 할당했더니 부호의 평균 길이는 1.7이었고, 엔트로피값은 1.6855였다.

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정 길이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평균 길이가 더 길어지는군.
- ② 기호 c와 d처럼 확률이 같은 기호는 같은 부호를 할당받게 되겠군.
- ③ 1.7에서 1.6855를 뺀 값을 통해 허프만 부호화의 효율을 검사할 수 있겠군.
- ④ 고정 길이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 기호 a는 1개의 비트로 나타낼 수 있겠군.
- ⑤ 기호 a에 짧은 길이의 부호를 할당하면 부호의 평균 길이는 1.6855보다 줄어들겠군.

■ 수능 Tip

- 1. 지문을 통해 허프만 부호화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다.
- 2. 4~6문단에 나와 있는 허프만 부호화의 예시를 잘 이해하여 <보기>에 적용한다.
- 3. 선지를 읽으며 내용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2. <보기>의 각 기호에 부호를 할당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a	b	c	d
①	1	0	10	11
②	1	01	110	111
③	1	10	000	001
④	0	10	110	111
⑤	0	01	010	011

■ 수능 Tip

- 1. 4~6문단에 나와 있는 허프만 부호화의 예시 내용을 <보기>에 적용한다.
- 2. 부호를 할당한 결과와 도표를 비교하여 정답을 찾는다.

■ [기술6]

■ ‘사물 인터넷과 인간 인터넷’ - (수능완성 246~249쪽)

(가)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이동 통신망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사물 간의 지능 통신을 이른다. 여기서 사물이란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서비스 등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사물 인터넷은 사물이 단순히 연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사물들이 인간에게 지식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간의 명시적 개입이 없어도 정보를 생성, 수집, 공유,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기술은 크게 센서, 네트워크, 장치, 플랫폼*, 보안으로 구분되고 활용 분야도 거의 전 산업 분야를 망라한다. 사물 인터넷은 센서 중심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용되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Ubiquitous Sensor Network)나 통신 장비와 사람과의 통신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물 통신(M2M, Machine to Machine)보다 진화한 단계로, 서로 다른 영역의 사물 간에 협업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플랫폼에 연결되는 등 개방형으로 운용된다. 또한 사물 인터넷은 작동기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포함하며 처리 기능이 보강된 지능형 마이크로 컴퓨팅 기기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개방형 사물 인터넷 플랫폼 개발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은 완성되지 않고 있고, 사물 인터넷을 통해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도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다양한 센서 등으로 생성되고 다수의 분산된 서버에 저장·관리되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응용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획득하고 공유할 수 있을지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이다.

한편, 사물 인터넷은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트워크, 단말 및 센서, 플랫폼과 서비스 등 사물 인터넷 구성 요소에 대한 해킹 및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 사용자의 특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때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PC나 모바일, 네트워크상의 보안은 보안 전문 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그리고 이용자, 이 셋만 보안을 확실히 하면 된다. 하지만 사물 인터넷은 이외에도 기기 제조사나 플랫폼 및 서비스 제공자 등 보안을 책임질 주체가 너무 많다. 커넥티드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발전된 커넥티드 자동차는 사고 다발 지역이나 급회전이 필요한 구간을 지나갈 때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받아 스스로 속도를 줄이게 설정돼 있다. 그런데 누군가 차에 전달되는 정보를 조작해 사고 다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속도를 줄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 정보가 빠져나간 경로가 자동차인지 아니면 네트워크인지, 플랫폼인지, 서비스인지 알 수가 없다. 그만큼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지만 기기 제조 업체들이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고 사용자 간의 서비스 활용이 용이하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것.

* 커넥티드 자동차: 자동차와 IT 기술을 융합하여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동차.

(나) 인터넷은 인류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지식의 형태, 지식의 습득 방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계, 안경 등의 사물들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이 되어 이제 모든 것의 인터넷이라고 할 만큼 삶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인터넷이 인간의 뇌와 연결되는 ‘인간 인터넷’의 세계를 향해 가고 있다. 초소형 스마트폰이 사람의 뇌와 직접 연결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자. 눈 한 번 깜빡이는 길로 사진을 찍고 생각만으로 어떤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 인터넷’, ‘뉴로 미디어’의 세계이다. 하지만 뉴로 미디어 기능을 하던 전자 통신망이 파괴된다면 우리는 지식에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자동적으로 정보를 얻는 데 익숙해지면,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삶의 방식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지식 습득 능력을 확대하지만 사실은 더 복잡한 방식의 지식 습득 능력을 방해한다. ㉠인터넷을 통한 지식 습득은 단지 정보의 유통일 뿐인데도 우리는 마치 지각 작용처럼 의심 없이 그 지식을 그대로 믿는다. 이것은 자신의 믿음에 책임을 지고 정보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사유하고 창조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지식의 습득을 방해한다. 즉 지식의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이해가 확장되고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물들과 인지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지식의 생산 과정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은 네트워크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만약 우리가 뉴로 미디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이해 행위 역시 더 네트워크화될 것이다. 즉 자신의 지식과 타인의 지식에 차이가 없어지고 우리의 인지 과정은 다른 사람들의 인지 과정과 점점 더 얹히게 될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쌓아 온 지식의 형태, 지식의 습득 방식, 더 나아가 인간의 정체성까지도 바꿔 놓은 디지털 기술, 이러한 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면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지식은 정보들의 관련성을 창조적으로 파악하고 사유하는 행위를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해를 위한 기초가 된다. 이해가 개인의 인지 통합의 과정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지만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네트워크화된 지금은 남들과 함께 이해에 이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약 각 개인의 지식에 대한 믿음들 사이에 추론적 연결과 설명적 연결이 일어난다면 이해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기술을 합리적 근거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서로 완성시켜 줄 것이며, 이해에 이르는 일을 남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인터넷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이며, 우리는 더 강력한 인식 주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은 상대방에게 합리적 근거를 요구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공통 플랫폼이 되도록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하며 우리 또한 이해하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핵심 정리

- 주제: (가) 사물 인터넷의 특징과 문제 / (나) 인간 인터넷 시대의 인식 주체로서의 인간
- 구성
 - (가) 1문단: 사물 인터넷의 개념
 - 2문단: 사물 인터넷의 특징과 과제
 - 3문단: 사물 인터넷이 지닌 보안 문제
 - (나) 1문단: 인터넷의 변화와 인간 인터넷 시대의 전망
 - 2문단: 인터넷을 통한 지식 습득의 문제와 지식의 네트워크화
 - 3문단: 인터넷의 활용과 인식 주체로서의 인간
- 해제: 이 글은 (가) 사물 인터넷의 개념과 기술을 소개하는 글과 (나) 사물 인터넷을 넘어 ‘인

간 인터넷' 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되 인간이 인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묶은 복합 지문으로, 사물 인터넷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보여 주고 있다. 인간의 명시적인 개입 없이도 인간에게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물 인터넷은 공통 플랫폼 개발과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보안 측면에서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한편, 인터넷은 지식 습득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이 되면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이제 인터넷이 인간의 뇌와 연결되는 인간 인터넷의 세계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한 지식의 습득이 인간의 창조적 사고와 사유 능력을 방해하고 사물 인터넷에 의해 지식이 네트워크화된 상황에서 뉴로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해에는 이르지 못하고 인지 과정은 다른 사람들과 점점 더 얽히게 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이러한 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면 인터넷을 상대방에게 합리적 근거를 요구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공통 플랫폼으로 새롭게 디자인함으로써 인간 인터넷에서 인간이 강력한 인식 주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과 관련하여 <보기>의 ㉡에 들어갈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전제와 결론이 순환적으로 서로의 논거가 될 때 나타나는 오류를 우리는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부른다. 루쉰의 「아큐정전(阿Q正傳)」에는 “그놈은 나쁜 놈이니 사형을 당해야 해. 사형을 당하는 걸 보면 나쁜 놈이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순환 논증의 전형적인 예다. 그런데 순환 논증의 오류는 디지털 지식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자 할 때 ㉡ 과 같은 경우이다.

- ① 다양한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
- ② 검색 엔진 ○○를 통해 온라인 백과사전 △△에서 얻은 정보와 오프라인 백과사전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받아들이는 것
- ③ 검색 엔진 ○○를 통해 온라인 백과사전 △△에서 정보를 얻고,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정보를 수정하여 올리는 것
- ④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검색 엔진 ○○에서 얻은 정보는 신뢰하고 이를 증명하는 다른 검색 엔진의 정보들은 신뢰하지 않는 것
- ⑤ 검색 엔진 ○○를 통해 온라인 백과사전 △△에서 정보를 얻고, 얻은 정보를 뒷받침하는 정보를 다시 검색 엔진 ○○와 온라인 백과사전 △△에 의존하는 것

■ 수능 Tip

1. <보기>의 ‘순환 논증의 오류’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2. 지문 (나)의 2문단을 읽으면서,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한다.
3. 선지를 읽으면서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2-3] 다음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소개한 스토리텔링 사례이다. 2번과 3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A 씨는 추석을 맞아 다음 날 성묘를 다녀올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성묘길 정체가 심하다는 뉴스가 떴다. 소식을 접한 스마트폰이 알아서 30분 더 일찍 알람을 울리고, A 씨를 깨우기 위해 집 안 전등을 일제히 켜다. A 씨는 준비를 위해 거울 앞에 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모자.”라고 말했다. 거울이 여러 가지 스타일의 모자들을 거울 한 귀퉁이에 비춰 주자, A 씨는 중절모를 가리킨다. 그러자 거울은 중절모를 쓴 A 씨의 모습을 보여 주었고 A 씨는 이를 선택한다. 준비를 마친 A 씨가 집을 나서자, 집 안의 모든 전기 기기가 스스로 꺼지고 가스도 안전하게 차단된다. 밤새 무선으로 충전된 커넥티드 자동차를 타고 “인천항 여객 터미널.”이라고 말하자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고 지능형 내비게이션이 무인 주행 모드로 출발하기 시작했다. 커넥티드 자동차는 차선 감지 장치와 충돌 방지 장치를 작동시켜 전후좌우에서 달리고 있는 다른 차들과의 거리를 유지한다. A 씨는 차창을 통해 길가에 늘어선 코스모스를 바라본다. 코스모스 풍경이 보이는 창문 위에 손가락으로 일정한 크기를 지정한 다음 꺾 누른다. 그러자 차에 장착된 카메라가 촬영한 코스모스 사진이 유리 창문에 나타났다. A 씨는 창문에 나타난 메뉴 버튼을 선택한 다음, 사진의 일부분을 잘라 내고 사진 위에 글씨를 쓴다. 편집을 끝낸 사진은 자신이 가입한 개방형 SNS에 올린다. 잠시 후 유리창에는 지도와 운행 정보가 나타나고 인천항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된다. A 씨는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다. 나지막이 “어머니.”라고 부르자 슬라이드로 편집된 어머니의 사진과 동영상이 나타난다. A 씨는 인천항까지 가는 동안 살아 생전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을 적신다.

2. (가)를 바탕으로 ‘사물 인터넷’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씨가 중절모를 선택한 것은 거울과 A 씨의 협업을 통한 것이라 볼 수 있겠어.
- ② 성묘길 정체가 심하다는 정보를 수집한 스마트폰이 A 씨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했군.
- ③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요소를 고려할 때, 커넥티드 자동차에 전달되는 정보가 조작되어 차선 감지 장치나 충돌 방지 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군.
- ④ 어머니에 대한 A 씨의 생각이 아니라, 명시적인 말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획득하게 하기 위해서야.
- ⑤ 유리 창문을 통해 편집한 사진을 SNS에 올리고 지도와 운행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의 사물들이 다양한 플랫폼에 연결되어 개방형으로 운용되기 때문이군.

■ 수능 Tip

1. 지문 (가)를 통해 사물 인터넷의 내용과 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2. (가)의 내용을 A 씨의 사례들에 적용시켜 보면서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3. ‘디지털 기술’과 관련하여, (나)의 글쓴이가 ‘A 씨’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의 삶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깊어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 ②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주지만 우리의 사고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③ 우리를 둘러싼 사물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뉴로 미디어’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 ④ 사물 인터넷을 넘어 인간 인터넷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안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 ⑤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필요합니다.

■ 수능 Tip

- 1. (나)의 글쓴이가 디지털 기술 및 사물 인터넷에 대해 지니고 있는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 2. 사례에서 A 씨가 사물 인터넷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한다.
- 3. 선지를 읽으면서 (나)의 글쓴이의 관점이 잘 드러난 것을 고른다.

■ [예술1]

■ 앙드레 바쟁의 영화 이론 - (수능특강 252~254쪽)

앙드레 바쟁은 현대 영화 이론의 기틀을 세웠다고 평가되는 인물이다. 그는 영화 예술의 본질이 현실의 모방과 복제에 있다고 보고 이를 ‘리얼리즘’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리얼리즘 영화 미학은 영화의 기본적 메커니즘과 매력을 이해하는 데 탁월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후 영화에 대한 사유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바쟁의 영화 이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형과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견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는 조형 예술의 기원에 정신 분석학적 콤플렉스, 즉 미라 콤플렉스가 존재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인간이나 사물의 특질을 재현한 회화와 조각이 시체를 방부 처리하여 보존하려는 이상적인 염원에서 출발했다는 생각을 나타낸다. 바쟁은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을 보존하려는 염원, 사물과 신체를 소멸시키는 시간과 맞서려는 사고와 더불어 죽음을 넘어서려는 꿈이 회화와 조각의 기원이 되었으며, 예술가는 존재의 외형이라도 지켜 내려는 본능을 지닌 존재라고 보았다. 또한 바쟁은 사진이 이러한 본질적 욕구를 카메라의 근본적 특질인 절대적 객관성을 통해 실현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사진이 하는 재현은 예술적 재창조가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이는 회화 작품에서는 찾을 수 없는 신뢰의 힘을 사진에 부여하였는데, 이러한 사진의 객관성을 바쟁은 ‘리얼리즘’이라고 불렀다.

조형과 사진에 대한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에서, 그는 영화가 움직임을 나타냄으로써 사진의 객관성에 시간적 재현을 제공한다고 보고, 사진의 객관성의 토대 위에 영화 이론을 세웠다. 나아가 바쟁은 ‘영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영화와 현실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며 거의 완벽하게 유사해진다는 생각을 나타내었다.

또한 바쟁은 영화를 바라보는 관객의 주체적 해석을 중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관객은 영화 속의 대상을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바라보게 되며, 보는 관객의 선택에 의해서 그 대상의 이미지는 재구성되고 관객의 체험이 영화 해석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영화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관객들은 영화를 지켜보고 주체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서 영화와 현실이 상호 연관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영화에서 현실의 객관적 재현과 이에 대한 관객의 주체성을 강조했던 그는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의 의미를 강제로 부여함으로써 의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다. 그는 영화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 자의적 기법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요하는 것에 반대하여 룡 샷*, 장시간 촬영 등의 기법을 장려하면서 현실적인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통해 관객 스스로가 영화 속 현실의 의미를 재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관객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바쟁의 생각을 적극 수용한 영화감독 윌리엄 와일러는 그의 대부분의 영화에서 편집을 최소로 줄이고 룡 샷과 장시간 촬영을 적극 활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바쟁은 ‘관객 스스로 관찰하고 선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며 높이 평가하였다.

* 룡 샷: 피사체를 먼 거리에서 넓게 잡아 주는 촬영 기법. 사진이나 영화 촬영에 있어서 사물이나 인물 등 피사체 전체를 넓게 잡아 주는 촬영 방식을 말함.

■ 핵심 정리

- 주제: 앙드레 바쟁의 리얼리즘 영화 미학
- 구성

1문단: 앙드레 바쟁의 리얼리즘 영화 미학에 대한 소개

2문단: 조형과 사진에 대한 바쟁의 견해

3문단: 세상을 바라보는 창으로서의 영화

4문단: 영화를 바라보는 관객의 주체적 해석을 중시한 바쟁

5문단: 자의적 기법과 의도적 메시지에 반대한 바쟁의 견해

- 해제: 이 글은 앙드레 바쟁의 리얼리즘 영화 미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바쟁은 인간이 미라 콤플렉스, 즉 사라지는 것을 보존하려는 염원을 지니고 회화와 조각을 시작했다고 보았다. 그는 사진이 이러한 욕구를 카메라의 절대적 객관성을 통해 실현하였다고 보면서 이를 리얼리즘이라고 불렀고, 이후 영화는 사진에 시간적 재현을 더하면서 현실을 밀접하게 나타내게 되었다. 영화에 대한 관객의 주체적 해석을 강조했던 바쟁은 영화가 의도적 메시지를 담는 것에 우려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보기>의 (가), (나)에 대한 바쟁의 반응을 추측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가) 로베르트 비네의 영화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은 기우뚱하게 기울어져 있는 건물, 찌그러진 사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문과 창문, 지그재그 형태로 뻗어 있는 길 등 비현실적으로 왜곡된 세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배우들은 진한 분장을 하고 과도한 액션과 과장된 표정 연기를 보여 주었으며, 극적인 장면에서 강한 명암 대비를 나타내는 조명을 통해 벽에 커다란 그림자가 생기게 함으로써 초현실적이고 불안한 기운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 (나) 비토리오 데시카의 영화 「자전거 도둑」은 이탈리아의 가혹한 전후 시대를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 남자가 자전거를 훔치는 사건을 아들과의 감동적인 관계에 주목해 그린 영화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실제 철공소 노동자 아버지와 신문팔이 소년이다. 그들의 연기는 현실과 다름없이 자연스러우며, 90분 동안 카메라는 단지 지친 노동자의 발걸음을 끊임없이 그리고 천천히 따라갈 뿐이다.

- ① 바쟁은 (가)의 배우들의 과도하고 과장된 연기보다 (나)의 실제 노동자와 신문팔이의 삶을 사는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를 선호했겠군.
- ② 바쟁은 (가)의 영화가 의도적으로 초현실적이고 불안한 기운을 표현함으로써 관객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았겠군.
- ③ 바쟁은 (가)의 비현실적으로 왜곡된 세트를 의미를 강요하는 요소로 보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겠군.
- ④ 바쟁은 (나)에서 노동자의 발걸음을 따르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현실적인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지켜 준다고 보았겠군.
- ⑤ 바쟁은 (나)에서 현실과 다름없이 자연스러운 배우의 연기가 관객이 스스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았겠군.

■ 수능 Tip

1. 지문에서 영화에 대한 바쟁의 관점과 견해를 확인한다.
2. <보기>의 내용과 바쟁의 관점 및 견해를 적용시켜 본다.
3. 선지를 읽으며 내용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 [예술2]

■ 보링거의 추상과 감정 이입 - (수능특강 255~257쪽)

보링거는 감정 이입 충동과 추상 충동을 양측으로 삼아 미술사 전반을 조망하였다. 그는 인간의 근원적 심리 욕구로서 예술 의욕이 있다고 보았는데, 예술 의욕이 두 가지 심리적 충동인 감정 이입 충동과 추상 충동으로 나누어진다고 언급하였다. 감정 이입 충동이란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유기적인 아름다움에 만족을 발견하는 것으로, 인간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 행복한, 친화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 나타난다고 보았다. 한편, 추상 충동은 인간과 세계가 대립적일 때 형성되는 부조화의 감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예술 의욕이 감정 이입 충동에 의해 표현될 때는 자연주의 미술 양식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예로 그리스 로마 미술을 비롯한 고전주의 미술을 들었다. 반대로 추상 충동에 의해 표현될 때는 사실적 재현이 아닌 추상적인 미술 양식이 성립하는데, 이때 예술은 자연과 대립하게 되며, 이러한 추상 충동은 원시 민족이나 고대 동방 문화에 내재한 조형 원리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보링거는 추상 충동이 추상 미술의 발생 근거일 뿐 아니라 미술사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추상 충동은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구의 충동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 인간이 인간성의 원초적 상태인 외부와의 이원적 대립 상태가 야기하는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이며 정신적 활동이다. 추상 충동은 대상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인간의 잠재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상 충동에서는 자신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고유의 감정이 순수하게 선과 형태, 색채 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외계의 사물을 눈에 ‘보이는 대로’ 묘사하는 것에서 벗어난다.

예술사의 진행 과정을 길게 보면 추상 충동과 감정 이입 충동 사이의 끊임없는 대결의 현장을 엿볼 수 있는데, 보링거는 원초적인 상황을 자연과의 화해가 아니라 대립으로 보고 인류 최초의 미술을 추상으로 파악한다. 태초의 인간은 원시 추상의 상태인데, 이는 현대 추상 미술의 뿌리와의도 같다. 보링거는 진정한 예술의 시작을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가 아니라 순수 기하학적 형태를 지닌 신석기 시대의 추상 미술로 본다.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에 추상적인 단서가 전연 안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사실적인 묘사가 주종을 이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보링거는 추상 충동이라는 획기적인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대 추상 미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미술사 전체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추상 충동과 감정 이입 충동의 대립 관계로 파악한 보링거의 관점은 많은 시사점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복잡 다양한 미술사적 현실을 다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 미술에 있어 추상 미술의 기원을 원시 미술에서 찾아볼 때 보링거의 지적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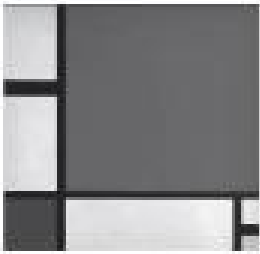
■ 핵심 정리

- 주제: 미술사를 추상 충동과 감정 이입 충동의 대립 관계로 파악한 보링거의 견해
- 구성
 - 1문단: 예술 의욕에 속하는 감정 이입 충동과 추상 충동
 - 2문단: 추상 충동의 특징
 - 3문단: 인류 최초의 미술을 추상으로 파악한 보링거의 견해

- 4문단: 미술사를 추상 충동과 감정 이입 충동의 대립으로 파악한 보링거의 견해의 한계와 의의
- 해제: 이 글은 미술사를 추상 충동과 감정 이입 충동의 대립 관계로 파악한 보링거의 관점을 소개하면서 추상 충동과 감정 이입 충동 각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양자는 모두 예술 의욕에 속하는데, 감정 이입 충동은 인간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 행복한, 친화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고, 추상 충동은 인간과 세계가 대립적일 때 형성되는 부조화의 감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보링거는 인간의 원초적인 상황을 자연과의 대립으로 보고 인류 최초의 미술을 추상으로 파악하였는데, 진정한 예술의 시작을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가 아니라 순수 기하학적 형태를 지닌 신석기 시대의 추상 미술로 보았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보링거’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	 왼쪽 작품은 몬드리안의 「컴포지션」이라는 추상 회화이다. 선과 다양한 네모를 기본으로 한 그의 작품은 직선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의 재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B]	 왼쪽 작품은 풍경 속에 있는 농부들의 모습을 주제로 한 작품을 여럿 남긴 밀레의 「만중」으로, 자연주의 미술 작품이다. 황혼녘에 한 남자와 여자가 삼중 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담은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이 작품에서 화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대지는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어 자연과 인간의 밀착된 관계를 드러낸다.

- ① [B]와 달리 [A]는 추상 충동에 의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B]와 달리 [A]는 인간 내면의 예술 의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A]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고유의 감정이 순수하게 선과 형태, 색채로 나타난 것이다.
- ④ [A]는 외계의 사물을 ‘보이는 대로’ 모사하는 것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A]와 달리 [B]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친화 관계를 맺게 될 때 나타나는 감정 이입 충동을 바탕으로 한다.

■ 수능 Tip

1. 지문을 읽으면서 먼저 ‘보링거’의 관점을 이해한다.
2. <보기>의 [A]와 [B]가 의미하는 바를 지문을 통해 확인한다.
3. 선지에 진술된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 [예술3]

■ 일상생활과 예술의 이분법 넘어서기 - (수능특강 258~260쪽)

(가) 일반적으로 근대 이전의 예술 이론은 예술가란 타고난 사람들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따라서 예술의 독자성은 일상적 현실을 넘어서 자신만의 관념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근대 화가들이 추구했던 그림의 구도 역시 관념적이다. 그들은 그림에서 임의로 현실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대칭을 만들거나, 그것조차 만족스럽지 않으면 모델이 되는 현실을 임의로 조작했다. 얼마나 좋은 예술 작품인가는 비현실적인 허구를 얼마나 잘 만들어 내는가에 달려 있었고, 예술은 평범한 인간이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감성의 산물이 아닌 특별한 재능의 산물이 되었다.

(나) 예술과 삶의 분리는 미술보다 음악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음악은 현실에 존재하는 무한한 음 가운데 그야말로 몇 개만을 사용한다. 사실 음악에서 사용되는 균질적이고 세련된 음은 일상적인 사물이나 청각 현상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에는 비일상적인, 세련되고 정확한 음을 낼 수 있는 정제된 악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음악은 일상적인 소리를 배제하고 음의 인위적인 배열 원칙을 따름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한다. 그런데 음악이 일상적인 소리와 대립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보하려 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일상적인 소리는 청각적인 현상일 뿐 우리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소리가 아니라며 배척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말하자면 일상 세계 혹은 삶의 탈감성화를 낳을 수 있다.

(다) 물론 음악과 일상적인 소리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도전도 없지 않았다. 루솔로는 소음 기계를 제작하여 그것을 악기로 만들었다. 루솔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소리나 기계의 소리를 듣기 싫은 소음이 아니라 음악적 표현의 대상이 되는 소리로 여겼다. 그리하여 그는 그런 소리들을 낼 수 있는 악기를 직접 고안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예술과 삶의 구분을 끊어 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삶과 유리된 예술의 자폐적 공간을 허물고 미적 경험의 영역을 일상적 삶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이다.

(라) 게르노트 뢰메는 예술의 이런 새로운 노력을 ‘확장된 미학’ 혹은 ‘확장된 예술 개념’이라고 정리한다. 확장된 미학은 예술이나 예술 작품이 일상적인 맥락에서 분리되어 특정한 영역이나 공간으로 간주되던 전통을 비난한다. 뢰메의 이론의 핵심은 예술적 경험이나 미적 경험과 일상적인 삶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뢰메는 대중 매체 시대 이전의 예술 작품이 지녔던 아우라(aura)* 개념이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예술을 특정한 공간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독립된 생산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나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의 경험에서도 일종의 ‘분위기’로써 미적 경험을 한다. 뢰메는 미적 경험이 우리가 환경과 접촉하면서 만들어지는 상황, 곧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마) 이런 측면에서 뢰메의 미학은 특정한 미적 대상이 있어야만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도전이다. 근대 이전의 예술 이론에 의하면 일상적이지 않은 특정한 미적 대상이 존재하며, 그것을 창조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자, 즉 천재가 예술가였다. 근대 미학을 대표하는 칸트의 미학은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 혹은 평가를 주제로 삼았는데, 뢰메에 따르면 미적 감성 혹은 경험은 대상에서 얻어지는 고유한 분위기를 느낌으로써 오는 것이다. 미에 대한 판단 혹은 평가를 주제로 삼은 근대 미학은 결국 일상적 감성을 배제했으며, 미술관에 전시된 예술 작품과 일상적 삶을 날카롭게 구분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뢰메는 예술이라는 한정된 영역에 국한된 ‘미학’을 일상적 지각에 기초한 ‘감성학’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였는데, 뢰메의

이러한 주장은 일상생활과 예술의 이분법적 구분을 청산하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우라(aura): 예술 작품에서, 흉내 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

■ 핵심 정리

- 주제: 예술적 경험과 일상적인 삶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뵈메의 미학적 관점
- 구성
 - (가): 예술이 특별한 재능의 산물이라고 본 근대 이전 예술 이론의 특징
 - (나): 음악 분야에서 나타난, 예술과 삶의 분리 양상
 - (다): 음악에서 예술과 삶을 구분하려는 현상에 대한 도전
 - (라): 예술과 삶의 구분을 타파하려는 노력에 대한 뵈메의 관점
 - (마): 전통적 미학에 도전하는 뵈메 미학의 특징
- 해제: 이 글은 예술과 삶이 분리되었던 과거의 예술에 대해, 예술이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감성의 산물이 아닌 특별한 재능의 산물이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예술과 삶의 구분을 끊어 내려 했던 루솔로의 예를 들어 예술의 새로운 노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예술계의 이러한 새로운 노력에 대해 ‘확장된 미학’ 혹은 ‘확장된 예술 개념’으로 정리했던 뵈메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으며, 뵈메의 이론의 핵심은 예술적(미적) 경험과 일상적인 삶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을 비판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뵈메는 미적 감성 혹은 경험은 대상을 평가, 판단하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서 얻어지는 고유한 분위기를 느낌으로써 오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점에서 미를 판단 활동으로 보면서 일상적 감성을 배제한 근대 미학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보기>에 대해 뵈메가 보일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프랑스 태생의 미국 작곡가 에드거 바레즈는 악기가 아니라 ‘사이렌’으로 음악을 표현하기도 했다. 바레즈가 노린 것은 기존의 악기가 분절된 몇 개의 음만을 표현하는 반면, 사이렌은 분절되지 않은 무한한 음을 낸다는 점이었다. 기존의 악기는 도와 도# 음만 내지만 사이렌은 도와 도# 사이의 무수히 많은 음들을 연속해서 낼 수 있다. 하지만 사이렌의 음은 정제된 음이라는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 ① 바레즈의 음악 활동은 삶의 ‘탈감성화’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바레즈의 노력에서 ‘확장된 미학’ 내지 ‘확장된 예술 개념’을 발견할 수 있군.
- ③ 바레즈의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일상적인 맥락에서 분리된 예술을 감상하는 것이군.
- ④ 바레즈의 음악은 음악과 일상적인 소리를 구분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바레즈의 음악을 감상하는 미적 경험은 우리가 환경과 접촉하면서 만들어지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군.

■ 수능 Tip

1. 지문을 통해 ‘뵈메’의 ‘확장된 미학’ 혹은 ‘확장된 예술 개념’에 대해 이해한다.
2. <보기>를 읽고 바레즈의 음악활동이 의미하는 바를 지문을 통해 확인한다.
3. 선지에 진술된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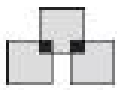
■ [예술4]

▪ 현대 건축의 전이 공간 - (수능특강 270~272쪽)

현대 건축에서는 건축을 기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제3의 공간을 만들어 내려는 움직임이다. ‘전이 공간’은 현대 건축의 이러한 움직임을 잘 보여 준다.

‘전이 공간’이란 이질적인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공간들을 연결하는 공간이라 규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이’란 변화, 이동 등의 뜻을 내포하는 개념이지만, 건축 분야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한정하면, 한 공간으로부터 다른 공간으로 옮겨 가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건축에서는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면서 생기는 공간을 자투리 공간이라 하여 쓰임 없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 건축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예술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며 ‘전이 공간’이라 칭하고 있다.

전이 공간은 서로 다른 기능과 성격을 가진 공간과 공간의 사이나 공간이 중첩되는 곳에서 주로 나타난다. 또한 면에 의해 둘러싸여 완결된 공간과 한쪽 이상이 개방되어 있어 미완결된 공간이 만나는 곳에서 전이 공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완결된 공간은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지만 폐쇄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반면 미완결의 공간은 개방적이어서 그 기능이나 역할이 다양할 수 있다. 완결된 공간과 미완결된 공간은 이질감이 확연하기 때문에 두 공간의 차이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전이 공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공간의 형태	
공간의 통합	
공간의 중첩	
공간의 상호 관입	

〈그림〉

전이 공간이 나타나는 공간의 형태는 <그림>과 같이 ‘공간의 통합’, ‘공간의 중첩’, ‘공간의 상호 관입’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간의 형태에 따라 전이 공간의 기능이나 특성이 달라진다. ‘공간의 통합’은 전체 공간에서 부분 공간으로 진입하도록 하는 구성이다. 이러한 공간의 형태는 전체 공간에 위치한 공간 체험자가 안쪽에 위치한 부분의 공간, 즉 전이 공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공간 변화에 따른 새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공간의 중첩’은 두 개 이상의 공간으로 구성되는 형태로, 공간이 맞물리며 중첩되는 영역에서 전이 공간이 발생한다. 이때 전이 공간은 큰 공간들이 중첩을 이루는 하위 공간으로서 두 공간의 성격과 기능을 모두 가진다. ‘공간의 상호 관입’은 두 개의 공간 사이에 새로운 공간이 관입하는 형태로, 여기서 관입된 새로운 공간이 전이 공간이다. 이때 전이 공간은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두 공간과는 다른 독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관입된 전이 공간만을 독립하여 체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현대 건축에서 전이 공간은 서로 다른 두 공간의 이질감을 줄이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시각적, 지각적으로 공간을 연결함으로써 공간의 예술성을 높인다. 이때 시각적, 지각적으로 공간을 연결한다는 것은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두 공간의 형태나 색채 등의 차이를 완화해 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공간 체험자가 단계적으로 공간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

고,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즐길 수 있게 하며, 공간 체험만으로도 심리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게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이 공간은 공간을 체험하는 사람이 공간 그 자체에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전이 공간이란 건축에 대한 현대 건축가들의 고민이 새로운 공간 양식으로서 구현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 핵심 정리

- 주제: 현대 건축에서 전이 공간의 개념과 형태, 기능
- 구성
 - 1문단: 건축을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로서의 전이 공간
 - 2문단: 전이 공간의 개념
 - 3문단: 서로 다른 기능과 성격을 가진 공간들에서 나타나는 전이 공간
 - 4문단: 공간의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전이 공간
 - 5문단: 전이 공간의 예술적 기능과 가치
- 해제: 이 글은 건축을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시도 가운데 하나인 전이 공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이 공간이란 이질적인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공간들을 연결하는 공간으로서, 서로 다른 기능과 성격을 가진 공간과 공간의 사이나 공간이 중첩되는 곳에서 주로 나타나고 공간의 형태에 따라 그 기능이나 특성이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공간의 형태에 따른 다양한 전이 공간에 대해 다루면서, 전이 공간이 공간의 예술성을 높임으로써 공간 체험자의 미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긍정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그림> 아카데미컬 메디컬 센터

네덜란드의 ‘아카데미컬 메디컬 센터’는 전체의 공간 안에 실내 광장을 마련하여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한 대표적 건축물이다. ‘아카데미컬 메디컬 센터’의 실내 광장은 사방 건물의 벽면이 공간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으며 천장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또한 광장을 노천카페로 꾸미고 바닥을 아스팔트로 깔고 나무를 심고 가로등을 설치하여 외부 공간 같은 느낌을 배가하였다.



- ① 천장을 개방한 ‘아카데미 메디컬 센터’의 실내 광장은 미완결된 공간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아카데미 메디컬 센터’는 공간의 형태로 보면 ‘공간의 통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아카데미 메디컬 센터’는 사방 건물의 벽면과 실내 광장을 연결하는 곳에서 전이 공간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아카데미 메디컬 센터’를 외부에서만 본 사람이 건물 내부의 실내 광장을 체험하게 되면, 공간 변화에 따른 심리적 전환을 할 수 있겠군.
- ⑤ ‘아카데미 메디컬 센터’의 실내 광장에 나무를 심고 가로등을 설치한 것은 전이 공간을 통해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즐길 수 있게 한 것이겠군.

■ 수능 Tip

1. 먼저 지문을 읽으면서 제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2. <보기> 에 제시된 ‘아카데미 메디컬 센터’ 의 공간의 특성을 파악한다.
3.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해석 또는 평가하고 있는 선지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예술5]

▪ 디지털 미디어 예술의 몰입과 상호 작용 - (수능특강 289~290쪽)

관객에게 이미지가 제시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프레임 밖에 있는 관객이 프레임 안에 담긴 이미지를 바라보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관객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서 이미지를 감상하는 방식이다. 후자의 경우 관객이 자신이 서 있는 장소를 잊고 영상 이미지의 가상 공간으로 스스로를 직접 몰입시켜 가상 현실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매체가 만들어 내는 이미지를 활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예술이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 예술은 가상 현실을 통한 몰입과 상호 작용이라는 특성을 통해 기존 전통 예술의 벽을 뛰어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예술에서는 가상 현실을 통해 관객이 현실에서와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관객의 몰입을 유도한다. 이러한 미디어 예술의 특성은 메를로퐁티의 감각론과 관련될 수 있다. 메를로퐁티는 ‘감각’이란 몸이 어떤 공간에 들어설 때 온몸을 휘감고 도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즉 서로 다른 종류의 감각들이 동시에 상호 소통하여 다양한 감각들이 통합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조형물의 질감은 실제로 만짐으로써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것에서도 느낄 수 있다. 사물을 보면서 촉각적인 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감각의 특성으로 인해 관객은 가상 현실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 예술의 등장에 따른 상호 작용적인 특성은 디지털 이미지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디지털 이미지는 아날로그 이미지와 달리 컴퓨터와 같은 매체 없이는 인식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이미지이지만 컴퓨터상에서는 0과 1이라는 보편성을 띤 정보 형태로 존재한다. 즉 디지털 이미지는 0과 1이라는 보편성을 띤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성으로 인해 수많은 디지털 미디어 예술 작품들은 완성되지 않은 채 전시장에 나타날 수 있었다. 작가는 관객이 몰입하여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작품은 관객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의 변형을 이루어 내면서 비로소 완성의 형태를 갖추어 가게 된다.

한편, 디지털 미디어 예술에서 관객이 작품에 몰입하여 작품과 상호 작용하며 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가상과 실재 사이의 극적인 운동 감각적 대응이 개입된다. 즉 인간의 신체가 가상의 공간에서 운동하면서 인지하는 감각으로 시각, 평형 감각, 촉각 등 일반적으로 공간 인지의 감각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운동 감각으로 인해 관객은 작품에 몰입하며 작품과 상호 작용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관객은 이미지를 통해 가상과 실재를 넘나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즉 가상 공간에 나타난 이미지를 실재처럼 인식하는 ‘가상의 실재화’와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이 가상 공간에 투영되어 이미지로 나타나는 ‘실재의 가상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 예술가들은 관객들을 가상 현실에 몰입하게 하고 상호 작용하게 함으로써 작품을 완성해 간다. 이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 예술에서는 전통적인 예술 작품에서 지켜져 오던 작가의 권위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작품 수용론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예술 작품에서와 같이 거리를 둔 미적 관조와는 달리 관객이 적극적으로 작품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작품과 관객의 거리가 좁혀지고 심지어는 사라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 핵심 정리

- 주제: 디지털 미디어 예술의 특성과 효과
- 구성
 - 1문단: 디지털 미디어 예술과 기존 예술의 차이
 - 2문단: 디지털 미디어 예술이 갖는 몰입의 특성
 - 3문단: 디지털 미디어 예술이 갖는 상호 작용의 특성
 - 4문단: 디지털 미디어 예술의 두 가지 특성이 관객에게 주는 효과
 - 5문단: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는 디지털 미디어 예술
- 해제: 이 글은 디지털 미디어 예술의 특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예술은 몰입과 상호 작용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디지털 미디어 예술은 관객으로 하여금 가상 현실을 경험하게 하여 몰입을 유도하고 관객이 작품과 상호작용하게 함으로써 작품을 완성한다. 그 결과 디지털 예술은 작품과 관객 간의 거리를 좁히게 된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텍스트 레인」은 로미 아키텍트와 카미유 우터백의 공동 작품이다. 작품 앞에 서게 되면 관람객은 자신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스크린에 영문 알파벳이 눈송이처럼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알파벳은 불규칙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늘에서 내려온다. 스크린에 비친 관람객의 모습에 닿자마자 알파벳은 톱톱 튀기거나 흘러내린다. 알파벳은 관람객의 어깨에 쌓이기도 하고 관람객이 손으로 오목한 그릇 모양을 만들면 그 안에 담기면서 관객들에게 눈송이처럼 가벼운 무게를 느끼게도 해 준다. 이렇게 해서 알파벳은 의미 있는 텍스트를 만들기도 한다. 작품에서 알파벳 구성의 순서와 위치는 관람객이 관람할 때마다 항상 자유롭게 바뀐다. 이로 인해 스크린에는 무한의 의미가 만들어진다. 결국 작품은 관람객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 ① 관람객들은 눈송이처럼 떨어지는 영문 알파벳을 보며 실재의 가상화를 경험하겠군.
- ② 관람객들은 눈송이의 무게를 느끼면서 가상과 실재 사이의 운동 감각을 느끼겠군.
- ③ 관람객들은 스크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서 있는 장소를 잊고 가상 현실을 경험하겠군.
- ④ 관람객들은 스크린에 나타난 몸에서 알파벳이 톱톱 튀 때 시각과 촉각이 통합적으로 활성화 되는 것을 느끼겠군.
- ⑤ 텍스트의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바뀌는 것은 작품이 관람객과의 상호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군.

■ 수능 Tip

1. 먼저 지문을 읽으면서 제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2. <보기>에 제시된 ‘텍스트 레인’에 나타난 디지털 미디어 예술의 특성을 파악한다.
3. 선지의 내용을 지문의 정보에 근거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 [예술6]

■ 영화의 편집과 인간의 시각계 - (수능완성 143~145쪽)

초기의 영화에는 편집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오직 하나의 샷*만 있었다. 에디슨이나 뤼미에르 형제가 만든 영화들은 대부분 1분 미만이었고, 단순히 현실을 기록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샷들을 연결하는 편집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표현의 한계가 극복되기 시작했고, 필름들을 잘라서 이어 붙이는 방법이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졌다.

편집의 잠재력에 일찍 눈을 뜬 영화 제작자는 마술사인 멜리에스였다. 멜리에스는 공상적인 내용을 실현한 여러 편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들 영화에서 편집 기법을 사용하여 사물이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특수 효과를 연출했다. 그의 편집 기법은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에 카메라를 잠깐 멈추고, 소품과 배우들의 위치를 바꾼 다음 촬영을 계속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관객들이 볼 때는 매우 신기한 것이었다. 러시아의 예이젠시테인과 쿨레쇼프는 편집에 의해 병치된 두 개의 이질적인 샷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몽타주 효과라고 명명했다. 예이젠시테인의 「전함 포툼킨」은 선원들의 반란을 그린 영화인데, 선원들이 악한 해군 장교를 바다에 빠뜨리는 샷 뒤에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장면을 보여 줌으로써 해군 장교를 구더기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

오늘날에도 많은 영화감독이 앞에서 이야기한 목적을 위해 편집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스토리 진행용으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약속 장소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장면이 있을 때 하나의 샷으로 구성하지는 않는다. 배경과 인물의 행동을 함께 보여 주기 위해 멀리서 잡은 샷, 인물의 표정을 보여 주는 클로즈업 샷 등을 이어 붙여서 단조롭지 않게 화면을 구성한다. 이때 샷들은 다른 시공간에서 찍은 것이라 하더라도 관객들은 연속된 것처럼 인식한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편집이 된 샷과 샷 사이에는 시각 변화가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잘 눈치를 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인간의 시각 활동 중에 편집이 숨어들 수 있는 순간으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눈을 감는 순간이다. 인간은 보통 1분에 15~30번씩 눈을 깜빡이는데, 한 번 깜빡일 때마다 약 0.1초 동안의 간극이 생긴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도약 안구 운동을 들 수 있다. 시각적인 자극이 있을 때 안구의 운동은 특정 응시점에 고정되었다가 다른 응시점으로 도약하듯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도약 안구 운동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도약 안구 운동은 초당 3~4회 정도 일어나는데, 도약 안구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편집된 부분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관객이 동시에 눈을 깜빡이거나 도약 안구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화에 삽입된 수많은 편집의 흔적을 숨기는 것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편집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인간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① 안구에 들어오는 시각 신호는 망막의 시각 세포에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어 시신경망을 통해 후두엽에 위치한 시각 피질로 간다. 시각 피질에서는 물체의 모양이나 위치, 운동 상태 등을 분석하여 정보를 다양한 뇌 영역으로 보낸다. 시각 피질에서 다른 뇌 영역으로 가는 경로는 두정엽과 연결된 배측 경로와 측두엽과 연결된 복측 경로로 구분할 수 있다. 배측 경로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주로 처리하며, 복측 경로는 사물의 색깔과 형태에 대한 정보를 주로 처리한다. 이 두 가지 경로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측두엽에서 처리된 청각 정보나 두정엽에서 처리된 체감각 정보등과도 통합되어 하나의 표상을 형성한다. 인간의 시각계는 입력된 빛을 있는 그대로 출력하는 디지털카메라와는 달리 뇌의 사고 활동

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운동계와 연결되어 반응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시각계의 특성을 바탕으로 영화의 편집을 설명하는 방법에는 ‘시각 의문’과 ‘시각 은폐’가 있다. 지각 심리학자인 혹 버그는 인간이 사물을 인지하는 과정에는 시각 의문을 형성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공이 구르는 것을 보았을 때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공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다른 사람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이러한 시각 의문은 예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시각계는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결과를 기대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시각 의문이 제기되는 순간 뒤에 답을 주는 순간을 연결하면 관객들은 편집된 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시각 은폐는 시각 변화를 탐지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다른 시각 요소나 감각 변화들을 동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 뇌가 자극을 인지할 때 입력된 많은 자극 중 의미 있는 고차적 메시지들을 분류하여 필요한 것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주의’와 관련이 있다. 즉 화면에 시선을 끌 수 있는 특이한 것이 있으면 시각계는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변화들은 사소한 것으로 처리하여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화감독들은 관객들이 편집을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정량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들은 경험을 통해 우리 시각계의 특성들을 이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편집 법칙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이용해 관객들에게 들키지 않고 능수능란하게 영화적 표현을 하고 있다.

* 솟: 한 번의 연속 촬영으로 찍은 장면을 이르는 말.

■ 핵심 정리

- 주제: 영화의 편집과 인간의 시각계가 편집된 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유
- 구성
 - 1문단: 영화의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한 편집
 - 2문단: 멜리에스와 에이젠시테인의 편집 기법
 - 3문단: 스토리 진행을 위한 솟의 구성
 - 4문단: 편집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가설 - 눈 깜빡임과 도약 안구 운동
 - 5문단: 시각계의 정보 처리 방식
 - 6문단: 편집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 - 시각 의문과 시각 은폐
 - 7문단: 영화감독들이 편집을 이용하는 방법
- 해제: 이 글은 영화 편집의 방법과 효과를 말하고, 편집된 부분의 시각 변화를 관객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영화의 편집은 특수 효과, 몽타주 효과뿐만 아니라 스토리 진행용으로 사용된다. 영화에서 편집된 부분에는 시각 변화가 수반되더라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 이유에 대한 가설로 눈 깜빡임과 도약 안구 운동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모든 관객이 동시에 눈을 깜빡이거나 도약 안구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설명하기 어렵다. 또 다른 가설로는 인간 시각계의 작용을 들 수 있다. 인간의 시각계는 뇌의 각 영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물을 인식할 때는 예측을 하는 시각 의문과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시각 은폐가 나타난다. 이를 이용하면 편집된 부분의 시각 변화를 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량적인 근거는 없지만 영화감독들은 경험을 통해 편집할 지점을 자연스럽게 잡고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영화를 볼 때 ㉠을 시각계가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운동계와 연결되어 반응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 ② ㉠은 측두엽에서 처리된 청각 정보와 통합되어 하나의 표상을 형성한다.
- ③ ㉠에 있는 사물의 색깔과 형태에 대한 정보는 주로 복측 경로를 통해 처리된다.
- ④ ㉠에 대해 시각계는 디지털카메라와는 달리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다.
- ⑤ 후두엽이 손상된 사람은 ㉠ 중에서 색깔에 대한 정보는 인식할 수 있지만, 공간에 대한 정보는 인식할 수 없다.

■ 수능 Tip

- 1. 지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인간 시각계의 작용 원리와 뇌의 각 영역의 특징을 이해한다.
- 2. 선지에 제시된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지문의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2. <보기>는 영화의 한 장면에 있는 숏들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



(나)



(다)



(라)



- ① (가)에서 관객들은 인물의 시선 방향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게 되겠군.
- ② (나)는 (가)에서 제기된 시각 의문에 대해 답을 주는 숏이라고 할 수 있군.
- ③ (나)처럼 가까이서 잡은 숏과 (다)처럼 멀리서 잡은 숏을 연결하여 단조롭지 않게 화면을 구성하고 있군.
- ④ (다)의 뒤에 스토리 진행과 관련 없는 (라)가 병치되어 두 개의 숏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고 있군.
- ⑤ (가) ~ (라)는 한 번에 찍은 화면이 아니더라도 관객들은 연속된 것처럼 인식을 하겠군.

■ 수능 Tip

1. 먼저 지문을 읽으면서 제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2. 지문의 내용을 통해 (가),(나),(다),(라) 장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다.
3. 선지에 진술된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 비슷한 제재 다른 지문 맛보기

몽타주는 영화에서 특정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모든 예술적 요소들을 배열, 결합하거나 불필요한 것을 삭제하는 등의 편집을 의미한다. 러시아 영화감독 중에 이런 몽타주의 힘을 발견하고 이론화시킨 첫 번째 사람은 쿨레쇼프이다. 그는 한 여인의 얼굴을 찍은 똑같은 장면(shot)을 3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장면에 잠자는 아이의 얼굴, 먹음직스러운 빵, 날카로운 칼을 찍은 장면을 각각 연결했다. 그 결과 관객들은 아기의 얼굴에 이어 놓은 여인의 얼굴에서는 자비를, 빵에 이어 놓은 여인에게서는 배고픔을, 그리고 칼에 이어 놓은 여인에게서는 공포를 보았다. 이를 통해 쿨레쇼프는 (㉠)이 몽타주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제자 ㉡에이젠시테인은 스승의 몽타주 이론을 계승하여 충돌 몽타주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존재의 본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 있으며, 이 변화는 변증법적인 것이라 여겼다. 정과 반의 갈등이 새로운 합을 낳고 다시 반과 합으로 이어지는 이 끊임없는 운동이 영화를 통해서도 포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서로 이질적인 장면들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생기는 이미지들의 충돌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야 한다는 충돌 몽타주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는 충돌 몽타주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한자의 구성 원리를 예로 들었다. 개를 의미하는 견(犬)과 입을 나타내는 구(口)가 결합해, 짖을 폐(吠)라는 새로운 뜻을 지닌 글자를 창조한다. 여기서 개와 입이라는 두 개의 상충되는 요소들이 결합해 우리의 일반적 사고방식과는 다른, ‘이미지 연상적 사고’에 의해서 ‘짖다’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에이젠시테인의 견해이다. 그는 이런 한자의 구성 원리가 영화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말하는 ‘충돌’은 장면과 장면 사이의 시각적 충돌과 한 장면 안에서 일어나는 시각적 충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그는 이러한 충돌을 ‘시각적 대위법’이라 부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정적인 선과 역동적인 선, 높은 수평면에 위치한 인물과 낮은 수평면에 위치한 인물, 클로즈업과 롱 샷, 밝은 장면과 어두운 장면 등은 모두 시각적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시각적 충돌은 인위적으로 동작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논리적 구성과 비논리적 구성으로 구분된다. 논리적 방식은 장면과 장면 사이에 시간적인 비약이 존재하지만 그 간극을 관객이 충분히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으로서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법이다. 그 예로 그는 영화 ‘전함 포-킨’의 오데사 계단 시퀀스를 들고 있다. 첫 장면은 코안경을 쓴 여자의 얼굴을 보여 주고, 그다음 장면은 코안경이 부서지고 눈에서 피가 흐르는 여자의 얼굴을 보여 줌으로써 그 생략된 중간 단계에서 여인이 총을 든 병사에게 눈을 맞았음을 즉각적으로 보여 주었다. 비논리적 인 구성의

예는 같은 영화의 대리석 사자상 시퀀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민 학살에 분노해 수병들이 압제자들을 향해 함포 사격을 하는 장면에 이어 잠자는 사자 조각, 깨어나는 사자 조각, 일어나는 사자 조각을 연속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는 실제로는 움직임이 없는 세 개의 사자 조각을 마치 잠자던 사자가 분노해 일어서는 것처럼 연출함으로써 압제자들에 대한 분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 몽타주 이론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편집 기법에 대한 이론이었으나 이후에는 아트 시네마와 아방가르드 영화들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고 주류 영화에서도 스펙터클이나 서스펜스를 증대하기 위한 편집의 기술로 자주 활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TV 광고 등에서도 매우 폭넓게 쓰이고 있다.

3. 문맥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 그 자체가 가진 내재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
- ② 장면과 장면의 유사성을 통해 중심적 의미를 강화하는 것
- ③ 장면과 장면의 차이점을 통해 대비적 효과를 부각하는 것
- ④ 장면과 장면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
- ⑤ 장면과 장면의 부조화를 통해 충격적인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

4. 윗글을 통해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에이젠시테인은 그의 영화 ‘10월’에서 ‘멘세비키가 달콤한 연설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멘세비키가 연설하는 장면 다음에 하프가 연주되는 장면을 병치했다.

- ① 에이젠시테인은 두 장면을 병치함으로써 각각의 의미를 넘어서는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려 했군.
- ② 시간적 비약이 있는 두 장면을 병치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그 간극을 상상할 수 있도록 했군.
- ③ 에이젠시테인은 관객이 하프 연주를 사실적 차원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기를 기대했겠군.
- ④ 관객에게도 감독이 의도한 이미지 연상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야 몽타주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겠군.
- ⑤ 멘세비키가 연설을 하는 장면과 하프가 연주되는 장면은 일상적인 관점에서는 서로 무관해 보이는 장면이라 볼 수 있겠군.

5. 윗글의 ㉠와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푸도프킨은 연결 몽타주를 중시했다. 그는 의미적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는 편집은 관객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상을 잘 보여 주는 필수적인 이미지만을 선택한 다음, 잘 연결된 편집을 통해 현상을 보다 선명하고 인상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장면과 장면 사이의 시·공간적인 비약이 있다 해도 관객들에게 연속적인 액션으로 지각될 수 있을 정도로 의미상 연결되어 있다면 연결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연결 몽타주를 통해 그는 영화가 어지러운 현실을 단순히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특징적인 단편들로 압축한 다음 의미 있게 재결합함으로써 실제의 현상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 ① ㉡의 관점에서는 ㉠의 시각적 대위법이 지나치면 관객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는 장면과 장면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는 장면과 장면의 부자연스러운 병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군.
- ③ ㉠는 ㉡와 달리 한 장면 안에서도 이미지들의 충돌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 내는 몽타주의 영화적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았겠군.
- ④ ㉠는 ㉡와 달리 서로 이질적인 장면과 장면을 나란히 배열하는 몽타주를 통해서도 변증법적으로 변화하는 존재의 본질을 포착할 수 있다고 보았겠군.
- ⑤ ㉡는 ㉠와 달리 장면과 장면 사이의 시·공간적인 비약이 있다 해도 관객들이 두 장면의 연결 고리를 추론할 수 있다면 이를 몽타주로 여겼겠군.

■ [예술7]

■ 사진에서의 시간성 - (수능완성 143~145쪽)

시간은 사진의 내용이자 형식이다. 사진의 대상으로서의 사물이란 언제나 지금 현재로서의 사물의 형태이다. 셔터가 눌러지기까지 사물은 현실 속에서 움직임을 계속하다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일체의 움직임을 필름에 정착된다. 사진이 사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사물로 위장한 시간의 모습을 대상으로 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진의 시간성은 현대에 이르러서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20세기 중반, 근대 사진의 시기에는 사진의 시간성보다는 공간성이 강조되어 대상의 묘사에 치중하였다.

근대 사진이라고 해서 시간성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소위 ‘기록성’이라고 하는 근대 사진의 덕목은 시간성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전쟁 기록이라든가 아동 노동의 실태라든가 하는 등등의 사진은 결국 지금의 시간을 내일로 넘겨 평가하게 하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다. 현실에 대한 기록은 현재의 시간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근대 사진도 시간성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간성은 사진의 대상 자체가 가진 시간의 문제이지 사진가의 관찰 방법으로서의 시간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즉 현실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생긴 부수적 결과로서의 시간인 것이지 사진의 시간성 자체를 탐구하고 고민한 끝에 얻어진 결과가 아닌 것이다.

현대 사진은 사진의 시간성을 단순히 현실 기록의 수단으로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사진가 자신의 표현 도구로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진의 시간성을 의식한 사진가들은 대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결정적 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진가의 주관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근대 사진가들은 어떤 사건의 전모가 파악될 수 있다고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여겼다. 이것이 대상 혹은 사건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진가들은 결정적 순간이란 사진가가 생각하는 가장 알맞은 순간일 뿐이므로 사진이 반드시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야 한다거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건이나 대상을 가장 잘 찍을 수 있는 셔터 찬스는 사진가의 주관에 달린 문제가 되었다.

셔터 속도를 두고서도 현대 사진은 근대 사진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근대 사진의 셔터 속도는 대부분 1/25초 전후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하게 셔터 속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은 이미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었지만, 근대 사진은 대상을 드러내기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서의 셔터 속도에만 관심을 가졌다. 이보다 빠르거나 느린 속도를 별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1/25초가 일상적인 현실을 묘사하기 위한 가장 알맞은 셔터 속도였기 때문이다. 현대 사진가들은 여기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 형성에 필요한 셔터 속도를 각자 설정하였다. 그들은 ㉠ 통제 불가능한 객관적 실재로서의 시간을 자신의 통제가 가능한 시간으로 바꾸어 표현하기 위해 셔터 속도를 즐겨 사용했다. 현대 사진의 문을 연 윌리엄 클라인의 「뉴욕」에서 볼 수 있는 떨린 이미지의 사진들은 이러한 셔터 속도의 첫 보기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사진에서도 떨린 사진들이 있었지만 이들 사진은 그 떨림을 의식하고 이를 독자적 이미지로 승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기보다는 의식하지 못한 우연이거나 정지 화면에 움직임을 주기 위한 정도였다.

셔터 속도로 표현되는 사진에 작용하는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수백만분의 1초라는 짧은 순간까지도 포착할 수 있는 빠른 셔터 속도이고, 다른 하나는 장시간 노출을 통한 느린 셔터 속도이다. 후자는 일종의 시간 적립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사물의 변형 또는 왜곡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 사진에서 사진의 창조성이 강조되

고 있는 까닭은 셔터 속도의 시간 적립 기능을 활용한 사진이 사진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훌륭한 예술 수단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진은 이제 현실의 기록으로서의 사진 영역에서 벗어나 표현 예술로서의 사진 영역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 핵심 정리

- 주제: 사진의 시간성으로 살펴본 근대 사진과 현대 사진의 차이
- 구성
 - 1문단: 사진에서의 시간성의 의미
 - 2문단: 근대 사진에서의 시간성
 - 3문단: 현대 사진에서의 시간성
 - 4문단: 근대 사진과 현대 사진의 셔터 속도
 - 5문단: 현대 사진에서 사진의 창조성이 강조되는 까닭
- 해제: 이 글은 근대 사진과 현대 사진이 사진의 시간성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근대 사진의 시기에는 사진의 공간성이 상대적으로 더 주목받았지만 현대 사진은 사진의 시간성이 더 주목받고 있다. 근대 사진도 시간성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근대 사진의 시간성은 사진의 대상 자체가 가진 시간의 문제였으므로 관찰 방법으로서의 시간은 현대 사진에서 본격적으로 탐구되었다는 것이다. 현대 사진은 사진가의 주관에 따라 대상이나 사건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순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근대 사진보다 셔터 속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사진의 떨림도 사진가의 내면 표현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현대 사진은 표현 예술로서의 성격을 띠 수 있게 되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위 사진은 사진가 로버트 카파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1944년)을 취재하는 도중 찍은 것이다. 당대의 유명 잡지였던 라이프는 이것을 표지 사진으로 실으면서 ‘카파의 손도 흔들렸다.’라는 설명을 달았다. 당시 라이프는 흔들리거나 초점이 맞지 않은 사진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① 사진이 사진가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흔들린 사진을 통해 전쟁의 불안감, 공포감을 드러내려 했다고도 볼 수 있겠군.
- ② 카파가 만약 사진의 흔들림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이 아니라면 사진의 흔들림은 현실을 담는 과정에서 생긴 부수적 결과로 얻어진 것이겠군.
- ③ 기록으로서의 사진을 중시하는 사람이 찍었다면 긴박한 전쟁터의 모습을 흔들림 없이 담기 위해 매우 짧은 순간도 찍을 수 있는 셔터 속도를 사용했겠군.
- ④ 결정적 순간은 사진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 생각에 충실한 사진가일수록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전모를 반드시 드러내도록 촬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겠군.
- ⑤ 라이프 잡지가 사진에 ‘카파의 손도 흔들렸다.’라는 설명을 덧붙인 것은 대상의 명확한 묘사야말로 사진의 역할이라는 당대의 관행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수능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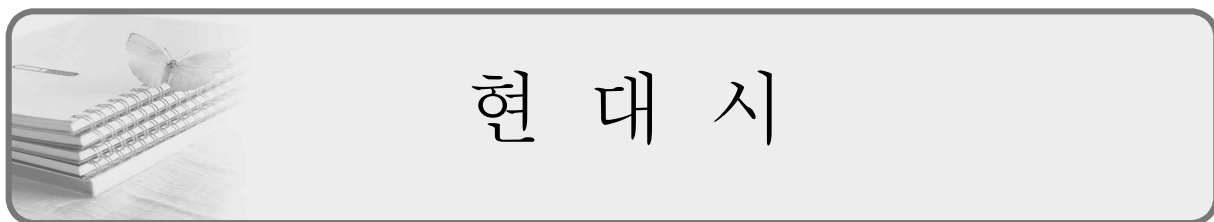
1. 먼저 지문을 읽으면서 제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2.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카파’의 사진의 특성을 파악한다.
3. 선지에 제시된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지문의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2. ㉠이 내포하는 의미를 가장 잘 파악한 것은?

- ① 사진은 시간의 예술이면서 기록의 예술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존재이다.
- ② 사진은 기록을 위한 매체라기보다는 예술로서의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가진 매체이다.
- ③ 사진은 시간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나 시간을 표현하는 기술은 작가가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④ 사진은 시간을 정지시켜 놓은 것이지만 그것을 발표하는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간차가 생기게 마련이다.
- ⑤ 사진은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시간을 넘어서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시간 바깥에서 창조성을 얻을 수 있다.

■ 수능 Tip

1. 4문단에서 현대 사진은 셔터 속도가 이미지 형성에 기여함을 확인한다.
2. 확인된 내용에 근거하여 선지에 제시된 ㉠의 의미를 판단한다.



1 EBS 교재에 수록된 현대시 한눈에 보기

교재	작품	쪽
수능특강	김춘수, '꽃' / 오규원, 「꽃」의 패러디	15~16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52~54
	김기림, '바다와 나비'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초설'	55~57
	조지훈, '승무' / 고재중, '수선화, 그 환한 자리'	58~60
	이육사, '절정' / 천양희, '마음의 수수밭'	61~62
	박두진, '해' / 정현중,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63~64
	박재삼, '한(恨)' / 한용운, '님의 침묵'	65~66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67~69
	김수영, '풀' / 구상, '초토의 시 1'	70~71
	신석정, '대바람 소리' / 이준관, '가을 떡갈나무 숲'	72~74
	윤동주, '참회록' /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75~77
	백석, '선우사(膳友辭) - 함주시초(咸州詩抄) 4' / 이성부, '벼'	78~80
	정지용, '향수(鄉愁)' / 조태일, '국토 서시'	81~83
	김춘수, '강우(降雨)' / 박남준, '흰 부추꽃으로'	84~86
	문태준, '평상이 있는 국숫집' / 박목월, '적막한 식욕'	87~89
	김용택, '들국' / 박용철, '떠나가는 배'	90~92
	정일근,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 / 김현승, '아버지의 마음'	93~95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문정희, '곡비'	280~282
	신동엽, '산에 언덕에' / 송수권, '여승'	297~299
수능완성 (유형편)	유안진, '춘천은 가을도 봄이지'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8~14
수능완성 (실전편)	이상, '거울' / 권혁웅, '파문'	152~153
	백석, '여우난 굶족(族)' / 황지우, '거룩한 식사'	178~180
	김광규, '묘비명' / 최승호, '북어'	207~208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234~235
	김현승, '플라타너스' / 이형기, '폭포'	258~259

2

모의평가 기출 현대시 살펴보기

<6월 모의평가>

[26~29] 복합 지문	(가) 자연적 시간과 문학적 시간		문학 이론
	(나) 조지훈, '고풍 의상'		비연계
	(다)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수능특강 52~54쪽	작품 그대로 가져옴

3

EBS 교재와의 연계성 파악하기

6월 모의평가에서는 '자연적 시간과 문학적 시간'이라는 문학 이론 글과 현대시 두 편(조지훈의 '고풍 의상'과 이수익의 '결빙의 아버지')을 엮은 복합 지문이 출제되었다. 이는 문학 작품과 문학 이론을 한데 묶어 출제하는 2017학년도 수능의 방식을 유지한 것이다. 현대시 작품 중 이수익의 '결빙(結氷)의 아버지'는 EBS 수능특강 교재에서 연계 출제된 작품이어서 이에 문학 이론을 적용하여 표현상 특징을 파악하는 27번 문항이나 내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는 29번 문항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지훈의 '고풍 의상'은 EBS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작품인 데다가 어렵고 생소한 시어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작품을 이해하기에 다소 까다로운 것이었다. 때문에 이 작품에 문학 이론을 적용하여 표현상 특징을 파악하거나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26번과 28번 문항에서 정답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학 영역은 6월 모의평가에서 나타난 경향처럼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작품들이 실제 수능에서 연계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계 교재에 실린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문학 영역의 기초 원리들을 중심으로 작품의 특징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능에 출제되는 문학 작품들은 해당 작품이 수능에 출제될 만한 가치를 지니게 하는 특징을 확인하는 문항이 반드시 출제되므로, EBS 교재에 제시된 부분 외에도 전체 특징을 정답 해설지의 해제 부분 등에서 확인하고 정리해 두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기 힘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연습을 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력을 키워갈 필요가 있다.

4

EBS 교재에 실린 현대시 살펴보기

■ 수능특강 수록 작품 정리

- 수선화, 그 환한 자리(고재중) - (수능특강 58쪽)

거기 트랙 전체가 문득
네 서늘한 긴장 위에 놓인다

아직 맵찬 바람이 하르르 멎고
거기 시간이 잠깐 정지한다

저토록 파리한 줄기 사이로
저토록 환한 꽃을 밀어 올리다니!

거기 문득 내가 오롯함으로
세상 하나가 엄정해지는 시간

네 서늘한 기운을 느낀 죄로
나는 조금만 더 높아야겠다

■ 핵심 정리

- 주제 : 수선화의 개화를 보고 느낀 경이로움
- 구성
 - 1~2연 : 개화에 대한 긴장과 몰입
 - 3연 : 수선화가 피어나는 순간의 모습
 - 4연 : 수선화의 오롯한 개화로 인해 엄정해지는 세상
 - 5연 : 수선화의 개화를 통한 정신적 고양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수선화’가 피어나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화자는 수선화가 피어나는 순간, 트랙 전체가 수선화의 긴장 속에 놓이고, 맵찬 바람이 멎으며 시간까지 정지한다고 말하고 있다. 얇고 가느다란 줄기를 가졌지만 온 힘을 다해 꽃을 밀어 올리는 수선화를 보며 화자는 단순한 자연 현상을 관찰함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전체에 변화가 일어남을 느낀다. 화자는 이러한 수선화의 개화를 보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된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자신을 다지고, 더 높은 인격을 위해 스스로를 고양하겠다는 내면의 다짐이다.

■ 수능 Tip

- 화자가 자연물에서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과 그 효과를 파악한다.
 - 정적인 순간을 묘사하여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형성한다.
 - 수선화의 개화에 대한 경이로움을 ‘나는 조금만 더 높아야겠다’는 정신적 고양에의 다짐으로 표현한다.
- ‘파리한 줄기’와 ‘환한 꽃’의 대비로 개화의 경이로움을 심화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시는 간결하면서도 견고한 구조를 통해 시적 상황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각 연은 모두 2행으로 되어 있으며 각 행의 길이도 거의 같다. 또한 효과적인 수식어의 사용과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간결하면서도 견고한 구조적 특징은 더욱 강화된다.

- ① ‘거기’의 반복은 개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대한 집중과 몰입을 부각하는군.
- ② 1연의 ‘문득’은 개화 순간의 긴장감을, 4연의 ‘문득’은 개화를 통해 확인한 세상의 엄정함을 강조하는군.
- ③ ‘저토록’의 반복은 개화를 바라보며 느낀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하는군.
- ④ ‘파리한’과 ‘환한’의 대비를 통해 개화의 경이로움을 심화하는군.
- ⑤ ‘조금만 더’는 개화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를 고양해야겠다는 화자의 다짐을 부각하는군.

■ 같은 소재를 다룬 시 엮어 읽기 - 수선화에게(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검은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퍼진다

- 주제 : 삶의 본질인 외로움
- ‘수선화’의 의미 : 화자가 말을 건네는 청자이자, 외로움을 느끼며 가슴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 표현상 특징 : 직설적·단정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감정이입의 수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수능특강 수록 작품 정리

■ 떨어져도 튼는 공처럼(정현중) - (수능특강 63쪽)

그래 살아 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튼는 공이 되어

살아 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 되어 있는 꼴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꼴
지금의 네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 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 핵심 정리

- 주제 : 공의 속성을 지닌 삶에 대한 소망과 다짐 / 씩씩하고 활기찬 삶에 대한 지향
- 구성
 - 1연 : 공이 되어 살아 보자는 다짐
 - 2연 : 쓰러지지 않는 공
 - 3연 : 가볍게 떠오를 수 있는 공
 - 4연 : 최선의 꼴인 공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떨어져도 다시 튀어 오르는 공처럼 우리도 살아야 함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가 닮고 싶어 하는 ‘공’은 최선의 꼴을 갖춘 가볍고 탄력적인 대상이다. 이 시에서는 동일한 구절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주기적으로 튀어 오르는 공을 연상하게 하여 운율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주제 의식을 강조하기도 한다.

■ 수능 Tip

- 대립적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한다.
 - 떨어지다, 쓰러지다 : 하강의 이미지. 어려움, 고통, 좌절, 포기 등
 - 떠오르다, 튀다 : 상승의 이미지. 극복, 의지, 노력 등



- 공의 속성에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발견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 공의 속성 : 떨어져도 튼다. 쓰러지는 법이 없이 둥글다
 - 바람직한 삶의 자세 :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삶
- 동일한 시구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 작품은 ‘공’을 통해 인간의 이상적인 삶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공은 중력에 의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중력을 거스르고 다시 튀어 오르는데, 이것은 ‘공’의 여러 속성 때문에 가능하다. 작품에서는 이를 공의 형상, 가벼움, 탄력성, 공이 갖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다. 화자는 인간 역시 육체적 한계가 있으나 이를 극복하려는 정신적 의지가 결합된 존재로 보고, ‘공’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① ‘떨어져도 튼 공’에는 하강 이미지와 상승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살아 봐야지’는 공에서 인간의 삶의 자세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탄력의 나라의 / 왕자’는 다시 튀어 오를 수 있게 하는 공의 속성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최선의 꼴’은 공의 형상이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이상적인 형태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지금의 네 모습처럼’은 공이 떨어지듯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결여된 인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군.

■ 같은 작가의 다른 시 엮어 읽기 -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정현종)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병어리처럼 /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아 /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 꽃봉오리인 것을!

- 여러분의 매 순간도 꽃봉오리입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머지않아 저마다의 꽃을 활짝 피우길 바랍니다.

■ 수능특강 수록 작품 정리

■ 한(恨)(박재삼) - (수능특강 65쪽)

감나무쫄 되랴,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 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
[A]
└

이것이 제대로 벌을 데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것도 내 사랑하던 사람의 등 뒤로 벌어 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 본데,

┌
[B]
└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느끼운 열매가 될는지 몰라!

┌
[C]
└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전생(前生)의 내 전(全) 설움이요 전(全) 소망인 것을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
[D]
└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
[E]
└

■ 핵심 정리

• 주제 :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로 인한 한

• 구성

1연 : ‘그 사람’을 향한 화자의 사랑을 나타내는 감나무

2연 : ‘그 사람’이 있는 저승으로 사랑을 전하고 싶은 화자

3연 : ‘그 사람’이 자신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화자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가 사랑하는 상대가 있는 곳은 저승이기 때문에 이 시는 제목처럼 ‘한’을 노래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우리 문학의 전통적인 주제와 상통한다. 그러나 이 시는 임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체념이나 절망의 정서로 이어가지 않고, 감나무를 매개체로 삼아 저승으로 자신의 사랑을 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랑의 교감으로 화자는 저승에 있는 ‘그 사람’이 열매를 보며 자신의 설움과 소망을 알아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화자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고, ‘그 사람’의 삶과 사랑도 자신과 같았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이처럼 화자는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서러움 속에서 살았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서러움을 지닌 대상을 자신에서 ‘그 사람’으로 확대하며 한을 매개로 서로를 연결하고 있다.

■ 수능 Tip

- ‘~르는지 몰라’의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음을 파악한다.
- 임을 사랑하는 화자의 마음을 ‘감나무’에 비유하여 형상화하였음을 이해한다.
 - 감 :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그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는 서러움이 응축된 소재

■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 - 2010년 10월

3. 시인이 윗글을 창작하면서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열매’에서 연상된 빛깔에 화자의 정서를 담아내야지.
- ② [B]에는 나뭇가지가 ‘번어가’는 형상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표현해야지.
- ③ [C]에는 ‘그러나’를 통해 소망의 성취를 확신하지 못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야지.
- ④ [D]에는 ‘새로 말하면’을 통해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화자의 심경이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야지.
- ⑤ [E]에는 ‘그 사람도’를 통해 ‘그 사람’과 공감의 이워지기를 기대하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해야지.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

이 시에서 화자의 서러움은 삶과 죽음 사이의 절대적 거리에 기인한다. 화자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직접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화자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소망을 품고, ‘그 사람’의 삶과 사랑을 헤아리며 ‘그 사람’과 교감하고자 한다. 이는 ‘그 사람’의 삶과 사랑이 자신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화자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시의 ‘모름’은 단순한 ‘무지’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① 화자가 속해 있는 ‘이 세상’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저승’ 사이의 절대적 거리로 인해 ‘설움’의 정서가 표출되고 있다.
- ② ‘그 사람’의 ‘등 뒤로 번어 가’는 ‘나무’는 삶과 죽음 사이의 절대적 거리를 극복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는 대상이다.
- ③ ‘느껴온 열매가 될는지 몰라!’에는 자신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직접 전할 수 없는 ‘설움’과 전하고 싶은 ‘소망’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 ④ 화자는 자신의 ‘설움’과 ‘소망’을 ‘그 사람’이 알아낼지, ‘그 사람’도 자신처럼 ‘설움’으로 살았을지 헤아리며 ‘그 사람’과 교감하려 하고 있다.
- ⑤ ‘서러운 노을빛’인 ‘열매’가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 느껴온 열매’가 되는 순간에 화자는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를 극복하여 ‘그 사람’과 만나고 있다.

■ 수능특강 수록 작품 정리

• 성북동 비둘기(김광섭) - (수능특강 67쪽)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짝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 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 핵심 정리

- 주제 : 산업화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 / 도시화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인간성 상실에 대한 비판
- 구성
 - 1연 : 자연 파괴로 삶의 보금자리를 잃게 된 비둘기
 - 2연 : 보금자리를 잃기 전의 옛날을 그리워하는 비둘기
 - 3연 :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쫓기는 새가 된 비둘기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파괴되는 자연과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성북동 비둘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시에서 ‘번지’는 인간의 문명이자 산업화를 나타내는데, 이는 원래부터 성북동에 살고 있는 비둘기의 보금자리를 빼앗고 들어선 것이다. 이때 성북동 비둘기가 자연을 상징한다면 이 시는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파괴되는 자연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북동 비둘기를 도시 재개발로 인해 쫓겨난 원주민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시는 도시화 과정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들과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는 현대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수능 Tip

- 상징적인 자연물을 통해 주제를 우의적으로 형상화하는 특징을 파악한다.
 - ‘성북동 비둘기’의 상징성 : 자연을 대표하는 사물. 인간에 의해 파괴되는 자연.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자꾸 밀려나기만 하는 도시 변두리의 사람들.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순수한 자연성을 잃어가는 인간의 모습
 -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겹게 살아가는 ‘비둘기’를 통해 현대 문명의 파괴적인 속성과 비정함을 비판적으로 환기함. 인간 소외 현상을 성찰하고 비판하는 주제 의식을 담아내고 있는 것
- 화자의 태도를 파악한다.
 - 현대 산업 문명의 폐해를 인식하고 성찰한다는 점에서 냉철하고 비판적인 관찰자의 모습
 - 삶의 터전을 잃은 ‘비둘기’에 대해서는 그 처지에 공감하면서 따뜻한 동정과 연민의 시선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인문 지리학에서는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구분한다. 공간이 주체와 단절된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탐구의 대상이라면 장소는 주체가 삶의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의식하는 곳이다. 주체는 진정성을 가지고 장소와 그 장소에 거주하는 개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장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성을 느끼는 장소는 구성원들에게 ‘진정한 장소’가 된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문제는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개발을 통해 주체로 하여금 진정한 장소의 상실을 경험하게 한다는 데 있다.

- ① ‘번지가 새로 생기’기 전의 ‘성북동 산’은 비둘기에게 공간이 아닌 ‘진정한 장소’에 해당하겠군.
- ② ‘돌 깨는 산울림’, ‘채석장 포성’은 비둘기의 ‘진정한 장소’를 파괴하는 폭력적인 개발을 나타내겠군.
- ③ ‘성북동 하늘’, ‘지붕’은 ‘진정한 장소’를 상실한 비둘기가 과거를 그리워하며 배회하는 곳이라 볼 수 있겠군.
- ④ ‘돌 온기에 입을 닦는’ 비둘기의 행위는 공간을 ‘진정한 장소’로 받아들이기 위한 비둘기의 노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는 ‘진정한 장소’의 상실을 경험하기 전 그곳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성을 느끼던 비둘기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패러디 시 읽어 읽기 - 김광섭 시인에게(김유선)

60년대 초 당신이 살던 성북동에서는
비둘기들이 채석장으로 쫓겨 돌부리를 쪼았다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성북동에 비둘기는 없는 걸요 / 채석장도 없어요
요즈음은 비둘기를 보려면
도심으로 들어와 시청 광장쯤에서 팝콘을 뿌리지요
순식간에 몰려드는 비둘기 떼
겁 없이 손등까지 올라와 / 만져도 도망가지 않고
소리쳐도 그냥 얌전히 팝콘을 먹지만
나머지 부스러기 하나마저 먹으면
올 때처럼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는
비둘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에는
눈으로 손으로 애원해도 / 다시 오지 않아요.

패러디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작품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구성하는 기법 혹은 그런 작품을 가리킨다. (중략) 패러디는 왜 하는 것일까? 문학 작품은 기본적으로 독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읽히고 다시 해석된다. 특히 독자가 문학 작품의 주제에 동의할 수 없거나 다른 관점을 지닐 때 독자는 자신만의 시각에서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을 다시 쓰고자 한다. 패러디는 창조적 재구성이지만 그 기본 태도는 비판 정신이다.

한편 패러디는 원작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생각과 경험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창작 방법이기도 하다. 원작이 문학사적으로 가치 있고 잘 알려진 작품일수록 패러디는 창작의 가치를 인정받고 독자의 주목을 받기 쉽다.

패러디는 원작과의 관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영향, 모방, 심지어 표절과도 유사한 점이 있지만 이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 한편으로 패러디는 ㉠ 원작과의 공통점을 의도적으로 부각한다. 작가는 원작의 제목, 소재, 시어, 문장, 통사 구조 등을 활용하여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다. 이는 독자가 원작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해당 작품을 패러디로 읽게 하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패러디는 ㉡ 원작과의 차이도 강조한다. 작가는 비판적 의식을 바탕으로 원작의 내용과 형식을 재구성한다. 이로 인해 원작과 패러디 사이에 차이가 두드러지며 이러한 차이는 패러디 작품의 예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 수능특강 15쪽

- 작품의 제목을 통해 ‘성북동 비둘기’를 패러디했다는 점과, 김광섭 시인과의 대화 형식으로 시를 전개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을 이해한다.
- 두 편의 시를 읽어 읽으며 윗글의 ㉠, ㉡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악한다.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시인에게’
비둘기가 처한 상황	인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음	도심에서 인간이 주는 팝콘을 먹음
비둘기의 의미	파괴된 자연, 소외된 존재	문명에 길들여져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



■ 수능특강 수록 작품 정리

■ 참회록(윤동주) - (수능특강 75쪽)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 핵심 정리

- 주제 : 자아 성찰을 통한 참회와 희생의 의지
- 구성
 - 1~2연 :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이에 대한 참회
 - 3연 :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새로운 참회의 필요성
 - 4~5연 : 치열한 자아 성찰을 통해 확인하는, 희생과 비극적 운명을 감내하겠다는 의지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암울한 시대 상황에 처한 시인의 자세가 잘 드러난 시로 평가받는다. 과거 자신의 삶을 욕된 것으로 인식하고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와 같은 탄식으로 참회를 갈음하던 화자는 언제이든 반드시 찾아올 ‘그 어느 즐거운 날’을 전망하면서 그때 자신이 ‘부끄러운 고백’, 즉 현재의 참회를 다시 참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화자는 ‘밤이면 밤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는 행위, 즉 치열하고 처절한 자아 성찰이 요구됨을 인식한다. 이러한 자아 성찰의 결과 자신이 ‘홀로’, ‘슬픈’ 희생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깨닫고도 이를 감내하겠다는 화자의 태도에서 숙연함을 느낄 수 있다.

■ 수능 Tip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을 이해한다.
 -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 반성하는 화자의 모습
- 대립적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 ‘밤(식민지 현실)’과 ‘즐거운 날(광복의 날)’을 대립적으로 제시하여 식민지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조국 광복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는 화자의 태도
- ‘구리 거울’이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역사의식을 표출하고 있으며, ‘거울’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참회 의식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6. <보기>를 읽고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시에서는 화자가 ‘거울’을 보고 ‘참회’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현재’가 ‘과거’ 혹은 ‘미래’의 시간과 교차되면서 다양한 의미가 생성되고 있다.

- ① 화자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데,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을 ‘왕조의 유물’로 표현한 것은 이러한 성찰이 역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군.
- ② 화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이다지도 욱’된 것으로 인식하고,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부끄러움을 현재의 참회를 통해 간명하게 드러내고 있군.
- ③ 화자가 다시 쓰게 될 ‘한 줄의 참회록’은 현실에 안주하며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해 왔던 자신에 대한 반성을 표현한 것이군.
- ④ 화자가 기대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나의 거울을 /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는 것과 같은 치열한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전제되어야 하겠군.
- ⑤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걷어가는 /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란 ‘그 어느 즐거운 날’의 실현을 위해 고난의 길을 택하게 될 화자의 모습을 구체화한 것이겠군.



■ 수능특강 수록 작품 정리

- 선우사(跣友辭) - 함주시초(咸州詩抄) 4(백석) - (수능특강 78쪽)

낮은 나조반에 흰밥도 가재미도 나도 나와 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우리들은 서로 미덥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우리들은 맑은 물밑 헤정한 모래톱에서 하구 긴 날을 모래아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바람 좋은 한 별관에서 물닭이 소리를 들으며 단이슬 먹고 나이 들은 탓이다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 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다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여졌다
착하다착해서 세관은* 가시 하나 손아귀 하나 없다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을 것 같다

* 세관은: 성질이나 기세가 역센.

■ 핵심 정리

- 주제 : 욕심 없고 정갈한 삶에 대한 지향
- 구성
 - 1연 : '흰밥'과 '가재미'와 함께하는 쓸쓸한 저녁
 - 2연 : 서로 미덥고 정답고 좋은 '흰밥'과 '가재미'와 '나'
 - 3연 : '흰밥'과 '가재미'와 '나'가 서로 미덥고 정답고 좋은 이유
 - 4연 : 욕심이 없고 착하고 정갈한 '흰밥'과 '가재미'와 '나'
 - 5연 : 가난해도 서럽거나 외롭지 않고 누구도 부럽지 않은 '흰밥'과 '가재미'와 '나'
 - 6연 : 서로에 대한 정감과 세상과의 거리감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음식을 소재로 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선우(膳友)’는 반찬 친구를 가리키는 말로, 화자는 ‘흰밥’과 ‘가재미’를 ‘선우’라고 말한다. ‘흰밥’과 ‘가재미’, 화자는 모두 욕심이 없고 착하고 정갈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흰밥’과 ‘가재미’에 대한 애정은 화자의 삶의 태도와도 관련되는데, 이 시에는 욕심이 없고 착하고 정갈한, 즉 고결한 삶에 대한 지향이 나타나 있다.

■ 수능 Tip

- 이질적인 대상에서 유사성을 발견하는 화자의 상상력을 확인한다.
 - ‘나’와 ‘흰밥’과 ‘가재미’는 서로 이질적인 것이지만 정갈하고 파리한 존재라는 점에서 수평적 동류관계로 전환시켜 표현함
-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안분지족’, ‘빈이무원’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음을 이해한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 - 2009년 7월

7. 윗글을 토대로 단편 소설을 쓰기 위해 <보기>와 같은 계획을 세웠을 때,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배경 : 시간 - 1920년대 말(과거), 1930년대 말(현재)
공간 - 함경도 지방 어느 시골
- 중심인물
나 - 달리기 실력이 뛰어나 ‘쌍쌍이’라고 불리는 산골 소년
만복 - 늘 쌀밥 타령을 해 ‘흰밥풀’이라 불리는, 농사일을 돕느라 얼굴이 까맣게 그을린 소년
봉식 - 두 눈이 가자미처럼 한데 물려 있어 ‘가재미눈’이라 불리는, 굴 캐는 할머니와 살아가는 소년
- 줄거리
현재 - ‘나’는 겨울날 혼자 골방에 앉아 조출한 저녁을 먹고 있다. 문득 과거가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진다.
과거 - 배고픔과 추위를 함께 나누었던 ‘나’, ‘만복’, ‘봉식’ 삼총사는 산, 들, 바다로 삶의 터전을 넘나들며 돈독한 우정을 키워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삼총사 모두는 일본군에 의해 서로 다른 곳으로 강제 징집되어 갔다. 그 뒤로 ‘만복’과 ‘봉식’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현재 - 밥상 위의 조출한 반찬을 바라보며 ‘나’는 두 친구를 그리워한다.

- ① 윗글에 나타난 시간 흐름의 특징을 역순행적 구조로 잘 살려야지.
- ② 윗글의 중심 소재들을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로 활용해야겠군.
- ③ 윗글과는 다르게 특정한 시대의 아픔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해야겠어.
- ④ 윗글에서 의인화된 대상들의 주된 특징을 잘 살려 중심인물로 형상화해야지.
- ⑤ 윗글의 화자가 삶을 대하는 당당한 태도가 소설 속 ‘나’에게도 드러나도록 해야지.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백석의 시에는 음식이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데, 그의 시에 나타나는 ‘음식 서사’의 특징은 음식이란 존재를 차별 없이,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선우사(跣友辭)』에서 ‘선(膳)’은 ‘반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에서 음식은 ‘친구’로 등장한다. 이 시에서 화자는,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 서로 이질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그들과 자신의 유사성을 확인하게 되고, 이를 통해 화자와 그들의 관계는 동류 관계로 나타난다.

- ① ‘흰밥’, ‘가재미’는 ‘나’와 서로 정다운 공동체로 설정되어, ‘나’와 ‘흰밥’, ‘가재미’의 관계는 ‘우리들’이라는 동류 관계로 나타나는군.
- ② ‘해정한 모래톱’, ‘바람 좋은 한벌판’, ‘외따른 산골’은, ‘가재미’, ‘흰밥’, ‘나’ 모두 욕심 없이 착하고 정갈하게 자랐음을 보여 주는 공간으로, ‘우리들’이 서로 이질적인 대상임을 부각하는군.
- ③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남은 나조반’에서 ‘쓸쓸한 저녁’을 같이 맞이한다는 유사성을 통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되는군.
- ④ ‘우리들’은 욕심 없는 마음씨와 착한 심성을 지녔다는 유사성이 있는 친구들로, 화자는 이로부터 가난하고 외로운 처지를 이겨 내는 힘을 얻고 있군.
- ⑤ ‘세상’은 욕심 없고 착하며 너무나 정갈한 ‘우리들’과는 이질적인 대상으로, 화자는 이러한 ‘세상’에서 벗어난 삶을 긍정하고 있군.

■ 수능특강 수록 작품 정리

■ 흰 부추꽃으로(박남준)- (수능특강 84쪽)

몸이 서툴다 사는 일이 늘 그렇다
나무를 하다 보면 자주 손등이나 다리 어디 찢기고 긁혀
돌아오는 길이 절뚝거린다 하루해가 저문다
비로소 어둠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한다
별빛이 차다 불을 지펴야겠군

이것들 한때 숲을 이루며 저마다 깊어졌던 것들
아궁이 속에서 어떤 것 더 활활 타오르며
거품을 무는 것이 있다
몇 번이나 도끼질이 빗나가던 웅이 박힌 나무다
그건 상처다 상처받은 나무
이승의 여기저기에 등뼈를 꺾인
그리하여 일그러진 것들도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를 수 있는가

언제쯤이나 사는 일이 서툴지 않을까
내 삶의 무거운 웅이들도 불길을 타고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어
타오르는 것들은 허공에 올라 재를 남긴다
흰 재, 저 흰 재 부추밭에 뿌려야지
흰 부추꽃이 피어나면 목숨이 환해질까
흰 부추꽃 그 환한 환생

■ 핵심 정리

- 주제 : 삶에 대한 성찰과 상처를 초월하고자 하는 바람
- 구성
 - 1연 : 사는 일이 서툰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 2연 : 무섭게 타오르는 웅이 박힌 나무를 바라봄.
 - 3연 : 소멸을 통한 새로운 생성에 대한 기대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삶의 고통과 그 극복, 그리고 소멸과 생성의 양가성을 보여 준다. 화자는 상처받은 ‘웅이 박힌 나무’도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상처라 할 수 있는 ‘무거운 웅이’들도 먼지처럼 날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타오르는 것들이 남긴 재를 부추밭에 뿌려 흰 부추꽃이 피기를 바라는데, 이는 소멸이 동시에 새로운 생성을 의미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수능 Tip

- 사색적 어조와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 일상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화자의 태도를 파악한다.
 - 시적 대상인 흰 부추꽃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흰 부추꽃에 대한 관찰이 화자 자신의 성찰로 이어지는 구조
- 상처받은 나무의 이미지를 통해 삶의 고통과 비애를 노래하고 있으며, 소멸과 생성이라는 양가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파악한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 시에는 삶의 고통과 그 극복, 그리고 인간의 양가적 속성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나타나 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연속성, 영원성을 욕망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시 속의 흰색의 이미지는 이러한 인간의 양가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흰색은 순수와 가벼움을 상징하며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죽음과 무(無)를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죽음이라는 텅 빈 상태는 소멸과 동시에 생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죽음을 통해 연속성과 영원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① 준서 : ‘돌아오는 길’은 고통받고 상처 입은 인간의 삶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② 서현 : ‘별빛’은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영원성을 욕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③ 민수 : ‘웅이’가 삶의 고통과 상처라면 ‘먼지’는 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나타내는 대상으로 볼 수 있어.
- ④ 재희 : ‘불길’은 소멸하게 하는 힘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이끌어 내는 힘으로 볼 수 있어.
- ⑤ 정아 : ‘흰 부추꽃’은 ‘타오르는 것들’의 ‘환생’을 의미하며, 이는 소멸을 통한 생성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어.

■ 수능특강 수록 작품 정리

▪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정일근) - (수능특강 93쪽)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꽃처럼
 어머니의 두레밥상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는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두레밥상.
 둥글게 둥글게 제비 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 주시는 고기반찬 착하게 받아먹고 싶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투구의 아수라장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 버렸다.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떠돌았다.
 짐승처럼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엮어 버렸을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두레는 모두를 귀히 여기는 사랑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 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두레 먹고 싶다.

■ 핵심 정리

- 주제 : 진정한 나눔과 사랑의 의미를 회복하고 싶은 소망
- 구성
 - 1~9행 :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
 - 10~17행 :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의 모습과 자신에 대한 반성
 - 18~22행 :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대한 지향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어머니의 두레밥상을 통해 모두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과 진정한 나눔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과 세상의 밥상을 대조하여 이기심으로 가득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수능 Tip

- 소재의 대비를 통해 경쟁적인 삶에 대해 비판하고 사랑을 강조하려는 화자의 심리를 파악한다.
 - 모난 밥상 vs 두레밥상, / 하이에나, 짐승 vs 제비 / 유년의 추억 vs 현실의 냉혹함
- 이미지 연결을 통해 ‘두레밥상’의 속성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파악한다.
 - 두레밥상 → 둥근 보름달 → 달맞이꽃 → 꽃밭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0. 윗글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어머니의 두레밥상 [1~9행]	-	[ㄴ] 세상의 밥상 [10~17행]	-	[ㄷ] 어머니의 두레밥상 [18~22행]
---	---	--	---	---

- ① [ㄱ]은 ‘두레밥상’의 둥근 이미지에서 ‘보름달’로, ‘달’에서 ‘달맞이꽃’, ‘꽃밭’으로 이어지는 의미의 연쇄를 통해 ‘어머니의 두레밥상’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② [ㄱ]에는 [ㄴ]에 나타난 상황으로 인해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함께 둘러앉아 있던 ‘어린 시절’이 회복될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이 전제되어 있다.
- ③ [ㄱ]의 ‘모난 밥상’은 [ㄴ]의 ‘세상의 밥상’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며, [ㄱ]은 ‘두레밥상’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나타내고 있다.
- ④ [ㄴ]의 ‘짐승’과 ‘하이에나’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보여 주는 소재로, [ㄱ]과 [ㄷ]의 ‘제비 새끼’와는 대조적인 의미를 드러낸다.
- ⑤ [ㄷ]에는 [ㄴ]의 ‘세상의 밥상’에서 벗어나 [ㄱ]의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나타나 있다.

■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엮어 읽기 - 어머니의 그릇(정일근)

어머니는 그릇이라고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 그릇, 그릇 중얼거리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 말과 하나가 되어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려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 어머니의 언어인 ‘그릇’을 통해 말이 빛나기 위한 조건, 시인이 갖추어야 할 자세를 깨달음

■ 수능완성 수록 작품 정리

▪ 거울(이상) - (수능완성 실전편 152쪽)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यो.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요.

내악수를받을줄모르는 — 악수를모르는왼손잡이요.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려만

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소.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만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에골몰할게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요만

또때때답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꼭쉽쉽하오.

■ 핵심 정리

• 주제 : 심화되어 가는 자아 분열로 인한 고뇌

• 구성

1연 : 거울 속 세상의 조용함.

2연 :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울속의나’

3연 :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거울속의나’

4연 : 만날 수는 있지만 만져 보지 못하는 ‘거울속의나’

5연 : 분열되어 외로 된 사업에 골몰할 ‘거울속의나’

6연 :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는 ‘거울속의나’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거울이라는 소재를 통해 ‘거울속의나’와 ‘거울’ 밖의 ‘나’ 사이의 분열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거울’은 ‘거울’ 밖의 ‘나’가 ‘거울속의나’를 보게 하고 또 서로 닮았음을 알게 해 주지만 한편으로는 ‘거울’ 밖의 ‘나’가 ‘거울속의나’와 대화를 하거나 악수를 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거울은 자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의식의 매개물인 동시에 이러한 자의식이 단절되고 분열되어 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매개물이기도 하다. 단절되고 분열된 자의식은 ‘거울’ 밖의 ‘나’가 거울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거울속의나’가 늘 따로 있고 ‘외로된사업’에 골몰

하기까지 하는 상황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현실의 자아와 본연의 자아가 극도로 분열된 상황임을 나타낸다. ‘거울’ 밖의 ‘나’가 ‘거울속의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아의 분열이 끝내는 극복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고통스러운 고백이라고 볼 수 있다.

■ 수능 Tip

- ‘거울’의 기능을 파악한다.
 - 거울은 분열된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를 연결해 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동시에 그 두 자아를 완전히 차단하고 단절시키는 부정적 기능도 담당함
 - 분열된 자아를 이해하고 반성하는 자의식의 통로와 자아 분열과 단절을 인식하게 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함께 함
- 두 자아의 관계를 파악한다.
 - 거울 밖의 ‘나’와 거울 속의 ‘나’는 모순적인 공존 상태에 있으며, 조화와 일치보다는 대립과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거울 밖의 ‘나’와 거울 속의 ‘나’의 공존과 대립은 인간적 교류가 차단된 현대인의 분열된 내면 의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상의 「거울」에서 화자는 ‘거울’ 밖의 주체와 ‘거울’ ‘속’의 주체가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두 주체를 각각 현실의 자아와 본연의 자아로 본다면, 「거울」은 두 주체가 서로 단절되어 있다는 분열된 자의식과 이로 인한 슬픔을 표현한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인으로서의 삶을 지향하면서도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고뇌한 시인의 생애를 고려한다면, 「거울」은 시인의 삶을 지향하는 ‘거울’ 밖의 주체가 생계로 고뇌하는 ‘거울’ ‘속’의 주체에 대해 느끼는 자기 연민을 나타낸 작품으로 볼 수도 있다.

- ① ‘거울’은 본연의 자아를 확인하게 하는 동시에 분열된 자의식을 경험하게 하는 양면성을 지닌 사물이겠군.
- ② ‘딱한귀’는 분열된 자의식 또는 현실의 생계로 인한 고뇌에 대한 애상감을 반영한 것이겠군.
- ③ ‘악수를모르는원손잡이’는 가족 부양에 대한 의무감으로 고뇌하는 자아와 대립하고 있는 주체의 모습이겠군.
- ④ ‘외로된사업’은 본연의 자아가 추구하는 일이거나 가족의 생계를 감당하기 위한 일이겠군.
- ⑤ ‘진찰’은 자의식이 분열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통을 시도하는 행동이겠군.

■ 수능완성 수록 작품 정리

- 거룩한 식사(황지우) - (수능완성 실전편 178쪽)

나이든 남자가 혼자 밥 먹을 때
울컥, 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큰 덩치로 분식집 메뉴 표를 가리고서
등 돌리고 라면 발을 건져 올리고 있는 그에게,
양푼의 식은 밥을 놓고 동생과 눈 흘기며 숟갈 싸움하던
그 어린것이 올라와,
갑자기 목매게 한 것이다

몸에 한세상 떠 넣어 주는
먹는 일의 거룩함이어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어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
풀어진 뒷머리를 보라
파고다 공원 뒤편 순댓집에서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 넣으시는 노인의, 짹 벌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 핵심 정리

- 주제 : 쓸쓸한 식사에 대한 연민과 먹는 일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
- 구성
1연 :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목이 메는 나이 든 남자의 식사
2연 : 혼자서 국밥을 먹는 노인을 보며 느끼는 연민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밥을 먹는 행위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거룩한 의미를 보여 준다. 1연에서 그리고 있는 분식집 풍경, 즉 ‘나이 든 남자’의 식사 장면은, ‘그’라는 3인칭 속에 숨어 있지만 실은 화자 자신에 대한 진솔한 가능성이 높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식은 밥을 두고 동생과 숟갈 싸움을 하던 배고픔의 기억이 갑자기 복받친 자기의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 연민은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에 대한 것으로 그 대상이 한층 확장되고, ‘먹는 일의 거룩함’을 새삼 느끼게도 해 준다. 국밥을 먹는 노인을 보며 느끼는 눈물겨움 역시 그와 같은 연민과 깨달음의 바탕 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일차적으로 가난의 기억에 관한 시이며, 나아가 사소한 일상이 실은 얼마나 거룩한 절차인지를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다.

■ 수능 Tip

- 주제를 강화하는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 두 연의 의미가 대칭적으로 대응하며,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선명한 인상을 남김
 - ‘먹는 일의 거룩함’과 같은 역설적 표현을 사용함
 - 영탄적 문장에 의해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함
 - 한 대상의 관찰에서 여러 사람들로 시상이 확장되며 화자의 인식 확대를 보여줌
-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애정 어린 시각을 파악한다.

※ 작품 창작의 배경

폭압적 현실 상황에 대한 극도의 좌절감을 풍자의 수법으로 보여 주었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1987)’를 통해 민중시에 새로운 언어적 긴장을 부여했던 시인은 ‘거룩한 식사(1998)’에 이르러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의 소중함을 연민의 눈길로 포착하고 있다. 이러한 시인의 의식 변화는 시인의 시선이 ‘안’에서 ‘밖’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데, 시인 특유의 냉소적 시선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대신 민중의 무너진 삶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비되는 냉온 감각을 활용하여 ‘먹는 일’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혼자 밥 먹는 자들’의 모습을 병치하여 애처로운 유년의 기억을 환기하고 있다.
- ③ 명령형 종결과 의문형 종결을 연결하며 ‘눈물겨운’ 시선에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④ 감탄을 나타내는 조사를 활용하여 ‘먹는 일’에 대한 인식을 인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울컥’, ‘쩍’ 등의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밥 먹’는 장면에 대한 감정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소재가 비슷한 다른 작품 엮어 읽기 - 긍정적인 밥(함민복)

시 한 편에 삼만 원이면 /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 /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삼천 원이면 / 돈 공에 비해 험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혀줄 수 있을까 /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 내게 삼백 원이 돌아온다 / 박리다 싶다가도
굶은 소금이 한 뒷박인데 생각하면 /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 주제 :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자세
- 특징 : 매 연 의미의 대칭을 이룬 대구의 형식

■ 수능완성 수록 작품 정리

- 슬픔이 기쁨에게(정호승) - (수능완성 실전편 234쪽)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핵심 정리

- 주제 : 소외된 자들의 슬픔에 대한 관심과 슬픔의 힘에 대한 각성 촉구
- 구성
 1~6행 : ‘너’에게 슬픔을 인식시키려는 ‘나’
 7~13행 : ‘너’에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식시키려는 ‘나’
 14~19행 : ‘너’에게 슬픔의 힘과 기다림을 주려는 ‘나’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슬픔’의 소중함과 힘을 ‘기쁨’과 관련지어 노래한 것이다. 이 시에서 ‘나’와 ‘너’는 각기 제목 상으로는 ‘슬픔’과 ‘기쁨’이지만, 작품의 내용과 표현상으로는 ‘슬픔’의 세계를 대변하는 자와 ‘기쁨’의 세계를 대변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나’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며, 그들을 위한 눈물도 흘리지 않는 존재인 ‘너’를 대하는 태도는 소외된 자들의 슬픔에 대한 관심과 그 슬픔이 지닌 힘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수능 Tip

- 추상적인 개념을 의인화하여 대화체의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 반복의 역할을 파악한다.
 - ‘-겠다’의 반복 : 운율감을 형성하고 화자의 의지적인 자세를 효과적으로 나타냄
 - ‘기쁨’과 ‘슬픔’의 반복 : 기쁨과 슬픔이 맺는 새로운 관계를 명확히 드러냄. 슬픔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며, 기쁨보다 더한 기쁨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얻음
- 화자의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이해한다.
 - 청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보다도 ‘슬픔’이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며, 청자가 꼭 그 가치를 알아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함
 - 화자는 자신만의 안일을 위해 남의 아픔에는 무관심하거나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세태를 비판하고 모두 더불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지향함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3.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는 의인화된 표현을 통해 자신의 기쁨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타인의 슬픔에도 평등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② ‘무관심한 너의 사랑’,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 등 현실 속에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연민이 부족한 삶의 태도를 ‘너’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군.
- ③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는 ‘추위 떠는 사람들’처럼 현실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의지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④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는 ‘너’를 평등하게 대하고 ‘너’와 같은 행동 방식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나’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군.
- ⑤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는 ‘슬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행위가 뒷받침되어 ‘기다림을 주겠다’던 ‘나’의 의도가 ‘너’의 관심과 각성임을 나타내고 있군.

■ 비슷한 주제의 시 엮어 읽기 - 연탄 한 장(안도현)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들선들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 힘쓰며 언덕길을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몫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 몸으로 사랑하고 /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 삶이란 /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고 전 시 가

1 EBS 교재에 수록된 고전시가 한눈에 보기

교재	작품	쪽
수능특강	작자 미상, '나뉘야 청산에 가자~' / 신위, '호접청산거(胡蝶靑山去)'	21
	권근, '상대별곡(霜臺別曲)'	23
	유리왕, '황조가(黃鳥歌)' / 작자 미상, '동동(動動)'	96~97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98~99
	정서, '정과정(鄭瓜亭)'	100~101
	황진이, '동지스들 지나긴 밤을~' / 작자 미상,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 작자 미상, '덕들에 동난지이 사오~'	102~103
	월산 대군, '추강에 밤이 드니~' / 신희, '넋7에 헐오라바~' / 김상헌, '가노라 삼각산아~'	104~105
	원천석, '눈 마자 휘어진 대를~' / 이신의, '사우가(四友歌)' / 작자 미상, '두터비 풍리를 물고~'	106~107
	주세붕, '오륜가(五倫歌)'	108~109
	윤선도, '만흥(漫興)'	110~111
	김천택, '서검을 못 일우고~' / 김수장, '안빈을 염치 말아~' / 김수장, '서방님 병들여 두고~'	112~114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115~117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118~120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121~123
	이광명, '북찬가(北竄歌)'	124~126
	임제, '무어별(無語別)' / 서경덕, 'ㅁ음이 어린 후ㅣ니~' / 작자 미상, '개를 여러른이나 기르되~'	127~128
	작자 미상, '소춘향가'	129~130
	작자 미상, '잠 노래' / 작자 미상, '베틀 노래'	131~133
	유방선, '늪은 잣나무'	283~284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300~301
수능완성 (유형편)	성삼문, '수양산 바라보며~' / 주의식, '주려 주그려 하고~'	21~26
수능완성 (실전편)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154~155
	길재, '오백 년 도읍지를~' / 조식, '두류산 양단수를~' / 작자 미상, '논밭 갈아 기움매고~'	180~181
	이정환, '비가(悲歌)'	209
	충담사, '찬기과랑가(讚耆婆郎歌)' / 작자 미상, '서경별곡'	232~233
	정철, '속미인곡'	260~261

2

모의평가 기출 고전시가 살펴보기

<6월 모의평가>

[42~45] 갈래복합	(가) 주세붕, ‘오륜가’	수능특강 108~109쪽	그대로 가져오되, 현대어로 옮김
	(나) 이곡, ‘차마설’	수능특강 261~263쪽	그대로 가져옴

3

EBS 교재와의 연계성 파악하기

6월 모의평가에서는 고전시가(주세붕의 ‘오륜가’)와 고전수필(이곡의 ‘차마설’)을 엮어 지문을 구성하였으며 네 문제가 출제되었다. 두 작품 모두 EBS 수능특강에서 전문 그대로 연계된 데다가, 주세붕의 ‘오륜가’는 옛 한글의 형태를 현대어로 옮겨놓아 고전 문학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주었다. 문항 또한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종합적 내용 파악,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파악, 작품의 핵심 내용 이해 등 익숙한 유형의 평이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 학생이라면 그다지 고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6월 모의평가에서 나타난 경향처럼 고전시가 영역은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작품들이 실제 수능에서 연계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계 교재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문학 영역의 기초 원리들을 중심으로 작품의 특징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사와 같은 작품을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옛 한글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한편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4

EBS 교재에 실린 고전시가 살펴보기

■ 수능특강 수록 작품 정리

-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수능특강 98쪽)

(가)

생사로(生死路)는

生死路隱(생사로 은)

예 있으며 ㉠ 두렵고

此矣有阿米次盼伊遣(차의유아미차힐이건)

‘나는 간다’ 말도

吾隱去內如辭叱都(오은거내여사질도)

못다 이르고 가느릿고.

毛如云遣去內尼叱古(모여운건거내니질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於內秋察早隱風未(어내추찰조은풍미)

이에 저에 떨어질 잎같이,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차의피의부량락시엽여)

한 가지에 나고

一等隱枝良出古(일등은지량출고)

가는 곳 모르온저!

去奴隱處毛冬乎丁(거노은처모동호정)

아오, 미타찰(彌陀刹)에 만날 나는

阿也彌陀刹良逢乎吾(아야미타찰량봉호오)

도(道) 닦아 기다리련다!

道修良待是古如(도수량대시고여)

(나)

해독에 따라 향가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향찰 해독이 어렵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해독이 어느 정도 일치된 작품은 해석의 폭은 넓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해석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제망매가」 제2행의 ‘次盼伊遣(차힐이건)’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次盼伊遣(차힐이건)’은 한자의 음을 중심으로 분석한 입장[음차]과 한자의 뜻과 음을 함께 고려한 입장[훈독과 음차]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독될 수 있다. 전자에 따르면 이 부분은 ‘저히고’[두렵고], ‘저힐이고’[生 → 낳고 / ㉠ 眠 → 자고(영원히 죽고)], ‘즈힐이고’[의지하고] 등으로, 후자는 ‘멈호리건’[머물거니와], ‘머뭇그리고’[머뭇거리고], ‘아줄잇고’[어찌하릿고] 등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해독에 따라 작품의 주제와 분위기는 달라진다. ‘차힐이건’을 ‘두렵고’로 해독한다면 작품의 시작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화자를 만날 수 있고, ‘의지하고’로 읽는다면 죽음의 순간 절대자에게 귀의하려는 화자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머뭇거리고’의 해독을 따른다면 죽음의 문턱에서 삶에 대해 미련을 느끼는 화자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다.

이처럼 향가 작품은 시어의 해독이 단순한 시구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작품 전체 주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핵심 정리

- 주제 :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와 죽음에 대한 종교적 초극
- 구성
 - 1~4행 :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삶과 죽음에 대해 고뇌하고 번민함.
 - 5~8행 : 삶과 죽음의 무상성 심화
 - 9~10행 : 불교적 사유를 통한 고뇌의 극복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신라 경덕왕 때 승려 월명사가 지은 10구체 향가로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 일찍 죽은 누이를 추모하고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노래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비유를 통해 깊이 다루고 있다.

■ 수능 Tip

- 작품의 주된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 누이의 죽음을 가을에 떨어지는 나뭇잎에 비유하고,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오누이의 관계를 같은 가지에서 나온 것으로 인식하여 묘사함
 - 비유적 표현은 누이를 잃은 슬픔과 애절한 혈육의 정을 더욱 구체화하는 역할을 함
- 화자의 태도를 이해한다.
 - 누이의 죽음이라는 인간적인 슬픔을 비통해하거나 애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불교의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윤회 사상 속에서 정화하고 극복해 내려고 함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나)를 참고할 때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次盼伊遣(차힐이견)’을 한자의 음을 중심으로 해독해서 풀이한 것이군.
- ② ㉠과 같이 풀이함으로써 1~4행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정서를 느낄 수 있게 되었군.
- ③ ㉡과 같이 풀이하면 삶에 애착을 가진 화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군.
- ④ ㉡도 ㉠과 같이 ‘次盼伊遣(차힐이견)’을 한자의 음을 중심으로 해독해서 풀이한 것이군.
- ⑤ ㉠과 ㉡은 모두 우리말로 해독된 여러 의미 중 하나일 뿐이므로 어느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군.

6월 모의평가의 현대시 영역 26번과 같은 유형

■ 수능특강 수록 작품 정리

- 작자 미상, ‘덕들에 동난지이 사오 ~’ - (수능특강 102쪽)

덕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후* 귀 무서시라 왜는다 사자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전행(前行) 후행(後行)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청장(淸醬)* 으스스흐는 동난지이 사오
장스야 하 거복이 웨지 말고 게젯이라 흐렘은

* 동난지이: 게젯.

* 황후: 물건.

* 청장: 진하지 않은 간장.

■ 핵심 정리

- 주제 : 상인의 현학적인 태도 비판
- 구성
초장 : 상인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이 되물음.
중장 : 상인이 게의 동작이나 게젯의 맛을 장황하게 묘사함.
종장 : 상인의 현학적인 태도를 비판함.

■ 이해와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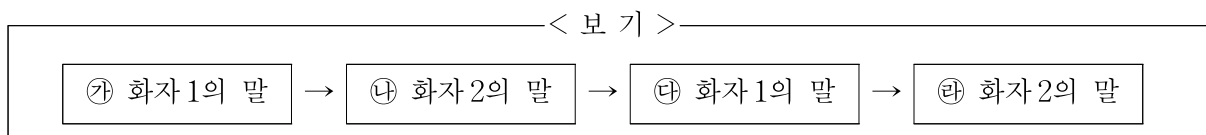
이 작품은 시정(市井)의 상인과 어떤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진 시조이다. 상인이 동난지이를 사라고 하자, 어떤 사람이 그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 상인이 게의 모습과 맛을 한참 묘사하자 그 사람은 게젯이라고 하면 될 것을 어렵게 말한다고 편잔을 준다. 상인의 현학적 태도를 풍자적인 어조로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으며, 대화의 방식과 의성어를 통해 생동감을 유발하고 있다.

■ 수능 Tip

- 사설시조의 해학적 골재미와 풍자적 골재미에 대해 이해한다.
- 해학과 풍자 모두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이지만, 해학이 대상에 대한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달리 풍자는 대상의 부정적 측면을 날카롭게 공격함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2. <보기>는 윗글의 구성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상대방의 관심을 끌고 있군.
- ② ㉡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들은 후 되물고 있군.
- ③ ㉢에서는 대상의 외양과 움직임에 대해 묘사하고 있군.
- ④ ㉣에서는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⑤ ㉡와 ㉣에서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공감을 표시하고 있군.



■ 수능특강 수록 작품 정리

- 월산 대군, ‘추강에 밤이 드니 ~’ / 신희, ‘넛ㄷ에 희오라바 ~’ - (수능특강 104쪽)

(가)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촛노미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무심(無心)한 들빛만 싯고 뵈 빈 비 저어 오노라

(나) 넛ㄷ에 희오라바* 므스 일 셔 잇는다
 무심(無心)흔 저 고기를 여어* 무슴흔려는다
 아마도 흔 물에 잇거니 니저신들 엇드리

* 희오라바: 해오라기야.

* 여어: 엇보아.

(가)

■ 핵심 정리

- 주제 : 가을 달밤의 정취와 한정(閑情)
 초장 : 밤이 되어 물결이 찬 가을 강
 중장 : 낙시를 드리워도 고기가 잡히지 않음.
 종장 : 들빛만 싯고 빈 배로 돌아옴.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의 화자는 낙시로 고기를 잡는 데 집착하지 않고 탈속적인 공간에서 한가롭게 즐기는 무욕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유유자적하는 자연 친화적 삶을 통해 풍류 의식과 한정(閑情)을 드러낸 작품으로, 가을 강의 밤경치와 들빛 아래 낙시를 드리우는 정경이 잘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 수능 Tip

-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자연관을 이해한다.
 - 자연은 멋과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속세의 어지러움과 대비되는 탈속적 공간이며, 전원의 구체적 생활 공간임
 -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속에서 정신적인 안식을 찾고자 함
- 주제를 구현하는 시어인 ‘들빛’과 ‘뵈 빈 비’의 의미를 이해한다.
 - 가득함의 의미를 갖는 ‘들빛’은 정신적인 충만함을, 비어 있음의 이미지를 갖는 ‘뵈 빈 비’는 무욕의 경지를 나타내어 두 소재를 통해 풍류와 탈속의 경지를 드러냄

(나)

■ 핵심 정리

- 주제 : 당쟁의 폐해를 막고 조정이 화목하기를 바람.
- 구성
 - 초장 : 냇가에 서 있는 해오라기
 - 중장 : 물속의 고기를 엿보는 해오라기
 - 종장 : 해오라기가 고기를 노리지 말고 내버려 두기를 바람.

■ 이해와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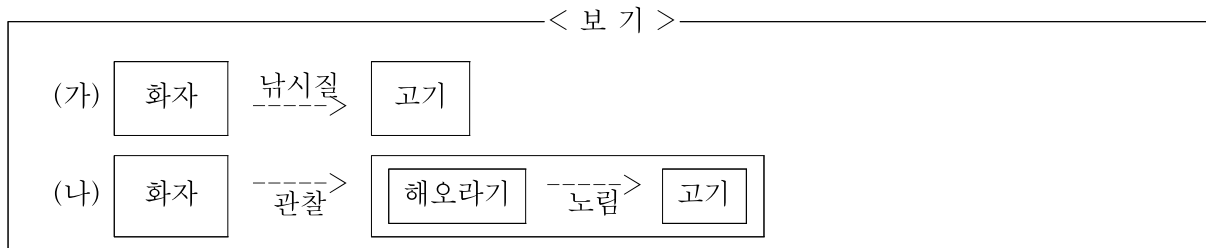
이 작품은 광해군 때 당쟁의 심각한 폐해를 체험한 작가가 냇가의 해오라기와 물속의 고기에 빗대어 현실을 풍자한 것이다. 아무런 욕심 없이 물속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고기와 호시탐탐 고기를 잡으려고 엿보는 해오라기를 대조하여 남을 해치려고 하는 당쟁을 중지하고 조정이 화목할 것을 바라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 수능 Tip

-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 대조적인 소재(고기 vs 해오라기)를 통하여 약육강식의 정치 현실을 비판함
 - 의문형의 종결 어미를 반복 사용하여 깨달음을 유도함
 - 권유하는 형식으로 공존의 삶을 추구하는 화자의 바람을 드러냄
- ‘해오라기’가 지니는 특징적인 의미를 파악한다.
 - 다른 작품에서의 자연 친화적 이미지와 달리 이 작품에서는 남을 해치려는 부정적인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3. <보기>는 (가)와 (나)의 시적 상황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드리치니’와 달리 (나)의 ‘여어’는 고기를 잡기 위해 기회를 얻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가)의 ‘아니 무노미라’와 (나)의 ‘셔’는 모두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는 행위로 볼 수 있군.
- ③ (가)의 ‘무심훈’과 (나)의 ‘무심훈’은 모두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상태로 볼 수 있군.
- ④ (가)의 ‘뵈 뵈’는 낚시의 결과와, (나)의 ‘니저신들’은 해오라기에 대한 바람과 연결할 수 있군.
- ⑤ (나)의 ‘넛’과 달리 (가)의 ‘추강’은 한가로운 심정을 느끼는 장소로 볼 수 있군.

■ 수능특강 수록 작품 정리

- 김천택, ‘서검을 못 일우고 ~’ / 김수장, ‘안빈을 얹치 말아 ~’ / 김수장, ‘서방님 병들여 두고 ~’
- (수능특강 112쪽)

(가) 조선 전기 시조와 조선 후기 시조는 창법과 담당층에 따라 구분된다. 시조는 부르는 방식에 따라 가곡창과 시조창으로 나뉘는데, 시조창은 조선 후기 중인 가객 이세춘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창법이다. 그리고 조선 전기 시조는 주로 사대부 계층에 의해 창작, 수용되었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중인층이 시조에 참여하면서 담당 계층을 넓혀 나갔다. 이처럼 조선 후기 시조는 중인 가객의 등장으로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가운데 중인 가객인 김천택과 김수장의 등장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김천택은 당대 명창인 김유기, 김성기 등과 교류하면서 시조를 노래하고 창작하였으며, 김수장은 이들과 달리 노가재라는 가객 활동을 통해 여러 가객과 어울렸다. 김천택과 김수장에 대해 ‘당대 노래에 도통한 사람들’이라는 평가와 ‘김천택과 김수장 문하에서 뛰어난 가객이 배출되었다.’라는 기록들이 전하는데, 이러한 기록들은 김천택과 김수장의 활약을 보여 준다. 그리고 김천택은 『청구영언』을, 김수장은 『해동가요』를 각각 편찬하여 수 세기 동안의 시조 유산을 정리함으로써 시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김천택과 김수장은 전문적인 가객 활동을 통해 시조 음악의 발달과 후진 양성에 공헌하였고, 시조집을 편찬하여 국문 기록 문학으로서 시조의 위상을 올려놓은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작품 세계와 사설시조 창작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천택은 중인으로서의 신분에 대한 갈등과 내적 고뇌를 작품에서 드러내었다. 이러한 그의 번민은 그의 작품 세계에서 도피처로서의 강호 자연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김천택은 자신이 직접 사설시조를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시조집에 사설시조를 수록함으로써 사설시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비해 김수장은 신분에 대한 번민이나 갈등은 없고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면서 자신의 생활과 주변 인물들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하는 작품을 창작하였다. 특히 여성에 대한 섬세한 관찰은 그의 작품이 갖는 두드러진 점이다. 즉 김수장은 강호 자연을 찾기보다는 세속의 삶을 긍정하고 시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조화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김수장은 사설시조를 적극적으로 창작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기도 하였다.

김천택과 김수장 시조에 나타난 이러한 차이는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김천택이 지녔던 자신의 신분으로 인한 현실과의 갈등이라는 문제는 그가 활동했던 시기의 중인 예술인이 가졌던 현실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김수장이 지녔던 세속적 지향 의식과 시정인에 대한 관심은 당시 서민 문학의 발달과 같은 사회적 배경과 관련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

□ 서검(書劍)*을 못 일우고 쓸 썩 업쓴 몸이 되야

[A] 오십(五十) 춘광(春光)을 희옴 업씨 지너연저

□ 두어라 언의 곳 청산(靑山)이야 날 썰 썰이 잇시랴.

- 김천택

* 서검: 문과 무.

┌ 안빈(安嬪)을 염(厭)치 말아 일 업쓰면 그 죠힌이
 [B] 벗 업다 한(恨)치 말라 말 업쓰면 이 죠힌이
 └ 암아도 수분 안줄(守分安拙)*이 그 올흔가 흐노라.

- 김수장

* 수분 안줄: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며 편안히 살다가 죽음.

┌ 서방(書房)님 병(病)들여 두고 쓸 것 업서
 [C] 종루(鍾樓) 저지 달리* 파라 비 스고 감 스고 유자(柚子) 스고 석류(石榴) 샅다 아츠
 츠츠 이저고 오화당(五花糖)*을 니저 맡여고자
 └ 수박(水朴)에 술* 쏘즈 노코 한숨 게워 흐노라.

- 김수장

* 달리: 머리카락.

* 오화당: 오색으로 물들인 사탕.

* 술: 술가락.

(나) [A]

■ 핵심 정리

• 주제 : 신분적 한계로 인한 좌절과 자연 친화의 소망

• 구성

초장 : 출세하지 못한 자기 신세를 드러냄.

중장 : 해 놓은 일이 없음을 안타까워함.

종장 : 자연에서 위로받고자 함.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아픔을 안고 위안의 장소를 찾겠다는 심정을 담은 시조이다.

■ 수능 Tip

• 대립적인 시어를 통해 시상이 전개됨을 파악한다.

- 서검 : 문관과 무관을 포괄하는 벼슬(관리)의 대유적인 표현으로, 벼슬살이의 공명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의 가치

- 청산 : 자연의 대유어로, 세속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탈속적인 삶의 가치

• 화자의 현실 인식을 파악한다.

- 입신양명을 하지 못한 현실에 불만을 품고 있어서 자연 귀의가 자발적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체념 끝에 이루어진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보임

- 자연은 화자에게 좌절을 안겨 준 속세와 대립되는 곳으로 화자의 대안적인 삶이 영위될 수 있는 공간



(나) [B]

■ 핵심 정리

- 주제 :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 구성

초장 : 가난하지만 그로 인해 근심 없어 좋다고 함.

중장 : 친구가 없지만 그로 인해 말(구설수)이 없어 좋다고 함.

종장 : 모자라거나 부족해도 그것이 자신의 분수라면 받아들여 살아가겠다고 다짐함.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만족하며 살겠다는 긍정적 태도를 노래한 시조이다.

■ 수능 Tip

-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 대구법과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생각을 드러냄
- 작품의 주제의식을 파악한다.
 - ‘수분 안줄’이라는 시어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냄
 -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정서가 잘 드러남

(나) [C]

■ 핵심 정리

- 주제 :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
- 구성

초장 : 임이 병중에 있음.

중장 : 머리카락을 팔아 임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했음.

종장 : 돌아와 보니 중요한 재료를 빼놓은 것을 발견하고 망연자실함.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여성 화자가 병중에 있는 임을 위해 임이 좋아하는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과 준비 과정에서 빼놓은 물건을 두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그린 시조이다.

■ 수능 Tip

-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 서민의 생활에 밀착된 어휘들을 나열함으로써 생동감을 부여함
 - ‘아츠츠츠’라는 감탄사는 작품 속의 여인이 당황해하는 모습과 임을 향한 애절한 마음씨를 해학적인 언어로 담아낸 것으로, 이를 기점으로 분주해하다가 망연자실하게 되는 화자의 태도 변화가 나타남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4. (가)를 바탕으로 (나)의 [A]~[C]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문과 무 어느 쪽에서도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작가의 신분적 한계와 관련이 있겠군.
- ② [A] : 청산이 자신을 꺼리지 않을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은 현실에서의 괴로움을 자연에서 해소하려는 작가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B] : 가난한 삶을 싫지 않다고 한 것과 분수를 지켜 편안히 살다 죽겠다는 것은 현실에 만족하고 있었던 작가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C] :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여성을 섬세하게 관찰하여 형상화한 것은 시정인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C] : 세속을 시적 공간으로 삼은 것은 주어진 현실적 여건을 극복할 수 없다고 본 작가의 세계관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6월 모의평가의 현대시 영역 26번과 같은 유형

■ 수능특강 수록 작품 정리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수능특강 115쪽)

초경(初更)*도 거윈디 괴 엇지 와 겨신고.

연년(年年)에 이러히기 구차(苟且)흔 줄 알건마는 / ㉠ 쇼 업슨 궁가(窮家)에 혜엄 만하 왓삽노라.

공흔이나 갑시나 주엄 측도 헛다마는, / 다만 어제 밤의 거넨 집 저 사람이

목 불근 수기치(雉)*을 옥지읍(玉脂泣)게* 꾸어 니고,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을 취(醉)토록 권(勸)히거든, / 이러한 은혜(恩惠)을 어이 아니 갑흘넉고.

내일(來日)로 주마 하고 큰 언약(言約) 하야거든, /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히니 사설이 어려왜라.

실위(實爲) 그러하면 혈마 어이홀고.

㉡ 현 먼덕 수기 스고 측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몰너 오니

풍채(風採) 저근 형용(形容)에 기 즈칠 썬이로다.

와실(蝸室)*에 드러간들 잠이 와사 누어시랴. / 북창(北窓)을 비겨 안자 새배*를 기다리니

무정(無情)한 대승(戴勝)*은 이니 한(恨)을 도우느다.

종조추창(終朝惆悵)*히며 먼 들흘 바라보니, /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興) 업서 들리느다.

세정(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느다.

아까운 저 소뵈*는 벗보님*도 도홀세고. / 가시 엉킨 묵은 밧도 용이(容易)케 갈련마는,

허당 반벽(虛堂半壁)에 슬디업시 걸러고야. / ㉢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 두자.

강호(江湖) 흔 꿈을 꾸언지도 오러려니 /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하야 어지버 이저쩌다.

첨피기육(瞻彼淇澳)*흔디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디 하나 빌려스라.

노화(蘆花)* 김픈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 넘지 업슨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늘그리랴.

무심(無心)흔 백구(白鷗)야 오라 히며 말라 히랴. / 다토리 업슬손 다문 인가 너기로라.

무상(無狀)흔 이 몸애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는, / 두세 이렇 밧논를 다 무겨 더더 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노라.

니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랴.

인간(人間) 어니 일이 명(命) 밧기 삼겨시리.

[A]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헛건마는 / ㉤ 니 생애(生涯) 이러호디 설온 뜻은 업노왜라.

* 초경: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눈 첫째 부분(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 수기치: 수평.

* 옥지읍게: 구슬 같은 기름이 튀어 오르게.

* 간 이근: 갓 익은.

* 삼해주: 정월 셋째 해일(亥日)에 빛은 좋은 술.

* 와실: 달팽이 껍질같이 좁은 자신의 방을 겸손히 일컫는 말.

* 새배: 새벽의 옛말.

* 대승: 봄에 밭 갈기를 독촉한다는 오디새.

* 종조추창: 아침이 마칠 때까지 슬피함.

* 소뵈: 쟁기의 사투리.

* 벗보님: 쟁기의 날이 잘 선 모양.

* 위루: 누가 됨, 거리낌이 됨.

* 첨피기육: 저 기수의 물가를 바라봄.

* 유비군자: 교양 있는 선비.

* 노화: 갈대꽃.

■ 핵심 정리

- 주제 : 누항에 묻혀 추구하는 빈이무원(貧而無怨)의 삶
- 구성
 - 서사 : 길흉화복을 하늘에 맡기고 안빈 일념으로 살고자 함.
 - 본사 1 : 충성심으로 백전 고투했던 전란에 대해 회상함.
 - 본사 2 : 전란 후 돌아와 몸소 농사를 짓고자 함.
 - 본사 3 : 농사를 짓기 위해 소를 빌리고자 함.
 - 본사 4 : 소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를 당하고 돌아옴.
 - 본사 5 : 집에 돌아와 야박한 세태를 한탄하며 준경을 포기함.
 - 결사 1 : 자연을 벗 삼으며 절로 늙기를 소망함.
 - 결사 2 : 빈이무원하는 가운데 충효, 화형제, 신붕우 등에도 힘쓰고자 함.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1611년(광해군 3)에 박인로가 지은 가사이다. 그가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에 내려가 힘든 생활을 하던 중에, 한음 이덕형이 그를 찾아가 누항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묻자 이에 대한 답으로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자신이 누항에서 겪고 있는 궁핍하고 누추한 현실과 선비로서 가져야 할 삶 사이에서 겪게 되는 갈등이 진솔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

■ 수능 Tip

- 제목이자 공간적 배경인 ‘누항’의 의미를 파악한다.
 - ‘누항’이란 『논어』에 나오는 말로, 가난한 삶 가운데도 학문을 닦으며 도를 추구하는 즐거움을 즐기는 공간을 말할 때 자주 사용됨
 - 작품에서 ‘누항’은 화자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공간, 즉 세속적인 공간으로, 화자는 가난한 가운데서 안빈낙도의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음
-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 자신의 궁핍한 생활을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으로 형상화함
 -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일상생활의 언어를 대폭 등장시켜 생동감과 구체성을 배가함
- 선비로서의 당위와 궁핍한 현실 사이에서 오는 내적 갈등을 이해한다.
 - 관념적 태도 : 안빈 일념의 삶, 자연 친화·유유자적한 삶, 유교적 가치관을 실천하는 삶 추구
 - ⇒ 양반 사대부들의 관념적 이상
 - 현실적 태도 : 가난한 생활에 직접 농사짓기 위해 이웃집에 소를 빌리러 감
 - ⇒ 전란 이후 달라진 양반 사대부들의 현실

■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 - 2012년 9월 모의평가

5. [A] 부분에 <보기>의 내용이 들어 있는 이본(異本)이 있다. <보기>가 추가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가난타 이제 죽으며 가으며다 백년(百年) 살나.

원현*이는 몇 날 살고 석승*이는 몇 히 산고

* 원현: 춘추 시대에 청빈하게 산 학자.

* 석승: 진나라 때의 큰 부자.

- ① 여러 인물을 등장시켜 대화 상황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② 새로운 공간을 더하여 사건의 선후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 ③ 이질적인 이야기를 삽입하여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사 속 인물을 끌어와 화자의 삶에 대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6.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임진왜란의 발발로 인한 격동 속에서 양반들은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잃고 궁핍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양반들은 현실 속에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대부분의 양반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수단을 찾지 못했다. 이로써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안빈낙도(安貧樂道)라는 관념적인 해결 방안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박인로의 「누항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 ① ㉠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화자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현실 속에서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좌절되어 실망감에 젖은 화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에는 때를 놓쳐 농사를 망치게 된 것을 한탄하며, 또 다른 현실적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화자의 고뇌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에서는 자연으로 눈을 돌려 자신에게 주어진 처지에 만족하려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군.
- ⑤ ㉤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안빈낙도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수능특강 수록 작품 정리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수능특강 118쪽)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흔고
 넷 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므를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여서라
 ┌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여 잇고
 [A] 녹양 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 칼로 몰아 내가* 붓으로 그려 내가 /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롭다*
 └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룰소냐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에 안자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흔디
 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青)*으란 오늘 하고, 욱기(浴沂)*란 내일(來日) 하세
 아춤에 채산(採山)하고, 나조희 조수(釣水)*하세
 꺾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뷔엿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는 술을 메고 /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ㄴ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써오느니 도화(桃花)ㅣ로다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봉두(峰頭)*에 급피 올라 구름 소귀 안자 보니 /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뻗는 듯 /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홀사*
 공명(功名)도 날 띄우고* 부귀(富貴)도 날 띄우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에 엇던 벗이 잇스올고

* 홍진: 번거롭고 속된 세상.

* 하건마는: 많건마는.

* 수간모옥: 작은 초가.

* 울울리에: 뽕뽕하게 우거진 속에.

* 풍월주인: 자연을 즐기는 사람.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표현.

* 몰아 내가: 마름질하여 내었는가?

* 조화신공: 조물주의 신비스러운 능력.

* 현스롭다: 야단스럽다.

* 소요음영: 나직이 시부(詩賦)를 읊조리면서 거니는 것.

* 한중진미: 한가한 가운데서 맛보는 참된 즐거움.



- * 답청: 봄에 파랗게 난 풀을 밟음. 청명절(淸明節)에 교외를 산책하며 자연을 즐기는 풍습.
- * 욕기: 기수에서 목욕함. * 조수: 낚시질. * 준중: 술독.
- * 봉두: 산봉우리. * 천촌만락: 수많은 촌락.
- * 연하일취: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 * 금수: 수놓은 비단.
- * 유여홀사: 넘치는구나. * 씹우고: 꺼리고. 싫어해 따르지 않고.

■ 핵심 정리

- 주제 : 봄 경치를 즐기는 흥취와 안빈낙도
- 구성
 - 서사 :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 본사 1 : 봄 경치에 대한 완상과 몰입
 - 본사 2 : 봄 경치에 도취되어 풍류를 즐김.
 - 본사 3 : 봄의 풍류를 즐기며 경치를 조망함.
 - 결사 :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조선 전기에 정극인이 쓴 가사이다. 정극인은 단종이 죽자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태인에 내려가 살았는데, 이 작품은 이때 지어진 것이다. 이 작품에는 자연 속에서 봄을 맞이하는 자연 친화적 삶과 소박한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안빈낙도의 삶이 잘 드러나 있다. 「상춘곡」의 이러한 특징은 송순의 「면앙정가」로 이어져 ‘강호가도’라는 시풍을 형성했다. 「상춘곡」을 가사의 효시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형식이 잘 정제되어 있고 사용된 어휘가 15세기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 작품을 최초의 가사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 수능 Tip

-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 화자의 시선(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좁은 공간인 ‘수간 모옥’에서 점차 ‘들판’, ‘시냇가’, ‘산 위’와 같이 넓은 공간으로 옮겨지면서 확대됨. 이는 속세의 세계로부터 점차 탈속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드러냄
- 다른 전기 가사와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 송순의 ‘면앙정가’나 정철의 ‘관동별곡’과 같은 가사 작품에서 나타나는 군은(君恩)에 대한 정서는 드러나 있지 않음
-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 매우 사실적인 표현과 함께 설의법, 의인법, 대구법, 직유법 등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함
 - 고사를 많이 인용하여 작품 전체를 유려하고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 - 2011학년도 수능

7.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밑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 ① [A]와 <보기>에서 봄은 모두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한다.
- ② [A]는 <보기>와 달리 봄을 겨울과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보기>는 [A]와 달리 의인화를 통해 봄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A]의 봄은 흥겨움을, <보기>의 봄은 서글픔을 불러일으킨다.
- ⑤ [A]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보기>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봄을 묘사하고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상춘곡」은 정극인이 정계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 머물며 지은 노래로, 번거롭고 속된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자연 세계에 몰입하고자 하는 태도를 담고 있다. 화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자연의 세계가 부귀와 공명에 물든 속세와는 거리가 멀고, 이상적 세계인 선계(仙界)와는 거리가 가까운 곳이라는 자족감 속에서 자연을 마음껏 완상하는 것이다.

- ① ‘홍진’은 번거롭고 속된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화자가 거리를 두고자 하는 세속적인 세계를 빗댄 것이겠군.
- ② ‘수간모옥’은 ‘벽계수’, ‘송죽’과 어우러져, 자연에 몰입한 ‘풍월주인’으로서 화자가 지닌 면모를 돋보이게 하는군.
- ③ ‘정자’에서 화자는 ‘니웃’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계에서 공명을 누렸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고 있군.
- ④ ‘시냇가’에서 화자는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세계가 선계(仙界)와 가까운 곳이라고 느끼고 있군.
- ⑤ ‘봉두’에 오른 화자는 ‘천춘만락’과 봄빛에 물든 ‘들’을 내려다보며, 부귀와 공명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군.

■ 수능특강 수록 작품 정리

- 작자 미상, ‘개를 여라문이나 기르되 ~’ - (수능특강 127쪽)

개를 여라문이나 기르되 요 개궂치 알피오라
 뒀은 님 오며는 꼬리를 뽕뽕 치며 썩락 느리 썩락 반겨서 내똥고 고온 님 오며는 뒷발을 버
 똥똥 똥똥 나으락 캉캉 즈저서 도라가게 혼다
 쑤똥이 그릇 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라

■ 핵심 정리

- 주제 : 임을 기다리는 마음
- 구성
 - 초장 : 기르는 개 중에 알미운 개가 있음.
 - 중장 : 미워하는 임은 반기고 사랑하는 임은 돌아가게 하는 개
 - 종장 : 쑤똥이 생겨도 알미운 개에게는 먹이고 싶지 않음.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짓는 개와 관련지어 해학적으로 표현한 사실시조이다. 임이 오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임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변하였는데, 화자는 그것을 개에게 전가하여 화풀이를 하고 있다.

■ 수능 Tip

-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 음성 상징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알미운 개가 하는 행동을 해학적, 사실적으로 묘사함
- 작품에 나타난 갈등의 이중성을 파악한다.
 - 표면에 화자와 개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나, 그 이면에 있는 임과의 갈등이 실질적 갈등임.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윗글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 화자와 개 사이의 관계와 이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 화자와 기다림의 대상 사이의 관계가 함께 존재한다. 이 두 가지 관계 중에서 화자가 실제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후자로 볼 수 있다. 독자는 기다림의 대상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통해 ㉢ 화자가 이 작품을 창작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 ① 화자는 ㉠을 다양한 음성 상징어를 통해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② 화자는 ㉡에서 기다림의 대상에 대해 복합적인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③ ㉡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화자가 기다림의 대상과 만나면 해소될 가능성이 있겠군.
- ④ ㉢는 기다림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겠다는 화자의 각오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군.
- ⑤ 화자는 ㉡에서 발생한 원망을 ㉠에서 개에게 전가하고 있군.

■ 수능특강 수록 작품 정리

- 작자 미상, 「소춘향가」 - (수능특강 129쪽)

춘향의 거동 보아라
 오른손으로 일광을 가리고
 왼손 높이 들어 저 건너 죽림 보인다
 대 심어 울하고 술 심어 정자라
 동편에 연당이요 서편에 우물이라
 노방시매오후과요 문전학중선생류*
 긴 버들 휘늘어진 늙은 장송 광풍에 홍을 겨워 우쭐우쭐 춤을 추니
 저 건너 사립문 안에 삽사리 앉아
 먼 산만 바라보며 꼬리치는 저 집이오니
 황혼에 정녕 돌아오소
 떨치고 가는 형상 사람의 뼈다귀를 다 녹인다
 너는 어떤 계집이건대 나를 종종 속이느냐
 너는 어떤 계집이건대 장부의 간장을 다 녹이느냐
 녹음방초승화시에* 해는 어이 더디 가고
 오동야월 밝은 달밤은 어이 쉽게 가시고
 일월무정* 덧없도다 옥빈홍안이 공로*로다
 우는 눈물 받아 내면 배도 타고 가련마는
 지척동방* 천 리라고 어이 그리 못 오던가

[A]

[B]

[C]

- * 노방시매오후과요 문전학중선생류: 은퇴 후 전원에서 한가히 사는 것을 이르는 표현.
- * 녹음방초승화시에: 우거진 나무 그늘과 꽃다운 풀이 한창인 때에.
- * 일월무정: 해와 달이 무정함. 곧 세월의 덧없음을 표현.
- * 공로(空老): 헛되이 늙음.
- * 지척동방: 식 가까운 곳에 있는 침실.

■ 핵심 정리

- 주제 : 춘향과 이 도령의 만남과 이별 후 춘향의 슬픔
- 구성
 1~10행 : 춘향이 이 도령에게 자기 집을 알려 줌.
 11~13행 : 춘향에 대한 이 도령의 연정
 14~18행 : 이 도령과 이별한 후 춘향의 고독과 슬픔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판소리 「춘향가」의 일부분을 노래로 만든 조선 후기 십이잡가의 하나이다. 「춘향가」에서 관객들이 애호하는 부분인 춘향과 이 도령이 만나는 기쁨 대목과 이별 후 춘향의 슬픔 대목을 조합하여 「춘향가」의 정서적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춘향가」의 인기 대목들을 선택적으로 축약, 변형했기 때문에 내용 전개상 논리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 수능 Tip

- 소재의 상징성을 파악한다.
 - ‘시매고후과’의 대목은 춘향이 비록 기생의 딸로 태어났지만 양가집 규수 못지않게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스스로 지조를 지키면서 자라온 지고지순한 성품을 은연중에 나타냄
 - 춘향이 살고 있는 정원의 ‘대나무’는 사군자 중 하나로 예로부터 선비들의 대바르고 고상한 품성을 상징하는 식물로, 훗날 춘향이가 절개를 지키면서 모진 고난을 이겨 낸다는 암시임
- ‘춘향가’의 해당 부분과 비교하여 이해한다.

퇴령소리 길게 나니 도령님이 좋아라고, “이에 방자야.” “에이.” “청사초롱 불 밝혀 들어라. 춘향집을 어서 가자.” 방자를 앞세우고 춘향집을 건너갈 제, 험로진간 너룬 길은 운간월색 희롱하고, 화간의 푸른 버들, 경치도 장히 좋다. 춘향집을 당도허니 좌편은 청송이요, 우편은 녹죽이라. 정하의 쉼은 반송 광풍이 건 듯 불면 노룽이 굶니난 듯. 딸 지키는 백두룸은 사람 자취 일어나서 나래를 땅으다 지르르르르 끌며, 뚜루루루 길록 징검 징검, 알연성이 거이 허구나.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0.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장된 표현을 통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대구의 방식을 통해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 ④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⑤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 경기 지방에서 부르던 12잡가 중의 하나인 「소춘향가」는 내용상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A] 광한루에서 처음 만났을 때 춘향이 이 도령에게 자기 집을 알려 주는 부분

↓

[B] 이 도령이 춘향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부분

↓

[C] 이 도령이 한양으로 떠난 후 춘향의 심리를 드러내는 부분

- ① [A]는 화자가 춘향의 동작을 묘사하면서 시작되고 있다.
- ② [A]에서는 춘향의 집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B]에서 이 도령은 춘향에게 관심을 보이며 애를 태우고 있다.
- ④ [C]에서 춘향은 독수공방의 처지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다.
- ⑤ [C]에서 춘향은 이 도령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현실을 견디려 하고 있다.

■ 수능완성 실전편 수록 작품 정리

- 작자 미상, ‘논밭 갈아 기움매고 ~’ - (수능완성 실전편 180쪽)

논밭 갈아 기움매고 베잠방이 다임* 쳐 신들메고*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둘러매고 무림산중(茂林山中) 들어가서 삭정이 마른 쉼을
베거니 버히거니 지게에 짊어 지팡이 받쳐 놓고 새암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 부시고* 곰방
대를 툭툭 떨어 앞담배 피어 물고 콧노래에 졸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제 어깨를 추키면서 긴소리 짧은소리 하며 어이 갈꼬 하더라

* 다임: 대님. 바짓가랑이의 발회목 부분을 매는 끈.

* 신들메고: 신이 벗어지지 않도록 발에 잡아매고.

* 부시고: 다 비우고.

■ 핵심 정리

- 주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한가로운 삶
- 구성
 - 초장: 논밭에서 김매기를 마치고 산에 갈 차비를 함.
 - 중장: 산에서 나무를 한 뒤 한가롭게 오후를 보냄.
 - 종장: 석양을 바라보고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향함.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한 후, 해질녘에 노래를 부르며 집에 돌아가는 농부의 모습을 그린 사설시조이다. 작중 인물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여유로움과 흥겨움을 잃지 않고 있다. 작중 인물의 하루 일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제시되고 있다.

■ 수능 Tip

-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파악한다.
 - 한 농부의 일과를 관찰한 것을 열거법을 이용하여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진행시켜,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농부의 삶을 보여 줌
- 작품의 주제 의식을 파악한다.
 - 사대부들의 격조 높은 의식과 거리가 먼 농부들의 일상사를 있는 그대로 다룸
 - 힘들고 고된 일상 가운데서도 길고 짧은 노래로 흥을 돋우는 농부의 모습에서 소박한 서민들의 낙천적이고 풍류적인 성정을 느낄 수 있음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2. 윗글을 <보기>의 「어사용」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윗글의 종장에 있는 ‘어이 갈꼬’는 작중 나무꾼의 한탄이 아니라 농촌이나 산촌에서 나무꾼들이 부르던 「어사용」이라는 노동요의 한 구절로 추정된다. 다음은 「어사용」의 대표적인 사설이다.

이 지게나 내 등때기나 우리 둘이 동행하야 산천초목을 헤맸구나
삼베옷을 걸쳐 입고 산천초목 헤매이면서
이 등 저 등 넘어 땀기면서 좋은 땀감 귀하구나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부귀공명 누리는데
이내 팔자 무삼 죄로 지게나 내나 동행하야 이 산천을 헤매는고
배는 고파 등에 붙고 목은 말라 갈석인데 어느 개골 물 찾을꼬
가자 가자 집을 가자 갈 때는 빈 지겐데
올 때는 이 산천에 나무 한 짐 짊어지고
다리 아파 어이 가며 허리 아파 어이 갈꼬

(후렴 생략)

- ① 「어사용」의 화자가 사회적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면, 윗글의 나무꾼은 오히려 자신의 생활을 여유롭게 즐기는 것으로 묘사되었군.
- ② 「어사용」에서는 고된 노동에서 비롯되는 화자의 정서를, 윗글에서는 여러 가지 도구와 일꾼의 행위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군.
- ③ 「어사용」은 화자의 신세 한탄 위주인 데 비해, 윗글은 나무꾼이 ‘긴소리 짧은소리’와 같은 노래를 하는 등 대체로 흥겨워 하는 정서를 보여 주는군.
- ④ 「어사용」이 화자 자신의 생활과 정서를 독백적 어조로 읊조리고 있다면, 윗글은 화자가 나무꾼을 관찰하면서 그의 행위를 전달하는 어조를 유지하고 있군.
- ⑤ 「어사용」의 화자가 현재의 고통 해소를 목표로 귀가를 서두르는 태도를 보여 준다면, 윗글의 나무꾼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농사일을 염두에 두고 귀가를 꺼리고 있군.

■ 수능완성 실전편 수록 작품 정리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수능완성 실전편 260쪽)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天塹上샹 白璧玉옥京경을 엇디호야 離니別별호고 / 히 다 더 저른 날의 눈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여이고 내 스설 드러 보오

㉠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죽 혼가마는

[A] 엇단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 ㉡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러야 교타야 어즈러이 구뎡뎡디 / ㉢ 반기시는 듯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B] 누어 싱각호고 니러 안자 헤여호니 / ㉣ 내 몸의 지은 죄 죄ᄃᆞᆫ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호며 사름이라 허물호라 / ㉤ 설워 플터 헤니 造造物물의 타시로다
글란 싱각 마오 미친 일이 이서이다

님을 되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 물 ᄃᆞᆫ 얼굴이 편호실 적 몇 날일고
春춘寒한苦고熱열은 엇디호야 디내시며 / 秋秋日일冬동天塹은 뒤라셔 되섯논고
粥죽早조飯반 朝朝夕석 되 네와 ᄃᆞᆫ 세시논가 /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논고
님다히 消소息식을 아므려나 아자 호니 / 오늘도 거의로다 니일이나 사름 올라

[C] 내 므음 둘 디 업다 어드러로 가쟈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놓픈 뵈히 올라가니 / 구름은크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山山川천이 어둡거니 日日月월을 엇디 보며
咫지尺척을 모르거든 千천里리를 브라보라

출하리 물ᄃᆞᆫ 가 비길히나 보자 호니 / 브람이야 물결이야 어둥덩 된더이고
샤공은 어더 가고 뵈 비만 걸렸느니

江강川천의 혼자 서서 디는 히를 구버보니 / 님 다히 消소息식이 더욱 아득혼더이고
茅모簷檐* 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 半반壁벽靑靑燈등은 늘 위호야 불갓논고

[D]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니니 / 저근뎡 力력盡진호야 풋좁을 잠간 드니
精精誠성이 지극호야 꿈의 님을 보니 / 玉옥 ᄃᆞᆫ 얼굴이 半반이나마 늘거세라
므음의 머근 말슴 슬ᄃᆞᆫ 장 숲자 호니 / 눈물이 바라 나니 말인들 어이호며
情정을 못다호야 목이조차 메여호니 / 오던된 鷄계聲聲의 잠은 엇디 씨뎡던고
어와 虛허事스로다 이 님이 어더 간고

잠결의 니러 안자 窓창을 열고 브라보니 /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뿐이로다

[E] 출하리 식여디여 落낙月월이나 되야 이셔
님 겨신 窓창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각시님 들이야크니와 구즌 비나 되쇼셔

* 모첩: 풀의 일종인 띠로 만든 집 혹은 그 집의 처마.



■ 핵심 정리

- 주제 : 임에 대한 그리움. 연군(戀君)의 정
- 구성
 - 1~13행 : 임과 이별한 사연
 - 14~20행 : 임에 대한 걱정
 - 21~34행 : 임의 소식에 대한 기다림
 - 35~45행 : 꿈속에서 임과 재회한 후 잠에서 깬.
 - 46~48행 : 죽어서라도 임과의 사랑을 이루고자 함.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정철이 전라남도에서 은거할 때 지은 작품으로, 정철의 또 다른 작품인 「사미인곡」과 더불어 문학적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었다고 평가받는다. 두 여성 화자의 문답을 통해 임과 이별한 상황에 대한 슬픔, 임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내는데, 임을 향한 이 같은 애정은 곧 임금을 향한 신하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

■ 수능 Tip

-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 연군(戀君)의 뜻을, 임을 이별한 여인의 심정에 의탁하여 표현함
 - 두 여인이 주고받는 대화체로 이루어짐
 -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화자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함
- 전개 방식의 특징을 파악한다.
 -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함
 - 한 여성이 서러운 사연을 길게 토로하는 것에 대해 상대 여인은 아주 짧게 개입함으로써 단락을 매듭짓고 전환하는 방식으로 전개됨
- 화자의 성격을 파악한다.
 - 갑녀 : 을녀의 하소연을 유도함. 작품의 전개와 종결을 위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함. 보조적 위치의 화자. 작품에서는 주로 청자의 역할을 담당함. 작품의 결말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
 - 을녀 : 갑녀의 질문에 응답하며 하소연함. 작품의 주제 구현을 위한 중심 역할을 담당함. 작가의 처지를 대변하는 중심 화자.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함
 - 갑녀와 을녀 모두 작가의 분신으로,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설정함
- ‘사미인곡’과 비교하여 이해한다.

		사미인곡	속미인곡
공통점		- 화자는 천상의 백옥경에서 하계로 내려온 여성임 - 임을 간절하게 그리워하여 죽어서도 임을 따르겠다는 심정을 표현함	
차이점	내용	- 독백체로 자신의 심정 드러냄	- 화자와 보조적 인물의 대화체
	전개	-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심경을 표현	- 임에 대한 염려 속에 사계절 잠깐 언급
화자	태도	죽어서 ‘뱀나비’가 되어 임을 따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드러남	을녀 : ‘지는 달’이 되겠다는 소극적 태도 갑녀 : ‘긋은 비’가 되라 하는 적극적 태도

■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 - 2006학년도 수능

13. 윗글을 상소문이라고 가정할 때, ㉠~㉣ 중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

— < 보 기 > —

상소문은 여러 경우에 쓰는데, 그 중에는 개인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도 있다. 이 경우 사건의 전말을 밝혀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해명하거나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을 탓하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금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정치적으로 실패한 신하가 임금에게 분노나 울분을 직접 토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목소리를 빌려 자신을 불러 주지 않는 임을 그리워한다는 은유를 만들어 낸다. 이를 통해 그는 임금에 대한 분노나 울분 대신 자책과 자탄을 표현한다. 「속미인곡」은 정철이 당쟁의 와중에 정치적 반대파의 탄핵을 받고 낙향해 있던 시절에 여인의 목소리를 빌려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 작품이다.

- ① [A] : ‘군뜻’이 전혀 없이 교태를 부렸다는 것은 정치적 반대파가 탄핵의 명분으로 삼았던 작가의 행동이 임금을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군.
- ② [B] : 임금과의 이별에 대해 한편으로는 자책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물의 탓’으로 그 책임을 돌림으로써 울분의 정서를 은폐하고 있군.
- ③ [C] : ‘구름’과 ‘안개’ 등으로 상징화된 정치적 반대파가 임금이 ‘일월’이나 ‘천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판단을 오도하는 사태에 대한 걱정을 보여 주는군.
- ④ [D] : 임금과의 재회라는 신하로서의 소망을 ‘꿈’을 통해 성취하였으나 그것이 역설적으로 꿈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그 소망 실현의 난점을 말해 주고 있군.
- ⑤ [E] : ‘낙월’이 되어 임금을 비추는 것으로서 실제적인 재회를 대신하는 상상적 장면을 통해, 임금과의 이별로 인해 현재 신하로서 겪는 극심한 고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현 대 소 설

1 EBS 교재에 수록된 현대소설 한눈에 보기

교재	작품	쪽
수능특강 <문학>	김유정, '동백꽃'	12~13
	이청준, '눈길'	18~19
	이광수, '무정'	134~137
	이태준, '달밤'	138~141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142~144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145~148
	이미륵, '압록강은 흐른다'	149~151
	황순원, '카인의 후예'	152~154
	안수길, '제3인간형'	155~157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158~160
	이호철, '큰 산'	161~163
	전상국, '우상의 눈물'	164~166
	이문구, '관춘수필'	167~169
	임철우, '눈이 오면'	170~172
	이창동, '소지'	173~176
	김채원, '겨울의 환'	177~179
	이순원, '19세'	180~182
	김연수, '캐비닛'	183~185
	박성원, '텔리웨이의 창'	285~288
	최윤, '회색 눈사람'	302~305
수능완성 (유형편)	오상원, '모반'	15~20
수능완성 (실전편)	이호철, '탈향'	148~149
	이태준, '패강랭'	172~174
	이문구, '우리 동네 황 씨'	202~204
	이남희, '허생의 처'(고전소설 박지원 '허생전'과 엮어 출제)	227~229
	성석제, '조동관 약전'	254~255

2 모의평가 기출 현대소설 살펴보기

<6월 모의평가>

[39~41]	이호철, '큰 산'	수능특강 <문학> 161쪽~163쪽	수록된 작품의 다른 부분을 출제
---------	------------	------------------------	----------------------

3 EBS 교재와의 연계성 파악하기

6월 모의평가에는 『수능특강 ‘문학’』에 실려 있는 이호철의 ‘큰 산’이 출제되었다. 제시된 지문은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부분과는 다른 부분이었다.

수능 특강 <문학>	6월 모의평가
서술방식의 특징 이해하기	서술방식의 특징 이해하기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중심 사건 맥락 파악하기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세 문항 중 두 문항이 연계 교재와 같은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출제된 유형들이 새로운 유형은 아니었으므로 크게 까다롭지는 않았다.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작품이 출제될 때, 운문 문학의 경우에는 작품의 일부 혹은 전체가 연계 출제되어 체감 연계율이 훨씬 높은 편이다. 산문 문학의 경우에는 일부분을 겹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운문 문학에 비해서는 체감 연계율을 낮은 편이다. 그러나 연계 교재를 학습하면서 전체 줄거리나 작품의 주요 특징들을 잘 익혀둔다면 연계 교재 학습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산문 문학 파트이기도 하다.

실제 수능에서는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작가와 작품이 출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마무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출제된 작품의 주요 특징을 충실하게 평가해온 이때까지는 수능 현대소설 출제 경향에 맞추어 주요 작품들의 줄거리나 주요 특징을 정리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문학의 이론을 읽기 자료 형태로 제시하고 작품을 엮어서 출제하는 지문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작품의 주요 특징을 정리할 때는 소설 문학의 이론과 관련되는 항목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EBS 교재에 실린 현대소설 살펴보기

■ 수능특강 <문학> 수록 작품 정리

- 달밤(이태준) - (수능특강 <문학> 138~141쪽)

[앞부분 줄거리] ‘나’는 사대문 안에 살다가 성북동으로 이사를 오는데 여기에서 신문을 배달하는 황수건을 만난다. 그는 ‘나’를 허물없이 대하면서 가족 이야기, 과거에 급사*로 일하다 쫓겨난 이야기, 정식 배달원이 되고 싶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의 일에도 실속 없이 참견한다. 아내는 우둔한 그와 말을 주고받는다곤 핀잔을 주지만 ‘나’는 순박한 성격을 지닌 그가 마음에 든다. 이후 황수건은 정식 배달원이 될 것이라고 자랑하지만 얼마 후 ‘나’는 그가 보조 배달원 자리마저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하루는 나는 거의 그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 “이 선생님 께쇼?” / 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다. 반가웠다.

“선생님, 요즘 신문이 걸르지 않고 잘 옵쇼?” / 하고 그는 배달 감독이나 되어 온 듯이 묻는다.

“잘 오, 왜 그류?” / 한즉 또, / “늦지도 않굽쇼, 일쪽이 제때마다 꼭꼭 옵쇼?” / 한다.

㉠ “당신이 돌을 때보다 세 시간은 일쪽이 오고 날마다 꼭꼭 잘 오.”

하니 그는 머리를 벽적벽적 굽으면서,

“하루라도 걸르기만 해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바치지…….” / 하고 그 빈약한 주먹을 부르낸다.

“그런뎡쇼, 선생님?” / “왜 그류?”

“삼산학교에 말씀예요, 그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세게 생겼습쇼?”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쇼.” / 하니 그는 은근한 말소리로 히죽거리며,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볼라굽쇼, 운동을 합쇼.” / 한다. / “어떻게 운동을 하오?”

㉡ “그까짓 거 날마당 사무실로 갑쇼. 다시 써 달라고 졸라 뎡쇼. 아,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뎡쇼, 이 녀석이 막 불근뎡니다그려. 그래 한번 씹을 해야 할 터뎡쇼, 그 녀석이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뎡벼들 터뎡쇼…… 허.”

“그렇지, 멋모르고 대들었다 매만 맞지.” / 하니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또 은근한 말을 한다.

“그래쎄쇼, 엿저녁엔 큰 돌멩이 하나를 굴려다 삼산학교 대문에다 났습쇼. 그리구 오늘 아침에 가 보니깐 없어졌는뎡쇼.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루 굴려다 버렸는지, 뻥쩍 들어다 버렸는지 그만 못 봤거든입쇼, 제-길…….” / 하고 머리를 굽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얼 생각한 듯 손뼉을 탁 치더니,

“그런뎡쇼, 제가 온 건입쇼, 댁에선 우두*를 넣지 마시라구 왔습쇼.” / 한다.

“우두를 왜 넣지 말란 말이오?” / 한즉,

“요즘 마마가 다닌다구 모두 우두들을 넣는뎡쇼,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 법인뎡쇼.”

하고 자기 팔을 걷어 올려 우두 자리를 보이면서,

“이걸 봅쇼. 저두 우두를 이렇게 넣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습쇼.” / 한다.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러니까?” /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아, 제가 생각해 냈습쇼.” / 한다. / “왜 그렇소?” / 하고 캐니,

“뭘…… 저 아래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땡쇼. 아 삼산학교 그 녀석두 우두만 넣었다면 그까짓 것 무서울 것 없는땡쇼, 그걸 모르겠거든입쇼…….” / 한다. 나는,

㉔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 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쇼.”

하였다. 그는 좋아서 병긱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소?” /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스카이(용인) 노릇을 합쇼. 밀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빼짓이 장사를 할 땡쇼.” / 한다. / “무슨 장사?”

“아, 방학될 때까지 차미 장사도 하굽쇼, 가을부터 군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쇼.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 저를 선생들보다 낮게 치는땡쇼.”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빼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텅실텅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굽쇼.” /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㉕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실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㉖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긱거리며, /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썰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떡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 하고 끌려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돛값을 물어 주었다. 포돛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갑*을 깬 듯하였다. /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 케…… 와 나…… 미다카 다메이…… 키…… 카…….”*

[A] 를 부르며 큰길에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휙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급사: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부리는 사람.

*우두: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에서 뽑은 면역 물질.

*깁: 명주실로 바탕을 조금 거칠게 짠 비단.

*사케와 나미다카 다메이키카: 일본 가요의 가사로, 우리말로로는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임.

■ 핵심 정리

- 주제 : 주변부로 밀려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못난이로 알려진 ‘황수건’이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모습을 그린 이야기로, 학교 급사, 신문 보조 배달원, 우두, 참외 장사, 포도 선물 등의 일화를 중심으로 황수건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 아둔하고 무지하지만 순박한 황수건을 바라보는 서술자 ‘나’의 연민 어린 시선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나’가 달밤에 황수건의 슬픔과 고독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존중하는 마지막 장면이 유명하다.

■ 줄거리

‘나’는 성북동으로 이사하면서 말 많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황수건을 만난다. 그는 삼산학교 급사로 일하면서 학무국 시학관을 잘못 대접한 문제로 쫓겨나고 이후 신문 보조 배달원이 되지만, 정식 배달원이 되고 싶은 소망과는 달리 보조 배달원 자리에서도 밀려난다. ‘나’의 도움으로 참외 장사를 시작하지만 곧 장마로 망치고 금실 종던 아내마저도 달아난다. 어느 날 황수건은 성북동 길에서 밝은 달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며 담배를 피우고, ‘나’는 황수건의 그런 모습을 나무 그늘에 숨어 지켜본다.

■ 수능 Tip

- 인물의 특성과 시대 상황과의 연관성을 정확히 이해한다.
 - 모자라지만 순박하고 착한 황수건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1930년대 도시 빈민들의 삶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실과 관련지어 시대적 상황이 황수건의 순수한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 인물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태도를 이해한다.
 - 독자는 황수건에게 연민을 느낀다. 이 연민은 서술자인 ‘나’의 시점에 숨겨진 애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현재의 신문 배달원과 수건이 비교되는 내용을 보니 수건의 일숨씨가 아무지지 못했군.
- ② ㉡: 급사가 다시 되기 위해 수건이 계획한 내용을 보니 수건은 어리석은 인물이군.
- ③ ㉡: 수건의 우둔한 말에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에서 수건에 대한 ‘나’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④ ㉡: 장사 밑천을 대 준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것을 보니 수건은 이해타산적인 인물이군.
- ⑤ ㉡: 금실이 괜찮았던 아내마저 도망간 수건의 불행한 삶을 보니 연민이 느껴지는군.

2. 윗글의 [A]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아비가 받았던 아이를 구덩이 둔덕에 털썩 놓아 버린다.
 비는 한결같다. 산골짜기에는 물소리뿐 아니라, 개구리, 땃뽕이 그러고도 무슨 날짐승 소리 같은 것도 난다.
 아이는 세 번째 들여다볼 적에는 틀림없이 죽은 것 같았다. 다시 구덩이 바닥에 물을 쳐내었다. 가마니를 한끝을 깔고 아이를 놓고 남은 한끝으로 덮고 흙을 덮었다.
 황 서방은 아이를 묻고, 고무신 한 짝을 잃어버리고 찢름거리며 권 서방의 뒤를 따라 한길로 내려왔다.
 아직 하늘은 트이려 하지 않는다.
 “섰음 뭘 허나?”
 황 서방은 아이 무덤 쪽을 쳐다보고 멍청히 섰다.
 “돌아서세, 어서.”
 “예가 어디쯤이지.”
 “그까짓 건…… 고무신 한 짝이 아깝네만…….”
 “…….”
 “가세 어서.”
 황 서방은 아이 무덤 쪽에서 돌아서기는 했으나 권 서방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권서방이 쫓아와 붙든다.

- 이태준, 「밤길」

- ① [A]에서 ‘나’는 말을 걸지 않음으로써, <보기>에서 권 서방은 말을 건넬으로써 상대방에게 마음을 쓰는군.
- ② [A]는 ‘불빛 없는’ 길을 통해, <보기>는 ‘찢름거리며’ 걷는 길을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③ [A]는 ‘노래’를 부르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통해, <보기>는 ‘무덤 쪽’을 보고 위치를 묻는 행위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군.
- ④ [A]는 ‘달빛’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보기>는 ‘소리’들의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사건의 비극성을 부각하는군.
- ⑤ [A]와 <보기>는 모두 시간적 배경을 밤으로 설정하고 있군.

■ 수능특강 <문학> 수록 작품 정리

- 압록강은 흐른다(이미륵) - (수능특강 <문학> 149~151쪽)

나는 이른바 이 새 학교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자주 들었다. 지난가을부터는 나의 부모님도 가끔 그 이야기를 하였다. 몇 해 전에 세워진 주목할 만한 이 학교는, 시의 북쪽에 있는 직물 거리 근처에 있었으며 수많은 빛나는 유리창을 달고 있었다. 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주 이상한 것들이라고 했다. 거기서는 학생들에게 습자나 시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신학문만을 가르쳐 준다고 했다. 그 학문이란 새로운 지구의 일부에서, 서양이나 또는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들어온 것이라 했다. 이런 곳이 참으로 어느 곳에 있으며 그 학문이 무엇인가는 아무도 확실히 몰랐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학교에서는 고등 산술이며 어려운 요술을 가르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 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망쳐 놓을까 봐 두려워했다.

이 학교에 관해서 훨씬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더 좋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아버지는 어머니와 온 가족과 오랫동안 상의한 끝에 나를 일 년 동안 거기서 교육시키기로 결정했다. 나는 내 나이 열한 살에 비해 고전을 충분히 읽어 갈 수 있었다. 내가 여러 달 전에 배운 바 있는 『중용』과 『맹자』로 우선은 충분했으며 다음에 배울 책들은 내 연령에는 너무 어렵다고 했다.

새 학교에 가고 싶으냐고 물어보았을 때 나는 별로 유쾌하지 않았다. 나는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망쳐지고 싶지는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한문이며 그 밖의 한시 읽기를 좋아하였다. 나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맑고 아직도 차가운 어느 봄날 아침, 아버지를 따라 시내로 갔다. 나는 제일 좋은 옷을 입었고 어머니가 장만해 준 새 보자기에 점심을 싸서 들고 갔다. 우리는 골목을 빠져 큰길로 나갔다.

“거기서 천문학을 가르친다는 게 정말입니까?”

“그렇게 들었다.”

아버지는 대답했다.

“언제든 하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 조심스럽게 들어라. 그것은 아주 높은 학문이다.”

“제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의 영혼은 언제나 맑아야 한다.”

아버지는 진지하게 나에게 충고했다.

우리는 종로를 지나서 옆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곧 큼직한 건물의 문 앞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입에 그렇게 오르내리던 무서운 학교였다. 학교 이름이 문패에 새겨져 있었다. 나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교정을 들여다보았다.

<중 략>

어느 날 저녁, 내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교실 문 앞에서 웬 아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보다 상급생인 용마라는 아이였다.

“네가 남문 안에 사는 이 감찰 댁 아들이냐?”

그가 물었다.

“응, 그렇다.”

내가 대답하자 그는 다시 물었다.

“우리 오늘 어떤 집에 함께 가 보지 않겠니? 그 집 애를 학교에 넣도록 하려는 것인데 ……”

나는 일찍이 새 학교의 아이들이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찾아가 아이들을 새 교육으로 이끌려고 학교의 좋은 점을 늘어놓는 것을 들었다.

“송 선생님이 우리 둘을 오늘 당면으로 결정했다.”

용마는 내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저녁 먹고 곧 버들다리로 오너라. 거기서 만나자. 부모님들이 볼 수 있게 네 교과서도 몇 권 가져와야 해, 응?”

우리들이 강을 따라 걷고 있을 때에는 벌써 어두워졌다. 여울물이 저녁 빛에 곱게 빛나고 있었다.

“너 뉴턴에 관해서 아니?”

용마는 걸으면서 물었다.

“아니.”

“너는 모든 것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인력에 관해서 들은 적 없니?”

“없어.”

용마는 사뭇 놀란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 또래의 아이가 인력에 관해서 모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같았다.

“나는 지구가 해의 주변을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

“좋아, 너는 그것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또 산소에 관해 이야기해도 된다. 너는 물이 산소와 수소의 두 다른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해야 돼. 우리들 조상들은 전 세계가 음과 양 두 극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이 원칙을 개별적으로 알았지. 마치 물, 공기, 바위에서와 같이.”

그의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고 그는 자세하고 신중하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나쁜 시대가 왔다고들 말한다. 그러면 너는 분명히 말해 줘라. 그건 조금도 나쁜 시대가 아니고 새로운 시대이고, 그것은 갓 시작된 것이라고. 예를 들자면, 눈이 많은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진달래가 피고 빠꾸기가 우는 것과 같이 온다고 말이야. 나는 ‘현대’를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들이 찾아가려 한 집의 아버지는 붓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 집 바깥벽에는 붓을 판다는 큼직한 글자들이 여기저기 나붙어 있었다.

우리들이 돌층계에 이르자 마침 주전자를 손에 들고 내려오던 젊은 부인과 마주쳤다. 우리들이 이러이러해서 왔다는 것을 전하자, 그녀는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집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닫아걸어 버렸다. 몇 차례나 문을 두드렸지만 끝내 열어 주지 않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거기 서서 골짜기의 야단스러운 물소리만 듣고는 돌아왔다.



■ 핵심 정리

- 주제 : 조선 개화기 소년의 성장기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1946년 독일에서 독일어로 출판되었다. 고향에서 보낸 유년 시절에서 시작하여 독일에 유학 오기까지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는 자전적 소설이다. 개화기부터 3·1 운동 사이를 배경으로 작가가 직간접적으로 겪은 역사적 사건들과 그 사이사이로 사촌들, 아버지, 어머니와 겪은 개인적인 경험들이 간결하지만 따뜻한 필체로 쓰여 있다. 이러한 두 축이 교차되면서 작품은 개인의 성장 과정을 담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역사적·전통적 상황도 담았다는 의의를 지닌다. 작품은 독일에서 인정을 받았으며, 독일 교과서에 실려 읽히기도 했다. 작가 사후, 작품의 속편으로 「그래도 압록강은 흐른다」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작가가 독일에서 대학 생활을 해 나가는 모습을 서술한 것이다.

■ 줄거리

‘나’는 사촌들과 함께 장난을 치기도 하고, 서당에서 한학도 공부하며 어린 시절을 보낸다. 아버지의 권유로 새 학교에 다니며 서양식 교육을 받던 중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잠시 학교 공부를 멈추게 된다. 이후 학업에 대한 뜻을 포기하지 않고 서울에서 의학 전문학교에 입학하여 의학 공부를 하게 된다. 3·1 운동이 일어나자 ‘나’는 동료 학생들과 항일 운동에 참여하고, 이후 상해로 망명길에 오른다. ‘나’는 배를 타고 다시 독일로 가고, 독일에 도착하여 어머니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는다.

■ 수능 Tip

- 한국문학의 범위와 특성에 관해 이해한다.
 - 소설가 이미륵은 황해도 해주 출생으로, 1919년 3·1운동에 가담했다가 일본 경찰에 수배되어 상해와 프랑스를 거쳐 1920년 독일로 망명하였다. 1931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1946년 ‘압록강은 흐른다’라는 자전 소설을 발표하였고 동양의 전통적 정서와 서정을 담백하게 그려 내어 독일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 독일어로 처음 발표된 이 작품은, 한국의 풍습 그리고 인정(人情)을 서정적인 필체로 그려 독일에서도 미문(美文)으로 평가받은 작품이다. 주인공 ‘나’의 유년기 체험에는 한국의 전통적 윤리와 민속성이 잘 묘사되어 있으며, 청년기 이후의 체험에는 한국인으로서 외부 세계와 서양 학문을 체험하면서 느끼는 충격과 호기심 등이 나타나 있다. 한국문학의 외연을 넓힌 작품으로, 세계화된 한국 문학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작품이다.
- 작품에 나타난 성장 서사의 특징을 이해한다.
 - 이 작품은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의 격변기를 살았던 한 인물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다. 격변기를 살아가는 인물의 심리 변화와 새로운 경험이 잘 드러나 있는데, 작품의 특정 부분을 제시하고 그 부분의 상황이나 인물들의 관계, 인물의 심리 등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나타난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윗글은 ‘신식 학교’라는 제목이 붙은 장(章)의 일부이다. 이 장에서는 ‘서양’이라는 외부 세계에서 들어온 ‘신식 학교’라는 시대 현실의 변화와 이를 대하는 여러 인물의 다양한 반응이 그려지고 있다. 전통적인 안온한 공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던 어린 주인공(‘나’)은 이러한 현실의 변화에서 불안을 느끼며 긴장을 하게 된다.

- ① 전통적인 고전을 읽고 한문과 한시를 좋아하는 ‘나’에게 ‘새 학교’ 입학은 불안을 느끼게 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 ②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용마는 당대 현실의 변화를 ‘새로운 시대’로 생각하면서 신학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③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의 아버지는 새 학교에서 가르치는 새로운 학문에 대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입학을 권유하였다.
- ④ 새 학교에 가고 싶으냐는 물음에 ‘나는 별로 유쾌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신식 학교인 새 학교를 대하는 ‘나’의 불안한 내면이 노출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 ⑤ 사람들이 새 학교에서 고등 산술이나 어려운 요술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것은 신학문에 대해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크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수능특강 <문학> 수록 작품 정리

- 카인의 후예(황순원) - (수능특강 <문학> 152~154쪽)

“아바진 또 요새 왜 그러우?” / “글쎄 말이다.”

“오마니가 좀 말을 해요.” / 어머니가 놀라는 눈을 이리 돌렸다.

“요새 아버지가 박 선생한테 너무해요. 디나간 일두 생각해야디 나빠요. 이제 토디 개혁인가 뭔가 된다구해서 그럴 수가 있이요? 오마니가 좀 말을 해요. 오마닌 왜 아버지한테 말한마디 못 하구 삼네까?”

오작녀 아버지 도섭 영감은 이십여 년 동안이나 훈네 토지를 관리해 온 마름이었다. 그동안 웬만한 지주 못지않게 잘살아 왔다. 그것이 요즈음 토지 개혁이란 걸 앞두고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달라진 것이었다. 그게 오작녀에게는 못마땅했다.

딸의 말에 오작녀 어머니의 눈이 더 놀라고 겁먹어 갔다. 이 애가 어찌자고 갑자기 이런 소릴 해 쌓는지 모르겠다. 가만있지 못하고, 이 애가 이러다간 집안에 큰 풍파를 일으킬라.

“그리구 또 삼득인…….”

오작녀 어머니의 손이 가늘게 움직였는가 하자, 손은 그대로 있는데 바느질감만이 무릎에서 흘러 떨어졌다.

“가만!” / 그러고는 떨리는 손길이 딸의 팔을 와 붙들며 나직한 말로,

“아바지다!”

오작녀도 그만 흠칫하고 귀를 기울였다. /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바지야!”

어머니가 다시 숨소리만으로 속삭였다. / 수십 년 같이 살아오는 동안, 이 여인은 이처럼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남편의 인기척을 알아듣는 것이었다. / 좀 만에 과연 뜰로 들어서는 인기척이 들렸다. 오작녀는 저도 모르게 홀 일어섰다. 그러고는 문고리를 잡고 생각난 듯이,

“삼득이 들어오른 널 바주* 위게스리 좀 보내 주우.”

그러나 어머니는 그저 바느질감만 뒤적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금 자기네가 나타나고 있는 낮빛을 남편에게 눈치채이지 않기 위한 몸짓이기도 했다.

오작녀는 섬돌에 올라선 아버지와 어졌다. 고개를 수그린 채 충충걸음을 쳤다.

문득 좀 전에 어머니한테 한 말이 후회되었다. 정작 어머니가 아버지더러 무슨 말을 해서 풍파라도 일어나면 어쩌나. / 그러나 다음 순간 오작녀의 가슴속에는 좀 전 어머니한테 말할 때보다도 더 굳센 어떤 탄 힘이 머리를 들고 일어섬을 느꼈다. 무슨 일이 있든 한 번은 벌어진 일이다. 아버지가 나쁘다. 아버지가 박 선생에게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삼득이도…….

[중략 부분 줄거리] 농민 대회가 열리고 박훈의 숙부이자 지주인 박용제 영감은 재산을 빼앗기고 면인민위원회에 끌려간다. 박훈 역시 같은 위기에 놓이는데, 오작녀가 박훈과 부부가 되었다고 말하여 박훈을 구해 준다.

도섭 영감은 비석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비석과 정면으로 마주 섰다.

일찍이 이 훈의 할아버지의 송덕비는 도섭 영감 자신이 감독하여 지대를 닦는다, 콘크리트를 한다, 하여 세운 비였다. 그때도 그는 이렇게 정면에 서서 비가 면바로 섰는가 어쨌는가를

몇 번이나 겨냥해 본 것이었다.

지금 그가 이 비석과 정면으로 마주 섬은 그때와는 다른 것이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대번에 이 빗돌을 넘어뜨릴까 하는 노림인 것이다.

도섭 영감의 숨결이 거칠어졌다. 눈썹꼬리가 몇 번이고 피끗거렸다. 마침내, 예잉! 하는 소리와 함께 도끼가 후려쳐졌다.

비석 한중동이 헤썩하게 금이 가더니 뒤로 나가떨어졌다.

그 메아리 소리가 들려왔다.

또 한 대 후려쳤다. 또 한 대 후려쳤다. 모주리 때레썩에라! 모주리 때레썩에라! 도끼가 내릴 적마다 비석은 돌가루를 뿌리면서 부서져 나갔다.

이 소리에 칠성이 어머니가 밖을 내다보고는 깜짝 놀라,

“여보, 오작네 아반이 비석을…….”

아까부터 윗목에 무릎을 안고 앉아 담배만 빨고 있던 칠성이 아버지가 아내의 등 너머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심상한 빛이었다. 그는 오늘 이보다 더 놀랍고 무서운 사실을 몸소 보고 듣고 한 것이었다.

“제발 당신 오늘은 밖에 나뎡기디 마소.”

도섭 영감은 비석 밑동까지 다 때려 부수자 이번에는 맨 처음에 넘어뜨린 빗돌 윗동강을 또 몇 조각이고 내리쳐 부수는 것이었다. 꼭 무엇에 취한 사람 같았다.

그 일도 다 끝나자 도섭 영감은 붉어진 눈으로 자기 둘레를 한번 훑어보고는 획 훈네 집 쪽을 향해,

“독사를 찍일래든 깨개 찍에야 한다야!”

그 소리가 메아리가 돼 돌아왔다. 그러고는 조용해졌다.

칠성이 어머니가 살그머니 다시 밖을 내다보더니,

“여보, 오작네 아반이 갔나 뵈다. 나가서 어디 방칫돌감이나 하나 있나 보소.”

그네는 좀 전부터 그걸 궁리하고 있던 것이었다. 다듬이질할 적마다 분디나못집 할머니한테 가야만 하는 것이었다.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이런 때 다듬잇돌을 하나 장만한다면 오죽 대견하랴. 더구나 저 비석돌이면 면판이 얼음처럼 매끄러운 다듬잇돌이 될 게라.

칠성이 아버지는 잠자코 담배만 빨고 있었다. 아까 용제 영감네 집에서 여자 고무신 한 켤레 집어 온 것만도 속이 개운치 않은 것이었다.

“여보, 어서 다른 사람이 주워 가기 전에 나가 보소.”

벌써 좀 전에 남편더러 오늘은 제발 밖에 나다니지 말라고 한 말 같은 건 잊고 있었다.

칠성이 아버지는 그냥 잠자코 담배만 빨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었다. 저 부서진 비석들은 고무신과는 다르다. 저건 벌써 비석이 아니고 그저 보통 돌맹인 것이다. 흔히 굴러다니는 돌맹이처럼 누가 주워 가도 좋은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 주워 와도 상관없지 않은가.

일어서 밖으로 나갔다. 그중 제일 큰 비석 조각을 하나 집어 들었다. 글자가 많이 새겨져 있어 다듬잇돌로는 마땅치 않았다. 반반한 놈을 골라잡아 보면, 그건 또 좀 작아서 마음에 안 들었다. 이왕 깨 놓으려면 좀 쓸 만하게 깨 놓지 않고 이게 뭐람.

*바주: ‘바자’의 방언. 대, 갈대, 수수깡, 싸리 따위로 발처럼 엮거나 결어서 만든 물건. 울타리를 만드는 데 쓰임.



■ 핵심 정리

- 주제 : 광복 직후 우리 민족의 분열과 남녀의 순수한 사랑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1953년에 연재되다가 중단되고, 이후 1954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광복 직후 북한에서 있었던 토지 개혁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국가 권력이 폭력적으로 사회를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파탄 나고, 일제 강점기 지주계급이었던 사람들이 탄압받는 상황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런 사회상과 대조적으로 지주 계급 출신인 박훈과 그의 집에서 마름을 하던 도섭 영감의 딸 오작녀 사이의 순수한 사랑과 교감을 그리고 있다.

■ 줄거리

평양에서 공부하던 박훈은 지주 계급이고, 도섭 영감은 이십여 년 동안 박훈의 집안 토지를 관리한 마름이다. 박훈은 고향에서 청년들을 위해 야학을 운영하고, 도섭 영감의 딸인 오작녀는 결혼을 하였지만 남편과 떨어져 그의 집에 기거하며 살림을 돕는다. 해방이 되면서 북한에 들어선 세력은 토지 개혁을 단행하며 지주 계급을 탄압하고, 박훈의 야학도 문을 닫게 된다. 도섭 영감은 마름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덮기 위해 토지 개혁 운동에 앞장서면서 박훈과 오작녀와 대립하게 된다. 농민 대회가 열리고 윤 주사와 박훈의 삼촌인 박용제는 숙청을 당하지만 박훈은 오작녀가 자신들이 부부 관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모면한다. 이 사실을 들은 도섭 영감은 분노하여 자신이 적극 나서서 세웠던 박훈의 할아버지 송덕비를 도끼로 때려 부순다. 한편 숙청을 당했던 박용제는 끌려간 탄광에서 탈출하여 마을로 돌아오지만 결국 트럭에서 몸을 날려 자살한다. 그리고 도섭 영감은 자신의 아들 삼득이가 박용제의 뒤통자를 파 주었다는 이유로 농민 위원장 자리에서 숙청된 후, 낫을 들고 박훈에게 달려든다. 박훈은 도섭 영감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고, 도섭 영감은 이에 낫을 휘두르나 항상 박훈의 신변을 걱정해 미행해 오던 삼득이가 이를 저지하다가 상처를 입는다. 도섭 영감은 삼득이와 실랑이를 하다가 살의를 버린다. 삼득이는 박훈에게 오작녀를 데리고 빨리 떠나라고 말하고, 박훈은 오작녀와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 수능 Tip

- 작품의 구조와 흐름을 파악한다.
 - 이 소설의 구조는 크게 두 개의 이야기 축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다. 하나는 토지 개혁을 둘러싸고 지주의 숙청, 인심의 변화 등 급박하고 혼돈스럽게 돌아가는 당시 현실의 반영이요, 다른 하나는 주인공인 지식인 박훈의 시대 변화에 대한 태도와 사랑의 이야기이다. 작가는 이 두 이야기 축을 전자는 사실적으로 후자는 낭만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한 시대의 모습을 반영함과 동시에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축의 중심에는 박훈이 놓여 있다.
- 제목의 의미를 이해한다.
 - ‘카인’은 하느님이 창조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의 두 아들 중 맏이로서, 아우인 아벨을

죽임으로써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인물이다. 따라서 ‘카인의 후예’란 최초의 살인자이며 형제를 질투하고 증오한 카인의 피를 받은 후손이라는 뜻이다. 박훈의 고향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념의 도입으로 서로 질투하고 증오하며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이들은 악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변모하며 소유욕에 사로잡혀 탐욕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 타락한 인간의 습성을 보여 준다. 그것은 형제와 다름없는 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박훈의 고향 마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삼팔선 이북 지역 전체에서 일어난 일이며, 나아가 삼팔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우리 민족 안에서 빚어진 질투, 증오, 살인인 것이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 작품은 북한의 토지 개혁을 배경으로, 국가 권력이 민족 구성원을 둘로 가르면서 폭력적으로 사회를 재편할 때 벌어지는 상황을 보여 준다. 마름이던 도섭 영감은 일제 강점기에 지주인 박훈의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해방 후 토지 개혁이 시작되면서 박훈이 잠재적 죄인으로 지목되자, 도섭 영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박훈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한다. 도섭 영감의 딸 오작녀는 박훈과 이전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기에, 도섭 영감과 오작녀는 갈등을 빚게 된다.

- ① 도섭 영감에 대해 ‘디나간 일두 생각해야디 나빠요.’라는 오작녀의 말에서 오작녀는 박훈과의 이전 관계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마름을 하며 ‘웬만한 지주 못지않게 잘살아 왔다.’라는 것을 통해 도섭 영감이 일제 강점기에도 자신의 이익을 좇으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③ ‘낮빛을 남편에게 눈치채이지 않’으려는 오작녀 어머니의 행동에서 남편과 딸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오작녀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군.
- ④ ‘송덕비’는 박훈의 집안과 친밀했던 지난날을 환기하는 것으로, 이를 도끼로 후려치는 것에서 도섭 영감이 박훈과의 이전 관계를 끊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⑤ 도섭 영감이 ‘자기 들레를 한번 훑어보고는 획 훈네 집’을 향해 ‘독사’라고 외치는 것에서 도섭 영감이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박훈을 죄인으로 지목하였음을 알 수 있군.

■ 수능특강 <문학> 수록 작품 정리

- 제3인간형(안수길) - (수능특강 <문학> 155~157쪽)

일정한 수입이, 그것도 제달 제달에 꼬박꼬박 약속되는 것이 대견한 일이었다. 그리고 마음과 생활을 가다듬어 무얼 여유 있게 생각하고 내키지 않는 잡문을 끼적거리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쓰고 싶던 것을 마음먹고 쓸 수 있다고, 영도 어귀에 떠 있는, 어떤 때에는 주전자같이 보이기도 때로는 전진하는 탱크같이도 보이는 섬을 내다보며, 가슴을 쪽 벌려 크게 호흡도 하였다.

그러나 여름과 겨울, 방학이 두 번이나 지났고, 이제 학년 말도 몇 주일 남지 않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석은 한 편의 작품도 이룩하지 못하였고, 아쉬운 때 끼적여 들고 나가 돈과 바뀔 오던 잡문 하나도 쓸 여유가 없었다. 교편생활이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자질구레한 잡무가 꼬리를 물고 그칠 줄 몰랐다.

아이들과 아귀다툼하는 일, 수업은 하루에 세 시간밖에 되지 않았으나, 스물네 시간 전 신경이 아이들 하나하나에 쓰여지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거기에 석의 집은 걸어서 한 시간 반, 그것도 전차나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반지빠른* 위치에 있었다. 판자 울타리 너머에 꽃 한 포기 볼 수 없는 삭막한 길, 더욱이 비 오는 날이면 발목을 넘는 진창길을, 아침이면 눈을 비비며 걸어갔다가 저녁이면 어두컴컴해서야 돌아오게 되는 석은, 피로에 지치어 밤이면 푹아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한가하게 무얼 생각할 여유나, 팽팽한 마음으로 책상을 대하여 원고지 빈칸을 메울 육체와 정신적 기력이 없어졌다.

나른한 몸과 안개 낀 머리를 채찍질하여 책상을 대해 앉았다가는, 펜 권 손가락에 맥이 저절로 풀려지고 눈꺼풀이 스스로 덮여질 때, 석은 모른다 하고 자빠져 누우면서 중얼거렸다.

“교육도 사내의 보람 있는 일이거니, 차라리 훌륭한 교육자가 되자!”

그러나 교육자로서 석은 아직 애송이였다. 아니 엑스트라의 자격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니, 또 이십 년, 마음의 지주였고 생활의 목표였던 그 길을 이제 일조에 분필로 바꾼다는 것이 자신을 배반하는 일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이 제 자신에 충실하여 학교를 그만둔다면 또 그나마도 생활의 방편이 막히는 것이었다. 직업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자신에도 엉거주춤하고 이러한 자책의 채찍을 맞으면서, 석은 점심밥 그릇과 원고지 권이 함께 들어 있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벌써 십여 개월 날마다 삭막한 통근 코스를 흐리터분한 분위기 속에 학교에 왔다 갔다 하였다. 초조감만 북돋아졌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공허해 간다. 그리고 안일을 탐하여 현실과 타협하려고 들었다.

허탈한 마음으로 학교 주위의 바다 풍경을 즐기고, 이레 만에 찾아오는 일요일을 고대하는 게으른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가 조운에게서 정신적인 위압을 느낀 것은 그의 내면이 이러했기 때문이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조운은 석에게 미이의 편지를 보여 준다. 6·25 전쟁 전 가난한 문학도였던 조운은 전쟁이 터지자 처가에 숨어 지내며 세상의 추악한 면을 목도한다. 이후, 작가 생활을 포기하고 운수업을 하여 큰 성공을 이룬 조운은 우연히 부산역 앞에서 미이를 만난다. 미이

는 전쟁 전 조운을 따르던 부유한 가정의 문학소녀인데, 전쟁으로 집안이 파산한 후 부산에서 취직자리를 구하는 중이라고 조운에게 말한다.

이튿날부터 부산에서의 새 사업 계획에 분망한 틈을 타서, 나는 미이를 하루 한 번씩은 만났고, 그의 판잣집에도 찾아가 보았네. 그 생활이란 말이 아니네. 꿈쩍 못 하고 누워 있는 미이 아버지의 얼빠진 모양, 고생 모르고 늙던 어머니의 목판 장사 하는 정경.

나는 미이의 가족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했네. 그러나 미이와 자주 만나는 사이 처음 순수했던 생각보다도 야심이 더 앞을 섰다는 것을 고백하네. 술과 계집이 마음대로였던 내 생활이라, 미이에 대해 밖으로 나타나는 태도도 좀 다르다고 미이 자신이 눈치 챘을 것일세.

나는 다방을 하나 차려 줄 것에 생각이 미치었네. 이것이면 내 힘으로 자금 유통도 되고, 미이의 명랑성도 센스도 살릴 수 있고, 수입 면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네. 이 계획을 말했더니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듣고, 얼굴에 희망의 불그레한 홍조까지 떠올리던 미이였으나, 다음 날 오 일간의 생각할 여유를 달라는 것이었었네. 더 생각할 여지도 없는 일일 터인데 망설이는 것이 수상쩍었으나, 그러마 하고 나는 동아극장 옆에 있는, 마침 물려주겠다는 다방 하나를 넘겨 맡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었네. 그 닻새 되는 날이 오늘이고, 정한 시간에 연락 장소인 다방엘 갔더니, 레지가 내민 것이 종이 꾸러미였었네. 펴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 다른 길과 달라 **간호 장교**이고 보니, 생활 방편을 위한 것이 아님이 대뜸 짐작이 갔고, 더욱 나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검정 넥타이였었네. 그러면 미이가 첫날 다방에서 ‘사명 운운’했던 것은 그 길을 말함이었던가? 나는 부끄럽기 짝이 없었네. 검정 넥타이를 들고 나는 비로소 삼 년 동안이나 내가 정신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었네. 미이가 말하는 그 사명을 찾는 길, 사명을 다하는 일을 나는 **사변이라는 외적인 격동** 때문에 포기하고만 것일세. 가장 잘 생각하는 체하던 나는 가장 바보같이 생각했고, 부박하다고* 세상을 모른다고 여기었던 미이는 사변에서 키워졌고 굳세어졌고 올바른 사람이 된 것일세.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천야만야한 낭떠러지를 굴러 떨어지는 듯했네. 구르면서 걷어잡으려고 한 것이 친구의 구원이었네. 자네를 찾은 것은 이 때문일세…….

조운의 긴 이야기를 듣고 난 석은, 여기 올 때까지 그렇게 호기심을 끌었고 기대의 대상이 되었던 그에게 이젠 **아무런 흥미**도 가지지 않았다. 더욱이 그의 고민 같은 것은 문제도 아니었다.

석의 뇌와 마음은 강렬한 미이의 인상으로 꽉 차 있었다.

그리고 미이가 조운의 마음에 던져 준 충격 이상의 충격을 석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안주가 좋아서만이 아니었다. 그 강렬한 배갈도 석을 취하게 하지 못했다.

역시 마음이 미이로 말미암아 팽팽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운의 차로 집에 돌아와서도 석은 큰소리를 탕탕 치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다. 암전하게 자리에 들어가 가족들을 들볶지 않았다. / 그의 엄숙한 태도에 가족들은 또 술을 먹었다고 잔소리를 할 수 없었다.

자리에 드러누워 그는 생각하였다.



‘조운의 말대로 조운은 사변의 압력으로 그의 사명을 포기했고, 사변을 통하여 미이는 용감하게 시대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였다. 그러면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석은 중얼거렸다.

“사명을 포기치도 그것에 충실치도 못하고 말라 가는 나는? 나도 **사변이 빚어낸 한 타입이라고 할까?**”

*반지빠른: 어중간하여 알맞지 아니한.

*부박하다고: 천박하고 경솔하다고.

■ 핵심 정리

- 주제 : 6·25 전쟁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와 삶의 유형

■ 이해와 감상

1953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6·25 전쟁을 경험한 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삶의 방향을 ‘석’, ‘조운’, ‘미이’ 세 인물을 통해 유형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해 작가는 6·25 전쟁을 경험한 지식인의 세 개의 형(型)을 그려 보았으며, 세 번째 인물은 자신이 모델이 되었으나 이는 개인적 ‘나’가 아니라 전형으로서의 ‘나’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작가는 자신을 비롯하여 인간성이 황폐해지고 생존이 가장 큰 당면 문제가 되는 역사적 비극의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소설을 통해 제기하고 있다.

■ 줄거리

석은 작가였으나, 6·25 전쟁을 겪은 후 피란지인 부산에서 교편생활을 하고 있다. 교편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는 다시 글을 쓰기를 희망하였으나 현실에 치여 교사 노릇만 겨우 할 뿐, 글쓰기를 시작하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 전 동료 작가였다가 전쟁 때 소식이 끊기고 온갖 소문만 무성할 뿐 모습은 보이지 않던 친구 조운이 그를 찾아온다. 석은 조운이 타고 온 차에 동승하고 전쟁 이후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해 한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석은 차 안에서 궁금했던 말을 꺼냈으나, 조운은 종이 꾸러미를 꺼내며 미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이는 문학소녀였으며,家境이 부유했고, 명랑한 성격으로 조운을 따르던 제자이다. 전쟁 이후 미이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전쟁 후 사업에 성공한 조운은 우연히 다시 만난 그녀를 돕고 싶어 한다. 조운은 미이에게 다방을 차려 주겠다고 제의한다. 하지만 미이는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한다. 며칠 후 조운을 만나기로 한 날 미이는 간호 장교를 지원하여 전선으로 간다는 내용의 편지와 검정 넥타이를 담은 종이꾸러미를 다방에 남겨 두고 간다. 석은 조운 대신 미이에게 강한 인상을 받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바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 수능 Tip

- 세 가지 인간형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 이 작품은 전쟁이 빚어낸 세 가지 인간형을 보여주고 있다. ‘조운’은 문학적 신념을 가진 작가였지만, 무능한 문인의 길을 버리고 철저한 사업가로 세속화되어 버리는 인간형이다. 물론

조운은 자신이 현재 걷고 있는 삶이 자신의 정체성을 망치고 있음에 회의하고 있지만, 지금의 모습이 자신의 길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인물이다.

‘미이’는 낙천적 성격의 문학소녀였지만, 전쟁으로 인한 집안의 몰락으로 인해 고뇌에 빠져 버린다. 그러나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수용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간호장교의 길을 결단하고 떠난다.

‘석’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작가의 길에 대한 미련 사이에서 확실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무료한 시간과 회의에 젖어 피곤한 삶을 사는 인물이다. 조운과 미이는 서로 반대 방향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삶의 길을 선택한 데 반하여, 석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제3인간형’인 것이다. 이런 모습의 ‘석’은 당대의 지식인의 한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어떤 일이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의미 찾기가 무시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강요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을 찾고 이를 행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생존을 유일한 목표로 삼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던 가치들을 부정하는 변화를 겪는다. 그리고 이 두 부류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현실에 적당히 안주하며 의미 있는 일을 고민하기도 하면서 우유부단하게 살아간다. 안수길은 소설을 통해 이 유형들을 보여 주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지고 있다.

- ① ‘제달 제달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일정한 수입’은 석이 교편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교편생활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군.
- ② ‘사변이라는 외적인 격동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포기한 조운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던 가치들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군.
- ③ 부박하고 세상을 모르던 미이가 ‘간호 장교’를 선택한 것은 이전과 달리 미이가 가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한 것을 보여 주는군.
- ④ 석이 조운의 이야기에 ‘아무런 흥미’가 생기지 않는 것은 조운의 삶이 자신에게 우유부단함을 버릴 것에 대해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군.
- ⑤ 석이 자신을 돌아보며 ‘사변이 빚어낸 한 타입이라고 할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조운처럼도 미이처럼도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드러내는 것이군.



■ 수능특강 <문학> 수록 작품 정리

- 서울 1964년 겨울(김승옥) - (수능특강 <문학> 158~160쪽)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서 거리로 나왔다. 적막한 거리에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몹시 춥군요.”라고 사내는 우리를 염려한다는 음성으로 말했다.

“추운데요. 빨리 여관으로 갑시다.” 안이 말했다.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여관에 들어갔을 때 안이 우리에게 말했다.

“그게 좋겠지요?”

“모두 한방에 드는 게 좋겠지요.”라고 나는 아저씨를 생각해서 말했다.

아저씨는 그저 우리 처분만 바란다는 듯한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 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 더 좁았던 셈이었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 말했다.

“난 지금 아주 피곤합니다.” 안이 말했다. /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놀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라고 안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안이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안이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예?” 나는 잠이 깨듯이 깨어 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역시…….” 나는 말했다. /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린 빨리 도망해 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살이지요?”

“물론 그것이었죠.”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밖의 이른 아침에는 싸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

서 떨어져 갔다.

“난 그 사람이 죽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안이 말했다.

“난 짐작도 못 했습니다.”라고 나는 사실대로 얘기했다.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의 깃을 세우며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 했는데…….” 내가 말했다.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

“씨팔것,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 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고는 짐작도 못 했다니깐요. 씨팔것,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안은 눈을 맞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췄다. 나도 그를 따라서 멈췄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김 형, 우리는 분명히 스물다섯 살짜리죠?”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두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 번 갸웃했다.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내가 물었다.

“그 뭔가가, 그러니까…….”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늙어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린 이제 겨우 스물다섯 살입니다.” 나는 말했다.

“하여튼…….” 하고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하고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마침 버스가 막 도착한 길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버스에 올라서 창으로 내다보니 안은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무언지 곰곰이 생각하고 서 있었다.

* 자리끼: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

■ 핵심 정리

- 주제 : 현대 도시인들의 심리적 방황과 인간적 연대감의 상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일면식도 없던 세 남자가 우연히 만나 하룻밤을 보내면서 벌어지는 일을 서술하고 있다. 이들은 피상적이고 단절된 인간관계, 고독과 소외 등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이러한 주제 의식 외에도 도시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감각적인 시선과 문체 또한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다.

■ 줄거리

‘나’는 ‘안’이라는 대학원생을 우연히 포장마차에서 만나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신다. 그런 둘에게 낯선 사내가 다가와 함께하기를 부탁하는데, 사내는 오늘 아내가 죽어 아내의 시신을 병원에 팔았다고 한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다. 세 사람은 소방차를 따라가 불구경을 하는데, 사내는 아내의 시신을 팔고 받은 돈을 불 속으로 던지고 ‘나’와 ‘안’에게 오늘 밤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한다. 세 사람은 여관으로 가고, ‘안’의 제안으로 각자의 방에 들어가 밤을 보낸다. 다음 날 아침, 사내가 자살한 것을 확인한 ‘안’은 ‘나’를 깨우고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여관을 나와서 헤어진다.

■ 수능 Tip

- 작품의 문학사적 의미와 가치를 이해한다.
 - 이 작품은 1960년대적 의식의 방향을 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1950년대의 도덕주의적 엄숙성을 지닌 문학의 경향에서 탈피하여 도시에서 소외당한 현대인의 고독과 비애, 그리고 고립을 그리고 있다. 우연히 만난 세 사나이의 비현실적 대화와 행동을 통해 전망 없는 세계에 처한 삶의 부조리성을 드러내고 있다. 소위 4·19세대가 일으킨 ‘감수성의 혁명’의 맨 앞자리에 놓이는 김승옥 문학의 대표작으로, 감각적이며 유희적인 문체가 인간관계의 단절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람 대 사람의 진정한 자아로서의 만남이 불가능해진 현대사회의 어두운 뒷모습을 ‘의도된 어색함의 상황’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소설은 1964년 겨울, 서울을 배경으로 세 인물의 만남과 헤어짐을 그리고 있다. 피상적인 관계 맺기로 인한 무의미한 만남과 헤어짐은 방관자적 태도, 이기심, 단절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들은 끝내 소외를 극복하지 못하는데, 소설은 고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극단적인 선택 또한 보여 주고 있다.

- ① 한방을 쓰자는 제안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나’는 타인에 대해 방관자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군.
- ② 혼자 있기 싫다는 ‘사내’에게 방을 따로 쓰자고 하는 ‘안’은 현대인의 이기적인 면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 ③ 따뜻한 인간관계를 바랐으나 끝내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던 ‘사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④ ‘사내’의 죽음을 확인한 후 ‘나’와 ‘안’이 도망을 가는 것은 그들의 관계가 피상적인 것이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 ⑤ ‘나’와 ‘안’이 서로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은 ‘사내’의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단절된 관계의 극복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수능특강 <문학> 수록 작품 정리

- 눈이 오면(임철우) - (수능특강 <문학> 170~172쪽)

그는 그 녀두리 섞인 홍타령을 기억하고 있었다. 잣고개 아래 비탈진 콩밭에서 김을 매거나, 마을 앞 개울가에서 빨래를 할 때면 어머니의 입에서는 늘 그렇듯 분명치도 않은 낮은 흥얼거림이 청승맞게 흘러나오곤 했었다. 그런데 그의 뇌리에서 벌써 아득한 옛날에 지워져 버렸던 그 홍타령을 그는 지금 서울 한복판 비탈진 산동네의 콘크리트 마당에서 다시 듣고 있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녀는 이 순간, 검은 콘크리트 바닥 위에 과아랴게 돌아 오른 보리순을 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드문드문 잔설에 덮인 보리밭 고랑마다 모진 추위를 견디어 내며 싱싱하게 살아 있는 그 대견스런 인동의 풀잎들이 지금 어머니의 슬리퍼 밑에서 가만가만 밝혀지고 있는 것이었다.

유난히도 풀잎의 푸르른 빛깔을 못 잊어 하던 어머니였다. 눈을 들면 사방 어디에고 온통 잿빛으로 뒤덮인 집들이며, 붉은 황토 한 줌 쥐어 볼 수 없는 거리와 골목, 그리고 항상 부엌에 매연에 절어 있는 도시의 탁한 하늘을 바라보며 어언 십 년이 넘도록 살아오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서울의 **척박한 콘크리트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어디서 구해 왔는지 채송화와 맨드라미 서너 뿌리를 가져와 깨진 그릇 속에 심고 무슨 보물단지나 되듯 소중하게 키우기도 했고, 언젠가 봉천동 산비탈 이층집에 세를 들어 살 때는 **헌사과 껌**에 **상추씨**를 뿌려 정성으로 가꾸다가 결국은 그만둔 적이 있었다. 거기다가 거름으로 아이들의 오줌을 받아 뿌리는 통에 악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며 주인집 여자가 쫓아 올라와 한바탕 범석을 떨었기 때문이었다.

자박, 자박, 자박…….

어머니의 발소리는 꾸준히 반복되고 있었다. 어느 순간, 그는 참으로 우연처럼 문득 **아버지**를 생각해 내었다. 그리고 보니 그는 그때까지 아버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세 살 나던 해에 돌아가셨다는 아버지는 꼬두메 마을 뒷산 솔밭 기슭의 공동묘지에 지금도 묻혀 있을 것이었다. 찬우야이. 꼬두메로 핑 가자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시꼬나이……. 어머니의 녀두리가 그의 귓전을 맴돌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울로 떠나온 후 십삼 년이 넘도록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한 **아버지의 무덤**이 별안간 어마어마한 부피로 부풀어 올라 그의 가슴을 무섭게 두드려 대기 시작했다.

그렇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무덤을 결코 잊고 있었을 리가 없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그 말을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다. 한결같이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쫓겨 다니다시피 하는 못난 자식의 **피곤하고 가난에 찌든** 생활이 당신의 그 간절한 소망을 매번 틀어막아 버리고 만 것이리라.

그는 방문을 와락 밀어젖히고 밖으로 달려 나갔다. 그리고 보리를 밟고 있는 어머니의 어깨를 세차게 잡아 흔들었다.

좋아요, 어머니. 가십시오. 여한이라도 없게 내려가십시오. 오늘 당장 꼬두메로 가지자구요!

한동안 어머니의 망연한 눈망울이 그의 앞에서 고장 난 자물통처럼 힘없이 열려져 있었다.

가지자니까요. 알아들으셨어요, 어머니? 꼬두메로 가요. 아버지를 뵈러 가시는 겁니다!

뭐, 뭐라고……?

그때 그는 불현듯 그녀의 텅 빈 동공에서 믿기 어려우리만큼 희미한 출렁거림을 똑똑히 보았다. 부엌에서 아내가 튀어나왔다.

왜 그러세요, 당신. 무슨 일이나구요.

놔. 당신은 모르는 일이야. 아무도 어머니 마음을 몰라. 그러니 상관하지 말라구!

흡사 실성한 사람처럼 그는 고함을 질러 댔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짐을 가방에 채기기 시작했다. 도대체 제정신이세요. 이 시간에 느닷없이 꼬두멘가 어딘가를 무엇하러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아내가 손을 잡고 만류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기어코 아내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제야 그는 차근차근한 말로 아내를 설득시켰다. 잠시 후 그가 밖으로 나왔을 때였다. 어느 틈에 화사하게 밝은 노란색 양단치마저고리와 남빛 두루마기를 차려입은 어머니가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 놀라운 광경에 그와 아내는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딱딱 벌리고 말았다. 그 옷은 그가 학교를 졸업하던 날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어디엔가에 지금껏 몰래 감추어 두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어서 가자이. 느그 아버지가 눈이 아프게 기다리시겠다이.

<중 략>

그는 담배 연기를 한 모금 깊숙이 빨아들었다가 천천히 내뿜었다. 파란 연기가 창유리에 부딪치며 실타래로 가느다랗게 풀어지고 있었다.

꼬두메는 무등산 기슭의 작고 한적하기만 한 동네였다. 사십여 호 가량 되는 토담집들이 고막 껍질처럼 웅기종기 둘러앉은 마을 뒤흘쪽으로는 꽤 가파른 고개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잣고개라고 불렀다. 고개 위로 배암이 기어가듯 구불구불 나 있는 길은 무등산으로 통하는 유일한 군용 작전 도로였다. 그 잣고개 기슭을 흐르는 실개천을 따라 얼마쯤 내려가노라면 마을 초입에 커다란 당산나무가 보였고, 거기서부터 다시 산 쪽을 향하면 그의 집은 멀지 않았다. 경충하니 키 큰 대나무밭은 뒤로 두르고, 탕자나무와 뜨락의 수국꽃이 아름답던 그 두 칸짜리 토담집 오막살이에서 어머니는 그와 형의 땃줄을 자른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기억이 없었다. 그가 세 살 때 돌아가셨다는 아버지는 그나마 빛바랜 사진 한 장 남겨 놓지 않았으므로 결국 그는 영영 얼굴을 알지 못하게 된 셈이었다. 다섯 살 손위였던 형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아버지는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불구였다고 했다. 함경도 어느 산골이 고향이라는 아버지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해방이 되기 전에 이미 남도까지 흘러 들어와 머슴살이를 하며 아예 눌러앉아 살게 된 모양이었다. 당연히 그에겐 아버지 쪽의 친척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 점에서는 어머니 쪽도 거의 비슷한 처지였으므로 결국 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의지할 만한 변변한 피붙이 하나 없이 그들 두 형제를 홀몸으로 키워야만 했던 것이다.

태어나서부터 그의 소년기와 청년기의 앞부분까지를 고스란히 보낸 그 꼬두메 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입안에 쓰디쓴 풀뿌리를 씹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그 이십여 년의 세월을 돌이켜 보면 그에게는 다만 쓰디쓴 슬픔과 가난의 기억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가난은 땅바닥에서 흙을 집어 먹던 어린아이 때부터 두 아이의 아버가 된 이 순간까지도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저주가 되어 참으로 끈질기고도 완고하게 그의 등에 변함없이 달라붙어 있는 것이었다.

■ 핵심 정리

- 주제 : 산업화로 인한 고향 상실의 비극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고향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주인공인 ‘그’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밤에 무작정 고향을 찾아 나서는데, 이 여로형 구조 사이사이에 과거의 장면들을 삽입하여 주인공과 어머니에게 고향이 갖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그들의 목적지인 ‘꼬두메’는 ‘그’와 어머니의 고향이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 줄거리

‘그’는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향하는 밤 기차 안에서 가난했던 고향에서의 기억을 떠올린다. 갑작스러운 귀향을 결정한 것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어머니께서 꼬두메로 가자는 말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보면서 ‘그’는 서울에 온 후 한 번도 찾아뵙지 않은 아버지의 무덤이 떠오른다. 그래서 아내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머니와 고향으로 향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묘지가 있던 자리에는 이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과거 꼬두메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지 못한다. ‘그’는 인근 다방에 어머니를 모셔 놓고 동사무소에 가서 아버지의 무덤이 이장된 곳을 알아보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다방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어머니는 다방에서 이미 나가 버렸고, 잣고개 쪽으로 가더라고 인근 주민들이 이야기해 준다. ‘그’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 때 하늘에서 펄펄 눈이 쏟아진다. 눈 속에서 ‘그’는 어머니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현실을 떠나 과거의 기억이 살아 있는 또 다른 세계를 찾아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수능 Tip

- 이 작품의 구조와 주제의식을 이해한다.
 - 이 작품은 탐색형의 구조를 띠고 있다. 둘째 아들 가족과 할 수 없이 서울에서 살게 된 어머니는 치매 증세를 보이게 되고 이미 죽은 남편과 큰아들을 찾아 고향 마을로 돌아가자고 둘째 아들을 조른다. 결국 고향 마을을 찾아가나 고향은 물론 남편의 무덤조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이 작품은 병약한 노인을 통해 산업화시대 현대인의 고향 상실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 첫째, 현재 사건 속에 과거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둘째, 인물의 내적 독백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셋째,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인물의 내면을 좇아 그의 과거와 현재를 서술하고 있다.
- ② 인물이 공간을 이동하게 된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 주고 있다.
- ③ 세 인물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었다가 대화를 통해 극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 ④ 전지적 입장에서 인물들의 심리를 서술하여 인물들 각각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보여 주면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이 가난한 고향을 뒤로하고 도시로 향했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고향과 거리를 두고 살아갔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생활은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고향과의 단절로 인한 정서적 결핍까지 겪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여 고향을 떠올리는 순간, 고향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고향에 대한 집념이 강렬해진다.

- ① ‘척박한 콘크리트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어머니는 꼬두메와 거리를 두고 살아야 했던 서울 생활이 힘들었겠군.
- ② ‘헌 사과 껍질’에 ‘상추씨’를 심는 것도 허락되지 않은 어머니의 상황을 보며 ‘그’는 자발적으로 꼬두메와 거리를 두었겠군.
- ③ ‘그’가 ‘어머니의 발소리’에서 우연히 ‘아버지’를 떠올린 것은 어머니를 모시고 꼬두메로 가야겠다고 결정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겠군.
- ④ 꼬두메로 가자는 ‘그’의 생각이 강렬해진 것은, 자신은 잊고 살았던 ‘아버지의 무덤’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가능했겠군.
- ⑤ ‘피곤하고 가난에 찌’들어 ‘아버지의 무덤’도 찾아보지 못한 ‘그’는 경제적 궁핍과 정서적 결핍에서 벗어나지 못한 서울 생활을 하였겠군.

■ 수능완성 수록 작품 정리

- 우리 동네 황 씨(이문구) - (수능완성 202~204쪽)

아무리 삶는 날이라도 TV 앞에다 상을 놓았고, 그 바람에 하늘이 덮이기 무섭게 대문부터 걸어 닫지 않는 집이 없었다. 안식구 따라 사내들마저 그 지경이고 보니 더러 들어 볼 말이 있어도 마실 갈 데가 없었다. 내 집 뉘 집 없이 낮에는 죄다 들에 나가 살고 날만 저물면 빗장 걸고 틀어박히기를 다투니, 추녀를 나란히 하고 한 우물 길어 먹는 이웃 사람도 며칠씩 얼굴 얻어 보기가 어려웠다. 그러니 동네에 무슨 일이 생겨도 일삼아 가보기 전에는 얼굴 한번 내밀지 않던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

김은 꽃을 한 차례 더 보아야 햅쌀밥을 먹게 되던, 장병찬이네 토담 머리 배롱나무 곁에 이르자 큰 소리로 장을 불러 보았다.

“봉섹 아버지 지서?”

모두 TV 소리에 묻혔는지 기척이 없어 다시

“봉섹 아버지—”

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제서야 알아듣고 봉섹이 대답이 나왔다.

“늦들잇들 뚝뚝께 가신다구 술 갖구 나가셨슈.”

장은 반장 일을 맡고 있는 데다 부녀회에서 하는 생필품 가게도 겸하고 있었으므로 있던 술을 챙겨 들고 먼저 나간 모양이었다.

“술은 얼마나?”

“두 병유.”

“제우…… 그까짓 걸 누구 코빼기에 찍어 바른다데. 내 앞으루 달어 놓고 죽은 거 두 병 더 나오너라.”

김은 접때 것도 아직 안 갖다 주었으면서 술값을 더 달아 놓았다. 그러고 보니 생전 나올 것 없는 산에다 남의 입빔*으로 들이미는 돈만 해도 보릿가마나 됴 직했다.

그는 작년 봄에도 옳기만 하면 허영계 군으며 죽어 송충이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경화살제(硬化殺劑)가 배급 나와 그것을 술가지에 매다느라고 품짓이나 들였지만, 달포 전에도 생각잖았던 생돈을 썼었다.

유월 중순께, 송충이가 고치를 틀고 들어앉았을 때도 면에서 사람이 나와 성화대는 바람에 이장이 일요일로 택일하여 동네 아이들을 몰아와 한나절 동안 애벌레 따기를 했던 것이다. 송충이잡이고 애벌레 따기고 치르어 보면 고작 군에 보고하려고 면 직원이 들고나온 카메라에 사진이나 찍혀 주는 행사로 그칠 뿐이었다.

<중 략>

“그렇구먼그러. 위편 것은 짜게만 먹었어두 아무 탈 읍는디, 옆댕이 있는 늙은 공중 맹물만 켜구두 편찮당께. 춘자 아버지 들으슈. 앞으루는 단위 조합 끼구 우리네헌티 장사할 생각일랑 아예 마슈. 우리가 한두 늙 배지 불리자구 출자헌 게 아녀. 앞으루는 단위 조합 것들버덤 더 높은 옷대가리가 와서 벨소리루 저기 해두 속지 않겠다, 이게여. 춘자 아버지 잘 생각해보슈. 비 때 비 주구 눈 때 눈을 주는 하늘두 우리를 안 석이구, 쌀 때 쌀을 주구 보리 때 보리를 주는 땅두 우리를 안 석여유. 그런디 하물며 사람 것들이 우리를 석여? 향차 우리에게 뭇가를 보태 주려구 뛰어댕긴다는 것들이 우리를 석여? 저늬으 것, 저 오도바이—



저놈으 것은 인저 소리만 들어두 넌더리가 나우, 넌더리가…….”

김이 말끝을 내기도 전에 황은 샷대질을 하며 나무라는 말투로 떠들었다.

“도대체 너 것들헌티 뭘 식였단 말여? 내가 식인 건 뭐구 너가 속은 건 뭐여? 내 새우젓 황새기젓 처먹은 게 배 아프면 그 입으루 더 지겔여 봐.”

황은 일어서 보려고 몸부림을 했으나 계장과 오 서기의 완력을 떨쳐 버리지 못했다. 그러다 홍이 뚝뚝*을 손가락질하며 무디고 모가 나게 다듬은 음성을 황에게 건넸다.

“알어들을 만큼 타일렀는디두 아직 정황을 모르는 모양인디, 정신 좀 들어야 되겠어. 암만 해두 저기 좀 땡겨와야 정신이 들랑개 벼…… 자 뭇이 들어갈려? 당신을 쳐놓으까, 오도바이를 던져 버리까?”

“…….”

황은 눈이 뒤집힌 채 대꾸를 못 했다.

뚝뚝은 무시로* 자고 이는 마과람 곁에도 물너울을 번쩍거리고, 그때마다 갈대와 함께 뚝뚝을 에워싸고 있던 으악새 숲은, 칼을 뽑아 별빛에 휘두르며 서로 뒤엎쳐 울었다. 으악새 울음이 꺼끔해지면 툼툼이 여치가 울고 곁들여 베짖이도 울었다. 김은 그것을 밤이 우는 소리로 여겼다. 하늘은 본디 조용한데 으레 땅에서 시끄러웠었다는 것도 더불어 깨우치면서,

“세상이 아무리 뭇같이 되엇더래두 헐 말은 허구 살아야겠더라구.”

이장은 계속 말했다.

“촌놈은 나이가 명함이지만 나두 막말을 안 헐 수 읍어 허는디, 당신이 계장님 만나러 예까장 온 속심을 우리가 모르지 앓어. 물간 새우젓, 꿩은 황새기젓 좀 농민들헌티 맥여 보까 허구 시방 지켜 앓어 있는디, 아스슈, 아스라구. 나두 작년 갇죤여. 나두 정신 채렸다구. 작년만 해두 동네서 적일 늑 소리를 들었구, 또 그래야 썸어. 허지만 나두 싫어. 왜냐. 나두 당신 말따나 젊어. 녀으 잔치에 설거지해 주다 내 배 굶구, 동네서 소리 들어가며 살구 싶지는 앓더라 이게여. 그러구 이건 내 개인 문제가 아녀. 그럼 뭐냐. 하늘과 땅과, 비바람 두 눈보라두 우리를 보호해 줘. 심지어 개 돼지두 우리를 위해 살어. 그러나 사람은 틀리더라 이게여. 그러니 인저는 세상읏이 거시기헌 늑이 무슨 소리를 해두 못 믿겼더라 이게여.” 이장은 말허리를 끊고 좌중을 한차례 둘러본 다음 나머지를 이었다.

“그러니께 결과적으루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허지 아니허면 아니 되겠더라 — 이게 결론여. 내 맘만 같으면 당신이구 오도바이구 죄 남댁문표 뺄쓰에 싸서 뚝뚝 속에 쳐놓겼어. 또 그래야 읍어. 그러나 위쨌든 간에 당신은 우리게 사람여. 우리는 아직두 이웃을 보살피구 동네 사람을 애끼구 싶다 이게여. 그리고 당신 뺄쓰 아니더래두 수재민들이 흘바지는 안 입는답디다. 부디 니얼 새벽 뺄스버텨 걷어 가슈. 당신 손으로. 동트기 전에.”

“…….”

황은 응수하지 앓았다.

* 입뱀: 입막음이나 입썸이로 주는 돈이나 물건.

* 뚝뚝: ‘웅덩이’의 사투리.

* 무시로: 특별히 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 핵심 정리

- 주제 : 산업화로 인해 달라진 농촌의 현실과 농민들의 삶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한 농촌 마을의 저녁 풍경을 통해 농촌의 현실을 실감 나게 그리고 있다. 작품의 주된 사건은 어느 여름 저녁, 이장의 소집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분배받은 타이어를 태우며 마을과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중간 중간 과거의 사건들이 드러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마을 회관 앞에 펼쳐지고 있는 황 씨의 속옷에 관한 사연이다. 황 씨는 전형적인 속물 유형의 인물로, 서울 물 좀 먹고 또 벌 만큼 벌었으면서도 없는 이들보다도 더 돈 쓰기를 꺼리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위인이다.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회관 앞에 걸려 있는 속옷과 황 씨의 비열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당하고만 살던 농민들은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고 권리를 찾을 것이라 하며 사라져 가는 마을 사람 간의 정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살기 위해 슬며시 농작물에 농약을 쳐서 팔게 되는 농민들의 모습과 정겨웠던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는 모습은 어두운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 준다.

■ 줄거리

가족들이 TV를 보느라 이웃들과의 교류조차 뜸해진 것이 못마땅한 김 씨는 저녁에 마실을 나간다. 마을 회관 앞에는 팬티 한 장이 바지랑대에 걸려 있다. 이 팬티는 황선주의 것으로 그는 넓은 땅을 가지고 소작을 부치며 고리대금업을 할 뿐만 아니라 조합을 이용하여 자신의 새우젓 등을 비싸게 파는 인물로 마을에서 평판이 좋지 않다. 마을에서 수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이나 쌀, 장, 의복 등을 내놓기로 했는데 그는 자신의 헛 속옷을 내놓은 것이다. 황 씨의 이런 고약한 행위에 격분한 마을 사람들은 황 씨의 속옷을 바지랑대에 보란 듯이 걸어 놓는다. 마을 회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타이어를 태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타이어를 빼돌리지는 않는지 감시하러 온 면의 계장과 이 서기가 합세한다. 면의 계장은 자신에게 황선주가 단위 조합을 이용하여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 아는 사촌 동생에게 연줄을 대 달라고 청해 왔다고 하고, 계장과 황선주 간의 지난 관계를 아는 마을 사람들은 분노한다. 이때 마침 황선주가 나타나자 김씨 등은 황 씨를 조롱하기도 하며 농촌의 변해 가는 현실과 희망을 이야기한다.

■ 수능 Tip

-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중심으로 작품의 특징을 파악한다.
 - 이 작품은 “우리 동네”라는 아홉 편의 연작 소설 중 마지막 작품이다. 공간적 배경은 농촌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순박함, 가난함, 자연적인 것 등과 함께 공동체로서의 연대 의식, 유대적 인간관계와 같은 전통적인 농촌 문화들이 근대화, 산업화라는 외부적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작품의 주요 공간적 배경인 느티울 마을에서 ‘수재민 의연금’을 둘러싼 황 씨와 마을 사람들의 갈등은 유대적 인간관계가 유용성을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이기적이고 기만적인 인간관계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황 씨와 다투면서도 그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과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로 여기며 농민들 스스로 주체적인 자기반성을 하는 모습에서 과거로의 일방적인 회귀가 아니라 농민들의 자각을 기반으로 한 농촌 공동체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작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의 작가는 1970년대 후반 농촌의 모습을 통해 전통적 농촌 사회의 근본적 토대를 확인시키는 한편 당시 산업화의 영향이 농촌 사회에 밀려드는 시대적 변화의 양태를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즉 작가는 구성원 간의 소통과 공동체적 의식의 약화, 물질 만능주의적 행태의 확산, 민관 사이의 불신 풍조 등 농촌 사회의 변화 양상을 보여 줌으로써 이를 통해 개인주의적 성향에 물들어 가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 ① TV 앞에 상을 놓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농촌 사회의 변화 양태를 드러내고 있군.
- ②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 낮은 물건을 팔려는 ‘황 씨’를 통해 물질 만능주의적인 행태를 보여 주고 있군.
- ③ 땅은 농민을 속이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김 씨’의 말을 통해 전통적 농촌 사회의 근본적 토대를 확인시키고 있군.
- ④ ‘한 우물 길어 먹는 이웃 사람’의 얼굴 보기가 어려운 현실을 통해 소통이 약화되는 공동체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군.
- ⑤ 면에서 나온 사람이 직접 ‘동네 아이들’에게 애벌레 따기를 강요하는 모습을 통해 민관 사이의 불신 풍조를 비판하고 있군.

■ 수능완성 수록 작품 정리

- 조동관 약전(성석제) - (수능완성 254~255쪽)

똥간의 본명은 동관이며 성은 조이다. 그럴싸한 자호(字號)가 있을 리 없고 이름난 조상도, 남긴 후손도 없다. 동관이라는 이름이 똥간으로 변한 데는 수다한 사연이 있어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똥간이와 한 시대를 산 사람들이 똥간이를 낳고 똥간이를 만들고 똥간이를 죽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일부로 평범한 사람 조동관을, 자신들과는 다른 비범한 인간 똥간이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똥간이 살다 간 은척읍에서 세 살 먹은 아이부터 여든 먹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동관을 칭할 때 똥간이라고 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똥간이 보고 듣는 데서는 아무도 그를 동관으로도, 똥간으로도 부를 수 없었다.

똥간은 이란성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형 은관과 대략 일천 회 이상의 드잡이질을 벌였다. 그 드잡이질은 똥간의 타고난 체격에 담력과 기술, 자잘한 흥터를 안겨 주었고 그가 은척 역사상 불세출의 강패로 우뚝서는 바탕이 되었다. 은관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걸 좋아해서 스무 살이 되기 전에 이미 합기도 삼 단, 유도 사 단, 태권도 삼 단의 면장(免狀)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 그에게 붙여진 별명은 ‘조십단’이었다. 나쁘게 말하면 그대로 욕이 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은관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그 별명으로 부르지 않았고 없는 데서도 혹시 신출귀몰하는 그들 형제가 주변에 없나 살피고 나서 ‘똥간이가 조십단하고 술 먹다가 전당포 주인을 깔고 앉은 사연’ 등을 즐겼다.

그런 이야기가 은척읍 사람들에게 재밌거리가 된 것은 그 때 은척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이 텔레비전이나 신문, 라디오를 보거나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볼 돈도 없었고 볼 생각도 없었으며 볼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은관 형제의 이야기는 그들의 뉴스였고 연재소설이자 연속극이며 스포츠였고, 무엇보다도 신화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신임 경찰서장이 부임하는 날 동관은 자신의 영역이 침해당했다는 본능적 생각에 그를 폭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신임 경찰서장은 엄청나게 분노한다. 한편, 경찰을 피해 도망친 동관은 뒷산에 은거하며 세상을 향해 다양하고도 질긴 욕설을 퍼붓는다.

다시 밤이 왔고 기동타격대는 야간 장비가 없어 야간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작전을 짜고 내려왔다. 이틀째 되는 날, 춥고 허기진 똥간의 상태를 짐작한 기동타격대는 바위 아래쪽 움푹한 곳에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 대며 똥간에게 심리적 타격을 가했다. 똥간이 바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그때쯤에 온 읍내 사람들의 눈과 귀가 모두 남산 위의 못생긴 바위에 집중되어 있었다. 집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다.

“똥간이가 대단하기는 대단해.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저렇게 웅장하고 다양한 욕을 들어 보기는 처음일세.”

“얼마 못 버틸걸. 사람이 욕만 잘한다고 살 수 있나. 입고 있는 것도 변변치 못하대. 거기 먹을 게 있겠나, 덮을 게 있겠나.”

“나는 똥간이가 절대 그냥 내려오지는 않을 거라고 믿네.”

“그냥 내려오지 않으면? 호랑이라도 잡아 올까?”

“꿀뚜기 사려, 콩치 사려어, 뱅뱅이젓 사려.”

“여봐요. 거 왜 남 장사하는 집 문전에서 비린내를 풍기고 그래?”

“맞아. 하도 욕을 퍼부으니 온 읍내에서 욕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할지, 윈.”

“그런데 말야, 회한해. 난 하루라도 똥간이 욕을 듣지 않으면 잠이 안 와. 몸도 찌뿌드드하고. 버릇이 됐나 봐. 그 욕을 듣고 있으면 꼭 안마를 받는 것같이 시원해.”

병원에 누워 있던 서장은 삼십 분마다 사람을 보내 당장 똥간을 체포해 오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그로서는 공직 생활 수십년에 처음 겪는 망신이었고 똥간인지 변소인지를 못 잡으면 수챗물에 내동댕이쳐진 체면이며 훈장이 평생 회복될 것 같지 않았다. 따라서 똥간이가 산에서 버틴 지 사흘째 되는 날 밤에는 핑계를 대는 데는 선수인 경찰들도 밤새 잠복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똥간은 군세계 잘 버텼다. 잠옷이나 다름없는 옷을 입고 누더기나 다름없는 모포를 뒤집어쓰고 원시적인 무기인 돌로만 무장하고 타고난 욕설과 독기로. 마침내 그의 욕설이 그치자 읍내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되어 하나씩 둘씩 남산으로 눈길과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다. 눈발이 희끗희끗 비치는가 했더니 삼시간에 폭설로 변했다. 눈은 그동안 똥간이 퍼부어 댔던 욕이 퍼진 대기를 정화하고 욕이 내려앉은 땅을 덮으려는 듯 쉬지 않고 내렸다. 눈사람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행렬이 남산 입구에서 바위로 올라가는 유일한 통로인 좁은 산길을 메웠다.

한없이 내리 퍼붓던 눈이 문득 그치고, 느닷없이 침묵과 고요가 은척을 엄습했다. 누구도 입을 떼지 않고 바람도 소리를 죽이던 바로 그때, 그 순간. 아뽕싸, 오호라, 슬프도다, 어쩔 것인가, 똥간의 죽음을 알리는 비보가 전해졌다.

■ 핵심 정리

- 주제 : 한 인물의 인생 유전과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인간적 면모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은척읍에 살고 있는 조동관이라는 인물의 삶을 전(傳)의 형식을 차용해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작가는 건달이면서도 사람들과 커다란 은원을 지고 있지도 않고, 한편으로는 사리 판단이 부족한 어리숙한 모습으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를 찾기 위해 몇 년이나 소비할 정도로 과감한 모습을 보여 주는 인물을 그리면서, 경찰서장으로 상징되는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와 그에 대한 저항을 풍자적 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 줄거리

조동관은 은척 역사상 불세출의 강패로 일명 ‘똥간’이라고 불린다. 은척 사람들 누구도 똥간의 망나니짓을 막지 못한다. 어느 날 똥간은 한 여인과 함께 살림을 차린다. 얼마 후 똥간의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여인이 떠나자 똥간은 화를 참지 못해 난동을 부린다. 급기야 똥간이 역전 파출소로 쳐들어가 기물을 파손하자 똥간을 체포하기 위해 기동타격대가 출동한다. 하지만 기동타격대는 선불리 그를 제압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똥간이 잠에 곱아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 체포에 지친

똥간은 결국 잠이 들고 그 사이에 기동타격대가 그를 체포한다. 이후 감옥에서 출소한 똥간은 여인을 찾아 전국을 누비지만 여인을 찾지 못해 실의에 빠진다. 그러던 중 똥간은 자신에게 시간과 힘, 어거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똥간이 역전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마침 새로 부임한 경찰서장 일행이 역전 파출소를 순시한다. 똥간의 행각을 알지 못하는 경찰서장은 똥간에게 호통을 치다가 심한 봉변을 당한다. 경찰서장은 똥간을 체포하기 위해 대규모 추격전을 벌이고 똥간은 인근 야산의 동굴에 숨어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얼어 죽는다. 똥간의 죽음 이후 마을에서는 똥간을 기리는 전설이 생겨나게 된다.

■ 수능 Tip

- ‘전’의 형식 차용과 그것의 현대적 변용에 대해 이해한다.
- 이 작품은 ‘전’의 형식으로 허구의 인물인 조동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일반적인 전에서 다루는 긍정적 영웅이 아닌 부정적 영웅을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은 겉으로는 온갖 나쁜 짓을 하는 똥간이를 비판하는 듯 보이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를 다스려야 하는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A]에 등장하는 ‘조동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의 주인공은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그는 평범하지 않은 인간으로 알려지는데, 그 이면에는 주인공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그 시선의 변화 과정이 드러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평판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평판은 어떤 원인에 의해 생성되고 축적되는 결과물인 까닭에 혹자는 평판을 타인의 시선에 비친 누군가의 모습이라 말한다. 이러한 평판의 속성으로 인해 때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정보량 및 인식의 차이에 의해 의도와 상관없이 대상에 대한 정보가 왜곡, 은폐, 과장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이 군중의 인식에 영향을 주어, 대상이 본질과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 ① ‘동관’이 ‘똥간’으로 변한 데는 수다한 사연이 있’는 것을 통해 평판이 어떤 원인에 의해 생성되고 축적된 결과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세 살 먹은 아이부터 여든 먹은 노인’까지 ‘동관’을 ‘똥간’이라 칭하는 모습을 통해 정보량의 차이에 의해 평판이 은폐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똥간’에 대한 이야기가 읍내 사람들의 ‘뉴스’ 또는 ‘연재소설’ 등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통해 평판이 군중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동관’과 같은 시대를 산 사람들이 ‘똥간이를 만들고’, ‘똥간이로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을 통해 평판이 타인의 시선에 비친 누군가의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그럴싸한 자호’나 ‘이름난 조상’이 없는 평범한 인물이 ‘비범한 인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모습을 통해 다수에 의해 원래 모습과 괴리가 있는 평판이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전소설

1 EBS 교재에 수록된 고전소설 한눈에 보기

교재	작품	쪽
수능특강 <문학>	설총, '화왕계'	25~26
	작자 미상, '지하국 대적 퇴치'	186~189
	작자 미상, '김천'	190~192
	이규보, '국선생전'	193~195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196~199
	이옥, '유광역전'	200~202
	작자 미상, '곽해룡전'	203~205
	작자 미상, '조웅전'	206~208
	작자 미상, '용문전'	209~212
	작자 미상, '낙성비룡'	213~216
	작자 미상, '금방울전'	217~220
	김만중, '사씨남정기'	221~223
	작자 미상, '화산중봉기'	224~226
	작자 미상, '어룡전'	227~229
	작자 미상, '홍보가'	230~233
	작자 미상, '황새 결송'	234~237
	작자 미상, '심청전'	238~241
	신광한, '하생기우전'	289~292
	작자 미상, '적성의전'	306~309
수능완성 (유형편)	이옥, '심생전'	27~32
수능완성 (실전편)	작자 미상, '양풍운전'	150~152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176~178
	작자 미상, '최고운전'	204~206
	박지원, '허생전'(현대소설 이남희 '허생의 처'와 엮어 출제)	227~229
	작자 미상, '웅고집전'	229~231
	작자 미상, '운영전'	256~258

2 모의 평가 기출 고전소설 한눈에 보기

<6월 모의평가>

[35~38]	작자 미상, '적성의전'	수능특강 <문학> 306쪽~309쪽	수록된 작품의 다른 부분을 출제
---------	---------------	------------------------	----------------------

3 EBS 교재와의 연계성 파악하기

6월 모의평가에는 『수능특강 ‘문학’』에 실려 있는 작자 미상의 ‘적성의전’이 출제되었다. 제시된 지문은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부분과는 다른 부분이었다.

수능 특강 <문학>	6월 모의평가
인물에 대해 이해하기	작품 내용 파악하기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하기(사자성어)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네 문항 중 두 문항이 연계 교재와 비슷하거나 같은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출제된 유형들이 이미 익숙한 유형들이었으므로 크게 까다롭지는 않았다.

현대소설에 비해 고전소설은 각각의 작품이 지니는 갈래적 특성이 분명한 경우가 많다. 영웅소설, 판소리계소설, 우화소설, 가정소설 등 세부 갈래의 특성은 이론과 작품을 연결하여 출제하는 유형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출제된 지문을 꼼꼼히 읽으며 충분히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비를 충실히 한다면 미리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소설 이전의 설화나 가전 등까지 폭을 넓혀 연계 교재에 수록된 작품과 갈래적 특성을 살펴 충실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능에 출제되는 고전소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문학적 성취를 거둔 작품이어야 하므로 출제 후보에 오를 만한 작품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이전에 수능에 출제되었던 작품들이 다시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작가와 작품은 허투루 대하지 말고 잘 정리를 해 두어야 한다. 연계 교재에 수록된 작품의 주요 특징을 줄거리와 함께 살피고,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고전소설 특유의 문체와 서술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4

EBS 교재에 실린 고전소설 살펴보기

■ 수능특강 <문학> 수록 작품 정리

- 국선생전(이규보) - (수능특강 <문학> 193~195쪽)

국성*의 자는 중지(中之)*니, 주천 고을 사람이다. 어려서 서막*에게 사랑을 받아, 그가 이름과 자를 지어 주었다. / 그의 먼 조상은 원래 온(溫)이라는 땅에서 살았다. 농사를 지어서 넉넉하게 먹고살았는데 정나라가 주나라를 칠 때 포로가 되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그 자손들은 간혹 정나라에 흩어져 살기도 했다. 국성의 증조부는 그 이름이 역사에 실려 있지도 않다가 조부 모(牟)가 주천으로 이사하여 눌러살면서 드디어 주천 고을 사람이 되었다. 아버 차(醴)에 이르러 비로소 벼슬을 하였다. 차는 평원 독우(督郵)*가 되어 사농경(司農卿)* 꼭 씨의 딸과 결혼해서 성을 낳았다. / 성은 어려서부터 도량이 넓었다. 손님들이 그 아버지를 보러 왔다가도 성을 유심히 보고 귀여워했다. 손님들은 말했다.

“이 아이의 마음과 도량이 몹시 크고 넓어서 출렁거리고 넘실거리 마치 만경(萬頃)의 물결과도 같소. 더 맑게 하려 해도 맑아지지 않고, 흔들어도 더 흐려지지 않소. 그러니 그대와 이야기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성과 함께 즐기는 것이 낫겠소.”

성은 자라서 중산(中山)의 유영*, 심양(瀋陽)의 도잠*과 친구가 되었다. 이 두 사람은 말했다. “단 하루라도 국성을 만나지 않으면 마음속에 비루하고 이상한 생각이 짝튼다.”

이들은 성과 만나기만 하면 며칠 동안 모든 일들을 잊고 마음으로 취하고야 헤어지는 것이었다.

국가에서 성에게 조구연을 시켰지만 부임하지 않았다. 또 청주종사로 불러, 공경들이 계속하여 그를 조정에 천거했다. 이에 임금은 조서를 내리고 공거(公車)를 보내어 불러서 보고 눈짓하며 말했다.

“저 사람이 바로 주천의 국생인가? 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은 지 오래다.”

이보다 앞서 태사(太史)*가 임금께 아뢰었다. / “지금 주기성이 크게 빛을 냅니다.”

이렇게 아뢰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성이 도착하니 임금은 태사의 말을 생각하고 더욱 성을 기특하게 여겼다. 임금은 즉시 성에게 주객랑중(主客郎中)* 벼슬을 주고, 얼마 안 되어 국자제주(國子祭酒)로 옮겨 예의사를 겸하게 했다. / 이로부터 모든 조회의 잔치나 종묘의 제사·천식·진작의 예가 모두 임금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에 임금은 국성의 그릇이 믿음직하다 해서 승진시켜 재상으로 있게 하고 융숭한 대접을 했다. 출입할 때에도 교자를 탄 채로 대궐에 오르도록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국선생이라 일컬었다. 혹 임금의 마음이 불쾌할 때라도 성이 들어와 뵈기만 하면 임금의 마음은 풀어져 웃곤 했다.

성이 사랑을 받는 것은 대체로 이와 같았다.

[중략 부분 줄거리] 성의 세 아들은 아버가 임금의 사랑을 받는 것을 믿고 방자하게 군다. 이에 모영은 임금에게 글을 올려 세 아들의 탄핵을 요구하고, 세 아들은 음독을 하여 죽는다. 성은 찻값으로 서인으로 폐해진다.

성이 벼슬을 그만두자 제(齊)* 고을과 격(隔)* 마을 사이에는 도둑들이 떼 지어 일어났다. 이에 임금은 이 고을의 도둑들을 토벌하라는 명을 내렸다. 하지만 적임자가 쉽게 물색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다시 성을 기용해서 원수로 삼아 토벌하도록 했다. 성은 부하 군사를 몹시 엄하게 통솔하면서도 모든 고생을 군사들과 같이했다. 수성(愁城)에 물을 대어 한 번 싸움에 이를 함락하고 나서 거기 장락관을 쌓고 회군하였다. 임금은 그 공로로 성을 상동후에 봉했다. / 그 후 2년이 지났다. 성은 소를 올려 물러나기를 청했다.

“신은 본래 가난한 집 자식이옵니다. 어려서는 가난하고 천한 몸이라 이곳저곳으로 팔려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폐하를 뵈게 되자, 폐하께서는 마음을 터놓으시고 신을 받아들이셔서 빈천한 몸을 건져 주시고 강호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오나 신은 일을 크게 하시는 데 더함이 없었고, 국가의 체면을 조금도 빛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제 몸을 삼가지 못한 탓으로 시골로 물러나 편안히 있었사운데, 비록 젊은 이슬은 거의 다 말랐사오나 그래도 요행히 남은 이슬방울이 있어, 감히 해와 달이 밝은 것을 기뻐하면서 다시금 찌꺼기와 티를 열어젖힐 수가 있었나이다. 또한 물이 그릇에 차면 엎어진다는 것은 모든 물건의 올바른 이치옵니다. 이제 신은 몸이 마르고 소변이 통하지 않는 병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사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명령을 내리시어 신으로 하여금 물러가 여생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임금은 이를 승낙하지 않고 중사(中使)를 보내어 송계, 창포 등의 약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병을 돌봐 주게 했다. 성은 여러 번 글을 올려 이를 사양했다. 임금은 부득이 허락하여 마침내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천수를 다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 그의 아우는 현이다. 현은 즉 탁주다. 그는 벼슬이 2,000석(石)에 올랐다. 아들이 넷인데 익, 두, 양, 남이다. 익은 색주, 두는 중앙주, 양은 막걸리, 남은 과주이다. 이들은 도화즙을 마셔 신선이 되는 법을 배웠다. 또 성의 조카들에 주, 만, 염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적(籍)을 평씨(萍氏)에게 소속시켰다. / 사신(史臣)은 말한다.

국씨는 원래 대대로 내려오면서 농가 사람들이었다. 성이 유독 넉넉한 덕이 있고, 맑은 재주가 있어서 당시 임금의 심복이 되어 국가의 정사에까지 참여하고,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 주어 태평스러운 푸짐한 공을 이루었으니 장한 일이다. 그러나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화가 그 아들에게까지 미쳤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실상 그에게는 유감이 될 것이 없다 하겠다. 그는 만절(晩節)이 넉넉한 것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 마침내 천수를 다하였다. 『주역』에 “기미를 보아서 일을 해 나간다.”라고 한 말이 있는데, 성이야말로 거의 여기에 가깝다 하겠다.

*국성: 맑은 술을 의인화한 표현.

*서막: 중국 위나라의 지독한 애주가.

*사농경: 농사에 관한 일을 알아보는 벼슬.

*도잠: 중국 동진의 시인.

*주객량중: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하는 벼슬.

*제: 배꼽을 뜻함.

*격: 가슴을 뜻함.

*중지: 곤드레만드레. 술에 취해 뻔은 모양.

*독우: 벼슬 이름.

*유영: 중국 서진의 사상가.

*태사: 천문과 역사를 맡은 직책.

■ 핵심 정리

- 주제 : 신하로서의 올바른 처신에 대한 권계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술(누룩)’을 의인화하여 전기 형식으로 서술한 가전체로, 임춘의 「국순전」과 영향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가는 ‘성’을 통해 임금을 모시고 신하의 도리를 다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다른 가전체와 비교할 때 고사의 인용이 적은 편이고, 주인공의 가계와 행적을 자세히 서술하고 묘사하는 등 표현 기법적인 측면에서 좀 더 세련된 면모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 줄거리

주천 고을 사람인 성은, 어려서부터 깊은 국량이 있어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는다. 자라서는 유영, 도잠과 더불어 친구가 되고, 임금에게도 충애를 받는다. 그러던 중 그의 아들 삼 형제가 아버지를 믿고 방자히 굴다가 모영의 탄핵을 받는다. 이로 말미암아 성은 서인으로 떨어졌으나 훗날 다시 기용되어 난리를 평정하는 공을 세운다. 그 뒤 스스로 분수를 알고 자리에서 물러나 고향에 돌아가 죽는다.

■ 수능 Tip

- ‘가전(假傳)’ 갈래의 특징을 파악한다.
 - 어떤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시켜서 그 가계·생애·성품·공과를 기록하는 전기 형식의 글로, 실전(實傳)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가전(假傳)이라 하였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전(假傳)은 전(傳)의 형식 중 하나로, 술, 대나무, 종이, 지팡이 등과 같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교훈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가전은 인물의 가계 및 행적, 사신의 논평 등으로 구성되어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작가는 의인화된 사물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다루는데, 이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세상이나 삶의 태도를 풍자하였다. 실제 존재했던 지명이나 인명을 활용해 현실적 요소를 부각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 ①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의 일생에 관한 내용으로 서사를 구성하고 있군.
- ② 술을 ‘성’이라는 인물로 의인화해 신하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군.
- ③ 공간적 배경을 중국으로 설정하여 사대주의(事大主義) 사상을 엄중하게 풍자하고 있군.
- ④ ‘유영’, ‘도잠’과 같은 실존 인명을 활용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군.
- ⑤ ‘성’의 가계와 행적을 제시한 후에 사신의 논평을 덧붙이는 순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군.

■ 수능특강 <문학> 수록 작품 정리

- 조웅전(작자 미상) - (수능특강 <문학> 206~208쪽)

[앞부분 줄거리] 중국 송나라 문제 때 승상 조정인이 이두병에게 참소를 당하여 죽자, 외아들 조웅은 이두병의 모략을 피해 어머니와 함께 도망간다. 온갖 고생을 하며 유랑하던 조웅은 월경 대사와 철관 도사로부터 병법과 무술을 전수받는다. 이두병은 송나라 태자를 유배 보낸 후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 서번은 송나라 침입을 위한 전초전으로 위를 침범하고, 조웅은 위를 구하기 위해 출전한다.

위왕이 장대에서 보다가 뜻밖에 난데없는 비장이 나가 번장을 베고 나는 듯이 본진으로 들어오거늘, 실로 꿈같은지라. 극히 괴이하여 바빠 나와 맞아 장대에 올려 앉히고 황망히 치하를 무수히 하였다. 웅이 대하에 내려 땅에 엎드려 죄를 청하며 말하기를

“소장이 군영 밖의 사람으로 진중에 와 고하지도 아니하고 전쟁에 참여하였사오니 죄를 받고자 합니다.”

위왕이 칭찬하여 말하기를,

“과인이 지각이 없어서 장군을 멀리 나아가 맞아 오지 못하여 과인의 잔명이 오늘날 다하게 되었더니, 천만뜻밖에도 장군이 와 목숨을 보전하오니, 바라옵건대 장군의 거주와 존호를 알고 싶소이다.”

웅이 다시 땅에 엎드려 처음부터의 근본을 자상히 아뢰니, 왕이 대경실색하여 웅의 손을 잡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장군의 부친은 곧 과인의 죽마고우라. 이제 그대를 보니 벼슬 대면한 듯, 일변 반갑고 일변은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오.” / 하고 다시 묻기를,

“그대의 소식을 모른 지 오랜지라. 어디서 이리 오며, 대국 소식을 대강 설화하라.”

웅이 눈물을 흘리며 이두병이 송을 멸하고 천자가 되어 송 태자를 태산부 계량도에 안치한 사연과 모자망명하여 다니는 곡절을 아뢰었다. 위왕이 듣고 기절하여 엎어지니 좌우 제신이 구하매, 왕이 진정하여 대국을 향하여 사배 통곡하니, 그 충성이 본디 거룩한지라. 웅이 위로하여,

“큰일을 당하여 아직도 도적을 멸망시키지 못하였사오니, 평국(平國)하온 후에 이로부터 하실 일이 많을 것이오니 너무 슬퍼 마십시오.”

라고 말하니 위왕이 정신을 진정하여 승전할 모책을 의논하더라.

[중략 부분 줄거리] 조웅은 위왕을 도와 서번을 격퇴하고 항복을 받은 후 태자를 구출하기 위해 태산부에 있는 섬인 계량도로 간다.

미인이 거문고 타기를 그치고 눈물을 비 오듯 흘리니, 만조 제신이 또한 비창하여 일시에 일어나 사배하고 물러나 돌아갔다. 원수가 몸을 솟구쳐 나는 듯이 들어가 태자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사배하고 아뢰기를,

“소신은 전조 충신 조정인의 아들이온데 태자의 옥체는 안녕하옵시나이까?”

하니, 태자가 크게 놀라고 낮빛이 변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귀신이나 사람이나? 귀신이 아니면 어찌 이곳을 왔으리오?”

하며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숨을 못 하시거늘, 원수 붙잡고 위로하여 말하기를,

“잠시 진정하옵소서.” / 하니, 태자가 눈물을 거두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사지(死地)에 왔는가? 과인은 신운이 불길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에 생전에 다시 만나기가 꿈박이요. 옛일을 생각하니 또한 꿈이라. 여덟 살 때에 서로 보고 이제야 다시 보니 반갑기가 그지없고 슬픔이 헤아릴 수 없도다.”

원수가 묻기를, / “저 여인은 누구라 합니까?” / 태자가 말하기를,

“매화라 하는데, 이 계량도의 관비라. 이 계량도 별장의 이름은 백성취라 하는데 또한 충신이다. 이리로 온 후 별장의 관대함에 힘입어 편히 머물렀으니 실로 바라지 못했던 일이다.”

또한 저 아이를 시중들 여자로 정하여 주기에 데리고 수회(愁懷)를 위로한 일이며, 또한 고국 충신들이 따라와 있는 일이며, 명일 진시에 사약하는 일과, 이 섬에 있는 충신들을 모두 내일 나거(拿去)*하는 일 등이 모두 다 태산부 자사가 장문(狀聞)을 올려서 이렇게 된 사연임을 이야기하며 통곡하였다. 원수 또한 슬픔을 헤아릴 수 없으나 위로하여 말하기를,

“지금 일이 급하옵고 소신이 싸우기에 유리한 진세에 둔병(屯兵)하고 태자의 존망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소신이 이제 급히 나가서 군사를 거느리고 와 태자를 모셔 갈 것이니 옥체를 보중하옵소서.”

하고는 즉시 하직하고 나왔다.

이날 새벽 네 시경에 계명성이 나니, 모든 충신들이 각각 처소로 돌아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시에 나아와 태자전에 하직 인사하러 들어갔더니, 태자 등불을 밝히고 얼굴에 희색이 가득하였다. 모든 충신들이 엎드려 아뢰기를,

“태자의 용안에 희색이 있사오니 연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태자가 말하기를, / “내가 즐거운 까닭은 매화가 아느니라.”

하니 여러 신하들이 반겨 나와 매화에게 물으니, 매화가 웃으며 붉은 입술을 잠깐 열어 밝은 노래 한 곡을 올리니 그 노래에 하였으되,

산중의 어젯밤 비에 봄소식 들어 보았는가?

오며 아니 옴은 설매(雪梅) 네 알리라.

매화야 알련마는 양류(楊柳) 알까 하노라.

모든 충신이 그 노래를 듣고 크게 기뻐하여 원수가 오기를 고대하더라. 이날 밤에 원수가 진에 돌아와 여러 장수들을 불러 말하기를, / “그대 등은 이리이리하라.”

약속을 정하고 군사를 몰아 급히 계량도로 가니, 날이 벌써 밝아 진시가 되었다. 원수가 마음이 바빠 칼을 들고 몸을 날려 별궁으로 다다라 들어가니, 벌써 봉명(奉命) 사신이 약그릇을 내어 오고 모든 충신들을 다 결박하였거늘, 원수가 분기충천하여 약그릇을 빨리 물리치고 칼을 들어 봉명 사신의 목을 치니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 원수가 군사를 재촉하여 ‘모든 충신을 다 끌러 놓아라.’ 하고 태자 앞에 엎드려 사배하니, 태자가 정신을 겨우 차려 원수의 손을 잡고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기를,

“꿈인들 이리하겠는가? 행여 꿈을 깼까 염려하노라.” / “안심하옵소서.”

하고 충신을 모두 당상에 올려 영접하니, 태자 매우 바쁜 사이에 혼을 잃어 실성한 사람 같았다.

*나거: 잡아감.

■ 핵심 정리

- 주제 : 진충보국(盡忠報國)과 자유연애 사상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작가 미상의 영웅 군담 소설로, 많은 이본이 존재한다. 중국 송나라를 배경으로 조웅이 역적 이두병을 처단하고 태자를 복위시켜 나라를 구하는 영웅적 활약상을 영웅의 일대기 형식으로 그리고 있다. 조웅의 생애는 일반적으로 영웅의 일생을 따르고 있지만, 다른 영웅 소설과 달리 주인공의 출생 과정에서 부모의 기차 정성이나 천상인의 하강과 같은 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소설의 전반부는 조웅의 고행담과 애정담, 후반부는 조웅의 영웅적 무용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술적 힘에 의한 영웅적 활동을 통해 유교 이념인 충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 줄거리

중국 송나라 때 승상 조정인이 간신 이두병에게 참소를 당하여 음독자살하고, 그의 외아들 조웅은 어머니와 함께 이두병을 피해 도망친다. 모진 고생을 하며 유랑하던 조웅 모자는 다행히 월경 대사를 만나 그 소개로 강선암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의탁하게 된다. 대사를 찾아 병법과 무술을 전수받은 조웅은 강선암으로 다시 돌아가던 중 장 진사 댁에 유숙하게 된다. 조웅은 거기서 우연히 만난 장 소저와 혼인 약속을 한다. 이 무렵 서번이 침입하자 조웅은 전쟁터에 나가서 이들을 물리친다. 태자를 유배 보낸 뒤 스스로 태자의 자리에 오른 이두병은 유배 보낸 태자에게 사약을 내리나 조웅은 이두병의 무리를 모조리 잡고 이두병마저 사로잡는다. 태자는 이두병 일파를 처단한 뒤 조웅을 제후로 봉한다.

■ 수능 Tip

- ‘영웅소설’로서의 특성을 이해한다.
 - 이 작품은 중국 송나라를 무대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영웅들의 투쟁을 그린 영웅 소설이다. 군신간의 충의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전반부는 주인공 조웅의 고행담과 애정담이고, 후반부는 조웅의 영웅적인 무용담이다. 조웅의 생애는 영웅의 일생을 따르고 있지만 다른 영웅 소설과 다른 점은 주인공 출생 과정에서 부모의 정성이나 태몽 또는 천상인의 하강과 같은 요소가 없다는 점이다. 작가는 조웅을 철저한 천명사상으로 무장시켜 권선징악이라는 주제의식을 잘 그려내고 있다. 다른 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천상계 인물의 후계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데 비해, 이 작품의 주인공은 자신의 힘보다는 초인의 도움으로 운명을 개척해 간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태자와 조웅은 이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 ② 위왕은 송 황실이 이두병에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 ③ 조웅은 서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위왕과 함께 계량도에 들어갔다.
- ④ 송 황실의 신하 중 일부는 유배된 태자를 따라와 계량도에 함께 있었다.
- ⑤ 태자는 이두병이 유배지로 사약을 보내 자신을 죽일 계획임을 알고 있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조웅전」에서 서사적 갈등의 핵심은 권력을 둘러싼 지배 질서의 문제이다. 이는 이 작품에서 대립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인물이 ‘황제-신하, 황제-제후’ 등 동아시아 봉건적 지배 질서의 수직적 신분 관계를 표상한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봉건적 질서의 위기와 회복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은 세계를 중심부와 주변부로 차별화하고 중심부를 굳건히 함으로써 평화를 실현하고자 했던 유교 이념이 당위적으로 공고하게 버티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조웅과 위왕은 송 황실을 중심으로 지배 질서를 회복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신하인 이두병이 황제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송 황실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질서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황제의 자리를 빼앗은 이두병을 악인으로 설정한 것은 송 황실을 중심으로 한 봉건적 지배 질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이두병이 송 태자를 계량도로 유배 보낸 것에는 봉건적 지배 질서에 닥친 위기를 중심부와 주변부의 차별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송나라 태자의 소식을 듣고 위왕이 송나라를 향해 사배 통곡하는 것으로 보아, 송나라 태자와 위왕은 봉건적 지배 질서의 수직적 신분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수능특강 <문학> 수록 작품 정리

- 화산중봉기(작자 미상) - (수능특강 <문학> 224~226쪽)

처사가 즉시 집에 기별하여 부인과 자부*로 하여금 송정(訟庭)*에 들게 하고, 부사가 관비(官婢)로 하여금 장 부인에게 물어 말하였다.

“저기 섰는 자가 분명 자식인가?”

장 씨 고하였다.

“천륜이 지중하매 어찌 타인을 자식이라 하오며, 갓 나서부터 기른 자식을 어미가 되어 어찌 모르리까?”

부사가 이 씨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제 너의 구고*가 다 분명한 자식이라 하거늘, 네 어찌 홀로 부군이 아니라 하니, 비록 부부가 오류에 들었으나 부자는 오류의 으뜸이라. 어찌 그 부모의 정리와 같으리오? 너는 모름지기 마음을 고치고 구고의 뜻을 거역지 말라.”

라고 하였다. 이 씨가 고하였다.

“부부의 정리는 부모의 정리에 지나지 못하려니와, 외모에 나타난 얼굴이야 어찌 모르겠습니까?”

부사가 노하여 말하였다.

“그 부모는 어려서부터 기른 자식의 얼굴을 어찌 모르고 네 홀로 안다고 하니 이것은 과연 병자의 말로다.”

이 씨가 여쭙되,

“병자 같아오면 아무 정신이 없사옵지라. 저놈의 욕됨을 면치 못하옵 것이요, 침식과 행동 거지를 어찌 평상시와 같이 하오리까? 분명 부군이 아님은 위에 있는 하늘이 굽어살피시오니, 바라건대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은택을 입게 하시어 김 씨의 인륜을 찾게 하오시고 여기에서 신(臣)의 정절을 밝히게 하소서.”

라고 하였다. 부사가 양편의 말을 듣고서 진가(眞假)를 분변치 못하고 판결하여 이르기를,

“이 송사는 진짜 선옥을 보기 전에는 귀신도 결단치 못할지라. 이 씨가 고한 바와 같을진대 진짜 선옥이 아닌가 하며, 김 씨 부부가 고한 바를 취택(取擇)하면 분명한 선옥인가 하노니, 김 씨는 저 선옥을 다시 취처(娶妻)케 하여 가도(家道)를 안정시키고 이 씨는 본가에 가 있어 진정한 선옥이 돌아오는 때를 기다림이 의당 마땅한 일로다.”

라고 하였다. 처사 부부가 칭사(稱謝)하고 이 씨도 또한 배사(拜謝)하며 즉시 모든 사람이 다 물러났다.

[중략 부분 줄거리] 송사가 조정에도 알려져 임금께서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진 어사를 파견한다. 어사는 전국을 돌아다닌 끝에 진짜 선옥을 찾아낸다. 어사는 선옥을 설득하여 함께 안동으로 내려오고 다시 송사가 벌어진다. 이로 인해 선옥의 팔촌인 형옥이 재산을 갈취할 목적으로 가짜를 진짜 선옥인 것처럼 내세웠음이 밝혀진다.

이때 어사가 광경을 보니 이 씨의 절개도 가늠하거니와 그 선옥의 진위를 아는 지혜를 마음으로 탄복하고 몸소 창밖에 나와 이 씨와 선옥을 데리고 들어와 즉시 이 씨로 수양딸을 정하였다. 이 씨가 부녀의 예로 뵈니 어사도 선옥과 이 씨를 가까이 앉히고 이 씨더러 물었다.



“여아는 어찌 가부(家夫)의 진가를 알았느냐?”

이 씨가 대답하였다.

“가부의 앞니에는 참깨만 한 푸른 점이 있사오매 이로써 안 것이요, 다른 데는 저놈과 과연 추호도 차이가 없도소이다.”

어사가 그 영민함을 찬탄하고 선옥에게 일러,

“너의 가치가 나의 여아가 되었으니 너는 곧 나의 사위라. 너희 둘이 이제 만났으니 각각 정회도 펴려니와 우선 네가 절에서 떠난 연고를 자세히 하여 피차 의혹되는 마음이 없게 하라.”

라고 하니, 선옥이 주저하고 즉시 말을 못하였다. 남자가 말하였다.

“장부가 할 말이면 반드시 실상으로 할 것이거늘 어찌 이같이 수삽(羞澀)*하십니까?”

선옥이 그제야 남자를 향하여 말하였다.

“내 모년 모월 모일 야(夜)에 중의 의관을 바꾸어 입고 내려와 그대의 처소에 이르러 보니 그대 어떤 의관한 남자와 더불어 기롱(譏弄)*하는 그림자가 창밖에 비쳤으며, 매우 분노하여 들어가 그대와 그놈을 모두 죽이고자 하다가 도로 생각하니, ‘만일 그러하면 누명(陋名)이 나타나 나의 가성(家聲)이 더러워질 것이라. 차라리 내 스스로 죽어 통한한 모양을 아니 보리라.’ 하고 강변에 나아가 굴원을 찾고자 하다가 차마 물에 들지 못하고 도로 절을 향하여 오다가 또 생각하니 ‘내 만일 집으로 돌아가면 그 분한 심사를 항상 풀지 아니할지라. 이러 할진댄 어찌 실가(室家)의 낙이 있으리오? 차라리 내 몸을 숨겨 세상을 하직하고 세월을 보내리라.’ 하여 그길로 운산을 바라보고 창망히 내달려 우연히 함경도 단천 땅에 이르러 상원 암이라 하는 절에 들어가 수운 대사의 상좌(上佐)가 되었으나, 대인을 만나 종적을 숨기지 못하고 이제 이같이 만났으니 알지 못하겠도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더뇨?”

남자가 눈물을 흘려 의상을 적시며 이르기를,

“장부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모르나뇨? 이같이 의심할진댄 어찌 그때 바로 들어와 한을 풀지 아니하였나뇨? 그때 그 사람은 지금 송정(訟庭)에 있으며 장부가 보고자 하나이까?”

하고 시비 옥란을 부르니 청하(廳下)에 이르렀다. 남자가 가리켜 말하기를,

“이 곧 그때의 의관한 남자라.” / 하니 선옥이 물었다.

“여자가 어찌 의관이 있으리오?” / 남자가 대답하였다.

“첩에게 묻지 말고 옥란에게 물어보소서.” / 하니, 선옥이 옥란에게 물었다.

“네가 육 년 전 모월 모일 야(夜)에 어떤 의관을 입었더뇨?”

옥란이 반나절이나 생각하더니 고하였다.

“소비(小婢)가 그때 아이 적이라, 남자가 공자의 도복을 지으시매 앞뒤 수품과 길이 장단이 맞는가 시험코자 하여 소비에게 입히시고 두루 보실 제, 소비가 어리고 지각이 없어 공자가 절에서 보낸 갓이 벽에 있거늘 장난으로 내려 쓰고 웃으며 남자에게 여쭙되, ‘소비가 공자와 어떠하나이까?’ 하니, 남자가 또한 웃으시고 꾸짖어 바빠 벗으라고 하기로 즉시 벗어 도로 걸었사오니 이 밖에는 의관을 입은 적이 없사옵니다.” / 라고 하였다.

*자부: 며느리.

*송정: 송사(訟事)를 처리하던 곳.

*구고: 시부모.

*수삽: 부끄러워하며 말하기를 주저함.

*기롱: 실없는 말로 놀림.

■ 핵심 정리

- 주제 : 진짜 남편을 찾기 위한 아녀자의 노력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송사소설의 사건 해결 구조를 취하고 있다. 주인공 김선옥이 천상계에서 적강해 시련을 겪다가 이겨 내고 입신양명해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내용의 이 작품은 여느 영웅소설과 다른 점을 지니고 있다. 김선옥의 비범한 면도 형상화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그려져 있는 것이다. 김선옥은 부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오해하고 가출을 하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영웅으로서의 비범함을 찾기는 어렵다. 이 작품은 송사를 통해 진짜 김선옥과 가짜 김선옥을 구별해야 하는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데, 이때 진어사가 탐문 수사하는 과정이 긴장감 있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줄거리

선옥의 조부 김완국이 간신의 모함을 받아 적소로 떠나 죽고 가족들은 고향 안동으로 낙향한다. 고향에서 지내던 중 선옥은 절에서 수학하게 되는데, 집에 몰래 내려와 보니 부인의 침소 사창에 남자의 의관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보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난다. 재산을 탐낸 팔촌형인 형옥이 선옥과 용모가 비슷한 인물을 데려오니 모두 반기나 선옥의 처만은 가짜임을 간파한다. 이 일을 나라에서 알게 되어 진 어사를 파견한다. 진 어사는 전국을 3년 동안 돌아다닌 끝에 선옥을 찾아내고 사건을 해결한다. 일본이 변경을 침범하자 선옥이 정남도원수로 출정하여 대승을 거둔 후, 조부를 모함한 간신의 죄를 상주하여 제주에 안치시킨다. 이후 김 씨 가문은 부귀영달을 누리게 된다.

■ 수능 Tip

- 다양한 갈래적 특성을 이해한다.
 - 송사소설 : 가짜 김선옥과 진짜 김선옥을 구별해 내는 일은 진어사의 활약에 의해 구체화
 - 영웅소설 : 주인공 김선옥과 이능옥은 적강하여 출생한 영웅. 결말 부분에서 왜구가 침략했을 때 김선옥은 용맹과 영웅성을 발휘하여 공을 세움
 - 가문소설 : 가문 내 구성원 사이에 얽힌 갈등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인물의 상황을 시대적 상황과 연결 지어 이해한다.
 - 이능옥이 처한 상황을 조선시대 사대부 부녀자의 삶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이능옥은 형옥이 데리고 온 선옥이 가짜임을 단번에 안다. 그러나 그녀의 시가와 친정 사람들은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녀를 정신이상자로 몰고 지아비를 섬기지 않으려는 못된 여자로 비난한다.

그러나 이능옥은 절개를 결코 굽힐 수 없다고 하면서 가짜 선옥이 그녀와 동침하려는 것을 번번이 회피한다. 급기야 이능옥의 친정아버지는 이능옥에게 자결을 강요하나 그녀는 헛되이 죽을 수는 없다고 버틴다. 이능옥의 행동은 지아비와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꺾듯하게 물리치는 사대부 부녀자의 모습을 반영한다.

특히 이능옥의 성격은 흔히 나약하고 삶에 곧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자신의 앞길을 가려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과거 내력이 뒤늦게 밝혀지고 있다.
- ②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과 사건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 ④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 장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우의적 소재를 활용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진짜와 가짜가 다투어 서로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진가쟁주형(眞假爭主型)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는 선옥이 부인인 이 씨의 부정을 의심하여 가출하는 첫 번째 사건과 진짜 선옥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두 번째 사건이 모두 ‘㉠진실이 밝혀지지 않음. → ㉡진실이 밝혀짐.’의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 ① 첫 번째 사건에서 ㉠이 발생하는 것이 두 번째 사건에서 진가쟁주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군.
- ② 첫 번째 사건에서 ㉠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두 번째 사건에서 ㉠은 치밀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군.
- ③ 두 번째 사건에서 이 씨는 진짜 선옥의 앞니에 푸른 점이 있다는 것을 토대로 ㉠을 확신하였으며, 결국 ㉡에 이를 수 있게 되었군.
- ④ 첫 번째 사건에서의 ㉠을 이 씨가 주도적으로 해결하여 ㉡에 도달했기 때문에 두 번째 사건의 ㉠ 역시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로군.
- ⑤ 어사는 두 번째 사건이 해결된 후 선옥의 가출 이유를 말하게 함으로써 첫 번째 사건이 ㉠에서 ㉡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군.

■ 수능특강 <문학> 수록 작품 정리

▪ 홍보가(작자 미상) - (수능특강 <문학> 230~233쪽)

<중중모리> 홍보가 좋아라, 박홍보가 좋아라고, 돈 한 꾸러미를 손에다가 들고 춤을 추면서 논다.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을씨고.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지권*을 가진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니, 돈아!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오느냐? 얼씨구나 돈 봐라. 여봐라, 큰자식아. 건넛마을 건너가서, 너의 큰아버지 오시래라. 경사를 보아도 형제간에 보자, 얼씨구나 절씨구. **옛그제까지 박홍보가 문전결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어 석승*이를 부러워하며, 도주공*을 부러워하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우리 집을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기민*을 즐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절씨구지화자 좋네. 이런 경사가 또 있나.

<아니리> 한참 좋아라고 절굿대춤*을 주었겠다. 여보시오, 마누라. **우리 굶주리던 속에, 쌀본김에 밥이나 좀 해 먹읍시다.** 아, 우리 권숙*이 몇이제? 내가 자식 놈들이 어찌 많던지 몇놈이 된 줄을 모르겠어. 가만히 있자. 음, 아리롱이, 다리롱이, 거맹이, 노랭이, 백산이. 아, 이 홍보가 아들 이름을 짓는데 개 이름으로 전부 지었겠다. 가만히 있거라. 세 보자. 옳지. 자식이 아홉, 우리 내외 합하니 열하나로구나. 아, 굶던 속에 한 사람 앞에 쌀 한 섬씩 못 먹겠는가? 쌀 열한 섬만 밥을 해라. 밥을 해제껴 논 것이 닷 마지기 거름무더기보다도 더 크겠다. 홍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자식 놈들 굶주렸던 속에 함부로 밥을 먹다 탈이 날까 싶어서, 밥영(令)을 내리는데, 너 이놈들! 내 영전에 밥을 먹었다가는 밥으로 목을 베리라! 해 노니까, 그래도 자식 놈들이 자기 아버지 영을 꼭 지켰던가, 내, 그저 원통 철환 나가듯이 할라고 그냥 꽉 쥐그리고 앉아서, 자기 아버지 영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적에, 너 이놈들! 숨 쉬어 감서 밥 먹어라! 허니까 원통 철환 나가듯이 ‘웁’ 소리만 났제, 자식 놈들은 하나도 없어졌겠다. 아, 이놈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을까? 아, 이놈들이 그냥 어떻게 세게 갔던지, 밥 속으로 가서 폭 박혀 가지고, 속에서 벌거지 그저 나무 좀먹듯 먹고 나오는데, 참, 자식 놈들 밥 먹는 것 기가 막히게 먹는구나. 여보시오, 마누라, 내 평생에 원이니, 나 그 찌*를 몽땅 벗고, 나도 밥 속으로 가서 폭 파묻혀서 먹어 볼라요. 아이고, 영감, 그러면 나도 그럴라요. 허허, 이 사람아. 자네가 남녀가 유별한디, 행여라도 그렇게 하면 못쓰는 것이니, 자네는 여기서 밥 먹는 구경이나 허고, 조금만치씩 먹소. 홍보가 밥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툇툇 뭉쳐 가지고 혹 어깨 너머로 던져 가지고 두꺼비 파리 잡듯 딸각딸각 받아먹는데, 밥 먹는데 무슨 박자가 있으라마는, 그 밥 먹는 데도 휘모리로 달아 놓고, 밥을 먹어 보겠다.

<휘모리> 홍보가 좋아라고, 홍보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홍보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홍보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툇툇 뭉쳐 갖고 던져 놓고 받아 먹고, 던져 놓고 받아 먹고, 던져 놓고 받아 먹고, 던져 놓고 받아 먹고, 툇툇 뭉쳐 갖고 던져 놓고 받아 먹고, 던져 놓고 받아먹고, 던져 놓고 받아 먹고, 던져 놓고 받아 먹고, 어찌 밥을 먹어 놓았던지, 밥이 목구멍까지 차 가지고 정신이 없고, 눈을 뒤집어 까고 홍보가 죽게 되었구나. 홍보 마누라 밥을 먹다 가만히 보니, 자기 영감이 죽게 되었다니, 홍보 마누라 놀래 가지고, 아이고, 영감! 밥 먹다 죽다니, 이런 일이 어디가 있소? 어라, 아직도 내가 밥을 먹으라면 내, 쌀 석 섬은 더 먹겠구나.

<아니리> 홍보 자식들이 밥 먹느라고 자기 아버지 죽는 꼴도 못 보겠다. 이때 홍보 큰 아들 놈이 썩 들어오며 제깃밥* 먹듯 허겼다. 여, 밥판이 어떻게 되얏소? 아이고, 이 녀석아. 밥이고 뭇이고, 느그 아버지 죽는다! 밥 먹다 죽는 게 뉘 아들놈한테 원망을 헌단 말이오? 너 이 녀석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아, 밥 먹고 죽으면 죽었제, 쓰졌소, 거? 그래, 아버지 이 배가 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스럽게 생겼으니, 한번 튕겨 봅시다. ‘탁’ 튕겨 노니까, 어떻게 밥을 먹어 났던지, 뱃가죽이 장구 가죽 되야 갖고 ‘땡그랑’ 소리가 나게 밥을 먹었던가 보더라. 배꼽에 있는 때가 녹두 알맹이로 그저 툭툭 뭉쳐서 나가는데, 핑기쳐 나가는 소리가 ‘땡 땡’ 소리가 나고, ‘땡그랑’ 소리가 나는데 기가 막히

[A]

<진양조> 시리령 실건, 툭질이로고나. ऐ여루, 당그여라. 시르르르르르. 실건 실건으 툭질 이야. **이 박을 타거드면,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서 은금보화가 나오너라!** 은금보화가 나오거든 형님 갖다가 드릴란다. 홍보 마누래 화를 내며, 툭 머리를 시르르르르르 놓고, 뒤로 주춤 물러서서 자기 영감을 물끄러미 보더니만, 나는, 나는 안 탈라요. 안 탈라요. 여보, 영감, 형제간이라 잊었소? 동지선달 추운 날에, 자식들을 맨발을 벗기여, 몽둥이 무서워 쫓겨나던 일을 죽어도 못 잊었소. 나는, 나는 안 탈라요. 안 탈라요.

<중모리> 홍보가 화를 내며, 타지 마라, 이 사람아! 나 혼자 탈란다, 타지 마라. 계집이라 허는 것은 상하의복과 같은지라. 의복이라 허는 것은 떨어지면은 지어 입제, 형제는 일신 수족이라, 한번 아차 죽고 보면, 조선 팔도 너른 곳에 얼굴인들 다시 보겠느냐? 나 혼자 탈란다, 타지 마라.

<아니리> 홍보 마누래 가만히 듣더니, 아이고, 영감. 영감 말을 듣고 보니, 내 잘못된 것 같소. 다시 안 그럴 터이니 한 번만 용서하오. 홍보가 비식이 웃으면서,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자네가 그럴 리가 있겠는가. 자네같이 얌전하고 좋은 사람 마음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렇고 말고! 다시 그리 말아야제. 우리 그러면 재미있게 한번 타 보세.

*생살지권: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

*석송, 도주공: 중국의 큰 부자.

*기민(飢民): 굶주린 백성.

*절굿대춤: 팔만 벌리거나 몸의 관절만 움직이거나 또는 아래위로만 움직이며 제멋대로 추는 춤.

*권속: 한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찌: 웃.

*제깃밥: 음식을 차려 남을 대접하는 밥

■ 핵심 정리

- 주제 :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 이해와 감상

「홍보가」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로 등장인물들의 익살스러운 재담이 다양하게 들어 있어 해학성이 가장 짙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홍보가」를 일명 「박타령」이라고 하는데, 홍보와 놀보가 박을 타는 대목에서 부르는 노래인 ‘박타령’이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기 때문이다. 박 속에서 온갖 비단과 보물이 나온다는 설정은 비현실적이지만, 이는 당대 민중이 직면하고 있던 절대적 빈곤과 그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 형제간의 우애를 주제로 내세우면서도 이면적으로는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 줄거리

조선 사회의 부조리 형인 놀보는 욕심이 많고 심보가 고약하고, 아우인 홍보는 선량하고 우애가 깊다. 놀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독차지하고 홍보네 가족을 내쫓는다. 홍보는 살아가기 위해 온갖 품팔이를 다하며, 심지어는 매품까지 판다. 어느 날 홍보는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 주고, 제비가 물어다 준 박 씨를 심어 열린 박 속에서 나온 재화로 부자가 된다. 이 사실을 안 놀보는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는 고쳐 주고, 이듬해 봄에 제비가 놀보에게 박 씨를 물어다 준다. 그러나 놀보는 박 속에서 나온 노승, 상여꾼, 초라니패 등에 의해 패가망신을 당한다. 홍보는 놀보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고 놀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형제가 화목하게 살게 된다.

■ 수능 Tip

- 판소리의 특징을 이해한다.
 - 판소리는 우리나라 고유의 공연 예술의 하나로 현장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실제 공연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감상할 때 작품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판소리에는 해학과 풍자가 가득했으며,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있어 양반과 평민 모두 즐길 수 있는 예술이었다.
- 판소리 장단과 사설의 관계를 파악한다.
 - 판소리 장단은 제일 느린 진양조부터 제일 빠른 휘모리까지 다양하다. 느린 장단은 인물의 정서를 표출하는 데 적당하고 빠른 장단은 급격한 사건이나 장면 전개에 적당하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홍보가」는 「박타령」이라고도 불릴 만큼 홍보가 박을 타는 장면은 이 작품의 중심 내용이자 큰 즐거움을 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서민들이 이 장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는 홍보의 박 속에 서민들의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홍보가 박을 타자 그 속에서 온갖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는 홍보가 소망하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당시 가난한 서민들이 꿈꾸어 오던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로 의식주와 관련된 것이다. 홍보는 가난한 서민들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인물로, 그가 박을 타는 장면에는 최소한의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했던 서민들의 꿈이 형상화되어 있다. 비록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홍보를 통해 서민들의 소망이 대리 만족됨으로써 쾌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① 홍보가 ‘돈 한 꾸러미를 손에다가 들고 춤을 추’는 장면을 보며 서민들은 자신들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대리 만족을 느끼겠군.
- ② ‘옛그제까지 박홍보가 문전걸식을 일삼더니’를 통해 홍보가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과, 우리 집을 찾아오소.’를 통해 홍보가 가난한 서민들에게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우리 굶주리던 속에, 쌀 본 김에 밥이나 좀 해 먹읍시다.’를 통해 최소한의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한 궁핍한 서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홍보가 박을 타면서 ‘이 박을 타거드면,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서 은금보화가 나오너라!’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의식주에 대한 서민들의 소박한 소망을 확인할 수 있군.

7.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홍보가」는 다른 판소리에 비해 재담이 많다. 재담은 소리꾼이 익살과 재치를 부리며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담의 구조 중 대표적인 것이 ‘구조 만들기 - 구조 무너뜨리기’이다. 이는 ‘구조 만들기’에서 수용자가 인과 관계에 의해 일반적인 결말을 예상하도록 유도한 다음, ‘구조 무너뜨리기’에서 수용자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대치를 무너뜨리는 방법이다. 이는 일종의 긴장과 이완의 구조에 해당한다. 즉 ‘구조 만들기’에서는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구조 무너뜨리기’에서는 엉뚱한 결말로 인해 긴장감이 이완되면서 웃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홍보가」에서는 이러한 이야기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서 재담을 형성하고 있다.

- ① 홍보 마누라가 ‘아이고, 이 녀석아. 밥이고 뭇이고, 느그 아버지 죽는다!’라고 소리치는 장면에서 긴장감이 형성되면서 재담의 ‘구조 만들기’가 시작되는군.
- ② 홍보의 첫째 아들이 ‘밥 먹다 죽는 게 뉘 아들놈한테 원망을 헌단 말ियो?’라고 어머니에게 대드는 장면에서 수용자들은 앞으로의 갈등 상황을 기대하겠군.
- ③ 홍보 마누라가 ‘너 이 녀석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라고 첫째 아들을 호통치는 장면은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면서 인과 관계에 의한 결말을 예상하도록 유도하는군.
- ④ 홍보 자식들이 홍보의 뱃가죽을 튕기자 ‘뽕그랑’ 소리가 나고 배꼽의 때가 ‘뽕 뽕’ 튕기는 장면은 ‘구조 무너뜨리기’로 그동안의 긴장감이 이완되면서 웃음이 유발되겠군.
- ⑤ 홍보의 배를 누르자 똥 줄기가 나와 운봉 연재를 넘어가고 이를 황룡으로 착각한 농군들이 절을 하는 장면은 수용자가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므로 새로운 ‘구조 만들기’에 해당하는군.

■ 수능완성 수록 작품 정리

- 황새결송(작자미상) - (수능특강 <문학> 234~237쪽)

(가)

옛날 경상도 땅에 한 사람이 살고 있으니 대대 부자로 일 년 추수가 만석(萬石)이 넘으니, 그 사람의 무량대복(無量大福)을 가히 알지라. 일생 가산이 풍부하여 부러워할 것 없으며 이웃 사람이 덕을 칭송하지 않는 이가 없더라. 그중 일가에 한 패악무도(悖惡無道)한 놈이 있어 동서를 가리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아 다니더니 하루는 홀연 이르러 구박하여 가로되,

“너희는 좋게 잘사는구나, 너 잘사는 것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때문이니 우리 서로 같은 조상의 자손으로 너만 홀로 잘 먹고 잘 입어 부족한 것 없이 지내니 어찌 애달프지 않겠느냐? 이제 그 재물을 반을 나누어 주면 무사하려니와 그러지 아니하면 너를 살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밤새도록 말도 안 되는 말을 무수히 하며 심지어 불을 놓으려 하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거동을 보고 그놈의 몸쓸 심사를 헤아리매 차마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가만히 주인 부자를 권하여 가로되,

“그놈을 그저 두지 말고 관가를 정하거나 감영(監營)에 의송(議送)을 하거나 하여 다시 이런 일 없게 함이 좋을까 하노라.”

하니, 그 부자 이 말을 듣고 옹게 여겨 가로되,

“이놈은 좀처럼 숙이지 못할지라. 서울 올라가 형조(刑曹)를 정하여 후환을 없게 하리라.”

하고, 그놈을 이끌고 함께 서울로 올라오니라.

(나)

관원이 그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보고 서리에게 분부하여,

“뒷날 좌기* 시(座起時)에 판결하리라.”

하고 아직 심문하지 못하더니, 여러 날이 되도록 좌기되기만 기다리매 그사이 서리나 찾아 보고 꺾이나 얻을 일이로되, 제 이왕 그러지 아니하게 한 일을 전혀 믿고 아무 사람도 찾아 보지 아니하고 그 절통한 심사를 견디지 못하여 그놈 속히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지라. 그놈이 비록 놀기를 즐겨 허랑무도(虛浪無道)하여 천하를 돌아다니며 보고 들은 것이 너르고 꺾하여 시속 물정을 아는지라.

이때 송사에 올라와 일변 친구도 찾으며 형조에 길을 뚫어 당상(堂上)이며 낭청(郎廳)이며 서리(胥吏)사령(使令)까지 꺾으니, 자고로 송사는 눈치 있게 잘 돌면 이기지 못할 송사도 아무 탈 없이 이기노니, 이는 이른바 녹피(麕皮)에 갈왈 자*를 씌이라. 아무튼 좌기 날을 당하여 당상은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고 낭청들은 동서로 죽 벌여서 앉고 서리 등은 뒷마루에서 명을 받는데, 그 엄숙함이 비할 데 없더라. 사령에게 분부하여,

“양측을 불러들이라.”

하고 계단 아래에 꿇어앉게 하여 분부하되,

“네 들으라. 부자 너같이 무지한 놈이 어디 있으리오. 제 자수성가를 하여도 가난한 친척을 살리며 불쌍한 사람을 구출해야 하거늘, 하물며 너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가업을 가지고

대대로 재물을 모아 만석꾼에 이르니 죽히 흥년에는 백성을 구제도 하거든, 너의 가까운 친척을 구제하지 아니하고 송사를 하여 물리치려 하니 너같이 무뢰한 놈이 어디 있으리오. 어디 자손은 잘 먹고 어디 자손은 굶어 죽게 되었으니 네 마음에 어찌 죄스럽지 아니하라. 네 소행을 헤아리면 응당 죄를 물어 벌을 주어야 할 것이로되 그리하지는 않고 송사만 지게 하고 내치노니 네게는 이런 상덕(上德)이 없는지라. 저놈 달라 하는 대로 나눠주고 친척 간 서로 의를 상치 말라.” <중 략>

‘내 송사는 지고 가거니와 이야기 한마디를 꾸며 내어 조용히 할 것이니 만일 저놈들이 듣기곤 하면 무안이나 뵈리라.’

하고 다시 일어서 섬돌 아래 가까이 앉으며 고하여 가로되,

“소인이 천 리에 올라와 송사는 지고 가거니와 들음직한 이야기 한마디 있사오니 들으심을 원하나이다.”

(다)

그 부자가 그제야 잔기침하며 말을 내어 왈,

“옛적에 찢꼬리와 뺨죽새와 따오기 세 짐승이 서로 모여 앉아 우는 소리 좋음을 다투되 여러 날이 되도록 결단치 못하였다.”

하루는 찢꼬리 이르되,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송사하여 보자.”

하니 그중 한 짐승이 이르되,

“내 들으니 황새가 날짐승 중 키가 크고 부리가 길고 몸집이 커서 통량*이 있으며 모든 일을 곧게 한다 하기로 이르기를 황 장군이라 하노니, 우리 그 황 장군을 찾아 소리를 결단함이 어떠하겠는가?”

세 짐승이 옹이 여겨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매 그중 따오기란 짐승이 소리는 비록 참혹하나 소견은 밝은지라. 돌아와 생각하되,

‘내 비록 큰 말은 하였으나 세 소리 중 내 소리 아주 초라하니 날더러 물어도 나밖에 질 놈 없는지라. 옛사람이 이르되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 하였으니 아무렇게나 청촉(請囑)이나 하면 필연 좋으리로다.’ <중 략>

찢꼬리 부끄러워하며 물러나오자 뺨죽새 또 들어와 목청을 가다듬고 소리를 묘하게 하여 이르되,

“소인은 녹수천산(綠水千山) 깊은 곳에 만학천봉(萬壑千峰) 기이하고 안개 피어 구름 되며 구름 걷어 다기봉(多奇峯)하니 별건곤(別乾坤)이 생겼는데 만장폭포 흘러내려 수정령을 드리운 듯 송풍은 소슬하고 오동추야 밝은 달에 아름다운 이내 소리 만첩산중에 가금성 되오리니 뉘 아니 반겨 하리까.”

황새 듣고 또 판결하여 이르되,

“월락자규제(月落子規啼)하니 초국천일애(楚國千日愛)*라 하였으니, 네 소리 비록 맑고 깨끗하나 십분궁수(窮愁)*하니 전정을 하면 가히 불쌍하도다.”

하니 뺨죽새 또한 부끄러워하며 물러나거늘 그제야 따오기 날아들어 소리를 하고자 하되 저보다 나은 소리도 벌써 지고 물러나거늘 어찌할꼬 하며 차마 남부끄러워 입을 열지 못하나

그 황새에게 약 먹임을 믿고 고개를 낮추어 한번 소리를 주(奏)하며 아뢰되,
 “소인의 소리는 다만 따옥성이웁고 달리 풀어 고하올 일 없사오니 사또 처분만 바라고 있
 나이다.”

하되, 황새 놈이 그 소리를 문득 듣고 두 무릎을 탕탕 치며 좋아하여 이른 말이,
 “쾌재(快哉)며 장재(壯哉)로다. 음아질타(吟啞叱咤)에 천인이 자폐(自斃)함*은 옛날 항 장군
 의 위풍이요 장판교 다리 위에 백만 군병 물리치던 장익덕의 호통이로다. 네 소리 가장 웅
 장하니 짐짓 대장부의 기상이로다.”

하고 이렇듯 처결하여 따옥성을 상성으로 처결하여 주오니, 그런 짐승이라도 뇌물을 먹은
 즉 그릇되게 판결하여 그 피꼬리와 뺨꼭새에게 못할 노릇 하였으니 어찌 재앙이 자손에게까
 지 미치지 아니하오리까.

이러하온 짐승들도 물욕에 잠겨 틀린 노릇을 잘하기로 그놈을 개아들 개자식이라 하고 비
 웃었으니, 이제 서울 법관도 여차하오니 소인의 일은 벌써 판이 났으며 부질없는 말하여 쓸
 데없으니 이제 물러가나이다. 하니, 형조 관원(刑曹官員)들이 대답할 말이 없어 가장 부끄러
 워하더라.

* 좌기: 관아의 으뜸 벼슬에 있던 이가 출근하여 일을 시작함.

* 녹피에 갈왈 자: 사슴 가죽에 쓴 가로왈(臼) 자는 가죽을 잡아당기는 대로 일(日) 자도 되고 왈(臼)
 자도 된다는 뜻으로, 사람이 일정한 주견이 없이 남의 말을 좇아 이랬다저랬다 함을 비유적으로 이
 르는 말.

*통량: 국량(局量), 남의 잘못을 이해하고 감싸 주며 일을 능히 처리하는 힘.

*월락자규제하니 초국천일애: 달이 지고 두견새 슬피 우니, 초나라를 오래도록 그리워하리라.

*궁수: 곤궁하여 생기는 근심.

*음아질타에 천인이 자폐함: 호통 치는 소리에 많은 사람이 자결함.

■ 핵심 정리

- 주제 : 뇌물에 의해 송사가 좌우되는 현실과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과 풍자

■ 이해와 감상

1848년에 간행된 『삼설기』에 실린 작품으로, 억울한 일을 관청에 호소하여 해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송사 소설이다. 부자의 이야기 속에 따오기의 목청 자랑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
 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당시 조선 사회 송사의 부패한 양상과 한국 씨족 사회의 병폐를 파헤친
 풍자 문학이다.

■ 줄거리

옛날 경상도 땅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먼 일가친척 중에 악한(惡漢) 하나가 재산의 반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협박을 하였다. 이에 부자는 형조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악한은 뇌물을 써서 자기
 에게 재판이 유리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부자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관원들에게 들려주었다. 옛날 피꼬리, 뺨꼭새, 따오기가 서로 자기의 우는 소리가 가장 좋다고 다
 투다가 황새를 찾아가 송사를 한다. 그런데 황새는 자신에게 뇌물을 준 따오기의 우는 소리가 가

장 낮다고 판결한다. 부자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형조 관원들은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했다.

■ 수능 Tip

- 구성상의 특성을 이해한다.
 -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결들인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 작품의 의의와 가치를 이해한다.
 - 이 작품은 당시 조선 사회 송사의 부패상과 한국 씨족사회의 병폐를 파헤친 풍자문학으로, 우화이기는 하지만 한국문학의 걸작에 들어갈 만하다. 제재 자체도 그렇고 당시 사회의 부패상을 그린 사회 소설적 성격을 띠고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가)~(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황새결송」은 다른 송사 소설과 마찬가지로 소송의 사건이 발생하는 ‘사건 발생’,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을 찾는 ‘제소 및 방안 모색’, 그리고 소송에 대해 판단하여 처결하는 ‘판결’이라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송사 소설에서 ‘판결’ 단계에 이르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지만, 「황새결송」의 ‘판결’ 단계는 일반적인 송사 소설과 차이점이 있어서 ‘판결’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잘못된 판결을 알리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가 있는데, 그로 인해 다른 송사 소설에 비해 ‘판결’부분의 분량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 ① (가): 친척이 부자에게 재산의 반을 요구한 것은 ‘사건 발생’에 해당한다.
- ② (가): 부자가 친척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온 이유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제소’하기 위해서이다.
- ③ (나): 부자가 친척이 속히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방안 모색’에 해당한다.
- ④ (나): 친척이 판결에서 승소한 것이 일반적인 송사 소설에서의 ‘판결’과 차이점에 해당한다.
- ⑤ (다): 부자가 형조 관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잘못된 판결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장치에 해당한다.

■ 수능완성 수록 작품 정리

- 하생기우전(신광한) - (수능특강 <문학> 289~292쪽)

[앞부분 줄거리] 하생은 재주가 뛰어났으나 벼슬을 하지 못하고 울적한 날들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하생은 점쟁이의 도움을 받아 남문 밖에 있는 한 여인과 인연을 맺고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날이 밝아 올 무렵 여인은 하생의 팔을 베고 누워 있다가 문득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하생은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이제 겨우 좋은 만남을 이루었거늘 갑자기 왜 그러오?”

“여기가 실은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저는 시중(侍中) 아무개의 딸입니다. 죽어서 이곳에 장례 지낸지 오늘로 사흘이 되었군요. 제 아버지는 오랫동안 요직을 지내며 권세를 누리셨는데, 아버지께 밭보여 해코지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원래 아버지는 아들 다섯과 딸 하나를 두셨지만, 다섯 오빠가 모두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뜨고 저 혼자 아버지 곁에 있다가 지금 또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제 옥황상제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네 부친이 큰 옥사를 처결하면서 죄 없는 수십 명의 목숨을 모두 구해 주었으니, 이로써 지난 날 못사람들을 해코지했던 죄를 용서받을 만하다. 다섯 아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돌이킬 수 없으니 너를 돌려보내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절하고 물러 나왔어요. 그런데 옥황상제께서 약속하신 날이 바로 오늘 아침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저는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지금 서방님을 만났으니 이 또한 하늘이 정한 운명이겠지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며 죽을 때까지 서방님을 받들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하생 또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대의 말대로라면 생사를 걸고 그대의 뜻을 따르겠소.”

그러자 여인은 베갯머리에서 금척을 뽑아 하생에게 주며 말했다.

“서방님께선 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서울 저잣거리의 큰 절 앞에 있는 노뚝돌* 위에 올려 두십시오. 그러면 분명 이 물건을 알아보는 자가 있을 겁니다. 어떤 곤욕을 당하더라도 제 말을 부디 잊지 말아 주세요.”

“알겠소.”

여인은 하생더러 빨리 나가 보라고 재촉했다.

<중 략>

“너는 어떤 사람이며, 이 물건은 어디서 얻었느냐?”

“저는 태학의 학생입니다. 그 금척은 무덤 속에서 얻었습니다.”

“너는 입으로는 시와 예를 말하면서 뒤로는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자란 말이나?”

하생은 웃으며 말했다.

“우선 결박한 몸을 풀고 어르신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매우 기쁜 소식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장차 제게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생각하셔야 할 텐데 도리어 화를 내시는군요.”

시중은 즉시 하인들에게 분부를 내려 하생의 결박을 풀고 섬돌 위로 올라오게 했다. 마침

내 하생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찬찬히 말해 주었다. 시중은 차츰 얼굴에 부끄러운 빛을 띠더니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남녀종들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며 탄식했다. 그때 주렴 안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니 철저히 확인하고 나서 죄를 물어도 늦지 않겠어요. 저 선비의 이야기를 듣자니 평소 우리 딸아이의 용모며 옷차림과 의심의 여지없이 똑같아요.”

시중이 말했다.

“그렇군. 즉시 삼과 삼태기*를 준비하고 가마를 대령하라. 내가 직접 가 봐야겠다.”

시중은 하인 몇 명을 남겨 하생을 지키게 하고 길을 나섰다.

잠시 후 묘역에 이르러 보니 봉분(封墳)*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 변함이 없었다. 시중은 의아히 여겨 무덤을 파 보았다. 무덤 속의 딸은 안색이 산 사람과 같았다. 심장 있는 쪽을 만져 보니 조금 온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시중은 유모를 시켜 딸을 안게 하고 가마에 태워 돌아왔다. 무당이나 의사를 부를 겨를도 없어 가만히 안정을 취하도록 할 따름이었다.

해 질 녘이 되자 시중의 딸이 깨어났다. 여인은 부모를 보더니 한 번 가느다란 소리를 내어 흐느꼈다. 기운이 차츰 진정되자 부모가 물었다.

“네가 죽고 난 뒤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니?”

“저는 꿈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죽었었나요?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여인은 그렇게 말하며 뭔가 수줍어하는 기색이었다. 부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차 캐묻자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하생이 했던 말과 꼭 들어맞는 것이었다. 온 집안사람들이 무릎을 치며 놀랐다. 이제 하생은 그 집 사람들에게 몹시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여인은 평상시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했다. 시중은 하생을 위로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서 ㉠ 시중은 하생의 집안에 대해 묻고, 또 하생이 혼인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하생은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고 말한 뒤 부친은 평원 고을의 유생으로 오래전에 작고하셨다고 대답했다. 시중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의논하였다.

“하생의 용모와 재주가 참으로 범상치 않으니 사위로 삼는다 해도 문제될 건 전혀 없겠소만 집안이 서로 걸맞지 않는구려. 더구나 ㉡ 이번에 겪은 일이 너무 괴상망측하고 보니 이 일을 계기로 혼인을 시켰다가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싶소. 그래서 나는 그냥 재물이나 후하게 주어 사례하는 것으로 끝냈으면 싶소.”

부인이 말했다.

㉢ “이 일은 당신이 결정할 문제인데, 아녀자가 어찌 나서겠어요?”

하루는 시중이 또 잔치를 열어 하생을 위로하며 소원을 물었지만 혼사에 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 ㉣ 하생은 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와 가슴을 치고 속을 태우며 약속을 잊은 여인을 원망했다. 하생은 곧바로 절구 한 편을 지어 작은 종이에 쓰더니 여인의 유모더러 그 종이를 여인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생의 시는 다음과 같았다.

비록 흙탕물이 물어도 욕은 더러워지지 않지만

봉황은 자기 등지를 찾았으니 잡새를 돌아보려 하겠는가.
팔 위의 눈물 자국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다만 이제는 도리어 꿈속에서나 그대를 보겠구나.

여인은 하생의 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저간의 사정을 물은 뒤에야 비로소 부모가 하생의 마음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여인은 그 즉시 병들었다며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노둣돌: 말에 오르거나 내릴 때에 발돋움하기 위하여 대문 앞에 놓은 큰 돌.

*삼태기: 흙이나 쓰레기,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 쓰는 기구.

*봉분: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서 만든 무덤.

■ 핵심 정리

- 주제 : 혼사 장애의 극복을 통한 사랑의 성취

■ 이해와 감상

이혼사 장애를 극복한 애정의 성취와 입신양명을 통한 욕망의 실현을 다룬 작품으로, 김시습의 소설 <만복사저포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생이라는 인물이 죽은 여인의 혼령을 만나 사랑하게 되고, 그녀가 살아남으로써 혼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기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줄거리

하생은 집안이 가난하고 조실부모하여 장가도 들지 못했으나 재주가 남달라 고을 수령에게 뽑혀 태학에 입학하게 된다. 유능하지만 조정이 어지러운 탓에 등용되지 못하고 울적하게 지내던 하생은 점쟁이를 찾아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점괘를 얻고, 도성 남문 밖에서 죽은 지 얼마 안 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는다. 하생은 여인의 부탁대로 금척을 서울 저잣거리의 큰 절에 가져갔다가 도둑으로 오인되어 여인의 부모와 만나게 된다. 하생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여인의 부모는 무덤 속의 딸을 가마에 태워 집으로 돌아오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은 다시 살아난다. 여인의 부모가 하생과 여인의 결혼을 반대하자, 여인은 식음을 폐하고 부모를 설득해 마침내 하생과 여인은 부부가 된다. 그 후 하생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상서령까지 올랐으며, 두 사람은 서로 공경하며 사십여 년을 행복하게 살아간다.

■ 수능 Tip

- 작품의 특징을 파악한다.
 - 첫째, 전기성(비현실성)이 두드러진다. 둘째, 재생 모티프와 결연 모티프를 활용하고 있다. 셋째, 행복한 결말 구조를 취하고 있다.
- <만복사저포기>와 비교하여 작품의 성격을 이해한다.
 - <하생기우전>의 주인공 하생과 여주인공의 만남은 운명론적인 사고와 사랑의 시작을 의미

한다. 이 작품은 애정소설이며 작품 속 사랑의 양상은 낭만적 사랑에 속하지만 도취적 사랑의 성격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 남녀 주인공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뜨거운 열정과 하늘을 감동시킬 정도의 사랑의 의지로 결국은 합일을 이루는 극적인 전개가 특징이다. 금오신화 중 전기적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만복사저포기>와는 '현세와 내세를 이어주는 증거물을 제시'하고 여인들이 '3년 전에 죽은 여인'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만복사저포기>의 여인은 환생을 하지만 양생과 사랑을 지속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만복사저포기>가 불교적인 윤회 사상에 근간을 두고 있는 반면 <하생기우전>은 도가적인 인식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9.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하생기우전」의 시대적 배경은 고려 시대이지만, 작품에는 특이하게도 조선 시대의 남녀 결연 풍습이 반영되어 있다. 조선 시대의 남녀 결연은 가문 간의 결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러한 결연은 대체로 남성 중심적 사고에 기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불구하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연애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결연 당사자의 자유연애에 근거하여 결연이 이루어진 경우는 사실상 드물었다. 이는 결연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무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 ① ㉠: 시중이 남녀의 결연에 있어 가문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② ㉡: 하생의 인간됨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중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 부인은 집안의 중요한 결정에 아녀자가 나서지 않는다는 남성 중심적 사고를 지녔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하생은 자유연애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며, 다른 가문과의 결연을 수용해 버린 여인을 원망하고 있다.
- ⑤ ㉤: 하생과의 결연을 무산시키려 드는 부모에 대해 여인이 거역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

■ 수능완성 수록 작품 정리

- 열녀춘향수절가(작자미상) - (수능완성 176~178쪽)

옥창(玉窓) 앵도화 떨어져 보이고 거울 복판이 깨어져 뵈고 문 위에 허수아비 달려 보이거
늘

“나 죽을 꿈이로다.”

수심 걱정 밤을 샅 제 기러기 울고 가니 일편 서강(西江) 달에 행안남비* 네 아니냐. 밤은
깊어 삼경이요 굿은비는 퍼붓는데 도깨비 뻑뻑, 밤새 소리 붓붓, 문풍지는 펄렁펄렁, 귀신이
우는데 난장 맞아 죽은 귀신, 형장 맞아 죽은 귀신, 결령치사* 대롱대롱 목매달아 죽은 귀신
사방에서 우는데 귀곡성이 낭자로다. 방 안이며 추녀 끝이며 마루 아래서도 애고애고 귀신
소리에 잠들 길이 전혀 없다. 춘향이가 처음에는 귀신 소리에 정신이 없이 지내더니 여러 번
을 들어나니 파겁*이 되어 청승 굿거리* 삼잡이 세악* 소리로 알고 들으며

“이 몸쓸 귀신들아. 나를 잡아 가려거든 조르지나 말려무나. 암급급여울령사파췌.*”

진언 치고 앉았을 때 옥 밖으로 봉사 하나 지나가되 서울 봉사갈을진대

“문수*하오.”

외치련마는 시골 봉사라

“문복(問卜)하오.”

하고 외치고 가니 춘향이 듣고

“불러 주오.”

춘향 어미 봉사를 부르는데

“여보 저기 가는 봉사님.”

불러 놓으니 봉사 대답하되

“게 뉘기. 게 뉘기니.”

“춘향 어미요.”

“어찌 찾나.”

“우리 춘향이가 옥중에서 봉사님을 잠깐 오시라 하오.”

봉사 한번 웃으면서

“날 찾기 의외로세. 가지.”

봉사 옥으로 갈 제 춘향 어미 봉사의 지팡이를 잡고 인도할 제

“봉사님 이리 오시오. 이것은 돌다리요 이것은 개천이요. 조심하여 건너시오.”

앞에 개천이 있어 뛰어 볼까 무한히 벼르다가 뛰는데 봉사의 뽕이란 게 멀리 뛰진 못하고
올라가기만 한 길이나 올라가는 것이었다. 멀리 뵈단 것이 한가운데 가 풍덩 빠져 놓았는데
기어 나오려고 쪼는 게 개똥을 쪼었지.

“어뽕싸. 이게 정녕 뽕이지.”

손을 들어 맡아 보니 묵은 쌀밥 먹고 썩은 눅이로고. 손을 내뻗린 게 모진 돌에다가 부딪
치니 어찌 아프던지 입에다가 홀 쓸어 넣고 우는데 먼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애고애고 내 팔자야. 조그마한 개천을 못 건너고 이 봉변을 당하였으니 수원수구* 뉘더러
하리. 내 신세를 생각하니 천지만물을 불견(不見)이라. 주야를 내가 알랴. 사시(四時)를 짐
작하며, 춘절(春節)이 당해 온들 도리화개(桃李花開) 내가 알며, 추절(秋節)이 당해 온들 황



국단풍(黃菊丹楓) 어찌 알며, 부모를 내 아느냐, 처자를 내 아느냐, 친구 벗님을 내 아느냐. 세상천지 일월성신과 후박장단*을 모르고 밤중같이 지내다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진소위* 소경이 그르냐 개천이 그르냐. 소경이 그르지 아주 생긴 개천이 그르랴.”

애고애고 설이 우니 춘향 어미 위로하되

“그만 우시오.”

봉사를 목욕시켜 옥으로 들어가니 춘향이 반기면서

“애고 봉사님. 어서 오시오.”

봉사 그중에 춘향이가 일색이란 말은 듣고 반가워하며

“음성을 들으니 춘향 각씨인가부다.”

“예. 기웁니다.”

“내가 벌써 와서 자네를 한번이나 볼 터로되 빈즉다*라. 못 오고 청하여 왔으니 내 수인사*가 아니로세.”

“그릴 리가 있소. 안맹(眼盲)하옵고 노래(老來)에 기력이 어떠하시오.”

“내 염려는 말게. 대체 나를 어찌 청하였나.”

<중 략>

“단장하던 체경이 깨져 보이고 창전(窓前)에 앵도꽃이 떨어져 보이고 문 위에 허수아비 달려 뵈고 태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말라 보이니 나 죽을 꿈 아니오.”

봉사 이윽히 생각하다가 양구(良久)에 왈

“그 꿈 장히 좋다. 화락(花落)하니 능성실(能成實)이요, 경파(鏡破)하니 기무성(豈無聲)가. 능히 열매가 열려야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깨어질 때 소리가 없을손가. 문상(門上)에 현우인(懸偶人)하니 만인이 개양시(皆仰視)라. 문 위에 허수아비 달렸으면 사람마다 우러러볼 것이요. 해갈(海渴)하니 용안견(龍顏見)이요 산붕(山崩)하니 지택평(地澤平)이라. 바다가 마르면 용의 얼굴을 능히 볼 것이요 산이 무너지면 평지가 될 것이라. 좋다. 쌍가마 탈 꿈이로세. 걱정 마소. 멀지 않네.”

한참 이리 수작할 제 뜻밖에 까마귀가 옥 담에 와 앉더니 까옥까옥 울거늘 춘향이 손을 들어 후여 날리며

“방정맞은 까마귀야. 나를 잡아가려거든 조르지나 말려무나.”

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가만 있소. 그 까마귀가 가옥가옥 그렇게 울지.”

“예. 그래요.”

“좋다. 좋다. 가 자(字)는 아름다울 가 자(嘉字)요, 옥 자(字)는 집 옥 자(屋字)라. 아름답고 즐겁고 좋은 일이 불원간 돌아와서 평생에 맺힌 한을 풀 것이니 조금도 걱정 마소. 지금은 복채 천 냥을 준대도 아니 받아 갈 것이니 두고 보고 영귀(榮貴)하게 되는 때에 팔시나 부디 마소. 나 돌아가네.”

“예. 평안히 가옵시고 후일 상봉하옵시다.”

* 행안남비(行雁南飛): 남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

* 결령치사(結領致死): 목매달아 죽음.

- * 파겁(破怯): 익숙하여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짐.
- * 청승 굿거리: 청승맞은 소리를 내는 굿거리. 굿거리는 굿할 때 치는 음악의 곡조.
- * 삼잡이 세악: 삼(三)잡이가 연주하는 세악. 삼잡이는 장구 치는 사람, 북 치는 사람, 저 부는 사람을 말함. 세악은 장구·북·피리·저·해금 등으로 구성된 군악(軍樂).
- * 암급급여율령사파(唵急急如律令娑婆)췌: 진언[주문(呪文)]의 끝에 쓰는 말.
- * 문수(問數): 문복(問卜)과 같은 말. 즉 점쟁이에게 길흉을 물음.
- * 수원수구(誰怨誰咎):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없음.
- * 후박장단(厚薄長短): 두꺼움과 얇음, 길고 짧음.
- * 진소위(眞所謂): 참으로 이른바.
- * 빈즉다사(貧則多事): 가난하면 일이 많다.
- * 수인사(修人事): 인사를 차림.

■ 핵심 정리

- 주제 : 춘향의 굳은 절개와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조선 시대 전라도 남원을 배경으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판소리계 소설이다. 표면에는 이몽룡과 퇴기의 딸 춘향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그리고 있지만, 이면에는 신분적 제약을 벗어나려는 인간 해방의 주제 의식을 담아내고 있다. 춘향과 몽룡이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어 사랑을 이루는 과정에서 춘향이 정절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와 이몽룡이 탐관오리를 혁파하는 모습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제시문은 이몽룡이 남원을 떠난 후 신관 사또의 수청을 거절한 춘향이 옥에 갇혀 고초를 겪는 가운데 불길한 꿈을 꾸고 불안감에 휩싸여 맹인 점쟁이를 불러 해몽을 청하는 부분이다. 꿈을 소재로 춘향이 처한 상황 속의 불안한 심리와 고뇌가 효과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서 봉사의 언행을 희화화함으로써 관객에게 웃음을 주고 애상적인 분위기를 완화하고 있다.

■ 줄거리

춘향은 남원읍에 사는 퇴기 월매의 외동딸이다.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인연을 맺지만 이 도령의 아버지가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된다. 춘향은 새로 부임한 남원 부사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여 옥에 갇히고 온갖 고초를 겪는다.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온다. 변학도의 생일 잔칫날 각 읍의 수령들이 모인 자리에서 통쾌하게 어사출두하여 부사를 파직한 뒤 춘향을 구해 내고 백년해로한다.

■ 수능 Tip

- 이 작품의 가치와 특징을 파악한다.
 - 이 작품은 순조·헌종·고종의 삼대에 걸친 판소리 전성시대의 여러 명창들에 의해 다듬어진 판소리 사설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광대의 재담을 비롯한 풍부한 삽입가요를 통해 흥겨운 분위기와 한스러운 분위기를 적절하게 조화시키게 되었다.
 - 또 표면적으로는 춘향의 열녀로서의 인간상을 내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한 유교

윤리의 관습적 수용만이 아닌 불의에 저항하는 살아 있는 인간의 참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춘향의 사랑과 고난과 그 보상이라는 전통 <춘향전>의 의미를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당시의 시대감각에 어울리는 새 문체를 발전시킨 점이 <열녀춘향수절가>가 <춘향전>의 예술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라고 할 수 있다.

익히 알려진 작품이지만, 연계 교재의 사례처럼 작품의 어느 한 부분이 출제되면 낯선 지문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부분이 제시되어도 상황과 인물의 심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작품 이해를 충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0. 윷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시골 맹인 불러서 해몽을 부탁하고
천명도 무상함을 살피 달라 하였더니
장대 거울 깨어지니 소리 어찌 없겠으며
정원수 꽃잎 지니 응당 열매 맺으리라
조선통보 훔쩍 던져 돈점을 치면서
비옵나니 신명님은 앞일을 밝혀 주소
중천건괘 동청룡 점괘가 나오니
귀인을 상봉할 것이라고 하더이다

— 유진한, 「만화본 춘향가」

- ① 윷글은 <보기>와 달리 현실의 장면에 대한 해석을 추가하며 인물에게 희망을 일깨움으로써 위기감을 완화해 주는군.
- ② 윷글은 <보기>와 달리 귀신의 소리나 형상 등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인물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군.
- ③ <보기>는 윷글과 달리 해몽을 부탁하는 이의 동기를 은폐하고 있어 인물의 심리에 대한 독자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군.
- ④ <보기>는 윷글과 달리 작품 속 화자가 맹인의 말과 행동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난 일을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절제하여 나타내는군.
- ⑤ 윷글과 <보기>는 모두 꿈을 소재로 인물이 처한 상황 속에서의 불안한 심리와 고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군.

■ 수능완성 수록 작품 정리

- 응고집전(작자 미상) - (수능완성 229~231쪽)

헛옹가가 아뢰는 말이,

“저 미친놈이 어찌 저의 사조(四祖)를 알겠습니까? 제가 아뢰오리다. 저의 고조는 용송이요, 종조는 망송이요, 할아버지는 승송이요, 외할아버지는 송송이요, 장인은 상송이로소이다.”

원님이 분부하되,

“용송, 망송, 승송, 송송, 상송하니 너는 참옹가요, 저놈은 헛옹가로다. 헛옹가 올려 매라.”

하니, 좌우 나졸이 달려들어 옹가의 고도 상투를 선정시정 연줄감듯, 벽혜수 닳줄 감듯, 화채친친 감아쥐고 끄집어내어 동댕이쳐 잡아들이니, 원님이 분부하되,

“별 때로 때려 매우 쳐라.”

하니, 팔척장신 키 큰 사령이 팔을 엮매고 달려들어 곤장을 골라 잡아 치는 소리는, 넓은 골에 벼락 치듯, 좁은 골에 번개 치듯,

“매우 치오.”

소리치며 물러섰다 다시 나서서 직끈뚝뚝 때어치니, 참옹가의 간 쪽이 놀래어 소리 질러 울며 말하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주 전에 비나이다. 이것이 송사가 아니옵고 도리어 악사(惡事)로소이다.”

하나 치고 짐작할까, 둘을 치고 짐작할까, 셋을 치고 그만할까? 셋을 넘어 사오십 대의 곤장을 세차게 치니, 참옹가의 두 볼기에 흐르는 피가 낭자하다.

“애고애고 비나이다. 하느님 전에 비나이다. 이내 몸이 무슨 죄로 이다지 한심한가?”

헛옹가가 아뢰되,

“저 미친놈이 끝내 아니라 하지 아니하오니 다짐을 받으십시오.”

원님이

“그 말이 옳다.”

하고 형방에게 분부하되,

“저놈에게 다짐받아 두라.”

하니, 그 다짐에 하였으되,

“네가 분별이 없는 사람으로 옹가 집에 출입하니 폐단이 비길 데 없이 많고 큰 잘못이 이와 같으니 죄가 많아 죽어도 애석하지 않도다. 특별히 놓아주는 바이니 또다시 이와 같은 폐단이 있으면 마땅히 엄하게 다스릴 것이니 분부 듣거라.”

다짐하기를 재촉하니, 참옹가는 어쩔 수 없어 다짐하고 나올 적에, 헛옹가는 뜻을 이루고 맹랑촌에 들어가며 춤추며 이르는 말이,

“우리 성주가 명관이라.”

참옹가 또 절령주면서 노닐 적에, 참옹가 집 근처에 다니면서 큰 소리로 통곡하며 하는 말이, “천 석 추수 쌓인 곡식을 남에게 주고 남에게 빌어먹네. 수만금 재물 봉한 돈을 누굴 주고 이러한가? 회음(淮陰) 한신도 아닌데 어느 여인네가 밥을 주며, 오자서가 아닌데 어느 어부가 건네줄까? 오늘 밤은 어디서 자고 내일은 어디로 갈까? 눈과 함께 부는 바람은 으스스하고 쓸쓸하여 추운들, 누가 있어 옷을 주랴? 도리어 생각하니 솟을 삼켜 병어리로 변장한 예양*이가 거지 행색으로 다닐 때 그 부인은 알아보지 못했으나 그 친구는 알아보았다고

하였으니, 친구도 날 보고 모를쏘냐?”

친구네 집에 찾아가니 벗도 또한 이 소문을 듣고,

“저 미친놈이 여기 왔다.”

하고 막대 들고 내쫓으니, 웅가가 하는 말이,

“자네가 나를 몰라보나? 나와 자네가 한낱한시에 태어난 벗인데, 일시 내가 잘못되었다 한
들 이다지 괘시하는가?”

저 벗이 하는 말이,

“네 세상을 내가 모르고, 네 사조를 내가 모르고 송사에서 패소하니, 네가 가짜가 아니냐?”

꼭뒀을 잡아 내치니, 웅가 거동 보소. 발을 동동 구르며 두 주먹 불끈 쥐고 가슴을 땡땡 치며,

“애고 답답 서러운지고.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천지천지 알건마는 우리 벗도 모르는가? 어
머님 날 잡아가요.”

이렇게 울다가,

“물에나 빠져 죽자.”

하고 물가에 다다르니, 공중에서 불러 이르되,

“똥골 사는 웅고집아, 네 죄를 아느냐 모르느냐?”

웅가가 대답하되,

“죄를 모르오니 제발 덕분 살려 주요.”

하되, 공중에서 일러 말하기를,

“네 죄를 알고자 하거든 강원도 개골산 월출암에 찾아가 도승 앞에서 빌어라.”

웅가가 이 말 듣고 월출사를 찾아간다. 떨어진 헌 베 창옷에 세 매듭 맺은 띠를 띠고, 모자
없는 헌 파람에 짚나락기 갓끈 매고, 편자 없는 헌 파망에 일그러진 갓풀관자를 달여 질끈
쓰고, 다 떨어진 헌 중의에 노끈 대님 매고, 총만 남은 미투리 새끼로 들메하고, 곰방대에 담
배 담아 품서품서 피우면서, 종이 없는 세살부채 손에 쥐고 죽장 짚고 개골산 찾아간다. 가는
거동이 어떠하던고? 바람맞은 병신인가? 비실비실 걸어간다.

월출산에 들어가니 과연 도승이 있는데, 웅가가 문밖에 엎드려 대죄하니 도승이 말하기를,

“네 죄를 아느냐?”

웅가가 말하기를,

“과연 모르오니 덕분에 살려 주십시오.”

도승이 말하기를,

“내가 인간 세계에 나갔을 때 네가 한 죄를 모르느냐?”

웅가가 말하기를,

“죄가 많아 죽어도 애석하지 않으니 살려 주십시오.”

하되, 도승이 상좌를 불러 쑥 한 짐 져다가 주먹만큼 비빈 후, 웅가의 옷을 벗기고 불기를
삼천 대 때리고 땀을 뜨니, 웅가가 반만 죽었거늘, 도사가 보고 충분히 경계(警戒)하여 말하
기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로되 우리 불도가 어찌 무식한 속인을 해 하겠는가? 이것이 다 경계
하는 술법이라. 어찌 사람을 천 장이나 땀을 떠서 죽지 아니하겠는가?”

웅가가 그제야 정신을 차려 불기를 만져 보니 겨우 뜨뜻할 뿐이었다. 도승이 부적 한 장을

써 주며 말하기를,

“이 부적을 가지고 네 집에 돌아가 방 안에 붙이고 원발을 구르면서 주문을 외우면 네 집에 있는 웅가가 방 안에서 거꾸러져 쪼이 될 것이니, 네가 집안 세간을 다 찾아 살되 불측(不測)한 뜻을 다시 먹지 말라.”

* 예양(豫讓): 중국 진나라 사람으로, 자신이 섬기던 주인이 조양자에게 피살되자 복수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자살하였음.

■ 핵심 정리

- 주제 : 인간의 참된 도리에 대한 교훈, 권선징악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고전 소설이다. 주인공 웅고집은 조선 후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중인 부유층을 대변하는 인물로, 재력을 믿고 인색하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중부의 모습을 보여 준다.

■ 줄거리

영남 땅에 사는 웅 생원은 심술 사납고 인색하며 불효한 인간으로, 거지나 중이 오면 때려서 쫓아내기가 일쑤였다. 개골산 극락 암자의 영불 화상이라는 도승이 웅 생원의 소문을 듣고 웅 생원의 집에 도착하여 웅 생원의 관상을 보게 된다. 도승이 웅 생원의 관상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하자 웅 생원은 도승을 매를 쳐서 보내게 된다. 절로 돌아온 도승은 쪼으로 웅생원과 똑같은 가짜 웅 생원을 만들어 웅 생원의 집에 가서 진짜와 가짜를 다투게 한다. 진짜와 가짜를 가리고자 관가에 송사까지 하였으나 진짜 웅 생원이 도리어 판결에 패해 집에서 쫓겨나고 처지를 비관하여 죽으려 하는데 도사가 개과천선을 권한 후에 가짜 웅 생원을 물리치는 방법을 알려 주며 진짜 웅 생원을 집으로 돌려보낸다.

■ 수능 Tip

- 이 작품의 의의와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 이 작품은 설화소설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냥 온 중을 팔시해서 화를 입게 되었다는 설정은 ‘장자못이야기’와 상통하는데, 부자이면서 인색하기만 한 인물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도승이 도술을 부렸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한다. 그리고 가짜가 와서 진짜를 몰아내게 되었다는 줄거리는 ‘쥐를 기른 이야기’와 같다. ‘쥐를 기른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 쥐에게 밥을 주어서 길렀더니 그 쥐가 사람으로 변하여 주인과 진짜 싸움을 한 끝에 주인을 몰아냈다는 이야기이다. 이처럼 설화를 적극 수용한 것은 관소리계 소설의 일반적 특징과 연결된다.
 - 웅고집이라는 인물은 놀부와 상통한다. 심술이 많고 인색한 점에서 이 둘은 공통점을 가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세태를 반영하여 새롭게 나타난 인간형으로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에 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오직 부를 추구하는 데만 몰두하여 윤리 도덕이나 인정 같은 것을 온통 저버린 부류가 나타나자, 이에 대한 반감이 작품을 통해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1. <보기>는 윗글처럼 송사(訟事)를 다룬 이야기이다.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유연은 대구 사람인데 그의 형 유유(柳游)가 산중에 독서하러 갔다가 그 이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몇 해 뒤에 그의 형이라 사칭하는 자가 나타났기에 관가에 잡아 가두었는데, 정작 그의 형수인 백 씨가 거짓을 밝혀 주지는 않고 도리어 유연이 재산을 탐낸다고 무고하여 유연은 죽임을 당했다. 유연은 죽으면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 ‘생각해 보니 모두 재산 때문이니, 아버지의 별급(別給)과 숙모의 문권(文券)을 관가에 알리라. 그래도 사실이 밝혀지지 않거든 밤마다 기도하면 혹시 신명(神明)의 도움을 받을지 모르겠다.’하니,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였다. 그리고 16년 뒤 그의 형 유유를 찾았고,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졌다.

- ① 윗글과 <보기> 모두 재산을 빼앗는 자와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 ② 윗글과 <보기> 모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갈등 요소가 나타나 있다.
- ③ 윗글과 <보기> 모두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판결이 내려지는 내용 전개가 나타나 있다.
- ④ 윗글과 달리 <보기>에는 초월적인 존재가 등장하여 갈등을 중재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⑤ <보기>와 달리 윗글에는 이물(異物)이 변신하는 이야기 요소가 나타나 있다.



수필 · 극문학

1 EBS 교재에 수록된 수필 한눈에 보기

교재명	작 품 명	쪽
수능 특강	박지원, '일야구도하기'	261~263
	이곡, '차마설'	
	신영복, '철산리의 강과 바다'	264~266
	김동리, '만월'	267~269
	이병기, '풍란'	270~272
수능완성	김소운, '특급품'	154~155
	허균, '통곡헌기'	234~235

2 EBS 교재에 수록된 극문학 한눈에 보기

교재명	작 품 명	쪽
수능 특강	작자 미상, '고성 오광대'	242~245
	작자 미상, '꼭두각시놀음'	246~248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249~251
	차범석, '불모지'	252~254
	선우휘 원작 / 이은성 · 윤삼육 각색, '불꽃'	255~257
	최석한, '라디오스타'	258~260
	오영진, '허생전'	293~296
	이운택, '오구-죽음의 형식'	310~312
수능완성	장진, '소나기는 그쳤나요?'	33~36
	천승세, '만선'	174~176
	박민규 원작 / 고은선 극본, '카스테라'	261~263

3 모의평가 기출 수필 · 극문학 살펴보기

<6월 모의평가>

[42~45] 고전시가 & 수필 (복합 지문)	이곡, ‘차마설’	수능특강 261~263쪽	작품 그대로 연계됨
------------------------------------	-----------	---------------	------------

4 EBS 교재와의 연계성 파악하기

6월 모의평가에는 EBS 수능특강에 실려 있는 이곡의 ‘차마설’이라는 고전수필이 출제되었는데, 이 작품은 비교적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그런데 지문을 구성할 때 수필 단독으로 출제되지는 않았다. 이곡의 ‘차마설’은 고전시가(연시조)인 주세붕의 ‘오륜가’와 함께 출제되었다.

최근 모의평가나 수능에서는 수필과 극문학(희곡, 시나리오 등)이 과거에 비해 비중이 약화되었다. 하지만 시가 문학(현대시, 고전시가)이나 산문 문학(현대소설, 고전소설) 등과 복합 지문의 형태로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므로 연계 교재에 출제된 작품들은 빠짐없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EBS 교재에 실린 수필 살펴보기

■ 수능 특강 수록 작품 정리

- 철산리의 강과 바다(신영복) - (수능특강 264~266쪽)

당신은 바다보다는 강을 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강물은 지향하는 목표가 있는 반면 바다는 지향점을 잃은 물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오늘 한강 하구(河口)에 서서 당신의 강물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강물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골짜기와 들판을 지나 바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숭한 역사를 쌓아 가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되어 뛰어내리고 댐에 갇히면 뒷물을 기다려 다시 쏟아져 내리는 치열한 물입니다. 이처럼 치열한 강물과는 달리 바다는 더 이상 어디로 나아가지 않는 물입니다. 바다로 나와버린 물은 아마 모든 의지가 사라져 버린 물의 끝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엽서를 들고 먼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통일 전망대를 찾아왔습니다. 태백산에서 시작해 굽이굽이 천 리 길을 이어 온 한강과 마식령산맥에서부터 오백 리 길을 흘러온 임진강이 서슴없이 서로 몸을 섞으며 바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물길을 따라 강화도의 월곶리에 있는 연미정(燕尾亭)으로 왔습니다. 마침 밀물 때 만난 서해의 바닷물이 강화 해협을 거슬러 이 두 물을 마중 나오고 있었습니다. 드넓은 강심에는 인적 없는 유도(流島)가 적막한 DMZ 속에서 잠들어 있고 기다림에 지친 정자가 녹음 속에 늙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강안(江岸)을 따라 강화의 북쪽 끝인 철산리(鐵山里) 언덕에 올랐습니다. 이곳은 멀리 개성의 송악산이 바라보이고 예성강 물이 다시 합수하는 곳입니다.

생각하면 이곳은 남쪽 땅을 흘러온 한강과 휴전선 철조망 사이를 흘러온 임진강, 그리고 분단 조국의 북녘 땅을 흘러온 예성강이 만나는 곳입니다. 파란만장한 강물의 역사를 끝마치고 바야흐로 바다가 되는 곳입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일깨우는 곳입니다. 멀리 유서 깊은 벽란도(碧瀾渡)의 푸른 솔이 세 강물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곳 철산리에서 바다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띄웁니다.

당신이 내게 강물을 생각하라고 하듯이 나는 당신에게 바다의 이야기를 담아 엽서를 띄웁니다. 바다로 나온 물은 이제 한강도, 임진강도, 예성강도 아닌 바다일 뿐입니다. 드넓은 하늘과 그 하늘의 푸름을 안고 있는 평화로운 세계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강물을 사랑하는 까닭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강물은 고난의 시절입니다. 강물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물이 되어 잃어지고 갇히고 찢어지는 고난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한강과 임진강·예성강 유역은 삼국이 서로 창검을 겨누고 수없이 싸웠던 전장(戰場)입니다. 지금도 임진강은 휴전선 철조망에 옆구리를 활쭉인 몸으로 이곳에 당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강물의 시절은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도도한 물결에 표류해 온 우리의

불행한 현대사를 보여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존엄이 망각되고 겨레의 삶이 동강난 채 증오와 불신을 키우며 우리의 소중한 역량을 헛되이 소모해 온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 철산리 앞바다에 이르러서는 암울한 강물의 시절도 그 고난의 장을 마감합니다. 당신의 말처럼 이제 더 이상 목표를 향해 달리는 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바다가 됩니다. 달려야 할 목표가 없다기보다 달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은 부질없었던 강물의 시절을 뒤우치는 각성의 자리이면서 이제는 드넓은 바다를 향해 시야를 열어 나가는 조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둘이켜 보면 강물의 치열함도 사실은 강물의 본성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험준한 계곡과 가파른 땅으로 인해 그렇게 달려왔을 뿐입니다. 강물의 본성은 오히려 보다 낮은 곳을 지향하는 겸손과 평화인지도 모릅니다. 강물은 바다에 이르러 비로소 그 본성을 찾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이며 가장 평화로운 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물이고 평화로운 물이지만 이제부터는 하늘로 오르는 도약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목표를 회복하고 청천 하늘의 흰 구름으로 승화하는 평화의 세계입니다. 방법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최후의 목표로서의 평화입니다.

평화는 평등과 조화이며 평등과 조화는 간혀 있는 우리의 이성과 역량을 해방해 겨레의 자존(自尊)을 지키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함으로써 자기(自己)의 이유(理由)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자유(自由) 그 자체입니다.

당신에게 띄우는 마지막 엽서를 앞에 놓고 오랫동안 망설이다 엽서 대신 파란 색종이 한 장을 띄우기로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언젠가 이곳에 서서 강물의 끝과 바다의 시작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받은 색종이에 담긴 바다의 이야기를 읽어 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국토와 역사의 뒀안길을 걸어왔던 나의 작은 발길도 생각하면 바다로 향하는 강물의 여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마지막 엽서를 당신이 내게 띄울 뭍으로 이곳에 남겨 두고 떠납니다. 강물이 바다에게 띄우는 이야기를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 핵심 정리

- 주제: 갈등의 시대를 지나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소망함.
- 구성
 - 1~2문단: 지향하는 목표가 있는 강물과 지향점을 잃은 바다
 - 3~5문단: 강물이 끝나 바다가 되는 철산리 언덕에 다다름.
 - 6~11문단: 굴곡진 역사를 상징하는 강물의 시절과 그 고난의 장을 마감하는 바다
 - 12~14문단: 강물이 가장 낮은 물, 가장 평화로운 물이라는 본성을 찾은 바다
 - 15~17문단: 국토와 역사의 뒀안길을 걸었던 자신의 여정을 바다로 향하는 강물의 여정으로 비유함.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민족의 불행했던 과거사가 교차하는, 한강과 임진강과 예성강이 만나는 철산리를 찾아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우리의 현대사를 성찰한 수필이다. 글쓴이는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달리는 강물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됨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현대사를 ‘강물의 시절’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물도 바다에 이르게 되면 이전의 성질을 버리고 물의 본성인 가장 평화롭고 낮은 성질로 돌아가게 됨을 이야기하며 평화를 최후의 목표로 삼아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수능 Tip

-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 공간(한강 하구, 통일 전망대, 연미정, 철산리 언덕 등)의 특성을 구체화하면서 ‘강물’과 ‘바다’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신영복의 산문은 ‘당신’이라는 수신자가 등장하는 서간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의 ‘당신’은 신영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빌리는 ‘당신’이라 할 수 있다. 윗글은 자연의 속성과 역사적 체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당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가 ‘강물’과 ‘바다’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나’는 ‘바다보다는 강을 더 좋아’하는 ‘당신’을 상정하고, ‘당신’이 바다보다 강물을 더 좋아하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 ② ‘한강 하구’에서 강물과 바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떠올린 ‘나’는 ‘철산리 언덕’에 올라 강물과 바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강물을 사랑하는 ‘당신’과 달리 ‘나’는 강물을 ‘고난의 시절’로, 바다를 ‘평화로운 세계’로 규정하면서 ‘당신’에게 민족의 역사적 체험을 환기하고 있다.
- ④ ‘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속성을 통해 ‘당신’이 좋아하는 ‘강물의 치열함’이 ‘강물의 본성’이 아닌 외부적 조건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 ⑤ ‘당신’과 달리 ‘나’는 바다가 ‘지향점을 잃은 물’이 아닌 ‘가장 낮은 물이며 가장 평화로운 물’이라고 하며 물의 속성을 통해 ‘평화의 세계’가 도래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수능 완성 수록 작품 정리

■ 통곡헌기(허균) - (수능완성 234~235쪽)

내 조카 친(親)이란 자가 자신의 서실(書室)을 짓고 편액을 통곡헌(慟哭軒)이라 달았다. 사람들이 모두 크게 웃으며,

“세상에 즐거울 일이 무척 많은데 어째서 통곡으로써 집의 편액을 삼는단 말ियो? 하물며 통곡하는 이란 아버지를 여윈 자식이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부녀자인 것이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데, 그대만 혼자 사람들이 꺼리는 바를 범하여 거처에다 걸어 놓는 것은 어째서인가?”

했다.

친은,

“나는 시속의 기호를 위배한 자다. 시류가 기쁨을 즐기므로 나는 슬픔을 좋아하고, 세속 사람들이 혼쾌해하므로 나는 근심해 마지않는 것이다. 심지어 부귀와 영화에 있어서도 세상이 기뻐하는 바이지만, 나는 몸을 더럽히는 것인 양 여겨 내버리고, 오직 빈천하고 검약한 것을 본받아 이에 처하며, 반드시 일마다 어긋나고자 한다. 그래서 세상이 항상 가장 싫어하는 바를 택하고 보면 통곡보다 더한 것이 없으므로, 나는 그것으로써 내 집의 편액을 삼는 것이다.”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던 여러 사람들에게,

“무릇 곡하는 데도 역시 도(道)가 있소. 대체로 사람의 칠정(七情) 중에서 쉽게 움직여 감발(感發)하는 것은 슬픔만 한 것이 없소. 슬픔이 일면 반드시 곡을 하는 것인데, 슬픔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단서가 여러 가지이지요. 그러므로 시사(時事)를 행할 수 없는 것에 상심하여 통곡한 이는 가태부(賈太傅)요, 흰 실이 그 바탕을 잃은 것을 슬퍼하여 곡을 한 이는 묵적(墨翟)이요, 갈림길이 동서로 나뉜 것을 싫어하여 운 것은 양주(楊朱)요, 길이 막혀서 운 것은 완보병(阮步兵)이었으며, 운명이 불우함을 슬퍼하여 자기를 세상 밖으로 내쳐 정을 곡(哭)에 부친 자는 당구(唐衢)입니다. 이들은 모두 품은 생각이 있어서 운 것이지, 이별에 상심하고 억울한 마음을 품으며 하찮은 일로 해서 아녀자의 통곡을 흉내 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그들의 시대에 비해 더욱 말세요, 국사는 날로 그릇되고, 선비들의 행실도 날로 야박해져서 친구들 사이에 배치되는 것도 갈림길이 나뉜 것보다 더하며, 어진 선비가 고생을 겪는 것도 비단 길이 막힌 것뿐만 아니라, 모두 인간 세상 밖으로 도망해 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만약 저 몇 분의 군자로 하여금 이 시대를 목격하게 한다면 어떤 생각을 품게 될는지 모르겠소. 아마도 통곡할 겨를도 없이, 모두 팽함(彭咸)이나 굴대부(屈大夫)처럼 돌을 끌어안거나 모래를 품고 투신 자살하고자 할 것이요. 친이 서실 편액을 통곡이라 한 것도 역시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니, 여러분은 그 통곡을 비웃지 않는 것이 옳겠소.”

하였다. 비웃는 자가 알아듣고 물러가므로 인하여 기(記)를 만들어 못 의심을 풀게 하는 바이다.

- 허균, 「통곡헌기(慟哭軒記)」

■ 핵심 정리

- 주제 : 새로 지은 집에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와 현실에 대한 성찰과 비판
- 구성
 - 처음: 서실의 이름을 ‘통곡헌’으로 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비웃음과 물음
 - 중간 1: 친의 대답(세상에 대한 거부감)
 - 중간 2: ‘나’의 부연 설명(통곡의 진정한 의미와 친이 ‘통곡헌’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
 - 끝: 『통곡헌기』를 짓게 된 동기를 밝힘.

■ 이해와 감상

이 글은 허균이 자신의 조카가 서실 이름을 ‘통곡헌(慟哭軒)’이라 붙인 일과 관련된 의론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아낸 것이다. ‘통곡헌’이란, 말 그대로 통곡하는 집이라는 뜻이다. 이에 많은 사람이 세상에 즐길 일이 많은데 왜 통곡이라는 이름을 붙이냐며 친의 행위를 비웃었다. 친은 이에 대해 자신은 시속의 기호를 위배하는 자라서 세상이 좋아하는 부귀나 명예를 버리는 삶을 택하겠다고 말한다. 이를 들은 허균은 친은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일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 때문에 통곡하는 것이라며, 친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다고 집필 동기를 밝히고 있다.

■ 수능 Tip

-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 ‘통곡’에 대한 ‘친’과 ‘나’의 인식이 현실 비판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통념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평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허균은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현실 비판 의식을 담은 산문을 남겼다. 사화(士禍)와 임란(壬亂)으로 백성이 고통을 겪는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들을 향해 현실을 냉엄하게 비판한 그는 이러한 시대를 반영하는 데에 알맞은 문장을 찾고자 했다. 사안에 대해 상대방의 의론(사안에 대한 의견) 또한 담아내는 것을 중시한 점은 현실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목민(牧民)하는 자들을 깨우치고자 한 허균의 산문정신이 발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서실’과 ‘편액’은 민중의 삶과 주변 경관에 대한 소박한 애정을 담아낸 것이겠군.
- ② ‘통곡헌’에 관한 ‘기’를 지은 데에는 목민하는 자를 깨우치려는 의도도 있겠군.
- ③ ‘사람들’과 ‘친’의 말을 기록한 것은 의론을 중시하는 글쓴이의 산문정신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④ ‘시속의 기호를 위배한 자’임을 표방한 ‘친’의 사례는 현실 문제를 비판하기에 알맞은 소재였겠군.
- ⑤ ‘그들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를 비교한 것은 현실을 반영하는 데에 알맞은 방식이겠군.

6

EBS 교재에 실린 극문학 살펴보기

■ 수능 특강 수록 작품 정리

- 봉산 탈춤(작자 미상) - (수능 특강 293~294쪽)

[앞부분 줄거리] 허 생원이 운종가의 변 부자를 찾아가 일만 냥을 빌려 간다. 허 생원이 변 부자에게 빌린 돈으로 과일을 매점매석하여 왕실에 쓸 물건이 떨어지자, 내수사 전수 박몽인이 관군을 앞세우고 허 생원에게 물건을 사러 온다.

억쇠: 이걸로 안성 장안의 과일은 싹 쓸었다. 글썄 선달님,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요? 전 이날 여태 서울 운종가 한복판에 살면서 이런 장산 침 해 봤다니깁쇼.

강 선달: 할 수 있느냐, 화주 영감의 방침이 그러시니, 우리야 그저 분부대로 만 냥어치 과일만 사들임 그만 아니냐?

억쇠: 헛 그 만 냥 돈이 누구 건넵쇼? 우리 다방골 권마님 돈인걸입쇼.

강 선달: 돈 임자가 누구든 간에 깨끗이 다 털었다. 엽전 한 푼 안 남았어, 헛! 제아무리 글밖에 모르는 골샌님이기로서니, 원 내, 참.

억쇠: 누가 아니래요, 선달님. 어린애가 아니구서야 미친 지랄이지, 물건 거래에 달래는 값 다 주구 사는 법이 어디 있사오며, 그것도 당장 쓸 데나 있음 모르되, 몇 달씩이나 광 속에 처넣어 둔 채. 한편에선 상하고 썩어, 내버리는가 허면, 한편에선 감 한 접에 열 곱이나 주구? 틀림없어요, 미친 지랄입쇼. 글썄 원넌 무슨 낫을 들구 서울 권마님 댁엘 돌아간답니까? 헛, 내 팔자도 기구하지…… 선달님은 구문*이나 두둑이 잡수세요. 이런 판에 안 자지구 언제 잡좌요?

강 선달: 어디 구문 먹기두 꺼림칙하다. 천둥벌거숭이 어린애 걸 속여 먹는 것 같아서 원. 난 구문보다도 앞일이 더 걱정이로구나.

억쇠: 앞일이라넵쇼?

강 선달: 과일값을 천장만큼 올려놔오니 내년 일이 걱정이 되지 뭐냐? 앞으로 오는 손님이란 열 곱이나 더 받구 팔려는 날도둑놈들일 게구, 과일을 사려는 사람은 그림자두 못 볼 것이니, 내 평생 장살 올 한 여름으루 결단을 낸 게 아니냐? 이런 병신 짓이 어딴겠니?

억쇠: 헛! 그러니까, 대대손손이 두구두구 자실 걸 두둑이 떼 내심 되잖어요, 선달님?

강 선달: 글썄…… 원. (밖에서 시골 젊은이 1이 씨근덕거리며 뛰어든다.)

젊은이 1: 권마님, 이 댁이 강 선달네 과일 도간가유?

억쇠: (끄덕) 아직두 안성 장에 과일이 남았던가? 우리가 싹 쓴 줄 알았는데?

젊은이 1: (뒤를 돌아보며) 장에서 온 게 아네유.

억쇠: 장에서 안 왔음, 그럼?

젊은이 1: 관가에서 나왔이유. 서울 관가에서 나오신 높으신 어른이 나졸들을 앞세우구 우

리 동네로 쳐들어왔단 말썽이에유.

<중략>

박몽인: 그래에? 화주는 따로 있어? (나졸 1에게) 너 냉큼 가서 진짜 권놈이란 놈 잡아 대령해라.

억쇠: 권놈이란 놈? 어이구, 우리 쌤님 골루 가셨구나! (허 생원이 사랑방에서 조용히 등장. 여전히 초라한 의복과 해진 갓)

허 생원: 내가 권놈이란 놈이외다.

억쇠: 어이구, 생원님. (전수에게) 영감마님, 이분이 화준 화주지만 천동벌거숭이 어린애라…….

박몽인: 요, 생쥐 같은 놈, 네놈이 바로 화주라구?

허 생원: 허? 댁은 뉘시기에 수인사두 없이 대뜸 이놈 저놈 하시우?

박몽인: 뭣이 어찌구 어째?

허 생원: 보아하니 서울 관가에서 나온 양반 같소만, 서울 양반이람 나두 서울 양반이오.

박몽인: 서울 양반?

허 생원: 영감두 아니구 대감도 아닌 생원 나부랭이가 장사 좀 했기로서니 그게 뭐 국법에 어긋나는 큰 죄가 되오? 먹고살자니 별 도리가 없지 않소?

박몽인: 어, 노, 노형. 우리가 서루 같은 반열에서 아랫것들 보는 데서 이렇게 따지기로? 우리 체모만 깎이게?

허 생원: 장사 거래에 양반 상놈이 어딴소? 그래, 선혜청 대감께선, 양반이건 상놈이건 불문곡직(不問曲直)허구 백성의 재물을 약탈해 오랍디까?

박몽인: 약탈? 아, 아니 그런 게 아니구. 이거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당신이 과일을 매점하여 우으로는 상감마마로부터, 아래로는 억조창생에 이르기까지 골탕을 먹이니 우리로서두…….

허 생원: 골탕을 먹이는 것이 아니오, 영감. 만 냥 돈을 기울여 나라의 얕고 깊음을 알아봤을 따름이오.

박몽인: 나라의 얕고 깊음을?

허 생원: 그렇소, 서울에선 난리가 났다문성요? 돈 만 냥 때문에?

박몽인: 노형두 알구 있구먼, 응? 알구 있으문성두 이런 몹쓸 짓을 했어, 엉? 제상에 고일 밤, 대추가 없다는 사실을 알문성두?

허 생원: 허, 허어? 밤 대추를 고이지 않았다고 조상 어른들이 무덤을 헤치고 뛰쳐나온답디까?

박몽인: 대갓집에서 꽃감을 구하지 못해서 엉? 못해서…….

허 생원: 마님들이 목이 타서 돌아가셨나요?

박몽인: 사대부 댁만이 아니라, 그 화는 억조창생에 미치며 이로 인해 민심은 뽕뽕하며 서울 장안에 난리가 날 지경이니…….

허 생원: 난리? 오호라! 나라의 흥망이 겨우 만 냥 돈에 달렸구나! 묘당(廟堂)*에 앉아 국록을 처먹으문성 정사를 본다는 대감들의 생각이 어찌면 이토록 어리구 좁소이까?

박몽인: 아아니…… 그런 게 아니라 노형…… 여, 생원, 생원님.

허 생원 : (불호령) 선혜청 당상은 정일품으로 그 소임의 막중함이 영의정에 버금가는 자리로서 대궐에서 쓰이는 온갖 물자를 조달함이 주관 임무이거든 어찌하여 상감마마 수라상 식혜 그릇에 도옹동 뜨일 실백*조차 평소에 비축함이 없이 오늘에 와서 이렇듯 망지소조하여* 정오품의 귀하신 전수 영감의 몸으루 직접 안성 고을까지 내려와서 이렇듯 민폐가 자심하니, 이는 우으로 상감마마의 성려를 어지럽게 함을 비롯하여, 도제조 대감과 영감의 직속 상사인 제용감(濟用監)*에게까지 누를 끼쳐 상하를 함께 욕되게 함이요, 실로 태만과 직무 유기도 이만저만이 아니오니 그 죄과를 누구에게 물어야 마땅하오며 아울러 무법스럽게도 토색질*을 제멋대로 자행하는 그 대의 소행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오?

박몽인 : 여, 여보시요, 새, 생원님. 토색질이란 천부당만부당하신 말씀이외다. 소인은 그저 안성 강 선달네 도가에를 가면, 과일이 곳간에서 썩어 나간다가에, 적당한 값으루 사 볼까…… 아무렴, 돈을 내구 사는 거요, 물론 값을 치르구…….

허 생원 : 그래요? 그럼 진작…… 애, 억쇠야. 손님 오셨다.

- 오영진, 「허생전」

* 구문 : 흥정을 붙여 주고 그 보수로 받는 돈.

* 묘당 : 종묘와 명당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실백 : 껍데기를 벗긴 알맹이 잣.

* 망지소조하여 : 너무 당황하거나 급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갈팡질팡하여.

* 제용감 : 조선 시대에, 각종 직물 따위를 진상하고 하사하는 일이나 채색이나 염색, 직조하는 일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

* 토색질 :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달라고 하는 짓.

■ 핵심 정리

• 주제 :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현실 개혁 의지

• 줄거리

- 제1화 : 돈으로 양반을 산 운중가 변 부자의 집에 허 생원이 찾아와 일만 냇을 빌려 간다.
- 제2화 상장 : 허 생원이 변 부자에게 빌린 돈으로 과일을 매점매석하여 왕실에 쓸 물건이 떨어지자, 내수사 전수 박몽인이 관군을 앞세우고 허 생원에게 물건을 사러 온다. 허 생원은 박몽인의 흥계를 누르고 10만 냇의 비싼 값에 과일을 판다.
- 제2화 하장 : 박몽인은 도둑들을 동원해 허 생원의 돈을 빼앗으려 하나 실패하고, 오히려 도둑들은 허 생원에게 감화되어 백석도로 간다.
- 제3화 상장 : 백석도로 간 허 생원은 그 섬의 사또를 감화시켜 고을을 떠나게 한 후, 그 섬에 널려 있는 대리석을 캐어 부를 축적한다.
- 제3화 하장 : 변 부자와 함께 이완 대장이 허 생원을 찾아온다.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허 생원은 백석도를 떠나 자취를 감춘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오영진의 후기 희곡으로,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바탕으로 양반 사회를 비판한 박지

원의 단편 소설 「허생전」과 채만식의 「허생전」을 골격으로 창작되었다. 주인공 허생원의 상행위를 통해 부국이민(富國利民)의 경제 사상과 건전한 인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허생원을 제외한 등장인물들이 희극적으로 그려져 허생원의 인품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 수능 Tip

- 원작을 각색한 희곡의 내용상·표현상 특징을 이해한다.
 - 원작을 각색할 때는 내용상·표현상으로 달라지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 이 작품에 드러난 당대 사회상을 이해한다.
 - 이 작품에는 조선 시대 후기의 경제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 윗글은 <보기>를 원작으로 하여 희곡으로 각색한 것이다. 윗글로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허생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安城)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三南)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밤·감·배며, 석류·귤·유자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 박지원, 「허생전」

- ① 윗글의 허생원은 <보기>의 허생과 달리 다른 인물을 시켜서 장안의 과일을 사들이고 있군.
- ② 윗글의 허생원은 <보기>의 허생과 달리 관리의 잘못을 날날이 고하면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군.
- ③ 윗글의 허생원과 달리 <보기>의 허생은 조선의 경제적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군.
- ④ 윗글과 달리 <보기>에서는 안성의 지리적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사건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군.
- ⑤ 윗글과 달리 <보기>에서는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비싼 값에 과일을 되사가는 역할을 하는군.



■ 수능 완성 수록 작품 정리

- 소나기는 그쳤나요?(장진) - (수능 완성 33~36쪽)

장면 1. 소설 「소나기」의 마지막 장면 - 소년의 집 마당

엄마가 마당에서 말린 고추를 펼쳐 놓고 다듬고 있다. 그때, 아빠가 들어온다.

엄마: 이제 오세요?

아빠: 응, 예고 더워. 가을 더위가 안 가네. 고집이야 이놈의 날씨도.....

엄마: 그러게 일찍 오시지, 왜 이리 늦으셨대.

아빠: 아, 윤 초시택에 들렀다 왔어. 이따가 저녁 먹기 전에 한 번 더 가 볼 참이야.

엄마: 예휴. 안 그래도 얘기 들었어. 오늘 새벽에 갔다고요?

아빠: 허, 참 세상일도...... 윤 초시택도 말이 아니야. 그 많던 전답 다 팔아 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고, 또 악상(惡喪)까지 당하는 걸 보면.....

엄마: 증손이라곤 계집애 그 애 하나뿐이었지요?

아빠: 그렇지 사내애 둘 있던 건 어려서 잃어버리고.....

엄마: 어찌면 그렇게 자식 복도 없을까?

아빠: 글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 봤다는군. 지금 같아선 윤 초시네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 어린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는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윤 초시네 증손녀가 죽었다는 얘길 나누는 엄마와 아빠. 아빠와 엄마의 얘기를 타고 카메라는 소년의 방으로 다가간다.

소년의 방, 문고리에서 페이드아웃(F.O.)

타이틀 — 소나기는 그쳤나요?

화면, 위로 오르고

장면 2. 소년의 방

소년 얼굴에 진득이 올라오는 땀방울들. 밖에서 들리는 엄마 아빠의 이어지는 대화.

엄마: 얼른 씻으세요.

아빠: 그래.

엄마: 그럼, 갔다 와서 저녁 드실래요?

아빠: 거기 정신없어 음식이고 뭐고 없고 상갓집 같지가 않아.

엄마: 그럼 대강 드시고 가시지.

아빠: 뒤. 밥 핑계 대고 얼른 오게. 밤새워 줄 상도 아니지. 어린아 죽은 걸 뭘 어른들이

밤새워 자릴 편대?

엄마: 하긴. 옷 벗고 씻어요. 다 젖네.

힘겹게 몰아쉬는 소년의 숨. 이내, 이불을 획 덮어쓴다.

(스치는 인서트)

소녀와의 몇몇 마주침. 소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소년의 모습 위주로.

개울가. 소녀가 돌을 던지고 “바보.”라고 말한 뒤 뛰어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소년의 모습.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소녀를 보던 소년의 얼굴.

소나기가 오는 속에서 수수 더미 밑에서 소녀 옆에 앉아 있는 젖은 소년의 얼굴.

소녀의 무릎 상처에 입술을 대고 빨아 빨는 소년의 얼굴.

소녀를 업고 뛰어가는 소년의 얼굴.

장면 3. 소년의 집 - 마당

다음 날 아침. 소년, 일찍 일어나 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다. 저 앞 나무에서 울고 있는 새 한 마리. 소년, 그 새를 멍하게 본다.

장면 4. 소녀의 집

조등이 걸려 있고, 소년, 알 수 없는 어떤 처연함으로 소녀의 집 앞, 그 조등을 바라본다.

장면 5. 소년의 집으로 가는 길

소년, 뛰어간다. 뭔가를 잊으려고. 소년의 손엔 조등이 들려 있다.

장면 6. 소녀의 집

사람들 몇몇이 얘기한다.

“아니, 어떤 미친놈들이 이걸 훔쳐 갔대.”

“어디 다른 데다 걸어 놓 거 아녀?”

“새가 물어 갔나?”

장면 7. 소년의 집

소년, 조등을 들고 헉헉대며 서 있고 그 모습을 어이없이 바라보는 소년의 부모.

장면 8. 소년의 집 - 마루

저녁을 먹고 있다. 소년, 땀을 흘린다.

엄마: 아니, 고추 맵냐? (하나 먹어 보고) 안 매운데…… 무슨 땀을 이렇게 흘린대?

아빠: 날 서늘해지면 보약이라도 한 첩 해 먹여. 여름날에도 땀이 없던 놈이 속 불날 일 있나?



소년, 그대로 폭 자빠진다. 손가락을 든 채로 바닥에 고개를 박고 누워 버린다.

엄마: 너 뭐하냐? 아파?

아빠: 내일 당장에 약 해 먹여.

소년: 가슴이, 어째 이렇게 저미나. 쿡쿡 뭐가 뭉쳐 있는 게…….

엄마: 담 걸렀나.

아빠: 앉혔네. 누워 처먹응게 그렇지. 일어나 좀 뛰고 와.

장면 9. 소년의 집에서 소녀의 집으로 가는 길

소년, 또 땀다. 뭔가를 잊으려고, 혹은 체한 걸 내리려고.

장면 10. 소녀의 무덤

아빠와 소년이 그 아래 길로 지나간다. 아빠는 소를 끌고 가고 있다. 소년, 그 무덤을 바라본다. 초라한 무덤.

소년: 저기엔 왜 비석이 없어?

아빠: 부모보다 먼저 죽은 애들은 비석이 없지.

소년: 왜?

아빠: 비석에다가 쓸 말도 없거든. 죽은 것도 슬픈데, 거기다가 뭐라 써 놓으면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거 아니냐. 태울 줄 알았더니 묻었네. 철마다 풀 갈이는 누가 할라고. 노인네, 괜한 짓 한 거 아닌가 몰라.

- 장진, 「소나기는 그쳤나요?」

■ 핵심 정리

- 주제: 소년의 순수한 사랑과 성숙의 과정
- 전체 줄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된 소년은 밥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답답해한다. 어느 날 소년에게 소녀의 할아버지인 윤 초시가 찾아와 소녀의 유품을 전해 준다. 소년은 소녀의 일기장을 읽고, 소녀의 병원 친구였던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서울로 간다. 소녀를 대신해서 생일 축하를 하고 온 소년은 소녀의 무덤에 돌을 쌓아 비석을 만들어 준 후에 소녀에게 일기장을 본 이야기와 서울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린다. 소년은 소녀의 환상을 보고 무덤에 눕고, 그 위로 소나기가 내린다. 어느 날 서울에서 한 여학생이 전학을 오고, 그 여학생은 소년에게 관심을 보인다. 여학생이 냇가 징검다리에서 소년에게 조약돌의 이름을 묻자 소년은 그 여학생을 물에 빠뜨리고 달려간다. 소녀가 항상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낀 소년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서서히 아픔을 이겨 나간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의 마지막 장면에서부터 시작하여 소년의 가슴 시리고도 투명한 첫사랑과 사랑이 떠난 후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서정적으로 그려 낸 시나리오이다. 소설 「소나기」의 뒷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영화나 드라마와는 다른 창조적 재구성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수능 Tip

- 황순원의 ‘소나기’와 이 작품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 각 장면의 촬영 기법과 연출자의 연출 의도를 이해한다.

■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2. 윗글을 영상으로 연출할 때 연출자가 할 수 있는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면 1’과 ‘장면 2’ 사이의 F.O.를 통해서 관객들이 ‘장면 1’의 시간과 ‘장면 2’부터의 시간적 배경이 서로 다른 날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겠어.
- ② ‘장면 3’과 ‘장면 4’ 사이에 인물이 공간을 이동하는 장면을 생략한 것은 영화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이므로 관객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채워질 거야.
- ③ ‘장면 6’이 ‘장면 5’와 ‘장면 7’이 이어지는 시간에, 혹은 ‘장면 7’과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관객들이 알 수 있도록 촬영해야겠어.
- ④ ‘장면 9’가 시간적으로는 ‘장면 8’에 이어지고, 인물의 심리와 행위 면에서는 ‘장면 5’에 이어진다는 것을 관객들이 알 수 있도록 촬영해야겠어.
- ⑤ ‘장면 1’부터 ‘장면 9’까지는 관객들이 시간이 연속되는 것으로 느끼도록 해야겠지만, ‘장면 10’은 앞의 장면들과 시간의 간격이 좀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해야겠어.

2018학년도

EBS 연계교재 <국어> 정답 해설 및 오답 풀이

부산광역시교육청

<화법>

[EBS 교재의 핵심 문제 다시보기]

1. 정답 ⑤

[정답풀이]

체육 활동을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에는 피부에 출혈을 동반한 깊은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의견은 ‘찬성 2’가 언급한 토사 운동장의 문제점으로, 인조 잔디 운동장을 설치하자는 주장의 근거로 언급한 내용이다.

2. 정답 ②

[정답풀이]

빈칸 앞뒤 맥락을 보면, 설치할 당시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있으나 설치한 이후에 인조 잔디 운동장의 유해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규정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정답 ①

[정답풀이]

사회자는 토의를 시작하며 현행 학급별 봉사 활동의 만족도가 낮은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고 향후 봉사 활동의 방향을 모색해 보자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토의에서 다른 문제점은 학급별로 봉사 활동의 날을 정해 집중적으로 봉사 활동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현행 학급별 봉사 활동의 만족도가 낮은 것임을 알 수 있다.

4. 정답 ①

[정답풀이]

사회자는 ‘김○○ 이△△ 두 학우의 토의를 듣고 농촌 봉사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나 이 과정에서 일어날 것 같은 문제점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봉사 활동도 있는데 굳이 농촌봉사 활동을 제안한 이유를 묻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5. 정답 ③

[정답풀이]

③ 조정 단계에서 대학생 대표는 500원 인하를 제시하였고, 카페 대표는 이를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양측은 안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예’라고 할 수 있다.

6. 정답 ②

[정답풀이]

[자료 1]에서 원두 수요의 증가는 원두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므로 대학생 대표가 협상에서 커피 가격 인하를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7. 정답 ⑤

[정답풀이]

발표의 끝부분에는 청중에게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제품 구매 시 활용하기 바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하거나 나트륨 과다 섭취 자제를 위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부분은 나타

나 있지 않다.

8. 정답 ④

[정답풀이]

<보기>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떠올리고 있는 부분은 없다.

9. 정답 ②

[정답풀이]

2학년 대표는 기한 내에 우산을 반납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우산을 정리하는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 학교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0. 정답 ④

[정답풀이]

1학년 대표가 우산을 대여해 줄 때 학생증을 받아 두고 고장을 내거나 반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2학년 대표가 이 방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벌금 부과보다는 봉사 활동을 하게 하자는 2학년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1학년 대표와 3학년 대표가 찬성하고 있다. 따라서 빌려 간 물품을 고장 내거나 반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은 안내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11. 정답 ④

[정답풀이]

사회자는 토론 참여자의 발언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지 않다.

12. 정답 ④

[정답풀이]

[자료 1]은 푸드 마일리지의 수치가 큰 음식은 원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운송되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고, [자료 3]은 대부분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푸드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며 그 이유로 신선한 식품 섭취와 탄소 배출량 감소를 들고 있다는 내용이다. [자료 1]은 ‘국내산이라고 해도 ~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에, [자료 3]은 ‘학교 누리집에 있는 설문 결과에서도 ~ 찬성하고 있습니다.’와 ‘푸드 마일리지의 수치가 ~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에 나타나 있다. 이들 자료는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과 환경 보호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13. 정답 ④

[정답풀이]

푸드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의 장점을 제시하면서 상대 주장의 단점을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였으므로, <보기>를 참조한 토론 내용으로 적절하다.

[연습 문제로 화법 정복하기]

1. 정답 ③

2. [정답풀이]

발표자가 연구 논문을 통해 제시한 내용은 유기성 폐수 속의 미생물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전기 에너지 양이 그 폐수를 처리하는 데 드는 에너지의 양보다 9배나 많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미생물 연료 전지를 활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자료이다. 미생물 연료 전지를 활용하여 선진국들이 경제적으로 효과를 얻었다는 내용은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2. 정답 ①

[정답풀이]

㉠에서 학생은 발표를 들으며 미생물 연료 전지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된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하였다. 정리한 내용이 사실에 들어맞는지를 확인하여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정리하지 않았다.

3. 정답 ⑤

[정답풀이]

㉡은 '김 교수'가 든 사례에 대해 사회자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내용이므로, 토의 참여자가 제시한 방안을 실천하는 데 우려되는 점을 언급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 정답 ⑤

[정답풀이]

[E]에서 '김 교수'는 '청중'의 요청에 따라 '특정 연령층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청중'이 제기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5. 정답 ④

[정답풀이]

'직원 대표'가 한 발언을 통해 볼 때 '도서 대출 기간의 축소'는 협상의 쟁점이 아니므로, ㉡는 '직원 대표'가 협상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6. 정답 ④

[정답풀이]

이 토론에서 '사회자'는 논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원활하게 자기주장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을 뿐, 쟁점에 대한 타협안을 유도하고 있지는 않다.

7. 정답 ④

[정답풀이]

토론에서 '학생회 대표 2'는 입론에서 대부분의 동아리가 수익만 추구하다 보니 대부분의 부스에서 음식을 판매하여 축제의 품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를 지적할 때 학생회 측 대표는 인근 학교의 상황과 비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자료를 활용하였다.

8. 정답 ④

[정답풀이]

[A]에서 '학생회 대표 2'는 동아리 측의 문제 해결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동아리 측에 수익 사업 부스를 설치하지 말라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B]에서 '동아리 대표 2'도 학생회 측의 문제 해결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축제 때 부스를 설치하겠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9. 정답 ③

[정답풀이]

㉠에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동아리 활동 공간이 필요한 까닭이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말은 상대방에게 자

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해시키려는 발화라고 볼 수 있다. ㉡에는 연극 천하반이 홍보에 유리한 정문 진입로를 택한 근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10. 정답 ③

[정답풀이]

<보기>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약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협상에서 쟁점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언급하며 목표를 둘러싼 갈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⑤ 쟁점과 관련하여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약화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 ④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자신이 양보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약화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

<작문>

[EBS 교재의 핵심 문제 다보기]

1. 정답 ③

[정답풀이]

교사는 이 글의 목적이 학생이 또래 상담 요원으로 선발될 자격이 있는 것을 알리는 데 있음을 깨닫게 했다. 그리고 교사는 성장 과정을 자세히 나열하기보다는 글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만 간추려서 적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2. 정답 ④

[정답풀이]

학생은 일주일에 한 번씩 후배의 고민을 들어 주고 고민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활동을 했는데, 후배가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고민을 해결했다며 고마워했다고 했다. 이런 경험은 상담 요청자의 말을 잘 들어 주고 그에게 도움을 주는 상담 요원의 자질이 있음을 드러내기에 적절하다.

3. 정답 ④

[정답풀이]

학생이 쓴 초고에서 이웃 학교의 성공적 사례를 소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이 글을 쓴 학생은 자신이 건의하는 내용을 이웃 학교의 사례를 들지 않고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정답 ③

[정답풀이]

마지막 문단의 내용 중에는 학생회 임원들로 하여금 '축제와 관련된 학교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축제 전 2개월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 전체를 축제 준비 활동으로 운영'하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학생회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따라서 글의 독자가 학생회 임원들을 고려할 때 학생회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삭제한다는 수정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5. 정답 ③

[정답풀이]

③ (나)에서의 해결책이라면 적절한 지진 대비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 교육 기관, 국민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해결책이 지닌 장단점을 비교한 내용은 (나)에 없다.

6. 정답 ③

[정답풀이]

문장 성분의 호응을 고려하면 ㉠을 ‘아니라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라는 점이다’처럼 고쳐야 한다.

7. 정답 ⑤

[정답풀이]

<보기>의 [A]는 내진 보강 공사의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한 공사 유도가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이다. 또 [B]는 (나)에서 제시한 관계 법령의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건물이 연속적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려 준다. 따라서 이 두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을 보완하면 ⑤와 같은 주장이 될 것이다.

8. 정답 ④

[정답풀이]

(가)에서 ‘식량 부족 문제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여 식량 부족 문제와 독자를 연관시켰으므로 (가)는 2단계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나)는 ‘식용 곤충이 혐오 식품이 아닌 소중한 먹거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실제적인 소비 증진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여 식용 곤충과 관련된 독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였으므로 5단계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9. 정답 ③

[정답풀이]

㉠의 ‘좁은 공간에서 키울 수 있다.’는 B의 ‘같은 양의 단백질을 얻고자 할 때 소고기는 식용 곤충인 갈색거저리의 10배, 돼지고기는 2~3.5배 정도의 땅이 필요하다.’로 보아 적절한 내용이다. 하지만 ‘곤충은 ~ 먹이를 단백질로 전환하는 효율이 다소 낮지만’이라는 내용은 B의 ‘귀뚜라미의 경우 소가 먹는 양의 1/12, 돼지가 먹는 양의 1/2만으로도 개체 내에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와 상반된 진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정답 ①

[정답풀이]

필자가 윤리적 소비를 실천했던 개인적 경험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 정답 ⑤

[정답풀이]

윤리적 소비의 경험과 실천 의지에 대한 응답 결과가 이전 조사에 비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고한 내용으로, 이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다.

12. 정답 ④

[정답풀이]

④ 먹거리를 살 때에 친환경 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구입한다는 내용은 생활 속에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한다는 ㉠과 관련된 구체적 방안이며,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연습 문제로 작문 정복하기]

1. 정답 ③

[정답풀이]

(가)의 ‘학생 간의 대화’를 보면 글을 쓴 A는 반려 동물이 학대받고 유기되는 것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글을 써 사람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반려 동물 학대와 유기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게 하고 있다.

2. 정답 ①

[정답풀이]

I-1은 동물 등록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등록 대상 개체수에 비해 등록 개체수가 적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I-2는 반려 동물 중 개 이외에 고양이나 기타 동물들의 개체수도 많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반려 동물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3. 정답 ①

[정답풀이]

<조건>에서는 두 가지를 충족하는 글쓰기를 하라고 하고 있다. 첫째는 ‘반려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보호 활동에의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고, 둘째는 ‘대구를 활용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열려야, 당신의 손길이 닿아야’는 대구를 활용하여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있으며, ‘반려 동물 유기와 학대를 끝낼 수 있습니다.’를 통해 반려 동물 보호에 대한 내용임을 밝히고 있다.

4. 정답 ②

[정답풀이]

글쓴이는 초고의 1문단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이용에 적극적인 청소년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청소년들이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글쓴이는 초고의 1문단에서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였고, 설문 조사 항목으로는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 평가 여부, 인터넷 정보의 이용 방식 등 네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5. 정답 ④

[정답풀이]

<보기>의 자료 ②에 따르면 학생들이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 평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평가 방법을 몰라서(23%)’가 아닌 ‘인터넷 정보를 대체로 사실이라 생각해서(54%)’이다. 따라서 ㉠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6. 정답 ①

[정답풀이]

2문단에서 ‘나는 그 마중물이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다.’와 ‘바로 그런 준비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에서 ㉠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또한 3문단에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이 늘 후회스러웠다.’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중물과 같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금의 생활에 더욱 충실해야겠다.’에서 ㉠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정답 ②

[정답풀이]

‘할머니께서는, 물이 나오게 하려면 먼저 약간의 물을 펌프에 넣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물 한 바가지를 담아 오셨고’에서 문장의 주어는 ‘할머니께서는’이므로 높임의 대상을 고려하여 ‘넣어 주셔야 한다고 하며’라고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8. 정답 ③

[정답풀이]

「향토 음식 요리 교실」이라는 동일한 체험을 바탕으로 쓴

‘일기’와 ‘신문 기고문’이라는 서로 다른 작문 맥락에서 사용한 글쓰기 전략을 비교대조하는 문제이다. 개인적 성격이 강한 일기인 (가)에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향토 음식 요리 교실’에 다녀온 후 느낀 점과 ‘향토 음식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반성이 드러난 반면, (나)에는 ‘향토 음식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하여 ‘향토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가짐’이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9. 정답 ③

[정답풀이]

‘전통의 계승’과 관련하여 ‘향토 음식은 우리 전통을 이어 갈 소중한 유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여 향토 음식의 가치를 제시하였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을 활용하여 ‘향토 음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오답풀이]

① ‘전통의 계승’과 관련하여 향토 음식의 가치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향토 음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으나, 속담을 활용하지 않았다. ②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는 속담을 활용하였지만 이를 통해 ‘향토 음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전통 문화의 정체성’ 형성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향토 음식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④ ‘전통의 계승’과 관련하여 향토 음식의 가치를 제시하지 않았고, ‘우물가에서 숭늉 찾기’라는 속담을 활용하였지만 이 속담을 통해 ‘향토 음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한 것이 아닌 ‘향토 음식의 발전 또는 개선’을 촉구하였다. 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라는 속담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향토 음식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지 ‘향토 음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것은 아니다. 또한 외국의 식문화와 융합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통 계승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10. 정답 ①

[정답풀이]

앞 문장에서 ‘향토 음식’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제시하고 이어서 전통 음식과 구별되는 향토 음식의 정확한 개념을 정의한 것은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러우므로, 바로 뒤의 문장과 순서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

[오답풀이]

② 첫째 문단에서는 향토 음식의 개념과 가치를 다루고 있고, 둘째 문단에서는 향토 음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관심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두 내용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부사’인 ‘그런데’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③ ‘주말에 시간을 내기 어려움’은 향토 음식 요리 교실에 참여한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양념을 많이 쓰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담백한 맛’은 ‘힘이 넘치고 생기가 가득한’의 뜻이 있는 ‘활기찬’보다 ‘꾸밈이나 거짓이 없고 수수한’의 뜻이 어울리기 때문에 ‘소박한’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⑤ 향토 음식에 대한 관심이 지역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어 내는 데 ‘끼어들어 관계한’다는 것보다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참여’보다 ‘기여’로 고쳐 쓰는 게 적절하다.

<문법>

1. 정답 ③

[정답풀이]

③ 현대 국어 음운에 속하는 이중 모음의 발음 원리에 대한 설명이지 ㉠의 예가 아니다. ㉠의 예로는 · (아래아)의 소멸에 따른 음운 체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는 자음과 모음이며, 여기에서는 모음 ‘ㅣ’와 ‘ㅏ’에 의해 의미가 변별되고 있으므로 ‘ㅣ’와 ‘ㅏ’가 음운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영어와 달리 우리말의 음운 체계에서는 ‘ㅣ’과 ‘ㅏ’이 하나의 음운으로 인식되는 예로 언어에 따라 음운 체계가 다름을 말해 주는 것이다.
④ 분절되지 않는 말소리 요소인 소리의 장단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예로 비분절적이지만 소리의 장단도 음운으로 기능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⑤ 음성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이지만, 음운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의 단위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2. 정답 ④

[정답풀이]

④ ‘훈냄새 → 흑냄새’에서는 겹받침 중 ‘ㄴ’이 탈락하는(㉠) 음운변동이 발생하며, ‘흑냄새 → [훈냄새]’에서는 ‘ㄱ’이 ‘ㅇ’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발생한다.

[오답풀이]

① ‘겉모습 → 건모습’에서는 ‘ㅌ’이 ‘ㄷ’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발생하며, ‘건모습 → [건모습]’에서도 ‘ㄷ’이 ‘ㄴ’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발생한다.
② ‘타하다 → 탈하다’에서는 ‘ㅏ’가 ‘ㅑ’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발생하며, ‘탈하다 → [타타다]’에서는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는(㉣) 음운 변동이 발생한다.
③ ‘색연필 → 색년필’에서는 ‘ㄴ’이 첨가되는(㉤) 음운 변동이 발생하며, ‘색년필 → [색년필]’에서는 ‘ㄱ’이 ‘ㅇ’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발생한다.
⑤ ‘값하다 → 갑하다’에서는 겹받침 중 ‘ㅅ’이 탈락하는(㉦) 음운변동이 발생하며, ‘갑하다 → [가파다]’에서는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축약되는(㉧) 음운 변동이 발생한다.

3. 정답 ④

[정답풀이]

④ 표기 오류에 해당하는 부분은 ‘몇일인지’로 올바른 표기는 ‘며칠인지’이다. 여기에서는 ㉢과 관련된 어떠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표기 오류에 해당하는 부분은 ‘얹’으로 올바른 표기는 ‘안’이다. ‘얹’과 ‘안’의 발음이 동일한 것은 ㉡에서 말하는 겹받침의 발음과 관련되기 때문에 (나)의 활동 결과로 타당하다.
② 표기 오류에 해당하는 부분은 ‘불인다’로 올바른 표기는 ‘부친다’이다. 이러한 표기 오류는 ㉠에서 말하는 구개음화로 인해 ‘불이다’와 ‘부치다’의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이므로 (나)의 활동 결과로 타당하다.
③ 표기 오류에 해당하는 부분은 ‘쳐다보니’로 올바른 표기는 ‘쳐다보니’이다. ‘쳐’를 ‘치’로 잘못 표기한 것은 ㉠의 발음 현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나)의 활동 결과로 타당하다.

⑤ 표기 오류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물든’으로 올바른 표기는 ‘아무튼’이다. ‘아물든’과 ‘아무튼’의 발음이 동일한 것은 ㉠에서 말하는 거센소리되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나)의 활동 결과로 타당하다.

4. 정답 ②

[정답풀이]

② ‘되찾다’는 파생어로, 형태소 단위로 분석을 하면 ‘되- (접두사) + 찾- (어근) + -다 (종결 어미)’

[오답풀이]

① ‘깨우다’는 파생어로서 형태소로 분석하면 ‘깨- (어근) + -우- (사동 접사) + -다 (종결 어미)’이다. 따라서 어근은 ‘깨-’이고 어간은 ‘깨우-’이다.

③ ‘붙잡다’는 합성어로서 ‘붙다’의 어간 ‘붙-’과 ‘잡다’의 어간 ‘잡-’이 결합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어근은 ‘붙-’, ‘잡-’이고 어간은 ‘붙잡-’이다.

④ ‘먹다’의 어간은 ‘먹-’이고 ‘먹이다’는 파생어로서 형태소 분석을 하면 ‘먹- (어근) + -이- (사동 접사) + -다 (종결 어미)’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먹-’을 어근으로 하고 있다.

⑤ ‘끓이다’는 파생어로 ‘끓- (어근) + -이- (사동 접사) + -다 (종결 어미)’로 분석이 가능하다. 어간은 ‘끓이-’가 된다. ‘애끓다’는 ‘애 (어근) + 끓- (어근) + -다 (종결 어미)’인 합성어로 어근은 ‘애’, ‘끓-’이고 어간은 ‘애끓-’이다.

5. 정답 ⑤

[정답풀이]

⑤ ‘들어간다’는 동사의 연결형 ‘들어’와 동사의 어간 ‘가-’가 결합한 합성어로서 이러한 결합 형태는 국어 문장의 구성 방식에 부합하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속한다.

[오답풀이]

①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방식은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이고 조사가 생략되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논밭’은 통사적 합성어에 속한다.

② 동사의 어간과 명사가 결합한 방식으로 어간이 어미 없이 바로 명사에 연결되는 단어 배열법은 국어의 문장 구성에서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덮밥’은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형용사의 관형사형과 명사가 결합한 방식은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부합하므로 ‘젊은이’는 통사적 합성어에 속한다.

④ ‘파고들다’는 동사의 연결형 ‘파고’와 동사의 어간 ‘들-’이 결합한 합성어로서 이러한 결합 형태는 국어 문장의 구성 방식에 부합하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속한다.

6. 정답 ①

[정답풀이]

① ‘첫눈’은 자립 형태소 ‘첫(관형사)’과 자립 형태소 ‘눈(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오답풀이]

②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로, ‘내리-’, ‘가-’가 이에 해당한다.

③ 접사는 복수의 접미사 ‘- 들’과 ‘한창’이라는 뜻을 더 해 주는 접두사 ‘한-’의 2개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④ 어미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자 문

법적인 의미가 강한 형식 형태소로 예문에서는 ‘-자’, ‘-았-’, ‘-다’ 3개이다.

⑤ 조사는 주격 조사 ‘이’, 보조사 ‘은’, 부사격 조사 ‘에’, ‘으로’ 총 4개로 문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7. 정답 ③

[정답풀이]

③ ‘엄마는’은 보조사의 앞뒤로 격 조사가 붙지 않은 경우이므로 ㉠에 해당한다. ‘막내마저’도 보조사의 앞뒤로 격 조사가 붙지 않은 경우이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너까지’는 보조사의 앞뒤로 격 조사가 붙지 않은 경우이므로 ㉠에 해당한다. ‘무척이나’는 보조사가 부사 ‘무척’에 붙은 경우이므로 ㉡에 해당한다.

② ‘나에게는’은 보조사의 앞에 격 조사가 붙은 경우이므로 ㉡에 해당한다. ‘말기지도’는 보조사가 어미 뒤에 붙은 경우이므로 ㉡에 해당한다.

④ ‘너만은’은 보조사의 뒤에 격 조사가 붙은 경우이므로 ㉡에 해당한다. ‘것은’은 보조사의 앞뒤로 격 조사가 붙지 않은 경우이므로 ㉠에 해당한다.

⑤ ‘이번에는’은 보조사의 앞에 격 조사가 붙은 경우이므로 ㉡에 해당한다. ‘진주도’는 보조사의 앞뒤로 격 조사가 붙지 않은 경우이므로 ㉠에 해당한다.

8. 정답 ④

[정답풀이]

④ ㄹ에서 ‘바꾸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농부가’, ‘황무지를’, ‘옥도로’, ‘바꾸었다’가 모두 필수 성분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ㄱ에서 필수적인 성분은 ‘눈이’와 ‘빛난다’이다.

② ㄴ에 쓰인 부사어 ‘어제’는 생략해도 상관없는 수의적 성분이다.

③ ㄷ에서 ‘사라진 것은’은 보어로 필수 성분에 해당한다.

⑤ ㄹ에서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모두 필수 성분에 해당한다.

9. 정답 ②

[정답풀이]

② ㉠의 주어는 ‘내가’이고 ㉡의 주어는 ‘내가 쓴 보고서’이므로 동일하지 않다. ㉢의 주어는 ‘대표가’이고 ㉣의 주어는 ‘우리가’이므로 역시 동일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이 수식하는 명사 ‘보고서’는 주격 조사 ‘가’와 결합하였고, ㉢이 수식하는 명사 ‘대표’는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였다.

③ ㉠과 ㉢이 생략되어도 ㉡과 ㉣의 성립에 문제가 없다.

④ ㉡은 ‘내가 쓴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라는 문장이 명사형 어미 ‘- 음’과 결합하여 명사절을 이루었고, ㉣은 ‘우리가 학생들의 의사를 잘 대변하는 대표를 선출하다.’라는 문장이 명사형 어미 ‘-기’와 결합하여 명사절을 이루었다.

⑤ ㉠과 ㉢은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여 각각 ㉡과 ㉣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정답 ④

[정답풀이]

④ ‘내가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에서 난처한 입장에 놓이는 상황은 동작성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에 해당한다. 또한 ‘나는 할아버지에게서 바둑을 배웠다.’에서 바둑을 배운 것은 동작이라기보다는 경험에 해당한다. 대응하는 피동문을 상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더위가 한풀 꺾였다.’에서 ‘꺾이다’는 피동사이지만, 자연적 변화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에 해당한다. 반면 ‘희태가 잡자리를 잡았다.’는 ‘잡자리가 희태에게 잡혔다.’와 같이 대응하는 피동문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자물쇠가 누군가에게 뜯겼다.’는 ‘누군가가 자물쇠를 뜯었다.’와 같이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는 그쪽 지리를 잘 알았다.’에서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경험에 해당하므로 대응하는 피동문을 상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문장은 ㉡에 해당한다.

③ ‘온 세상이 눈에 덮였다.’는 ‘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와 같이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호랑이가 닭을 잡아먹었다.’는 ‘닭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와 같이 피동문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아이가 모기에게 잔뜩 물렸다.’는 ‘모기가 아이를 잔뜩 물었다.’와 같이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우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도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건우에게 들렸다.’와 같이 대응하는 피동문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정답 ③

[정답풀이]

③ ㉠에서 마신 것은 과거의 일이고 잠을 못 잘 것이라는 것의 반영적 표현인 ‘잠은 다 잤다’는 미래의 일이다. 그러므로 앞의 ‘-았-’과 뒤의 ‘-았-’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임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ㄴ/는-’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그런데 ㉠에서 ‘한다’의 ‘-ㄴ-’은 현재의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지만, ㉡에서 ‘떠난다’의 ‘-ㄴ-’은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 현재 시제의 형태소가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② ㉢은 입은 행위가 현재 진행 중임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미 입은 행위가 끝나고 그 결과로 입은 상태에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다. 따라서 중의적인 문장이다. 그러나 ㉢은 축구를 하는 행위가 현재 진행 중임을 나타내기만 한다.

④ 과거에 친구가 왔으나 지금은 돌아가고 없으므로 현재의 상황이 과거의 상황과 달라져 단절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았었-’을 쓴 것이다.

⑤ 말하는 이가 서울역에서 직접 눈으로 본 바를 회상하면서 말하는 문장에 ‘-더-’를 사용한 것이다.

12. 정답 ①

[정답풀이]

‘체’는 의존 명사로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체’는 의존 명사로 ‘그렇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의미한다. ‘-째’는 접사로 ‘그대로, 또는 전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껍질째’는 ‘껍질’이라는 명사에 ‘-째’라는 접사가 붙어 ‘껍질 그대로 또는 전부’라는 의미가 되므로 바르게 쓰였다.

[오답풀이]

② ‘앉아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의존 명사 ‘체’가 쓰여 ‘앉은 체로’라고 써야 한다.

③ ‘뚝뚝한 척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의존 명사 ‘체’가 쓰여 ‘뚝뚝한 체’라고 써야 한다.

④ ‘살아 있는 상태 그대로’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의존 명사 ‘체’가 쓰여 ‘산 체’라고 써야 한다.

⑤ ‘죽은 척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의존 명사 ‘체’가 쓰여 ‘죽은 체를 했다’라고 써야 한다.

13. 정답 ③

[정답풀이]

③ 앞의 ‘타다’는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을 쉽게 받다.’라는 뜻이고, 뒤의 ‘타다’는 ‘바람이나 물결, 전파 따위에 실려 퍼지다.’라는 뜻으로서 서로 동음이의 관계에 있으므로 <보기>의 예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두 동사 모두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보기>의 예가 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질병이나 줄음 따위의 생리적 현상이 일어나거나 생기다.’라는 뜻의 ‘오다’는 주어만 있으면 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는 사람 혹은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움직여 위치를 옮기다.’라는 뜻의 ‘오다’는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② ‘일정한 공간에 사람, 사물, 냄새 따위가 더 들어갈 수 없이 가득하게 되다.’라는 뜻의 ‘차다’는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이다. 그러나 ‘정한 수량, 나이, 기간 따위가 다 되다.’라는 뜻의 ‘차다’는 주어만 있으면 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④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거나 얻어 가지다.’라는 뜻의 ‘보다’는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이다. 그러나 ‘대상을 평가하다.’라는 뜻의 ‘보다’는 주어와 목적어와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⑤ ‘무슨 일을 겪어 내다.’라는 뜻의 ‘치르다’는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이다. 그러나 ‘주어야 할 돈을 내주다.’라는 뜻의 ‘치르다’는 주어와 목적어와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이다.

14. 정답 ④

[정답풀이]

④ ㉢의 ‘공순호물’은 ‘공순+호+물’을 이어 적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을 통해 끊어 적기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의 ‘스물이어든’은 ‘스물+이어든’을 이어 적기를 한 것이다. ‘스물’을 통해 ㅎ 중성 체언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의 어두에는 ‘ㅁ’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어두에 활용 병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은 ‘효도ㅎ- + -ㅁ’의 구성으로, 명사형 어미 ‘-ㅁ’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의 ‘ㄱ리치디’의 ‘-디’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표기가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15. 정답 ⑤

[정답풀이]

⑤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중 ‘-습-’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형태였고, ‘-슬-’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형태였다. 따라서 어간의 끝소리에 따라 형태가 달라졌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오답풀이]

①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오는 대상을 높인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② 현대 국어의 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모시다, 뵙다, 여쭙다, 드리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③ (가)의 ‘보스븀면’과 (다)의 ‘보스븀’은 각각 현대 국어의 특수한 객체 높임 표현 ‘븀면, 븀’으로 바꿀 수 있지만 ‘봣스븀면’은 현대 국어의 특수한 객체 높임 표현으로 바꿀 수 없다.

④ 자료에 주어진 예문을 보면 용언의 연결형과 관형사형에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활용형에서 실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6. 정답 ④

[정답풀이]

④ 어간 ‘뵈-’은 ‘ㅂ’으로 끝나고, 어말 어미 ‘-으니’는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습-’이 와야 하고, 활용형은 ‘뵈스븀니’가 되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 어간 ‘뵈-’은 ‘ㅂ’으로 끝나고, 어말 어미 ‘-고’는 자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습-’이 오고, 활용형도 ‘뵈스븀고’가 되는 것이 옳다.

② 어간 ‘춰-’은 ‘ㅂ’으로 끝나고, 어말 어미 ‘-고’는 자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습-’이 오고 활용형도 ‘춰스븀고’가 되는 것이 옳다. ‘춰다’는 ‘물건을 몸의 한 부분에 달아 매거나 끼워서 지나다.’라는 뜻이다.

③ 어간 ‘연-’은 ‘ㅂ’으로 끝나고, 어말 어미 ‘-야’는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습-’이 오고, 활용형도 ‘연스븀야’가 되는 것이 옳다.

⑤ 어간 ‘막-’은 ‘ㄱ’으로 끝나고, 어말 어미 ‘-거늘’은 자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습-’이 오고, 활용형은 ‘막스븀거늘’이 되는 것이 옳다.

<독서>

[인문1]

1. 정답 ①

[정답풀이] 5문단에 의하면, ‘헤어’는 직관들 사이의 갈등과 같은 직관적 사유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비판적 사유가 요구된다고 보았으며, 비판적 사유가 직관을 정당화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6문단에 의하면, ‘도덕적 사유의 두 수준 모델’에서 비판적 사유와 직관적 사유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구조를 이룬다.

③ 1문단에 의하면, 도덕적 직관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보기>는 직관들(아버지를 고발해야 한다는 것과 아버지를 위해 숨겨 주어야 한다는 것)이 서로 갈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5문단에 의하면, 직관들이 갈등하는 것과 같은 직관적 사유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유가 요구된다.

⑤ 4문단에 의하면, ‘헤어’는 직관적 사유를 이끄는 도덕 원리는 그것을 위반했을 때 죄의식이나 회한 같은 강력한 도덕적 감정을 수반한다고 보았다.

2. 정답 ③

[정답풀이] 4문단에 의하면, ‘헤어’는 반직관주의의 이론적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직관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반직관성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 의하면, ‘헤어’는 우리가 직면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직관적 사유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옳은 행위를 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일상적 상황에서는 도덕적 직관에 기초하여 사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4문단에 의하면, ‘헤어’는 도덕적 사유는 직관적 사유와 비판적 사유의 두 수준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④ 3문단에 의하면, ‘헤어’는 반직관주의 윤리학에서는 직관주의 윤리학과 달리 논리를 따르는 도덕적 추리를 중시한다고 하였다.

⑤ 4문단에 의하면, ‘헤어’는 직관적 사유를 이끄는 도덕 원리가 간단하고 일반적인 원리여서 일상적인 도덕적 사유에서 활용하기에 용이하다고 보았다.

[인문2]

1. 정답 ③

[정답풀이] 퍼스는 객관적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 결국 참된 관념과 거짓된 관념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영수’의 실험 방법이 동료의 실험 방법과 다르더라도 양쪽의 실험 방법이 모두 적절하다면 객관적 실체는 동일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퍼스는 동료의 실험 방법을 똑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식의 조언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5문단에서 퍼스는 참된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과학적 방법이란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②, ④ 5문단에 따르면, 퍼스는 ‘의심스러운 상황과 관련된 모든 가능성을 떠올리면서 그것이 참된 관념인지 거짓된 관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또한 과학적 탐구의 끝에 연구자들이 도달한 결론이 ‘객관적 실체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할 수 있는 실험을 모두 해 본 후에 얻은 실제적인 결과가 항상 동일하다면, 그 결과를 객관적 실체에 가까운 것이라 여길 것이다.

⑤ 5문단에서 퍼스는 ‘공동체 내에서 믿음이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중시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과학적 탐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실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참된 믿음, 즉 유용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다.

2. 정답 ⑤

[정답풀이] <보기>의 ‘신학자(㉠)’들은 ‘기존의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철학적, 신학적 판단만을 맹신하고 있으며, ‘벨라르미노 추기경(㉡)’은 처벌을 언급하며 ‘교황청의 이름’과 그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지동설은 틀렸고 천동설이 옳다는 기존의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각각 ‘실험적 방법’과 ‘권위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은 기존의 철학이나 자신의 신학을 바탕으로 갈릴레이를 반박하고 있다. ㉡는 갈릴레이에 대한 ‘처벌’을 언급하며 ‘권위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①은 적절하지 않다.

②, ③ ㉠과 ㉡는 과거의 지식을 중시하면서 갈릴레이의 새로운 과학적 실험(관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과학적 방법’을 따른다고 볼 수 없다.

④ ㉠은 철학적, 신학적 논리를 근거로 삼아 자신의 믿음을 공고히 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근거 없이 판단을 내세우는 ‘고집의 방법’을 활용한 것은 아니다.

[인문3]

1. 정답 ③

[정답풀이] 해석 수준 이론에 의하면, 시간적 거리가 멀수록 상위 수준 해석에 가깝고,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하위 수준 해석에 근접한다. 이를 감안할 때 ‘할인권’은 상대적으로 하위 수준의 속성에 해당하고, ‘제품의 본질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상위 수준의 속성에 해당한다. 종속성은 상대적으로 하위 수준의 속성에 해당하므로 ‘할인권’이 상대적으로 ‘제품의 본질적 기능’에 종속되는 속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해석 수준 이론에 의하면, 시간적 거리가 멀수록 상위 수준 해석에 가깝고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하위 수준 해석에 근접한다. 이를 감안할 때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할인권’은 상대적으로 하위 수준의 속성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② <보기>는 동일한 제품을 가까운 미래에 구매하느냐 아니면 먼 미래에 구매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의사결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시간적 거리’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6문단에 의하면, 시간적 거리가 멀수록 상위 수준 해석에 근접하게 된다. <보기>에 의하면 본질적인 기능이 강화된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므로 상위 수준 해석에 따른 판단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5문단에 의하면, 상위 수준의 해석은 행위의 근원적 목적을 중요시한다. 본질적 기능을 중심으로 고려하는 것은 상위 수준의 해석에 해당하므로 행위의 근원적 목적을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정답 ④

[정답풀이] 2문단에 의하면, 상위 수준의 해석에서는 행위의 근원적 목적과 의미를 중시하는 반면, 하위 수준의 해석에서는 행동의 구체적인 방법에 비중을 둔다. 따라서 ㉠에 대해 상위 수준의 해석에서는 상징적 의미를 중시하지만, 하위 수준의 해석에서는 방법 자체를 중시할 것이다. 그러므로 ‘ㄴ’은 적절한 진술이다. 그리고 1문단에 의하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식별 수준이 곧 해석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ㄷ’은 적절한 진술이다.

[오답풀이] 상위 수준의 해석은 행위의 근원적 목적을 중요시하므로 무희가 왜 ㉡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에 주목할 것이며, ㉡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도 종속성보다는 중심성을 중시할 것이다.

[인문4]

1. 정답 ④

[정답풀이] <보기>는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 행위를 다룬 기사이다. 페리의 관점에 의하면 어떤 대상이든 ‘관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가치가 부여된다. 이 신문을 읽은 사람들 모두 ‘얼굴 없는 천사의 행위’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기>의 ‘A씨’는 ‘얼굴 없는 천사’의 행위를 고귀한 행동이라 평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페리의 관점에 의하면 ‘얼굴 없는 천사’의 행위는 적어도 ‘A씨’에게는 가치가 있는 일이다. 따라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따르면, 기사의 내용 중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 판단, 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는 가치 판단에 해당한다.

② 2문단과 3문단에 제시된 주관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얼굴 없는 천사’가 소아암 환자와 소년 소녀 가정 중 누구를 돕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 평가에 따른 선택일 뿐이다. ‘개인의 취향은 논의될 수 없다.’라는 라틴어 격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주관주의자들은 가치에 대한 주관적 선택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③, ⑤ 5, 6문단에 따르면, 셀러와 같은 객관주의자들은 ‘얼굴 없는 천사’의 행위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선행)’ 속에 담긴 가치를 보편적인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셀러의 경우 특정한 행위가 갖는 가치를 행위의 담지자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문5]

1. 정답 ⑤

[정답풀이] (나)는 종호의 인지 체계에 자신이 건강에 해가 될 정도로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당을 섭취하고 있다는 인지 요소가 추가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종호는 ‘단음식을 원하는 만큼 먹지 못해서 얻는 스트레스’와 ‘단 음식을 먹으면서 얻는 즐거움’이라는 인지 요소를 건주어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된 인지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헤진은 동물 실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A 회사 화장품에 대한 태도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A 회사 화장품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헤진이 A 회사의 화장품을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것은 동물 실험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A 회사 화장품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바꾸어, 자신의 심리적, 인지적 평형을 유지하려는 태도 변용으로 볼 수 있다.

③ 종호가 의사와의 상담 결과 마음이 불편해진 것은 자신의 당 섭취량과 관련한 인지 요소가 추가됨으로써 인지 부조화가 생겼고, 그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이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종호가 원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스트레스나, 원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얻는 즐거움을 고려한 것은 자신의

인지 요소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문6]

1. 정답 ⑤

[정답풀이] [A]에서 이해가 개인의 인지 통합의 과정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지만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네트워크화된 지금은 남들과 함께 이해에 이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해에 이르는 방법을 남들과 함께 협력하는 활동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개인의 인지 통합 과정이라는 이해의 개념이 바뀐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에서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지식은 정보들의 관련성을 창조적으로 파악하고 사유하는 행위를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만약 각 개인의 지식에 대한 믿음들 사이에 추론적 연결과 설명적 연결이 일어난다면 이해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나)의 글쓴이는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기술을 합리적 근거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A]에서 만약 각 개인의 지식에 대한 믿음들 사이에 추론적 연결과 설명적 연결이 일어난다면 이해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이 상대방에게 합리적 근거를 요구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공통 플랫폼이 되도록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A]에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네트워크화된 지금은 남들과 함께 이해에 이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기술을 합리적 근거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A]에서 인간 인터넷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이며, 우리는 더 강력한 인식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나)의 글쓴이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2. 정답 ④

[정답풀이] (가)의 1문단에서 사물 인터넷은 인간을 포함한 사물 간의 지능 통신임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뇌와 연결되어 생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가)의 2문단에서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응용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획득하고 공유할 수 있을지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물 인터넷은 인간의 뇌와 연결되어 생각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 등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아니며, 또 말을 통해 나타내게 한 것이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2문단에서 사물 인터넷은 서로 다른 영역의 사물 간에 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를 스토리텔링 사례에서 살펴보면, A 씨가 거울을 보며 “모자.”라고 말하면 거울이 여러 가지 스타일의 모자들을 비춰 주고, A 씨가 중절모를 가리키자 거울이 다시 중절모를 쓴 A 씨의 모습을 보여 주어 결국 A 씨가 이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A 씨가 중절모를 선택한 것은 거울과 A 씨의 협업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가)의 1문단에서 사물 인터넷은 사물이 단순히 연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사물들이 인간에게 지식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간의 명시적 개입 없이도 정보를 생성, 수집, 공유,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하였으므로 정보를

수집한 스마트폰이 A 씨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의 3문단에서 사물 인터넷은 네트워크, 단말 및 센서, 플랫폼과 서비스 등 구성 요소에 대한 해킹 및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 만약 누군가 차에 전달되는 정보를 조작해 사고 다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속도를 줄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 정보가 빠져나간 경로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요소를 고려할 때, 커넥티드 자동차에 전달되는 정보가 조작되어 차선 감지 장치나 충돌 방지 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⑤ (가)의 2문단에서 사물 인터넷은 서로 다른 영역의 사물 간에 협업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플랫폼에 연결되는 등 개방형으로 운용된다고 하였다. 이를 스토리텔링 사례에서 살펴보면, 창문을 통해 찍은 사진을 편집하여 개방형 SNS에 올릴 뿐만 아니라 창문에 지도와 운행 정보가 나타나고 인천항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문을 통해 이뤄지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볼 때, 서로 다른 영역의 사물들이 다양한 플랫폼에 연결되어 개방형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정답 ②

[정답풀이] (나)의 글쓴이는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면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지식 습득 방식이 인간의 사유 능력을 방해하며 자동적으로 정보를 얻는 데 익숙해지면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한다고 보고, 사물 인터넷에 의해 지식이 네트워크화된 상황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되, 인간이 강력한 인식 주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물길 정체를 고려하여 기상 시간을 생각할 필요도,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나 소요 시간 등을 고민할 필요도, 도로 상황을 주시하며 직접 운전을 할 필요도 없이 사물 인터넷의 편리함을 누리는 A 씨에게 (나)의 글쓴이는 인간의 사고를 취약하게 만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나)의 3문단에서 글쓴이는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면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상대방에게 합리적 근거를 요구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공통 플랫폼으로 활용하되, 인간 인터넷에서는 인간이 강력한 인식 주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있지만 A 씨가 누리는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글쓴이는 1문단에서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미래가 ‘인간 인터넷’, ‘뉴로 미디어’의 세계라 보고, 3문단에서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면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글쓴이는 ‘뉴로 미디어’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며, 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A 씨가 누리고 있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 인간의 생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나)의 글쓴이는 2, 3문단에서, 사물 인터넷에 의해 지식이 네트워크화된 상황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되, 인간이 강력한 인식 주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물 인터넷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글쓴이가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A 씨의 사례에도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의 3문단에서 글쓴이는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면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사물 인터넷에 의해 지식이 네트워크화된 상황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되, 인간이 강력한 인식 주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글쓴이가 사물 인터넷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A 씨를 보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회1]

1. 정답 ③

[정답풀이] 3, 4문단에 의하면, 비개인적 효과 가설에서는 개인이 '낙관적 편견'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정보 습득 채널의 차이, 즉 대중매체와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로 설명한다.

[오답풀이] ① 3문단의 '비개인적 효과 가설에 따르면 개인 수준의 위험인식은 사회 수준의 위험과 달리 주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대중 매체와 달리 위험에 대한 상세하고 깊이 있는 생생한 정보들을 전달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② 1문단의 설명에 의하면, '낙관적 편견'은 개인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위험이 더욱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④, ⑤ 4문단의 '비개인적 효과 가설이 제안하는 것과 같이 사회 현실에 대한 수용자의 지각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사회적 수준에 국한된다면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력은 정치적으로 볼 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갖는다고 볼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2. 정답 ③

[정답풀이] 비개인적 효과 가설에서는 대중 매체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위험이 더욱 심각하다고 인식하게 하는 낙관적 편견을 형성하게 한다고 보았고, 제3자 효과 가설에서는 매스 미디어의 메시지가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지각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① 비개인적 효과 가설은 대중 매체와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비교하고 있으며, 제3자 효과 가설은 대중 매체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다. 둘 다 기존 미디어와 새로운 대중 매체의 정보전달력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② 비개인적 효과 가설과 제3자 효과 가설 모두 대중 매체가 개인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지, 대중매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④ 비개인적 효과 가설과 제3자 효과 가설 모두 대중 매체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개인의 편향된 인식을 다루고 있지, 대중 매체가 개인에게 미치는 계도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지는 않다.

⑤ 비개인적 효과 가설은 대중 매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을 대조하고 있지, 그 공통점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제3자 효과 가설은 대중 매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만을 언급하고 있지,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다루고 있지 않다.

3. 정답 ①

[정답풀이] ㉠으로부터,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수준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 수준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문단에서 보면, 이는 '대중 매체

를 통해 제시된, 위험에 대한 정보는 대개 추상적이며,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비개인적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오답풀이] ②, ③, ④, ⑤ 비개인적 효과 가설은 미디어의 영향력이 사회적 수준에 국한된다는 것으로, 미디어의 영향력이 개인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사회2]

1. 정답 ②

[정답풀이] 이 글은 농산물과 같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체되는 재화의 시장에서 주기적으로 가격의 폭락과 폭등이 반복되는 경제적 현상을 거미집 모형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농산물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현상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③ 이 글은 거미집 모형이 나타나는 경제적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이 나라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은 특정한 경제 현상을 '거미집 모형'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있지 다양한 이론적 해석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⑤ 이 글은 거미집 모형이 나타나는 경제적 문제 상황에 대한 진단은 나와 있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있지는 않다.

2. 정답 ④

[정답풀이] 그래프 상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변동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으며, 거미집 모형에서 가격은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아니라 공급량에 대응하는 수요 곡선상의 점을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의 첫 문장을 보면, 거미집 모형이 생산자가 수확 시의 가격이 재배를 시작하는 시점의 가격과 동일하다고 예상하고 재배를 결정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②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농산물 가격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하나의 간단한 모델이라고 했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③ 1문단의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수요는 가격 변화에 의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특정 재화에 있어 공급은 그렇지 못하고 지체되는 경우가 있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농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가격의 폭락과 폭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설명하는 모델이 거미집 모형이라고 했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⑤ 가격이 수급 균형점으로 수렴되기 위해서는 가격의 변동 양상이 수렴형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3문단을 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이와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3. 정답 ④

[정답풀이] ㉠은 가격의 등락 폭이 점점 커진다고 했으므로 발산형 그래프로 설명될 수 있고, ㉡는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몇 번 반복된 후 가격의 안정을 찾았다고 했으므로 수렴형 그래프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비해 작지만, ㉠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㉔는 발산형, ㉕는 수렴형으로, 모두 거미집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㉔는 가격의 폭락과 폭등이 주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가격 변동의 추이가 거미집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② ㉕는 수렴형 그래프로 나타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게 나타나지만, ㉔는 발산형 그래프로 나타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게 나타난다.

③ ㉔는 수요에 대한 공급이 지체되었으나 소고기나 닭고기 같은 해당 재화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가 있어 가격이 급세 정되었다고 했으므로 가격 변동 추이가 거미집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⑤ ㉕는 몇 번의 폭락과 폭등을 거친 후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했으므로, 가격의 변동 추이가 균형 가격에서 발산되는 것이 아니라 수렴하는 궤적을 그리며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사회3]

1. 정답 ⑤

[정답풀이] 3문단에서 프라이버시권은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한 정신적 피해나 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막을 수 없었다고 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대중성 및 이와 관련된 상업적 가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오답풀이] ① 프라이버시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은 이 글에 서술되어 있지 않으며, 1문단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은 사람과 동일시되는 것들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② 자신의 성명, 초상과 같은 것이 지니는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퍼블리시티권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성명, 초상과 같은 것이 시장 가치가 될 수 있음을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받았다고 볼 수 없다.

③ 자신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상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내용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또한 상대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권이고 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막고자 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이다.

④ 3문단을 통해서 프라이버시권이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한 정신적 피해나 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이 새롭게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권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을 수가 없다.

2. 정답 ⑤

[정답풀이] 2문단에서 성명, 초상 등을 허락받지 않고 상품의 선전, 영업, 기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의 네 번째에 해당한다고 했다. D 회사는 C 씨의 ‘인간 포탄’ 공연 영상을 허락 없이 광고에 이용했고 법원은 그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따라서 D 회사는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 중 네 번째 유형의 침해를 C 씨에게 범했다.

[오답풀이] ① ‘가’ 국가의 법원이 경제적 이익의 침해만 있었음을 인정한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B 씨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3문단을 통해, 퍼블리

시티권이 인정되기 전의 미국 법원에서는 유명인이 대중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근거로 묵시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가’ 국가의 법원이 내린 판결과 연결시켜 보면, ‘가’ 국가의 법원은 B 씨가 자신의 초상권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볼 수 있다.

② ‘가’ 국가의 법원은 프라이버시권은 경제적 이익 보호와는 관련이 없는 권리라며 B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것은 3문단의 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프라이버시권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권리라는 이유로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과 같다. 이를 통해, ‘가’ 국가의 법원은 프라이버시권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권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인간 포탄’ 공연은 C 씨를 연상시키는 것이고, ‘나’ 국가의 법원은 ‘인간 포탄’ 공연을 보호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5문단에 서술된 퍼블리시티권 보호 범위와 1문단의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에 따른다면 C 씨의 ‘인간 포탄’ 공연은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4문단에서 유명한 정도는 손해 배상액 산정의 중요 요소라고 했는데, ‘나’ 국가의 법원은 C 씨의 인기도를 기준으로 손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따라서 ‘나’ 국가의 법원은 C 씨가 대중에게 알려진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것이다.

④ C 씨는 ‘인간 포탄’ 공연으로 유명해진 연예인이므로 ‘인간 포탄’ 공연은 C 씨를 연상시키는 공연, 즉 C 씨의 동일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 국가의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1문단의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에 따라 ‘인간 포탄’ 공연은 C 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4]

1. 정답 ④

[정답풀이] 소비자가 어떠한 준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여부가 달라진다. 경쟁사의 제품 가격을 외적 준거로 활용하려는 소비자에게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제품의 과거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다)의 광고가 아닌, 경쟁사의 제품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라)의 광고가 효과적이다.

[오답풀이] ① (가)는 할인의 상한점을 제시하는 광고인 최대 가격 할인 광고이므로 방어 초점을 가진 소비자들보다 달성 결과에 집중하는 향상 초점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일 것이다.

② (나)의 광고는 할인의 하한점을 제시하는 최소 가격 할인 광고이다. (가)의 광고보다 (나)의 광고에 관심을 보인 소비자는 달성 위험에 집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소비자들은 자신의 구매 경험에 따라 내적 준거 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기업이나 소매점이 제시하는 외적 준거 가격을 바탕으로 소비를 한다. 과거 구매 경험이 없는 소비자는 내적 준거 가격을 설정하지 못하고 외적 준거 가격을 바탕으로 소비를 결정하게 된다. (다)는 제품의 과거 가격을 외적 준거 가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기업이나 소매점의 마케팅 방법이 매출액 증가라는 마케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

지 않는다면 (가)~(라)의 광고는 마케팅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정답 ④

[정답풀이] A 업체의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불만족스러워 하였고, 이에 A 업체가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언제든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즉 소비자들은 가격 할인이라는 마케팅 내용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되었고, 제품 구매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소비자가 가격 할인이라는 마케팅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인지하였으나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② A 업체는 이전과 같이 광고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할인 행사를 홍보하였다. 그러므로 광고 매체를 바꾸었을 때의 결과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매출액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광고를 진행하였으므로 매출액 증가라는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⑤ 제품의 과거 가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비자가 내적 준거 가격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의 내적 준거 가격은 소비자들이 구매 경험을 바탕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사회5]

1. 정답 ③

[정답풀이] 환율이 ‘급등’(원화의 가치 하락)한다는 것은 미 달러화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원화의 공급이 늘어나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때 중앙은행에서 미 달러화를 ‘매각’하면 ‘미 달러화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므로 환율이 안정되어 원화의 가치가 ‘절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반대로 환율이 ‘급락’(원화의 가치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미 달러화의 공급이 늘어나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때 중앙은행에서 미 달러화를 ‘매입’하면 ‘원화의 공급’이 늘고, 미 달러화의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절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정답 ③

[정답풀이] 신호 효과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풍부한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량이 부족한 쪽에 자신에 대해 확신시킬 수 있는 신호를 보낼 때 일어나는 것이다. C 그룹 사례에서 정확한 신입사원 선발 기준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지원자는 신입 사원 선발에 대해서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그렇지만 면접에서 인문학적 지식에 대한 질문을 매년 한다는 것이 지원자들에게 신호로 작용하여 지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사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정보가 풍부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② 영화사와 평론가들 사이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평론가들 의견과 상관없이 영화를 만들었으므로 상대방의 신호에 반응한 것도 아니다.

④ 시장 후보자들이 유권자보다 정보가 풍부하다고 볼 단서는 없으며, 후보자들이 정보가 더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신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⑤ E 경찰서의 사례는 신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인

정보의 비대칭 상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회6]

1. 정답 ⑤

[정답풀이] <보기>에 제시된 사례에서 7, 8월의 전체 불량률을 비교해보면 불량률이 감소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A, B 제품을 각각 살펴보면 오히려 불량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를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세분화해 분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불량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려면 대상을 세분화해 별도로 불량률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사례는 전체 불량률과 A, B 제품의 불량률이 모순되고 있다.

② 전체 제품의 불량률만을 7, 8월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불량률이 감소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

③ 7월에 비해 8월에 전체 제품의 불량률이 감소한 것은 불량률이 많은 B 제품의 생산량은 줄이고 불량률이 적은 A 제품의 생산량은 늘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량 변화를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

④ 7월과 8월의 A, B 제품 전체의 불량률만을 비교하는 것은 통계 자료를 토대로 사실을 왜곡한 것일 수 있다.

2. 정답 ①

[정답풀이] 대표성의 역설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면, 학과별 남녀 지원자 수가 달랐는지 검증해야 한다. 학과별 남녀 지원자 수와 그에 따른 합격률을 조사해야만 남녀 차별이 있었는지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② 학과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선발했다고 하더라도 학과별 남녀 지원자 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③ 대학원의 전형 기준이 여자보다 남자에게 유리했다는 것은 남녀 차별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④ 대학원 전체 지원자의 남녀 성비로는 <보기>의 주장을 검증할 수 없다.

⑤ 여성의 합격률이 높은 과의 정원이 그렇지 않은 과보다 많았다면 여성의 합격자 수가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남자의 총 합격 비율이 여자보다 높다.

[과학1]

1. 정답 ③

[정답풀이] 1문단에는 크로마토그래피가 광범위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 4문단에는 관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 그 규모를 확장하기 쉽다는 점, 5문단에는 기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 미량의 용질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점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글 전반에서 크로마토그래피의 단점에 대해 서술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크로마토그래피의 개념과 어원이 제시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관 크로마토그래피는 공업 분야에서 대규모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데 사용된다고 언급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5문단에서 기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미량의 용질도 검출할 수 있어, 환경 오염 물질 검출이나 범죄 수사에 사용된다고 언급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크로마토그래피는 고정상과 이동상으로 사용되는 물질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언급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2, 3문단에서 이동상에 함유된 각각의 용질이 고정상과

상이한 진화력을 가지고 있어 분배 계수가 달라지고 이를 활용해 혼합 용질을 분리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2]

1. 정답 ②

[정답풀이] 0단계 정사각형의 넓이가 1이라고 할 때 (가)의 n단계의 넓이는 $(8/9)^n$ 이 되며 이의 극한값을 구하면 0이 된다. (나)의 경우에도 n단계의 부피 $(20/27)^n$ 의 극한값은 0이 되므로 두 도형의 n단계 넓이와 부피의 극한값이 무한이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시어핀스키 카펫과 멍거 스펀지는 모두 동일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반복되어 형성된다. 따라서 자기 유사성의 반복이라는 프랙탈의 핵심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0단계에서 1개였던 정사각형의 수는 1단계에서는 8개, 2단계에서는 64개가 된다. (나)에서는 0단계에서 1개였던 정육면체의 수는 1단계에서는 20개, 2단계에서는 400개가 된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므로 단계가 거듭될수록 각각의 도형의 수가 많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3단계의 넓이는 $(8/9)^3 \approx 0.7$ 로 1보다 작으며, (나)의 3단계의 부피는 $(20/27)^3 \approx 0.4$ 로 역시 1보다 작다. (가)와 (나) 모두 단계가 거듭될수록 가운데 도형을 지우는 과정이 반복되므로 넓이나 부피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⑤ 1단계 멍거 스펀지는 0단계 정육면체의 각 모서리를 3등분하여 27개의 작은 정육면체로 나누고 가운데 부분에 있는 7개의 정육면체를 제거하여 만들어진다.

2. 정답 ②

[정답풀이] 한 변의 길이가 이전 단계의 1/3로 줄어든 도형에 대한 측정은, 줄어든 한 변의 길이가 최소 단위의 크기를 가진다면 가능하다. 즉 현실에서 측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길이가 줄어든 도형에 대한 측정은 가능하다.

[오답풀이] ① ⑦은 수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n단계의 극한값을 구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다.

③ <보기>에서 무한의 세계를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역설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⑦에 나타난 역설은 이러한 적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는 μm 의 예를 들어 측정 가능한 최소 단위로 나누어진다면, 유한한 값을 가진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⑤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분할되는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어야 둘레의 길이가 무한이 될 수 있으므로, 이것이 ⑦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과학3]

1. 정답 ⑤

[정답풀이] 소리는 음원으로부터 공기의 압력 변화가 청각 기관까지 전달된 것이다. 일반적인 ‘소리의 전달 과정’에서는 공기 입자(전달 매체)가 음원과 청각 기관 사이에 항상 존재한다. (나)의 ㉠과 ㉡가 좌우로 왕복 운동을 하는 것은 매달린 진자가 5개뿐이라서 ㉠나 ㉡가 힘을 전달할 진자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자 ㉠과 진자 ㉡의 왕복 운동을 하는 모습을 통해 ‘소리가 음원 주변에 있는 물체에 반사되면서 전달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② (가)와 같은 ‘휴대 전화’의 경우, 전화가

왔을 때 진동을 하며 떨지만 결국 제자리에 놓여 있고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휴대 전화가 진동하는 모습(상황)을 ‘소리의 전달 과정’과 관련지어 보면, 공기 입자의 제자리 운동, 즉 진동하는 모습과 대응될 수 있다.

③ (나)의 ㉠은 진자 ㉡에 힘을 가해 진동을 발생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가 ㉡를 때림으로써 진동과 파동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음원으로부터 압력의 변화가 생기는 순간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④ (나)의 ㉢~㉤는 공기 입자 각각이 진동을 하며 주변의 입자로 힘을 전달하는 파동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 제 위치에 머물러 있으면서 횡만 ㉥로 전달하는 모습은, 각각의 공기 입자가 제 위치에서 멈추어 있는 상태로 (진동을 통해) 에너지만을 전달하는 과정, 즉 파동의 모습과 대응될 수 있다.

[과학4]

1. 정답 ②

[정답풀이] <보기>의 설명에 따라 각각의 경우 B국이 A국을 폭격할 수 있는 일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B국 \ A국	북쪽 항로	남쪽 항로
북쪽 항로	2	2
남쪽 항로	1	3

이 글에 따르면 각 진영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A국이 북쪽 항로를 선택했을 때 B국의 전략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보수는 (-2, -1)이며, 이 중 최소는 -2이다. A국이 남쪽 항로를 선택했을 때 B국의 전략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보수는 (-2, -3)이며, 이 중 최소는 -3이다. 따라서 A국이 최악의 경우 중 최선의 경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북쪽 항로를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기>에서 A국이 B국과 만날 때의 손실만큼 B국은 이익을 얻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위 정답 풀이에 제시된 표에 따르면 A국이 북쪽 항로를 택하면 1일이나 2일의 폭격을, 남쪽 항로를 택하면 2일이나 3일의 폭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쪽을 선택하든 2일간 폭격을 받을 수 있다.

③ B국이 북쪽 항로를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수는 (2, 2)이며, 이 중 최소는 2이다. 또한 B국이 남쪽 항로를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수는 (1, 3)이며, 이 중 최소는 1이다. B국은 최대최소항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2일을 폭격할 수 있는 북쪽 항로를 선택하게 된다.

④ 위 정답 풀이에 제시된 표에 따르면 B국이 북쪽 항로를 선택했을 때 A국이 선택한 전략에 따른 보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2이므로 적절하다.

⑤ 이 글에서 설명한 제로섬 게임은 보수 행렬에서 구성 성분의 합이 0이 되는 경우이다. <보기>에서 B국의 폭격 성공으로 인한 이익은 A국의 손실이 되므로 보수 행렬을 구성하는 두 성분의 합은 0이 된다. 따라서 <보기>의 상황은 제로섬 게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정답 ⑤

[정답풀이] A가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전략을 선택하려면 -2의 보수를 피해야 하므로 선행 학습을 해야 한다. 또한 B가 최고의 이익을 얻는 전략을 선택하면 1의 보수를 얻어야 하므로 선행 학습을 해야 한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선행 학습을 하게 되므로 A와 B 모두 -1의 보수를 얻게 된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한쪽의 이익과 상대방의 손실의 합이 0이 될 때를 제로섬 게임,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제로섬 게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A, B의 보수가 (-1, -1)이어서 그 합은 -2가 되므로 비제로섬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③ <보기>에서 선행 학습을 한 경우는 선행 학습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1의 보수를 받고, 선행 학습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선행 학습을 한 사람에 대해 -2의 보수를 받는다고 하였다.

④ 마지막 문단을 참고할 때 A, B 모두 선행 학습을 하면 모두 -1의 보수를, 둘 중 한 명만 선행 학습을 하면 1 또는 -2의 보수를 받는다. 모두 선행 학습을 하지 않으면 둘 다 0의 보수를 받는다. 따라서 둘의 최선의 선택은 협력하여 선행 학습을 하지 않는 것이다.

[과학5]

1. 정답 ⑤

[정답풀이]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정도를 함숫값으로 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므로 함숫값이 0인 지점에서는 용수철 구성 입자가 움직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림 (b)에서 찾으면, 선밀도가 가장 큰 부분과 가장 작은 부분에 해당한다.

2. 정답 ⑤

[정답풀이] 4문단에서 ‘음파를 공기 입자의 밀도(또는 압력)나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정도를 파동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문의 그림 (b)와 (c)를 참고하여 <보기>의 파동의 세로축을 압력으로 바꾸어 파동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압력을 함숫값으로 하는 그래프에서 함숫값이 0인 곳은 변위를 함숫값으로 하는 그래프에서 함숫값이 가장 작은 곳과 가장 큰 곳에 해당하는 지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0.5m인 지점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서 음파의 파동 함수 그래프를 보면서, 공기 입자가 곡선을 따라서 위아래로 진동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로축은 공기 입자들이 위아래로 이동한 거리라고 볼 수 없다.

② <보기>의 파동 함수 그래프로 볼 때, ‘소’한 곳에서 ‘밀’한 곳으로 바뀌는 지점에서 변위가 가장 크다.

③ <보기>의 파동 진행 방향으로 볼 때, ‘밀’한 곳을 중심으로 앞뒤로 공기 입자들이 가까워져 가는 모양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④ <보기>의 파동은 종파인데, ④는 횡파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과학6]

1. 정답 ③

[정답풀이] ㉔는 ‘느린 빛’을 나타낸 것으로, 이것은 3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매질인 루비덤을 쏘는 원래 빛에 또 다른 강한 빛을 추가하면 루비덤과 또 다른 강한 빛이 상호 간섭 효과를 일으킴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원래 빛과 루비덤의 상호 간섭 효과를 통해 빛의 속도가 느려진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㉔는 우리 눈에 보이는 보통의 빛을 나타낸 것으로, 이것은 ‘전자기 유도 투과’의 원리를 이용하여 빛의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루비덤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문단의 그래프를 보면 다른 파장의 빛은 거의 흡

수하지 않고 780nm 주위에서만 빛을 흡수하는 일반적인 루비덤에서 나타난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② ㉔는 ㉔와 같은 보통의 빛을 ‘전자기 유도 투과’의 원리를 이용하여 속도를 늦춘 것으로, ‘느린 빛’을 나타낸다. 3문단에서 파장에 따른 빛의 흡수를 그래프가 두 개의 날카로운 봉우리 모양으로 바뀌면, 그래프의 선폭이 좁아지고 군속도가 매우 느려진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원래 수 km에 달하던 펄스가 빛의 속도가 느려져 수 mm가 되면 정보가 압축되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④ 3문단에서 일반적인 루비덤은 다른 파장의 빛을 거의 흡수하지 않고 780nm 주위에서만 빛을 흡수하는데, 원래 빛에 또 다른 강한 빛을 추가하면 반대로 780nm만 흡수하지 않는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루비덤에서의 보통의 빛을 나타내는 ㉔와 달리 ㉔는 ‘전자기 유도 투과’를 이용하여 780nm만 흡수하지 않고 투과되어 ‘느린 빛’이 된 상태를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⑤ ㉔는 ‘느린 빛’을 나타낸 것으로, 이것은 3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루비덤에 ‘전자기 유도 투과’를 이용하여 빛의 속도를 늦춘 것이다. ㉔와 달리 ㉔는 다른 파장의 빛은 거의 흡수하지 않고 780nm 주위에서만 빛을 흡수하는 일반적인 루비덤에서 나타나는 보통의 빛을 나타내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2. 정답 ④

[정답풀이] ㉔의 ㉔는 ‘느린 빛’ 상태에서 제어 빛을 끄면 조사 빛이 뒤늦게 루비덤 전자에 흡수되는 것을 보여 주고, ㉔는 조사 빛이 흡수되어 정보의 형태가 스핀으로 바뀐 상태를 보여 주는데 ‘멈춘 빛’을 나타내며, ㉔는 다시 제어 빛을 쏘면 전자의 스핀에 저장되어 있던 펄스가 튀어나와 다시 펄스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 준다. 5문단에서 아직까지는 펄스에서 전자 스핀으로, 전자의 스핀에서 펄스로 돌아오는 빛의 정보 재현율이 10% 내외로 턱없이 낮다고 하였으며, 전자 스핀의 보존 시간에 물리적 한계가 있어 저장 시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㉔에 저장된 정보가 ㉔에서 재생되는 비율이 높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5문단에서, ‘멈춘 빛’을 만들기 위해 ‘느린 빛’ 상태에서 제어빛을 끄면 조사 빛이 뒤늦게 루비덤 전자에 흡수되어 펄스가 사라지고 정보의 형태가 스핀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② ㉔는 조사 빛이 흡수되어 정보의 형태가 스핀으로 바뀐 ‘멈춘 빛’ 상태를 나타낸다. 5문단에서, 조사 빛이 뒤늦게 루비덤 전자에 흡수될 때 루비덤 전자의 에너지 흡수 경로가 일반적인 루비덤에서와 달리 ㉔번에서 ㉔번을 거쳐 ㉔번에 안착하여 ㉔번과 ㉔번 사이에 새로운 굴절률이 생김으로써 스핀이 만들어진 것이라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㉔는 ‘멈춘 빛’에 다시 제어 빛을 쏘아 전자의 스핀에 저장되어 있던 펄스가 튀어나와 다시 펄스로 돌아오는 재생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4문단에서 빛을 멈추어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기 위해 EIT의 원리를 한번 더 응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5문단에서, ‘느린 빛’ 상태에서 제어 빛을 끄면 조사 빛이 루비덤 전자에 흡수되어 정보의 형태가 펄스에서 스핀으로 바뀌면서 ‘멈춘 빛’이 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제어 빛을 쏘면 펄스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기술1]

1. 정답 ③

[정답풀이] 기본적으로 랭킨 사이클은 작동 유체가 펌프, 증발기, 터빈, 응축기를 순환하면서 흡열과 방열이 반복되므로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이 반복됨을 알 수 있다. 유기 랭킨 사이클 역시 작동 유체만 다를 뿐 기존의 랭킨 사이클과 같은 원리로 작동하므로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이 반복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유기 랭킨 사이클은 저온 열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량이 일반적인 랭킨 사이클에 비해 적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4문단과 5문단의 내용을 보면 열원으로 태양열이나 지열 등의 대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의 사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유기 랭킨 사이클의 작동 유체는 물은 사용하지 않고, 저온에서 기화되기 때문에 끓는점이 낮아야 한다고 했으므로 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기체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④ 5문단의 첫 문장을 보면 유기 랭킨 사이클은 기존의 고온열 사이클과의 병합 운전을 통해 기존 시스템의 에너지 변환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유지 관리 비용이 고온의 열원을 사용하는 시스템, 즉 일반적인 랭킨 사이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함을 알 수 있다.

2. 정답 ②

[정답풀이] 증립 증인 (나)가 대류를 억제해 소금물 증인 (다)의 온도 상승을 유도하기는 하지만 태양 연못에 저장된 물, 즉 (가), (나), (다)는 태양 연못 발전 시스템의 열원 역할을 하거나 방열 과정을 돕는 기능을 할 뿐, 그 자체가 작동 유체는 아니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는 35℃ 정도의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고, 발전 시스템에서 방열 기능을 하는 응축기가 놓여 있는 공간이므로 과열된 증기의 열을 빼앗아 작동 유체의 온도를 낮춰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다)의 온도는 100℃ 정도로 열원의 온도가 중저온(70~400℃)에 해당하므로 태양 연못 발전 시스템은 중저온 열원을 사용하는 유기 랭킨 사이클로 작동됨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의 내용을 보면 랭킨 사이클에서 열원과의 열교환을 통해 증발기에서 액체에서 기체로의 상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으므로, ㉠과 ㉡ 사이의 작동 유체는 액체 상태이고, 증발기를 통과한 ㉢과 ㉣ 사이의 작동 유체는 기체 상태이므로 상(相)이 서로 다를 수 있다.

⑤ 2문단의 내용을 보면 터빈에서 팽창 과정을 통해 열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됨을 알 수 있다.

[기술2]

1. 정답 ③

[정답풀이] 4문단에 따르면, 극좌표계의 트랙은 특정 홍채 영역과 홍채 중심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척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트랙에 해당하는 수치가 크면 홍채 중

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해밍 거리는 등록된 홍채 코드와 추출된 홍채 코드 사이의 일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나)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서, 홍채 패턴을 추출할 때 눈꺼풀과 속눈썹이 배제된 홍채 영상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가)에서는(라)와 같은 홍채 코드를 추출할 수 없다.

② 4문단에서, 전체 홍채 영역은 홍채 중심과의 거리에 따라 8개의 트랙으로 구분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극좌표계는 최대 2,048개의 표준화된 홍채 구역으로 구획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홍채 코드의 변화는 특정 홍채 구역의 흑백 명암 단계가 임계치를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진수 0과 1로 변환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2. 정답 ④

[정답풀이] 홍채 영역을 극좌표계로 표시하게 되면, 홍채의 전체 영역을 홍채 중심과 이루는 각도 및 홍채 중심과의 거리에 따라 표준화된 2,048개의 홍채 영역으로 구획할 수 있고, 각각의 구획에 0과 1의 이진수를 넣어 홍채 코드로 추출한다. 따라서 이처럼 표준화된 구획이 설정되면 다른 대상과의 매칭이 용이해진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홍채 패턴을 흑백 명암 단계로 나타내는 것은 ㉠의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② 홍채 영역을 극좌표계로 표시하는 것은 등록된 홍채 코드와 추출된 홍채 코드의 매칭을 위한 것이지 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③ 홍채 영역을 침범한 눈꺼풀과 속눈썹은 흑백 명암 단계의 차이를 확인한 후 해당 부분을 배제하게 되는데, 이는 ㉠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⑤ 홍채 영역을 극좌표계로 표시하는 것은 홍채 영역을 세분화하여 홍채 코드 매칭에 활용하기 위해 세분화한 것이지 홍채 영역을 확대한 것은 아니다. 또 홍채 코드 매칭의 성공률은 해밍 거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홍채 영역의 극좌표계 표시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기술3]

1. 정답 ②

[정답풀이] ㄱ: A는 구형이고 매질의 굴절률보다 크기 때문에 광집계로 포획할 수 있는 물체이다. 2문단에서 물체의 중심이 f에 이르게 되면 레이저가 물체에 입사하더라도 굴절되지 않는다고 했다. A가 포획됐다는 것은 A의 중심이 f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이므로 A에 입사하는 레이저의 진행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ㄴ: C의 굴절률이 매질의 굴절률보다 작다. 3문단에서 매질의 굴절률이 물체의 굴절률보다 크면 f의 반대 방향으로 운동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체를 포획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C의 중심 역시 수직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다.

[오답풀이] ㄴ: B는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물체 내부에 초점을 만들 수가 없다. 3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광집계가 물체를 포획하려면 물체 내부에 초점을 만들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B는 매질의 굴절률을 작게 만들어도 광집계로 포획할 수 없다. ㄷ: 3문단에서 물체의 굴절률이 매질의 굴절률보다 작으면 물체를 포획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C의 굴절률이 매질의 굴절률보다 작기 때문에 C의 뾰족한 부분을 위로 가게 해도 C를 포획할 수 없다.

2. 정답 ①

[정답풀이] 펄토초 레이저는 세포에 구멍을 뚫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에 유전자를 넣을 때 펄토초 레이저를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①에서 펄토초 레이저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레이저가 짧은 시간 동안 세포에 에너지를 전달해 열로 인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작은 구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③ ①에서는 유전자를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에 쏘운 후에 광집계를 이용하여 세포 안에 주입한다. 기존의 유전자 주입방식에서는 원하는 유전자를 입힌 입자를 총을 쏘듯이 임의의 세포에 고속으로 충돌시킨다. 따라서 두 방식 모두 유전자를 입자에 쏘운 후에 입자를 세포 안에 주입한다.

④ ①에서는 유전자를 주입할 세포를 슬라이드에 붙인다. 슬라이드에 세포가 평평하게 붙어 있을 것 같지만 세포의 표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프로브를 사용하여 레이저를 쏘 부분의 높이를 정확히 탐지한다.

⑤ ①은 단일 세포의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고, 전달할 유전 물질의 양과 전달 시간 및 주입 위치를 정교히 조절할 수 있다.

3. 정답 ②

[정답풀이] 수소 분자보다 크기가 큰 분자라고 하더라도 분자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차원 분광법’을 사용해야 한다. 즉, 적어도 3면 이상의 방향에서 펄토초 레이저를 사용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펄토초 레이저는 플래시 역할을 하는 레이저 펄스를 분자에 쏘아 분자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펄토초 레이저가 여러 방향에서 분자를 쏘아 주었기 때문에 수소 분자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④ 펄토초 레이저로 분자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펄스를 분자에 쏘아 후 빛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모양을 측정해야 한다.

⑤ 셋째 문단에서, 펄토초 레이저를 추가로 설치하여 여러 방향에서 쏘아 주면 이전보다 더욱 정확한 분자의 구조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4. 정답 ④

[정답풀이] 펄토초 레이저 기술이 화학, 생물학 등의 과학 현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이유는 이 기술로 인해 해당 학문 분야의 현상을 이해하는 기본 단위인 분자의 움직임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펄토초 레이저 기술은 과학 현상을 연구하는 데 활용되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여기서 경제적 부가 가치는 이 기술의 활용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두고 화학, 생물학 등에 나타나는 과학적 현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이유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펄토초 레이저 기술이 분자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분자의 구성 요소를 성분별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펄토초 레이저 기술은 빛의 반사와 산란 현상을 활용하여 과학적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다.

⑤ 펄토초 레이저 기술이 여러 학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학적 현상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4]

1. 정답 ①

[정답풀이] 주파수가 높아지면 0폰 정도의 지각을 일으키기 위한 소리의 음압 레벨은 점차 감소하지만, 2,000~4,000Hz에서는 1,000Hz에 비해 오히려 음압 레벨이 낮아지기도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오답풀이] ② 1문단에서 가청 한계를 20~20,000Hz 주파수 대역의 120dB 이하의 소리로 제시하였는데, 그래프에서도 20Hz 미만에 대해서는 인간이 지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③ 음압 레벨이 20dB인 100Hz 이하의 순음은 가청 곡선 이하이므로 지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음압 레벨이 약 73dB 이상일 경우 <그림>의 가청 한계 내에서 모두 청각 반응 영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그림>은 1,000Hz의 순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어떤 순음의 주파수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인간의 지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정답 ②

[정답풀이] 대체로 20~4,000Hz의 주파수에서는 음압 레벨이 높을수록 라우드니스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상의 경우는 다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음압 레벨이나 주파수는 라우드니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70폰을 표시하는 등가청 곡선을 따를 경우 10,000Hz의 소리보다 1,000Hz의 소리에서 상대적으로 음압 레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③ 100Hz 이하에서 라우드니스가 동일할 경우 주파수가 낮을수록 음압 레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④ 4,000Hz 내외에서 동일한 라우드니스의 음압 레벨이 가장 낮은 수준이므로, 가청 한계 내에서 음압 레벨이 동일하다면 4,000Hz 내외의 순음이 가장 큰 소리로 지각될 것이다.

⑤ 20Hz 소리의 라우드니스 간격이 200Hz 소리의 라우드니스 간격보다 좁게 나타나 있으므로, 동일한 정도의 음압 변화라도 20Hz 소리의 음압 변화가 더 큰 라우드니스의 변화로 지각될 것이다.

[기술5]

1. 정답 ③

[정답풀이] 허프만 부호화의 효율은 잔여 성분을 통해 검사할 수 있다. 잔여 성분은 부호의 평균 길이인 1.7에서 엔트로피값인 1.6855를 뺀 값이므로 이를 통해 허프만 부호화의 효율을 검사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고정 길이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 4개의 기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2개의 비트가 필요하다. 허프

만 부호화를 했을 때 평균 길이가 1.7이므로 고정 길이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평균 길이가 더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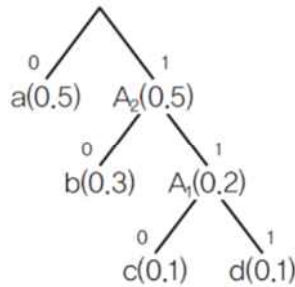
② 기호가 나타날 확률이 같다고 해서 같은 부호를 할당하면 기호들 간의 구분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같은 부호를 할당받게 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④ 고정 길이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 4개의 기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소 2개의 비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1개의 비트로 나타낼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⑤ 엔트로피값인 1.6855는 평균 길이의 이론적 최소치이므로 부호의 평균 길이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2. 정답 ④

[정답풀이] 이 글 4~6문단의 내용을 적용하면 <보기>의 설명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트리 형태의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글에서 사용한 방식으로 부호를 할당해 주면 $a=0$, $b=10$, $c=110$, $d=111$ 이 된다.



[기술6]

1. 정답 ⑤

[정답풀이] (나)의 2문단에서 인터넷을 통한 지식 습득은 단지 정보의 유통일 뿐인데도 우리가 마치 지각 작용처럼 의심 없이 그 지식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정보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사유하고 창조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지식의 습득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또한 <보기>에서는 디지털 지식에 '순환 논증의 오류'가 존재한다고 보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자 할 때를 예로 들었다. 전제와 결론이 순환적으로 서로의 논거가 되는 '순환 논증의 오류'를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행위와 관련시켜 보면, 우리는 인터넷 검색에서 얻은 정보를 창조적으로 파악하여 사유하지 않고 그대로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데, 얻은 정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시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여 관련 지식을 얻고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검색 엔진 ○○를 통해 온라인 백과사전 △△에서 정보를 얻고, 얻은 정보를 뒷받침하는 정보를 다시 검색 엔진 ○○와 온라인 백과사전 △△에 의존하는 것은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나) 2문단의 인터넷 검색에서 얻은 정보를 창조적으로 파악하여 사유하지 않고 그대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와 관련하여 전제와 결론이 순환적으로 서로의 논거가 되는 '순환 논증의 오류'를 생각해 보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를 믿고 그 정보와 관련하여 뒷받침하는 또 다른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시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여 관련 지식을 얻어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② (나)의 2문단을 보면, 인터넷 검색에서 얻은 정보를 창조적으로 파악하여 사유하지 않고 그대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프라인 백과사전에서 정보를 얻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또 이를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와 종합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순환 논증의 오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③ (나)의 2문단을 보면, 인터넷 검색에서 얻은 정보를 창조적으로 파악하여 사유하지 않고 그대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용자가 정보를 수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 2문단의 인터넷을 통한 지식 습득과 관련하여 <보기>의 전제와 결론이 순환적으로 서로의 논거가 되는 '순환 논증의 오류'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검색 엔진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며 또 그 정보를 선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2. 정답 ④

[정답풀이] (가)의 1문단에서 사물 인터넷은 인간을 포함한 사물 간의 지능 통신임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뇌와 연결되어 생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가)의 2문단에서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응용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획득하고 공유할 수 있을지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물 인터넷은 인간의 뇌와 연결되어 생각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며, 또 말을 통해 나타나게 한 것이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2문단에서 사물 인터넷은 서로 다른 영역의 사물 간에 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를 스토리텔링 사례에서 살펴보면, A 씨가 거울을 보며 "모자."라고 말하면 거울이 여러 가지 스타일의 모자들을 비춰 주고, A 씨가 중절모를 가리키자 거울이 다시 중절모를 쓴 A 씨의 모습을 보여 주어 결국 A 씨가 이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A 씨가 중절모를 선택한 것은 거울과 A 씨의 협업을 통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가)의 1문단에서 사물 인터넷은 사물이 단순히 연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사물들이 인간에게 지식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간의 명시적 개입 없이도 정보를 생성, 수집, 공유,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하였으므로 정보를 수집한 스마트폰이 A 씨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의 3문단에서 사물 인터넷은 네트워크, 단말 및 센서, 플랫폼과 서비스 등 구성 요소에 대한 해킹 및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 만약 누군가 차에 전달되는 정보를 조작해 사고 다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속도를 줄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 정보가 빠져나간 경로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요소를 고려할 때, 커넥티드 자동차에 전달되는 정보가 조작되어 차선 감지 장치나 충돌 방지 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⑤ (가)의 2문단에서 사물 인터넷은 서로 다른 영역의 사물 간에 협업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플랫폼에 연결되는 등 개방형으로 운용된다고 하였다. 이를 스토리텔링 사례에서 살펴보면, 창문을 통해 찍은 사진을 편집하여 개방형 SNS에 올릴 뿐만 아니라 창문에 지도와 운행 정보가 나타나고 인천항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문을 통해 이뤄지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볼 때, 서로 다른 영역의 사물들이 다양한 플랫폼에 연결되어 개방형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정답 ②

[정답풀이] (나)의 글쓴이는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면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지식 습득 방식이 인간의 사유 능력을 방해하며 자동적으로 정보를 얻는 데 익숙해지면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한다고 보고, 사물 인터넷에 의해 지식이 네트워크화된 상황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되, 인간이 강력한 인식 주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모길 정체를 고려하여 기상 시간을 생각할 필요도,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나 소요 시간 등을 고민할 필요도, 도로 상황을 주시하며 직접 운전을 할 필요도 없이 사물 인터넷의 편리함을 누리는 A 씨에게 (나)의 글쓴이는 인간의 사고를 취약하게 만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나)의 3문단에서 글쓴이는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면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상대방에게 합리적 근거를 요구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공통 플랫폼으로 활용하되, 인간 인터넷에서는 인간이 강력한 인식 주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있지만 A 씨가 누리는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부정하고 있는 양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글쓴이는 1문단에서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미래가 ‘인간 인터넷’, ‘뉴로 미디어’의 세계라 보고, 3문단에서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면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글쓴이는 ‘뉴로 미디어’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며, 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A 씨가 누리고 있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 인간의 생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나)의 글쓴이는 2, 3문단에서, 사물 인터넷에 의해 지식이 네트워크화된 상황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되, 인간이 강력한 인식 주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물 인터넷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글쓴이가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A 씨의 사례에도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의 3문단에서 글쓴이는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면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사물 인터넷에 의해 지식이 네트워크화된 상황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되, 인간이 강력한 인식 주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글쓴이가 사물 인터넷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A 씨를 보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술1]

1. 정답 ⑤

[정답풀이] 바쟁은 영화감독 윌리엄 와일러가 편집에서의 개입을 줄이고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고자 한 시도에 대하여 관객 스스로 관찰하고 선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며 높이 평가하였으므로, (나)

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배우의 연기도 마찬가지로 관객이 스스로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고 높이 평가하였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바쟁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것을 추구하였으므로 과도하고 과장된 연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선호했을 것이다.

② 바쟁은 영화가 의미를 강제로 부여함으로써 의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였다. 따라서 (가)에서 강한 명암 대비를 나타내는 조명을 통해 초현실적이고 불안한 기운을 표현한 점을 관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③ 바쟁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 자의적 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하였다. (가)의 비현실적으로 왜곡된 세트는 이러한 특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을 것이다.

④ 바쟁은 롱 샷이나 장시간 촬영 등의 기법을 장려하면서 현실적인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인물들의 자취를 따르는 카메라의 움직임은 이러한 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술2]

1. 정답 ②

[정답풀이] [A]와 [B] 모두 인간 내면의 예술 의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와 달리 [A]는 인간 내면의 예술 의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는 추상 충동에 따른 그림이고, [B]는 감정 이입 충동에 따른 그림이다.

③, ④ 이 글의 설명에 의하면, 추상 충동에서는 자신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고유의 감정이 순수하게 선과 형태, 색채 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외계의 사물을 눈에 ‘보이는 대로’ 묘사하는 것에서 벗어난다.

⑤ [B]는 감정 이입 충동에 의한 그림인데, 감정 이입 충동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친화 관계를 맺게 될 때 나타난다.

[예술3]

1. 정답 ②

[정답풀이] 뫼베는 삶과 유리된 예술의 자폐적 공간을 허물고 미적 경험의 영역을 일상적 삶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을 ‘확장된 미학’ 혹은 ‘확장된 예술 개념’이라고 정리한다.

[오답풀이] ① ‘사이렌’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소리에 해당한다. 바레즈는 악기가 아니라 사이렌으로 음악을 표현한 것이므로, 음악을 일상적인 소리와 대립시킴으로써 정체성을 확보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삶의 탈감성화를 유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

③ 뫼베는 예술이나 예술 작품이 일상적인 맥락에서 분리되는 것을 비난하였는데, <보기>의 바레즈의 음악은 일상적인 맥락에서 분리되지 않은 음악에 해당한다.

④ 뫼베는 예술적 경험이나 미적 경험과 일상적인 삶을 구분하는 것을 비판하였는데, <보기>의 바레즈의 음악은 예술과 삶의 구분을 끊어 내려는 것에 해당한다. 바레즈의 음악이 음악과 일상적인 소리를 구분하려는 노력에 따른 것은 아니다.

⑤ 뒤편에 따르면 미적 감성 혹은 경험은 대상에서 얻어지는 고유한 분위기를 느낌으로써 오는 것이다.

[예술4]

1. 정답 ③

[정답풀이] ‘아카데미 메디컬 센터’는 ‘공간의 통합’ 형태에 해당하고, 여기서 전이 공간은 전체 공간에서 부분 공간에 해당하는 실내 광장이다. 사방 건물의 벽면과 실내 광장을 연결하는 곳에서 전이 공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천장을 개방한 것은 경계 영역이 없는 것, 개방된 것이므로 ‘아카데미 메디컬 센터’의 실내 광장은 미완결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② ‘아카데미 메디컬 센터’는 공간의 형태로 보았을 때, ‘공간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사방 건물의 벽면이 공간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연출하였고, 전체의 공간 안에 실내 광장을 마련하여 전이 공간을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④ ‘아카데미 메디컬 센터’의 실내 광장은 사방 건물의 벽면이 둘러싸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건물을 외부에서만 본 사람이 건물 내부에 있는 실내 광장을 체험하게 되면, 외부 공간과 다른 성격의 내부 공간을 발견하고 심리적 전환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아카데미 메디컬 센터’의 실내 광장에 나무를 심고 가로등을 설치한 것은 건물의 내부이지만 외부 공간 같은 느낌을 주도록 한 것이다. 이는 건물의 공간을 통해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술5]

1. 정답 ①

[정답풀이] 눈송이처럼 떨어지는 영문 알파벳은 실제 현실에 있는 사물이 스크린에 투영된 이미지가 아니라 스크린에만 존재하는 이미지이다. 그러므로 이를 실제의 가상화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4문단에서 운동 감각은 인간의 신체가 가상의 공간에서 운동하면서 인지하는 감각으로 시각, 촉각 등 공간 인지 감각이 모두 동원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손으로 만든 오목한 그릇모양에 떨어지는 눈송이의 무게를 느끼는 것은 가상과 실제사이의 운동 감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디지털 미디어 예술은 관람자로 하여금 자신이 서 있는 장소를 잊게 만들고 가상 현실을 경험하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서로 다른 감각들이 통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관객들의 몰입도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관객들이 눈으로 보는 알파벳을 몸으로 느끼는 것은 시각과 촉각이 통합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디지털 미디어 예술 작품은 관객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의 변형을 이루어 내면서 비로소 완성의 형태를 갖추어 가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예술6]

1. 정답 ⑤

[정답풀이] 후두엽에는 시각 피질이 있기 때문에 후두엽이 손상된 사람은 색깔과 공간에 대한 정보 모두 인식하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5문단에서 시각계는 운동계와 연결되어 반응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② 5문단에서 시각 정보는 측두엽에서 처리된 청각 정보나 두정엽에서 처리된 체감각 정보 등과도 통합되어 하나의 표상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③ 5문단에서 복측 경로는 사물의 색깔과 형태에 대한 정보를 주로 처리한다고 하였다.

④ 5문단에서 시각계는 입력된 빛을 있는 그대로 출력하는 디지털카메라와는 달리 뇌의 사고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6문단에서 우리의 뇌는 입력된 많은 자극 중 의미 있는 고차적 메시지들을 분류한다고 하였다.

2. 정답 ④

[정답풀이] 두 개의 쏫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몽타주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라)는 스토리 진행과 관련 없는 쏫이 아니라 스토리 진행을 위한 쏫이다.

[오답풀이] 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볼 때 사람들은 시선 방향에 대한 시각 의문을 형성하고, 예측을 하게 된다.

② (가)에서 인물의 시선에 대한 시각 의문이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인물의 시선이 향해 있는 곳을 가리키는 쏫, 즉 시각 의문에 대한 답을 주는 쏫이 된다.

③ (나)는 빵을 가까이서 잡은 쏫이고, (다)는 인물과 빵이 모두 나올 수 있도록 멀리서 잡은 쏫이다. 3문단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거리에서 잡은 쏫들을 연결하여 화면을 단조롭지 않게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가)~(라)는 편집된 화면으로, 3문단에서 스토리 진행을 위해 연결된 쏫들에 대해 관객들은 연속된 것처럼 인식한다고 하였다.

3. 정답 ④

[정답풀이] 1문단에 제시된 사례를 보면 장면과 장면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관객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읽히고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콜레쇼프는 몽타주가 장면과 장면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생각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4. 정답 ②

[정답풀이] 멘세비키의 연설 장면과 하프 연주 장면 사이에 시간적 비약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관객이 두 장면 사이의 생략된 어떤 사건을 추론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장면은 이미지 연상적 사고에 의해 ‘멘세비키가 달콤한 연설을 하고 있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 설명한 비논리적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두 장면을 병치함으로써 각 장면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멘세비키가 달콤한 연설을 하고 있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려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③ 하프가 연주되는 장면은 하프의 소리 내지 하프를 연주하는 행위가 연상시키는 달콤함이라는 상징적 의미

로 사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두 장면의 병치를 통해 '멘세비키가 달콤한 연설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감독의 의도이지만 관객이 감독이 의도한 바대로 연상을 일으킬 수 있어야 몽타주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일상적인 관점에서는 멘세비키가 연설을 하는 장면과 하프가 연주되는 장면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

5. 정답 ⑤

[정답풀이] 이 글에서 충돌 몽타주의 하나로 설명하는 논리적 구성 방식의 예를 고려해 보았을 때 예이젠시테인도 장면과 장면 사이에 시·공간적인 비약이 있다 해도, 관객이 두 장면의 연결 고리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면 이를 충돌 몽타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푸도프킨은 서로 의미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편집은 관객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상을 잘 보여 주는 필수적인 이미지만을 잘 선택하여 편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런 푸도프킨의 관점에서는 예이젠시테인이 말한 시각적 대위법이 지나치면 관객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푸도프킨은 연결성을 해치지 않는 자연스러운 편집을 중시했고, 예이젠시테인은 장면과 장면의 부자연스러운 병치를 통한 새로운 의미의 창출을 중시했음을 이 글과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푸도프킨은 장면과 장면이 잘 연결되는 연결 몽타주를 중시했다. 그러나 푸도프킨과 달리 예이젠시테인은 장면과 장면의 충돌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는 장면과 장면에서뿐 아니라 한 장면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④ 푸도프킨과 달리 예이젠시테인은 충돌 몽타주 이론을 통해 서로 이질적인 장면들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생기는 이미지의 충돌과 그로 인한 새로운 의미의 창출을 중시했다. 그리고 그는 충돌 몽타주를 활용한 영화를 통해 변증법적으로 변화하는 존재의 본질을 포착해야 한다고 보았다

[예술7]

1. 정답 ④

[정답풀이] 3문단에 의하면 근대 사진은 '사건의 전모가 파악될 수 있다고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현대 사진가들은 결정적 순간이란 사진가가 생각하는 가장 알맞은 순간일 뿐이므로 사진이 반드시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야 한다거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결정적 순간이 사진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 생각에 충실한 사진가일수록 사진이 반드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전모를 드러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3문단으로 보아, 사진이 사진가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은 현대 사진에 해당한다. 4문단에서 현대 사진은 '이미지 형성에 필요한 셔터 속도를 각자 설정'하여 '떨림을 의식하고 이를 독자적 이미지로 승화'하기 위한 시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진이 사

진가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는 것은 현대 사진의 입장을 가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기>의 흔들린 사진을 통해 전쟁의 불안감, 공포감을 드러내려고 했다고도 볼 수 있다.

② 2문단 끝부분에서 근대 사진의 시간성은 현실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생긴 부수적 결과로서의 시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4문단 끝부분에서 '근대 사진에서도 떨린 사진들이 있었지만 이들 사진은 그 떨림을 의식'한 시도라기보다는 '의식하지 못한 우연'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카파가 의도적으로 사진의 흔들림을 연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현실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생긴 부수적 결과'로 볼 수 있다.

③ 2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기록으로서의 사진을 중시하는 사람은 근대 사진의 입장에 해당한다. 1문단 끝부분에서 근대 사진은 대상의 묘사에 치중했다고 설명하고 있고, 4문단에서 근대 사진은 현실을 묘사하기 위한 가장 알맞은 셔터 속도를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흔들림 없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짧은 순간을 담을 수 있는 셔터 속도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⑤ 2문단과 <보기>를 참고할 때, 라이프가 표지 사진에 달았던 설명은 근대 사진 시기에 해당하는 당대의 관행적 인식을 드러낸 것임을 알 수 있다. 1, 4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근대 사진은 대상의 명확한 묘사를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정답 ③

[정답풀이] ㉠은 사진가가 시간을 통제 가능한 시간으로 바꾸어 표현하기 위해 셔터 속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 앞부분의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 형성에 필요한 셔터 속도를 각자 설정'이라는 설명과 뒷부분의 '독자적 이미지로 승화'라는 설명을 참고한다면, ㉡이 내포하는 의미는 시간을 표현하는 기술을 작가가 능동적으로 결정하려는 시도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의 핵심적 내용이다. 그런데 2문단에서 이러한 시간성은 사진의 대상 자체가 가진 시간의 문제이지 사진가의 관찰 방법으로서의 시간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② ㉡의 진술 '통제 불가능한 객관적 실재로서의 시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과 ㉠은 사진을 발표하는 시점과 사진을 찍는 순간의 시간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사진이 시간을 의식하지 않으려 한다거나 시간 바깥에서 창조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문학-현대시]

<수선화, 그 환한 자리>

1. 정답 ③

[정답풀이] '저토록'의 반복은 파리한 줄기 사이로 환한 꽃이 개화되었다는 것에 대한 화자의 경이로움을 드러내므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1연의 '거기'와 2연의 '거기', 4연의 '거기'의 반복은 개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대한 집중과 몰입을 부각하고 있다. ② 1연의 '뜨락 전체가 문득 / 네 서늘한

긴장 위에 놓인다'를 보면 '문득'은 개화 순간의 긴장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연의 '문득 네가 오롯함으로 / 세상 하나가 엄정해지는 시간'을 보면 '문득'은 개화의 오롯함으로 인해 확정한 세상의 엄정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파리한 줄기'와 '환한 꽃'에서의 '파리한'과 '환한'의 대비는 개화의 경이로움을 심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조금만 더'는 '높아야겠다'를 수식함으로써 개화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를 고양해야겠다는 화자의 다짐을 부각하고 있다.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2. 정답 ⑤

[정답풀이] '지금의 네 모습처럼'은 공과 같은 '최선의 꼴'을 가리키는 것으로, 중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공'의 모습, 즉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삶의 자세를 말한다. 따라서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결여된 인간을 나타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공'은 '떨어져도 튀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떨어져야만 튀 수 있어 이 둘은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은 떨어짐의 하강과 튀의 상승이 모두 결합되어 있는 이미지로 볼 수 있다. ② '살아 봐야지'는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 공처럼'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가 공처럼 살아 보자고 다짐 혹은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살아 봐야지'는 공에서 인간의 삶의 자세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③ '공'은 쓰러지지 않고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는데, 이것은 공이 가진 여러 속성 때문이다. '탄력의 나라의 / 왕자'는 공이 갖는 탄력성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다. ④ '공'을 튀어 오를 수 있게 하는 '공'의 속성은 둥글고 가볍고 탄력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공'을 '최선의 꼴'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모양이 중력을 거스르고 튀어 오를 수 있는 이상적인 형태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

3. 정답 ④

[정답풀이] [D]에서 '새로 말하면'은 앞의 내용을 반복하여 시상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화자의 심경이 변화되고 있다고 추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③ [C]에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으나 '그 사람'이 내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⑤ [E]에는 '그 사람'도 설움으로 살았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통해 '그 사람'이 현재 나의 심정에 공감해 주기를 기대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4. 정답 ⑤

[정답풀이] 화자는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 가는 /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나무가 되기를 바란다. 이는 화자가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는 죽음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삶과 죽음의 거리를 극복하여 '그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 화자의 서러움은 삶과 죽음 사이의 절대적 거리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화자의 마음이 담긴 감나무가 제대로 번을 곳은 저승밖에 없다고

하였으므로, 화자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저승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에서 화자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직접 전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 화자는 자신의 마음이 담긴 감나무가 '그 사람'의 등 뒤로 번어 가기를 원하는데, 이는 삶과 죽음 사이의 절대적 거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이 시의 '모름'은 화자의 단순한 무지와 다르다고 하였다. '느껴온 열매가 될는지 몰라!'는 무지의 의미보다는 느껴온 열매가 되는 것 외에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없는 '설움'과 느껴온 열매라도 되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소망'을 모두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 화자는 '그 사람'의 삶과 사랑을 헤아리며, 이러한 헤아림으로 '그 사람'과 교감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열매 빛깔이 자신의 전 설움과 전 소망임을 '그 사람'이 알아내는 것과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자신처럼 설움으로 살았을 것이라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헤아림이라 할 수 있다.

<성북동 비둘기>

5. 정답 ④

[정답풀이] 2연에서 '금방 파낸 돌'은 개발로 인해 채석장에서 깨어진 돌이다. 비둘기가 이 돌의 온기에 기대어 입을 닦는 것은 '진정한 장소'였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지, 채석장을 '진정한 장소'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성북동 비둘기는 자신의 번지가 없어진 공간에서 향수를 느끼며 머물고 있다. <보기>에서 주체가 진정성을 갖고 장소와 관계를 맺는 곳을 '진정한 장소'라고 하였으므로, 비둘기에게 '번지가 새로 생기기 전의 성북동 산은 '진정한 장소'라 할 수 있다. ② '돌 깨는 산울림', '채석장 포성'은 이전까지 비둘기가 '진정한 장소'로 여기던 성북동 산을 파괴하고 도시화와 산업화를 진행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비둘기의 '진정한 장소'를 파괴하는 폭력적인 개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성북동 산에서 번지가 없어진 비둘기는 '성북동 하늘'을 돌거나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 앉아' 향수를 느낀다. 따라서 '성북동 하늘'과 '지붕'은 '진정한 장소'를 상실한 비둘기가 예전을 그리워하며 회회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⑤ 예전에는 비둘기가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평화를 즐겼다고 한다. 이것은 그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공동체성을 느끼던 비둘기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참회록>

6. 정답 ③

[정답풀이] 화자가 '그 어느 즐거운 날' 쓰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 줄의 참회록'에서는 어떤 기쁨도 바라지 못하고 살아왔던 과거의 삶에 대한 현재의 참회를 '부끄러운 고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현실에 안주하며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해 왔던 자신을 반성하는 것으로 감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1연에서 자기 성찰의 매개체로 제시된 '거울'은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왕조의 유물'과 같은 구절로 구체화되면서, 화자의 자기 성찰이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의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② 화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이다지도 욕될까.'라는 탄식을 통해 평가하면서, 성찰의 결과로 확인한 자아에 대한 부

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4연에 제시된 것은 화자가 생각하는 자기 성찰의 태도이다. ‘밤이면 밤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음으로써, 즉 치열하고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전제되어야 3연에 제시된 ‘그 어느 즐거운 날’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⑤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란 4연에 제시된 치열한 자기 성찰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아의 모습을 구체화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3연의 ‘그 어느 즐거운 날’을 위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고독하고 슬픈 희생의 길임을 드러내면서 이를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표명하고 있다.

<선우사(膳友辭) - 함주시초(咸州詩抄) 4>

7. 정답 ⑤

[정답풀이] 윗글의 화자에게서는 가난과 외로움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고독 받고 쓸쓸하게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보기>의 ‘나’에게서는 당당한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8. 정답 ②

[정답풀이] ‘해정한 모래톱’, ‘바람 좋은 한벌판’, ‘외따른 산골’은 ‘가재미’, ‘흰밥’, ‘나’와 대응되는 공간으로, ‘우리들’이 모두 욕심 없이 착하고 정갈하게 자라났음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이는 ‘우리들’의 동질성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므로 ‘우리들’이 서로 이질적인 대상임을 부각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매우 이질적인 대상인 ‘나’와 ‘흰밥’, ‘가재미’는 이 시에서 ‘우리들’이라는 공동체로 설정되어 이들의 관계 역시 동류 관계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③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남은 나조반’에서 ‘쓸쓸한 저녁’을 같이 맞이한다는 유사성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된다. ④ 4연을 보면 ‘우리들’은 욕심이 없이 회고, 착하며 정갈한 대상이라는 유사성이 나타나 있으므로 ‘우리들’은 욕심 없는 마음씨와 착한 심성을 지녔다는 유사성이 있는 친구들로 볼 수 있다. 또한 5연을 보면 화자는 이를 통해 가난과 외로움을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흰 부추꽃으로>

9. 정답 ②

[정답풀이] ‘별빛’은 ‘어둠’과 함께, 해가 저물고 불을 지펴야 하는 밤이 찾아왔음을 나타낸다. 이는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로 인간의 양가적 속성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별빛’이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영원성을 욕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돌아오는 길이 절뚝거린다’의 절뚝거림은, ‘손등이나 다리 어디 찢기고 긁히는 것 같은 삶’에서의 고통과 상처를 의미한다. 따라서 ‘돌아오는 길’은 고통받고 상처 입은 인간의 삶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③ ‘내 삶의 무거운 웅이’는 서툴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은 고통과 상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웅이들도 불길을 타고 /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어’를 보면 화자는 자기 삶의 무거운 ‘웅이’들도 ‘웅이 박힌 나무’와 마찬가지로 타올라 ‘먼지’처럼 날아가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웅이’가 삶의 고통과 상처라면 ‘먼지’는 이

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나타내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불길’은 ‘재’를 남기고 ‘재’는 ‘흰 부추꽃 그 환한 환생’을 이끌고 있으므로, 소멸하게 하는 힘이면서 동시에 생성을 이끌어 내는 힘으로 볼 수 있다. ⑤ ‘흰 부추꽃’은 ‘타오르는 것들’의 소멸을 통해 ‘환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흰 부추꽃’이 소멸을 통한 생성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등근, 어머니의 두레밥상>

10. 정답 ②

[정답풀이] [ㄱ]에는 어린 시절에 둘러앉았던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ㄱ]에는 [ㄴ]에 나타난 상황으로 인해 어린 시절이 회복될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ㄱ]의 1~4행을 보면 ‘두레밥상’의 등근 이미지에서 ‘보름달’로, ‘달’에서 ‘달맞이꽃’, ‘꽃밭’으로 이어지는 의미의 연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연쇄는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인 ‘어머니의 두레밥상’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③ [ㄱ]의 ‘모난 밥상’은 ‘어머니의 등근 두레밥상’과 대조적 의미를 지니며, 세상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ㄴ]의 ‘세상의 밥상’ 역시 ‘어머니의 등근 두레밥상’과 대조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ㄱ]의 ‘모난 밥상’은 [ㄴ]의 ‘세상의 밥상’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ㄱ]은 ‘사랑의 꽃밭’과 같이 ‘두레밥상’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두레밥상’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나타내고 있다. ④ [ㄴ]의 ‘짐승’과 ‘하이에나’는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ㄱ]과 [ㄴ]의 ‘제비 새끼’는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둥글게 둥글게’, ‘지지배배’ 즐겁게 앉아 조화를 이루는 존재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ㄴ]의 ‘짐승’과 ‘하이에나’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보여 주는 소재로, [ㄱ]과 [ㄴ]의 ‘제비 새끼’와는 대조적인 의미를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ㄴ]의 ‘이제는 돌아가’는 [ㄱ]의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 또한 [ㄴ]에는 [ㄴ]의 ‘이전 투구의 아수라장’이면서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의 밥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거울>

11. 정답 ③

[정답풀이]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는 ‘거울’ ‘속’ 주체를 가리킨다. <보기>의 관점에서 ‘거울’ 밖의 주체가 바라보는 ‘거울’ ‘속’ 주체는 본연의 자아 또는 현실의 생계로 고뇌하는 생활인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거울’은 ‘거울속의나’를 만나게 하는 동시에 ‘거울’ 밖의 ‘나’와 단절시키고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② ‘딱한귀’는 현실의 자아 또는 현실의 생계로 고뇌하는 시인으로서의 삶을 지향하는 주체가 본연의 자아 또는 현실의 생계로 고뇌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주체와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각각 분열된 자의식 또는 애상감으로 볼 수 있다. ④ ‘외로워나’는 본연의 자아 또는 현실의 생계로 고뇌하는 생활인인 ‘거울속의나’가 골몰하는 일이다. ⑤ ‘진찰’은 분열되어 있는 ‘거울속의나’에 대해 살피고자 하는 것으로, 자아의 합일을 위한 소통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거룩한 식사>

12. 정답 ②

[정답풀이] 1연의 '그'와 2연의 '노인'은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며 이러한 인물의 모습이 1연과 2연에 병치되어 이들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키는데, '그'와 달리 '노인'은 유년의 기억과 무관하게 묘사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찬밥'과 '더운 목숨'은 촉각적 이미지가 대비되는 관계이다. 이를 통해 가난한 이들의 '먹는 일'이 거룩한 일임을 인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보라'에서는 명령형 종결 어미 '-라'를 사용하여 청자(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눈물겨운가'에서는 의문형 종결 어미 '-는가'를 사용하여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④ '먹는 일의 거룩함'에 감탄을 나타내는 조사 '이여'를 결합하여 '먹는 일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다. ⑤ '울컥'은 '나이 든 남자'의, '쩍'은 '노인'의 먹는 상황을 음성 상징어로 표현한 것이다.

<슬픔이 기쁨에게>

13. 정답 ④

[정답풀이] '너와 함께 건넌다'는 것에서 '함께'는 '너'를 평등하게 대하고 포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3~5행, 7~10행에 나타난 '너'의 행동 방식은 화자가 비판하는 극복해야 할 행동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얼굴'이라는 시어로 '슬픔'을 인격화하면서 '평등'을 강조함으로써 '너'에게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도 평등하게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앞의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의 모습은 이와 반대되는 이기적인 모습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무관심한 너의 사랑'이나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은 7~10행에 나타난 '너'의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이를 통해 '너'는 타인에 대해 관심과 연민이 부족한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③ '추워 떠는 사람들'에게 '함박눈'은 반가운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한겨울을 상징하며 추위를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이를 멈추겠다는 것은 선어말 어미 '-겠-'을 활용하며 의지적으로 표현되었는데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연민에서 우러나온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너'를 각성하게 하면서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13행의 '기다림'은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뒷받침되어 '너'가 얻게 될 각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당연히 '너'의 관심 또한 요구하는 것이다.

[문학-고전시가]

<제망매가>

1. 정답 ③

[정답풀이] '차힐이건'을 '머뭇거리고'로 본다면 화자가 삶에 대해 미련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의 '자고'로 본다면 화자가 죽음을 영원한 잠으로 생각하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은 음차 해독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이다. ② ㉠과 같이 풀이함으로써 화자가 1~4행에서 갑자기 맞이한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④ ㉠과 ㉡은 모두 음차의 예를 보여 주는 것이다. ⑤ ㉠과 ㉡은 모두 여러 해독 중 하나로, 어느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뒤편에 동난지이 사오 ~>

2. 정답 ⑤

[정답풀이] 화자 2의 첫 번째 말에서 '웨논다(외치느냐)', 두 번째 말에서 '웨지(외치지)'의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공감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이나 불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 1(상인)은 '동난지이'라는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물건에 대한 상대방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② (다)의 초장에서 화자 2는 화자 1의 말을 들은 후에 '내 황후 그 무서시라 웨논다'라며 되묻고 있다. ③ (다)의 중장이 화자 1의 두 번째 말인데, 여기서는 게의 모양, 동작, 게젓을 먹을 때의 소리 등을 장황하게 나열하며 묘사하고 있다. ④ (다)의 중장이 화자 2의 두 번째 말인데, 게젓이라고 말하라는 지적 사항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추장에 밤이 드니 ~ / 냇가에 헤오라바 ~>

3. 정답 ②

[정답풀이] (가)의 화자는 고기를 잡으려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므로 '아니 무노미라'는 낚시에 고기가 걸리지 않는 상황을 전달한 것이지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나)의 헤오라기가 냇가에 '서' 있는 것도 고기를 잡으려고 엿보는 것이므로 목적이 정해진 행위이지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가)의 '드리치니'는 한가롭게 낚시를 즐기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반드시 고기를 잡겠다는 화자의 심리가 반영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나)의 '여어'는 헤오라기가 고기를 잡기 위해 냇가에 서서 호시탐탐 기회를 얻으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무심흔'과 (나)의 '무심흔'은 모두 화자의 감정을 투영한 것으로, 무욕(無慾)의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가)의 '빈 비'는 낚시를 드리웠으나 고기가 물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나)의 '니저신들'은 화자가 헤오라기에 대해 고기를 잡을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의 '추강'은 여유와 한정(閑情)을 느낄 수 있는 탈속적인 공간적 배경이나, (나)의 '냇가'는 헤오라기가 고기를 잡으려고 엿보는 공간적 배경으로, 속세를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공간적 배경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장소로 볼 수 있다.

<서검을 못 일우고 ~ / 안빈을 염치 말아 ~ / 서방님 뵈들여 두고 ~>

4. 정답 ⑤

[정답풀이] 시적 공간을 여염집과 시장으로 삼은 것은 세속의 삶을 긍정하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에서 현실과의 조화를 꾀했기 때문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풀이] ① [A]의 초장은 문과 무 어느 쪽에서도 출세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② [A]의 중장은 현실에서 느낀 괴로움을 자연에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③ [B]의 중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④ [C]의 초장과 중장은 일상의 여성을 관찰하여 묘사한 것으로, 이는 시정인에 대한 김수장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누항사>

5. 정답 ⑤

[정답풀이] 실제 역사 속 인물의 구체적 삶을 통해 인간의 삶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라는 가난하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해서 백 년을 사는 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독자들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원헌’과 ‘석승’ 등의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 상황으로 전환하고 있지는 않다. “~백년 살라.”와 같은 설의적 표현과 “~몇 해 살았나.”와 같은 의문형 표기만으로 대화상황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② <보기>의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새로운 공간이 더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보기>의 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질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단서라고 하기에는 상황과 맥락에 적절하지 않고, 또한 인물간의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6. 정답 ③

[정답풀이] ㉔에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자포자기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따라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화자의 고뇌가 담겨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㉔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화자가 농사를 짓기 위해 직접 소를 빌리러 가서 한 말이므로, 화자가 자신의 문제를 현실 속에서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② ㉔은 소 빌리기가 좌절된 상황에서 실망감에 젖어 돌아오는 화자의 처량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④ ㉔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현실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화자가 자연으로 눈을 돌려 안빈낙도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⑤ ㉔에서 ‘빈이무원’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애에 대해 ‘설은 뜻’이 없다고 한 것은 화자가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며 안빈낙도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상춘곡>

7. 정답 ④

[정답풀이] [A]에는 꽃 피고 새 우는 봄의 정경 속에서 흥에 겨운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어 흥겨움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반해 <보기>에는 눈이 녹아 푸른색을 되찾아가는 봄의 풍경과 달리 늙음을 탄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어 서글프게 느껴진다.

8. 정답 ③

[정답풀이]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자스라’로 보아, 화자는 이웃들과의 교감을 통해 자연 친화와 안분지족의 태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정경에서 공명을 누렸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흥진’은 번거롭고 속된 세계를 비유하는 말로, 화자가 세속적인 세계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수간모옥’은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주변에 ‘벽계수’와 ‘송죽’이 어우러져, 자연을 즐기고 몰입하는 ‘풍월주인’으로서의 화자의 모습을 돋보이게 한다. ④ ‘시냇가’에서 화자는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고, ‘무릉이 갓갑도다’라고 함으로써, 이곳이 선계(仙界)와 가까운 곳이라는 생각을 드러낸다. ⑤ ‘봉두’에 오

른 화자는 ‘천춘만락’과 봄빛에 물든 ‘들’을 내려다보며, ‘공명도 날 띄우고 부귀도 날 띄우니’라고 말함으로써, 공명과 부귀로부터 떨어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개를 여라몬이나 기르되 ~>

9. 정답 ④

[정답풀이] (다)의 화자는 임이 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임(기다림의 대상)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이 작품을 지은 것이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을 찾아가겠다는 각오를 드러내기 위해 이 작품을 지은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㉔에서 화자는 알미움을 느끼는 개의 행동을 ‘해해, 버둥버둥, 캡캡’ 등의 다양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㉔에서 화자는 오지 않는 임을 그리워하다가 지쳐 원망하고 있다. 즉 임에 대한 애정과 원망이 섞인 미묘하고 복합적인 심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③ ㉔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화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임이 오지 않는 것이다. 만약 임이 찾아와 화자를 만난다면 이러한 상황은 해소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⑤ 화자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임 때문에 발생한 원망을 개에게 전가하고 있다. 즉 개는 일종의 화풀이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소춘향가>

10. 정답 ④

[정답풀이] 이 글에 명암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우는 눈물 받아 내면 배도 타고 가련마는’은 이 도령과의 이별로 수심에 젖은 춘향의 처지를 부각하는 과장된 표현이다. ② ‘대 심어 올하고 술 심어 정자라’, ‘동편에 연당이요 서편에 우물이라’ 등 대구의 방식을 통해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③ ‘긴 버들 휘늘어진 늙은 장승 광풍에 흥을 겨워 우쭐우쭐 춤을 추니’는 버드나무와 큰 소나무를 의인화하여 생동감을 주는 표현이다. ⑤ ‘너는 어떤 계집이건대 ~이느냐’, ‘어이 -가(는)고’ 등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1. 정답 ⑤

[정답풀이] [C]에서 춘향은 이 도령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이 도령에 대한 원망의 심정을 진솔하게 토로하고 있다. [C]에서 춘향이 이 도령과의 추억을 직접적으로 떠올리는 내용은 찾을 수 없고, 힘겨운 현실을 견디려는 태도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화자가 ‘춘향의 거동 보아라’라고 시작하고 있으며, 이어진 ‘오른손으로 일팔을 가리고 / 왼손 높이 들어’는 화자가 춘향의 동작을 묘사하는 것이다. ② ‘대 심어 올하고 ~ 서편에 우물이라’는 춘향의 집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빠다귀를 다 녹인다’, ‘장부의 간장을 다 녹이느냐’ 등의 표현을 통해 이 도령이 춘향에게 관심을 보이며 춘향의 매력에 빠져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지척동방 천 리라고 어이 그리 못 오던가’에서 춘향이 이 도령이 떠난 후 홀로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일월무정 덧없도다 옥빈홍안이 공로로다’에서 춘향이 세월의 무상함을 탄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발 갈아 기움매고 ~>

12. 정답 ⑤

[정답풀이] 「어사용」의 화자는 이런저런 고통을 겪으며 ‘가자 가자 집을 가자’라고 하면서 귀가를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지만, 윗글의 나무꾼은 ‘콧노래에 졸다가’, ‘어깨를 추키면서 긴소리 짧은소리’까지 하는 여유로운 모습으로 귀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귀가를 꺼리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집에 농사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어사용」에서는 화자가 ‘고대광실 높은 집에 부귀공명’을 누리는 사람에 대한 부러움과 자신의 삶에 대한 신세 한탄이 드러나 있어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윗글의 나무꾼은 ‘콧노래에 졸다가’, ‘어깨를 추키면서 긴소리 짧은소리’까지 하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어사용」에서는 ‘이내 팔자 무삼 죄’라는 부분에서 고된 노동에 대한 힘겨움이 ‘다리 아파’와 ‘허리 아파’, ‘어이 갈꼬’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윗글에서는 종장에서 ‘낮’, ‘도끼’ 등의 도구와 ‘씻을 베거나 버히거니’의 행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③ 「어사용」은 노동에서 비롯되는 신세 한탄이 주를 이루는 데 반해, 윗글의 나무꾼은 노래를 즐기는 흥겨운 정서를 보여 주고 있다. ④ 「어사용」은 나무꾼으로 추정되는 화자가 자신의 생활과 정서를 고백하고 있는 어조인 데 반해, 윗글에서는 종장의 ‘하더라’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가 나무꾼을 관찰하여 그의 행위를 전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속미인곡>

13. 정답 ④

[정답풀이] ㉞은 ‘내가 지은 죄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과를 자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4. 정답 ③

[정답풀이] [C]에서 ‘구름’과 ‘안개’는 일차적으로 임의 소식을 막는 방해물들을 대표하는 소재로서, 임금과의 거리감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일월’이나 ‘천리’는 화자가 보고자 하는 대상이지 임금이 보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화자는 자신이 임을 믿고 교태를 부리기는 하였으나 군뜻이 없었다고 했다. <보기>의 내용으로 미루어 이는 자신의 행동이 임금을 향한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해명하는 작가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자신의 잘못이 산처럼 쌓여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이 조물주의 탓, 즉 운명에 의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임금과 이별한 상황에 대해서 작가가 자신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이를 운명으로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D]에서 화자는 꿈을 통해 임과 재회하지만, 닭 울음소리에 잠이 깬 후 허무감에 빠진다. 이는 현실에서 임금과 재회하고자 하는 작가의 욕망이 그만큼 실현되기 어려운 것임을 반영한 것이다. ⑤ [E]에서 화자는 차라리 죽은 후 ‘나월’이 되어 임과 함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죽음의 고통보다 임과 이별한 고통이 더 큼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금과 이별한 신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효과적으로 표현

하고 있다.

[문학-현대소설]

<달밤>

1. 정답 ④

[정답풀이] 수건이 참외 장사의 밀친을 대 준 ‘나’를 한 동안 찾아오지 않는 것은 참외 장사를 망쳤거나 아내가 도망간 사건 때문이지 ‘나’와의 이해관계를 따져 그런 것은 아니다. 이는 그가 ‘나’를 위해 포도를 가지고 온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에 따르면, 수건의 배달 시각이 늦었다는 점에서 일숨씨가 야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에 따르면, 수건은 날마다 사무실로 가서 무작정 조르는 것으로 급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어리석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③ ㉢에서 우두에 대한 수건의 황당한 말을 계속 듣고 고마움까지 표시한 것은 ‘나’가 수건에게 선의의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⑤ ㉤에서 계속되는 실패와 동서의 괴로움으로 금실이 좋았던 아내마저 도망가게 되는 수건의 삶은 연민을 자아낸다.

2. 정답 ②

[정답풀이] [A]에서 ‘불빛 없는’ 길은 밝은 달빛을 부각하고, <보기>에서 ‘찢름거리며’ 걷는 길은 황 서방의 불행한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이를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에서 ‘나’는 수건이 무안하지 않도록 말을 걸지 않으며, <보기>에서 권 서방은 멍하니 선 황 서방에게 말을 건네며 그의 고통에 마음을 쓰고 있다. ③ [A]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통해 수건의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무덤 쪽’을 보며 위치를 묻는 행위를 통해 황 서방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A]는 비단을 깐 듯한 밝은 달빛의 이미지를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보기>는 밤의 빗소리, 물소리, 개구리, 뿔소리, 날짐승 소리를 배치하여 아버지가 죽은 아이를 묻어야 하는 사건의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A]는 밝은 달이 뜬 밤을, <보기>는 아직 하늘이 밝아 오지 않는 밤을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암록강은 흐른다>

3. 정답 ⑤

[정답풀이] ‘많은 사람들은, 이 학교에서는 고등 산술이며 어려운 요술을 가르친다고 말’하며, ‘아이들을 망쳐 놓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에서 사람들이 ‘신학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신학문’에 대해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크다는 것을 표현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는 내 나이 열한 살에 비해 고전을 충분히 읽어 갈 수 있었다.’, ‘나는 한문이며 그 밖의 한시 읽기를 좋아하였다.’에서 ‘나’가 고전을 읽고 한문과 한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 학교에 가고 싶으나 물음에 ‘망쳐지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아 ‘새 학교’ 입학이 ‘나’에게 불안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나쁜 시대가 왔다고들 말한다. 그러면 너는 분명히 말해 줘라. 그

건 조금도 나쁜 시대가 아니고 새로운 시대이고, 그것은 갓 시작된 것이라고.’라는 용마의 말에서 용마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당대 현실의 변화를 ‘새로운 시대’로 생각한 것을 알 수 있다. ③ 사람들이 새 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망쳐 놓을까 봐 두려워’한 것과 달리 ‘나’의 아버지는 ‘이 학교에 관해서 훨씬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더 좋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④ 새 학교에 가고 싶으나 물음에 ‘나는 별로 유쾌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기>에서 말한 ‘나’의 불안과 긴장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카인의 후에>

4. 정답 ⑤

[정답풀이] 박훈이 죄인으로 지목된 것은 도첩 영감 때문이 아니라 토지개혁으로 인한 것이며, 도첩 영감은 이러한 시대 흐름을 따르기 위해 박훈과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 따라서 도첩 영감이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박훈을 죄인으로 지목하였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국가 권력이 폭력적으로 사회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박훈은 잠재적 죄인으로 지목되는데, 오작녀는 도첩 영감과 달리 여전히 박훈의 편을 들고 있다. 이러한 오작녀의 행동은 박훈과의 이전 관계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도첩 영감은 일제 강점기에는 박훈네 토지를 관리하는 마름으로 웬만한 지주 못지않게 잘살아 왔으나, 토지 개혁을 하면서 박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이를 통해 도첩 영감이 자신의 이익을 좇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일제 강점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③ 오작녀는 박훈을 대하는 도첩 영감의 태도 변화에 불만이 있으며, 이를 어머니에게 드러낸다. 오작녀 어머니는 오작녀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남편이 나타난 느낌이 들자 오작녀의 팔을 붙들며 말을 멈추게 한다. 그리고 남편에게 낯빛을 눈치채이지 않으려 하는데, 이러한 오작녀 어머니의 행동에서 그녀가 오작녀와 도첩 영감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토지 개혁으로 인해 박훈은 잠재적 죄인으로 지목된 상황이다. 송덕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도첩 영감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때문에 송덕비는 도첩 영감과 박훈의 집안이 친밀했던 과거를 환기하는 것이며, 이를 도끼로 후려친 것은 잠재적 죄인으로 박훈을 지목하는 당시 시대 흐름을 따르고 싶어 하는 도첩 영감의 심리가 반영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제3인간형>

5. 정답 ④

[정답풀이] 석은 조운의 이야기를 들은 후 조운이 아닌 미이에게 충격을 받는다. 그것은 사변이라는 격동 속에서 교사로 적당히 살아가던 자신에게 사변을 통해 군세 어지고 올바른 사람이 된 미이의 삶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운의 삶이 자신에게 우유부단함을 버릴 것에 대해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석은 글을 쓰고 싶지만 교편을 잡음으로써 일정한 수입이 약속되는 것을 대견해한다. 따라서 ‘일정한 수입’은 교편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② 삼 년 동안 정신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었다

는 조운의 고백에서 조운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던 가치들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부류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미이는 사명을 찾는 길을 가기 위해 간호 장교를 선택하는데, 이를 통해 미이가 전쟁을 계기로 가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석은 자신은 조운처럼 사명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미이처럼 사명에 충실한 것도 아니라며, 자신은 어떤 타입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이를 통해 석이 두 부류에 속하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이며, 자신의 우유부단한 삶을 부끄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1964년 겨울>

6. 정답 ⑤

[정답풀이] ‘안’과 ‘나’는 스물다섯 살이라는 젊은 나이지만, 고독한 ‘사내’를 죽음에 이르도록 방임한다. 서로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은 자신이 늙어 버렸다고 느끼는 ‘안’과 그들의 젊은 나이를 비교하여 보여 주는 것으로, 이후 그들은 단절된 관계를 극복하지 않은 채 헤어진다. 따라서 그들이 서로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은 단절된 관계의 극복을 시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나’는 ‘사내’를 생각해서 한방에 들자고 제안하지만 이를 끝까지 관찰하려 하지 않고 ‘안’의 제안을 수용한다. 이는 ‘나’가 ‘사내’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관자적 태도를 지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② 혼자 있기 싫다는 ‘사내’에게 ‘안’은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라며 방을 따로 잡는데 이것은 ‘사내’를 생각하지 않는 ‘안’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를 통해 현대인의 이기적인 면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혼자 있던 ‘사내’는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데, 이는 소외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고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④ 하룻밤을 알고 지낸 사이임에도 ‘사내’의 죽음을 확인한 후 ‘시끄럽지 않기 위해 도망을 가는 ‘나’와 ‘안’의 모습에서 이들 세 사람의 관계가 피상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눈이 오면>

7. 정답 ①

[정답풀이] ‘그’는 꼬두메를 가기로 결정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지난 삶을 떠올리며, 어머니와 꼬두메를 향해 가면서 꼬두메에서 있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의 내면을 좇아 그의 과거와 현재를 서술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그’는 어머니와 꼬두메에서 지내다 서울로 왔고, 어머니에게 다시 꼬두메로 가자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인물의 공간 이동은 보여 주고 있으나, 이러한 이동이 생긴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③ 어머니의 발소리에 아버지를 생각한 ‘그’는 어머니에게 꼬두메로 가자고 하고, 아내는 막무가내로 꼬두메에 가려는 ‘그’를 보며 울음을 터뜨리지만 ‘그’는 아내를 설득한다. 따라서 ‘그’와 아내 사이에 잠깐 갈등이 형성되지만 이는 금세 해결되므로 세 인물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 글은 전지적 서술자가 ‘그’의 시각에서 ‘어머니’와 ‘아내’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므로 인물들 각각의 입장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보여 주고 있기는 하지만, 서술자가 ‘그’의 시각에서 주변 인물들과 사건을 관찰하고 추측하고 있기 때

문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8. 정답 ②

[정답풀이] ‘헌 사과 껍질’에 ‘상추씨’를 뿌려 가꾸다가 그만두었던 어머니의 상황은 어머니가 서울에서도 고향을 잊지 않았다는 것과 그들이 서울에서도 어렵게 살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꼬두메와 거리를 두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서울에서 십 년이 넘도록 살아왔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어머니에게 꼬두메와 거리를 두고 살아야 했던 서울 생활은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③ ‘그’는 반복되는 ‘어머니의 발소리’에서 어느 순간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의 무덤’으로 생각이 이어지면서 어머니에게 꼬두메로 당장 가자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를 떠올린 것은 ‘그’가 어머니를 모시고 꼬두메로 가야겠다고 결정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④ ‘아버지의 무덤’을 잊은 적이 없으나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무덤’에 대한 말을 꺼내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자 ‘그’는 꼬두메로 당장 가자고 결정한다. 따라서 꼬두메로 가자는 ‘그’의 생각이 강렬해진 것은, 자신은 잊고 살았던 ‘아버지의 무덤’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가능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서울에 온 지 십삼 년이 넘도록 ‘아버지의 무덤’에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다는 것에서 ‘그’의 서울 생활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정서적으로 결핍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 동네 황 씨>

9. 정답 ⑤

[정답풀이] 동네 아이들에게 애벌레 따기를 시킨 사람은 면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장이다. 또한 이것은 민관 사이의 불신 풍조와 관련되었다기보다는 탁상행정에서 시달리는 농민들의 모습을 부각하는 장면에 해당하는다.

[오답풀이] ① 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촌의 집집마다 TV가 들어온 후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문을 걸어 닫게 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보기>에서 설명하는 시대 상황의 변화로 인한 농촌 사회의 변화 양태를 보여 주고 있다. ② 한마을에 살면서도 마을 사람들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인물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 정신과 같은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농촌 사회에도 물질 만능주의적인 행태가 생겨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③ 산업화의 양상이 농촌에 전파되면서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세상이 되었지만, 농민들에게는 농민을 속이지 않는 땅이 있음을 강조하는 모습을 통해 농토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농촌 사회를 지탱한 근본적인 토대가 무엇인지 보여 주고 있다. ④ 한 우물 길어 먹는 이웃의 얼굴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마을 사람들의 만남이 줄어든 현실을 통해 TV 보급 이후 동네에 일이 생겨도 일삼아 가 보지 않으면 얼굴을 내밀지 않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마을 사람들 간의 소통이 약화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조동관 약전>

10. 정답 ②

[정답풀이] 평범한 인물이었던 ‘동관’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똥관’이라고 칭하게 된 모습을 통해 <보기>에서

언급한 의도와 상관없이 대상에 대한 정보가 군중 사이에 교환되고 이에 따라 평판이 형성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정보량에 의해 평판이 은폐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평범한 인물이었던 ‘동관’이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수다한 사연을 통해 은척을 사람들에게 ‘똥관’이라고 불리게 된 모습을 통해, <보기>에서 언급한 평판이 어떤 원인에 의해 생성되고 축적된 결과물에 대한 타인의 시선과 관련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평범한 인물이었던 ‘동관’이 ‘똥관’으로 불리게 되고 그런 그의 행적이 읍내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회자되는 모습을 통해, <보기>에서 언급한 다수의 인식에 의해 형성된 평판이 결과적으로 군중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평범한 인물이었던 ‘동관’이 읍내 사람들에 의해 ‘똥관’으로 불리고, 결국 사람들이 그를 ‘동관’이 아닌 ‘똥관’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통해, <보기>에서 언급한 평판이 본질과 다른 타인의 시선에 비친 누군가의 모습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그럴싸한 자호’도 없는 평범한 ‘조동관’을 읍내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른 비범한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보기>에서 언급한 다수의 사람들의 정보 교환 과정에서 누군가에 대한 평판이 원래 모습과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학-고전소설]

<국선생전>

1. 정답 ③

[정답풀이] ‘유영’, ‘도잠’과 같은 중국의 실존 인물이 글에 등장하고는 있으나, 중국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여 사대주의 사상을 엄중하게 풍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서는 ‘성’의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② 이 글은 술을 ‘성’이라는 인물로 의인화한 가전체로, 신하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④ 중산의 ‘유영’, 심양의 ‘도잠’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다. 이들의 이름을 작중에 언급해 작품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⑤ 이 글은 ‘성’의 가계와 행적이 제시된 후 사신의 논평이 덧붙여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조웅전>

2. 정답 ③

[정답풀이] 조웅은 위왕을 도와 서번을 격퇴한 후 태자를 구하기 위해 홀로 계량도로 간다. 따라서 위왕과 함께 계량도로 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태자는 ‘여덟 살 때에 서로 보고 이제야 다시 보니’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태자는 조웅과 이전에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위왕은 ‘대국 소식을 대강 설화하라.’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위왕은 송 황실이 이두병에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이두병이 계량도에 유배된 태자에게 사약을 내림과 동시에 함께 내려와 있는 송 황실의 충신들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아 일부 신하들이 태자와 함께 계량도에 내려와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태자는 조웅에게

‘명일 진시에 사약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다. 이는 이두병이 명일 자신에게 사약을 내릴 것임을 알고 있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3. 정답 ④

[정답풀이] 이두병은 황제의 자리를 빼앗은 후 송 태자를 계량도에 유배 보내는데, 이두병이 황제의 자리를 빼앗은 것 자체가 봉건적 지배 질서에 닥친 위기이므로 중심부와 주변부의 차별화를 통해 봉건적 지배 질서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조웅으로부터 송 황실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하는 것으로 보아 위왕은 송 황실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 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조웅 역시 유배된 송 태자를 구하고 이두병을 물리치려 한다는 점에서 송 황실을 중심으로 한 지배 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이두병은 송 황실의 신하였으나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송 황실을 무너뜨린다. 이는 송 황실을 중심으로 한 지배 질서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두병은 송 황실을 무너뜨리고 황제의 자리를 빼앗은 인물인데, 이런 인물을 악인으로 설정한 것은 송 황실을 중심으로 한 봉건적 지배 질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송나라 태자가 이두병에 의해 황제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위왕은 사배 통곡하였으며, 이 모습에 서술자는 충성이 거룩하다는 평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송나라 태자와 위왕은 수직적 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다.

<화산증봉기>

4. 정답 ①

[정답풀이] 선옥은 부인 이 씨와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 자신이 왜 집을 나갔으며 그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 과거의 내력이 뒤늦게 밝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배경 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④ 이 글에서는 송사 장면이 주가 될 뿐, 비현실적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우의적 소재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5. 정답 ④

[정답풀이] 첫 번째 사건에서의 ㉠은 두 번째 사건에서 진짜 선옥과 가짜 선옥이 가려진 후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므로 첫 번째 사건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사건 역시 해결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첫 번째 사건에서 선옥이 이 씨의 방에서 남자의 복장을 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이 씨를 오해하여 가출을 감행하는데, 이것이 진가쟁주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② 첫 번째 사건에서 선옥은 이 씨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 반면 두 번째 사건에서는 팔촌 형인 형옥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가짜 선옥이 등장하여 진짜와 같이 행동한다. ③ 두 번째 사건에서 이 씨는 진짜 선옥의 앞니에 푸른 점이 있다는 것을 토대로 진실이 감춰졌다는 의심을 한다. 이를 통해 가짜 선옥의 존재를 밝히게 된다. ⑤ 어사는 두 번째 사건, 즉 진짜 선옥과 가짜 선옥을 구별하는 일이 해결된 후 선옥에게 가출한 이유를

말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로 인해 첫 번째 사건과 관련된 일이 밝혀지게 된다.

<홍보가>

6. 정답 ⑤

[정답풀이] ‘은금보화’란 금, 은, 옥, 진주 따위의 귀중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이를 의식주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홍보가 돈 꾸러미를 손에 들고 춤을 추는 장면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 기쁨을 표현한 것으로, 서민들은 이 장면을 통해 자신들의 소망이 대리 만족되는 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② 과거 남의 집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해서 연명했던 홍보의 모습을 통해 그가 당시 가난한 서민들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③ 홍보가 가난한 이웃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굶주린 백성을 먹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홍보네 가족이 밖에서 쌀이 나오자 기뻐하며 쌀을 열한 섬이나 해서 밥을 먹는 장면은, 당시 의식주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해 굶주린 서민들의 궁핍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7. 정답 ⑤

[정답풀이] 홍보 배를 누르자 똥 줄기가 나와 운봉 연재를 넘는 장면과 그것을 황룡인 줄 착각하고 절을 하는 농군들의 모습은 수용자가 예상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결말로써 ‘구조 무너뜨리기’에 해당한다. 이 장면은 수용자의 긴장감을 이완시키면서 웃음을 유발한다.

[오답풀이] ① 홍보 부인이 밥 먹다 쓰러진 홍보를 보고 놀라서 소리 지르는 장면은 재담을 위한 이야기 구조가 만들어지는 단계로, 긴장감이 상승한다. ② 홍보 부인이 큰아들을 나무라고 큰아들이 말대꾸를 하는 장면은 수용자에게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예상하게 하고 긴장감을 고조시키므로 ‘구조 만들기’에 해당한다. ③ 홍보 마누라가 첫째 아들에게 호통치는 장면은 긴장감을 더욱 고조하고 갈등 상황에 대한 수용자들의 기대치를 상승시키므로 이는 ‘구조 만들기’에 해당한다. 이 장면에서 수용자들은 일반적인 인과 관계에 의해서 결말을 예상하게 된다. ④ 홍보 자식들이 홍보의 뱃가죽을 텅기며 노는 장면은 수용자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방식의 이야기 진행이므로 기대치가 무너지면서 웃음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이는 ‘구조 무너뜨리기’에 해당한다.

<황새결승>

8. 정답 ③

[정답풀이] ‘방안 모색’은 송사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나)에서 부자가 절통한 심사를 건디지 못하여 친척이 속히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송사에서 이기기 위한 방안 모색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친척이 부자에게 재산의 반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인해 송사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를 ‘사건의 발생’으로 볼 수 있다. ② ‘제소’란 소송을 제기하는 일로, (가)에서 부자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형조에 고하는 것은 ‘제소’에 해당한다. ④ 일반적인 ‘판결’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보상을 받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만, 이 소설에서는 가해자인 친척이 판결에서 승소하므로 일반적인 ‘판결’과 차이점이 있다. ⑤ (다)에서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형조 관원들이 부끄러워하는데, 이

는 너물에 의해서 송사가 좌우되는 잘못된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을 포함하는 동시에 잘못된 판결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장치에 해당한다.

<하생기우전>

9. 정답 ④

[정답풀이] 하생이 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와 가슴을 치고 속을 태운 것은 여인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글을 통해 여인이 실제로 다른 가문과의 결연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오답풀이] ① 하생의 집안에 대해 물은 것으로 보아, 시중은 남녀의 결연에 있어 가문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②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까 걱정하는 것으로 보아, 하생의 인간됨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중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부인이 시중이 결정할 문제라며 자신이 어찌 나서겠느냐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부인은 집안의 중요한 결정에 아녀자가 나서지 않는다는 남성 중심적 사고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⑤ 부모가 하생의 마음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인은 병들었다며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다. 이는 하생과의 결연을 무산시키려 드는 부모에 대해 여인이 거역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열녀춘향수절가>

10. 정답 ③

[정답풀이] 이 글이 ‘나 죽을 꿈 아니오.’ 등의 말로 인물의 심리적 태도나 해몽을 부탁하는 동기가 <보기>에 비해 더 명확하다. 하지만 <보기> 또한 화자의 인식이 함축되어 있는 ‘천명도 무상함’이라는 표현이나 ‘장대 거울 깨어지니 소리 어찌 없겠으며’와 같은 ‘맹인’의 전언 등을 통해 해몽을 부탁한 동기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인물의 심리도 불안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기가 은폐되거나 인물의 심리에 대해 의구심이 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는 꿈에 대한 해몽만이 언급되어 있지만 이 글에는 까마귀 울음소리에 대한 풀이가 추가되고 있는데, 봉사의 풀이는 모두 춘향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으로 위기감을 완화해 주는 요소로 볼 수 있다. ② 이 글은 <보기>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귀신의 소리와 형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춘향이 두려움을 느끼는 사정과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④ 이 글은 외부 서술자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반면 <보기>는 춘향이 작품 속 화자가 되어 맹인의 말과 행동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난 일을 전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자인 춘향의 정서는 절제되어 나타나고 있다. ⑤ 인물이 꿈의 분위기와 상반되는 꿈풀이는 인물이 느끼는 불안감과 함께 앞날의 사건 전개에 대한 비판적 전망과 낙관적 기대가 교차하는 상황에 대한 고뇌를 나란히 제시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웅고집전>

11. 정답 ④

[정답풀이] <보기>에는 신명의 도움을 기도해 보라는 유연의 요청은 있지만, 초월적인 존재가 등장하여 갈등

을 중재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는 참옹가가 재산을 빼앗기는 장면이, <보기>에는 유연이 재산으로 인해 무고를 당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② 이 글에서는 참옹가 앞에 헛옹가가 나타남으로써, <보기>에서는 유연의 형이라고 사칭하는 자가 등장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③ 이 글에서는 헛옹가가 송사에서 승소하였으며, <보기>에서는 유연이 무고로 인하여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있다. ⑤ 이 글에는 짚이 사람으로 변하는 이야기 요소가 나타나 있는 반면, <보기>에는 변신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문학-수필]

1. 정답 ⑤

[정답풀이]

⑤ ‘당신’은 ‘지향점을 잃은 물’이기 때문에 바다보다 강물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바다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이며 가장 평화로운 물’이기 때문에 강물은 바다에 이르러서야 그 본성을 찾은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물의 속성에 기초하여 바다는 하늘로 도약하여 흰 구름으로 승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바다가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임을 밝히고 있을 뿐 ‘평화의 세계’가 도래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 등장하는 ‘당신’은 ‘바다보다는 강을 더 좋아’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강물은 지향하는 목표가 있는 반면 바다는 지향점을 잃은 물이라는 것’이 그 이유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는 ‘한강 하구’에 서서 ‘당신’의 강물을 생각하며 ‘당신’의 생각을 긍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합수하여 강이 여정을 마치고 바다가 되는 ‘철산리 언덕’에서 강물과 바다에 대한 ‘나’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③ ‘나’는 바다를 ‘평화의 세계’에, 강물을 ‘고난의 시절’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삼국이 수없이 싸웠던 전장이었던 한강과 임진강·예강 유역이 오늘날에는 휴전선으로 분단되어 있는 민족의 역사적 체험을 ‘당신’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④ ‘나’는 ‘당신’이 좋아하는 ‘지향하는 목표가 있는’ 강물의 ‘치열함’이 ‘험준한 계곡과 가파른 땅’이라는 외부적 조건에서 비롯한 것임을 밝히면서 ‘강물의 본성은 오히려 보다 낮은 곳을 지향하는 겸손과 평화’라고 언급하고 있다.

2. 정답 ①

[정답풀이]

① (나)는 글의 끝부분에 글을 쓴 동기를 밝히고 있다. ‘비웃는 자’는 ‘친’이 말한 ‘시숙의 기호’를 좇는 자들이고, 글쓴이는 이들이 ‘친’을 비웃는 것에 대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의론을 펼치며 의심을 풀게 하고 있다. 민중의 삶이나 주변 경관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② ‘나’의 의론 중 ‘오늘날의 시대’를 비판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③ ‘친’의 의론은 물론이고 의론이 다른 ‘사람들’의 말까

지 담아내고 있다.

④ ‘친’의 불평등에 대한 역설적이고 뚜렷한 주장은 글 쓰이의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글쓰기의 소재가 <보기>의 산문정신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오늘날의 시대’를 ‘그들의 시대’보다 문제시하는 관점이 나타나고 있다.

어 있으므로 소년이 뛰는 것은 소녀가 죽은 현실을 잊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⑤ ‘장면 1’부터 ‘장면 9’까지는 소녀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객들이 시간이 연속되는 것으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장면 10’은 소녀의 장례가 모두 끝난 후의 상황이므로 앞의 장면들과 시간 간격이 좀 있도록 촬영해도 자연스럽다.

[문학-극문학]

1. 정답 ③

[정답풀이]

③ 이 글에서는 ‘오호라! 나라의 흥망이 겨우 만 냥 돈에 달렸구나!’를 통해 허 생원이, <보기>에서는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를 통해 허생이 조선 사회의 경제적 문제점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서는 과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강 선달과 역쇠라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

② 이 글의 ‘선혜청 당상은 정일품으로 그 소임의 막중함이 영의정에 버금가는 자리로서 ~ 그대의 소행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오?’에서 허 생원은 <보기>의 허생과 달리 관리로서의 박몽인의 잘못을 날날이 고하며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보기>에서는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यो, 삼남의 길목’이라는 지리적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허생의 매점 행위에 대한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⑤ <보기>의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를 통해, 이 글과 달리 <보기>에서는 상인들이 허생의 과일을 비싼 값에 되사갔음을 알 수 있다.

2. 정답 ①

[정답풀이]

① ‘장면 1’과 ‘장면 2’ 사이에 F.O.(페이드아웃)가 이루어지지만, ‘장면 1’과 ‘장면 2’부터의 시간적 배경이 서로 다른 날은 아니다. ‘장면 1~9’는 이어지는 시간으로, ‘장면 1, 2’는 같은 날이고 ‘장면 3~9’는 그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장면 1, 2’가 같은 날인 것은 아빠의 대사 중에서 ‘이따가 저녁 먹기 전에 한 번 더 가 볼 참이야.’를 통해 유추할 수 있고, ‘장면 3~9’는 ‘장면 3’ 첫 부분의 ‘다음 날 아침’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장면 3’과 ‘장면 4’는 소년의 집과 소녀의 집으로 공간이 달라졌고, 이는 소년이 소녀의 집으로 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영화에서 공간을 이동하는 장면을 생략하는 것은 흔히 쓰이는 방식이며, 관객들도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므로 적절하다.

③ ‘장면 5’는 ‘장면 6’이 없어도 ‘장면 7’로 바로 이어진다. 여기에 ‘장면 6’을 삽입한 것은 화면이 재생될 때를 고려해 보면, ‘장면 5’에서 ‘장면 7’로 이어지는 시간에 ‘장면 6’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장면 9’는 ‘장면 8’의 아빠의 마지막 말에 따른 행동이므로 시간적으로는 ‘장면 8’에 연속된다. 그리고 ‘장면 5’와 ‘장면 9’ 모두에 ‘뭔가를 잊으려고’가 똑같이 제시되